



서포터즈

1815-1846

진리의 표준

성도들

후기의
예수 그리스도 교회
이야기

성도들

후기의
예수 그리스도 교회
이야기

제1권

진리의 표준

1815~1846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발행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 2018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Version 1, 8/18

영어 승인: 1/18

번역 승인: 1/18

*Saints: The Story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in the Latter Days, Volume 1, The Standard of Truth, 1815–1846*의 번역

Korean. PD60001624 320

Copyright © 2018 by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서면 허가 없이는 어떤 형태나 수단으로도 이 책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할 수 없음. 더 자세한 정보는 permissions@ldschurch.org로 문의한다.

saints.lds.org

표지 그림: 그레그 뉴볼드

표지 디자인 및 본문 레이아웃: 페트릭 거버



진리의 표준이 세워졌습니다. 그 어떤 신성하지 못한
손도 이 사업이 전진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박해가
격렬해지고 폭도들이 결탁하며, 군대가 집합하고 중상모략이
빚발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는 담대하고 고결하고
고고하게 전진하여, 모든 대륙으로 나아가고, 모든 지역으로
퍼지며, 모든 나라를 휩쓸고 모든 귀에 울릴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될 것이며, 위대하신
여호와께서 이 사업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조셉 스미스, 1842년

도움을 준 사람들

성도들

후기의 예수 그리스도 교회 이야기

교회 역사가 겸 기록자
교회 역사부 집행 책임자
스티븐 이 스노우 장로

교회 역사부 집행 책임자 보조
제이 데븐 코니쉬 장로

교회 역사가 겸 기록자 보조
교회 역사부 관리 책임자
리드 엘 닐슨

출판과 대표
매튜 제이 그로

총괄 역사가
스티븐 시 하퍼

저작물 관리자
벤 엘리스 고드프리

디지털 내용 관리자
매튜 에스 맥브라이드

편집 관리자
네이션 엔 웨이트

제1권
진리의 표준
1815~1846년

편집장

매튜 제이 그로
리처드 이 텔리 이세
스티븐 시 하퍼
스콧 에이 헤일즈

집필

스콧 에이 헤일즈
제임스 골드버그
멜리사 레일라니 라슨
엘리자베스 파머 마키
스티븐 시 하퍼
셰릴린 판스

역사 검토 편집

제드 엘 우드워스
리사 올슨 테이트

편집

레슬리 셔먼 에징턴
네이션 앤 웨이트

전문 조사

캐스린 번사이드
채드 오 폴저
브라이언 디 리브스

목 차

제일회장단 메시지	xv
서문	xvii

제1부: 나의 종 조셉, 1815년 4월~1830년 4월

1 믿음으로 구하고	3
2 그의 말을 들으라	14
3 금판	20
4 깨어 있으라	31
5 모든 것을 잃다	43
6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으로	54
7 동역자 된 종들	65
8 그리스도의 교회, 일어나다	76

제2부: 신앙의 집, 1830년 4월~1836년 4월

9 죽든지 살든지	89
10 모이다	102
11 나의 율법을 받으라	114
12 많은 환난 후에	125
13 은사가 돌아오다	136
14 시현과 악몽들	146
15 거룩한 곳	158
16 서막에 불과할 뿐	171
17 폭도들에게 목숨을 잃을지라도	182
18 이스라엘 진영	194
19 성역을 위임받은 청지기들	207

20	나를 버리지 말아 줘	219
21	하나님의 영	232

**제3부: 깊은 물에 던져질지라도,
1836년 4월~1839년 4월**

22	주님을 시험하라	247
23	어떠한 댓이 놓일지라도	260
24	진리는 이거리	274
25	서쪽으로	286
26	거룩하고 성별된 땅	300
27	우리에게 자유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311
28	할 만큼 했기에	323
29	하나님과 자유	335
30	천사처럼 싸우라	347
31	어찌해야 이 상황이 끝이 날까요?	359
32	온 지옥 떨며 떨어뜨리려 하나	371
33	오 하나님이지여, 당신은 어디 계시나이까?	3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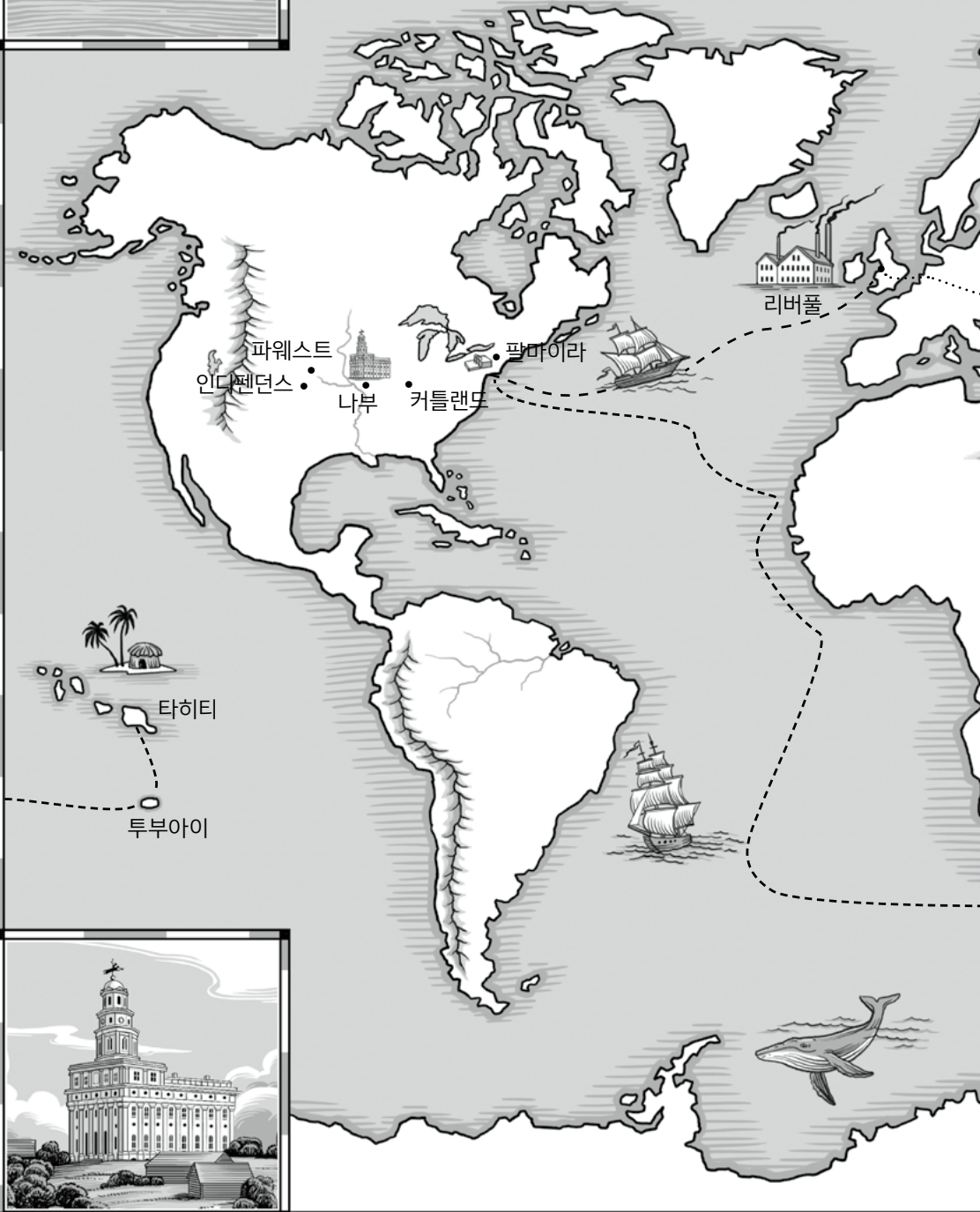
**제4부: 때가 찬 시대,
1839년 4월~1846년 2월**

34	도시를 세우라	399
35	아름다운 곳	415
36	그들이 집합하게 하소서	428
37	우리는 그들을 시험하여	442
38	반역자인지 참된 성도인지	456
39	일곱 번째 난관	469
40	영원한 성약 안에 하나 되어	481
41	하나님께서 심판자 되시니	494

42	어깨를 맞대고	509
43	사회적 골칫거리	521
44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537
45	전능한 기초	553
46	권능을 부여받아	569
	주	587
	출처 관련 유의 사항	659
	인용 출처	661
	감사의 글	683
	색인	684



진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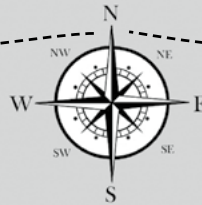
표준



• 예루살렘

타모라

- - 1837년 7월 - 영국 선교부
 - 1841년 10월 - 홀슨 하이드가 성지를 헌납하다
 - - - 1843년 5월 - 태평양 선교부
-
- 1815년 4월 10일 - 인도네시아 탐보라산 화산 폭발
 - 1827년 9월 22일 - 조셉이 금판을 받다
 - 1831년 7월 20일 - 미주리에 시온을 세우다
 - 1836년 3월 27일 - 키틀랜드 성전 헌납
 - 1846년 4월 30일 - 나부 성전 헌납



제 일 회 장 단 메 시 지

주님께서는 경전 곳곳에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물려받은 신앙과 헌신, 인내의 유산을 기억할 때, 우리 시대의 도전과 맞설 관점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 후기의 예수 그리스도 교회 이야기는 “주께서 사람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자비로우셨던가”(모로나이서 10:3) 기억하고자 하는 소망으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네 권의 총서 중 첫 번째 책으로, 과거 시대에 살았던 충실한 후기 성도들의 이야기를 서술한 역사입니다. 모든 분이 이 책을 읽고 온라인에 있는 보충 자료를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계속되고 있는 이 교회의 역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맡고 계십니다. 선조들이 세운 신앙의 토대 위에 자신의 신앙을 확립하고자 여러분이 기울이시는 모든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이시며, 그분의 복음은 오늘날 진리의 표준이 됨을 간증합니다. 주님은 조셉 스미스를 이 후기의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로 부르셨으며, 지금도 계속해서 살아 있는 선지자와 사도들을 부르시어 이 교회를 이끌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책을 통해 과거를 더 폭넓게 이해하고, 신앙을 강화하며, 승영과 영생으로 이어지는 성약을 맺고 지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진실한,
제일회장단

서문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는 제대로 전달되기만 한다면 영감과 경고, 즐거움과 가르침을 줄 수 있다. 유익한 이야기가 어떤 힘을 발휘하는지를 이해했던 브리검 영은 교회의 역사가들에게 과거의 사실을 단순히 무미건조하게 기록하지 말고 그 이상의 정성을 들여 쓰라고 권고했다. “이야기 형식으로, 10분의 1 정도만 쓰십시오.”

브리검 영의 권고에 따라, 교회 역사에 대한 독자들의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이야기로 풀어 쓴 역사서가 탄생하게 되었다. 각각의 장면과 인물, 대화는 역사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며, 인용된 자료의 출처는 이 책의 마지막에 나와 있다. 이 자료들을 읽고 관련 주제를 더 잘 이해하며 더 많은 이야기를 찾아보고 싶다면, saints.lds.org에서 온라인 추가 자료들을 볼 수 있다.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네 권의 총서 중 첫 번째 책이다. 이 각각의 책에는 교회 초창기부터 현재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가 서술되어 있다. 이 책은 마음을 사로잡는 문체로 쓰여 전 세계의 성도들이 쉽게 읽을 수 있다.

교회는 과거에 두 차례 여러 권으로 된 역사서를 출간했다. 첫 번째 역사서는 사실을 기록한 것으로, 1830년대에 조셉 스미스가 기록을 시작했으며 1842년부터 출판되었다. 두 번째 역사서는 교회 역사가 보조인 비 에이치 로버츠가 기록한 것으로, 1930년에 출판되었다.² 그 후, 회복된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진 이 시점에 주님께서 “교회의 유익[과] 일어나는 세대들[을 위해]”³ 역사를

계속 기록하라고 명하신 것은 바야흐로 더 많은 성도의 이야기가 교회의 역사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기존의 교회 역사서에 비해 성도들에는 교회의 평범한 회원인 남성과 여성들의 삶과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나타난다. 또한, 교회사에서 비교적 잘 알려진 인물과 사건에 관한 새로운 사실과 통찰이 상세히 서술되었다. 독자들은 각 장을 읽으며 오늘날의 교회를 이룩한 성도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감사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함께 하나로 엮임으로써 회복이라는 아름다운 용단을 만들어 낸다.

성도들은 경전은 아니지만, 경전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성도가 되고자 하는 불완전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거룩한 진리를 담고 있다.⁴ 과거와 현재의 모든 성도들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이야기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업을 진척하고자 세계 곳곳에서 동참하는 당신의 백성에게 얼마나 자비로우셨는지 일깨워 준다.

제1부



나의 종 조셉

1815년 4월~1830년 4월

땅의 주민들에게 임할 재앙을 알고 있는
나 주는 나의 종 조셉 스미스 이세를 불러
하늘에서 그에게 말하였[으니, 이는] ...
나의 영원한 성약이 굳게 세워지게
하려 함이[라].

교리와 성약 1:17, 22

1816~1830



캐나다

온타리오호

팔마이라
쿠모라산

맨체스터

• 페이에트

뉴욕



버몬트

샤론 •

뉴햄프셔

사스케하나강

• 콜소빌

하모니



매사추세츠

코네티컷

버링가머

펜실베이니아

• 뉴욕시



메릴랜드

뉴저지



델라웨어





믿음으로 구하고

1815년, 인도네시아 슌바와 섬은 얼마 전에 내린 비로 초목이 무성했다. 농가들은 여느 해와 다름없이 탐보라 화산 아래 일군 논에서 벼농사를 지으며 이제 곧 다가올 건기를 준비하고 있었다.

4월 5일, 수십 년간 잠들어 있던 탐보라 화산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깨어나 화산재와 불길을 토해 내기 시작했다. 대포가 터지는 듯한 굉음을 수백 킬로미터 너머에서도 들을 수 있었다. 화산 분화는 며칠 동안이나 계속 이어졌다. 그리고 4월 10일 저녁, 산 전체가 폭발했다. 하늘로 솟구쳐 오른 세 개의 불기둥이 한데 섞이며 거대한 폭발을 일으켰다. 산비탈을 따라 흐른 용암이 산 자락 마을을 뒤덮었고, 마을에 불어닥친 회오리바람에 나무들이 뿌리째 뽑히고 가옥들이 휩쓸려 갔다.¹

혼돈은 그날 밤새도록 계속되었고, 이튿날까지도 이어졌다. 화산재가 수 마일 반경의 대지와 바다를 뒤덮었으며 일부 지역에는 50센티미터 이상까지 쌓였다. 한낮에도 한밤과 같은 어둠이 있었다. 해안선을 넘어와 드세게 몰아친 바닷물은 추수를 앞둔 마을을 삼켜 버렸다. 탐보라 화산은 몇 주에 걸쳐 끊임없이 재와 돌덩이, 불길을 뿜어 냈다.²

그 후 몇 달간, 화산 폭발의 여파가 전 세계로 퍼져 나갔다. 하늘에는 사람의 낮을 잃게 하는 눈부신 석양이 드리웠다. 하지만 석양의 화려한 빛깔은 지구를 둘러싼 화산재의 치명적인 영향을 잠시 감추고 있을 뿐이었다. 이듬해에 날씨는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돌변했고 있을 수 없는 파괴적인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³

화산 폭발의 영향으로 인도에는 이상 저온 현상이 일어났다. 게다가 콜레라가 창궐하여 수천 명이 목숨을 잃고 많은 가정이 파괴되었다. 온화한 기후의 축복을 받던 중국의 비옥한 강 유역에서는 한여름의 눈보라가 몰아쳤고, 폭우가 쏟아져 농지를 쓸대밭으로 만들어 버렸다. 유럽에서는 식량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기아로 사회적 공황이 일어났다.⁴

전 세계 곳곳의 사람들은 이상 기후로 야기된 고통과 죽음의 원인을 찾고자 했다. 인도의 힌두교 사원에서는 성자들의 기도소리와 노랫소리가 메아리쳤다. 중국의 시인들은 고통과 상실의 화두를 놓고 씨름했다. 프랑스와 영국의 국민들은 성경에 예언된 참혹한 재앙이 닥쳐올 것을 두려워하며 무릎을 꿇었다. 북미에서는 목사들이 불순종하는 기독교인들을 하나님께서 벌하고 계시다고 설교하며, 경고의 목소리로 종교적 분위기를 조성하려 했다.

미국 전역에서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을 길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불안한 마음을 안고 교회와 부흥회로 모여들었다.⁵

북미의 기후는 그다음 해까지도 탐보라 화산 폭발의 영향을 받았다. 강설과 된서리가 이어져 봄이 없어졌고, 여름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아 1816년은 여름이 없던 해로 기억되었다.⁶ 미국 북동부 끝자락인 버몬트에서 구릉지의 돌밭을 일구던 농부, 조셉 스미스 일세 역시 몇 년째 좌절감을 맛보고 있었다. 그해 여름, 조셉 일세의 밭은 끊임 없는 서리로 시들어 가고 있었다. 마침내 조셉 스미스 일세와 그의 아내 루시 맥 스미스는 계속 그 지역에 살다가는 재산만이 아니라 미래마저 불확실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직시했다.

마흔다섯 살인 조셉 일세는 더 이상 젊지 않았다. 그에게 새로운 땅에서 다시 삶을 일궈야 한다는 것은 막막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땅을 개간하고, 집을 짓고, 곡식을 심고 거두는 일을 거들 수 있는 열여덟 살 난 맏아들 앨빈과 열여섯 살 난 둘째 아들 하이럼이 있었다. 열세 살인 딸 소프로니아도 이제 어머니 루시를 도와 집안일과 농장 일을 거들기에 충분한 나이였다. 또, 아직 어리긴 하지만 여덟 살인 새뮤얼과 다섯 살인 윌리엄도 전보다 가족에게 더 힘이 되고 있었으며 세 살배기 캐더린과 갓 태어난 돈 칼로소도 금세 자라서 제 몫을 할 것이었다.

하지만 중간에 있는 열 살 난 아들인 조셉 이세는 상황이 조금 달랐다. 4년 전에 그 아이는 다리에서 감염 부위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 목발을 짚고 다녔다. 점점 회복이 되

고 있긴 했지만, 아직도 통증이 심해서 다리를 절었다. 조셉 일세는 이 아들이 형들처럼 건강하게 자라날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⁷

스미스 가족은 서로를 의지하면 다 잘 되리라 확신하며 더 좋은 땅을 찾아 버몬트를 떠나기로 결정했다.⁸ 조셉 일세는 외상으로 살 수 있는 좋은 농장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주변 사람들을 따라 뉴욕주로 가기로 했다. 잘만 된다면 아내와 아이들을 데려와 새 생활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었다.

조셉 일세는 거리까지 나와 배웅하는 앨빈과 하이럼을 뒤로 한 채 뉴욕으로 떠났다. 조셉 일세는 아내와 자녀들을 끔찍이 사랑했지만, 안정적인 삶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불운과 투자 실패로 가족은 늘 가난에 허덕였고 아직 어느 곳에도 뿌리내리지 못한 터였다. 하지만 뉴욕주는 다를지도 몰랐다.⁹

그해 겨울, 조셉 일세는 어머니와 형제들과 함께 절뚝이는 걸음으로 눈길을 헤쳐 나갔다. 그들은 팔마이라라는 뉴욕주의 마을을 향해 서쪽으로 가는 길이었다. 팔마이라 근처에서 아버지 조셉 일세가 좋은 땅을 봐 두고 가족을 기다리고 있었다.

루시는 남편 없이 이사를 해야 했기에 마부로 하워드라는 사람을 고용했다. 하지만 하워드는 여행하는 동안 스미스 가족의 짐을 함부로 다루고, 루시가 준 품삯을 도박과 술로 탕진했다.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다른 가족이 마차를 함께 타고 가게 되었을 때, 하워드는 그 가족의 딸들을 자기 옆에 앉혀서 가려는 속셈으로 조셉을 마차에서 쫓아내기까지 했다.

조셉이 걸을 때 얼마나 통증이 심한지를 아는 앨빈과 하이럼은 하워드에게 몇 번이나 항의를 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는 채찍 손잡이로 그들을 때려눕혔다.¹⁰

좀 더 나이가 있었다라면, 분명 조셉도 하워드에게 직접 맞았을 것이었다. 아픈 다리 때문에 제대로 일을 하거나 노는 것조차 여의치 않았지만, 조셉은 육신의 약함이 무색할 만큼 의지가 강한 아이였다. 수술 당시 조셉의 다리에 칼을 대어 뼈에서 감염 부위를 도려내야 했기에 의사들은 조셉이 움직이지 못하게 묶거나 그에게 술을 먹여 고통을 줄이려 했다. 그러나 조셉은 아버지에게 자신을 잡아 달라고만 부탁했다.

그는 수술을 받으며 얼굴이 창백해지고 식은땀을 흘리면서도 또렷한 정신으로 끝까지 깨어 있었다. 조셉의 어머니 루시는 원래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사람이었지만, 조셉이 지르는 비명을 듣고는 억장이 무너지는 듯했다. 그 일을 겪은 뒤 그녀는 세상에 못 견딜 일은 없을 것만 같았다.¹¹

마차를 따라 절뚝절뚝 걸으며 조셉은 어머니가 하워드의 행태를 겨우 참아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삼백여 킬로미터를 여행해 온 지금, 루시는 하워드의 나쁜 행실에 굉장한 인내심을 발휘하고 있었다.

팔마이러까지 160여 킬로미터 정도를 남겨 두고 루시가 길에서 보낼 또 다른 하루를 준비하고 있는데, 앨빈이 그녀에게로 달려왔

다. 하워드가 루시 가족의 모든 살림살이를 길바닥에 내동댕이치고 그들의 말과 마차를 몰아 떠나 버린 것이었다.

루시는 그 남자를 술집에서 찾아냈다. 그리고 이렇게 소리쳤다.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듯이, 저 마차와 말은 물론 거기 실린 모든 짐은 내 소유입니다.”

그녀는 술집을 둘러보았다. 빼곡히 들어찬 사람들 대부분은 루시와 같은 여행객들이었다. 루시는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 사람은 저와 제 어린 여덟 자녀를 무일푼으로 남겨 놓고서 제가 여행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모조리 빼앗으려고 합니다.”

하워드는 마차를 몰아 주는 대가로 받은 돈을 다 써 버렸으니 더 이상은 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루시가 말했다. “당신은 이제 필요 없어요. 마차는 내가 직접 몰겠어요.”

그녀는 하워드를 남겨 둔 채 술집을 나서며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들을 아버지에게 데려가겠노라고 다짐했다.¹²

남은 길은 차디찬 진창길이었지만, 루시는 가족을 무사히 팔마이라까지 데려갔다. 그녀는 아이들이 아버지에게 매달려 얼굴에 입을 맞추는 모습을 보며 지금까지 고생한 시간을 모두 보상받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이 가족은 곧 마을에 있는 작은 집에 세를 내어 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하면 농사지을 땅을 마련할 수 있을지를 상의했다.¹³ 그들은 식구들이 품을 팔아 근처 숲에 있는 땅을 살 돈을 모으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조셉 일세와

제일 큰 두 아들은 돈을 벌기 위해 우물을 파고 울타리를 치고 건초를 베었다. 루시와 딸들은 가족이 먹을 음식을 장만하기 위해 파이, 루트비어, 장식용 직물 등을 만들어 팔았다.¹⁴

어린 조셉은 자라면서 다리가 더 튼튼해졌고, 이제는 가뿐히 팔마이라 일대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마을에 나가면, 방방곡곡에서 온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특히 영적인 갈망을 채우고 삶에서 겪는 고난을 이해하기 위해 종교에 기대는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었다. 조셉과 그의 가족이 정해 두고 가는 교회는 없었지만 이웃의 많은 사람들은 장로교의 높다란 예배당이나 침례교 집회소, 웨이커교 회당 또는 순회 감리교 목사들이 때때로 부흥회를 여는 캠프장에서 예배를 보았다.¹⁵

조셉이 열두 살이었을 때, 종교적 논쟁이 팔마이라를 휩쓸었다. 비록 많이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여러 가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기를 좋아했다. 조셉은 자신의 불멸의 영혼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바람으로 전도자들의 설교에 귀 기울였는데, 오히려 그 때문에 종종 불안감을 느끼기도 했다. 그들은 조셉에게 그가 죄가 가득한 세상에 사는 죄인이며 인간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다면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조셉은 그들의 말을 믿었고 자신의 죄로 인해 마음이 무거웠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을지 확실히 알지 못했다.¹⁶

조셉은 교회에 가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으나, 예배를 드릴 곳을 한 군데로 정할 수 없었다. 여러 다른 교회가 사람들이 죄에서 벗어날 방법을 두고 끝없이 논쟁을 벌였다. 한동안 이런 논쟁을 지켜본 조셉은 사람들이 같은 성경을 읽고도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는 것에 마음이 괴로웠다. 하나님의 진리가

어딘가에 있다고 믿었지만, 어떻게 찾아야 할지는 조셉도 알 수 없었다.¹⁷

조셉의 부모에게도 그것은 어려운 문제였다. 루시와 조셉 일 세는 모두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으며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루시는 교회 모임에 참석했으며, 종종 아이들을 데려가기도 했다. 수년 전 그녀의 자매가 죽은 이후로 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를 찾고 있었다.

한번은 조셉이 태어나기 전에 심하게 아팠을 때, 진리를 찾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가진 적도 있었다. 그녀는 자신과 구주 사이에 어둡고 쓸쓸한 간극이 있음을 느꼈으며 다음 생을 맞을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음을 알았다.

루시는 밤새 깨어 누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자신을 살려 주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찾을 것이라 약속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그녀가 찾고자 구하면 찾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었다. 그 후로 그녀는 더 많은 교회를 찾아다녔지만, 아직까지 올바른 교회를 찾지 못했다. 구주의 교회가 더 이상 지상에 없는 것 같다고 느껴질 때조차 그녀는 교회에 가는 것이 안 가는 것보다 낫다고 믿으며 계속해서 교회를 찾아다녔다.¹⁸

조셉 일세도 그의 아내와 마찬가지로 진리에 목말라 있었다. 그러나 그는 잘못된 교회를 가느니 가지 않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조셉 일세는 부친의 조언에 따라 경전을 연구했으며 간절히 기도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구하기 위해 오셨음을 믿었다.¹⁹ 그러나 그는 자신이 참되다고 느끼는 것과 주변의 교회에서 보는 혼란과 불화 사이의 간극에 혼란스러웠다. 그는 어느 날 꿈에서 다투는 전도사들이 마치 뿌을 땅에 쑤셔 박으며 울부짖는

소와 같음을 보았고, 그 후로 그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다는 염려가 더 깊어졌다.²⁰

그리고 조셉은 부모님이 주변 교회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보며 더욱 혼란에 빠졌다.²¹ 영혼의 안녕이 걸린 문제였지만 아무도 만족할 만한 답을 주지 못했다.

일 년 넘게 저축을 한 끝에 스미스 일가는 팔마이러 남쪽에 맞닿은 맨체스터의 숲에 백이십 평 남짓한 땅을 계약할 만큼의 돈을 모았다. 거기서 그들은 샅일을 하는 틈틈이 단풍나무의 달콤한 수액을 모으고 과수원을 만들고 농작물을 심기 위해 들판을 일궜다.²²

어린 조셉은 농사일을 돕는 와중에도 자신의 죄와 영혼의 안녕에 대한 걱정을 떨칠 수가 없었다. 팔마이러에서의 종교 부흥 열기는 가라앉았지만, 전도사들은 여전히 개종자를 찾기 위해 팔마이러와 주변 지역에서 경쟁했다.²³ 조셉은 밤낮으로 해와 달과 별이 장엄하고 질서있게 하늘을 지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생명이 가득한 지구의 아름다움에 감탄했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면 그들의 강인함과 지성에 놀라워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실재하시고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류를 창조하셨음을 증명하는 듯했다. 하지만, 조셉은 어떻게 그분께 닿을 수 있을까?²⁴

조셉이 열세 살이던 1819년 여름, 스미스 가족의 농장과 멀지 않은 곳에서 감리교 전도사들의 총회가 열렸다. 총회가 끝나자 그들은 스미스 가족과 같은 이들을 개종시키기 위해 지역 곳곳으로 흩어졌다. 이 전도사들이 성공을 거두자 지역 목회자들 사이에 불안감이 조성됐고, 금세 개종자를 찾기 위한 경쟁이 뜨거워졌다.

조셉은 여러 모임에 참석하면서 심금을 울리는 설교를 듣기도 하고 개종자들이 기뻐 소리치는 모습을 보기도 했다. 조셉 역시 그들과 함께 기쁨에 겨워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는 종종 자신이 말과 의견의 전쟁 한가운데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 모든 교파 중에 누가 옳은가? 아니면 그들 모두가 다 그릇된 것인가?” 라고 그는 자문했다. “만일 그들 중 어느 하나가 옳다면, 그것은 어느 것이며, 나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수많은 사람과 교회가 종교를 두고 격돌하는 모습을 보며 어디에서 그것을 찾을지 알지 못했다.²⁵

해답과 함께 영혼의 평안을 찾을 수 있다는 소망은 그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듯했다. 그는 이런 극심한 소란 속에서 도대체 누가 진리를 찾을 수나 있을지 궁금했다.²⁶

그러던 어느 날, 조셉은 한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신약전서의 야고보서 1장을 인용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²⁷

조셉은 집으로 돌아가 성경의 그 구절을 읽어 보았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회상했다. “경전의 어느 구절도, 이때 이 구절이 내 마음에 임한 것보다 더 힘차게 사람의 마음에 임한 적은 결단코 없었다. 그 구절은 마치 큰 힘을 지니고 내 마음의 느낌 속으로 속속들이 파고드는 것 같았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나는 거

듣거듣 이 구절에 대해 깊이 생각하였다.” 이전에도 그는 성경에서 모든 답을 찾을 수 있을 듯이 성경을 찾아보았었다. 그런데 바로 그 성경이 자신의 질문에 대한 개인적인 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직접 질문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조셉은 기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소리를 내어 기도해 본 적이 없었지만, 성경의 약속을 믿었다. 성경은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가르쳤다.²⁸ 아무리 어설프게 여쭙는 질문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질문을 들으실 것이었다.



그의 말을 들으라

18 20년의 봄날 아침, 일찍 잠에서 깨어난 조셉은 집을 나와 가까운 숲으로 향했다. 맑고 아름다운 날이었다. 머리 위에 드리운 나뭇가지 사이로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조셉은 혼자서 기도하고 싶었는데, 마침 숲에 조용한 곳이 있었다. 그는 얼마 전에 그곳에서 벌목을 한 뒤 나무 그루터기에 도끼를 꽂아 두고 왔었다.¹

그는 주변에 혹시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잘 살피면서 그 자리를 찾아 걸음을 옮겼다. 소리 내어 기도할 시간을 간절히 바랐기에, 그는 어떠한 방해도 받고 싶지 않았다.

아무도 없음을 확신한 조셉은 서늘한 맨땅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마음속의 소망을 말씀드리기 시작했다. 가슴에 품은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자비와 용서, 지혜를 구하며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 “주님, 저는 어느 교회에 가야 할까요?”²

바로 그때, 혀가 부어오르는 듯하여 굳어지더니 이내 조셉은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되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 고개를 돌려 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조셉은 기도를 계속하려 했지만, 누가 이쪽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발소리가 더 크게 들려왔다. 조셉은 벌떡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았다. 여전히 주변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³

순간, 무언가 그를 엄습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었다. 여전히 혀를 움직일 수가 없어서 소리를 지를 수도 없었다. 무거운 어둠이 사방에서 몰려오고, 주변은 칠흑같이 컴컴해졌다. 의심과 함께 끔찍한 장면들이 빠르게 머릿속을 훑고 지나갔다. 조셉은 어지럽고 혼란스러웠다. 그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가공할 존재에게 자신이 파멸되어 버릴 것만 같다는 기분을 느꼈다.⁴

조셉은 있는 힘을 다해 한 번 더 하나님을 불렀다. 혀가 풀리자 조셉은 하나님께 자신을 구해 달라고 간청했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깊은 절망감뿐이었다. 무겁게 짓누르는 어둠은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고, 이제는 스스로 무너질 일만 남은 것 같았다.⁵

그 순간, 조셉의 머리 위로 빛기둥이 나타났다. 아주 천천히, 온 숲을 태울 듯한 찬란한 빛이 내려왔다. 빛이 조셉 위에 머무르자, 그를 짓누르던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조셉은 평안과 기쁨이 샘솟고 가슴이 벅차올랐다.

가만히 올려다보니, 그 빛 속에 하나님이 서 계셨다. 그렇게 눈부시고 장엄한 얼굴은 본 적이 없었다. 하나님은 조셉의 이름을 부르시더니, 바로 옆에 선 다른 분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⁶

조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하나님 아버지처럼 그분의 얼굴도 눈부시게 장엄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구주께서 조셉을 향해 말씀하셨다. “조셉, 네 죄는 사해졌느니라.”⁷

마음의 짐을 벗은 그는 다시 주님께 여쭙었다. “제가 어느 교회에 가야 할까요?”⁸

구주께서 조셉에게 말씀하셨다. “어느 곳에도 가서는 안 되느니라. 그들은 사람의 계명을 교리로 가르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은 부인하는도다.”

주님은 세상이 죄에 물들어 있다고 하셨다. “어느 교회도 선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복음으로부터 떠나 있으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느니라.” 신성한 진리는 이미 변질되거나 사라져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장차 조셉에게 당신의 충만한 복음을 드러내 주시리라고 약속하셨다.⁹

구주께서 말씀하실 때, 조셉은 한낮의 해보다도 밝은 빛에 둘러싸인 천사의 무리를 보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보라, 또 보라, 아버지가 내리신 영광의 옷을 입고 내가 속히 오리라.”¹⁰

조셉은 그 광채를 보며 숲이 남김없이 다 타 버릴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지만, 숲의 나무들은 모세의 떨기나무가 그랬듯이 불이 붙어도 타지 않았다.¹¹

빛은 서서히 사라져 갔고, 조셉은 기진맥진하여 땅에 누워 있었다. 빛기둥은 이제 보이지 않았으며, 조셉을 괴롭히던 죄책감과 혼란스러움도 모두 사라지고 없었다. 조셉은 가슴 가득 신성한

사랑을 느꼈다.¹² 그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말씀들을 들었고, 진리와 용서를 구할 방법을 알게 되었다.

시현을 본 후 손가락 하나 못 움직일 만큼 지쳐버린 조셉은 기력을 회복할 때까지 숲에 그대로 누워 있었다. 그리고는 겨우 집으로 돌아와 벽난로에 몸을 기대고 휴식을 취했다. 무슨 일이 있는지 묻는 어머니에게 그는 이렇게 답하며 어머니를 안심시켰다. “아무 일도 없어요. 전 정말 괜찮아요.”¹³

며칠 뒤, 조셉은 한 목사와 대화를 나누던 중 숲에서 자신이 본 일을 이야기했다. 그 목사는 팔마이러와 맨체스터 일대에서 활발하게 전도 집회를 하고 있었기에, 조셉은 그가 자신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리라 기대했다.

처음에 목사는 시현 이야기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늘의 시현을 봤다고 하는 사람은 종종 있었기 때문이었다.¹⁴ 그러나 곧 그는 화가 나서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며, 그런 이야기는 악마에게서 온 것이라고 비난하기 시작했다. 그는 시현과 계시는 이미 오래전에 그쳤으며,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큰 소리로 말했다.¹⁵

조셉은 당황스러웠다. 그는 곧 누구도 자신이 본 시현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¹⁶ 왜 아무도 믿지 않으려는 것일까? 조셉은 겨우 열네 살짜리 아이였을 뿐만 아니라, 교육을 받아 본 적이 거의 없었다. 그는 평생 땅을 경작하고 온갖 굶은일을 하며 근근이 살아갈 것이 분명한 가난한 집 아들이었다.

그런데 그의 이야기를 눈엣가시처럼 여긴 몇몇 사람들은 그런 조셉을 상대로 조롱을 퍼부었다. 조셉은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을 아이일 뿐인 자신에게 그토록 큰 냉소와 경멸이 쏟아지는

것이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조셉은 묻고 싶었다. “사실을 말하는데 왜 괴롭히는 거죠? 나는 정말로 보았는데, 왜 다들 내게 그것을 부인하게 하려는 거죠?”

조셉은 그 의문을 풀기 위해 평생 이 문제를 거듭해서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나중에 이 일을 회고하며 이렇게 말했다. “나는 실제로 빛을 보았고 그 빛 가운데서 두 분을 보았으며, 그분들은 실제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비록 내가 시현을 보았다고 말함으로써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실이었다.”

“내가 그것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알고 계심을 내가 알고 있었기에, 나는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다.]”¹⁷

시현을 이야기하면 이웃들이 등을 돌린다는 것을 알게 된 조셉은 하나님이 알려 주신 것들에 만족하면서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최대한 삼가려 노력했다.¹⁸ 그리고 시간이 지나 뉴욕을 떠난 뒤에야 숲속에서 겪었던 성스러운 일을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했다. 그는 용서받고 싶었던 자신의 간절한 마음과 세상이 회개해야 한다는 구주의 경고를 기록했다. 유려한 문장은 아니었지만, 조셉은 자신의 말로 그 장엄한 순간을 그대로 담아내려고 심혈을 기울였다.

그 후 몇 년 동안 그는 조금 더 공개적으로 시현을 언급했다. 이번에는 서기의 도움을 받아, 혼자 힘으로는 설명할 길이 없었던 내용들까지 더 잘 전달할 수 있었다. 그 기록에서 조셉은 참된 교회를 찾고자 했던 열망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나타나셔서 아들을 소개하셨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한, 자신이 용서를 구

했던 일보다는 구주께서 온 세상을 향해 전하신 진리의 메시지와 복음이 회복되어야 할 필요성을 더 자세히 적었다.¹⁹

그렇게 그때의 경험을 기록할 때마다 조셉은 주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셨음을 간증했다. 조셉은 어린 시절에, 구주의 교회가 지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배웠다. 그러나 주님은 때가 되면 당신의 복음에 관해 더 많은 것을 밝혀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그렇기에 조셉은 하나님을 믿고 숲에서 받은 주님의 명에 충실하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그는 인내하며 더 많은 가르침이 올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다.²⁰

제 3 장



금판

3년이 가고, 세 번의 가을걷이가 지나갔다. 조셉은 거의 매일 땅을 일구고 밭을 갈며 지냈고, 매년 가족 농장 비용을 갚기 위한 돈을 마련하는 데 힘을 보태고자 샅일을 했다. 그리고 일만 하기에 도 시간이 빠듯했기에 학교를 거르는 것은 다반사였다. 시간이 날 때마다 조셉은 대체로 가족들이나 다른 인부들과 어울렸다.

조셉과 친구들은 어리고, 마음에 근심이 없었다. 그들은 어리석은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다. 조셉은 한 번 용서받았다고 해서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님을 알게 되었다. 게다가 그 영광스러운 시현으로 모든 질문이 응답된 것도 아니었고, 혼란스러운 상태가 완전히 정리된 것도 아니었다.¹ 그래서 조셉은 하나님께 늘 가까이 다가가고자 노력했다. 성경을 읽고, 자신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믿으며, 다른 교회에 속하지 말라는 주님의 명에 순종했다.

자신의 아버지를 비롯해 근방의 많은 사람들이 그랬듯이, 그도 하나님께서 지팡이나 돌멩이 같은 사물을 통해 지식을 밝혀 주실 수 있다고 믿었다. 전에 모세와 아론 등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게 그리 하셨듯이 말이다.² 이웃을 도와 우물을 파던 어느 날, 조셉은 우연히 땅속 깊은 곳에서 작은 돌멩이 하나를 발견했다. 종종 사람들은 잃어버린 물건이나 숨겨진 보물을 찾기 위해 특별한 돌 같은 것을 쓰기도 했다. 그래서 조셉은 혹시 이 돌멩이도 그런 물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돌멩이를 들여다보니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 조셉의 눈에 보였다.³

조셉이 이 돌을 사용하는 은사를 보이자 가족들은 놀라워 하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리신 증거라고 입을 모았다.⁴ 그러나 그런 선견자의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셉은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여기실지에 대해 염려했다. 이제 더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시현을 본 후에 느꼈던 용서와 사랑을 느낄 수가 없었다. 오히려 자신이 나약하고 불완전하여 책망을 받는 듯한 기분을 자주 느꼈다.⁵

1823년 9월 21일, 열일곱 살이 된 조셉은 그날, 형들과 같이 쓰는 다락방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에 식구들은 여러 교회와 거기서 가르치는 교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조셉도 그 이야기를 듣느라 밤늦도록 깨어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모두가 잠자리에 들어 집 안이 고요했다.⁶

조셉은 깜깜한 방에서 기도를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마음을 다해 간청했다. 그는 하늘의 천사와 대화하기를 간절히 바랐다. 천사에게서 자신이 주님 앞에 서

도 좋다는 확인을 받고, 숲에서 약속받았던 복음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싶었다. 조셉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음을 알았으므로 한 치의 의심도 없이 다시 응답을 받게 될 것을 믿었다.

그때, 희미한 빛이 침대 곁으로 비쳐 들어왔다. 빛은 점점 경계를 넓혀 다락을 구석구석 환하게 비췄다. 고개를 드니, 공중에 한 천사가 서 있었다. 천사는 손목과 발목까지 늘어진 희고 매끄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 그는 온몸에서 빛이 퍼져 나오고 있었으며, 그의 얼굴은 번갯불처럼 빛이 났다.

조셉은 처음에는 겁이 났지만, 이내 마음이 편안해졌다. 천사는 조셉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을 모로나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하나님이 조셉을 용서하셨으며, 이제 그분께서는 조셉에게 시키실 일이 있으시다고 전했다. 천사는 조셉의 이름이 모든 사람에게 좋게도 전하여지고 나쁘게도 전하여지리라고 말했다.⁷

천사는 근방의 산에 묻혀 있는 금판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판에는 한때 미대륙에 살았던 고대 백성의 기록이 새겨져 있다고 했다. 금판은 고대 백성의 기원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방문하시어 복음의 충만함을 가르치신 기사가 담긴 기록이었다.⁸ 모로나이는 금판과 함께 묻혀 있는 선견자의 돌 두 개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조셉은 이 돌들을 우림과 둠밈, 또는 해석기라고 불렀다. 그 돌들은 조셉이 금판의 기록을 번역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준비해 두신 것이었다. 선견자의 돌은 투명한 돌멩이 두 개가 하나로 묶여 가슴판에 연결된 형태라고 모로나이는 말했다.⁹

그런 다음, 모로나이는 성경의 이사야, 요엘, 말라기, 사도행전 등에 등장하는 예언을 그대로 들려주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

실 것이며, 그 전에 하나님께서 고대에 주신 성약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인류는 창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¹⁰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약을 새롭게 하기 위해 조셉을 선택하셨고, 충실하게 하나님의 명을 따른다면 조셉은 금판의 기록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¹¹

천사는 방을 떠나기 전에 조셉에게 판을 잘 돌보아야 한다고 명하며, 지시 없이는 누구에게도 보여 주어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주었다. 그는 이 명을 따르지 않으면 파멸을 면치 못하리라고 경고했다. 말을 마친 모로나이는 빛에 싸여 하늘로 올라갔다.¹²

조셉은 자리에 누운 채 시현을 되짚어 보았다. 그때, 방 안에 빛이 들어차면서 다시 모로나이가 나타났다. 천사는 앞서 전했던 말들을 그대로 되풀이하고는 다시 사라졌다. 그리고 한 번 더 나타나서, 세 번째로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다.

모로나이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 조셉아, 판을 얻으려 할 때 네 마음이 어둠으로 채워지고, 모든 형태의 악이 마음에 밀려 들어와 네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도록 가로막을지니 조심할지어다.” 모로나이는 조셉을 지지해 줄 사람이 필요하니 아버지에게 가서 시현에 대해 이야기하라고 그에게 당부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했다. “네 부친은 네가 하는 말을 모두 믿을 것이니라.”¹³

아침이 밝았을 때, 조셉은 아버지가 시현과 천사 이야기를 믿어 주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모로나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그

대신 아버지와 형 앨빈과 함께 집 근처 들판으로 나가 오전 내내 추수를 도왔다.

조셉은 일이 힘에 부쳤다. 높다랗게 자란 곡식을 낮으로 베면서 앨빈 형과 속도를 맞추려고 했다. 그러나 모로나이가 찾아와 밤새 한숨도 못 잔 데다 고대의 기록과 그것이 묻혀 있다는 산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다.

오래가지 못해 조셉은 손을 놓아 버렸다. 그 모습을 본 앨빈이 이렇게 말했다. “조셉, 그렇게 머뭇거리서는 안 돼. 어서 일을 마쳐야지.”¹⁴

조셉은 더 열심히, 더 빨리 낫질을 하려고 했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형을 따라갈 수 없었다. 한참 뒤, 파리한 얼굴로 손을 멈추고 서 있는 아들을 본 아버지 조셉 일세는 아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권했다. 그는 아들이 몸이 좋지 않은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조셉은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비틀거리며 집으로 향했다. 그러나 기운이 빠진 몸으로 울타리를 넘으려다가 그만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다.

누운 채 숨을 가다듬던 조셉의 눈앞에 다시 모로나이가 나타났다. 공중에 서서 빛에 둘러싸인 모로나이가 조셉에게 물었다. “어찌하여 네 부친에게 말씀드리지 않았느냐?”

조셉은 아버지가 믿지 않으실까 봐 두려웠다고 대답했다.

“네 부친은 믿을 것이다.” 모로나이는 조셉을 안심시키고 지난밤 들려주었던 메시지를 다시 전했다.¹⁵

아들이 천사와 천사의 메시지에 대해 이야기하자 조셉 일세는 눈물을 흘렸다. 그는 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시현이니 그 말씀대로 따르거라.”라고 말했다.¹⁶

조셉은 곧바로 산으로 달려갔다. 지난밤 모로나이가 판이 묻힌 장소를 시현으로 보여 주었기에,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잘 알고 있었다. 근방에서 제일 큰 그 산은 조셉의 집에서 5킬로미터 정도 거리에 있었다. 판은 산꼭대기에서 멀지 않은 서쪽 기슭의 크고 둥근 바위 아래에 묻혀 있었다.

조셉은 걸어가면서 그 판을 생각했다. 그것이 성스러운 물건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값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떨치기가 쉽지 않았다. 조셉은 수호신이 지킨다는 숨겨진 보물 이야기를 들어보았지만, 모로나이와 그가 말한 판은 그런 이야기에 나오는 것들과는 달랐다. 모로나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선택하신 선견자에게 안전하게 기록을 전달하도록 임명하신 하늘의 사자였다. 그리고 그 판은 금으로 되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을 가난에서 건져 줄 보물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생각이 조셉의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다.¹⁷

산에 이르러 시현에서 본 장소를 찾아낸 조셉은 바위 밑을 파기 시작했다. 얼마 후 바위의 가장자리가 드러났다. 조셉은 큰 나뭇가지를 주워서 지렛대로 삼아 바위를 들어 옆으로 밀어냈다.¹⁸

뿔개 구실을 하던 바위 밑에는 벽면과 바닥이 돌로 된 상자가 있었다. 안을 들여다보니, 금판과 선견자의 돌, 가슴판이 있었다.¹⁹ 고대 문자가 뿔뿔이 기록된 금판은 세 개의 고리로 철해져 있었다. 각 낱장은 가로가 15센티미터, 세로는 20센티미터였고, 각

각 얇은 판으로 되어 있었다. 또, 일부 기록은 읽지 못하게 봉해져 있었다.²⁰

조셉은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 한 번, 금판의 값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판에 손을 댄 차나, 큰 충격이 조셉을 휩쓸고 지나갔다. 조셉은 얼른 손을 뗐다가 다시 판을 잡으려고 두 번 더 시도했지만, 그럴 때마다 몸에 충격이 가해졌다.

조셉은 소리쳤다. “왜 잡을 수 없는 거지?”

그러자 바로 옆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네가 주님의 명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²¹

돌아보니, 모로나이가 있었다. 조셉은 펄떡 지난 밤 메시지가 떠올랐고, 이 기록의 진짜 목적을 잊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조셉은 기도를 시작했다. 그러자 생각과 영혼에 성령이 느껴졌다.

모로나이가 말했다. “보라.” 조셉의 눈앞에 또 다른 시현이 펼쳐졌고, 무수한 추종자들에게 둘러싸인 사탄의 모습이 보였다. 천사는 말했다. “여기 보이는 것들은 선과 악, 거룩한 것과 불순한 것, 하나님의 영광과 어둠의 권능이니라. 이제부터 너는 그 두 가지 힘을 깨닫고 절대 사악한 것에 물들거나 무릎 꿇지 말지어다.”

모로나이는 조셉에게 기록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정결히 하고 생각을 굳건히 하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했다. “이 성스러운 물건들은 오직 기도하고, 주님께 충실히 순종하는 사람만이 가져갈 수 있느니라. 이것들은 세상의 영광을 위해 이득과 부를 쌓을 목적으로 이곳에 보관된 것이 아니니라. 이것들은 신앙의 기도로써 봉인되었노라.”²²

조셉은 언제 판을 얻을 수 있을지를 물었다.

“적임자를 데려온다면, 내년 구월 스물두째 날에 그리할 수 있을 것이다.”

“누가 적임자인가요?” 조셉이 물었다.

“네 큰형이니라.”²³

어릴 적부터 조셉은 맏형인 앨빈을 의지했다. 그때 앨빈은 스물다섯 살이었다. 그는 마음만 먹으면 따로 자기 농장을 마련할 수도 있었을 테지만, 늙어가는 부모님이 터전을 잡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가족 농장에 남아 함께 지내고 있었다. 조셉은 진중하고 부지런한 앨빈 형을 깊이 사랑하며 가까이 따랐다.²⁴

모로나이는 조셉이 주님께서 판을 맡기실 만한 사람이 되려면, 형인 앨빈의 지혜와 힘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저녁 무렵, 조셉은 지쳐서 집으로 돌아왔다. 조셉이 문에 들어서기가 무섭게 식구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모두들 그가 산에서 무엇을 찾아왔는지 궁금해했다. 조셉은 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 했지만, 녹초가 된 동생의 모습을 본 앨빈이 만류했다.

“이제 모두 잘 시간이야, 내일 일찍 일어나서 일을 나가야지.” 내일도 시간은 많을 테니 사실 나머지 이야기는 내일 들어도 되었다. “어머니가 저녁을 일찍 차려 주시면 밤에 시간이 있을 거야. 그러면 다 같이 앉아서 네 얘기를 듣자.”²⁵

이튿날 저녁, 조셉은 산에서 본 것을 이야기했고 앨빈은 동생의 말을 믿었다. 집안의 장남인 앨빈은 부모님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돌보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

다. 그는 남동생들과 함께 가족이 편하게 생활할 좀 더 넓은 집을 짓고 있기도 했다.

그리고, 이제 스미스 가족은 조셉을 통해 영적인 평안도 얻게 된 듯했다. 매일 밤 조셉은 금판과 거기에 기록을 새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가족들은 조셉의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다. 그러면서 가족들은 전보다 더 가까워졌다. 그들의 집에는 평화와 행복이 가득했다. 가족들 모두 무언가 멋진 일이 일어나리라는 기대감을 안고 있었다.²⁶

모로나이가 다녀간 지 두 달여가 되어 가던 어느 가을날 아침, 엘빈이 복통으로 고통스러워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엘빈은 허리를 펴지 못할 정도로 아파했고, 아버지에게 사람을 불러 달라고 부탁했다. 마침내 왕진을 온 의사가 엄청난 양의 하얀 가루 약을 처방했지만, 그 약은 엘빈의 상태를 더 악화시킬 뿐이었다.

엘빈은 고통 속에서 여러 날을 침상에서 보냈다. 죽음을 예감한 그는 조셉을 불러 이렇게 말했다. “그 기록을 얻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해야 해. 충실하게 가르침을 받고 모든 명에 따르렴.”²⁷

엘빈은 곧 숨을 거뒀다. 무거운 슬픔이 집 안에 내려앉았다. 장례를 치르던 날, 목사는 엘빈이 지옥에 갔다는 식의 말만 늘어놓았다. 그는 하나님이 개입하여 구원하지 않으실 때 사람들이 겪게 될 일들을 경고할 목적으로 엘빈의 죽음을 이용했다. 조셉 일세는 몹시 화가 났다. 그는 아들이 훌륭한 청년이었고, 하나님이 그런 아이를 벌하실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²⁸

엘빈의 죽음과 함께 금판에 대한 대화도 끝이 났다. 엘빈은 생전에 조셉의 신성한 부름을 든든하게 지지해 주었기에, 금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이제 엘빈이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가족들에게는 견디기 힘든 일이었다.

조셉도 앨빈을 그리워하며 그의 죽음을 누구보다도 힘겹게 받아들였다. 만형의 힘과 지혜에 기대어 기록을 얻고자 했었지만, 이제 그는 자신이 버림받은 듯한 기분을 느끼고 있었다.²⁹

마침내, 다시 산에 갈 날이 되었다. 조셉은 홀로 걸음을 옮겼다. 조셉은 형도 없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판을 맡기실지 확신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형이 말한 대로, 그는 주님께서 주신 계명을 모두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모로나이는 판을 얻는 데 필요한 것들을 명확히 말해 주었다. 천사는 말했다. “판을 손에 들면 곧장 집으로 가서 안전한 곳에 넣고 자물쇠로 잠가야 하느니라.”³⁰

산에 오른 조셉은 다시 한 번 바위를 치워 내고 상자에 손을 뻗어 금판을 꺼냈다. 그때 문득, 자리를 뜨기 전에 상자 안에 있는 다른 물건들을 숨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조셉은 판을 내려놓고 돌아서서 상자를 덮었다. 그러나 다시 돌아보니, 판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덜컥 겁이 난 조셉은 무릎을 꿇고 금판이 어디로 갔는지 알려 달라고 애원했다.

곧 모로나이가 나타나서 또 지시를 어겼다며 조셉을 꾸짖었다. 조셉은 손에서만 아니라 눈에서도 판을 놓쳐 버린 것이었다. 이 어린 선견자는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소망은 컸으나 아직 고대의 기록을 지킬 만한 힘은 없었다.

조셉은 자기 자신이 실망스러웠다. 모로나이는 그에게 이듬해에 다시 그곳으로 오라고 명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주님의 계획과 이제 시작될 위대한 일에 대한 가르침을 주었다.

천사가 떠나자, 조셉은 말없이 터덜터덜 산에서 내려왔다.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면 가족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이 앞섰

다.³¹ 조셉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 안에서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조셉을 보기 무섭게 판을 가져왔느냐고 물었다.

조셉이 대답했다. “아니요, 가져올 수가 없었어요.”

“보긴 한 거지?”

“네, 하지만 가져오지는 못했어요.”

조셉 일세가 말했다. “내가 너였더라면 가져왔을 거다.”

“아니에요, 아버지. 주님의 천사가 허락을 안 해 주셔서 못 가지고 온 거예요.”³²



깨어 있으라

1825년 가을, 스물두 살의 에머 헤일은 이웃에 사는 조사이아 스토웰의 인부로 고용된 조셉 스미스라는 한 청년에 대해 듣게 되었다. 그 청년과 그의 아버지는 조사이아 소유의 땅에서 보물을 찾는 일에 고용된 사람들이었다.¹ 그 지역에는 수백 년 전에 탐험가들이 은광을 발굴해 얻은 보물을 어딘가에 감추어 두었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 조셉이 선견자의 돌을 쓰는 은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조사이아는 조셉에게 두둑한 임금을 약속했고, 보물을 찾으면 거기서 한몫 떼어 주겠다고 다짐했다.²

에머의 부친인 아이잭도 이 사업을 지원했다. 조셉 부자가 팔마이이라에서 남쪽으로 240여 킬로미터 떨어진 펜실베이니아 하모니의 스토웰 농장에 와서 계약서에 서명할 당시 아이잭은 증인이 되어 주었다. 또한, 그는 보물 발굴을 돕는 인부들을 자기 집에서 기거하게 했다.³

얼마 후, 에머는 실제로 조셉을 만나게 된다. 조셉은 에머보다 어렸고, 키는 180센티미터가 넘었으며, 힘든 일에 익숙한 듯 보였다. 또, 얼굴이 희고 눈동자는 푸른 빛을 냈으며, 걸을 때 보일 듯 말 듯 다리를 절었다. 그는 어법에 맞지 않는 말을 쓰고, 자기 생각을 말할 때 중언부언하기도 했지만, 그의 말에는 타고난 지성이 묻어났다. 선량한 조셉 부자는 에머의 가족이 예배드리러 가는 교회에 가는 대신 둘이서 그들 나름의 예배를 드리곤 했다.⁴

조셉과 에머는 둘 다 야외 활동을 좋아했다. 에머는 어린 시절부터 말을 즐겨 탔고, 집 근처 강에서 카누를 타는 것도 좋아했다. 조셉은 말을 잘 타지 못했지만, 몸으로 부딪히며 힘을 겨루거나 공으로 하는 운동을 하면 지는 법이 없었다. 그는 사람들과 편안하게 어울렸으며, 잘 웃고, 농담과 익살맞은 이야기도 자주 했다. 에머는 조금 더 내성적이었지만, 재미있는 농담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과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책과 노래를 좋아했다.⁵

시간이 흐르면서 에머와 조셉은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그러나 에머의 부모는 그런 두 사람의 관계를 탐탁지 않아 했다. 조셉은 다른 주에서 온 가난한 샅꾼이었기에, 그들은 딸이 조셉과 멀어져 마을의 유복한 집 자제와 결혼하기를 바랐다. 게다가 아이잭은 이제 보물 찾는 일을 미심쩍어 하고 있었기에, 거기서 조셉이 하는 역할도 그의 눈에는 수상해 보이기만 했다. 조셉은 보물이 나오지 않을 것이 확실해지자 조사이야 스토크를 설득해서 보물 수색 일을 접게 했는데, 아이잭 헤일은 그런 것도 다 관심이 없었던 듯하다.⁶

그러나 에머는 자신이 아는 그 어떤 남자보다도 조셉이 좋았다. 그래서 그녀는 계속해서 조셉을 만났다. 조셉은 은광 찾는 일을 그만두도록 조사이아를 설득해 낸 후에도 하모니에 머물며 조사이아의 농장에서 일을 했다. 때로는 인근에 있는 조셉과 폴리 나이트의 농장에서도 일했다. 그러면서 일이 없을 때는 에머를 만나러 갔다.⁷

얼마 안 가서 하모니에서는 조셉과 선견자의 돌을 두고 이런저런 말이 돌기 시작했다. 나이 든 사람 중에는 선견자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 심심찮게 있었지만, 그들의 자녀와 손주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았다. 조사이아의 조카는 조셉이 자기 삼촌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조셉을 사기죄로 몰아 법정까지 문제를 끌고 갔다.

조셉은 판사 앞에서 자신이 선견자의 돌을 얻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조셉 일세는 자신은 아들의 그 놀라운 능력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왔다고 증언했다. 마지막으로 법정에 선 조사이아는 조셉에게 사기를 당한 적이 없다고 단언했다.

판사가 말했다. “증인은 피고가 그 돌을 사용해서 무언가를 보는 능력이 있음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해한 것이 맞습니까?”

조사이아는 이렇게 답했다. “저는 믿는다고 하지 않았습시다. 저는 그것이 사실임을 분명하게 압니다.”

조사이아는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인사였다. 사람들은 조사이아의 증언을 받아들였다. 결국 공판에서는 조셉이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고, 사건은 기각되었다.⁸

1826년 9월, 조셉은 판을 얻기 위해 다시 산을 올랐다. 그러나 모로나이는 조셉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경고했다. “돈을 찾는 자들과 가까이 지내지 말라.” 그러한 무리 가운데에는 사악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다.⁹ 모로나이는 조셉에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 앞으로 일 년 동안 더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 판을 맡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천사는 조셉에게 다음에 올 때는 한 사람을 더 데려오라고 당부했다. 조셉이 처음으로 산에 왔던 날에도 모로나이는 집으로 돌아가는 조셉에게 똑같은 말을 했었다. 하지만 이제 앨빈은 이 세상에 없었다. 조셉은 당황스러웠다.

“누구를 데려와야 하는 것입니까?”

“곧 알게 될 것이다.” 모로나이가 말했다.

조셉은 선견자의 돌을 들여다보며 주님의 가르침을 구했다. 그렇게 하여 조셉은 에머가 책임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¹⁰

에머는 조셉이 첫눈에 반한 사람이었다. 앨빈처럼, 에머는 조셉이 주님께 필요한 사람이 되어 그분의 사업을 이끌어가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었다. 하지만 조셉에게 에머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사람이었다. 조셉은 에머를 사랑했고, 에머와 결혼하고 싶었다.¹¹

12월이 되어, 조셉은 이제 스물한 살이 되었다. 과거에 그는 자신의 은사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기대에 이리저리 떠밀려 다

났다.¹² 하지만 지난번에 산에 다녀온 뒤로, 이제 그는 판을 얻으려면 더 열심히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있었다.

조셉은 하모니로 돌아가기 전에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며 이렇게 말했다. “저 결혼하기로 했어요. 반대하지 않으신다면 에머 헤일과 결혼하려고 해요.” 조셉의 부모는 아들의 결정을 기뻐했다. 루시는 조셉에게 결혼을 하면 한 집에서 함께 살자고 했다.¹³

그해 겨울, 조셉은 되도록 많은 시간을 어머니와 함께 보냈으며, 눈이 많이 와서 어머니에게 가기가 어려울 때는 나이트 가족의 썰매를 빌려 타고 갔다. 그러나 어머니의 부모는 여전히 조셉이 마음에 차지 않았다. 조셉이 아무리 애를 써도 요지부동이었다.¹⁴

1827년 1월, 어머니는 조사이아 스토웰의 집으로 갔다. 그곳에서는 가족들의 따가운 눈초리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조셉과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그날, 그곳에서 조셉은 어머니에게 청혼했다. 처음에 어머니는 무척 놀란 것 같았다. 어머니는 가족들이 반대하리라는 것을 알았다.¹⁵ 조셉은 어머니에게 잘 생각해 달라고 간청했다. 그들은 곧바로 함께 멀리 달아날 수도 있었다.

어머니는 조셉과 결혼하는 문제를 두고 숙고했다. 조셉과 결혼하면 가족들이 실망하겠지만, 이것은 자신이 선택할 문제였고, 무엇보다 어머니는 조셉을 사랑했다.¹⁶

그로부터 며칠 후인 1827년 1월 18일, 두 사람은 어머니의 가족들을 피해 치안 판사의 집에서 혼인 서약을 맺었다. 그리고 맨체스터로 가서 조셉의 부모가 사는 새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다. 집은 안락했지만, 조셉의 부모가 집을 장만하는 데 든 큰돈을 제

때 갇지 못해서 집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있는 상태였다. 당시 스미스 가족은 그 집에 세를 들어 살고 있었다.¹⁷

조셉의 부모는 아들 내외를 반갑게 맞았다. 그러나 아들의 신성한 부름 때문에 그들은 애가 타고 있었다. 그 지역에는 금판에 대한 이야기를 익히 듣고 금판을 찾으러 다니는 자들까지 있었다.¹⁸

어느 날, 조셉이 읍내로 일을 보러 나갔을 때의 일이다. 저녁 시간에는 아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조셉의 부모는 그가 돌아오지 않자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오랜 시간을 기다렸다. 마침내 집에 돌아온 조셉은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는 몹시 지쳐 있었다.

“왜 이렇게 늦었니?”

이런 아버지의 물음에 조셉은 “이렇게 혼나 보기는 처음이에요.” 하고 대답했다.

“대체 누가 널 혼냈다는 게냐?”

“주님의 천사요. 그동안 제가 태만했다고 했어요.” 모로나이를 다시 만날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조셉이 말했다. “서둘러 해야 할 일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시작해야겠어요.”¹⁹

추수철이 끝나자, 조사이아 스톨웰과 조셉 나이트가 일을 보러 맨체스터 지역에 들렀다. 두 사람 다 조셉이 네 번째로 산에 오를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았기에, 이번에는 과연 조셉이 모로나이의 신뢰를 받아 판을 맡을 수 있을지 몹시 궁금해하고 있었다.

그 지역에서 보물을 찾아다니던 사람들 역시 조셉이 판을 얻으려 갈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중 한 사람인 새뮤얼 로렌스라는 자는 아예 산에서 어슬렁거리며 금판을 찾아다니고 있었다. 9월 21일 저녁, 새뮤얼이 문제를 일으킬 것을 걱정한 조셉은 아버지에게 새뮤얼의 집으로 가 달라고 부탁했다. 거기서 지켜보다가 그가 산으로 가려는 낌새가 보이면 막아 달라는 것이었다.²⁰

그런 다음, 조셉은 판을 찾으려 갈 준비를 했다. 이전 같았더라면 내일이 되어서야 산에 올랐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엔 조셉은 9월 22일이 시작되는 자정 직후에 산에 도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짰다. 어느 누구도 자신이 그 시각에 집을 나서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할 테고, 그렇게 하면 보물 수색꾼들을 따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판을 가져온 뒤에 그것을 지킬 방도를 찾는 문제가 아직 남아 있었다. 식구들이 대부분 잠들자 조셉은 얼른 어머니에게 가서 집에 금고가 있는지를 여쭙었다. 루시가 금고가 없다며 걱정스러워하자

조셉은 “괜찮아요. 지금은 없어도 돼요.” 하고 어머니를 안심시켰다.²¹

잠시 후, 말을 탈 복장을 차려입은 에머가 나왔고, 조셉과 에머는 조셉 나이트의 마차를 타고 집을 나섰다.²² 산 앞에 당도하자 조셉은 에머를 마차에 남겨 두고서 판이 감춰진 곳을 향해 산을 올랐다.

모로나이가 나타났고, 조셉은 돌상자에서 금판과 선견자의 돌을 꺼냈다. 조셉이 산에서 내려가기 전, 모로나이는 다시 한 번

당부했다. 그는 주님께서 정하신 사람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판을 보여 주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며, 판을 지키고자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들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었다.

“너는 깨어 있으라. 그리고 너의 신의를 지키지어다. 그렇지 않으면 사악한 자들을 당해내지 못하리니, 그들은 너에게서 판을 빼앗으려고 온갖 계획과 책략을 동원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네가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다면, 그들의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이라.”²³

조셉은 판을 들고 산을 내려갔다. 그러나 금고를 구할 때까지 안전하게 판을 지켜야 하기에, 조셉은 속이 빈 통나무에 판을 감춘 뒤 마차로 갔다. 그는 마차에 있던 에머와 함께 동틀 무렵에 집으로 돌아왔다.²⁴

집에서는 루시가 초조하게 조셉과 에머를 기다리며 조셉 일세와 조셉 나이트, 조사이아 스토웰의 아침을 차리고 있었다. 혹여 아들이 판을 못 가져오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루시는 부엌일을 하면서도 실 새 없이 가슴이 쿵쥔거렸다.²⁵

잠시 후, 조셉과 에머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루시는 조셉이 빈손인 것을 보고는 몸을 떨면서 자리를 피했다.

조셉은 어머니를 따라가서 “어머니, 마음 놓으세요.” 하고 말씀드렸다. 조셉은 손수건에 싼 물건을 어머니의 손에 쥐여 주었다. 손수건 속에서 커다란 안경처럼 생긴 물건이 만져졌다. 주님께서 판이 번역되도록 마련해 두신 선견자의 돌, 즉 우림과 둠뭉이였다.²⁶

루시는 마냥 기뻐다. 조셉도 무거운 짐에서 벗어난 듯 편안한 얼굴이었다. 하지만 그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방으로 들어간 뒤에는 짐짓 안색을 바꾸고 말없이 아침을 들었다. 식사를 마친 뒤, 조셉은 어두운 얼굴로 턱을 괴고서 조셉 나이트를 향해 말했다. “아, 정말 기대했는데.”

조셉 나이트는 조셉을 위로했다. “그것 참 안 됐네.”

조셉은 다시 한 번 “정말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 달라요.”라고 하더니 이내 환한 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열 배는 더 훌륭해요!” 조셉은 판의 크기와 무게를 자세히 설명하고, 잔뜩 들뜬 목소리로 우림과 뚝뚝에 대해 이야기했다.

“뚝뚝 볼 수 있어요. 정말 신기해요.”²⁷

판을 얻은 다음 날, 조셉은 금고 살 돈을 마련하기 위해 근처 마을로 우물을 고치러 갔다. 그런데 그날 아침, 고개 너머로 일을 보러 가던 조셉 일세는 우연히 보물 수색꾼들의 말을 엿듣게 되었다. 그들은 금판을 훔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그중 한 명이 말했다. “조 스미스가 갖고 있든 지옥의 악마들이 갖고 있든 상관 없어! 우리가 가져오자고!”

조셉 일세는 놀란 가슴으로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이 일을 알렸다. 어머니는 판의 행방은 알지 못했지만, 남편이 어딘가에 잘 숨겨 뒀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이에 조셉 일세가 말했다. “그럼, 그렇고말고. 여기서 사소한 것 때문에 축복과 생득권을 잃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조셉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단다.”²⁸

결국 에머는 판이 안전한지 알아보기 위해 말을 타고 한 시간 남짓 달려서 조셉이 우물을 고치고 있는 농장을 찾아갔다. 에머는 일을 하느라 땀과 먼지로 뒤범벅이 된 조셉을 우물가에서 찾아냈다. 판이 위험할지 모른다는 에머의 말에 조셉은 얼른 선견자의 돌을 들여다보았다. 판은 안전했다.

조셉 일세는 길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초조하게 집 밖을 서성이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길 저쪽에서 아들 내외가 나타났다.

조셉이 말을 타고 다가오며 말했다. “아버지, 판은 무사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²⁹

하지만 가만있을 때가 아니었다.

조셉은 서둘러 산으로 달려갔다. 그는 통나무를 찾아 판을 꺼낸 뒤 셔츠를 벗어서 조심스럽게 감쌌다.³⁰ 조셉은 주변을 경계하며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숲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숲은 큰길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가 좋은 만큼 도둑이 숨어들 곳도 많은 곳이었다.

판이 무거워서 빨리 달릴 수는 없었지만, 조셉은 최대한 걸음을 재촉했다. 숲을 지나던 중에 길을 막고 쓰러져 있는 통나무가 나왔다. 조셉이 그 나무를 뛰어넘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가 조셉을 세차게 내리쳤다. 뒤를 돌아보니, 한 남자가 총을 몽둥이처럼 휘두르며 달려들고 있었다.

조셉은 한쪽 팔로 판을 꼭 감싸 안은 채 남자를 바닥에 내치고 숲속 깊은 곳으로 허둥지둥 뛰어들어갔다. 하지만 1킬로미터도 채 못 가서 괴한은 또 나타났다. 나무 뒤에서 나타난 그 사내

는 개머리판으로 조셉을 가격했다. 조셉은 그 남자를 때려눕히고 앞으로 내달렸다. 얼른 숲을 벗어나야 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세 번째 괴한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어찌나 세게 얻어맞았던지 조셉의 걸음이 비틀거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조셉은 있는 힘을 다해 세 번째 괴한에게 주먹을 휘두르고는 집 방향으로 힘껏 내달렸다.³¹

조셉은 한쪽 팔로 무거운 판을 안고서, 쓰러질 듯 문을 열어젖히며 집으로 들어갔다. “아버지, 판을 가져왔어요.” 조셉이 소리쳤다.

열네 살 된 여동생 캐더린의 부축을 받으며 그는 판 꾸러미를 식탁에 내려놓았다. 식구들은 모두 조셉 주변으로 모여들었다. 아버지와 동생 윌리엄이 꾸러미를 풀어 보고 싶어 했지만, 조셉이 제지했다.

“우린 볼 수 없는 거니?” 조셉 일세가 물었다.

조셉이 대답했다. “네, 아버지. 처음엔 못 그랬지만, 이번에는 충실히 따를 거예요.”

조셉이 셔츠로 덮여 있는 채로는 판을 만져 봐도 된다고 하자, 윌리엄이 꾸러미를 들어 올려 보았다. 꾸러미는 돌보다도 무거웠다. 판은 종이같이 얇은 낱장으로 되어 있고, 책처럼 넘길 수도 있는 것 같았다.³² 조셉은 남동생인 돈 칼로스를 하이럼 형에게 보내 금고를 가져오게 했다. 하이럼은 아내 제루샤와 갓 태어난 딸과 함께 근처에 살고 있었다.

곧 하이럼이 달려왔고, 조셉은 판을 금고에 넣은 후 옆에 있던 침대 위로 풀썩 쓰러졌다. 그리고 침대에 누운 채로 가족들에게 숲에서 괴한들을 만난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그제야 조셉은 손에 통증이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숲에서 싸우다 엄지손가락을 뺨 모양이었다.

조셉은 이야기를 멈추고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런데 제 손가락뼈를 좀 맞춰 주셔야겠어요.”³³



모든 것을 잃다

조셉이 금판을 집으로 가져오고 몇 주가 지날 때까지도 보물 수색꾼들은 여전히 판을 훔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었다. 조셉은 판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벽난로 밑으로, 아버지의 상점 바닥 아래로, 또 곡식더미로 이곳저곳으로 옮겨 가며 판을 숨겨야만 했다.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호기심 많은 이웃들은 집으로 찾아와서 기록을 보여 달라고 애원했다. 심지어 돈을 내겠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조셉은 예외 없이 거절했다. 그는 최선을 다한다면 판을 지킬 수 있으리라는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흔들리지 않고 판을 지켜 냈다.¹

그런 소란 때문에, 조셉은 판을 들여다보거나 새로 가져온 우림과 둠뭉을 살펴볼 만한 여력이 없을 때가 많았다. 물론 해석기는 판을 번역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선견자의 돌로 고대 문자를 읽는다는 것은 조셉에게는 상상

도 못 해 본 일이었다. 번역 일을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도대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조셉으로서는 알 수가 없었다.²

그렇게 조셉이 판에 대해 연구하고 있던 시기에, 마틴 해리스라는 팔마이라의 명망 있는 지주가 조셉의 일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마틴은 조셉의 아버지뻘 나이로, 간혹 조셉이 일을 가기도 하는 농장의 주인이었다. 마틴도 금판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있었다. 그러나 조셉의 어머니가 아들을 만나 봐 달라고 부탁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³

마틴이 찾아갔을 때, 조셉은 일을 나가고 집에 없었다. 그래서 그는 먼저 다른 식구들에게 판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았고, 조셉이 돌아오자 그를 붙잡고 더욱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았다. 조셉은 마틴에게 금판에 대해 알려 주고, 금판의 기록을 번역해서 출판하라는 모로나이의 지시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마틴이 말했다. “이것이 악마의 일이라면 나는 조금도 관여치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 주님의 일이라면, 마틴은 조셉이 그 책을 세상에 널리 알리도록 돕고 싶었다.

조셉은 마틴에게 판이 든 금고를 들어 보게 했다. 안에 묵직한 것이 든 것 같긴 했으나 그것이 금판이라고 마틴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는 조셉에게 말했다. “당신 말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나를 탓하지는 마십시오.”

자정이 지나서야 집에 도착한 마틴은 침실로 들어가 기도를 드렸다. 그는 조셉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음을 확신하게 된다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바치겠노라고 하나님께 약속했다.

그때, 마틴은 자신의 영혼에 속삭이는 고요하고 작은 음성을 느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 금판을 주셨으며, 조셉이 그 기록을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자신이 도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⁴

1827년이 저물어 갈 무렵, 아기가 생긴 것을 알게 된 에머는 친정 부모에게 편지를 썼다. 결혼한 지 벌써 일 년이 다 되었지만, 에머의 부모는 여전히 마음을 풀지 않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딸이 친정 가까운 곳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딸 내외를 하모니로 부르기로 했다.

자신의 부모 형제와 떨어져 지내야 할 것이 분명함에도, 조셉은 하루빨리 하모니로 가고 싶어 했다. 그는 판을 노리는 뉴욕의 사람들을 피해 새로운 곳으로 거처를 옮겨 바라던 대로 편안하고 은밀하게 주님의 일을 하고 싶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조셉은 빚이 있었고, 이사할 돈도 없었다.⁵

조셉은 재정을 정리해 볼 요량으로, 또 빚진 돈을 일부 갚을 겸해서 마을로 나갔다. 상점에서 물건 값을 치르는 조셉에게 마틴 해리스가 성큼성큼 다가왔다. “스미스 씨, 여기 오십 달러입니다. 주님의 일에 쓰십시오.”

조셉은 그 돈을 받는 것이 마음이 불편하여 나중에 꼭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마틴은 사양했다. 그리고는 거기 있던 사람들 전부를 증인으로 세워 이 돈은 분명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선물로 주는 것임을 공언했다.⁶

그 덕분에 조셉은 곧 빚을 정리하고 집을 꾸릴 수 있었다. 그는 콩이 든 통 속에 금판을 넣어 마차에 실은 뒤 에머와 함께 하모니로 향했다.⁷

약 일주일 후, 이 부부는 에머의 부모가 사는 널찍한 집에 도착했다.⁸ 얼마 안 가서 에머의 아버지가 금판을 보여 달라는 요구를 했으나 조셉은 금판이 든 금고밖에 보여 줄 수 없다고 단언하며 거절했다. 아이작은 못마땅한 얼굴로 금고를 들고 무게를 가늠해 보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의심이 풀릴 리가 없었다. 그는 금고 속을 보여 주지 않으면 그것을 집 안에 둘 수 없다고 엄포를 놓았다.⁹

그런 장인을 가까이 둔 채 번역 일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조셉은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 판에 새겨진 여러 낯선 문자를 종이에 옮길 때는 에머가 도움을 주었다.¹⁰ 조셉은 그렇게 옮겨 적은 문자를 우림과 둠뎀으로 번역해 보려고 몇 주에 걸쳐 애를 써 보았다. 하지만 선견자의 돌을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는 무언가가 부족했다. 조셉은 마음을 겸손히 하고 신앙을 행사하며 고대 문자들을 연구했다.¹¹

몇 달 후, 마틴 해리스가 하모니로 찾아왔다. 그는 자신이 멀리 뉴욕으로 가서 고대 언어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도록 주님께 부름을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마틴은 그들이 판에 있는 문자들을 번역할 수 있기를 바랐다.¹²

조셉은 종이에 더 많은 분량의 문자를 옮겨 적고, 거기에 자신의 번역을 함께 적어 넣은 후 마틴에게 건넸다. 마틴은 뛰어난 학자들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 조셉 부부의 배웅을 받으며 동쪽으로 떠났다.¹³

뉴욕시에 도착한 마틴은 컬럼비아 대학에서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가르치는 찰스 안톤 교수를 찾아갔다. 마틴보다 열다섯 살 정도 아래인 안톤 교수는 그리스 로마 문화를 다룬 유명한 백과사

전의 저자로도 잘 알려져 있었다. 또한, 그는 얼마 전부터 미국 인디언에 관한 일화를 수집하고 있기도 했다.¹⁴

안톤 교수는 방해받는 것을 싫어하는 융통성 없는 학자였지만, 마틴을 반기며 조셉이 보낸 문자들과 번역을 살펴봐 주었다.¹⁵ 그는 이집트어를 몰랐지만, 이집트어에 관한 논문은 몇 편 읽은 적이 있었고 이집트어의 형태도 알았다. 문자를 살펴본 그는 그것이 이집트어와 어느 정도 유사한 것을 알아보았고, 또한 번역이 정확하다고 말했다.

마틴은 안톤 교수에게 필사한 문자를 더 보여 주었다. 안톤 교수는 그것들도 함께 살펴보았다. 그는 거기에 여러 고대 언어에서 나온 문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그것들은 진짜라는 증서를 써 주었다. 또한, 컬럼비아 대학에 재직했던 새뮤얼 미칠이라는 학자를 언급하며 자신이 그에게 이 문자들을 가져가서 보여 주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다.¹⁶

“새뮤얼 미칠은 이런 고대 언어에 조예가 깊은 학자입니다. 장담하건대, 미칠이라면 선생께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답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¹⁷

마틴이 주머니에 증서를 집어넣고 방을 나서려 할 때, 안톤 교수가 그를 불러 세웠다. 그는 마틴에게 금판을 얻게 된 경위에 대해 물었다.

마틴이 말했다. “하나님의 천사가 알려 주었지요.” 마틴은 이 판을 번역하면 세상이 바뀌는 것은 물론, 세상을 멸망에서 구할 수 있으리라고 간증했다. 그리고 이제 그 판이 진짜라는 것까지 증명되었으니, 자신은 이 기록이 번역되고 출판되도록 농장을 팔아 이 일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안톤 교수가 말했다. “증서를 좀 주시죠.”

마틴은 주머니에서 증서를 꺼내 안톤 교수에게 건넸다. 그러자 안톤 교수는 그것을 갈가리 찢으며 천사들의 성역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그는 조셉이 원하는 것이 판이 번역되는 것이라면 자신이 그것을 컬럼비아 대학으로 가져가 학자들에게 번역을 맡겨 줄 수 있다고도 말했다.

마틴은 판이 일부가 봉해져 있는 데다가 조셉은 다른 사람에게 판을 보여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안톤 교수가 말했다. “저는 봉해진 책은 읽을 수 없습니다.” 그는 마틴이 조셉에게 속고 있는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사기꾼을 조심하십시오.”라고 말했다.¹⁸

마틴은 안톤 교수와 헤어진 후 새뮤얼 미칠을 찾아갔다. 마틴을 정중하게 맞이한 미칠 박사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 보고, 마틴이 가져온 문자와 번역을 살펴보았다. 그는 해독을 하지는 못했으나 그 문자들을 보니 이집트 상형 문자가 떠오르다면서, 이 필사된 문자들은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나라에서 사용했던 것이라고 말했다.¹⁹

얼마 후, 마틴은 조셉에게 금판이 있으며, 그에게는 그것을 번역할 권능 또한 있음을 그 어느 때보다도 확신하면서 뉴욕을 떠나 하모니로 돌아왔다. 그는 조셉에게 뉴욕의 교수들을 만나 나누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미국에서 가장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이 책을 번역할 수 없다면, 이제 그 일은 조셉이 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조셉은 어깨가 무거웠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배운 적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자신이 이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해석기를 마련해 주셨음을 알았다.²⁰

마틴의 생각도 같았다. 마틴은 팔마이라로 돌아가 사업을 정리한 뒤, 서둘러 돌아와서 서기 역할을 하며 조셉을 돕기로 했다.²¹

1828년 4월, 에머와 조셉은 에머의 친절과 멀지 않은 사스케하나 강변에서 생활하고 있었다.²² 이제 에머의 출산이 두어 달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고, 조셉이 기록을 번역하기 시작한 후로 에머는 종종 서기로서 조셉을 도왔다. 어느 날, 번역을 하던 조셉이 갑자기 창백해진 얼굴로 물었다. “에머, 예루살렘을 둘러싼 성벽이 있었나요?”

“네, 있었어요.” 에머가 성경 속 내용을 떠올리며 대답했다.

조셉은 안도하며 말했다. “아, 내가 착각한 줄 알고 걱정했어요.”²³

조셉이 역사와 경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이 번역 일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보며 에머는 놀라워했다. 조셉은 편지 한 통도 조리 있게 쓰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조셉이 다른 책이나 원고의 도움 없이 기록을 구술하는 것을 늘 가까이서 지켜본 에머는 조셉이 번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기 때문임을 알았다.²⁴

마침내 마틴이 팔마이라에서 돌아와 서기 일을 맡아 주자 에머는 출산 전에 숨을 돌릴 틈이 생겼다.²⁵ 그러나 일은 생각처럼 되지 않았다. 마틴의 아내인 루시가 마틴을 따라 하모니로 오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마틴 부부는 둘 다 호락호락한 성격이 아니었다.²⁶ 루시는 남편이 조셉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려는 이유가 미심쩍었고, 남편이 혼자서 뉴욕시로 가버렸던 일로 화가 나 있었다. 거기다 이제 남편이 번역 일을 도우려 하모니로 간다고까지

하니, 마침내 루시는 자기도 직접 판을 봐야겠다고 남편을 따라 나서기로 작정한 것이었다.

귀가 어둡던 루시는 다른 사람의 말을 알아듣기가 어려울 때면 사람들이 자신을 홍보고 있는 것이라고 넘겨짚었다. 루시는 타인의 사생활은 전혀 신경쓰지 않았다. 조셉이 판을 보여 줄 수 없다고 하자 그녀는 옷장과 찬장, 가방 등을 뒤지며 그 집을 온통 헤집어 놓기 시작했다. 결국 조셉은 판을 다시 숲속에 숨겨야만 했다.²⁷

얼마 후에 루시는 조셉의 집을 떠나 이웃에 묵을 곳을 마련했다. 옷장과 찬장은 이제 무사했지만, 루시는 조셉이 마틴의 돈을 노린다는 헛소문을 이웃에 퍼뜨리고 다녔다. 그녀는 몇 주 동안 그렇게 문제를 일으킨 후에 팔마이라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주변이 조용해지자 조셉과 마틴의 번역 작업은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조셉은 선견자와 계시자로서 신성한 역할을 해낼 수 있을 만큼 성장하고 있었다. 판이 바로 앞에 있든, 에머의 아마천에 싸여 식탁 위에 있든, 조셉은 해석기, 곧 선견자의 돌을 들여다보며 판을 번역해 냈다.²⁸

4월부터 6월 초까지, 에머는 기록을 구술하는 조셉의 목소리를 들으며 생활했다.²⁹ 조셉은 천천히, 그러나 또박또박 기록을 읽어 나가며, 마틴이 내용을 받아적은 뒤에 “썼습니다.”라고 말할 때까지 틈을 두곤 했다.³⁰ 에머도 번갈아 가며 서기 일을 도왔다. 번역이 중단되거나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다시 일을 시작할 때마다 조셉은 마지막 지점을 알려 주지 않아도 어김없이 그 부분부터 번역을 이어나갔다. 에머는 그런 조셉을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았다.³¹

에머의 출산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한 장 한 장 쌓인 원고도 이제는 두께가 제법 되었고, 마틴은 번역한 원고를 보여 주면 아내도 그 가치를 깨닫고 희망을 멈추리라고 확신했다.³² 또한, 그는 자신의 시간과 돈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을 아내도 기뻐하기를 바랐다.

어느 날, 마틴은 조셉에게 몇 주 동안만 원고를 가지고 팔마 이라에 다녀올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³³ 조셉은 루시 해리스가 자신의 집에 와서 한 행동을 알기에 마틴의 제의에 선뜻 동의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그는 그토록 많은 사람에게 의심의 화살을 맞고 있을 때에도 자신을 믿어 준 마틴을 기쁘게 해 주고 싶었다.³⁴

조셉은 고민 끝에 인도를 구하며 주님께 기도했다. 그리고 마틴에게 원고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을 받았다.³⁵ 마틴은 원고를 아내에게 보여 주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장담하며, 다시 한 번 주님께 여쭙봐 달라고 간청했다. 조셉이 다시 여쭙보았지만, 응답은 똑같았다. 그래도 마틴은 또다시 애원했고, 이번에는 원하는 대로 하라는 응답이 왔다.

조셉은 원고를 자물쇠가 있는 안전한 곳에 넣어 두고 오직 가족 몇 명에게만 보여 주겠다고 약속한다면 2주 동안 원고를 가져가도 좋다고 허락했다. 마틴은 그렇게 하기로 굳게 약속하고 원고를 들고서 팔마이리로 돌아갔다.³⁶

그리고 마틴이 떠난 뒤에 모로나이는 조셉에게 나타나 해석기를 가져갔다.³⁷

마틴이 떠나고 이틀 후, 에머는 힘겨운 산고 끝에 사내아기를 낳았다. 하지만 아기는 허약한 몸에 질병까지 걸려서 며칠 살지 못

하고 세상을 떠났다. 이 시련은 에머의 몸과 마음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다. 한동안 그 고통은 그녀를 죽음의 문턱까지 끌고 가는 듯 보였다. 조셉은 계속해서 에머를 간호하며, 아내 곁을 거의 떠나지 않았다.³⁸

2주가 지나 기운을 차리기 시작한 에머는 마틴과 원고 일에 걱정되었다. “불안해서 못 견디겠어요. 해리스 씨가 원고를 갖고 무얼 하고 계시는지 알아야 마음이 좀 놓일 것 같아요.”

에머는 마틴을 찾아보라고 재촉했지만, 조셉은 아내를 홀로 두고 싶지 않았다. 에머가 말했다. “어머니를 불러 주세요. 당신이 있는 동안 어머니가 같이 있어 주실 거예요.”³⁹

조셉은 북쪽으로 가는 역마차에 올랐다. 그는 가는 길 내내 음식을 먹을 수도, 잠을 청할 수도 없었다. 조셉은 주께서 마틴이 원고를 가져가서는 안 된다고 하셨는데, 자신이 그 말씀을 듣지 않아 그분께 죄를 지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⁴⁰

조셉은 떠오르는 아침 해를 보며 맨체스터에 있는 본가에 도착했다. 마침 가족들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조셉은 마틴에게 사람을 보내 함께 아침 식사를 하자고 청했다. 여덟 시가 되었고, 식사가 다 차려졌다. 그러나 마틴은 아직도 오지 않았다. 조셉과 식구들은 마틴을 기다리면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마틴은 네 시간을 훌쩍 넘기고서야 겨우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발끝만 바라보며 느릿느릿 스미스 가족의 집으로 걸어왔다.⁴¹ 그는 대문 앞에 멈춰 서더니, 담장에 걸터앉아 눈이 덮이도록 모자를 푹 눌러썼다. 그리고는 집 안으로 들어와 말없이 식탁에 앉았다.

스미스 가족들은 그런 마틴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는 식사를 하려는 듯 칼과 포크를 집어 들다가 그대로 떨어뜨리고

말았다. 마틴은 머리를 감싸 쥐고 울부짖었다. “나는 내 영혼을 잃어버렸어! 영혼을 잃었다고!”

조셉이 벌떡 일어났다. “마틴, 원고를 잃어버렸습니까?”

마틴이 대답했다. “네. 원고가 사라졌는데, 어디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오, 하나님, 하나님.” 조셉이 주먹을 움켜쥐고 신음했다. “다 잃었구나!”

조셉은 안절부절못하며 집 안을 맴돌았다. 눈앞이 캄캄했다. 조셉은 마틴에게 소리쳤다. “돌아가서 다시 한 번 찾아보세요.”

마틴이 울먹였다. “소용없어요. 구석구석 다 찾아보고 침대 랑 베개 속까지 열어 봤지만 집에는 없단 말입니다.”

“저더러 에머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전하라는 말입니까?” 충격을 받을 에머를 생각하니 조셉은 눈앞이 캄캄했다. “이제 전 어떻게 주님 앞에 선단 말입니까?”

루시는 아들을 진정시켜 보려고 했다. 그녀는 겸손히 회개 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라며 아들을 다독였다. 조셉은 흐느껴 울었고, 애초에 주님께 순종하지 않은 자신에게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그날 조셉은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그리고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하모니로 돌아갔다.⁴²

루시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을 떠나는 아들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온 가족이 바라던 모든 것이, 지난 몇 년간 그들에게 기쁨이 되었던 그 모든 것이 이대로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린 것만 같았다.⁴³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으로

18²⁸년 여름, 조셉이 하모니로 돌아오자 모로나이는 다시 와서 판을 거두어 갔다. 모로나이는 “네가 충분히 겸손하고 인내한다면 구월 스물두째 날 다시 판을 받으리라.”라고 말했다.¹

조셉은 참담했다.²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마틴에게 원고를 맡긴 것은 잘못된 일이었다. 이제 하나님은 판과 해석기를 맡기실 만큼 조셉을 신뢰하지 않으셨다. 하늘에서 어떤 벌을 주셔도 조셉은 할 말이 없을 것만 같았다.³

그는 무거운 죄책감과 회한을 느끼며 무릎을 꿇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으며, 만일 주님께서 다시 번역을 맡기신다면 무엇을 더 잘할 수 있을지 깊이 생각했다.⁴

7월의 어느 날, 집 근처에서 길을 걷고 있던 조셉에게 모로나이가 다시 나타났다. 모로나이는 해석기를 건넸고, 해석기 안

에서 신성한 전언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여러 일과 계획과 목적은 좌절될 수 없으며, 허사가 될 수도 없느니라.”⁵

조셉은 안도했다. 그러나 곧 그를 꾸짖는 말씀이 이어서 나타났다. “네게 주어진 명령이 얼마나 엄격하더냐. 너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지 말았어야 하였느니라.” 주님은 조셉에게 성스러운 것들을 더 신중히 다루라고 명하셨다. 금판의 기록은 마틴의 명성보다도, 인간을 기쁘게 하려는 조셉의 소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었다. 주님께서 금판을 마련하신 것은 고대에 주셨던 성약을 새롭게 하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여 구원받아야 함을 모든 이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였다.

주님은 조셉에게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라는 권고와 함께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행한 바를 회개하라. 너는 아직도 택함을 받은 자로다.” 그분은 다시 한 번 조셉을 당신의 선지자요 선견자로 부르시며,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경고하셨다.

“이를 행하지 아니하면, 너는 넘겨져 다른 사람과 같이 되어 더는 은사를 소유하지 못하리라.”⁶

그해 가을, 조셉의 부모가 하모니를 찾았다. 조셉이 맨체스터에 있는 집을 떠난 지 두 달이 다 되어 갔지만, 그들은 아들에게서 아무 소식도 듣지 못하고 있었다. 조셉 일세와 루시는 지난여름의 비극으로 아들이 받았을 크나큰 충격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치 않았다. 조셉은 겨우 몇 주 사이에 첫 아이를 잃었고, 아내도 잃을 뻔했으며, 원고마저 잃었다. 조셉의 부모는 아들과 며느리가 무사한지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다.

조셉 스미스 일세와 루시는 목적지를 2킬로미터 정도 앞두고서, 길에서 조셉과 마주쳤다. 평화롭고 행복해 보이는 아들의 모습에 그들은 더없이 기뻐했다. 조셉은 하나님의 신뢰를 잃었던 일이며, 죄를 회개한 일, 그리고 계시를 받은 일 등을 부모님에게 이야기했다. 주님께 책망을 받은 것은 쓰라린 경험이었지만, 조셉은 고대의 선지자들이 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게 계시를 기록해 두었다. 조셉 스미스가 주님께 받은 계시를 기록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조셉은 모로나이가 그 뒤로 판과 해석기를 돌려주었다고 하며, 천사가 기뻐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천사는 제가 충실하고 겸손해서 주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이제 조셉은 판을 여행 가방 속에 넣어 집 안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었다. “지금은 어머니가 번역을 받아적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천사가 주님께서 다른 사람을 서기로 보내 주실 거라고 했어요. 천사가 그렇게 말했으니 분명히 그렇게 되겠지요.”⁷

이듬해 봄, 마틴 해리스는 하모니로 와서 그다지 좋지 못한 소식을 전했다. 마틴의 아내인 루시 해리스가 조셉이 금판을 번역하는 척하는 사기꾼이라고 주장하며 소장을 제출한 것이었다. 이제 마틴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다. 마틴이 조셉에게 속았다고 증언하지 않으면, 루시는 남편에게도 사기죄를 뒤집어씌울 참이었다.⁸

마틴은 조셉에게 판의 존재를 증명할 증거를 더 달라고 매달렸다. 그는 법정에서 번역 일에 대해 낱낱이 다 밝히고 싶었지

만, 사람들이 그 말을 믿어 주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하고 있었다. 루시는 판을 찾겠다고 조셉의 집을 뒤지기까지 했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게다가 마틴도 조셉의 서기로 일한 두 달 내내 직접 판을 본 적은 없었으니, 자신이 판을 보았다고 증언할 수도 없었다.⁹

조셉은 이 일을 주님께 여쭙고 응답을 받았다. 주님께서는 마틴이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을 행사하려 하지 않는다면 법정에서 할 말을 알려 주지도, 다른 증거를 더 주지도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만일 그들이 나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아니하면, 설혹 내가 네게 말긴 것을 그들에게 모두 보여 주는 일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너, 나의 종 조셉을 믿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마틴에게 자비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하지만 그렇게 되려면 지난여름 조셉이 했듯이 마틴도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의 실수에서 교훈을 배워야만 한다고 하셨다. 그리고 정해진 때가 되면 세 명의 충실한 증인이 판을 직접 보게 될 것이며,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는 시도를 그만둔다면 마틴도 그중 한 사람이 되리라고 그분은 약속하셨다.¹⁰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렇게 밝히셨다. “만일 이 세대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아니하면, 나는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¹¹

마틴이 이 계시를 옮겨 적는 동안 조셉은 이 계시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마틴은 자신이 정확하게 적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셉과 에머에게 자신이 적은 것을 다시 읽어 주었다. 그때 에머의 아버지가 방에 들어왔고, 그도 계시를 읽는 마틴의 말소리를 함

게 들었다. 마틴이 계시를 다 읽자, 아이잭은 그 말을 누가 한 것이냐고 물었다.

조셉과 에머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에요.”라고 대답했다.

아이잭이 말했다. “망상에 빠졌군. 그만들 두게.”¹²

마틴은 아이잭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시를 적은 종이를 들고서 집으로 돌아가는 역마차에 올랐다. 금판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찾으러 하모니에 왔던 마틴은 그렇게 금판의 존재를 증언하는 계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비록 법정에서 이 계시에 대해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팔마이라로 돌아가는 마틴의 가슴 속에는 이제 주님께서 자신을 아신다는 지식이 살아 숨 쉬고 있었다.

마틴은 후에 판사 앞에 서서 간결하지만 힘 있게 증언했다. 그는 한 손을 높이 들고 금판의 진실을 증언했으며, 자신은 조셉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아무런 대가 없이 오십 달러를 주었다고 말했다. 루시가 제기한 혐의는 아무것도 입증되지 않았고, 사건은 기각되었다.¹³

조셉은 주님께서 빨리 다른 서기를 보내 주시기를 기도하며 계속해서 판을 번역해 나갔다.¹⁴

맨체스터에서는 올리버 카우드리라는 젊은이가 조셉의 부모와 함께 지내고 있었다. 조셉보다 한 살 어린 올리버는 1828년 가을부터 스미스 가족의 농장에서 남쪽으로 2킬로미터가량 떨어진 학교에 재직하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대개 교사들은 학생들의 집에서 하숙을 했지만, 조셉과 금판에 대한 소문을 접한 올리버는 스미스 가족에게 그 집에서 지내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처음에 가족들은 올리버 앞에서 말을 아꼈다. 그들은 원고가 사라지고 마을에 이런저런 소문이 나돌면서 경계심이 높아져 그 문제에 관해서는 입을 닫고 지냈다.¹⁵

그러나 올리버는 1828년과 1829년까지 이어진 겨울 동안 스미스 가족의 자녀들을 가르치면서 그 가족의 신뢰를 얻게 되었다. 그 무렵에 조셉 일세는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려 하신다는 계시를 듣고서 하모니에서 맨체스터로 돌아와 있었다.¹⁶ 올리버가 진지하게 탐구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판단이 선 조셉의 부모는 그에게 아들의 신성한 부름에 관한 이야기를 상세히 들려주었다.¹⁷

올리버는 그 이야기에 완전히 매료되었고, 번역 일을 돕고 싶다는 열망을 느꼈다. 올리버 역시 조셉처럼 현대의 교회들을 탐탁지 않게 여겼으며, 또한 기적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인간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 주신다고 믿었다.¹⁸ 그러나 조셉과 금판은 먼 곳에 있었다. 맨체스터에 머무는 한 그는 조셉의 일을 도울 수가 없었다.

지붕 위로 굽은 빗줄기가 쏟아지던 어느 봄날, 올리버는 학기가 끝나는 대로 하모니로 가서 조셉을 돕고 싶다는 뜻을 스미스 가족에게 전했다. 루시와 조셉 일세는 올리버에게 그 소망이 옳은지에 대해 주님께 여쭙 보라고 권했다.¹⁹

하루 일과를 마친 후, 올리버는 자신이 금판에 대해 들은 이야기가 진실인지 알아보고자 은밀히 기도했다. 주님께서 금판과 더불어 조셉이 그것을 번역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시현

으로 보여 주셨다. 올리버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서기로서 조셉을 도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²⁰

그는 누구에게도 이 기도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올리버는 학기가 끝나자마자 조셉의 동생인 새뮤얼을 동행하여 하모니로 향했다. 그들은 장장 160킬로가 넘는 그 길을 걸어서 갔다. 길은 봄비에 젖어 축고 질척었다. 마침내 올리버가 새뮤얼과 함께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그의 발가락은 동상으로 얼어붙어 있었지만, 그의 가슴은 어서 조셉 부부를 만나 주님께서 젊은 선지자를 통해 일하시는 모습을 직접 보고 싶다는 열망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다.²¹

하모니에 도착했을 때, 올리버는 마치 그곳이 항상 지내던 곳인 양 편안함을 느꼈다. 조셉은 밤늦도록 올리버와 대화를 나누며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의 물음에 대답해 주었다. 올리버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임에 틀림없었고, 조셉은 서기로 일하겠다는 그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올리버가 온 뒤 조셉이 맨 처음 한 일은 작업할 장소를 찾는 것이었다. 조셉은 올리버에게 장인 앞으로 보낼 계약서의 초안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계약서는 당시 에머와 함께 살던 작은 집과 헛간, 농지, 근처의 우물에 대해 조셉이 반드시 값을 치를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²² 에머의 부모는 딸의 생활이 안정되기를 바라며 계약 조건에 동의했고, 조셉이 예사치 않은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이웃들의 두려움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²³

그러는 사이, 조셉과 올리버는 번역을 시작했다. 두 사람은 몇 주에 걸쳐 만족스럽게 작업을 이어갔다. 에머도 자주 그 방에서 자기 일을 하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²⁴ 조셉은 판에 새겨진 문자에 해석기를 대고 들여다보면서 영어로 읽어 나가는 식으로 번역을 했다.

때로는 선견자의 돌 하나만 사용하는 것이 더 편리하기도 했다. 조셉은 선견자의 돌을 모자에 넣은 후 빛이 들어오지 않게 모자에 얼굴을 집어넣고 선견자의 돌을 들여다보았다. 그러면 어둠 속에서 선견자의 돌이 빛을 발하며 글을 보여 주었고, 조셉이 그 내용을 읽으면 올리버가 빠르게 종이에 받아적었다.²⁵

주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조셉은 잃어버린 원고의 기록을 다시 번역하려고 애쓰지 않았다. 그 대신 그는 올리버와 함께 계속해서 다음 부분을 번역해 나갔다. 주님은 원고를 가져다가 내용을 조작해 번역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도록 사탄이 사악한 자들을 사주했다는 것을 알려 주셨다. 그러나 그분은 조셉에게 당신이 고대의 선지자들에게 영감을 주시어 금판에 들어갈 또 다른 판을 준비하게 하셨고, 그 판에는 잃어버린 부분의 내용을 채워 줄 기사가 담겨 있다고 확인해 주셨다.²⁶

주님은 조셉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내 말을 바꾸어 놓은 자들을 당혹스럽게 하리니, 나의 지혜가 악마의 간계보다 큼을 내가 그들에게 보일 것이니라.”²⁷

조셉의 서기로 일하면서 올리버는 전율을 느꼈다. 조셉은 매일같이 니파이인과 레이맨인으로 불리던 두 큰 민족의 복잡한 역사를 구술했고, 올리버는 그의 말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의로운 왕과 사악한 왕, 속박당한 백성과 속박에서 벗어난 백성들, 그리고 사람과 짐승의 뼈로 뒤덮인 별판에서 기록을 발견하여 선견

자의 돌로 번역했던 고대 선지자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그 고대 선지자는 조셉처럼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을 지닌 계시자이자 선지자였다.²⁸

판의 기록은 설 새 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들려주었다. 또한 올리버는 선지자들이 고대에 교회를 이끌고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모습들을 배워 나갔다.

그러나 올리버에게는 아직도 주님의 사업에 관한 풀리지 않은 의문들이 많았다. 그는 간절히 그 답을 찾고 싶어 했다. 조셉은 우림과 둠뎀을 통해서 올리버를 위한 계시를 구했다. 주님께 서는 이렇게 응답하셨다. “만일 내가 나에게 물으면, 받게 되리라. 만일 내가 탐구하면, 크고 기이한 여러 비밀을 알게 되리라.”

또한, 주님은 올리버에게 하모니로 오기 전에 받았던 증거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때까지도 올리버는 그 일을 아무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다. 주님은 올리버에게 물으셨다. “내가 그 일에 대하여 네 생각에 평강을 말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보다 무슨 더 큰 증거를 얻을 수 있겠느냐? 만일 내가 다른 이는 알지 못하는 것을 너에게 말해 준다면 네가 증거를 받은 것이 아니겠느냐?”²⁹

올리버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은밀히 기도하여 성스러운 증거를 얻었던 일을 조셉에게 곧바로 이야기했다. 올리버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그 일을 알 수 없으며, 이제 자신은 이 일이 참됨을 안다고 말했다.

그들은 다시 작업을 이어나갔다. 한편, 올리버는 자신도 번역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³⁰ 그는 하나님께서 선견자의 돌 같은 도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다고 믿었으며, 자신도 종종 수맥이나 광물을 찾기 위해 막대기를 써 본 일이 있었다. 그

러나 그런 막대기로 하나님의 권능을 얻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었다. 계시가 오는 과정은 올리버에게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것이었다.³¹

조셉은 다시 올리버를 대신해 주님께 여쭙보았고, 주님은 올리버도 신앙으로 질문한다면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권능이 있음을 알려 주셨다.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아론의 지팡이처럼 올리버의 막대기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쓸 수 있는 도구라고 확인해 주셨다. 그리고 주님께서서는 올리버에게 계시에 관하여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다. “나는 성신으로 말미암아 네 생각과 네 마음에 말하리라. 보라, 이것은 계시의 영이니라.”

또한, 주님께서서는 올리버가 신앙에 의지한다면 조셉처럼 기록을 번역할 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다. “신앙 없이는 네가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을 기억하라.”³²

올리버는 계시를 받은 후 들뜬 마음으로 번역을 시도했다. 그런데 조셉이 하던 대로 해 보아도 글을 읽어 내기가 쉽지 않자, 그는 좌절감을 느끼고 혼란스러워했다.

조셉은 올리버가 힘겨워하는 모습이 안쓰러웠다. 자신이 오랫동안 마음과 생각을 다잡고서야 할 수 있었던 일을 올리버는 한순간에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것은 영적인 은사가 있다고 해서 바로 되는 일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일에 영적인 은사를 사용하고 싶다면, 시간을 들여 그것을 연마하고 발전시켜야만 했다.

올리버는 금세 번역을 단념했고, 자신이 해내지 못한 이유를 조셉에게 물었다.

조셉은 그 질문을 주님께 여쭙었다. 그리고 응답이 왔다. “너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다만 내게 간구하기만 하면, 내

가 네게 그것을 줄 줄로 여겼도다. 너는 네 생각으로 그것을 연구
해야만 하느니라. 그리고 나서 그것이 옳은지를 내게 물어야 하느
니라.”

주님은 올리버에게 인내하라고 말씀하셨다. “지금 네가 번역
함은 필요하지 아니하니라. 네가 부름을 받아 해야 할 일은 내 종
조셉을 위하여 필기하는 것이니라.” 주님은 올리버에게 나중에 다
시 번역할 기회를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나 지금은 올리버는
서기였고, 조셉이 선견자였다.³³



동역자 된 종들

1829년의 봄은 5월까지도 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되었다. 하모니 인근의 농부들은 날씨가 포근해질 때까지 파종을 미룬 채 집 안에서만 생활했다. 그리고 그 쌀쌀한 봄 동안 조셉과 올리버는 번역 일에 온 힘을 쏟아부었다.¹

이제 조셉과 올리버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을 당시 니파이인과 레이맨인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기사를 번역하고 있었다. 기록은 그때 그곳에서 큰 지진과 폭풍이 일어나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지형이 뒤바뀌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전했다. 일부 성읍은 땅 밑으로 가라앉았고, 또 불에 타 버린 성읍도 있었다. 몇 시간이나 천지를 가르는 듯한 번개가 치고, 태양이 자취를 감추어 세상은 짙은 어둠에 휩싸였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죽은 이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는 날이 사흘간 지속되었다.²

그리고 마침내, 어둠을 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려왔다. “너희는 이제 내게로 돌아와 너희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내가 너희를 고치게 하지 아니하려느냐?”³ 구주께서 어둠을 몰아내셨고, 백성들은 죄를 회개했다. 얼마 후, 사람들은 풍요라 불리는 땅의 성전으로 모여들어 눈앞에서 일어난 이 믿기 힘든 일들을 서로 이야기했다.⁴

그리고 그때,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다. 그분은 말씀하셨다. “보라, 나는 선지자들이 세상에 오리라고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라.”⁵ 그리스도는 한동안 이 백성과 함께 지내시며 당신의 복음을 가르치셨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죄 사함을 위한 침수로써 침례를 받으라고 명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믿고 침례를 받는 자, 그는 구원을 얻으리니,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자들이 그들이리라.”⁶ 구주께서는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의로운 남성들에게 권세를 부여하시고, 당신을 믿는 이들에게 침례를 주게 하셨다.⁷

조셉과 올리버는 이 부분을 번역하면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 조셉은 자신의 형 앨빈과 마찬가지로 침례를 받은 적이 없었다. 그는 침례를 행하는 데 필요한 의식과 권세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다.⁸

1829년 5월 15일, 비가 그친 후 조셉과 올리버는 사스케하나강 근처에 있는 숲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드리며 침례와 죄 사함에 관해 하나님께 여쭙었다. 조셉과 올리버는 곧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구속주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 그리고 뒤이어 빛 구름에 둘러싸인 한 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났다. 천사는

자신을 침례 요한이라 소개하고, 두 손을 조셉과 올리버의 머리 위에 얹었다. 두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며 벅찬 기쁨에 휩싸였다.

요한이 말했다. “나의 동역자 된 종들인 너희에게 메시아의 이름으로 나는 아론 신권을 부여하노라. 이는 천사의 성역, 회개의 복음 그리고 죄 사함을 위한 침수로써의 침례의 열쇠들을 지니고 있[느니라.]”⁹

요한의 음성은 온화하면서도 가슴속 깊은 곳까지 파고드는 힘이 있었다.¹⁰ 그는 조셉과 올리버가 이제 아론 신권의 권세로써 침례를 행할 수 있게 되었음을 설명하고, 자신이 떠난 뒤에 서로에게 침례를 주라고 명했다. 또한 그는 두 사람이 나중에 다른 신권을 하나 더 받게 될 것이며, 그 신권이 있으면 서로에게, 또 침례를 받은 다른 사람에게 성신의 은사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침례 요한이 떠난 후, 조셉과 올리버는 강물 속으로 들어갔다. 먼저 조셉이 올리버에게 침례를 주었다. 올리버는 물에서 일어나자마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기 시작했다. 그에 이어서 이번에는 올리버가 조셉에게 침례를 주었다. 물에서 나온 조셉은 주님께서 인간들 가운데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그리스도 교회의 번영에 대해 예언했다.¹¹

조셉과 올리버는 침례 요한이 지시한 대로 숲으로 돌아와 서로를 아론 신권에 성임했다. 그들은 그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고대 기록 번역 작업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신권과 그 권세에 대한 내용을 자주 접해 왔었다. 이제 그들은 그 권세를 직접 소유하게 된 것이었다.

침례를 받은 후 조셉과 올리버는 복잡하고 난해하게 여겨졌던 성구들을 곧 명확히 이해하게 되었다. 그들은 진리와 이해로 생각이 밝아졌다.¹²

한편, 뉴욕에 사는 올리버의 친구 데이비드 휘트머는 조셉이 하는 일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다. 데이비드는 맨체스터에서 48킬로미터 떨어진 페이에트에 살았지만, 올리버가 스미스 가족과 함께 살면서 교사 일을 할 때부터 그와 친구로 지내 왔다. 둘은 자주 금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올리버는 하모니로 떠나면서 번역에 관한 일을 편지로 알려 주겠다고 데이비드에게 약속했었다.

그로부터 얼마 안 가서 데이비드는 올리버의 편지들을 받아 보게 되었다. 올리버는 자신의 삶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세세한 부분을 조셉이 자세히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그는 조셉이 계시를 받고 판을 번역하는 이야기도 상세히 들려주었다. 번역된 내용 몇 줄과 함께 그것이 참되다는 간증을 편지에 적어 보낸 적도 있었다.

후에 올리버는 편지를 통해 하모니로 마차를 가져와 자신과 조셉, 에머를 페이에트에 있는 데이비드의 집으로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다. 편지에서 그는 데이비드의 도움으로 그들이 그곳에서 번역 일을 마무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다.¹³ 당시 조셉과 에머는 하모니 사람들의 인심을 잃어 가고 있었다. 심지어 집으로 쳐들어오겠다고 위협하는 사람들까지 있을 정도였다. 에머의 친정 식구들이 아니었더라면 그들은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을 만한 상황이었다.¹⁴

데이비드는 올리버의 편지를 가족들에게 보여 주었다. 휘트머 가족은 조셉과 에머, 올리버를 집에 들이기로 결정했다. 휘트머 일가는 독일어를 쓰는 그 지역 정착민의 후손이었다. 이 가족은 근면하고 독실한 것으로 이름이 나 있었다. 휘트머 가족의 농장은 맨체스터에 있는 조셉의 본가와 왕래가 가능하면서도 보물수색꾼들이 쫓아오지는 못할 만큼 먼 거리에 있었다.¹⁵

데이비드는 당장 하모니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었다. 하지만 데이비드의 아버지는 당장 마무리해야 할 농사일을 마친 후에 하모니로 출발하도록 권했다. 그 일을 다 하려면 꼬박 이틀은 걸릴 것이었다. 당시는 파종 철이었다. 데이비드는 2만 4천여 평의 땅을 쟁기로 간 뒤, 밀이 잘 자라도록 석회를 뿌려야 했다. 데이비드의 아버지는 꼭 당장 가야만 하는지를 기도로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데이비드는 기도를 드렸고, 하모니로 떠나기 전에 집에서 할 일을 끝내라는 영의 속삭임을 느꼈다.

이튿날 아침, 밭으로 나간 데이비드는 밭에 깊은 고랑이 저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그 밭은 쟁기가 닿은 적도 없는 땅이었다. 밭을 자세히 둘러보니 약 7천여 평가량의 면적이 다 갈려 있었다. 나머지 일은 데이비드에게 하라는 듯 쟁기가 마지막 고랑에 세워져 있었다.

이 소식을 들은 데이비드의 아버지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 일에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구나. 석회를 다 뿌리는 대로 어서 펜실베이니아로 가거라.”

데이비드는 힘을 내어 남은 밭을 마저 다 갈고, 파종 준비를 마쳤다. 일을 마친 그는 힘 좋은 말을 마차에 묶고 예정보다 이른 시각에 하모니로 출발했다.¹⁶

조셉 부부와 올리버가 집에 온 후로 데이비드의 어머니인 메리의 생활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다. 데이비드의 부모인 메리와 피터는 근방에 사는 분가한 자식들까지 포함해 모두 팔 남매를 두었는데, 자녀들의 나이는 대략 열다섯 살부터 서른 살 사이였다. 그렇지 않아도 가족들 뒤치다꺼리에 하루하루가 빠듯했는데, 이제 세 명의 객식구까지 생긴 것이었다. 메리도 조셉의 부름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불만을 표하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피로가 쌓여 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다.¹⁷

그해 여름은 유난히 무더웠다. 메리가 빨래와 식사 준비 등으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조셉은 위층 방에서 번역에 몰두했다. 보통은 올리버가 서기 일을 했지만, 예머나 휘트머 식구 한 명이 펜을 들고 순서를 넘겨받을 때도 있었다.¹⁸ 조셉과 올리버는 때로 번역 일로 머리가 무겁고 피로할 때면 가까운 연못으로 나가 물수제비를 뜨곤 했다.

메리는 허리를 펼 새도 없이 매일 일했다. 늘어난 집안일은 이제 메리가 감당하기 버거울 정도가 되었다.

어느 날, 메리가 외양간 옆에 나와 있을 때 백발을 하고 어깨에 큰 주머니를 멘 한 남자가 메리 앞에 나타났다. 낯선 사람의 등장에 메리는 더럭 겁이 났지만, 그가 다가오며 친절한 목소리로 말을 건네자 곧 마음이 놓였다.

그 남자는 이렇게 말했다. “내 이름은 모로나이라. 그대는 마땅히 해야 할 일 외의 일까지 하느라 몹시도 지쳐 있도다.” 모로나이는 메리가 보는 앞에서 주머니를 내려 열어 보였다.¹⁹

모로나이가 말했다. “그대는 정말로 충실하고 부지런히 일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그대는 신앙이 강건해지도록 증거를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²⁰

모로나이가 주머니에서 꺼낸 것은 금판이었다. 그는 금판을 들고서 메리가 거기 적힌 것들을 볼 수 있게 한 장 한 장을 넘겨 주었다. 금판을 마지막 장까지 다 보여 준 뒤, 그는 인내와 신앙으로 이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조금만 더 견디라고 메리를 격려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할 때 메리가 받게 될 축복을 약속했다.²¹

잠시 후 모로나이가 떠난 자리에 메리는 홀로 남아 있었다. 할 일은 여전히 많았지만, 이제는 그 일들이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다.²²

휘트머 가족의 농장에 머무는 동안 번역 작업은 빠르게 진행되었지만, 종종 고비가 찾아올 때도 있었다. 번역이 아닌 다른 일들로 머릿속이 어지러울 때가 있었고, 그럴 때면 조셉은 영적인 것들에 집중하기가 힘들었다.²³ 휘트머 가족의 아담한 집은 항상 분주하고 소란스러웠다. 이곳에서는 하모니에서만큼 사생활을 보호받기가 어려웠다.

하루는 아침에 번역 준비를 하던 중에 조셉이 어머니에게 화를 낸 적이 있었다. 그는 곧 위층으로 올라가 올리버와 데이비드와 같이 작업을 시작하려 했지만, 단 한 마디도 번역할 수 없었다.

결국 조셉은 밖으로 나와서 과수원으로 들어갔다. 그는 그곳에서 한 시간가량 머물며 하나님께 기도드린 뒤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다. 그런 다음에야 그는 평소처럼 판을 번역해 나갈 수 있었다.²⁴

조셉은 이제 기록의 마지막 부분을 번역하고 있었다. 니파이의 작은 판으로 알려진 이 부분은 번역한 책의 첫 부분에 수록

될 것이었다. 전에 번역했다 잃어버린 부분과 비슷한 내용이 기록된 이 작은 판에는 니파이라는 젊은이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니파이의 가족은 하나님의 인도로 예루살렘을 떠나 새로운 약속의 땅을 찾아간 사람들이었다. 이 판은 금판 기록의 시초를 밝히고, 니파이인과 레이맨인 사이에 벌어진 싸움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이 판에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내용, 즉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에 대한 강력한 간증이 기록되어 있었다.

조셉은 판의 마지막 장을 번역하면서 이 기록의 목적과 제목이 설명된 부분을 보게 되었다. 그는 이 책이 그 기록을 엮은 고대의 선지자이자 역사가의 이름을 따서 몰몬경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²⁵

조셉은 몰몬경을 번역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업에서 작차해야 할 일들을 깊이 알게 되었다. 몰몬경에는 조셉이 성경에서 배웠던 기본적인 가르침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대한 새로운 진리와 통찰이 담겨 있었다. 후기에 대해 언급된 구절도 있었다. 거기에는 조셉이라는 이름의 택함받은 선견자가 주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고, 잃어버린 지식과 성약을 회복하리라는 것이 예언되어 있었다.²⁶

또한, 니파이는 학식 있는 사람들은 입을 수 없는 봉인된 책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을 상세히 기술했다. 조셉은 그 예언을 읽으며 마틴 해리스와 안톤 교수가 나누었던 대화를 떠올렸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이 땅속에 있던 이 책을 세상에 내놓으시고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실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²⁷

번역이 마무리되어 가자 조셉과 동료들은 몰몬경과 여러 계시에서 언급된, 세 명의 증인에게 금판을 보이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에 주의를 돌리기 시작했다. 그 무렵에 조셉의 부모와 마틴 해리스는 휘트머 농장에 와 있었다. 어느 날 아침, 마틴과 올리버, 데이비드는 자신들이 그 증인이 되게 해 달라고 조셉에게 간청했다. 조셉이 이 문제로 기도드리자, 주님은 그들이 전심전력으로 그분께 의지하고 진리를 간증한다면 그 판을 보게 되리라고 응답하셨다.²⁸

조셉은 특별히 마틴에게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형제님이 지은 죄에 대한 용서를 받으셔야 합니다.”²⁹

몇 시간 뒤, 조셉은 세 사람을 데리고 휘트머 집 근처에 있는 숲으로 갔다. 그들은 무릎을 꿇고 서로 돌아가면서 주님께 판을 보여 주시기를 기도드렸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네 사람은 다시 한 번 기도했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마침내 마틴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하늘이 열리지 않는 것은 자신 때문이라고 말하며 자리에서 물러났다.

조셉과 올리버, 데이비드는 다시 기도에 집중했고, 곧 천사가 밝은 빛을 발하며 그들 위로 나타났다.³⁰ 천사는 판을 들고서, 세 사람이 판에 새겨진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판을 한 장 한 장 넘겨 주었다. 그런 다음, 천사 옆으로 탁자 하나가 나타났다. 탁자 위에는 몰몬경에 나오는 고대의 유물들이 놓여 있었다. 그들은 해석기와 가슴판, 칼, 그리고 니파이의 가족을 예루살렘에서 약속의 땅으로 안내했던 그 놀라운 방향구를 자신들의 두 눈으로 생생히 보았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이 판들은 나의 권능으로써 드러났으며, 나의 권능으로써 번역되었느니라. 너희들이 본 번역은 정확한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너희가 지금 보고 들은 바를 증거할지이다.”³¹

천사가 떠난 뒤에 조셉은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조셉은 무릎을 꿇고 있는 마틴을 발견했다. 마틴은 아직 주님께 증거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여전히 판을 보고자 열망했다. 마틴은 조셉에게 함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고, 두 사람은 나란히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했다. 기도를 채 마치기도 전에 앞서 나타났던 천사가 다시 나타나 마틴에게도 금판과 고대의 유물을 보여 주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마틴이 외쳤다. “내 눈으로 직접 보았어요! 똑똑히 보았어요!”³²

오후 늦게 조셉은 세 명의 증인과 함께 휘트머의 집으로 돌아왔다. 조셉은 메리 휘트머가 조셉의 부모와 담소를 나누고 있는 방으로 뛰어 들어갔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조셉은 어머니 옆에 앉았다. “주님께서 저 말고도 세 사람에게 판을 더 보여 주셨어요. 이제 그분들도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아요.”

그는 어깨에서 큰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지금부터는 그분들도 함께해야만 해요.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뒤이어 기쁨에 흠뻑 젖은 마틴이 들어왔다. “저도 하늘에서 온 천사를 보았어요! 제 영혼의 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찬미하니

다. 그분은 몸을 낮추어 저 같은 사람한테도 이 위대한 사업을 증거해 주셨어요!”³³

며칠 뒤, 휘트머 가족이 맨체스터의 농장에 있는 조셉의 본가를 찾아왔다. 주님은 일찍이 “그가 보시기에 좋으신 만큼 많은 증인들의 입으로” 말씀을 확증하겠다고 약속하신 바가 있었다. 조셉은 아버지인 조셉 일세를 비롯해 하이럼, 새뮤얼, 데이비드 휘트머의 형제들인 크리스찬, 제이콥, 피터 이세, 존, 그리고 그들의 처남인 하이럼 페이지와 함께 숲으로 갔다.³⁴

그들은 스미스 가족이 종종 은밀히 기도드리던 장소에 모였다. 조셉은 주님의 허락을 받아 판을 꺼내어 그들에게 보여 주었다. 그들은 세 명의 증인과 달리 천사를 보지는 못했지만, 직접 판을 들고 낱장을 넘기며 고대의 기록을 살펴보았다. 이제 천사와 고대 기록에 대한 조셉의 간증을 믿는 그들의 신앙은 더없이 확고해졌다.³⁵

마침내 번역이 완성되었고, 조셉은 기적과 같은 자신의 간증을 뒷받침해 줄 증인들을 얻었다. 조셉은 이제 더는 판이 필요하지 않았다. 여덟 명의 증인이 숲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간 후 천사가 나타났고, 조셉은 성스러운 기록을 다시 천사에게 돌려주었다.³⁶



그리스도의 교회, 일어나다

1828년 7월 초, 번역 원고를 손에 든 조셉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이제 그는 몰몬경을 책으로 만들어 그 메시지를 세상에 널리 알려야 했다. 그러나 스미스 가족 중에는 출판 일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조셉은 원고도 안전하게 지켜야 했고, 인쇄업자도 찾아야 했으며, 새로운 경전의 가능성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전하는 일도 해야 했다.

게다가 몰몬경처럼 긴 분량의 책을 출판하는 데에는 그 비용도 적잖이 들어갈 것이었다. 번역을 시작한 뒤로 조셉은 형편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으며, 그가 버는 돈은 전부 식구들의 생계비로 들어가고 있었다. 조셉의 부모도 사정이 다르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자기 땅 한 떼기가 없는 가난한 농부에 불과했다. 조셉

주변에서 이 일을 금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은 마틴 해리스뿐이었다.

조셉은 서둘러 일을 시작했다. 번역이 마무리되어 갈 무렵에는 원고가 도난당하거나 표절당하지 않도록 몰몬경의 저작권도 신청했다.¹ 조셉은 마틴의 도움을 받아 몰몬경을 출판할 의향이 있는 업자를 찾아 나섰다.

그들이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은 에그버트 그랜딘이었다. 조셉과 동갑인 그는 팔마이라에서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랜딘은 몰몬경이 허위라 생각하여 그들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다. 하지만 조셉과 마틴은 낙담하지 않고 계속 출판업자를 물색했고, 드디어 인근 도시에서 뜻이 있는 사람을 한 명 찾아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사람과 계약을 하기 전에 팔마이라로 돌아와서 그랜딘에게 몰몬경을 출판할 의사가 있는지를 한 번 더 물어보았다.²

그랜딘은 이번에는 좀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그는 5,000권을 인쇄해 제본하는 비용을 3,000달러로 책정했고,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돈을 받기를 원했다. 인쇄 비용은 이미 마틴이 지원해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지만, 그만큼 금액을 마련하려면 그의 농장을 저당 잡혀야 했다. 마틴에게 그것은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는 조셉의 주변에서 그 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마음이 복잡해진 마틴은 몰몬경 출판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인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마틴의 농장은 그 지역에서도 손꼽히는 땅이었다. 땅을 담보로 넣었다가 자칫하면 땅을 잃을 수도 있었다. 몰몬경이 잘 팔리지 않으면 평생 모은 재산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 것이 분명했다.

마틴은 조셉에게 고민을 털어놓으며 자신을 위해 계시를 구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구주께서는 비용이 얼마가 들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희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응답하셨다. 그러면서, 그분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도록 당신께서 그들을 대신해 짓값을 치르며 겪으셨던 극한의 고통을 설명하셨다. 주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마틴에게 개인적인 이익을 희생하라고 명하셨다.

“너는 네 자신의 재물을 탐하지 말며, 오히려 몰몬경의 인쇄에 아낌없이 내어 놓을 것이니라.” 주님은 몰몬경에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담겨 있으며, 그 책을 통해 인류가 복음을 믿게 되리라는 사실을 마틴에게 확인해 주셨다.³

비록 이웃 사람들은 마틴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마틴은 주님의 말씀대로 농장을 담보로 출판 비용을 마련했다.⁴

그랜딘은 계약서에 서명한 뒤 이 방대한 작업의 일정을 짜기 시작했다.⁵ 조셉이 한 번에 서기 한 명의 도움만을 받으며 몰몬경 번역 작업을 하는 데 걸린 기간은 석 달이었다. 그랜딘과 여남은 명의 직원들이 590쪽 분량의 몰몬경 초판을 인쇄하고 제본하는 데는 총 7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었다.⁶

1829년 10월, 출판업자를 고용한 조셉은 에머와 함께 지내면서 농장을 일구기 위해 하모니로 돌아갔다. 그동안은 올리버와 마틴, 하이럼이 인쇄 과정을 감독하면서 진척 상황을 조셉에게 주기적으로 알려 주기로 했다.⁷

조셉은 자신이 번역한 첫 부분의 원고를 잃어버렸을 때 느꼈던 절망감을 떠올리며, 올리버에게 한 장도 빠트리지 말고 몰몬

경 원고의 사본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인쇄소에서 구 두점을 찍고 조판 작업을 할 때 그 사본을 사용할 생각이었다.⁸

올리버는 즐거운 마음으로 사본을 만들었다. 당시 그가 쓴 편지에는 몰몬경에 나오는 문구가 가득 실렸다. 올리버는 몰몬경에 나오는 니파이와 야곱, 앰올레크의 말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무한한 속죄에 감사하는 내용을 담아 조셉에게 편지를 보냈다.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 적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저 시간과 지면이 부족할 따름입니다.”⁹

몰몬경이 인쇄되는 동안, 그 같은 영에 이끌려 몰몬경에 관심을 갖게 된 사람은 올리버만이 아니었다. 과거에 인쇄소 도제 일을 한 경력이 있는 토머스 마쉬는 교회를 찾고 있었다. 그가 보기에 성경대로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는 어디에도 없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는 회복된 진리를 가르칠 새로운 교회가 곧 나타나리라 믿고 있었다.

그해 여름, 토머스는 영에 이끌려 보스턴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수백 킬로미터를 여행하여 뉴욕 서부로 갔다. 그는 자신이 그렇게 멀리까지 오게 된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그 지역에서 석 달을 머물렀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룻밤을 묵은 집에서 그는 집 주인에게서 조셉 스미스의 “황금 책”에 대해 들어 보았냐는 질문을 받게 된다. 토머스는 들어 보지 못했다고 대답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책을 꼭 알아봐야겠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 주인은 토머스에게 팔마이러로 가서 마틴 해리스를 만나 보라고 이야기했다. 토머스는 곧장 그 길로 팔마이러로 달려가서 그랜딘의 인쇄소를 찾아가 마틴을 만났다. 그리고 그랜딘에게 16쪽 분량의 몰몬경 낱장을 건네받고는 이 새로운 종교를 처음으로

접하는 순간을 아내 엘리자베스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그것을 그대로 들고 보스턴으로 돌아갔다.

엘리자베스는 그 사본을 읽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음을 믿게 되었다.¹⁰

그해 가을, 몰몬경 인쇄가 점차 진행되어 가던 중에 전직 판사였던 에브너 코올이란 사람이 팔마이라 그랜딘의 인쇄소에서 신문을 발행하기 시작했다. 에브너는 인쇄소 직원들이 퇴근한 밤 시간에 인쇄소를 사용하면서 아직 제본이 끝나지 않은, 판매 전의 몰몬경 인쇄본을 보게 되었다.

얼마 안 가서 에브너는 자신이 발행하는 신문을 통해 이른바 “황금 성서”를 조롱하기 시작했고, 겨울에는 몰몬경 발췌문에 풍자 논평을 곁들여 신기도 했다.¹¹

그 사실을 알게 된 하이럼과 올리버가 에브너를 찾아갔다. 하이럼이 그에게 따져 물었다. “무슨 권리로 몰몬경을 이런 식으로 신문에 내는 겁니까? 우리가 저작권이 있다는 걸 모릅니까?”

그러자 에브너는 이렇게 대꾸했다. “당신들이 상관할 바 아니요. 나는 인쇄소에 돈을 냈으니 나 좋을 대로 할 거요.”

하이럼은 물러서지 않았다. “당신은 이제부터 그 신문에 더는 몰몬경 내용을 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에브너는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요.”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하이럼과 올리버는 어떻게 해야 할지 의견을 구하기 위해 하모니에 있는 조셉에게 전갈을 보냈고, 조셉은 즉시 팔마이라로

돌아왔다. 조셉이 도착했을 때, 에브너는 인쇄소 사무실에서 태평하게 자신이 발행한 신문을 읽고 있었다.

“바빠 보이시는군요.” 조셉이 말했다.

“안녕하십시오, 스미스 씨.” 에브너는 냉랭하게 대답했다.

“코올 선생님, 물론경과 물론경의 출판권은 제게 있습니다. 쓸데없는 참견은 그만두시지요.”

그러자 에브너가 외투를 벗어 던지고 소매를 걷어붙였다. 그는 주먹을 맞부딪치며 고향을 질렀다. “나와 싸워 보겠다는 말이오? 그럼 당장 덤벼 보시오!”

조셉은 웃음을 띠며 말했다. “외투는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도 춥고, 저는 선생님과 싸울 생각이 없습니다.” 조셉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하지만 제 책의 내용을 신는 일은 그만두십시오.”

에브너는 여전히 씩씩거렸다. “그렇게 잘났으면 옷 벗고 덤벼 보라니까!”

조셉이 대답했다. “세상에는 법이 있습니다. 여태 모르셨다면, 이제 알게 되실 겁니다. 저는 선생님과 싸우지 않겠습니다. 좋을 게 없으니까요.”

에브너는 자신이 법에 저촉되는 일을 했음을 알고 있었다. 에브너는 조셉의 말에 입을 다물었고, 그 뒤로는 신문에 물론경을 발췌해 신는 행위를 더는 하지 않았다.¹²

솔로몬 체임벌린이라는 목사는 캐나다로 가는 길에 팔마이러 근처에서 잠시 머물렀는데, 그는 그곳에서 “황금 성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토머스 마쉬처럼, 그는 평생 이 교회 저 교회를 옮겨 다

니고 있었고, 자신이 보았던 것들에 대한 불만이 쌓여 있었다. 복음의 원리를 가르치고 영적인 은사를 믿는 교회도 몇 곳 있었지만, 그런 곳에도 하나님의 선지자나 신권은 없었다. 솔로몬은 주님이 당신의 교회를 세상에 알리실 시기가 오고 있음을 느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이 머물던 집의 식구들이 조셉 스미스와 금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그는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 솔로몬은 스미스 가족을 찾아가서 그 책에 대해 알아보기로 마음먹었다.

스미스 가족의 집으로 찾아간 솔로몬은 문 앞에서 하이럼을 만났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다. “이 책에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하이럼은 “그러기를 바랍니다.” 하고 화답했다.

솔로몬이 물었다. “이 책에 시현이나 계시를 믿는 분이 계십니까?”

하이럼은 “네, 저희 가족은 모두 시현을 믿습니다.”라고 답했다.

솔로몬은 몇 년 전 자신이 보았던 시현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시현에서 천사를 보았는데, 그 천사는 아직 세상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없지만, 옛날 사도들의 교회에 있었던 것과 똑같은 권능이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제 곧 일으키실 것이라고 전했다. 하이럼을 비롯한 스미스 가족은 솔로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들도 그렇게 믿는다고 말했다.

솔로몬이 말했다. “여러분이 알게 되신 것들을 제게도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이럼은 솔로몬에게 스미스 농장에서 묵어가도록 권했다. 또한 그는 솔로몬에게 몰몬경 원고를 보여 주었다. 솔로몬은 이를

간 원고를 읽어 본 뒤, 하이럼과 함께 그랜딘의 인쇄소 사무실로 가서 인쇄된 몰몬경 중 64쪽 분량을 얻었다. 솔로몬은 제본도 되지 않은 몰몬경 낱장을 들고 캐나다로 가면서, 그 길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새로운 종교에 대해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가르쳤다.¹³

1830년 3월 26일, 제본을 마친 몰몬경 초판본이 그랜딘의 인쇄소 1층에서 판매되기 시작했다. 갈색 송아지 가죽으로 단단히 장정된 이 책은 가죽과 풀, 종이와 잉크 냄새를 풍겼다. 그리고 책 등에는 금색 활자로 몰몬경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¹⁴

루시 스미스는 새로 나온 경전을 더없이 소중하게 여겼다. 그녀에게 이 책은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모으시고, 고대에 주셨던 성약을 회복하실 증표였다. 표제지에는 이 책이 나온 목적이 나와 있었다.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과거에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하신 위대한 일들을 알리고, 오늘날의 사람들에게도 그와 똑같은 축복을 선사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온 세상에 명백히 전하는 것이었다.¹⁵

그 책 뒷부분에는 세 사람의 증인과 여덟 사람의 증인이 남긴 간증이 수록되어 있었다. 그것은 자신들이 직접 금판을 보았고, 그 번역이 참됨을 안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는 내용이었다.¹⁶

이러한 간증에도 불구하고 몰몬경을 허구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루시는 알고 있었다. 많은 이웃들은 경전은 성경 하나로 충분하다고 믿었으며, 하나님께서는 다수의 민족을 당신의 말씀으로 축복하셨음을 깨닫지 못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오래전에는 세상을 향해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믿음으로 몰몬경을 거부했다.

그렇게 이런저런 이유로 팔마이라에서는 몰몬경을 사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¹⁷ 그러나 몰몬경을 읽고 그 가르침에 담긴 힘을 느끼고서, 주님께 무릎 꿇고 그것이 참된지를 알기 위해 기도로 간구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루시는 몰몬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았다. 그녀는 세상 사람들에게 몰몬경을 알려 주고 싶었다.¹⁸

몰몬경이 출판되자, 조셉과 올리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조직하기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몇 달 전에는 침례 요한이 약속한 대로 고대에 주님의 사도였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나타나 조셉과 올리버에게 멜기세덱 신권을 부여했다. 그 권세를 통해 이제 조셉과 올리버는 자신들이 침례를 주었던 사람들에게 성신의 은사도 줄 수 있었다. 또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두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성임했다.¹⁹

그 무렵 휘트머 가족의 집에 머물고 있던 조셉과 올리버는 멜기세덱 신권의 권세에 대해 더 배우기 위해 주님께 기도를 드렸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주님께서서는 두 사람에게 서로를 교회의 장로로 성임하라고 명하셨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먼저 신자들이 그들을 구주께서 세우신 교회의 지도자로서 따르겠다는 동의를 해야만 했다. 주님께서서는 그 외에도 교회의 다른 역원들을 성임하고 침례받은 이들에게 성신의 은사를 부여하라고 명하셨다.²⁰

1830년 4월 6일, 조셉과 올리버는 주님의 계명에 따라 그분의 교회를 조직하고자 휘트머의 집에서 만났다. 두 사람은 법률

에 따라 신생 교회의 첫 번째 회원이 될 여섯 사람을 선택했다. 집 안팎에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직접 보고 싶어 하는 사십여 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²¹

주님께서 이전에 지시하신 대로, 조셉과 올리버는 회중에게 자신들을 하나님 왕국의 지도자로 지지해 달라고 요청하고, 교회를 조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의사를 표시해 달라고 했다.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동의했고, 조셉은 올리버의 머리에 손을 올리고 그를 교회의 장로로 성임했다. 그런 다음에는 자리를 바꿔서 올리버가 조셉을 성임했다.

마지막으로, 두 사람은 빵과 포도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기억하는 성찬을 집행했다. 또한, 그들은 침례받은 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들을 교회의 회원으로 확인하며 성신의 은사를 주었다.²² 주님의 영이 그곳에 쏟아부어졌다. 어떤 이들은 예언을 말하고, 또 어떤 이들은 주님을 찬양했다. 사람들은 모두 함께 기쁨을 느꼈다.

조셉은 새로운 교회 전체에 주는 첫 번째 계시를 받았다. 주님은 백성들이 성스러운 역사를 기록하여 그들이 하는 일을 기록으로 보존하고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인 조셉의 역할을 증언해야 한다고 일깨우시며 이렇게 명하셨다. “보라, 너희 가운데 계속해서 나가는 기록이 있을지니,

그에게 내가 영감을 주어 선을 위하여 큰 권능으로 시온의 대업을 맡고 나아가게 하였고, 무릇 모든 인내와 신앙으로 그의 말을 마치 내 자신의 입에서 나온 것같이 받아들일지니라. 이는 이 일을 행함으로써 지옥문이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임이니.”²³

모임이 끝난 후, 조셉은 물가에 서서 자신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교회의 회원이 되기 위해 침례받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진리를 찾고자 여러 해 동안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 마침내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이다. 조셉 일세가 물에서 나오자, 조셉은 그의 팔을 부축하여 독 위로 올리고는 아버지를 껴안았다.

조셉은 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먹였다. “오, 하나님. 제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에서 침례받는 것을 보게 되다니 이제 저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²⁴

그날 저녁, 조셉은 조용히 집에서 빠져나와 가까운 숲으로 향했다. 그는 가슴이 터질 듯한 기쁨을 느끼고 있었다. 조셉은 친구와 가족의 눈을 피해 혼자 있고 싶었다. 첫번째 시현을 본 후로 십 년 동안, 그는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의 영을 느꼈으며, 천사의 가르침을 받았다. 잘못을 저지르기도 했고, 은사를 잃은 적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얻었으며, 그분의 권능과 은사로 물몬경을 번역했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회복하셨고, 고대에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에게 주셨던 것과 똑같은 신권을 조셉에게 주셨다.²⁵ 조셉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행복했다. 그날 밤 조셉 나이트와 올리버가 숲으로 왔을 때, 조셉은 그곳에서 흐느껴 울고 있었다.

그는 충만한 기쁨을 느꼈다. 바야흐로 하나님의 사업이 시작되었다.²⁶

제2부



신앙의 집

1830년 4월~1836년 4월

너희 자신을 조직하라. 모든 요긴한 것을 준비하라.
집 곧 기도의 집, 금식의 집, 신앙의 집, 학문의 집,
영광의 집, 질서의 집, 하나님의 집을 세우라.

교리와 성약 88:119

1830~1836





죽든지 살든지

교회가 조직되고 첫 번째로 돌아온 일요일, 올리버는 페이에서 휘트머 가족과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들 중에는 몰몬경 번역을 후원하면서도 교회에는 아직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다. 올리버의 설교가 끝나자 그들 중 여섯 사람이 침례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들의 침례는 인근 호수에서 베풀어졌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신생 교회로 들어옴에 따라,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라는 주님의 지시가 조셉의 어깨를 무겁게 했다. 이제 몰몬경이 출판되고 주님의 교회도 조직되었지만, 몰몬경은 잘 팔리지 않았고 침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조셉의 친구와 친척들에 한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조셉은 아직 하늘과 땅에 관해 배워야 할 것이 많았다.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따금 조셉을 찾아와서는 성령의 은사 등 자신들이 신약전서에서 읽은 기적들을 일으켜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² 하지만 회복된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기적과 표적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을 약속한다. 몰몬경에 나오는 왕이자 지혜로운 선지자였던 베냐민은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이 죄 많은 본성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성도가 될 수 있음을 가르쳤다.³

이제 조셉은 주님의 사업을 어떻게 진척할 것인가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었다. 조셉과 올리버는 자신들이 모든 사람에게 회개를 외쳐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밭은 추수할 준비가 되었고, 모든 영혼의 가치는 하나님 보시기에 컸다. 하지만 한 사람은 농부이고 한 사람은 학교 교사인 20대 초반의 두 어린 사도가 것처럼 큰 사업을 어떻게 진척할 수 있단 말인가?

뉴욕주의 시골에 세워진 자그마한 이 교회는 어떻게 그 초라한 시작을 뛰어넘고 성장하여 온 세상을 채울 정도로 성장할 수 있단 말인가?

페이에트에서 침례가 있는 후, 조셉은 하모니에 있는 자신의 농장으로 향했다. 페이에트에서 농장까지는 160여 킬로미터 거리였다. 교회가 새로 조직되어 몹시 바빴지만,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려면 때맞춰 밭에 씨를 뿌려야만 했다. 장인에게 농장 사용료를 지불해야 할 기한도 이미 지났는데, 농사까지 망친다면, 조셉은 빚을 갚기 위한 다른 방도를 찾아 나서야 할 것이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조셉은 뉴욕주 콜스빌에 있는 조셉과 폴 리 나이트 부부의 농장에 잠시 들렀다. 나이트 가족은 오랫동안

조셉을 후원해 왔지만 아직 교회에는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다. 특히 조셉 나이트는 새로운 신앙을 받아들이기 전에 먼저 물문경을 읽어 보고 싶어 했다.⁴

조셉은 콜스빌에서 며칠 묵으면서 나이트 가족과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 집안의 아들 중 하나인 뉴얼 나이트는 선지자 조셉과 함께 복음에 관한 대화를 자주 나누었다. 어느 날 조셉은 한 모임에서 뉴얼에게 기도를 해 달라고 부탁했지만, 뉴얼은 기도는 숲에 가서 혼자 하겠다고 대답했다.

다음 날 아침, 뉴얼은 실제로 기도하기 위해 숲을 찾았다. 그런데 불안한 느낌이 엄습해 오더니 점점 더 강해져, 결국 그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집에 다다를 즈음에는 숨을 쉬기도 어려울 정도가 되었다. 뉴얼은 아내 샬리에게 선지자 조셉을 빨리 데려와 달라고 부탁했다.

조셉이 뉴얼의 집에 서둘러 도착했을 때, 뉴얼의 가족들과 이웃들은 뉴얼의 얼굴과 사지가 격렬하게 뒤틀리는 모습을 두려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뉴얼은 조셉을 보자마자 “이 마귀를 쫓아내 줘요!”라고 소리쳤다.

조셉은 마귀를 꾸짖거나 누군가를 치유해 본 적은 없었지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할 권능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그는 얼른 뉴얼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떠나가라.”

조셉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의 몸은 뒤틀림이 멈추었다. 뉴얼은 그대로 바닥에 폭 쓰러졌다. 탈진한 상태였지만 다친 곳은 없었다. 그는 자신의 몸에서 마귀가 떠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거렸다.

나이트 가족과 이웃들은 조셉이 일으킨 이 일을 보고 놀라워했다. 조셉은 사람들을 도와 뉴얼을 침대에 눕히면서, 이것이 교회 조직 후 처음으로 이행된 기적임을 이야기했다.

그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며, 이 일은 “경건의 능력으로” 행해진 것임을 간증했다.⁵

한편, 뉴욕에서 서쪽으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던 팔리 프렛이라는 농부는 자신이 집과 가족을 떠나 성경에서 알게 된 예언 및 영적 은사를 전파해야 한다는 영의 느낌을 받았다. 그는 농장을 헐값에 팔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축복해 주실 것을 믿으며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

옷가지와 여비로 쓸 돈만 챙긴 팔리와 그의 아내 생크폴은 집을 떠나 동쪽으로 향했다.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기에 앞서 그들은 가족을 먼저 만날 생각이었다. 하지만 운하에서 배를 타고 가던 도중에 팔리는 생크폴에게 먼저 목적지에 가 있으라고 부탁했다. 그는 배에서 내리라는 영의 지시를 느꼈던 것이다.

팔리는 아내에게 “곧 뒤따라가겠소. 내가 여기에서 할 일이 있어서 그렇소.”라고 말했다.⁶

팔리는 배에서 내려 16킬로미터 정도를 걸어서 시골 지역으로 들어갔다. 그는 그곳에서 우연히 어느 침례교도 집사를 만나 얼마전에 구입했다는 이상한 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 책은 천사들의 도움과 시현으로 금판에서 번역한 고대 기록이라고 했다. 집사는 팔리에게 지금은 그 책이 없지만 다음 날 오면 보여주겠다고 약속했다.

이튿날 아침, 팔리는 그 집사의 집을 다시 찾아갔다. 팔리는 책을 받자마자 부리나케 펴서 표제지를 먼저 읽었다. 그런 다음, 책 뒤쪽에 있는 목격자들의 증언을 읽었다. 그 글들은 팔리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팔리는 곧바로 책의 첫 장부터 읽기 시작했다. 그는 그대로 몇 시간을 쉬지 않고 책을 읽어 내려갔다.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다. 먹는 것도, 잠을 자는 것도 짐처럼 여겨졌다. 주님의 영이 팔리에게 임했고, 그는 그 책이 참됨을 알게 되었다.⁷

팔리는 곧장 인근 마을인 팔마이리로 갔다. 그는 이 책을 번역한 사람을 만나 볼 작정이었다. 읍내 사람들은 그에게 길 아래로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한 농장을 가리켜 주었다. 농장을 향해 걸어가던 팔리는 도중에 길에서 마주친 한 남자에게 어디로 가면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 남자는 조셉은 남쪽으로 160여 킬로미터 떨어진 하모니에 산다고 하면서, 자신은 그 선지자의 형인 하이럼 스미스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밤새도록 대화를 나눴다. 하이럼은 몰몬경과 신권의 회복, 그리고 주님께서 이 후기에 하실 일들을 간증했다. 이튿날, 팔리는 미리 약속되어 있던 설교를 하러 가야만 했다. 하이럼은 길을 나서는 팔리에게 몰몬경 한 권을 건넸다.

팔리는 나중에 틈이 나자 곧바로 그 책을 폈다. 그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고대 아메리카 백성에게 나타나 복음을 가르치셨다는 내용을 발견하고 기쁨을 느꼈다. 그 책에 담긴 메시지는 세상의 그 어떤 부보보다도 값진 것임을 팔리는 깨달았다.

설교를 마친 후, 팔리는 다시 스미스 가족의 집을 찾았다. 하이럼은 팔리를 반갑게 맞았고, 휘트머 가족의 농장으로 가 보라고 일러 주었다. 그곳에 가면 점점 그 수가 늘어나고 있던 교회의 회원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었다.

더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팔리는 곧장 길을 떠났다. 그리고 그는 며칠 후에 침례를 받았다.⁸

1830년 6월 말, 에머와 조셉, 올리버는 콜스빌로 갔다. 봄에 조셉이 행한 기적에 대한 소문이 지역 전체에 파다했다. 나이트 가족과 다른 몇 가족이 교회에 들어오기를 바랐다.

이번에 침례를 받을 사람들 중에는 에머도 포함되어 있었다. 나이트 가족과 마찬가지로 에머도 회복된 복음과 남편의 선지자 부름을 믿었지만, 아직 교회에는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다.⁹

콜스빌에 도착한 조셉은 다음 날 있을 침례식을 위해 사람들들과 함께 근처 개울에 독을 쌓아 웅덩이를 만들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에 가 보니 독은 무너져 있었다. 침례식을 못하도록 밤 사이에 누군가 일부러 그렇게 해 놓은 것이었다.

실망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사람들은 그 대신 안식일 모임을 진행했다. 올리버는 모임에서 침례와 성신에 관한 말씀을 전했다. 설교가 끝나자, 그 지역의 한 목사와 신도들이 난입해서 신자 한 사람을 끌고 나가려는 사태가 벌어졌다.

에머는 남편에 대한, 그리고 그가 전하는 메시지에 대한 이런 반대가 이제는 그다지 놀랍지 않았다. 조셉을 사기꾼이라고 하며 그가 추종자들에게서 돈을 뜯어내려 했다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성도들을 “몰모나이츠(Mormonites: 단어 끝에 ite가 붙으면 추종자, 지지자를 나타내며 흔히 못마땅하다는 느낌을 포함함—웁긴이)”라는 이름으로 조롱했다.¹⁰ 성가신 일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에머와 몇몇 사람들은 다음 날 일찌감치 개울로 가서 독을 보수했다. 충분한 양의 물이 고이자

올리버는 웅덩이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서 에머, 조셉과 폴리 나이트 부부, 그리고 그 외 열 명의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었다.

침례가 진행되는 동안 몇 명의 남자들이 바로 뒤쪽 개울가에 늘어서서 이들에게 야유를 퍼부었다. 에머와 성도들은 그들에게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그들은 나이트 가족의 농장으로 돌아가는 길까지 뒤따라오며 소리를 지르고 선지자 조셉을 위협했다. 나이트 가족의 집에 도착해서 조셉과 올리버는 갓 침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확인 의식을 하려고 했지만, 바깥의 소란이 너무 심각해졌다. 집 밖에 모여 소리를 지르는 괴한들은 이제 50여 명까지 늘어나 있었다.

당장이라도 쳐들어올 것만 같은 그들의 기세에 성도들은 평화롭게 확인 의식을 마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웃집으로 피신했다. 하지만 의식을 행하기 전에 치안관이 들이닥쳐서 조셉을 연행해 갔다. 조셉이 받은 혐의는 몰몬경을 전파하여 소동을 일으켰다는 것이었다.

구치소에 갇힌 조셉은 언제고 폭도들이 습격하여 자신을 잡아갈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밤을 보냈다. 에머 역시 여동생의 집에서 콜스빌 사람들과 함께 조셉이 무사히 풀려나기를 기도하며 애타게 남편의 석방을 기다렸다.¹¹

이틀 뒤, 조셉은 재판을 받고 무죄로 풀려났지만, 유사한 죄목으로 고발되어 또 다시 체포되고 재판에 회부되었다. 하지만 두 번째 공판에서도 그는 석방되었다. 조셉과 에머는 하모니에 있는 자신들의 농장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에머와 콜스빌 성도들은 여전히 교회 회원으로서의 확인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¹²

집으로 돌아와 다시 농장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조셉은 주님께 계시를 받게 되었다. 이 새로운 계시에는 조셉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 담겨 있었다. 주님은 “너는 너의 모든 봉사를 시온에 바칠지니”라고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현세적인 일에 힘을 쓰지 못하리니, 그것은 너의 부름이 아닌 까닭이니라.” 조셉은 밭에 씨를 뿌린 후 뉴욕주에 있는 새로운 회원들에게로 가서 확인 의식을 베풀라는 명을 받았다.¹³

이 계시로 에머의 생활은 더욱 종잡을 수 없게 되었다. 조셉이 모든 시간을 성도들에게 바친다면 생계는 어떻게 꾸려 가야 할까? 게다가 조셉이 교회 봉사로 멀리 가 있는 동안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집에 남아 있어야 하는가, 아니면 주님께서는 그녀가 남편과 함께 가기를 바라시는 것일까? 주님께서 에머가 남편과 함께 가기를 바라신다면, 에머는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에머의 마음을 아신 주님께서는 조셉을 통해 그녀에게 계시를 주셨다. 주님은 에머의 죄를 사하시며, 그녀를 “택함을 받은 여인”이라 칭하셨다. 그런 후 에머에게 조셉과 함께 가라고 하시면서 “너는 그의 손으로 성임되어 ... 경전을 해설하며 교회 회원을 권면할지니라.”라고 약속하셨다.

또한 재정적인 염려에 대해서는 “너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나니, 이는 네 남편이 너를 부양할 것임이라.”라고 그녀를 안심시켜 주셨다.

주님은 에머에게 교회에서 사용할 거룩한 찬송가를 선정하라고 지시하시며 “이는 나의 영혼이 마음의 노래를 기뻐함이라.”라고 말씀하셨다.¹⁴

이 계시를 받은 후, 조셉은 곧바로 에머와 함께 콜스빌로 가서 에머와 그곳 성도들에게 확인 의식을 베풀었다. 새로운 회원

들이 성신의 은사를 받자, 방 안은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졌다. 사람들은 모두들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¹⁵

여름이 끝나 갈 무렵, 조셉과 에머는 친구들의 도움으로 농장 사용료를 완납하고, 더 많은 시간을 교회 일에 쏟기 위해 페이에트로 거처를 옮겼다.¹⁶ 그곳에 도착한 조셉은 여덟 증인 중 한 사람이자 아론 신권의 교사 직분에 성임된 하이럼 페이지가 돌을 가지고 교회를 위한 계시를 구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하이럼 페이지는 그 돌을 선견자의 돌로 여긴다는 것이었다.¹⁷ 그뿐 아니라 올리버와 휘트머의 몇몇 가족을 포함한 많은 성도들은 페이지가 받은 계시들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고 믿었다.¹⁸

조셉이 보기에 이것은 위험한 상황이었다. 페이지의 계시는 경전의 언어를 흉내 낸 것이었다. 그 계시는 시온 건설과 교회 조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기는 했지만, 종종 신약전서나 주님이 조셉에게 계시하신 진리와 모순되는 것들도 있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했던 조셉은 밤새 기도로 인도를 구했다. 전에도 반대는 겪었지만,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은 처음이었다. 만일 페이지의 계시를 강하게 비판하면,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혹은 스스로 계시를 얻으려 하는 충실한 성도들이 실망을 할 수도 있었다.¹⁹ 하지만 그렇다고 이 거짓 계시를 규탄하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가 훼손되고 성도들 사이에 분열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었다.

긴 시간을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던 조셉은 주님께서 올리버에게 주시는 다음과 같은 계시를 받게 되었다. “나의 종 조셉 스미스 이외에는 아무도 이 교회에서 계명과 계시를 받도록 임명되

지 아니하리니 … 이는 모든 일은 질서 있게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만장일치로 행해져야 함이니라.” 주님께서는 올리버에게 이 원리를 하이럼 페이지에게 가르치도록 명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올리버에게 약 1,600킬로미터 떨어진 미국 서부 국경 지역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잔류민인 아메리칸 인디언들에게 회복된 복음을 전파하라고 지시하셨다. 주님은 그 주민들 가까이에 시온 성이 세워질 것이라고 하시며,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하나님께서 아메리카 대륙에 새 예루살렘을 세우실 것이라는, 몰몬경에 나오는 약속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셨다. 그분은 그 성이 세워질 정확한 장소는 밝히지 않으셨으나 나중에 알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²⁰

며칠 후, 교회는 대회를 개최했고, 성도들은 하이럼 페이지의 계시를 거부하고 교회를 위한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조셉이라는 것을 만장일치로 지지했다.²¹

주님은 올리버와 함께 서부로 가서 선교 사업을 하도록 피터 휘트머 이세, 지바 피터슨, 팔리 프랫을 부르셨다.²² 에머와 몇몇 여성들은 선교사들에게 줄 옷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날마다 많은 시간을 들여 양털로 실을 잣고, 천을 짜고, 바느질을 해서 선교사들의 옷을 지었다.²³

팔리는 아내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한 후, 아내 생크풀과 함께 페이에트로 돌아왔다. 팔리가 서부로 떠난 후, 생크풀은 자신을 기쁘게 맞아 준 메리 휘트머의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다.

선교사가 되어 미주리로 향하던 팔리는 동료들을 오하이오로 데려갈 계획을 세웠다. 오하이오에는 팔리가 이전에 다니던 교회의 목사인 시드니 리그돈이 살고 있었다. 팔리는 그가 선교사들의 메시지에 흥미를 보이기를 바랐다.²⁴

그해 여름, 선지자 조셉의 동생 새뮤얼 스미스는 페이에트에서 이틀 거리에 있는 한 마을로 가서 로다 그린을 찾아갔다. 로다와 새뮤얼은 바로 몇 달 전에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새뮤얼은 로다의 집에 몰몬경 한 권을 남겨 두고 갔었다. 로다의 남편 존은 다른 종교를 믿는 순회 전도사였다. 존은 몰몬경이 엉터리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책을 가지고 다니며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름을 적어 오겠다고 약속했었다.

로다는 새뮤얼을 집 안으로 맞으며 지금까지 몰몬경에 관심을 보인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 책은 도로 가져가세요. 저희 남편도 이 책을 살 것 같지는 않네요.”

새뮤얼이 몰몬경을 받아서 나가려는 찰나, 로다가 자신도 그 책을 읽어 보았고, 좋았다는 말을 했다. 새뮤얼은 발길을 멈추었다. “이 책을 드릴게요.” 그는 로다에게 몰몬경을 다시 건넸다. “하나님의 영이 이 책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시는군요.”

로다는 몰몬경을 다시 받으면서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것을 느꼈다. 새뮤얼은 말했다. “이 사업이 참되다는 간증을 얻도록 하나님께 간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가슴 속에서 불타오르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죠.”

나중에 남편이 돌아오자, 로다는 새뮤얼이 찾아온 일을 이야기했다. 처음에 존은 그 책에 관해 기도하기를 주저했지만, 로다는 새뮤얼의 약속을 믿어 보라며 확신을 심어 주었다.

“거짓말을 할 사람은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다. “세상에 선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라구요.”

로다와 존은 몰몬경에 관해 기도했고, 그것이 참되다는 간증을 얻었다. 간증이 생긴 후, 그들은 그 책을 가족과 이웃들에

게 소개했다. 그들에게 몰몬경을 소개받은 사람들 중에는 로다의 남동생인 브리검 영과 그의 친구인 히버 김볼도 있었다.²⁵

그해 가을, 서른여덟 살의 시드니 리그돈은 팔리 프렛과 그의 세 동반자가 전하는 새로운 경전에 대한 이야기를 정중한 태도로 듣고 있었다. 선교사들은 몰몬경이라는 책에 대해 간증했다. 그러나 시드니는 통 관심이 없었다. 여러 해 동안 그는 오하이오주 커틀랜드 마을과 그 주변 주민들에게 성경을 읽고 신약전서의 원리를 가르치는 교회로 오라고 열심히 권하고 다녔다. 성경은 늘 그에게 나침반이 되어 주었다. 그는 선교사들에게 성경 하나면 충분하다고 말했다.²⁶

팔리는 “목사님께서 저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셨죠.”라고 말하면서 부탁했다. “친구로서 말씀드립니다. 저를 위해 이 책을 꼭 한 번 읽어 보세요.”²⁷

하지만 시드니는 요지부동이였다. “이 일로 우리가 언쟁할 필요는 없겠지요. 하지만, 그 책이 내 신앙에 관해 어떤 소리를 하는지 한번 읽어는 보겠습니다.”²⁸

팔리는 시드니에게 그의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싶다는 뜻을 비추었다. 시드니는 선교사들의 메시지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설교는 허락해 주었다.

선교사들이 떠난 후 시드니는 몰몬경을 읽었고, 이것이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임을 깨달았다.²⁹ 팔리와 올리버가 신도들 앞에서 설교를 할 날이 되었을 때, 이미 시드니는 사람들에게 이 책에 대해 경고하고 싶은 마음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였다. 그리고 집

회가 끝날 무렵에 그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신도들에게 다음 성경 구절을 인용하여 전했다.³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하지만 시드니 자신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몰몬경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목사직을 잃는 것을 의미했다. 그에게는 착실한 신도들이 있었고, 지금 이 지위에서라면 자기 부부와 여섯 자녀가 편안한 삶을 계속 이어 나갈 수 있었다. 신도들 중에는 시드니 가족을 위해 집을 지어 준 사람들도 있었다.³¹ 그는 식구들에게 그간 누려 온 그 안락한 삶을 포기하자는 말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시드니는 계속해서 기도를 드렸고, 마침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다. 그는 몰몬경이 참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라고 그는 외쳤다.³²

시드니는 자신이 받은 느낌을 아내 피비에게 이야기했다. “여보, 전에 당신은 나를 따라온 탓에 가난한 삶을 살았지요. 다시 한 번 그래 줄 수 있겠어요?”

이에 피비는 남편에게 이렇게 답했다. “희생할 각오는 되어 있어요. 제가 바라는 건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그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예요.”³³



모이다

1830년 가을, 커틀랜드 부근에 사는 열다섯 살의 루시 몰리는 그날의 집안일을 마치고 아비가일 대니얼스 옆에 앉았다. 아비가일은 루시의 고용주였다. 아비가일이 북을 돌려 실을 교차시키며 옷감을 짜는 동안, 루시는 얇은 실꾸리에 실을 감았다.[북: 베틀에서, 낄실의 틈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씨실을 푸는 기구—웁긴이] 두 사람이 짠 옷감은 대니얼스의 집에서 루시가 일한 샅으로 루시의 어머니에게 보내졌다. 아비가일은 자녀가 많았지만 집안일을 도와줄 만한 십 대 딸이 없어서 집안 청소와 주방 일 등에서 루시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

아비가일과 루시가 그렇게 나란히 앉아 일하고 있을 때,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비가일은 “들어오세요.”라고 큰 소리로 대답했다.

실꾸리 너머로 흘깃 바라보던 루시의 눈에 세 명의 남자들이 집 안으로 들어서는 것이 보였다. 그들은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지만, 옷매무새가 단정하고 친절해 보였다. 세 사람 모두 삼십대 초반인 아비가일보다 몇 살 아래인 듯했다.

루시는 자리에서 일어나 의자를 가져왔다. 남자들은 의자에 앉았고, 루시는 그들의 모자를 받아 든 후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남자들은 자신들을 올리버 카우드리, 팰리 프랫, 지바 피터슨이라고 소개했다. 그들은 뉴욕에서 온 전도사로, 그 마을을 지나서부로 가던 길이라고 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친구인 조셉 스미스라는 선지자에게 주님께서 당신의 참된 복음을 회복해 주셨다고 말했다.

루시는 조용히 실을 감으며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남자들은 선지자가 계시를 받아 번역한 금판과 천사에 관해 이야기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받았다고 간증했다.

남자들이 말을 마치자 덜그럭거리던 아비가일의 베틀도 움직임을 멈추었다. 아비가일은 의자에서 몸을 돌려 그들을 바라보았다. “당신네 그 가증스러운 교리를 더는 못 들어주겠네요.” 그녀는 화를 내며 남자들 면전에 복을 흔들어 댔다.

남자들은 자신들의 말이 진실임을 간증하며 설득해 보려 했지만 아비가일은 잘못된 교리로 자신의 아이들을 더럽히고 싶지 않다면서 당장 집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남자들은 마지막으로 먹을 것을 조금 얻을 수 있겠는지를 물어 왔다. 그들은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굶주렸었다.

아비가일은 단칼에 거절했다. “사기꾼들에게는 물 한 모금도 줄 수 없어요.”

그때, 루시가 이들의 대화에 끼어 들었다. 루시는 하나님의 종들을 무례히 대하는 아비가일을 보면서 가슴이 내려앉았다. “저, 여기서 30분 거리에 저희 부모님 집이 있어요. 아버지는 굶주린 손님을 외면하는 법이 없으시죠. 거기로 가면 음식도 받고 필요한 도움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루시는 집 밖으로 나서는 남자들의 뒤를 따라 그들의 모자를 들고서 문 밖으로 배웅을 나갔다. 그녀는 선교사들에게 자신의 부모님 집으로 가는 길을 알려 주었다. 세 명의 선교사는 루시에게 감사를 표하며 길을 나섰다.

그들은 루시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라는 축원을 남겼다.

선교사들의 뒷모습이 멀어질 때까지 지켜본 뒤, 루시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다. 아비가일은 다시 베를 앞에 앉아 북을 놀리고 있었다. 그녀는 언짢은 기색으로 “이제 마음이 좀 편하니?”라고 말했다.

루시는 “네, 그래요.”라고 대답했다!

루시의 말처럼 세 명의 선교사들은 루시 부모님의 집에서 융숭한 대접을 받았다. 루시의 부모인 아이잭과 루시는 시드니 리그돈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은 응당 하나의 큰 가족으로서 물건과 재산을 서로 공유해야 한다고 믿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려 노력했던 신약시대 성도들의 모범을 따르기 위해 그들은 자신들의 큰 농장을 개방해 두고 살았다. 그들은 경쟁이 심하고 종종 이기적이기까지 한 주변

세상과 분리되어 자신들의 믿음을 실천하며 함께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그들의 농장에 받아들였다.²

그날 밤, 선교사들은 몰리 가족과 그들의 친구들을 가르쳤다. 몰리 가족은 구주께서 돌아오시어 복천년에 세상을 다스리실 때를 준비하라는 선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다. 자정 무렵에는 열일곱 명이 침례를 받았다.

그 이후로 며칠 동안 커틀랜드 인근에서 50여 명이 몰리와 선교사들과 모임을 하고, 교회에 개종 의사를 밝혔다.³ 이들 대다수는 몰리 가족의 농장에서 살던 사람들이었다. 그중에는 서아프리카 출신 어머니를 둔 피트라는 해방 노예도 있었다.⁴ 전에 선교사들을 내쳤던 아비가일 대니얼스도 남편과 함께 설교를 듣고 선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다.⁵

시드니를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교회는 그렇게 성장해 나갔다. 올리버는 오하이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좋은 소식을 조셉에게 전했다. 매일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기 위해 선교사들을 찾아왔고, 올리버는 편지에 “이곳에는 몰몬경을 원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 몰몬경 500권을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적었다.⁶

올리버는 오하이오에서 거둔 성공이 기뻐지만,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부름은 미국 서부 국경 너머에 사는 아메리칸 인디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임을 잊지 않고 있었다. 그를 포함한 선교사 일행은 곧 커틀랜드를 떠났고, 이때 프레드릭 윌리엄스라는 새로운 개종자도 그들의 여정에 합류했다. 의사였던 프레드릭은 43세로, 일행 중 가장 연장자였다.⁷

1830년의 늦가을, 선교사들은 지친 발걸음으로 눈 덮인 들과 구릉을 건너 서쪽으로 향했다. 이들은 당시 미국 최서단 주

었던 미주리로 가는 증기선 표를 예약하기 전에 잠시 여정을 멈추고는 오하이오주 중부에서 와이언도트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도 했다.

선교사들은 배를 타고 강을 따라 여정을 계속 이어 나갔다. 강물이 얼어 뱃길이 막히기도 했지만, 이들은 좌절하지 않고 배에서 내려 얼어붙은 강둑을 따라 수백 킬로미터를 걸어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갔다. 폭설로 생긴 깊은 눈발 때문에 선교사들은 드넓은 대초원을 건너는 것이 무척이나 힘들었다. 광활한 풍경 위로 불어오는 칼바람은 얼굴의 살갓을 벗겨 낼 듯 매서웠다.⁸

선교사들이 그렇게 서쪽으로 향하고 있을 때, 동쪽으로 향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바로 시드니와 그의 친구인 에드워드 파트리지였다. 당시에 37세였던 에드워드는 원래 시드니의 교회 신자였고, 생업으로 모자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 두 사람은 조셉을 만나기 위해 커틀랜드에서 거의 500여 킬로미터 떨어진 맨체스터로 향했다. 시드니는 이미 개종한 상태였지만 에드워드는 개종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선지자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고 싶어 했다.⁹

맨체스터에 당도한 그들은 먼저 조셉 부모의 농장을 찾아갔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들은 스미스 가족이 페이에트에 좀 더 가까운 곳으로 이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스미스 가족의 새로운 집을 찾아가려면 40여 킬로미터를 또 가야 했는데, 에드워드는 그 전에 먼저 이곳에서 스미스 가족의 흔적을 찾아보기로 했다. 그들이 살던 곳을 보면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였다. 에드워드와 시드니는 스미스 가족이 일군

잘 가꾸진 과수원과 그들이 살던 집, 별채, 낮은 돌담 등을 둘러 보았다. 모두 스미스 가족의 질서 정연함과 근면함을 보여 주는 것들이었다.¹⁰

에드워드와 시드니는 다시 온종일을 걸어 밤이 다 되어서야 스미스 가족의 집 앞에 당도했다. 마침 집 안에서는 교회 모임이 열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안으로 조용히 들어가 그곳에 모인 작은 회중과 함께 조셉의 설교를 들었다. 선지자는 설교를 마치고 방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영감을 받은 것이 있다면 일어서서 이야기를 나누어 달라고 청했다.

에드워드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곳에 오기까지 자신이 보고 느꼈던 것을 이야기했다. 그런 다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조셉 형제님, 저는 침례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게 침례를 주시겠습니까?”

조셉은 이렇게 답했다. “먼 길을 오셨는데 잠깐 쉬며 요기를 좀 하신 다음, 내일 아침에 침례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에드워드는 이렇게 답했다. “형제님 생각이 그러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침례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¹¹

침례식을 하기도 전에, 조셉은 에드워드에게 그리스도께서 성전에 오실 날을 준비하고, 그날에 대해 전파하도록 부름을 주라는 계시를 받았다.¹² 그리하여 에드워드는 침례를 받자마자 곧바로 부모님과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시 여행길에 올랐다.¹³ 한편, 시드니는 페이에트에 남아 조셉의 서기로써 봉사하기로 하고, 곧 조셉을 도와 새로운 작업에 착수했다.¹⁴

여러 달 전에 조셉과 올리버는 영감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을 시작했었다. 그들은 구약전서와 신약전서의 귀한 진리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변질되고 누락되었다는 것을 몰몬경을 통해 알게 되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올리버가 그랜던 상점에서 구입한 성경으로 창세기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조셉과 올리버는 불충분해 보이거나 불확실해 보이는 성경 구절들에 대해 영감을 구하면서 연구를 시작했다.¹⁵

오래지 않아 주님은 조셉에게 시현을 계시해 주셨다. 이는 모세가 먼저 받았던 것으로, 구약전서에서 빠진 부분이었다. 새로 회복된 이 경전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수한 세상”을 보여 주셨으며, 그분이 모든 것을 육으로 창조하시기 전에 영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과, 이 영광스러운 창조의 목적은 사람이 영생을 받도록 돕는 데 있음을 가르치셨다는 것을 밝혀 준다.¹⁶

올리버가 서부로 선교 사업을 떠난 이후 조셉은 시드니가 오기 전까지 존 휘트머와 에머를 서기로 두며 번역을 계속해 오고 있었다. 그 무렵 주님께서서는 창세기에 그 생애와 성약이 간략하게만 언급되어 있는 선지자 에녹의 역사에 관하여 조셉에게 많은 내용을 계시해 주시기 시작했다.¹⁷

조셉이 계시를 구술하고 시드니가 그 내용을 기록해 나가면서, 두 사람은 에녹이 하나님께 순종적이고 축복받은 백성을 한 데 모은 선지자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구주께서 미 대륙을 다녀가신 뒤에 의로운 사회를 건설했던 니파이인과 레이맨인들처럼, 에녹의 백성들 역시 평화롭게 어우러져 사는 법을 아는 사람들이었다. 경전에는 “그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의롭게 거하며,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다.¹⁸

에녹의 지도력 아래 백성들은 시온이라는 거룩한 도시를 건설했고, 그 도시는 결국 주님의 면전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그곳에서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지상을 내려다보며 대화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녀들의 간악함과 고통을 보고 우셨다. 하지만 하나님은 에녹에게 진리가 지상에 보내지고 당신의 백성이 의로운 자들을 위한 또 다른 시온을 건설할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다.¹⁹

시드니와 조셉은 이 계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면서, 바야흐로 주님께서 지상에 다시 시온을 세우실 때가 이르렀음을 알았다. 에녹의 백성처럼 성도들도 스스로 준비하고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아, 주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땅에 거룩한 도시와 성전을 건설할 준비를 해야 했다.

12월 마지막 날, 조셉과 시드니는 주님으로부터 번역 작업을 잠시 중단하라는 계시를 받았다. 주님께서 “한 가지 계명을 내가 교회에 주노니”라고 말씀하시며, 성도들이 “오하이오에 함께 모”여야 한다고 선언하셨다. 그들은 커틀랜드 지역에서 새로운 개종자들을 모아 서부에서 돌아오는 선교사들을 기다리기로 되어 있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지혜가 여기에 있나니, 모든 사람은 내가 올 때까지 스스로 택할지어다.”²⁰

오하이오로 떠나라는 부름으로 성도들은 하나님 백성의 집합에 관한 고대 예언을 실현하는 일에 한층 더 다가서게 된 것 같았다. 성경과 물몬경에는 주님께서 마지막 날의 환난에 대비하여 당신의 성약의 백성들을 안전한 곳으로 모으시리라는 약속이 나

온다. 또한, 주님께서는 얼마 전에 조셉에게 이 집합이 곧 시작될 것이라는 계시를 주신 적이 있었다.²¹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름은 성도들에게는 충격적인 이야기였다. 새해 벽두에 휘트머의 집에서 교회의 세 번째 대회가 열렸다. 많은 성도들이 불안감을 느꼈고, 그들은 마음 한가득 이 명령에 대한 의구심을 안고 있었다.²² 오하이오는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데다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머나먼 곳이었다. 교회 회원 대부분은 그곳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었다.

더군다나 많은 성도들은 재산을 늘리고 비옥한 농장을 일구기 위해 뉴욕주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던 참이었다. 그들이 한꺼번에 오하이오로 이주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재산을 처분해야 할 터인데, 그렇게 되면 손실은 불 보듯 뻔한 일이었다. 그리고 만약 오하이오주의 토지가 뉴욕주의 토지만큼 기름지지 못하면, 일부 사람들은 파산을 할 수도 있었다.

조셉은 집합에 대한 염려를 덜어 주기 위해 성도들을 만났으며, 계시를 하나 받았다.²³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에게 더 큰 부를 제시하고 하사하려 하노니, 곧 약속의 땅이 [라] ... 만일 너희가 너희 온 마음을 다하여 구하면, 나는 그 곳을 너희 기업의 땅으로 너희에게 주리라.” 집합은 성도들이 의로운 백성으로서 번창하고, 사악한 이들에게서 보호될 수 있는 방편이었다.

주님께서는 또한 오하이오로 모이는 백성들에게 두 가지 축복을 더 약속하셨다. “그 곳에서 내가 너희에게 나의 율법을 줄 것이요, 그 곳에서 너희는 높은 곳에서 오는 권능을 부여받게 되리라.”²⁴

이 계시로, 방 안에 있던 대부분의 성도들은 마음이 진정되었다. 몇몇은 그 계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으려 하지 않았지만, 조셉의 가족들과 휘트머 가족, 그리고 나이트 가족은 그 계시를 믿고 따르기로 결정했다.²⁵

교회의 콜스빌 지부 지도자였던 뉴얼 나이트는 집으로 돌아와 팔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다 팔기 시작했다. 그는 또한 많은 시간을 들여 교회 회원들을 방문했다. 에녹 백성들의 모범을 따라서, 그와 콜스빌 성도들은 궁핍한 사람들이 봄이 되기 전에 여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함께 일하고, 희생을 아끼지 않았다.²⁶

그러는 사이, 조셉은 당장 커틀랜드로 가서 새로운 개종자들을 만나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에머는 쌍둥이를 임신한 채로 오랫동안 몸져 누워 있다가 이제야 기력을 차린 상태였지만, 남편의 여정에 동행하기로 하고 썰매에 올라탔다.²⁷

당시 오하이오의 교회는 고난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선교사들이 서부로 떠난 뒤, 커틀랜드에서 개종자가 계속 늘어났지만 많은 성도들은 자신들의 새로운 신앙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갈팡질팡하고 있었다. 대부분은 개종 전에 하던 대로 신약전서를 지침으로 삼아 의지하며 따랐지만, 선지자의 지도가 없기에 경전을 해석하는 방식도 각양각색일 수밖에 없었다.²⁸

엘리자베스 앤 휘트니는 초기 기독교회의 영적 은사를 경험하기를 학수고대하던 많은 이 중 한 명이었다. 선교사들이 커틀랜드로 오기 전에 앤과 그녀의 남편 뉴얼은 성신의 은사를 받을 방법을 알기 위해 수차례 기도했었다.

어느 날 밤, 하늘의 가르침을 구하며 기도하던 중 그들은 자신의 집 위에 구름이 머무는 시현을 보게 되었다. 영이 충만한 가운데 그들의 집은 구름에 둘러싸여 그대로 유유히 사라졌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하늘의 음성이 들려왔다. “주님의 말씀이 곧 임하겠나니, 이를 받기 위해 준비하라.”²⁹

앤의 성장 과정은 종교와는 거리가 멀었다. 앤의 부모는 교회에 다니지 않았다. 앤의 아버지는 성직자들을 좋아하지 않았고, 어머니는 집안일에 치이고, 앤의 동생들 뒷바라지에 허덕이며 실 틈 없는 삶을 살았다. 부모들은 앤에게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는 삶을 즐기는 데 더 마음을 쓰라고 충고했다.³⁰

하지만 앤은 항상 영적인 것들에 이끌렸고, 결혼을 한 뒤 남편에게 교회를 찾고 싶다는 소망을 이야기했다. 앤의 뜻에 따라 부부는 시드니 리그돈의 교회에 다니게 되었다. 앤이 보기에 그 교회는 자신이 경전에서 찾은 것과 가장 유사한 원리를 가르치는 곳이었다. 후에 팔리 프랫 일행이 전하는 회복된 복음에 대해 들었을 때, 앤은 그들의 가르침이 참되다는 것을 곧바로 알아보았다.³¹

이후 예수 그리스도 교회로 개종한 앤은 자신의 새로운 신앙 안에서 기쁨을 느꼈지만, 신앙을 따르는 방식 면에서 엇갈리는 사람들을 보며 혼란스러워했다. 예를 들어, 앤의 친구인 아이잭과 루시 몰리는 계속해서 자신들의 농장에 사람들을 기거하게 하면서 소유물을 공유하는 생활을 했다.³² 또, 커틀랜드 동쪽에 커다란 농장이 있는 레먼 코플리는 인근에 정착지가 형성된 셰이커 교단에 속했었던 사람인데, 아직도 그 교단의 가르침 중 일부를 고수했다.³³

커틀랜드 성도들 일부는 자신이 영의 은사라고 간주하는 것들에 열중하며 극단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믿음을 따랐다. 설명

할 수 없는 시현을 보았다고 주장하고, 성신이 자신을 미끄러지게 하거나 빠른 동작으로 바닥을 쓸고 지나가게 했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다.³⁴ 어떤 사람은 성신을 느낀다고 생각할 때마다 방 안을 깡충깡충 뛰어다니거나 천장 반자들에 매달렸다. 또 어떤 사람은 개코원숭이처럼 행동하기도 했다.³⁵

이러한 광경을 본 일부 개종자들은 낙담하여 이 새로 찾은 교회를 떠나고 말았다. 이런 와중에도 앤과 뉴얼은 주님께서 방법을 보여 주실 것을 확신하며 계속해서 기도했다.³⁶

1831년 2월 4일, 커틀랜드에 있던 뉴얼의 상점 앞에 한 썰매가 멈춰 섰다. 25세 된 한 남성이 썰매에서 내려 힘차게 안으로 걸어 들어왔고, 계산대 너머로 손을 내밀어 뉴얼에게 악수를 청했다. “뉴얼 케이 휘트니! 당신이군요!”

뉴얼은 그의 손을 맞잡으며 이렇게 말했다. “실례지만 누구 시죠? 그쪽 분은 제 이름을 아시는데, 저는 그쪽 분 성함을 모르겠군요.”

“저는 선지자 조셉입니다.” 그 남자는 큰 소리로 이렇게 대답했다. “형제님이 제가 여기에 오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자, 이제 제가 무엇을 도와드리면 될까요?”³⁷



나의 율법을 받으라

앤과 뉴얼 휘트니 부부는 커틀랜드로 와 준 조셉과 에머가 진심으로 고마웠다. 휘트니 부부는 어린 자녀 셋에 고모까지 모시고 살았지만, 스미스 부부가 거처를 찾을 때까지 자신들의 집에서 함께 지내게 했다. 그들은 만삭에 들어선 에머를 위해 1층에 있는 안방을 내 주고 자신들은 위층에서 지냈다.¹

휘트니의 집에 짐을 푼 조셉은 새로운 개종자들을 방문하기 시작했다. 휘트니 상점의 남쪽에 있는 언덕 위에는 집들과 상점들이 옹기종기 모여 마을을 이루었는데, 그곳이 바로 커틀랜드였다. 이 소도시를 끼고 흐르는 작은 시내는 제분소에 동력을 공급하고, 북쪽에 있는 강으로 흘러 들어갔다. 이곳을 터전으로 삼고 사는 주민은 천 명 남짓 되었다.²

조셉은 교회 회원들을 만나러 다니면서 영적인 은사에 대한 그들의 강한 열망과 신약 시대 성도들을 닮고자 하는 진실한

소망을 느낄 수 있었다.³ 조셉도 영의 은사를 소중히 여겼고, 그것이 회복된 교회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영의 은사를 받는 일에 맹목적으로 매달리는 일부 성도들의 행태는 그가 보기에 우려스러울 수준이었다.

그는 커다란 숙제를 떠안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교회의 전체 회원 수를 두 배 이상으로 증가시킬 만큼 커틀랜드의 교회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으나, 이곳 성도들은 분명 주님께 더 많은 지침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

한편, 올리버가 이끄는 선교사 일행은 커틀랜드에서 서쪽으로 약 1,300킬로미터를 여행하여 미국의 서쪽 경계에 있는 미주리주 잭슨군의 한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선교사들은 숙소와 일거리를 찾은 후, 마을 서쪽 편에 외떨어진 지역에 사는 델라웨어 인디언들을 찾아가 보기로 계획했다.⁴

미 정부의 인디언 이주 정책에 따라 자신들의 땅에서 강제로 쫓겨난 델라웨어 인디언들은 얼마 전에 그 지역으로 이주해 왔었다. 추장인 키타위넨드는 정착민과 미군에게 밀려나 서부로 쫓겨 오면서도 부족민의 단합을 위해 지난 25년간 힘겨운 투쟁을 해 온 노장이었다.⁵

1831년 1월의 추운 겨울날, 올리버와 팔리는 키타위넨드를 만나기 위해 길을 나섰다. 델라웨어 정착지에 도착한 두 사람은 커다란 오두막집 한가운데에서 난롯불을 쬐고 있던 키타위넨드를 만났다. 추장은 일행과 따뜻하게 악수를 나눈 후, 그들에게 담요 위에 앉으라는 몸짓을 해 보였다. 추장의 부인들은 양철 냄비

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콩과 옥수수를 가득 내왔고, 선교사들은 나무 숟가락으로 이를 먹었다.

올리버와 팔리는 통역의 도움을 받아 키타위넨드에게 몰몬경을 소개했다. 그리고 부족의 통치 위원회에게 몰몬경의 메시지를 소개하고 싶다는 의사를 그에게 전했다. 추장은 원래 부족민을 상대로 하는 전도 활동을 반대해 왔지만, 이번에는 생각을 해 보고 곧 답을 주겠다고 했다.

다음날 아침, 다시 찾아온 선교사들과 얼마간 이야기를 나눈 후, 키타위넨드 추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선교사들에게 발언 기회를 주었다.

올리버는 그 자리에 모인 위원들에게 감사를 전한 다음, 그들의 얼굴을 응시하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희는 최근에 저희가 알게 된 위대한 진리를 여러분께 전하고자 황야를 걷고, 깊고 넓은 강을 건너고, 두껍게 쌓인 눈을 헤치면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는 몰몬경에는 아메리칸 인디언 조상의 역사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이 책은 금판에 기록되어 있었으며, 수 세대를 걸쳐 아버지에서 아들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올리버는 하나님께서 조셉이 금판을 발견하고 번역하도록 도우셨으며, 그 기록을 출판해서 인디언을 비롯한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게 하셨다고 말했다.

이야기를 마친 후, 올리버는 키타위넨드에게 몰몬경 한 권을 건넸다. 추장과 위원회 사람들이 함께 그 책을 살펴보았다. 이윽고 추장이 입을 열었다. “우리에게 이런 좋은 소식과 특히, 우리 선조들의 책에 관한 새로운 소식을 전하고자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이곳까지 와 준 백인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혹독한 겨울 날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족민들의 사정을 설명했다. 그들이 지내는 주거 시설은 열악했고, 가축들마저 죽어가고 있었다. 키타위넨드는 집과 울타리를 짓고 봄이 오기 전에 농사 준비도 해야 해서 지금은 선교사들을 마을에 묵게 할 형편이 되지 못한다며 양해를 구했다.

그 대신에 그는 선교사들에게 이런 약속을 주었다. “위원회 회관을 지으면, 거기서 만납시다. 그때 이 책을 우리에게 읽어 주고, 우리 선조들의 책과 위대한 영의 뜻에 관한 더 많은 가르침을 주시오.”⁶

그로부터 몇 주 후에 조셉은 올리버의 보고를 받았다. 올리버는 키타위넨드를 방문한 일을 전하면서 델라웨어 인디언들이 물문경을 받아들일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말했다. 그는 “이 부족과 관련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라고 적었다.⁷

하지만 조셉은 여전히 인디언들에 대한 선교 사업을 낙관적으로 생각했다. 그 무렵에 조셉은 커틀랜드의 교회를 강화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었다. 조셉은 커틀랜드 성도들을 만난 후에 곧 그들과 관련된 계시를 받았다. 주님께서는 계시를 통해 다시 한번 약속하셨다. “그리고 너희 신앙의 기도로 너희는 나의 율법을 받을지니, 이는 너희로 어떻게 나의 교회를 다스리며 내 앞에서 모든 일을 올바르게 처리하는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⁸

조셉은 성경 공부를 통해 모세가 약속의 땅으로 백성들을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오셔서 성역을 베푸시는 내내 당신이 주신 율법의 의미를

명확히 하셨던 것을 알았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성약의 백성에게 다시 한 번 율법을 계시해 주실 것이었다.

이 새로운 계시에서, 주님께서서는 에드워드 파트리지의 순결한 마음을 칭찬하시며 그를 교회의 첫 번째 감독으로 부르셨다. 감독의 의무를 상세히 설명하지는 않으셨지만, 주님께서서는 에드워드에게 자신의 온 시간을 교회 일에 바쳐야 하며, 당신이 성도들에게 주신 율법에 순종하도록 그들을 도와야 한다고 말씀하셨다.⁹

그로부터 일주일 후인 2월 9일, 에드워드는 기도로 율법을 받기 위해 조셉과 여러 장로들을 만났다. 장로들은 율법에 관한 질문을 연이어 조셉에게 했고, 주님께서서는 조셉을 통해 응답을 주셨다.¹⁰ 몇몇 응답에서는 십계명의 원리와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같은 친숙한 진리들이 거듭 강조되었다. 그 외 나머지는 계명을 지키는 방법과 그것을 어긴 이들을 돕는 방법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계시해 주시는 것이었다.¹¹

그에 더하여, 주님은 성도들이 에녹의 백성과 같이 될 수 있도록 계명들을 주셨다. 그분은 성도들의 모든 토지와 재산은 물리의 농장처럼 함께 나누어 사용하는 공용 자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신성한 청지기 직분으로 다루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것은 각자의 가족을 부양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돕고, 시온을 건설하는 데 사용해야 했다.

율법을 준행하기로 한 성도들은 재산의 법적 소유권을 감독에게 줌으로써 재산을 교회에 헌납하고, 감독은 각 가족의 필요에 따라 토지와 물품을 시온의 기업으로 돌려줄 것이었다. 기업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 자신이 받은 토지와

자산을 사용하고, 잉여물은 다시 감독에게 돌려주어서 궁핍한 사람들을 돕고 시온과 성전을 건설하는 데 쓰이게 해야 했다.¹²

주님께서서는 성도들에게 이 율법을 준행하고, 끊임없이 진리를 추구하라고 명하셨다. 그분은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다. “만일 네가 구하면, 계시 위에 계시를, 지식 위에 지식을 받을 것이요, 그리하여 여러 비밀과 평화로운 것들을 알게 되리니—기쁨을 가져다주는 것, 영생을 가져다주는 것을 알게 되리라.”¹³

이 무렵에 조셉은 교회에 질서를 세울 여러 계시를 받았다. 몇몇 성도들의 극단적인 행동에 대한 응답으로, 주님께서서는 거짓 영들이 땅에 널리 퍼져 있어 일부 광기 어린 행동의 원인이 성신이라고 믿도록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고 경고하셨다. 주님께서서는 영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거나 혼란스럽게 하지 않으며, 오히려 사람을 복돋우고 교화한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셨다.

그분은 “교화를 이루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¹⁴라고 선포하셨다.

그렇게 커틀랜드에서 율법이 계시되고 있을 때, 곧이어 뉴욕의 성도들은 오하이오에 집결하기 위한 막바지 준비에 들어갔다. 그들은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도 토지와 재산을 정리했고, 소유물을 챙겨 마차에 실은 뒤 가족과 친구들에게 작별을 고했다.

이주를 준비하는 이들 중에는 엘리자베스와 토머스 마쉬 부부도 있었다. 토머스가 물문경 원고 사본 일부를 받아 보스턴에 있는 집으로 돌아간 후 이들 부부는 선지자와 교회가 있는 곳에 더 가까이 머물고자 뉴욕주로 이사를 했었다. 하지만 그로부터 불과 몇 달 만에 오하이오로 집합하라는 명이 전해졌고, 그에

따라 두 사람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성도들과 함께 가서 시온을 건설하리라는 굳은 결의로 또 다시 짐을 싣다.

엘리자베스가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원동력은 개종의 힘에 있었다. 그녀는 몰몬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지만, 바로 침례를 받지는 않았었다. 그러나 팔마이아에서 아들을 출산한 후에 엘리자베스는 이 복음이 참되다는 증거를 얻고자 주님께 간구했다. 얼마 안 가서 그녀는 간절히 원하던 대로 간증을 얻고 침례를 받았다. 그녀는 자신이 아는 것을 부인하고 싶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사업에 언제든 동참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오하이오로 떠나기 직전에 토머스의 누이에게 쓴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내 몸과 마음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받은 것들에 대해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더 감사해야 할 일이 없는지 계속 찾게 돼요.”

같은 편지에서 토머스는 오하이오로 집합하게 된 소식을 전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회개하고 신속히 오하이오에 모이라고 명하셨습니다.” 사실 그는 성도들이 오하이오에 집합하는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그곳에 시온을 건설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더 원대한 계획을 준비하기 위함인지 그로서는 알 수가 없었지만, 그래도 상관없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이면 주리이든, 서부 국경에서 1,600킬로미터 떨어진 로키 산맥이든, 그는 어디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이렇게 썼다. “주님께서 계시하신 것 외에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아는 바가 없어.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 약속의 땅에 도시가 세워질 거야.”¹⁵

주님의 율법이 계시되고, 뉴욕주의 성도들이 오하이오로 집결하는 가운데, 조셉과 시드니는 성경 영감역 작업을 재개했다.¹⁶ 그들은 예녹의 기사에서부터 주님께서 수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축복사 아브라함의 기사까지 번역 작업을 이어 나갔다.¹⁷

주님은 이 부분의 성경 원문을 크게 바꾸지는 않으셨지만, 조셉은 축복사였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의 삶을 깊이 고찰해 보았다.¹⁸ 당시 성경을 읽는 미국인들은 아브라함과 다른 구약 시대 축복사들이 여러 아내와 결혼했던 관습을 몹시 혐오했다. 왜 주님께서는 그런 관행을 꾸짖지 않으셨던 것일까?

그 답은 몰몬경에 있었다. 니파이의 동생인 야곱의 시대에 주님께서는 니파이 남성들에게 아내를 한 사람만 두도록 명하셨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의로운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 아내를 한 명 이상 두도록 지시하실 수도 있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셨다.¹⁹

조셉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고, 주님께서는 때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수 결혼을 명하기도 하셨다는 말씀을 응답으로 주셨다. 아직 그 관행을 회복시킬 때가 이른 것은 아니었지만, 일부 성도들에게 그 관행을 명하실 날이 언젠가는 올 것이었다.²⁰

뉴욕주에서는 성도들로 구성된 첫 번째 일행이 차가운 날씨 속에 그들의 여정을 시작했다. 루시 스미스와 80명의 성도들로 구성된 두 번째 무리는 뒤이어 조금 늦게 출발했다. 이들 일행은 서쪽의 큰 호수까지 이어진 운하를 건너기 위해 승선권을 예약했다. 호수에 도착하면, 증기선으로 옮겨 타고 커틀랜드 근처 항구까지

가고, 거기서부터는 총 483킬로미터에 이르는 대장정의 마지막 여정인 육로 여행이 시작될 것이었다.²¹

이들의 여행은 처음에는 순탄하게 흘러가는 듯했다. 그러나 운하를 따라 절반쯤 갔을 때, 그들은 고장 난 수문을 만나 배 안에 갇힌 채로 강기슭에서 꼼짝 못하게 되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식량이 충분하지 못했다. 배고픔과 집합에 대한 걱정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좀 참으시고, 불평을 거두세요.” 루시가 말했다. “저는 주님의 손길이 우리 위에 임하신다는 사실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수문은 수리되었고, 성도들이 탄 배는 다시 항해를 시작했다. 며칠 후에 이들은 호수에 도착했지만, 이번에는 항구 주변 호수가 두껍게 얼어 뱃길을 막아 버렸다. 성도들은 또 다시 크게 실망했다.²²

그들은 얼음이 녹기를 기다리는 동안 시내에서 집을 빌려 지내고자 했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았다. 여차하면 큰 방 하나에서 모든 인원이 다 함께 숙박을 해야 할 상황이었으나 다행히도 루시가 자신의 오빠를 아는 증기선 선장을 만난 덕분에 성도들은 얼음이 녹을 때까지 선장의 배 안에서 지내도록 배려를 받았다.²³

하지만 성도들은 낙심한 듯 보였다. 그들은 굶주리고 몸이 젖은 상태로 추위에 떨고 있었다. 길이 보이지 않자 결국 다툼이 일어났다.²⁴ 언쟁은 점점 격화되어 구경꾼들이 몰릴 정도가 되었다. 루시는 성도들이 이런 추태로 이목을 끄는 것이 걱정스러웠다. 결국 그녀는 언쟁의 한복판에 직접 뛰어들어 외쳤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어디 있습니까? 얼음이 깨져 배가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의 소망을 모두 하늘로 올려 보낸다면, 주님이 살아 계시듯이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루시의 귀에 천둥이 치는 듯한 굉음이 들려왔다. 얼음이 깨지는 소리였다. 얼었던 강물이 갈라지며 배가 지나갈 만한 공간이 생겼다. 선장은 곧바로 선원들을 제자리에 배치시킨 다음, 얼음이 벌어진 좁은 틈을 따라 배를 몰았다. 성도들이 탄 배는 갈라진 얼음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비껴가며 항해를 시작했다.²⁵

깜짝 놀라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성도들은 갑판에 모여 기도를 드렸다.²⁶

조셉의 어머니와 뉴욕의 성도들이 서부로 향하고 있을 무렵, 조셉과 에머는 몰리의 농장에 있는 작은 오두막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조셉의 지도력과 계시로 받은 새 율법은 오하이오의 성도들 사이에 질서와 이해, 화합의 정신을 불어넣었다. 많은 장로들과 그들의 가족들은 이웃 도시와 마을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아낌없이 희생했다.

반면에 미주리주의 선교 사업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었다. 한동안은 키타위너드와 부족민들에게서 진전이 있어 보여, 올리버는 조셉에게 “추장은 물문경에 담긴 모든 말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부족민 중에는 믿는 이들이 더 많습니다.”²⁷라는 말을 편지에 적어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허가 없이 인디언들에게 선교 활동을 하면 체포하겠다는 정부 관계자의 협박으로, 올리버와 선교사들의 선교 활동은 결국 중단되었다.²⁸

올리버는 서쪽으로 1,60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사는 나바호 인디언들에게 전도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았으나 그렇게 먼 곳까지 가려면 허가가 필요할 거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팔리를 다시 동부로 보내 정부의 선교 허가증을 받아 오게 하고, 그동안 올리버는 다른 선교사들과 함께 인디펜던스에 있는 정착민들을 개종시키고자 노력했다.²⁹

그러는 사이, 조셉과 에머는 또 한 번의 비극을 맞았다. 4월의 마지막 날, 에머는 몰리 가족 여인들의 도움을 받으며 쌍둥이 남매를 출산했지만, 지난번에 에머가 낳았던 아기와 같이 몸이 약했던 쌍둥이들은 태어난 지 몇 시간 만에 숨을 거두었다.³⁰

그런데 커틀랜드에는 그날 태어난 또 한 쌍의 쌍둥이가 있었다. 아기들의 어머니인 줄리아 머독은 최근에 교회에 들어온 개종자였는데, 출산 직후 세상을 떠났다. 그 소식을 들은 조셉은 줄리아의 남편인 존에게 전언을 보내 자신과 에머가 기꺼이 쌍둥이를 키울 의향이 있음을 전했다. 아내를 잃은 슬픔으로 비탄에 잠겨 있던 존은 혼자서 갓난아기들을 키울 수도 없었기에 조셉의 제의를 받아들였다.³¹

조셉과 에머는 기쁜 마음으로 쌍둥이 아기를 입양했다. 뉴욕을 출발하여 오하이오까지 무사히 여행을 마친 조셉의 어머니 루시도 이 새로 생긴 손주들을 품에 안을 수 있었다.³²



많은 환난 후에

1831년 봄, 커틀랜드 북동부에 있는 한 마을에는 일곱 살 난 여자아이인 에밀리 파트리지가 살고 있었다. 부모님인 에드워드와 리디아, 그리고 에밀리를 포함한 다섯 딸들이 사는 에밀리의 집은 근방에서도 손꼽히는 멋스러운 목조 주택이었다. 그 집은 1층에 큰 방과 두 개의 침실이 있었고, 2층은 침실 하나와 또 다른 큰 방, 그리고 옷을 보관하는 벽장이 있었으며, 지하에는 주방과 함께 너무 킁킁해서 에밀리가 늘 무서워했던 채소 저장실이 있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가면 널찍한 뜰이 펼쳐졌다. 뜰은 에밀리의 놀이터이자 탐험 대상으로 안성맞춤인 곳이었다. 알록달록한 꽃들과 과실수들이 자라는 정원과 헛간도 있었다. 그리고 에밀리의 아버지가 나중에 더 멋진 집을 지으려고 했던 넉넉한 공터도 있었다. 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는 에밀리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모자 가게가 있었다. 가게 판매대 아래를 열어 보면, 언제

나 에밀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선명한 색깔의 리본과 보물들을 볼 수 있었다. 아버지의 모자 가게에는 천과 모피를 염색하고 이를 손님들이 원하는 모양의 모자로 가공할 때 쓰는 각종 도구와 기계들이 가득했다.¹

그러나 에밀리의 아버지는 감독이 된 이후로 그 모든 물건들을 그냥 놀리기 일쑤였다. 뉴욕에서 이주해 온 성도들이 오하이오로 속속 도착하고 있었고, 에밀리의 아버지인 에드워드는 그들이 거처와 일거리를 찾도록 돕느라 언제나 분주했다. 오하이오로 이주한 성도들 중에는 나이트 가족이 포함된 콜스빌 지부 회원들도 있었다. 에드워드는 레먼 코플리가 커틀랜드에서 북동쪽으로 32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큰 농장을 주님께 헌납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콜스빌 성도들을 그쪽으로 보내 정착하게 했다.²

뉴욕에서 온 일부 성도들은 흥역을 앓고 있었다. 그들은 종종 에밀리의 집에 묵었기에 얼마 안 가서 에드워드의 딸들에게서도 고열과 발진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에밀리는 얼마 후에 회복되었지만, 당시 열한 살이었던 엘리자는 폐렴까지 앓게 되었다. 부모들은 호흡이 가빠지고 고열에 시달리는 딸의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³

가족들이 엘리자를 간호하는 동안, 에드워드는 몰리 농장 근처 학교 건물에서 열린 중요한 대회에 참석했다. 그는 그 일머칠간 집을 비운 후 집에 돌아오자마자 가족들에게 자신이 다시 집을 떠나 있게 될 것임을 알렸다.⁴ 에드워드는 선지자 조셉이 다음 대회는 미주리에서 개최될 것이라는 계시를 받았고, 그에 따라 자신을 비롯한 몇몇 교회 지도자들이 최대한 빨리 미주리로 가라는 부름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전했다.⁵

많은 사람들이 곧바로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 계지에서 주님은 약속의 땅에 대한 성경 구절을 빌려 미주리를 “젓과 꿀이 흐르는” 성도들의 기업의 땅이라 칭하셨다. 그곳에서 성도들은 시온이라는 이름의 도시를 건설할 것이었다.⁶

에드워드는 가족을 두고 떠나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사랑하는 딸 엘리자가 여전히 병상에 누워 있었고, 자신이 없는 사이에 숨을 거둘지도 모를 상황이었다.⁷ 에밀리는 어머니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 서린 것을 보았다. 에밀리의 어머니인 리디아 파트리지는 시온의 대업에 매우 헌신적인 사람이었지만, 그런 그녀에게도 아이들과 집안일을 혼자서 감당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리고 리디아는 이 고난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직감한 듯했다.⁸

콜스빌 성도들이 레먼 코플리의 땅에서 정착을 시작했을 때, 그들 중에는 병세가 위중한 폴리 나이트가 있었다. 코플리 농장은 86만 평에 달하는 비옥한 토지가 있어 많은 집과 헛간, 가게 등을 짓기에 충분한 곳이었으며,⁹ 폴리의 병세가 날로 악화되어 걱정스럽긴 했지만, 여기서라면 나이트 가족도 다시 한 번 삶의 터전을 일구고 평화롭게 새로운 신앙에 따라 살아갈 수 있을 것이었다.

폴리의 남편과 아들들은 서둘러 울타리를 만들고 밭을 일구며 땅을 개간했다. 그리고 조셉과 파트리지 감독은 콜스빌 성도들에게 그들의 소유물을 주님의 율법에 따라 헌납하도록 권고했다.¹⁰

그러나 정착지가 막 모습을 갖추 갈 무렵, 레먼은 교회에서 탈퇴하고, 콜스빌 성도들에게 자신의 땅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했

다.¹¹ 갈 곳이 없어진 이들은 조셉에게 주님의 인도를 구해 달라고 부탁했다.

주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응답하셨다. “너희는 서쪽 지역으로 여행을 떠나 미주리 땅으로 ... 갈지니라.”¹²

이제, 시온의 땅은 오하이오가 아니라 미주리였다. 콜스빌 성도들은 자신들이 그곳에 정착하게 될 첫 번째 교회 회원이 될 것임을 깨달았다. 이주 준비는 곧바로 시작되었다. 계시를 받은 지 2주 만에 폴리와 콜스빌 지부 회원들은 커틀랜드를 출발하여 배를 타고 서쪽으로 향했다.¹³

강물을 따라 내려가는 배 안에서, 폴리는 시온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절대 눈을 감지 않겠다는 간절한 소망으로 매시간을 버텼다. 그녀는 당시 55세였고, 상태는 갈수록 나빠지고 있었다. 폴리의 아들인 뉴얼은 여행 길에서 장례를 치를 것을 대비해 배에서 내려 물으로 관을 짚 나무를 사러 가기까지 했다.

그러나 폴리는 시온이 아닌 곳에는 절대 묻히지 않겠다고 굳게 마음먹었다.¹⁴

콜스빌 성도들이 떠난 후, 뒤이어 선지자 조셉과 시드니, 에드워드 파트리지도 교회의 몇몇 장로들과 함께 미주리로 떠났다. 그들은 주로 육로로 이동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소개하고, 시온에 대한 자신들의 소망을 전파했다.¹⁵

조셉은 인디펜던스에 있을 교회에 관하여 낙관적으로 이야기했다. 그는 올리버와 선교사들이 커틀랜드에서 그랬듯이 그곳에도 분명 강한 지부를 세웠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몇몇 장로들에게 했다. 일부 장로들은 그 말을 예언으로 받아들였다.

잭슨군 주변 지역에 이르렀을 때, 이들 일행은 눈앞에 펼쳐지는 구릉지들과 대초원을 보며 감탄했다. 성도들이 사용할 드넓은 토지가 있는 미주리는 시온을 세우기에 이상적인 곳 같았다. 그중에서도 근처에 큰 강이 흐르고 인디언 영토와도 인접해 있는 인디펜던스는 하나님의 성약의 백성들이 집합하기에 완벽한 곳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다.¹⁶

그러나 정착 도시에 들어섰을 때, 장로들은 실망스러워했다. 이들 일행 중에는 조셉이 한 여성의 마비된 팔을 고치는 것을 보고 교회에 들어온 에즈라 부스라는 전직 목사가 있었는데, 그의 눈에 인디펜던스는 그저 암울하고 낙후된 곳일 뿐이었다. 도심은 재판소와 상점 몇 곳, 통나무 집 몇 채가 전부였다. 선교사들이 침례를 준 사람들도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지부는 조셉이 기대했던 것만큼 강하지 못했다. 에즈라와 몇몇 장로들은 미주리로 가라는 인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조셉이 진정 선지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품었다.¹⁷

이런 상황에 실망을 느낀 것은 조셉도 마찬가지였다. 페이엠티와 커틀랜드도 작은 마을이긴 했지만, 인디펜던스는 말 그대로 벽지에 있는 교역소에 불과했다. 이 마을은 서부로 통하는 길의 출발점으로, 모피 사냥꾼이나 가축 물이꾼, 농부와 영세 상인들이 오가는 곳이었다. 조셉은 평생 그쪽 일에 종사하는 이들을 봐왔지만, 이 지역 사람들은 특히 더 통제가 안 되고 거칠어 보였다. 그에 더하여, 선교사들을 수상쩍어 하는 정부 관리들은 인디언들에 대한 선교 활동을 금지하지는 않는다 해도 휘방을 놓을 가능성이 충분해 보였다.¹⁸

조셉은 낙심하여 주님께 여쭙었다. “어느 때에 광야가 장미처럼 피어나겠으며, 어느 때에 시온이 그 영광 중에 건설되겠으며, 어느 곳에 당신의 성전이 세워지겠나이까?”¹⁹

미주리에 도착한 지 6일째 되던 날인 7월 20일, 조셉은 자신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았다. 주님께서서는 조셉에게 “이 땅[은] … 성도의 집합을 위하여 내가 지정하고 성별한 땅이니라.”라고 말씀하셨다.

이제, 더는 다른 곳을 바라볼 이유가 없었다. 주님께서 미주리를 “약속의 땅이요 시온 성을 위한 장소”로 선언하셨기 때문이었다. 성도들은 최대한 많은 토지를 매입하고, 집을 짓고, 밭을 경작해야 했다. 그리고 그들은 재판소 서쪽에 있는 높은 지대에 성전을 세울 것이었다.²⁰

한편, 주님께서 시온에 관한 당신의 뜻을 밝히셨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성도들은 여전히 인디펜던스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에즈라 부스처럼 에드워드도 그 지역에 제법 큰 지부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었다. 그런데 그런 기대와는 정반대로, 자신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회복된 복음에는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한 이런 곳에 그들은 시온을 세워야 했다.

그는 교회의 감독으로서 시온의 토대를 놓는 책임이 상당 부분 자신에게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성도들을 위한 약속의 땅을 준비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땅을 매입하여, 시온으로 와서 헌납의 법을 지킬 성도들에게 기업으로 나눠 줄 준비를 해야 했다.²¹ 그러려면 에드워드 본인은 미주리에 남아야 하며, 가족들도 이제 시온으로 완전히 이주하도록 해야 했다.

에드워드는 시온 건설에 힘쓰고 싶었지만, 많은 계시와 새로 맡은 책무,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한 고민으로 마음이 어지러웠다. 어느 날, 그는 인디펜던스와 그 주변 땅을 조사하던 중에 조셉에게 이곳이 그 근처의 다른 땅만큼 좋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선지자의 결정이 불만스러웠고, 성도들이 어떻게 시온을 세울 수 있을지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저는 보입니다.” 조셉은 그에게 말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²²

며칠 후, 주님께서는 조셉과 에드워드, 그리고 교회의 여러 장로들에게 당신의 뜻을 다시 한 번 계시하셨다. “너희는 이후에 임하게 될 일들에 관한 너희 하나님의 계획과, 많은 환난 후에 뒤따르게 될 영광을 지금 너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느니라. 대저 많은 환난 후에야 축복이 오느니라.”

이 계시에서 주님은 에드워드의 불신을 꾸짖으셨다. “그러나 만일 그가 자기의 죄[를] …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할지어다. 보라, 그의 사명이 그에게 주어졌으니, 다시 주어지지 아니하리라.”²³

주님의 경고로 에드워드는 마음을 낮추었다. 그는 마음의 눈이 멀었던 것에 대해 주님께 용서를 빌고, 조셉에게 자신이 인디펜던스에 남아 성도들을 위해 시온의 땅을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물론, 그의 마음 한편에는 아직도 눈앞에 놓인 막중한 임무에 대한 염려가 남아 있었다.

에드워드는 아내 리디아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했다.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실 수 있을 정도로 내 책임을 다할 수 없을 것 같아 두렵소. 내가 쓰러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길 바라오.”²⁴

커틀랜드를 출발한 지 3주 만에 폴리 나이트와 콜스빌 성도들은 마침내 인디펜던스에 도착했다. 드디어 인디펜던스의 대지를 밟은 폴리는 힘없이 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그녀는 급속도로 쇠약해지고 있었으나, 다행히 그 지역에서 최근에 개종한 두 회원이 방을 내 주어 폴리는 비교적 편안하게 안정을 취할 수 있었다.

나이트 가족은 정착할 곳을 찾아 주변 지역을 둘러보았다. 그들은 인디펜던스 인근 시골 지역이 아름답고 쾌적한 데다 토지도 비옥하여 개발을 하고 농사를 짓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주민들도 낯선 이들에게 친절한 것 같았다. 커틀랜드에서 온 몇몇 장로들과는 달리 콜스빌 회원들은 이곳에 시온을 세울 수 있으리라고 믿었다.

8월 2일, 미주리의 성도들은 시온의 첫 번째 건물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 인디펜던스에서 서쪽으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한 장소에 모였다.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콜스빌 지부 회원 열두 명과 조셉 스미스는 건물에 쓰일 첫 번째 통나무를 그곳에 놓았다. 이어서 시드니가 이 시온의 땅을 성도들의 집합 장소로 헌납했다.

다음 날, 조셉은 인디펜던스 재판소 서쪽에 있는 부지에서 장차 성전의 모퉁이가 될 자리에 조심스레 돌을 놓았다.²⁵ 그때 다른 누군가가 성경을 펴서 시편 87편을 낭독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데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데도다.”²⁶

며칠 후, 폴리는 고통의 시간을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셨던 주님을 찬양하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²⁷ 선지자는 폴리의 장례식에서 설교를 했다. 그녀의 남편은 아내의 시신을 나무판자로 덧댄

관에 넣어 성전 부지 근처에 묻었다. 폴리 나이트는 시온 땅에 잠든 첫 번째 성도가 되었다.²⁸

그날, 조셉은 이런 계시를 받았다. “보라, 주가 이르노니, 나의 계명에 따라 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면서 이 땅에 올라온 자들은 복이 있다. 이는 사는 자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죽는 자들은 그들의 모든 수고를 떠나 쉴 것이며 그들의 업적이 그들을 따를 것임이라.”²⁹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에즈라와 여러 장로들은 조셉, 올리버, 시드니와 함께 다시 커틀랜드로 출발했다. 에즈라는 오하이오의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겼다. 그는 에드워드와는 달리 조셉이나 시온의 위치에 대해 아직도 불만이 가득했다.

그들은 인디펜던스 북쪽에 있는 미주리강에 카누를 띄우고 직접 노를 저으며 하류로 내려갔다. 여행 첫날 밤은 모두들 유쾌한 분위기 속에서 강둑에 자리를 잡고 야생 칠면조 고기로 저녁 식사를 했다. 이튿날, 뜨거운 8월의 피약벌 아래 거센 강물을 뚫고 노를 젓던 사람들은 급속도로 지치게 되었다. 피로에 시달리던 그들은 급기야 서로를 헐뜯기 시작했다.³⁰

결국 올리버가 나서서 그들에게 이렇게 외쳤다. “주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여러분의 행실을 조심하지 않으면, 화가 닥칠 것입니다.”

다음 날 오후에는 조셉이 탄 카누가 앞장서서 가는데, 선지자와 올리버에게 화가 난 몇몇 장로들이 노 젓기를 거부했다. 그들이 탄 배는 강이 급히 굽어지는 지점에서 물속에 잠겨 있던 나무를 들이받고 거의 전복될 뻔하기도 했다. 일행의 목숨이 위태

롭다고 느낀 조셉과 시드니는 장로들에게 모두 물으로 가 내리라고 지시했다.³¹

천막을 친 후, 조셉과 올리버, 시드니는 일행과 대화로 긴장을 풀어 보려 노력했다. 하지만 잔뜩 화가 난 그들은 배에서 내리라고 한 조셉과 시드니를 겁쟁이라고 조롱하고, 올리버의 노 젓는 방식을 비웃었다. 그들은 조셉이 독재자처럼 굴고 있다며 비난했다. 언쟁은 밤 늦게까지 계속되었다.

에즈라는 무리에서 빠져나와 조셉과 장로들에 대한 강한 불만을 품은 채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그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도대체 왜 주님께서는 왕국의 열쇠를 저런 사람들에게 맡기신 걸까?³²

여름이 끝나갈 무렵, 리디아 파트리지는 미주리에 있는 남편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부름에 대한 부담감을 토로하던 그는 자신이 예정과 달리 집에 가지 못하게 되었으며, 이제 잭슨군에 남아 성도들을 위해 토지를 매입해야 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편지에는 에드워드에게 주어진 계시의 사본이 동봉되어 있었다. 계시에서 주님은 에드워드의 가족에게 시온에 와서 정착하도록 명하셨다.

놀라운 소식이었다. 에드워드는 집을 떠나면서 미주리에서 일을 마무리하는 대로 돌아오겠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이제는 시온에서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아서 가족들의 이주를 도우러 오는 것도 어려울 상황이었다. 에드워드는 자신의 보좌들을 비롯하여 겨울이 시작되기 전에 오하이오에서 미주리로 이주해 올 가족들이 더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중에는 커틀랜드에서 잡화점을 하던 시드니 길버트, 인쇄업자인 윌리엄 펠프스가 있었

다. 그들은 모두 시온에서 교회를 위한 사업에 함께할 사람들이었다.³³

에드워드는 “그들과 같이 오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소.”라고 적었다.³⁴

그는 인디펜던스가 호화로움과는 거리가 먼 곳을 염두에 두고 가져와야 할 물건들과 두고 올 물건들의 목록을 잔뜩 적어 리디아에게 보냈다. “이곳의 생활은 고생스러울 거요.” 그는 아내에게 미리 경고했다. “그리고 얼마 동안은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궁핍한 생활을 하게 될 것 같소.”³⁵

리디아는 이주 준비를 시작했다. 다행히 아이들은 장거리 여행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이 회복되어 있었다. 리디아는 길버트와 펠프스 가족과 함께 먼 길을 떠날 준비를 했다. 리디아가 재산을 처분하기 시작하자 이웃들은 에드워드 부부가 그 아름다운 집과 번창하던 사업을 버리고 젊은 선지자를 따라 황무지로 가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눈치였다.³⁶

하지만 리디아는 시온을 세우라는 주님의 명을 저버리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멋진 집을 포기하는 것은 분명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성의 기초를 놓는 일에 동참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크나큰 영광이라고 그녀는 믿었다.³⁷



은사가 돌아오다

1831년 8월 말, 인디펜던스에 다녀온 장로들과 조셉은 커틀랜드로 무사히 돌아왔다. 하지만 그들 사이의 갈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조셉과 장로들은 미주리강 변에서 언쟁을 벌이긴 했지만, 후에 대부분은 자신들을 낮추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다. 다음 날 아침, 주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확신과 격려의 말씀을 계시해 주셨다.¹

“또 너희가 내 앞에서 스스로를 겸손히 낮춘 만큼, 왕국의 복은 너희 것이니라.”²

한편, 에즈라 부스를 포함한 일부 장로들은 이런 계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조셉과의 이견을 좁히려 하지 않았다. 커틀랜드로 돌아온 에즈라는 계속해서 조셉을 비판했고, 조셉이 임지에서 내린 조치에 불만을 표했다.³ 이에 성도들은 교회의 대회에서 에즈

라의 전도 허가증을 취소했다. 급기야 에즈라는 자신의 친구들에게 조셉의 인품을 신랄하게 깎아내리는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다.⁴

9월 초에 주님께서는 이런 적대 행위를 꾸짖으시며, 장로들에게 조셉의 과실을 비난하거나 까닭 없이 비판하는 일을 중지하라고 명하셨다. 주님께서는 “그는 죄를 범하였느니라.”라고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내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자로서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 아니한 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느니라.”

주님은 성도들에게 서로를 용서하라고 훈계하셨다. “나는 내가 용서할 자를 용서하려니와, 너희에게는 모든 사람을 용서할 것이 요구되느니라.”

또한, 견해가 다르다 하여 분열하지 말고, 선을 행하고, 시온을 건설하라고 촉구하시며 다음과 같이 일깨워 주셨다. “그런즉 선을 행함에 지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위대한 일의 기초를 놓고 있음이라. … 주는 진심과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요구하니, 기꺼이 하고자 하며 순종하는 자는 이 마지막 날에 시온의 땅의 좋은 것을 먹으리라.”

주님께서는 말씀을 마치시면서, 몇몇 성도들에게 재산을 정리하고 미주리로 가도록 명하셨다. 그러나 성도들 대부분은 오하이오에 남아 복음을 계속 전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나 주가 오 년간 커틀랜드 땅에 견고한 거점을 보유하고자 함이라.”⁵

엘리자베스 마쉬는 오하이오로 돌아오는 장로들이 시온 땅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귀를 쫑긋 세웠다. 그들은 검은 심토층과

구렁지가 펼쳐진, 바다와 같은 광활한 대초원, 생명력을 가진 듯 굽이쳐 흐르는 강에 대해 이야기했다. 비록 미주리 사람들에게 대한 평판은 그리 좋지 않았지만, 장로들은 시온의 미래를 꽤 낙관적으로 보고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보스턴에 있는 시누이에게 편지를 쓰면서 약속의 땅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는 이야기를 모두 전했다. “성전과 도시를 지을 곳에 돌을 세웠다고 해요. 충실한 성도들에게 줄 기업으로 토지도 최대한 많이 구입했다고 하네요.” 또한 그녀는 재판소 서쪽에 있는 숲속에 성전 부지가 정해진 것을 이야기하면서, 숲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고, “메마른 땅이 기쁨을 줄 것”이라는 성경 시대 예언이 실현되었다고 전했다.⁶

엘리자베스는 아직 미주리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던 자신의 남편 토머스가 약 한 달 뒤에는 돌아오리라 기대하고 있었다. 장로들의 말에 따르면, 미주리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복음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선교사들은 그 대신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어 그들을 시온으로 보내고 있다고 했다.⁷

머지않아 수백 명의 성도들이 인디펜던스에 모이게 될 것이었다.

스물다섯 살의 윌리엄 매클렐른은 커틀랜드에서 남서쪽으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발길을 옮겼다. 그곳에는 윌리엄의 아내 신시아 앤과 두 사람의 아기가 묻힌 무덤이 있었다. 윌리엄은 신시아와 결혼한 지 2년도 채 안 되어 아내와 아기를 모두 잃었다. 교사인 윌리엄은 명석하고 작문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었다.

그러나 가족을 잃은 후 고독한 시간을 보내면서 그 어디에서도 위안을 얻지 못하고 있었다.⁸

어느 날, 수업을 마친 윌리엄은 몰몬경을 전파하는 두 남성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중 하나인 데이비드 휘트머라는 사람은 몰몬경이 참됨을 증거하는 천사를 보았다고 말했다. 다른 한 명은 하비 위틀록이라는 사람이었는데, 하비의 말은 놀랍도록 힘이 있고, 명료했다.

윌리엄은 더 많은 이야기를 들어 보고자 두 사람을 집으로 초대했다. 그는 하비의 가르침을 들으며 다시 한 번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런 설교는 내 평생 처음이었다.” 윌리엄은 일지에 이렇게 기록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둘러싼 것만 같았다.”

윌리엄은 조셉 스미스를 직접 만나 그가 주장하는 바를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데이비드와 하비를 따라 인디펜던스로 떠났다. 그러나 데이비드 일행이 도착했을 때, 이미 조셉은 커틀랜드로 돌아가고 없었다. 윌리엄은 선지자 대신 에드워드 파트리지와 마틴 해리스, 하이럼 스미스를 만나 그들의 간증을 들었다. 윌리엄은 시온 땅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성도들에게서 느껴지는 사랑과 평화에 경이로워했다.¹⁰

어느 날, 윌리엄과 하이럼은 오랜 시간 숲을 거닐면서 몰몬경과 교회의 시작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다. 윌리엄은 이 모든 것을 정말 믿고 싶었으나 모든 이야기를 다 들어 본 그때까지도 여전히 교회로 개종해야겠다는 확신은 갖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진리를 찾았다는 증거를 하나님께 받고 싶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윌리엄은 하나님께 인도를 구하며 기도를 드렸다. 몰몬경을 공부했던 내용을 깊이 되새겨 보던 윌리엄은

자신이 그 책을 통해 새로운 빛에 눈뜨게 되었음을 불현듯 깨달았다. 그는 몰몬경이 참되다는 것을 알았으며, 이제 자신도 마땅히 그것을 간증해야 한다고 느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 있는 교회를 찾았음을 확신했다.¹¹

그날 오후, 하이럼은 윌리엄에게 침례와 확인 의식을 베풀었으며, 두 사람은 곧 커틀랜드로 함께 떠났다.¹² 윌리엄은 복음 전파에 힘쓰면서, 자신이 청중을 사로잡고 목사들을 토론으로 설득하는 남다른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때로는 전도를 하다 너무 거만해지기도 했다. 그렇게 재능을 과시하다 영이 물러가 버리면 그는 마음이 매우 불편해졌다.¹³

커틀랜드에 도착한 윌리엄은 하루빨리 조셉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그는 알고 싶었던 몇 가지 질문을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은 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다. 그리고 조셉을 만나면 그가 스스로 그것을 알아차리고 자신에게 답을 주기를 바라며 기도했다. 윌리엄은 이제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돌봐야 할 가족이 없었으므로, 주님의 사업에 온전히 헌신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복리를 먼저 챙기고픈 마음도 있었다.

그날 밤, 윌리엄은 조셉에게 함께 집으로 가서 주님의 계시를 구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다른 이들도 조셉에게 그런 부탁을 많이 했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다. 조셉은 그 요청을 받아들여 계시를 받기 시작했고, 윌리엄은 그의 질문 하나하나에 대한 주님의 응답을 듣게 되었다. 걱정은 사라지고, 이제는 기쁨만이 느껴졌다. 윌리엄은 자신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았음을 알았다.¹⁴

그로부터 며칠 후인 1831년 11월 1일, 조셉은 교회 지도자 평의회를 소집했다. 그 무렵에 에즈라 부스는 조셉이 거짓 예언을 하고 있으며, 자신이 받은 계시를 사람들에게 숨기고 있다고 비난하는 기사를 지역 신문에 냈다. 이 기사가 널리 퍼지면서 사람들도 성도들과 그들의 메시지를 경계하기 시작했다.¹⁵

사실, 성도 중에는 주님의 말씀을 직접 읽어 보고 싶어 하는 이들도 많았다. 여태껏 조셉이 받은 계시를 손으로 받아 쓴 몇몇 기록이 전부였으므로, 교회 회원들은 그 내용을 대개 잘 알지 못했다. 장로들이 선교 사업에서 계시를 활용하고 싶을 때는 그 내용을 손으로 옮겨 적어야만 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조셉은 계시를 한 권의 책으로 묶어 출판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그런 책이 있다면 선교사들이 주님의 말씀을 더욱 쉽게 전할 수 있고, 교회에 호기심을 느끼는 이웃들에게 정확한 내용을 알려 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다.

평의회 회원들은 이 문제를 놓고 장시간 논의했다. 데이비드 휘트머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은 계시를 출판하는 것에 반대했다. 시온에 대한 주님의 계획을 더 공개한다면, 잭슨군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는 염려 때문이었다. 이에 반해 조셉과 시드니는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 그분의 말씀을 출판하기를 바라신다고 주장했다.¹⁶

더 많은 논의를 거친 후, 마침내 평의회는 1만 건의 계시를 계명의 책으로 출판하는 데 합의했다. 평의회는 시드니, 올리버, 윌리엄 매클렐른에게 그 책의 서문을 써서 그날 오후까지 제출하도록 지명했다.¹⁷

세 사람은 즉시 서문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평의회가 보기에 그들이 써 온 서문은 그리 만족스럽지 못했다. 평의회

는 서문을 한 줄 한 줄 자세히 살피면서 여러 번 반복하여 읽었고, 조셉에게 그에 관하여 주님의 뜻을 구해 보라고 부탁했다. 조셉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님께서는 새로운 서문을 계시해 주셨다. 조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구술했고, 그것을 시드니가 기록했다.¹⁸

새로운 서문에서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향해 당신의 음성 에 귀 기울일 것을 명하셨다. 또한, 그분은 당신이 조셉에게 이러한 계명들을 주신 이유는 당신의 자녀들이 신앙을 키우고, 그분을 더욱 신뢰하고, 그분의 복음과 영원한 성약의 충만함을 받아들이고 선포하게 하기 위함임을 말씀하셨다. 그분은 데이비드처럼 계시에 담긴 내용을 염려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언급하셨다.

“나 주가 말한 것은 내가 말한 것이요, 나는 나 자신을 변명하지 아니하나니, 여러 하늘과 땅이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내 자신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나의 종들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같으니라.”¹⁹

조셉이 이 서문을 다 구술하자, 일부 평의회 회원들은 책에 실릴 계시들의 참됨을 기꺼이 증언하겠다고 자청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계시를 지금 상태 그대로 출판하는 것을 여전히 꺼려했다. 그들은 조셉이 선지자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가 참되다는 것도 알았지만, 주님의 말씀이 조셉의 빈약한 어휘와 문법으로 그들에게 전해진 것을 부끄러워했다.²⁰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달랐다. 서문에서 그분은 당신께서 계시들을 주셨으며, 또한 그것을 “연약함 가운데 있는 [그분]의 종들에게 그들의 언어의 방식에 좇아” 주셨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셨다.²¹ 이를 분명히 알려 주시기 위해 주님은 평의회에게 그

방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을 뽑아 조셉이 받은 것과 같은 계시를 하나 작성해 보게 하셨다.

만일 선택된 그 사람이 계시를 쓰지 못한다면,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주님께서 조셉에게 주신 계시가 비록 형식적으로는 불완전하더라도 참된 계시임을 알고 그렇게 증언할 책임을 지게 될 것이었다.²²

그러자 윌리엄이 계시를 써 보겠다고 자원하고 나섰다. 그는 본인이 언어에 능통하다고 자신했었다. 그가 계시를 다 작성하고 보여 주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이 주님에게서 온 것이 아님을 곧바로 알아보았다.²³ 그들은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했다. 그리고 계시가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 선지자에게 주어졌음을 증언하는 선언문에 서명했다.²⁴

평의회는 조셉이 계시를 검토해야 하며 “그가 성령으로 발견하게 될 오류나 실수를 교정해야 한다고” 결의했다.²⁵

그 무렵 엘리자베스 마쉬는 낸시 타울이라는 전도사를 커틀랜드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낸시는 왜소하고 깡마른 체구에, 확신에 찬 눈빛을 한 여성이었다. 그녀는 서른다섯 살의 나이로 미국 전역의 학교, 교회, 전도 집회 등에서 대규모 군중 설교를 하며 명성을 날리고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낸시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녀가 훌륭한 교육을 받았으며, 신념이 확고한 사람임을 알 수 있었다.²⁶

한편, 낸시에게는 커틀랜드에 온 나름의 목적이 있었다. 그녀는 보통 다른 기독교 교회에 대해서는 자신과 의견이 다른 종파라 하더라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대했지만, 조셉 스미스에 대해

서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였다. 그녀는 성도들이 조셉에게 속고 있는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그들에 대해 더 많이 배워 다른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도록 돕겠다는 열망으로 이곳에 와 있었다.²⁷

엘리자베스는 낸시의 그러한 생각을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본인이 믿는 진리를 수호하려 하는 그 마음만큼은 이해할 수 있었다. 낸시는 성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근처 강에서 이루어지는 침례 의식에 참석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낸시는 엘리자베스와 함께 확인 의식을 하는 모임에 참석했다. 그 모임에는 조셉과 시드니, 그리고 교회의 다른 지도자들도 참석해 있었다.²⁸

이 자리에서 윌리엄 펠프스는 몰몬경의 참됨을 의심하는 낸시에게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이 책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낸시가 윌리엄을 노려보며 말했다. “내게 그 책이 있었다면, 태워 버렸을 겁니다.” 낸시는 지적이고 능력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조셉 스미스를 따르고 몰몬경을 믿는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스미스 씨.” 낸시가 말했다.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천사가 당신에게 금판이 묻힌 자리를 알려 주었다고 맹세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 어느 것도 맹세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셉은 반어적으로 대답했다. 그는 그 대신 방금 침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확인 의식을 베풀었다.

엘리자베스는 낸시를 바라보며 자신이 확인 의식을 받았을 때 느꼈던 것들을 간증했다. “조셉이 내 머리에 손을 얹자마자 따뜻한 물이 온몸에 흘러내리는 것처럼 성신이 느껴졌어요.”

넨시는 그 말에 기분이 상했다. 그 말은 마치 주님의 영이 어떤 느낌인지 모른다고 자신을 비난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넨시는 다시 조셉을 향해 말했다. “이런 허황된 이야기가 당신은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배운 것도 없이 쟁기질이나 하는 당신 같은 사람이!”

하지만 조셉은 평온한 얼굴로 답했다. “그 옛날의 까막눈 어부가 받았던 바로 그 은사가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²⁹



시현과 악몽들

18³²년 1월 당시 조셉과 에머, 그리고 그들의 쌍둥이 아기들은 커틀랜드에서 남쪽으로 50여 킬로미터 떨어진 오하이오주 하이럼에서 살고 있었다. 그들이 머물던 곳은 엘사와 존 존슨 부부의 집이었다.¹ 존슨 부부는 조셉의 부모와 동년배였으므로 자녀 대부분이 이미 결혼하여 출가한 상태였다. 그들이 사는 널찍한 농가는 조셉이 교회 지도자들과 만나거나 성경 번역 작업을 할 만한 공간이 충분했다.

침례를 받기 전에 존과 엘사 부부는 에즈라 부스를 따르는 무리의 일원이었다. 또한 엘사는 조셉이 전에 기적적으로 치유했던 바로 그 여성이었다. 그 사건은 에즈라 부스가 교회에 가입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² 존슨 부부는 에즈라가 신앙을 잃었을 때도 변함없이 선지자를 지지했다. 이는 뉴욕의 휘트머와 나이트 가족도 마찬가지였다.

그해 겨울, 조셉과 시드니는 존슨 부부 집의 위층 방에서 번역 작업에 전념했다. 2월 중순 무렵, 두 사람은 요한복음에서 의로운 자와 의롭지 못한 자의 부활에 관한 구절을 읽게 되었다. 조셉은 그 부분을 읽은 후 천국이나 인류의 구원에 관해 더 깊은 내용을 알고 싶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지상에서 행한 행위에 따라 보상하신다면, 전통적으로 믿어 왔던 천국과 지옥의 개념은 너무 단순하지 않은가?³

2월 16일, 조셉과 시드니, 그리고 열두 명 정도 되는 남자들이 존슨의 집 위층에 모였다.⁴ 영이 조셉과 시드니에게 임하여 시현이 펼쳐졌고, 두 사람은 말없이 눈 앞의 광경에 집중했다. 그들은 주님의 영광에 둘러싸여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천사들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경배했으며, 예수가 아버지의 독생자라 간증하는 음성이 들렸다.⁵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 겁니까?” 눈에 보이는 경이로운 광경에 놀라워하며 조셉이 물었다. 그가 시현으로 본 것을 묘사하자 시드니가 말했다. “저도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시드니가 조셉과 같은 질문을 한 뒤 자신의 눈 앞에 펼쳐진 광경을 묘사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조셉이 말했다. “저도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이러한 대화는 한 시간가량 이어졌다. 시현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지상 생활 이전에 시작되었고, 그분의 자녀들은 사망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통해 부활하게 될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또한 천국에 관해서도 묘사했는데, 그것은 그 방에 있는 모든 이의 상상을 뛰어넘는 이야기였다. 그들은 천국이 하나의 왕국이 아니라 각기 다른 영광을 지닌 여러 왕국으로 분류되어 있다고 이야기했다.

조셉과 시드니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한 내용에서 더 나아가 각 왕국에 대해 더 세부적인 것들을 보고 묘사했다. 주님께서는 지상에서 사악하게 살고 회개하지 않았던 자들이 갈 곳으로 별의 영광을 마련하셨다. 그리고 지상에서 명예롭게 살았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실히 따르지 않은 이들은 달의 영광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복음 성약을 맺고 지키며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받은 이들은 해의 영광에 속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⁶

주님께서는 하늘과 부활에 관하여 조셉과 시드니에게 더 많은 것을 계시하셨으나 그 내용을 기록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다. “또 사람이 그러한 것을 알릴 수도 없는 것이니, 이는 그러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고 그 앞에서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권능으로써만 보고 이해할 수 있을 따름임이니라.”⁷

시현이 끝나자 시드니는 자신이 본 것에 압도되어 기진맥진하고 안색이 창백해졌다. 시드니를 본 조셉이 웃으며 말했다. “형제님은 저만큼 이러한 것에 익숙하지 않으시군요.”⁸

조셉이 천국에 관한 장엄한 시현을 보았다는 이야기가 커틀랜드 성도들 사이에 퍼져 나갈 무렵, 윌리엄 펠프스는 인디펜던스에서 교회 인쇄소를 차리기 위한 준비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성년기 대부분을 신문 편집자로 살아온 그는 계명의 책 출판 작업을 맡아 하면서, 성도들과 미주리 사람들을 위한 월간 신문을 발행하고 싶다는 개인적인 소망을 키워 오고 있었다.

그는 강하고 확신에 찬 어조로 신문의 창간을 공식적으로 알렸다. 신문의 이름은 *The Evening and the Morning Star*(이브닝 앤드 모닝 스타)였다. 그는 “*The Evening and the Morning Star*(이브닝 앤드 모닝 스타)지는 성스러운 출처에서 그 지혜를 빌려올 것이며 하나님의 계시에 중점을 둘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윌리엄은 세상의 마지막 때가 도래했다고 믿었으므로, 신문을 통해 복음이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그리고 구주께서 곧 지상에 다시 오시리라는 경고를 세상의 모든 이에게 전파하고 싶어 했다.

또한 이 신문은 시사 보도나 시 문학과 같은 다른 분야도 다룰 예정이었다. 윌리엄은 의견을 밝힐 기회를 좀처럼 지나치지 않는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었지만, 이 신문은 정치 문제나 지역 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그는 다른 신문에서 정치적 의견을 활발히 피력했던 편집자였으며, 한때는 반대 진영의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기사와 사설을 쓰기도 했었다.⁹ 물론 미주리에서 분쟁에 개입하지 않는 것은 꽤 어려운 일이겠지만, 그로서는 시사 보도와 사설을 쓰게 된 것이 생각만 해도 흥분되는 일이었다.

그러나 윌리엄은 반드시 복음에 중점을 두는 신문을 만들 생각이었다. 그는 교회 인쇄업자로서 자신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계시를 출판하는 일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독자들에게 “지혜가 인도하는 대로 많은 성스러운 기록을 이곳에 실”겠다고 약속했다.¹⁰

한편, 오하이오에서는 조셉과 시드니가 본 시현이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많은 성도들은 천국에 관하여 새롭게 밝혀

진 진리들을 빠르게 받아들였지만, 일부에서는 자신들의 전통적인 기독교 믿음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힘들어했다.¹¹ 새로 제시된 관점에서 보면, 너무도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심지어 이 계시를 거부하고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까지 생겨났다.

지역 신문에 실린 에즈라 부스의 글이 신경 쓰이던 사람들은 시현 때문에 더 골치가 아팠다. 조셉을 비판하는 에즈라의 서한이 널리 퍼지면서 이전에 회원이었던 사람들까지 비난에 가담하기 시작했고, 후기 성도들과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둔 사람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교회를 주시했다.¹²

1832년 3월 하순의 어느 날, 해가 지고 사방이 어둑해지자 존슨의 집과 800미터 거리에 있는 한 벽돌 공장으로 여러 명의 남자들이 모여들었다. 그들은 가마에 불을 붙여 소나무 타르를 끓였다. 이들은 자신의 얼굴에 검은 칠을 한 후 깊은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¹³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던 에머의 귀에 누군가 창문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가 들려 왔다. 신경이 쓰이기는 했지만, 늘 있던 일이었기에 에머는 별일 아닐 거라 생각했다.

옆에는 바퀴가 달린 낮은 침대에 몸을 누인 조셉이 있었다. 숨소리가 고른 것을 보니 그는 잠이 든 듯했다. 에머의 쌍둥이 아기들은 그때 흥역을 앓고 있었다. 그날 저녁에 조셉이 증세가 심한 아기를 봐 준 덕에 에머는 잠깐이지만 눈을 붙일 수 있었다. 얼마 후에 잠이 깬 에머는 조셉에게서 아기를 받아 안으며 이제 가서 좀 쉬라고 했다. 조셉은 아침에 설교가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다 에머가 얼핏 잠이 들었을 때, 갑자기 벌떡 침실문이 열리고, 문으로 괴한 열두 명이 우르르 들어닥쳤다. 그들은 조셉의 팔다리를 붙잡고 끌고 나가려 했다. 에머는 비명을 질렀다.

조셉이 몸부림치자 괴한들은 더 거세게 조셉을 붙잡았다. 그중 하나가 조셉의 머리카락을 잡고 문 쪽으로 획 잡아당겼다. 몸을 비틀어 겨우 다리를 빼낸 조셉은 그중 한 명의 얼굴을 세계 걷어찼다. 그 사내는 휘청이며 피가 흐르는 코를 움켜잡고 문간에 고꾸라졌다가 쉰 목소리로 웃으면서 다시 벌떡 일어섰다. 그는 피 묻은 손으로 조셉의 얼굴을 가격했다.

“가만두지 않겠어.” 사내는 조셉을 향해 으르렁거렸다.

괴한들은 힘을 다해 조셉을 마당으로 끌어냈다. 조셉은 몸부림을 쳤다. 그러나 누군가의 손에 목이 졸리면서 조셉은 힘을 잃고 축 늘어졌다.¹⁴

정신이 들었을 때는 집 근처 초원의 한복판이었다. 괴한들은 그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그를 땅에서 조금 들어 올린 채 꼭 붙잡고 있었다. 저 앞에는 반쯤 벌거벗겨진 채 풀밭에 쓰러져 있는 시드니 리그돈이 보였다. 그는 죽은 듯 보였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오.” 조셉은 괴한들에게 간청했다. “살려 주시오.”

“너의 그 하나님한테 도와 달라고 해 보시지 그래.” 누군가 소리쳤다. 주위를 둘러보니 괴한들의 수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었다. 그들은 근처 과수원에서 가져온 널빤지 위에 조셉을 대자로 눕히고 초원 깊숙한 곳으로 끌고 갔다.

집에서 제법 멀리 떨어진 곳에 도착하자 폭도들은 조셉의 옷을 찢고 그를 결박했다. 그리고 한 남자가 날카로운 칼을 들고 조셉에게 다가왔다. 이들은 조셉을 불구로 만들 작정이었다. 그러나, 그 남자는 조셉의 얼굴을 보더니 더는 못하겠다며 물러섰다.

“빌어먹을!” 다른 사내가 소리를 지르며 조셉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날카로운 손톱으로 조셉의 몸을 할퀴어 별경고 깊은 상처를 냈다. “사람들한테 성신이 내릴 때는 이런 식으로 오는 거거든.” 사내는 비아냥댔다.

멀지 않은 곳에서 조셉과 시드니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놓고 싸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정확히 뭐라고 하는지는 알 수 없었으나 조셉은 그들의 대화에서 자신이 아는 몇몇 사람의 이름을 들은 듯했다.

말다툼을 끝내고, 누군가 말했다. “입에 타르를 부어 버리자고.” 폭도들은 더러운 손으로 조셉의 입을 강제로 벌리고서 산성 용액을 병째로 부으려고 들이댔다. 그러나 병은 조셉의 이에 부딪혀 깨져 버렸다. 그 바람에 조셉도 이가 부러졌다.

일이 여의치 않자 다른 사내가 끈끈한 타르를 주걱에 떠서 조셉의 입에 밀어 넣으려고 했다. 조셉은 머리를 거세게 흔들며 저항했다. “젠장!” 사내가 고함을 질렀다. “가만히 좀 있으라고!” 그는 입술 위로 타르가 흘러 넘칠 때까지 조셉의 입에 타르를 짓이겨 넣었다.

다른 사내들도 조셉의 머리 위에 타르를 부었다. 타르는 조셉의 찢긴 살갓 위로, 머리카락 사이사이로 흘러 들어갔다. 그들은 조셉의 몸에 깃털을 뿌리고, 그를 차가운 땅바닥에 그대로 내버려 둔 채 자리를 떴다.

폭도들이 떠나자, 조셉은 입술을 덮고 있는 타르를 겨우 뜯어내며 숨을 헐떡였다. 일어서려고 했지만, 기운이 없었다. 한 번 더 시도한 끝에 그는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조셉 주변으로 깃털이 바람에 흩날리며 날아다녔다.¹⁵

집 문가에 휘청거리며 나타난 조셉을 보고 에머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다. 폭도들의 만행에 조셉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망가져 있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이웃의 여성들이 달려왔다. 조셉은 구타로 상한 자신의 몸을 가리기 위해 담요를 달라고 했다.

조셉과 시드니는 밤새 간호를 받았다. 시드니는 간신히 숨만 쉬면서 초원에 오랜 시간 방치되어 있었다. 에머는 조셉의 온몸에서 타르를 긁어냈고, 엘사 존슨은 식품 창고에서 라드(돼지 비계를 녹여 정제한 반고체의 기름)를 가지고 와 조셉의 피부와 머리카락 위에 딱딱하게 굳어 있는 타르를 녹여 냈다.¹⁶

다음 날, 조셉은 옷을 차려입고 존슨의 집 문간에서 설교를 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 중에는 어제 그를 습격했던 사내들도 몇 명 있었지만, 조셉은 그들에게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오후에는 세 명에게 침례를 주었다.¹⁷

폭도들의 공격으로 인한 피해는 상당했다. 조셉은 온몸이 멍들고, 통증도 심했다. 시드니는 혼수상태에 빠져 생사를 오가고 있었다. 폭도들이 그의 발꿈치를 잡고 집에서 끌고 나가는 바람에 시드니의 머리는 무방비 상태로 집 계단과 3월의 차가운 땅바닥에 부딪히며 질질 끌렸다.

고통은 조셉과 에머의 쌍둥이 아기들에게도 찾아왔다. 여자아기인 줄리아는 건강이 조금씩 회복되었지만, 아기 조셉은 상

태가 악화되다 결국 그 주 주말에 숨을 거뒀다. 선지자는 폭도가 그를 끌고 가는 동안 집안으로 들어온 찬바람이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생각했다.¹⁸

아들의 장례를 치르고 며칠 후, 조셉은 슬픔을 뒤로한 채 주님의 사업을 계속 이어 갔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 그는 4월 1일에 뉴얼 휘트니, 시드니와 함께 미주리로 떠났다. 시드니는 아직도 쇠약한 상태였지만, 여행을 떠날 수 있을 정도로는 몸이 회복되어 있었다.¹⁹ 그 무렵에 주님은 뉴얼에게 오하이오 성도들을 위해 감독으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주셨다. 또한 그의 수익 사업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을 헌납하여 인디펜던스의 상점과 인쇄소 및 토지 매입을 지원할 것을 지시하셨다.²⁰

주님께서는 세 사람이 미주리로 가서 시온의 지도자들과 경제적으로 협력하여 교회에 유익이 되고, 궁핍한 이들을 더 잘 보살필 수 있도록 성약을 맺기를 바라셨다. 또한, 그분은 그들이 성도들을 강화하여 시온 성 건설이라는 그들의 성스러운 책임을 상기시키기를 바라셨다.²¹

조셉은 인디펜던스에 도착한 후 교회 지도자 평의회를 열어 자신이 받은 계시를 낭독했다. 그 계시를 통해 조셉과 에드워드 파트리지, 뉴얼 휘트니와 다른 지도자들은 교회의 사업 문제를 관리하도록 성약을 맺으라는 부름을 받았다.²²

“내가 너희에게 이 계명을 주노니, 곧 이 성약으로 너희는 스스로를 결속하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이웃의 이익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

는 순전한 눈으로 모든 일을 행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들은 이렇게 결속한 조직을 협동 회사라고 칭했다.²³

미주리에 있는 동안 조셉은 예전 콜스빌 지부 회원들과 그 지역에 정착한 다른 사람들을 방문했다. 교회 지도자들은 협력하며 일을 잘 하고 있는 듯 보였다. 새 인쇄소는 *The Evening and the Morning Star*(이브닝 앤드 모닝 스타) 창간호 발행을 준비하고 있었고, 회원들은 시온 건설을 진심으로 고대했다.²⁴

그러나 조셉은 성도들과 몇몇 지도자들 사이에서 자신을 향한 적개심을 감지했다. 그들은 조셉이 미주리로 이주하지 않고 커틀랜드에 남아 있기로 한 것에 대해 분노한 듯했다. 일부는 조셉이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미주리 어디쯤에 시온을 세울지를 놓고 장로들과 의견을 달리했던 것에 대해 아직도 화가 나 있는 것 같았다.

조셉은 그들이 자신에게 그런 악감정을 품는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자신이 지금 슬퍼하는 가족을 뒤로하고 오직 그들을 돕겠다는 일념 하나로 1,300킬로미터를 왔다는 사실을 그들은 정말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²⁵

조셉이 인디펜던스 성도들을 방문하는 동안 오하이오의 윌리엄 매클렐른은 영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선교사로 부름받고 겨우내 복음을 전파하고 다녔다. 처음에는 커틀랜드 동쪽의 도시와 마을에서 시작하여 나중에는 남쪽까지 내려갔다. 시작은 제법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그는 건강 악화, 악천후, 복음에 관심 없는 사람들로 크게 낙심했다.²⁶

교사였던 윌리엄은 수업을 열심히 듣고 말대꾸를 하지 않는 순종적인 학생들에게 익숙했으므로, 선교사인 자신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과 마찰이 잦았다. 한번은 장시간 설교를 하다 계속 그의 말을 끊고 거짓말쟁이라고 그를 비난하는 사람을 만난 적도 있었다.²⁷

몇 달간 실패를 거듭하다 보니 그는 자신을 선교사로 부른 이가 주님인지 조셉 스미스인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²⁸ 결국 마음이 흔들린 윌리엄은 선교 임지를 이탈한 후 가게 점원 일을 시작했다.²⁹ 일이 없는 시간에는 성경을 공부하며 회복된 복음의 증거를 찾거나 무신론자들과 논쟁을 벌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선교 사업을 그만두기로 마음먹었다. 윌리엄은 애멀린 밀러라는 교회 회원과 결혼한 후, 백여 명의 성도들을 이끌고서 그들이 땅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잭슨군으로 가기로 했다. 하나님께서는 조셉에게 계시를 주시어 선교 사업을 그만둔 윌리엄을 꾸짖으셨다. 하지만 윌리엄은 그냥 시온에서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믿었다.

그는 자기 방식대로 하기를 원했다. 1832년 여름, 윌리엄 일행은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추천서도 받지 않은 채 미주리로 이주했다. 원래 이주를 하는 성도들은 추천서를 받아 이동해야 했는데, 이는 시온이 너무 빨리 커지거나 물자가 부족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주님께서 주신 지시 사항이었다. 윌리엄은 미주리에 도착한 후에도 파트리지 감독을 찾아가 재산을 헌납하거나 기업을 받지 않았다. 그 대신 그는 인디펜던스에 있는 정부의 땅 두 구획을 매입했다.³⁰

윌리엄 일행이 도착하자 파트리지 감독과 보좌들은 당혹스러워했다. 새로 이주해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하고, 헌납할

재산도 거의 없었다. 감독은 그런 그들이 정착하도록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시온의 경제 상황은 여전히 취약한 상태였기에 그들에게 집과 농장, 일자리를 주선해 주는 일은 매우 어려운 과제였다.³¹

그러나 윌리엄은 자신이 대규모 무리를 데리고 온 것은 많은 사람이 시온으로 올 것이라는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시키는 일이었다고 믿었다. 그는 교사 자리를 얻었고, 친척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전하는 편지를 썼다.

그는 편지에서 “우리는 조셉 스미스가 주님의 참된 선지자 또는 선견자임을 믿어요.”라고 간증했다. “그는 권능을 받았고, 하나님께 계시를 받습니다. 그가 받은 계시들은 그리스도 교회에서 신성한 권위가 있지요.”³²

한편, 미주리 주민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인디펜던스를 약속의 땅의 중심지로 정하셨다는 교회 회원들의 이야기가 특히 그런 불안감을 증폭시켰다.³³ 윌리엄 일행이 도착하면서 이제 시온에 모인 성도들의 수는 오백 명 가까이가 되었다. 벌써부터 물자가 부족해지고 물가가 오르기 시작했다.³⁴

“사람들이 점점 몰려들고 있어요.” 점점 더 늘어나는 성도들을 보면서 한 여성이 말했다. “저는 저들이 만드시 별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³⁵



거룩한 곳

18³²년 8월, 피비 팩은 미주리에 있는 집 근처에서 자신의 자녀 중 세 명이 침례받는 모습을 뿌듯한 마음으로 지켜보았다. 그 날 시온에서는 어린이 열한 명의 침례식이 있었다. 리디아와 에드워드 파트리지 부부의 자녀들과 샬리와 윌리엄 펠프스 부부의 자녀들을 포함한 이 어린이들은 주님께서 거룩한 곳으로 성별하신 땅에서 성장해 갈 첫 번째 세대의 어린 성도들이었다.

피비와 그녀의 자녀들은 1년 전에 콜스빌 성도들과 함께 시온으로 이주했다. 피비의 죽은 남편 벤저민은 폴리 나이트의 형제라서 피비는 나이트 가족의 인척이었다. 비록 복음을 위해 고향을 떠나 왔으나 피비는 여전히 뉴욕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을 잊지 못하고 있었다.

자녀들의 침례 직후 그녀는 두 명의 옛 친구에게 편지를 썼다. 피비는 교회 회원이 아닌 자신의 친구들에게 시온에 관해 이

야기했다. 그녀는 친구 애나에게 이렇게 썼다. “이곳으로 오는 게 고생스럽다고 생각되지 않을 거야. 주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는 왕국의 비밀을 계시해 주고 계시거든.”¹

최근에 윌리엄 펠프스는 조셉과 시드니가 받은 천국에 관한 시현을 *The Evening and the Morning Star*(이브닝 앤드 모닝 스타)지에 기사로 실은 바가 있었다. 피비는 침례받고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용감하게 지키는 이들은 가장 높은 등급의 영광과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을 누릴 것이라는 약속을 친구 애나에게 알려 주었다.

그 약속을 생각하며, 피비는 또 다른 친구인 패티에게 복음에 대해 알아볼 것을 마음을 다해 권유했다. “내가 보고 믿는 것을 너도 보고 믿을 수만 있다면, 이곳으로 올 수 있는 길이 열릴 텐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함께 만나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나누며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거야.”

피비는 선지자가 얼마 전에 받은 시현과 이를 통해 자신이 얻은 평안에 대해 간증하며, 기회가 된다면 그 계시를 꼭 읽어 보라고 패티에게 권했다.

“네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의 깊게 읽어 보기를 바랄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거든. 네가 그것들을 깊이 탐구해 본다면 좋겠어.”²

그해 가을, 조셉은 복음을 전파하고 협동 회사 관련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뉴얼 케이 휘트니와 함께 뉴욕시로 갔다. 주님께서 뉴얼을 부르시어 이 대도시 사람들에게 마지막 날에 닥칠 재난을

경고하라고 지시하셨다. 조셉은 뉴얼이 주님의 계명을 완수하도록 돕기 위해 함께 뉴욕시로 떠났다.³

당시 선지자는 하루 빨리 복음을 전파하고 성도들의 집합 장소를 세워야 한다는 긴박감을 점점 더 크게 느끼고 있었다. 커틀랜드를 떠나기 직전, 그는 신권 소유자들의 책임에 대해 밝혀 주는 계시를 받았다. 신권 소유자들은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께서 당신의 영광으로 임하리라 약속하신 시온의 안전한 곳과 성전으로 충실한 이들을 인도할 책임이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의식을 집행할 의무가 있었다. 주님은 이러한 의식을 통해서만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권능을 받고 당신의 면전으로 다시 돌아올 준비를 할 수 있음을 성도들에게 가르치셨다.⁴

하지만 조셉은 여정을 시작할 당시 미주리에 시온을 세우는 일과 관련하여 걱정이 많았다. 오하이오에서 교회는 예전에 회원이었던 사람들의 방해 속에서도 훌륭히 성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미주리의 교회는 허가 없이 이주해 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교회 내 질서 유지에 애를 먹고 있었다. 또한, 조셉과 시온의 일부 지도자들 간의 갈등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다. 실로 교회를 단합시키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기였다.

뉴욕시에 도착한 조셉은 이 도시의 규모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뉴욕은 몇 킬로미터씩 쪽쪽 뻗은 좁은 도로 사이로 고층 빌딩들이 들어서 있고, 보이는 곳마다 고가품 상점에, 저택과 사무실, 부유한 사람들이 거래하는 은행들이 가득한 곳이었다. 여러 인종과 직업, 계층의 사람들이 무심한 얼굴로 조셉의 옆을 바삐 지나다녔다.⁵

두 사람은 뉴얼이 협동 회사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려고 봐 둔 도매상점의 근처 호텔을 숙소로 정했다. 물품을 고르느라 진이 빠지고 이 대도시에서 목격한 수많은 교만과 사악함에 낙담한 조셉은 자주 호텔로 돌아와 책을 읽거나 사색을 하고 기도를 드리며 시간을 보냈다. 조셉은 집이 그리웠다. 어머니는 또다시 힘든 임신 기간을 보내고 출산을 앞두고 있었다. 조셉은 자신의 아내와 딸 옆에 함께 있고 싶었다.

그는 이렇게 적었다. “집과 어머니, 줄리아에 대한 생각이 물 밑듯이 밀려왔고, 나는 잠시라도 그들과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랐다.”

조셉은 때로 호텔을 나와 시내를 돌아다니며 복음 전도를 했다. 당시 20만이 넘는 인구의 뉴욕시를 거닐며, 조셉은 주님께 서 훌륭한 건축물과 사람이 만들어 낸 뛰어난 발명품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이곳에는 주위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에 대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에 관심을 두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조셉은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했다.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 도시에서 나는 그저 내 목소리를 높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심했소. 그분은 모든 것을 손안에 쥐고 계신다요.”⁶

조셉과 뉴얼이 오하이오로 돌아온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커틀랜드를 찾아온 세 명의 남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31세의 브리검 영과 브리검의 형 조셉 영, 그리고 조셉 영의 가장 친한 친구인 히버 킴볼이었다. 이 세 사람은 최근에 뉴욕주 중심 지역에서 교회

에 들어온 개종자였는데, 그곳은 조셉 스미스가 성장한 지역과도 멀지 않았다. 브리검은 몰몬경에 관해 알게 된 이후로 계속해서 선지자를 만나고 싶어 했다. 그는 커틀랜드로 와서 조셉과 악수를 하고 그의 눈을 바라보며 조셉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볼 심산이었다. 브리검은 침례를 받은 이후 몰몬경을 전파해 왔지만, 사실 그 책을 번역한 사람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거의 없었다.

브리검 일행은 커틀랜드에 있는 휘트니 상점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당시 조셉과 에머는 그 건물의 위층 방에서 살고 있었다. 이들 일행은 이곳에서 조셉을 만나 보려 했으나 때마침 선지자는 근처 숲으로 장작을 구하러 가 집에 없었다. 그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다시 조셉을 찾아 발길을 돌렸다.

숲으로 향하던 그들은 공터에서 장작을 패는 조셉을 발견했다. 조셉은 브리검보다 키가 크고, 간소한 작업복 차림이었다. 능숙하게 도끼를 휘두르는 그의 솜씨를 보며, 브리검은 그가 육체노동에 익숙한 사람임을 알아보았다.

브리검이 그에게 다가가 자신을 소개했다. 조셉은 도끼를 내려놓고 브리검과 악수를 나눴다. “만나 뵙게 되어 기쁩니다.”

이들은 대화를 나누었고, 브리검은 자신도 남은 장작을 패겠다고 자청했다. 그의 형과 히버는 장작을 마차에 싣는 일을 도왔다. 선지자는 쾌활하고, 근면하며, 친절해 보였다. 브리검과 마찬가지로 그 역시 가난한 집에서 자란 사람이었으나 일부 노동자들처럼 천박한 곳은 없어 보였다. 브리검은 한눈에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알아보았다.⁷

조셉은 브리검 일행에게 식사를 대접하고자 그들을 집으로 초대했다. 브리검 일행이 집으로 찾아가자 조셉은 에머를 그들에

게 소개했다. 브리검은 침대에 누워 건강한 사내아기를 안고 있는
에머와 인사를 나누었다. 에머는 며칠 전, 조셉과 뉴얼이 뉴욕에
서 돌아오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아들을 출산했었다. 에머와 조셉
은 새로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조셉 스미스 삼세라고 지었다.⁸

식사를 마친 후 조셉은 간소하게 모임을 하기로 하고, 브리
검에게 기도를 부탁했다. 기도를 하기 위해 고개를 숙인 브리검은
영의 영향력 아래 알 수 없는 언어로 말을 했다.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다. 지난 한 해 동안 영의 은사를 모방하여 이상한 행
동을 일삼는 사람들을 솔하게 보아 오지 않았던가. 하지만 브리
검은 그들과는 무언가가 달랐다.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것을 느낀 조셉이 말했다. “형제 여러
분, 저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그 무엇도 반대하지 않을 것입
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조셉은 그 언어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쓰던 언어임을 밝
히고, 신약전서에서 바울이 그러했듯이 하나님 자녀의 유익을 위
해 언어의 은사를 구하라고 권고하며 브리검과 똑같은 언어로 말
을 했다.⁹

일주일 후, 브리검은 평화로운 겨울이 찾아온 이 작은 마을, 커
틀랜드를 떠났다.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 한 지역 신문에는 사우
스캐롤라이나주 정부 지도자들이 수입품 관세 문제로 분쟁을 일
으키며 미국에서 독립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는 기사가 실렸다.
일부에서는 전쟁을 촉구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나고 있었다.¹⁰

이 난국을 기사로 접한 조셉은 구주의 재림에 앞서 사악함
과 환난이 일어나리라는 성경 구절들을 떠올렸다.¹¹ 얼마 전에도

주님은 그에게 전 세계가 죄의 속박 아래 신음하고 있다고 하시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노로 사악한 자들에게 속히 오셔서 지상의 왕국을 찢고 하늘을 진동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었다.¹²

조셉은 이러한 재난에 관해 더 깊이 알고자 기도를 드렸고, 성탄절에 그에 대한 응답으로 계시를 받았다. 주님은 사우스캐롤라이나를 비롯해 남쪽에 있는 여러 주들이 반란을 일으킬 때가 이르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반란을 일으킨 여러 주들이 다른 국가들에 도움을 청할 것이며, 노예들이 주인들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전쟁과 자연재해가 모든 나라 위에 쏟아지며, 죽음과 비참이 온 땅을 뒤덮을 것이라고 하셨다.

성도들에게 이 계시는 시온과 성전 건설을 더는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경고가 되었다. 다가오는 환난을 피하고자 한다면 그들은 지금 준비를 시작해야만 했다.

주님께서서는 성도들에게 강력히 촉구하셨다. “너희는 주의 날이 이르기까지 거룩한 곳에 서서 움직이지 말라.”¹³

전쟁에 관한 계시를 받고 이틀 뒤, 조셉은 뉴얼 휘트니 상점으로 교회 지도자들을 소집했다. 선지자는 미주리 성도들이 자신의 지도력에 대해 점점 더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성도들이 회개하고 교회 안에서 다시 화합하지 않으면 시온에서 기업을 잃고 성전을 건설할 기회를 잃게 될까 봐 두려워했다.¹⁴

개회를 한 뒤에 조셉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시온 건설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 구해 보라고 권고했다. 형제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기꺼이 지키고자 하는 마음의 표현으로 머리를 숙여

기도했다. 그런 다음, 조셉은 계시를 받았고, 그의 새로운 서기인 프레드릭 윌리엄스가 그 내용을 기록했다.¹⁵

이 계시는 성도들의 평화를 위한 주님의 권고였다. 그분은 성도들에게 기록해질 것을 촉구하셨다. 그분은 이렇게 명하셨다. “너희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여 너희 생각을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라.” 뒤이어 전해진 주님의 명령은 형제들에게 놀라움을 안겨 주었다. 그분은 성도들에게 커틀랜드에 성전을 짓고, 당신의 영광을 받을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셨다.

“너희 자신을 조직하라. 모든 요긴한 것을 준비하라. 집 곧 기도의 집, 금식의 집, 신앙의 집, 학문의 집, 영광의 집, 질서의 집, 하나님의 집을 세우라.”

또한, 주님께서서는 학교를 세우라고 권고하셨다. “모든 사람에게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닌즉, 너희는 지혜의 말씀을 부지런히 구하고 서로 가르치라. 그러하도다, 가장 좋은 책에서 지혜의 말씀을 구하라. 참으로 연구와 또한 신앙으로 학문을 구하라.”¹⁶

조셉은 이 계시를 미주리에 있는 윌리엄 펠프스에게 보내며, 이를 “올리브 잎”이라고 칭했다. 그는 이 계시를 커틀랜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전하시는 평화의 메시지라고 불렀다. 조셉은 시온의 성도들에게 주님의 가르침대로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이들이 아닌 다른 백성을 선택하시어 당신의 성전을 짓게 하실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셉은 간청했다. “부디 시온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전하시는 경고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커틀랜드에 있는 형제들이 여러분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무서우심을 알기에 여러분을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¹⁷

1833년 1월 22일, 조셉과 커틀랜드 성도들은 휘트니 상점에 ‘선지자 학교’를 열었다. 조셉의 서기 중 한 명인 올슨 하이드가 반을 가르치는 교사로 지명되었다. 조셉을 비롯한 다른 많은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올슨은 유년 시절 대부분을 학교가 아닌 일터에서 보냈다. 올슨은 고아였고, 그의 후견인은 추수가 끝나고 이듬해에 파종하기 전까지 겨울 동안만 학교에 가는 것을 허락했다. 하지만 기억력이 좋고 습득력이 빠른 올슨은 성인이 된 후 인근의 전문 학교에 진학했다.¹⁸

그는 선지자 학교에서 주님이 명하신 대로 역사와 문법, 산수를 가르치고, 영적인 수업도 진행했다.¹⁹ 그의 수업에 참석한 사람들은 그저 단순한 학생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를 형제라 부르고 우정의 언약을 맺으며 결속했다.²⁰ 그들은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며, 함께 기도했다.²¹

어느 날, 조셉은 올슨과 다른 반원들에게 신발을 벗도록 했다. 조셉은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겨 주었다.

모두의 발을 닦아 준 후 조셉은 이렇게 말했다. “제가 한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는 형제들에게 서로를 섬기고, 세상의 죄로부터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라고 권고했다.²²

어머는 선지자 학교에 학생들이 도착하여 계단을 오른 뒤 작은 방을 뺨뺨이 채우는 것을 늘 지켜보았다. 학생들 중에는 선지자 학교의 성스러운 본질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깨끗이 씻고 말끔한 옷차림을 하고 오는 이들도 있었고, 아침을 굶고 금식을 한 채로 오는 이들도 있었다.²³

수업을 마치고 사람들이 나가면, 학교 일을 돕도록 고용된 몇몇 젊은 여성과 어머니가 방을 청소했다. 그런데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파이프 담배를 피우고 담배를 씹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수업이 끝나면 방 안 공기는 탁했고, 마룻바닥은 뻘어 낸 담배 찌꺼기로 엉망이 되었다. 힘을 다해 문질러 씻어도, 바닥에 남은 담배 얼룩은 쉽사리 없어지지 않았다.²⁴

결국 어머니는 조셉에게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조셉은 보통 담배를 씹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담배를 씹는 것을 개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머니의 항의에 조셉은 담배를 피우거나 씹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지 여쭙어 보기로 했다.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고 느끼는 것은 어머니만이 아니었다. 미국과 전 세계 여러 국가의 종교 개혁론자들은 담배를 피우거나 씹고, 술을 마시는 것을 불결한 행위로 여겼다. 하지만 일부 의사들은 담배가 여러 질병에 효과가 있다고 믿었고, 자유롭게 마시는 술, 그리고 커피나 차와 같은 뜨거운 음료에 대해서도 비슷한 주장이 있었다.²⁵

조셉은 주님께 이 문제를 여쭙었다. 그리고 그는 “이 마지막 날 성도의 유익을 위한 지혜의 말씀”이라는 계시를 받았다.²⁶ 주님은 이 계시에서 당신의 백성에게 술을 마시지 말라고 경고하시며, 증류주는 몸을 씻는 용도로, 포도주는 성찬과 같은 때에만 사용하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담배와 뜨거운 음료도 삼가도록 경고하셨다.

주님은 건강한 식사를 강조하시며, 성도들에게 곡물, 채소, 과일을 먹고 육류는 조금씩 섭취하라고 권고하셨다. 이에 순종하는 이들은 건강과 지식과 힘의 축복을 받으리라는 주님의 약속을 받게 될 것이었다.²⁷

처음에 이 계시는 계명이 아니라 경고로서 선포되었다. 많은 이들이 이 강력한 물질들을 포기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조셉도 이를 완벽하게 따라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가끔씩 술을 마셨으며, 어머니와 종종 커피와 차를 들었다.²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셉이 선지자 학교에서 이 계시를 낭독했을 때, 방 안에 있던 형제들은 담뱃대와 씹는 담배를 그대로 불속에 던져 버렸다. 그것은 주님의 권고에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을 담은 행동이었다.²⁹

선지자 학교의 첫 번째 학기가 3월에 끝나고, 함께 참석했던 형제들은 모두 흩어져 선교 사업을 하러 떠나거나 다른 임무를 수행했다.³⁰ 한편, 커틀랜드에 있던 교회 지도자들은 벽돌 공장을 매입하여 성전 건축 기금을 마련하고자 애쓰고 있었다.³¹

이 시기에 조셉은 미주리에서 온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된다. 에드워드와 여러 형제들은 “올리브 잎” 계시를 읽은 후 성도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커틀랜드에서 교회 내의 화합을 강력히 권고했다. 그들의 노력은 효과가 있었다. 조셉이 받은 편지는 그들이 조셉에게 용서를 간청하는 내용이었다.³²

조셉은 과거의 갈등을 불문에 부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주님께서 시온에 주신 명령을 실현시킬 방법을 강구하는 데에만 전념했다. 조셉은 6월에 시드니 리그돈과 프레드릭 윌리엄스와 함께 성전을 지을 방법을 알고자 기도했다. 기도를 하던 그들의 눈앞에 성전의 모습이 시현으로 펼쳐졌다. 그들은 그 성전의 창문과 지붕, 첨탑 등 각각의 구조물을 관찰하며 외관을 살펴보았다.

그런 다음, 그들은 그들 위로 움직이는 성전 내부로 들어가서 복도를 보았다.³³

이들은 시현을 본 후 커틀랜드와 인디펜던스에 성전을 세울 청사진을 그렸다. 성전의 외관은 커다란 교회 건물과 비슷하겠지만, 내부의 두 개 층에는 각각 하나씩 널찍한 방을 만들어 성도들이 복음을 배울 장소로 쓸 계획이었다.³⁴

계획을 마친 후, 조셉은 시온에 있는 성도들이 그곳에 정착지를 세우도록 돕는 일에 집중했다. 시온은 그가 마지막으로 방문했을 때보다 그 규모가 두 배 이상 커져 있었다.³⁵ 선지자는 프레드릭과 시드니의 도움을 받아 75만 6천여 평 규모의 도시 계획을 수립했다. 이들의 도시는 긴 직선 도로들을 바둑판 모양으로 내고, 길에서 깊숙이 들어간 부지에는 벽돌 및 석조 가옥을 세울 것이었다. 집 앞으로는 나무들을 심어 숲을 만들고, 뒤쪽에는 뜰을 가꿀 공간을 두도록 했다.

전체 토지는 빈부의 차이 없이 모두 똑같이 600여 평을 각각 분배할 계획이었다. 농부들은 도시에 살며 교외에 있는 밭을 일구도록 하고, 도시 중심에는 성전을 비롯해 예배, 교육, 행정 및 빈민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여러 성스러운 건물들을 세울 것이었다. 그리고 모든 공공 건물에는 주님께 거룩함이라는 문구를 새기기로 했다.³⁶

도시 수용 인구는 만 오천 명 정도 되었는데, 이는 뉴욕시 보다는 훨씬 작지만 미국의 주요 도시에 충분히 속할 만한 규모였다. 도시가 포화 상태가 되면, 기본 계획을 계속해서 다시 활용하여 모든 성도들이 시온에서 기업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었다. 조셉은 이렇게 가르쳤다. “다른 지역도 이 같은 방식으로 세워서 이 마지막 날에 온 세상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하십시오.”³⁷

1833년 6월, 조셉과 시드니와 프레드릭은 도시 계획서와 함께 성전 건축 방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커틀랜드에서 인디펜던스로 보냈다.

그들은 계획서에 동봉된 서한에 이렇게 기록했다. “우리는 이곳에 주님의 집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은 급속도로 진척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밤낮없이 시온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³⁸



서막에 불과할 뿐

시온 건설과 성전 건축 계획을 담은 서한이 미주리로 전달되었을 무렵, 미주리에 살던 아홉 살 아이인 에밀리 파트리지는 침대에서 일어나 잠옷 차림으로 헐레벌떡 뛰어나갔다. 인디펜던스 성전 부지 근처에 있는 에밀리의 집 뒤뜰에서 집채 만한 건초더미가 불길에 휩싸여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불길은 밤하늘 높이까지 치솟았고, 망연자실한 채 둘러서 있는 사람들 뒤로는 거대한 불빛이 만든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국경 지역에서 우발적인 화재는 흔한 일이었지만, 이번 사고는 절대 우연이 아니었다. 1833년, 여름 내내 잭슨군을 휘젓고 다니는 소수의 폭도들로 성도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그들은 성도들의 재산을 약탈하며, 새로 이주해 오는 성도들을 겁주어 쫓아 버리려 했다. 아직 사상자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들의 공격은 갈수록 더 심각해졌다.

어린 에밀리는 잭슨군 주민들이 왜 그렇게까지 성도들을 쫓아내고 싶어 안달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물론, 에밀리의 눈에도 자신의 가족과 친구들은 여러모로 이웃들과는 달랐다. 길거리에서 들리는 미주리 주민들의 말투도 그렇고 여자들이 입는 옷을 보아도 차이점이 확연했다. 어떤 사람들은 여름이면 맨발로 사방을 돌아다녔다. 또, 빨래를 할 때도 이곳 사람들은 에밀리가 오하이오에서 본 빨래판이 아닌 커다란 노 모양의 판을 사용했다.

그러나 이들 사이에는 이런 사소한 차이 외에도 에밀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깊은 간극이 존재했다. 인디펜던스 주민들은 성도들이 인디언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노예 제도를 찬성하지 않는 것을 괴씸해했다. 교회 회원 대부분은 노예 제도가 불법인 북부 주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반면, 미주리는 흑인을 노예로 부리는 것이 합법이었고, 이곳의 오랜 거주민들은 이 제도를 강력하게 옹호했다.

성도들이 보통 자기들끼리만 어울린다는 점 역시 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더 많은 성도들이 시온으로 들어오자, 교회 회원들은 함께 집을 짓고 가구를 들고 밭을 경작하며 아이들을 키웠다. 그들에게는 복천년 동안 지속될 거룩한 도시의 기초를 놓는 일만큼 중요한 것이 없었다.

인디펜던스 중심부에 세워진 에드워드 파트리지의 집 건물은 그 도시에 시온을 건설하기 위한 발판이 되는 곳이었다. 에밀리가 사는 이 소박한 2층짜리 집은 전에 살던 오하이오의 집만큼 세련되지는 않았지만, 그 자체가 성도들이 인디펜던스에 계속 머물 것을 시사하는 상징물이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불타는 건초더미가 보여 주듯이 그 집은 폭도들의 표적이었다.¹

성도들과 잭슨군 주민 간의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윌리엄 펠프스는 긴장 관계를 완화하기 위해 지역 교회 신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그는 1833년 7월호 *The Evening and the Morning Star*(이브닝 앤드 모닝 스타)지에 미주리로 이주하는 교회 회원들에게 전하는 서한을 게재했다. 이 서한은 시온으로 오기 전에 각자 부채를 정리해 지역 사회에 폐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권고를 담고 있었다.

윌리엄은 그런 기사들을 통해 성도들이 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이고, 성도들의 믿음이 지역 주민과 경제에 해가 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잭슨군 주민들이 이해하기를 바랐다.²

또한, 그는 흑인과 관련된 교회 회원들의 입장에 대한 기사도 다루었다. 윌리엄은 노예 해방 지지자들의 의견에 공감하는 사람이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독자들에게 성도들이 해방된 흑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미주리의 법을 준수한다는 것을 알리고자 노력했다. 또한, 단 몇 명뿐인 교회의 흑인 성도들에게도 시온으로 오고자 한다면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조언을 전했다.

그의 기사에는 다음과 같이 모호한 문장도 있었다. “교회에는 피부색에 따른 특별한 규칙은 없으나, 신중하고 분별 있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³

그러나 그 기사를 본 잭슨군 지방 법원 판사이자 민병대 대령인 새뮤얼 루커스는 격분했다. 그는 윌리엄이 해방된 흑인들에게 물몬이 되어 미주리로 이주하도록 부추기고 있다고 판단했다. 윌리

엄은 흑인들의 미주리 정착을 만류하는 기사도 냈지만, 루커스의 불안감은 쉽사리 해소되지 않았다.⁴

인디펜던스와 인근 마을에서 일어나는 폭도들의 만행은 이미 비밀비재한 일이었으므로, 루커스가 자기 생각에 동조하는 이들을 찾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다. 잭슨군의 유력 인사들은 벌써 1년 넘게 성도들에게 반감을 품은 주민들을 규합하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새로운 이주민들을 몰아내야 한다고 종용하며, 전단을 뿌리고, 주민 회의를 소집하기도 했다.⁵

처음에 잭슨군 주민 대부분은 성도들이 계시를 받고 안수례로 병을 고치는 등 기적을 행하는 척하는 광신도이긴 하지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교회 회원들이 입을 모아 인디펜던스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라고 주장하며 실제로 이곳에 정착을 해 나가자, 루커스와 지역 유지들은 교회 회원들과 그들이 받는 계시를 자신들의 재산과 정권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여겼다.

윌리엄의 기사는 그렇게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부분을 자극했던 것이다. 또, 약 2년 전에 다른 주에서는 노예들 수십 명이 반란을 일으켜 거의 이틀 만에 50명 이상의 백인들이 살해당한 적이 있었다. 미주리와 남쪽 주 전역의 노예주들은 자신들에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까 봐 늘 노심초사했다. 따라서 성도들이 해방된 흑인들을 잭슨군으로 불러들이면 이를 보고 자유를 동경하는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일부 주민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⁶

성도들이 누리고 있는 종교와 언론의 자유는 법으로 보장된 것이기에, 루커스 일당은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는 요소들을 합법적인 수단으로는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원치 않는

사람들을 폭력으로 자기네 지역에서 몰아내는 경우는 다른 지역에서도 종종 있는 일이었다. 따라서 그들이 함께 행동한다면 잭슨군에서 성도들을 몰아내고도 교묘히 넘어갈 수 있을 것이었다.

마침내 도시의 유력 인사들이 이주민들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루커스 일당은 성도들에 대한 그들의 불만을 적어, 인디펜던스 주민들에게 성명으로 발표했다.

이 성명은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성도들을 축출하겠다는 그들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7월 30일에 법원에서 모임을 소집하여 성도들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기로 했다. 이 성명서에 서명을 한 잭슨군 주민은 수백 명에 달했다.⁷

이 소식은 윌리엄 펄프스에게도 전해졌다. 그는 신문 기사가 역효과를 냈다는 것을 알고서 이를 바로잡으려 안간힘을 썼다. 비록 그리스도께서는 “검거나 희거나, 매인 자나 자유로운 자” 모두에게 당신께 나아오도록 권하신다는 것이 몰몬경의 가르침이었지만, 윌리엄에게는 당장 지역 전체가 성도들에게 등을 돌리는 상황이 더 중요한 문제였다.⁸

그는 신속히 자신이 노예 제도에 관해 썼던 입장을 철회하는 한 장짜리 호외를 만들었다. 그는 호외를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우리는 미주리주에 해방된 유색 인종이 유입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한 사람들의 입교를 허가하지 않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⁹ 이는 흑인들의 개종에 관한 교회의 입장을 왜곡하는 것이었지만, 그는 이렇게 해서라도 흑여 생길지 모를 폭력 사태를 막고자 했다.¹⁰

7월 20일, 윌리엄과 에드워드를 비롯한 교회의 다른 지도자들은 정부 인사들을 만나기 위해 잭슨군 법원으로 갔다. 7월과는 어울리지 않는 온화한 날씨 속에서, 성도들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고자 집과 농장과 일터를 나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집회 장소로 모여들었다.

지역 사회를 대표하는 새뮤얼 루카스와 열두 명의 인사들은 실력 행사 전에 먼저 교회 지도자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주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The Evening and the Morning Star*(*이브닝 앤드 모닝 스타*)지의 발행을 중단하고, 모든 성도들은 당장 이 지역을 떠나라고 강요했다.¹¹

시온의 감독이었던 에드워드는 그 요구가 성도들에게 얼마나 가혹한 것인지 잘 알았다. 인쇄소를 폐쇄하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계명의 책 출판은 앞날을 기약할 수 없게 된다. 또, 잭슨군을 떠난다는 것은 단순히 재산을 잃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서의 성도들의 기업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했다.¹²

에드워드는 그 제안을 숙고해 보겠다고 하면서, 커틀랜드에 있는 조셉의 조언을 구해야 하니 3개월의 말미를 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잭슨군 지도자들은 단칼에 거절했다. 이에 에드워드는 다시 한 번 미주리에 있는 다른 성도들과 의논할 시간을 열흘만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그들이 그에게 허락한 시간은 단 15분이었다.¹³

이런 중대한 결정을 압력에 떠밀려 하고 싶지 않았던 성도들은 결국 협상을 거부했다. 잭슨군 대표단은 자리를 떠났고, 그 중 한 남자는 에드워드에게 다가와 이제 곧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¹⁴

법원과 멀지 않은 곳에 살던 샬리 펠프스는 교회 인쇄소 1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몸이 아픈 갓난아이를 돌보고 있었다. 샬리 옆에는 그녀의 다른 네 자녀들도 함께 있었다. 샬리의 남편 윌리엄은 법원에서 열리는 모임에 가기 위해 한참 전에 나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샬리는 불안한 마음으로 모임 결과에 대한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가 부딪힐 듯한 기세로 문을 쿵쿵쿵쿵 들이치는 소리가 들려 왔다. 샬리와 아이들은 깜짝 놀랐다. 밖에서는 여러 명의 장정들이 커다란 통나무로 샬리의 집 문을 부수고 있었다. 인쇄소 주변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사람이 몰려들어 어떤 이들은 문을 부수는 남자들을 응원했고, 또 어떤 이들은 말 없이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¹⁵

마침내 문이 떨어져 나가자 무장한 남자들이 집 안으로 쳐들어와 샬리와 아이들을 끌어냈다.¹⁶ 그들은 닥치는 대로 가구며 세간을 문밖으로 내던지고 창을 부수었다. 남자들은 건물 전체를 허물어뜨리기 시작했고, 몇 명은 2층 인쇄소로 올라가서 타자기와 잉크를 건물 밖 바닥으로 집어 던졌다.¹⁷

샬리는 옆에 바짝 붙어 선 아이들과 함께 그 광경을 속절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남자들은 인쇄소 2층 창문을 부수고 종이와 타자기, 인쇄기를 들어내어 창밖으로 내던졌다. 인쇄기는 바닥에 부딪혀 박살이 났다.¹⁸

이 난장판 속에서 몇 명의 남자들이 아직 제본이 덜 끝난 계명의 책 사본을 가득 안고 나왔다. 그중 한 명이 이를 거리로 내던지며 사람들에게 소리쳤다. “여기 저 지긋지긋한 물몬들의 계시의 책이 있소.”¹⁹

근처 울타리 옆에 웅크리고 숨어 있던 열다섯 살 소녀 메리 엘리자베스 롤린스와 그녀의 열세 살 난 여동생 캐롤린도 계명의 책 사본이 내동댕이쳐지는 것을 숨죽이고 지켜보았다.

그 인쇄물들은 메리도 전에 본 것들이었다. 메리와 캐롤린은 인디펜던스에서 성도들을 위한 상점을 운영하는 시드니 길버트의 조카딸이었다. 언젠가 메리는 삼촌 집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새로운 인쇄물에 나온 계명을 읽고 토론하는 것을 함께 들은 적이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를 나눌 때 주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했고, 그중 몇 사람은 방언을 말했는데 메리는 그들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다. 계시의 책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마음 깊이 이해하는 메리는 그것이 길거리에 흩뿌려지는 광경을 참을 수가 없었다.

메리는 동생 캐롤린에게 더 영망이 되기 전에 자기가 가서 계명의 책 낱장들을 주워 오겠다고 말했다. 이제 남자들은 인쇄소 지붕을 들어 올리고 있었다. 그들은 건물 벽을 허물어 아예 이곳을 폐허로 만들 작정이었다.

캐롤린은 언니의 생각에 동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폭도들이 무서웠다. “저 사람들이 우릴 죽일 거야.”

메리도 같은 생각이었지만 뜻을 굽힐 수는 없었다. 이에 언니 옆에서 떨어지고 싶지 않았던 캐롤린도 메리의 계획에 동참하기로 했다.

두 자매는 폭도들의 시선이 돌려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때를 맞춰 숨어 있던 곳에서 쏠살같이 뛰어나왔다. 두 아이는 양팔 가득 최대한 많은 종이를 모아 품 안 가득 안아 들었다. 하지만 울타리 뒤로 숨어들던 중에 이들은 발각되었고, 남자들은 당장 멈추라고 고함을 질렀다. 메리와 캐롤린은 인쇄물을 더욱 짹 움켜

안고서 인근 옥수수밭으로 전속력을 다해 달려갔다. 두 명의 남자들이 이들의 뒤를 쫓았다.

옥수수대는 어른도 족히 가릴 만큼 무성했고, 메리와 캐롤린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잡을 수가 없었다. 결국 두 아이는 땅바닥에 계명의 책 낱장들을 내려놓고 그 위에 납작 엎드렸다. 밭을 헤집으며 오가는 두 추적자들의 발자국 소리가 저벅저벅 들리는 동안 두 아이는 숨죽여 기다렸다. 발자국 소리는 점점 커지며 두 자매로 향해 오는 듯하더니 다시 멀어졌다. 남자들은 수색을 포기하고 옥수수밭을 떠났다.²⁰

에밀리 파트리지와 에밀리의 언니 해리엇도 샘에서 물을 길던 중에 자신들의 집으로 몰려가는 50여 명의 무장 폭도들을 보게 되었다. 두 아이는 샘 옆에 숨어 공포에 떨면서 폭도들이 집을 포위하고 아버지를 잡아 어디론가 끌고 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²¹

폭도들이 에드워드를 끌고 간 곳은 광장이었다. 광장에는 이들에게 잡혀 온 찰스 알렌이라는 또 한 명의 성도가 2백여 명의 미주리 주민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날 주민 회의를 주도했던 러셀 힉스가 에드워드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는 에드워드에게 잭슨군을 떠나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에드워드는 “신앙을 위해 고통을 감수하는 일은 어느 시대에나 있는 일이다.”라고 답했다.²² 그는 성도들은 잘못된 것이 없으니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다.²³

군중 사이에서 누군가 소리쳤다. “너희 예수님을 불러 보십시오!”²⁴ 폭도들은 에드워드와 찰스를 밀어 넘어뜨렸고, 힉스는 에

드워드 의 옷을 벗기려 했다. 에드워드가 저항하자 군중 사이에서 셔츠와 바지는 벗기지 말고 그대로 두자는 소리가 나왔다.

그 말에 히스는 에드워드 의 모자와 외투, 조끼를 벗기고 그를 폭도 들에게 넘겼다. 폭도 두 사람이 앞으로 나와 에드워드와 찰스 의 온몸에 타르와 깃털을 쏟아 부었다. 타르는 산성물질처럼 피부를 부식하고 고통을 주었다.²⁵

그때, 광장 근처에서는 비에나 잭스라는 개종자가 길에 흩어진 계명의 책 낱장을 줍고 있었다. 비에나는 시온 건설을 위해 상당한 비용을 헌납했었다. 그리고 이제는 그녀를 둘러싼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흩어진 인쇄물을 주워 움켜쥐고 있는 그녀에게 폭도 중 한 사람이 다가와 이런 말을 했다. “이건 당신네들이 받을 고통의 서막에 불과하오.” 그는 처참한 몰골이 된 에드워드를 가리키며 말했다. “바로 저기 타르 칠을 하고 깃털이 꽂힌 당신네 감독이 지나가는군.”²⁶

고개를 든 비에나 의 눈에 다리를 절며 걸어가는 에드워드가 들어왔다. 그는 얼굴과 손바닥을 제외한 온몸이 타르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그녀가 소리쳤다. “감독님은 그 타르와 깃털로 영광의 왕관을 받으실 겁니다!”²⁷

해가 지고 주위가 어둑해졌지만, 샬리 펠프스는 돌아갈 집이 없었다. 그녀는 옥수수밭 옆에 있는 버려진 마구간에 몸을 숨기고, 아이들과 함께 덩불을 모아 잠자리를 마련했다.

그때, 옥수수밭에서 두 사람이 나타났다. 샬리는 흐릿한 불빛에 비친 두 사람을 알아보았다. 그들은 캐롤린과 메리 롤린스

였다. 두 여자아이는 양팔 한가득 종이 낱장들을 안고 있었다. 쉐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안고 있느냐며 물었고, 캐롤린과 메리는 자신들이 지킨 계명의 책 낱장들을 보여 주었다.

쉐리는 그 낱장들을 받아 덤불 더미로 만든 자신들의 잠자리 아래에 안전하게 숨겼다.²⁸ 앞으로 시온에 무슨 일이 닥칠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쉐리는 빠르게 다가오는 그날 밤의 어둠을 맞고 있었다.



폭도들에게 목숨을 잃을지라도

인디펜던스 거리에서 폭력 사태가 벌어지자 겁을 먹은 윌리엄 매클렐른은 집에서 도망쳐 숲속으로 숨어들었다. 잭슨군 주민들은 교회 인쇄소를 때려 부순 뒤 시드니 길버트의 상점을 약탈하고, 많은 성도들을 그들의 집에서 쫓아냈다. 몇몇 형제들은 폭도에게 붙잡혀 피가 나도록 채찍질을 당했다.¹

매클렐른은 그들처럼 되지 않기 위해 며칠을 숲속에서 지냈다. 그는 폭도들이 자기를 포함한 교회의 주요 회원들에게 현상금을 걸었다는 것을 알고서는 수 킬로미터를 걸어 서쪽으로 도망쳤다. 그는 빅블루강 옆에 있는 휘트머 가족의 정착지에 숨어들었다.

외롭고 두려움에 시달리던 매클렐른은 모든 것에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몰몬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인디펜던스로 왔지만, 이제는 현상금이 걸린 도망자가 되어 있었다. 폭도에게 발각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들 앞에서도 몰몬경에 대한

내 간증을 고수할 수 있을까? 회복된 복음에 대한 나의 신앙을 당당하게 밝힐 수 있을까? 나는 기꺼이 고통을 받고 죽음을 감수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뇌하던 매클렐른은 숲에서 데이비드 휘트머와 올리버 카우드리를 만나게 되었다. 올리버도 목에 현상금이 걸린 신세였지만, 그들은 최악의 상황은 넘겼다고 믿고 있었다. 인디펜던스 주민들은 여전히 성도들을 몰아내려 안달이었으나 공격은 다소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고, 교회 회원 중에는 집으로 돌아간 이들도 일부 있었다.

매클렐른은 동료들을 통해 마음을 진정시키고 싶었다. “나는 살면서 시현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자네들은 본 적이 있다고 했지?” 그는 진실을 알아야 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게 말해 줘. 몰몬경은 참된가?”

이에 올리버는 매클렐른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거룩한 천사를 보내셔서 몰몬경의 번역이 참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셨어. 그래서 우린 그것이 참됨을 안다네. 폭도들에게 목숨을 잃을지라도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그것의 참됨을 천명해야 해.”

데이비드는 이렇게 말했다. “올리버는 자네에게 신성한 진리를 말해 주었어. 진심을 다해 자네에게 말하는데, 그것은 분명 참되다네.”

이에 매클렐른은 “나는 자네들을 믿네.”라고 말했다.²

1833년 8월 6일, 미주리주의 폭력 사태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기 전에 이미 조셉은 시온에 닥칠 박해에 관한 주님의 계시를 받

았다. 주님께서서는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그 분은 그들의 기도를 듣고 기록하셨으며, 그들에게 답을 주시겠다고 성약으로 약속하셨다. 주님께서서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고난 받은 모든 일들은 너희 유익을 위하여 함께 역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³

3일 뒤, 올리버가 미주리 폭력 사태에 관한 보고서를 가득 들고서 커틀랜드에 도착했다.⁴ 에드워드 파트리지와 교회 다른 지도자들은 폭도들을 달래기 위해 성도들이 봄까지 잭슨군을 떠난다는 서약서를 써서 인디펜던스 주민들에게 전달했다. 그들은 시온을 버리고 싶지 않았지만, 서약서를 쓰지 않으면 성도들은 분명 더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었다.⁵

폭력 사태에 큰 충격을 받은 조셉은 철수 결정을 승인했다. 다음 날, 올리버는 미주리 교회 지도자들에게 성도들이 정착할 다른 장소를 찾으라는 지시를 서한으로 보냈다. 그는 이렇게 권고했다. “현명하게 선택하십시오.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해도 결국 시온은 건재할 것입니다.”

조셉은 서한 말미에 이 말을 덧붙였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있었다면 여러분의 고통을 적극적으로 나눠 짊어졌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⁶

조셉은 그 이후로 여러 날을 심적 고통 속에서 지냈다. 끔찍한 소식들이 속속 전해지는 가운데 그는 커틀랜드에서 격렬한 비난에 시달리고 있었다. 지난 여름에 선교 사업 도중 비도덕적인 행위로 파문을 당한 닥터 필라스터스 힐버트라는 교회 회원은 대규모 집회에 나가 공공연하게 조셉에 대한 반감을 표출하고 다녔다. 그는 교회에 적대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금을 모아서 그

돈을 들고 교회를 음해할 소문과 이야깃거리들을 구하기 위해 뉴욕으로 떠났다.⁷

하지만, 오하이오의 문제가 급박한 만큼이나 미주리의 상황도 만만치가 않았다. 미주리주의 폭력 사태를 되짚어 보던 그는 주님께서 인디펜던스에 시온을 건설하라는 명령을 취소하지도, 성도들이 잭슨군에서 그들의 토지를 포기하는 것을 승인하지도 않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지금 재산을 버리고 떠나거나 적들에게 판다면, 이를 되찾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었다.

조셉은 미주리 성도들을 위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기 위해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당신께서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전에 그들이 무엇을 더 해야 하나이까?” 조셉은 응답을 기다렸지만, 주님은 어떠한 새로운 지시도 주지 않으셨다.

8월 18일, 조셉은 에드워드 및 시온에 있는 다른 지도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서한을 보냈다.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8월 6일에 받은 계시의 사본을 동봉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험에서 구해 주시리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었다. 조셉은 이렇게 간증했다. “그분의 영원불변한 성약으로 저는 이것이 사실임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정확히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제게 알려 주지 않으셨습니다.”

조셉은 성도들에게 그때까지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신뢰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그들에게 인내하고, 인쇄소와 상점을 다시 세우고, 손실을 복구할 법적 방법을 찾아보라고 권고했다. 또한, 약속된 땅을 버리고 떠나서는 안 된다고 간청하며, 좀 더 상세한 도시 계획을 동봉했다.

그는 이렇게 썼다. “여러분이 구매한 땅 한 평도 하나님의 적들에게 내어 주거나 팔아서 안 된다는 것이 그분의 뜻입니다.”⁸

9월 초에 조셉의 서한을 받은 에드워드 역시 성도들이 잭슨군에 있는 그들의 재산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했다.⁹ 폭도의 우두머리들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려 한다면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이라며 성도들을 협박했다. 하지만 에드워드는 그해 여름에 성도들이 학대받은 일들을 미주리주 주지사 대니얼 던클린에게 서면 제출했다.¹⁰

던클린 주지사는 성도들을 경멸하는 본심을 숨기고서 그들에게 법정에 진정서를 제출하라고 독려했다. 그는 성도들에게 “우리 정부는 법률을 준수합니다.”라고 말했다. 잭슨군 사법 체계에 따라 평화적으로 법이 집행되지 않을 경우, 성도들은 주지사에게 이를 알려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그는 성도들에게 그저 국법을 신뢰하라고 권했다.¹¹

주지사의 이러한 서한에 에드워드와 성도들은 희망을 품었다. 그들은 공동체를 재건하기 시작했다. 에드워드와 시온의 여러 지도자들은 인근 지역에서 자신들의 소송을 맡아 줄 변호사들을 찾아 고용했다.¹² 그들은 앞으로 공격을 받으면 인명과 재산을 스스로 지켜 내기로 결의했다.¹³

이에 인디펜던스 지도층들은 분개했다. 10월 26일, 성도들을 잭슨군에서 최대한 빨리 몰아내기 위한 투표에 지역 주민 50명 이상이 모여들었다.¹⁴

그로부터 닷새 후, 해 질 무렵에 휘트머 정착지에 있던 성도들은 무장한 폭도들이 인디펜던스에서 몰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리디아 화이팅과 그녀의 남편 윌리엄은 두 살 된 아들과 갓 태어난 쌍둥이를 데리고 집에서 도망쳤다.

이들은 교회 회원들이 방어 태세를 갖추고 모여 있는 건물로 피신했다.

그날 밤 10시,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인디펜던스에서 몰려온 폭도들이 정착지의 통나무집들을 때려 부수기 시작했다. 그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창문에 돌을 던지고, 문을 부수었으며, 집 꼭대기로 기어올라 지붕을 뜯어내고, 몽둥이를 휘둘러 집 안에 대피해 있던 사람들을 내쫓았다.

리디아의 귀에 폭도들의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려 오기 시작했다. 폭도들은 리디아가 있는 건물에서 조금 떨어진 피터와 메리 휘트머의 집을 부수고 문을 열었다. 그 집에도 많은 회원들이 숨어 있었다. 폭도들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난입하자 비명이 터져 나왔다. 여자들은 황급히 아이들에게 달려가 부둥켜 안고 폭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며 빌었다. 폭도단은 형제들을 밖으로 끌고 나와 몽둥이와 채찍으로 구타했다.

리디아가 숨어 있는 집 안의 성도들은 두려움과 혼란으로 질식할 지경이었다. 자신들을 방어할 수단은 총 몇 자루가 다였다. 공포에 질린 사람들은 숨을 곳을 찾아 인근 숲으로 달아나기 시작했다. 리디아는 자기 옆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두 여자아이에게 쌍둥이들을 맡기면서 안전한 곳을 찾아 도망치라고 부탁했다. 그런 다음, 리디아는 두 살배기 아들을 품에 안고 아이들의 뒤를 따라 달려나갔다.

바깥은 혼돈 그 자체였다. 폭도들의 손에 수많은 가옥과 굴뚝들이 쓰러졌다. 그곳에서 도망쳐 나온 여자들과 아이들이 리디아를 앞질러 뛰어 달아났다. 흠뻑 두들겨 맞은 형제들은 피를 흘리며 땅에 꼬꾸라졌다. 리디아는 아들을 품에 꼭 안고 숲으로 뛰어갔지만, 쌍둥이를 맡긴 소녀들과 남편을 모두 놓치고 말았다.

몸을 숨길 만한 무성한 수풀에 도착했을 때, 리디아는 겨우 쌍둥이 중 한 아기만 찾을 수 있었다. 리디아는 그 아기를 받아 안고 서늘한 가을 날씨에 몸을 떨면서 어린 아들과 함께 웅크려 앉았다. 이들이 숨어 있는 곳에서도 폭도들이 집들을 부수는 소리가 들렸다. 그 기나긴 밤이 지나고 아침이 왔지만, 리디아는 아직도 남편의 행방을 모르고 있었다.

날이 밝자 그녀는 조심스럽게 숲을 빠져 나와 낮이 나간 성도들 사이를 헤매며 남편과 잃어버린 아기를 찾았다. 다행히, 리디아의 아기는 무사했고, 윌리엄도 폭도들에게 잡혀가지 않았다.

정착지 이곳저곳에서 성도들은 가족과 상봉했다. 지난 밤 폭동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없었으나 열 채가 넘는 성도들의 집이 폐허로 변해 있었다. 성도들은 그날 내내 잔해를 치우고, 피해를 복구하고, 부상자들을 돌보았다.¹⁵

그 후로 나흘에 걸쳐 시온의 지도자들은 성도들에게 공격에 대비하여 큰 무리를 짓고 스스로를 방어하라고 권고했다. 인디펜던스에서 온 폭도들은 말을 타고 교외 지역을 들쭉시고 다니면서 외진 지역에 정착한 성도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교회 지도자들은 현지 판사에게 폭도들을 제지해 달라고 사정했지만, 그 요구는 묵살되었다. 잭슨군 주민들은 성도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몰아낼 작정이었다.¹⁶

얼마 안 가서 폭도들은 또 다시 휘트머 정착지를 습격했다. 이번에는 한층 더 맹렬한 공격이 퍼부어졌다. 27살의 필로 디블은 정착지 쪽에서 총소리가 들리자 근처에 있던 다른 성도들과 함께 지체없이 그쪽으로 달려갔다. 그들이 달려간 곳에서는 말을 탄

50여 명의 무장 폭도들이 옥수수밭을 짓밟으며 겁먹은 성도들을 숲으로 뿔뿔이 쫓아 버리고 있었다.

필로 일행을 본 폭도들은 총을 쏘았고, 한 명에게 치명적 총상을 입혔다. 대거 몰려온 성도들이 반격을 가한 끝에 폭도 두 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내 폭도들은 모두 흩어지며 도망쳤다.¹⁷ 사방이 온통 화약 연기로 자욱했다.

폭도들이 흩어진 후 필로는 복부 쪽에서 통증을 느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그의 몸은 옷이 찢어지고 피로 범벅이 돼 있었다. 그는 산탄에 맞아 피를 흘리고 있었다.¹⁸

필로는 여전히 총과 화약을 움켜쥔 채 비틀거리며 집으로 향했다. 혼미한 상태로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필로의 눈에 폐허 속에서 웅크리고 숨어 있는 여자들과 아이들이 들어왔다. 그들은 부상을 도우면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폭도들을 피해 그렇게 숨어 있었다. 필로는 어지럽고 갈증이 나는 몸을 이끌고 가족들이 숨어 있는 집까지 걸어갔다. 그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대로 쓰러졌다.

남편의 상처를 본 그의 아내 세실리아는 도움을 청하기 위해 정신없이 숲으로 뛰었다. 하지만 그녀는 길을 잃었고, 도움을 줄 어떤 사람도 찾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약 5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콜스빌 성도들의 정착지로 도망쳤다고 말했다.¹⁹

그 외 다른 성도들은 교외로 흩어져 옥수수밭에 숨거나 광활한 풀밭을 헤매고 있었다.²⁰

성도들이 빅블루강 옆에서 폭도들과 전투를 벌이는 동안, 시드니 길버트와 아이잭 몰리, 존 코릴, 윌리엄 매클렐른 및 몇몇 성

도들은 인디펜던스 지방 법원에서 판사 앞에 서 있었다. 그들은 시드니 상점을 약탈하려던 사람을 붙잡으려다가 오히려 그 사람에게 폭행 및 불법 감금으로 고발당하고 체포되었다.

법정은 발 디딜 틈도 없이 인파로 붐볐고,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사건 심리가 시작되었다. 형제들은 이 재판에 대한 희망을 거의 버린 상태였다. 자신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키겠다는 성도들의 결정으로 도시 전체가 발각 뒤집힌 마당에 법정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리는 만무했다. 물론, 재판은 엉터리로 진행되었다.

판사가 증언을 듣는 동안, 성도들이 빅블루강에서 미주리 주민 20명을 살해했다는 헛소문이 인디펜던스에 퍼졌다. 소문을 들은 재판 방청객들은 피의자들을 교수형에 처하라고 고함을 질렀다. 법정은 분노와 혼란에 휩싸인 아수라장이 되었다. 결국 시드니와 형제들이 폭도들에게 넘어가는 것을 원치 않았던 법원 서기 중 한 사람이 주민들의 살해 위협에서 그들을 보호하고자 재수감을 명령했다.²¹

그날 밤, 폭력 사태가 가라앉은 후 시드니와 아이잭, 존은 보안관과 두 명의 보안관 대리의 호송을 받으며 에드워드 파트리지를 만나러 나갔다. 그들이 가 있는 동안 윌리엄 매클렐른은 감옥에 남아 있었다. 교회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남은 선택지에 대해 논의했다. 그들은 한시바삐 잭슨군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렇다고 적들에게 자신들의 집과 땅을 넘기고 싶지는 않았다. 하지만, 결국 목숨을 잃는 것보다는 재산을 잃는 것이 낫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제 그들은 시온을 버려야 했다.²²

그들은 새벽 두 시에 이야기를 끝내고 보안관의 호송을 받으며 감옥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감옥에 도착했을 때, 그들 앞에는 여섯 명의 무장 괴한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쏘지 마시오! 쏘지 마시오!” 폭도들을 본 보안관이 소리쳤다.

폭도들이 총을 겨누자 존과 아이잭은 그 자리에서 달아났다. 몇몇 폭도가 총을 쏘았지만, 다행히 그들을 맞히지는 못했다. 시드니는 다른 괴한 두 명이 다가와 자신의 가슴에 총부리를 겨누는 바람에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시드니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이후 방아쇠 당기는 소리가 났고, 화약 불꽃이 번쩍였다.

시드니는 멍한 상태로 자신의 몸 이곳저곳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그는 다친 곳이 없었다. 총 한 자루는 부러졌고, 다른 한 자루는 불발이었다. 보안관과 보안관 대리는 서둘러 감옥 내의 안전한 장소로 그를 피신시켰다.²³

잭슨군 주민 상당수가 투쟁을 위해 결집하고 있었다. 그들은 변방으로 두루 전령을 보내 함께 성도들을 몰아낼 무장 세력을 모집했다. 한편, 라이먼 화이트라는 한 교회 회원이 총과 몽둥이로 무장한 100명의 성도들을 이끌고서 감옥에 갇힌 형제들을 구하기 위해 인디펜던스로 오고 있었다.

에드워드는 유혈 사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성도들에게 잭슨군을 떠날 준비를 시작하게 했다. 보안관이 감옥에 갇힌 형제들을 풀어 주자 라이먼은 일행들을 해산했다. 성도들이 떠날 때 치안 유지를 하도록 지역 민병대가 소집되었지만, 대부분의 민병대원이 정착지를 공격했던 폭도였기에 그들은 폭력 사태를 거의 방지했다.²⁴

이제 빨리 도망치는 것 말고는 방도가 없었다.

11월 6일, 윌리엄 펠프스는 커틀랜드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서한을 보냈다. “끔찍한 시간이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사방으로 도망치거나 그럴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²⁵

대부분의 성도들은 북쪽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지독하게 차가운 미주리강을 건너 인근의 클레이군으로 갔다. 그들은 그곳에서 흩어진 가족들과 상봉했다. 비바람이 몰아치다가 이내 눈발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에드워드와 다른 지도자들은 강을 건너온 성도들이 눈보라를 피할 수 있도록 얼른 천막을 치고 통나무로 간이 오두막을 만들었다.²⁶

상처가 너무 깊어 떠나지 못했던 필로 디블은 휘트머 정착지에서 가까운 자신의 집에 누워 있었다. 의사는 생명이 위험하다고 했지만, 그는 다행히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다. 데이비드 휘트머는 북쪽으로 떠나기 전에 필로에게 전갈을 보내어 그가 살아나리라는 약속을 전했다. 뉴얼 나이트는 필로를 찾아가 병상 곁에 앉아서 그의 머리에 조용히 손을 얹었다.

필로는 주님의 영이 자신에게 임하는 것을 느꼈다. 영이 온 몸을 감싸 안으면서, 필로의 가슴속에 자신이 치유될 것이라는 확신이 스며들었다. 그는 병상에서 일어났다. 아직도 상처에서는 피가 흘렀고 옷은 갈기갈기 찢겨 누더기가 되어 있었다. 그는 옷을 갈아입은 뒤 교전을 벌인 이후 처음으로 밖에 나가 보았다. 필로의 머리 위로 수많은 별뚱별이 밤하늘을 가르며 떨어졌다.²⁷

미주리강 언저리의 임시 거처에 있던 성도들도 천막과 오두막에서 나와 별뚱별이 비처럼 쏟아지는 유성우를 보았다. 에드워드와 그의 딸 에밀리는 한여름의 폭우처럼 쏟아지는 별들을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았다. 에밀리는 하늘을 보며, 하나님께서 고

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힘을 북돋우기 위해 빛을 보내 주고 계시다고 생각했다.

에밀리의 아버지인 윌리엄 파트리지 역시 밤하늘을 보며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알려 주는 표징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그것은 이토록 힘든 시련 속에서도 그들이 기뻐할 만한 이유이기도 했다.²⁸

커틀랜드에 있던 선지자는 문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누군가 그에게 말했다. “조셉 형제님, 일어나 와서 하늘의 표적을 좀 보십시오.”

자리에서 일어나 밖을 내다본 조셉도 우박처럼 쏟아지는 유성우를 보았다. 조셉은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천 년 동안 평화 속에서 통치하시기 전, 곧 그분의 재림 전에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질 것이라는 신약의 예언을 떠올리며 이렇게 소리쳤다. “오 주여, 당신의 사업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조셉은 기도드렸다. “당신의 종인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주여, 당신의 왕국으로 저를 구원해 주소서.”²⁹



이스라엘 진영

유성우가 쏟아진 이후로 조셉은 며칠 동안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고대했다. 그러나 일상은 전과 다름없이 흘러갔고 하늘에서는 어떠한 표적도 더는 나타나지 않았다. 조셉은 일지에 “마음이 조금 슬프다.”라고 적었다. 주님께서 시온의 성도들에게 유성우를 보여 주신 지 석 달 남짓한 시간이 흘렀지만, 조셉은 어떻게 성도들을 도와야 할지 여전히 알지 못했다. 마치 하늘이 닫힌 것만 같았다.¹

최근에 팔마이라와 맨체스터를 거쳐 돌아온 닥터 필라스터스 헐버트는 그런 조셉의 마음을 더 심란하게 했다. 그는 조셉의 젊은 시절에 관해 거짓되고 과장된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다. 소문은 커틀랜드 곳곳으로 퍼져 나갔다. 헐버트는 반드시 자신의 손으로 조셉을 죽이겠다고 공언하기까지 했다. 곧 선지자는 경호원을 대동하기 시작했다.²

유성우가 내리고 일주일 후인 1833년 11월 25일, 커틀랜드에 당도한 올슨 하이드는 성도들이 잭슨군에서 추방된 일을 보고했다.³ 참혹한 소식이었다. 조셉은 왜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고통을 겪고 약속된 땅을 잃도록 내버려 두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는 시온의 앞날을 짐작할 수 없었다. 인도를 구하며 기도를 드렸지만, 주님은 성도들에게 진정한 채 당신을 신뢰하라는 말씀만 주셨다.

그는 곧장 에드워드 파트리지 앞으로 편지를 썼다. 조셉은 편지에서 이렇게 간증했다. “저는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 시온이 구속되리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시온이 얼마나 오랫동안 평화와 시련, 그리고 고통을 겪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제게 알려 주신 바가 없습니다.”

별다른 도리가 없었기에, 조셉은 미주리에서 1,300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서 애를 태우며 성도들을 위로하는 편지를 썼다. “여러분이 고통을 당하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희의 마음은 연민으로 미어집니다. 여러분이 크나큰 시련과 고통을 겪으시는 중에도 부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어,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떼어 놓지 아니하기를 소망합니다.”⁴

조셉은 계속해서 기도를 드린 끝에 마침내 12월에 시온의 성도들을 위한 계시를 받게 된다. 주님께서서는 성도들이 스스로 지은 죄 때문에 고통을 겪었으나, 당신은 성도들을 가엾게 여기시며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같이, 그들은 반드시 징계를 받고 시험을 받

아야 할 필요가 있느니라. 무릇 징계를 견디려 하지 아니하고 나를 부인할 자는 모두 성결하게 될 수 없느니라.”

주님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성도들에게 시온의 토지를 사들이도록 명하시며, 잃어버린 것들을 합법적이고 평화적으로 되찾을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하셨다. 그분은 이렇게 선포하셨다. “시온은 … 자기 자리에서 옮기우지 아니하리라. 남은 자로서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돌아와 그들의 기업에 이르리라.”⁵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인디펜던스 사람들과 평화적으로 협상할 것을 촉구하시는 한편, 시온은 힘으로써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나태한 종들 때문에 잃어버려진 바 되고 적이 무너뜨려 버린 포도원에 관한 비유를 드셨다. 포도원의 주인은 포도원이 파괴되는 것을 보자 종들의 태만을 꾸짖으며 행동을 취하도록 명했다.

“가서 나의 종들의 나머지를 함께 모으고 … 내 집의 군사인 자들을 데리고, 너희는 곧바로 나의 포도원의 땅으로 가서 나의 포도원을 도로 찾으라.” 주님은 이 비유를 세세히 해석하지는 않으셨지만, 이 비유에 시온의 구속에 관한 당신의 뜻이 드러나 있다는 점은 분명히 하셨다.⁶

두 달 후, 팔리 피 프랫과 라이먼 화이트가 더 많은 소식을 듣고 미주리에서 커틀랜드로 건너왔다. 그들은 잭슨군 강 건너편의 친절한 주민들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며 성도들을 인부로서 주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성도들은 여전히 곳곳에 흩어진 채 슬픔에 잠겨 있었다. 그들은 언제쯤 어떤 방법으로 대적의 손아귀에서 시온을 구해 낼 수 있을지를 알고 싶어 했다.⁷

보고를 듣던 조셉은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이 직접 시온으로 가겠다고 공표했다. 지난 6개월 동안 조셉은 커틀랜드에서 다른

문제들을 다루는 와중에도 미주리의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격려와 희망의 말을 전해 왔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성도들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자 했다. 그는 자신과 이 일을 함께 할 사람들을 찾기 시작했다.⁸

1834년 4월, 뉴욕에 있는 교회의 한 작은 지부에서 모임이 열렸다. 스물일곱 살의 월포드 우드럽은 연단에 선 팔리 피 프렛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팔리는 가장 최근에 주님께서 조셉 스미스에게 주신 계시를 언급하는 중이었다. 주님은 이 계시에서 오백 명을 모아 선지자와 함께 미주리로 행군하라고 명하시며 다음과 같이 선포하셨다. “시온의 회복은 반드시 권능으로써 임할 필요가 있느니라. … 어느 누구도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 버리기를 두려워 말지어다.”⁹

팔리는 지부의 청장년층 형제들에게 시온으로 함께 가자고 말했다. 이 권유는 여건이 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다.

모임이 끝날 무렵, 월포드는 팔리에게 다가가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형인 애즈먼과 함께 석 달 전에 교회에 들어왔고, 현재는 둘 다 아론 신권의 교사 직분을 받은 상태였다. 월포드는 정말로 시온에 가고 싶었지만, 떠나기 전에 아직 정리해야 할 금전 관계가 남아 있다고 했다. 팔리는 월포드에게 재정 문제를 정리하고 행군에 참여하는 것이 그의 의무임을 일깨워 주었다.¹⁰

나중에 월포드는 애즈먼과 함께 시온으로 가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나 교회의 몸이 건강한 모든 남성은 행군에 참여하라는 주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애즈먼은 가지 않는 쪽으

로 마음을 정했다. 그는 집과 가족, 농장을 떠나는 것이 내키지 않았다. 그러나 미혼이었던 윌포드는 선지자와 함께 시온으로 가고자 하는 열망이 강했다.¹¹

몇 주 뒤, 윌포드는 커틀랜드에 도착해서 브리검 영과 히버 킴볼을 만났다. 그들은 최근에 가족을 이끌고 오하이오로 이주해 온 사람들이었다. 도공으로 일하는 히버는 아내 빌리트와 두 자녀를 둔 가장이었고, 브리검은 두 딸을 둔 목수였다. 그는 첫 번째 아내인 미리엄과 사별한 뒤 얼마 전에 메리 앤 에인젤이라는 개종자와 재혼했다.¹² 두 사람은 가족에게 큰 희생이 따를 것을 알면서도 반드시 행군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

메리 앤의 사촌인 조셉과 찬들러 홀브룩도 행군에 지원했는데, 조셉의 아내인 낸시와 찬들러의 아내 유니스도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행군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낸시와 유니스는 행군에 합류할 몇몇 여성과 함께 요리와 세탁을 맡아 하며 미주리까지 가는 여정 동안 병들고 다친 사람들을 돌볼 계획이었다.¹³

집에 머물 여성들은 다른 방법으로 이들의 행군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시온으로 떠날 날을 목전에 두었을 때 조셉은 이런 말을 했다. “시온에 갈 준비를 하기 위한 자금이 조금 필요한데, 그 돈은 분명 곧 마련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그는 보스톤에 있는 보즈 자매가 보낸 150달러를 받게 되었다.¹⁴

5월 1일, 윌포드를 비롯한 몇몇 성도들이 시온을 향해 행군을 시작했다. 며칠 뒤에 조셉과 브리검, 히버, 홀브룩이 백여 명의 지원자와 함께 커틀랜드로 출발했고, 윌포드는 중간에 그들과 합류했다.

지원자 전체가 결집을 마쳤으나 부대 규모는 주님께서 요구하신 오백 명에 전혀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¹⁵ 하지만 그들은 주님

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굳건한 결의와 훌륭한 태도로 무장한 뒤 서쪽으로 행군을 시작했다.

조셉은 이스라엘 진영이라고 이름 붙인 이 작은 부대에 큰 희망을 걸었다. 비록 대원들은 가나안 땅을 위해 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기를 들고 열렬히 싸우고 싶어 했지만, 조셉은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할 생각이었다. 미주리 정부 관료들이 현지의 교회 지도자들에게 전한 말에 따르면, 던클린 주지사는 성도들이 빼앗긴 땅으로 돌아가는 길을 동행할 민병대를 보내 줄 의사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주지사는 폭도들이 성도들을 다시 몰아내지 못하도록 지켜 주겠다는 약속은 하지 못했다.¹⁶

조셉은 이스라엘 진영을 이끌고 미주리에 도착한 뒤 주지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성도들이 잭슨군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민병대와 협력할 계획을 세웠다. 또한, 이스라엘 진영은 일 년 동안 시온에 머물며 적대 세력으로부터 성도들의 안전을 지킬 예정이었다.¹⁷

이스라엘 진영은 모든 대원을 빠짐없이 지원하기 위해 각자의 사비를 모아 공동 기금을 마련했다. 조셉은 구약전서의 방식대로 대원들을 중대로 나누고, 중대마다 대장을 선출하게 했다.¹⁸

이스라엘 진영은 서쪽으로 전진해 나가고 있었지만, 조셉은 내심 이런 소규모 부대를 이끌고 적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 우려가 되었다. 조셉의 형인 하이럼과 라이먼 화이트가 커틀랜드 북서부에 있는 교회의 지부에서 추가로 대원을 모집했으나 그들은 아직 이스라엘 진영에 합류하지 않은 상태였고, 조셉은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했다. 또, 조셉은 첩자들이 진영의 움직임을

감시하며 자신들의 병력을 파악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점이 걱정되었다.¹⁹

6월 4일, 이스라엘 진영은 행군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미시시피강에 도착했다. 조셉은 고된 행군으로 피로와 통증에 시달렸지만, 기꺼이 눈앞에 놓인 어려움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²⁰ 그는 진영의 움직임에 대한 전언과 풍문이 이미 미주리에 퍼졌으며, 수백 명의 주민들이 전투 태세를 갖추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성도들이 그들과 맞설 상대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다.

조셉은 강둑에 앉아 에머에게 편지를 썼다. “진영의 상황은 더할 나위 없이 좋소. 하지만 우리는 병력도, 자원도 너무나 미약한 수준이러오.”²¹

이튿날, 후텁지근한 날씨 속에서 이스라엘 진영은 강을 건너 미주리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미시시피강은 폭이 1.6킬로미터가 넘었고, 이스라엘 진영에는 대원들을 실어 나를 배가 단 한 척밖에 없었다.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대원들은 무료함과 싸우며 햇볕을 피해 그늘로 들어갔고, 일부는 사냥이나 낚시를 하기도 했다.

진영 모두가 강을 건너는 데만 꼬박 이틀이 소요되었다. 그것은 길고도 지루한 시간이었다. 이틀째 날이 저물어 갈 무렵, 대원들은 피곤하고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이제 그들은 미주리주에 들어와 있었으며, 대다수 대원들은 갑작스러운 공격에 대한 걱정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그날 저녁, 마지막 중대가 진영에 도착했을 때 조셉의 경비군이 짓으며 대원들 전체를 놀라게 했다.

이에 마지막 중대의 대장인 실베스터 스미스는 조용히 하지 않으면 개를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했다. 조셉이 경비견을 진정시켰으나, 실베스터와 그의 중대는 이튿날 아침까지도 개에 대한 불평을 멈추지 않았다.²²

그들이 불평하는 소리를 듣던 조셉은 결국 진영의 대원들을 모두 불러모았다. “저는 이제 이곳에서 드러나는 태도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왜냐하면 그 태도를 진영에서 몰아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난 밤 개를 위협하던 실베스터 대장의 행동을 보이며 이렇게 말했다. “이런 태도는 전 세계 곳곳을 분열시키고 유혈 사태를 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나 실베스터는 눈 하나 꿈쩍하지 않았다. 실베스터 스미스는 조셉 스미스의 친인척은 아니었다. “그 개가 나를 물면 난 그 놈을 죽이겠소.”

조셉이 말했다. “당신이 이 개를 죽이면 난 당신을 채찍으로 때리겠습니다.”

실베스터가 말했다. “당신이 때린다고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소!”²³

두 사람은 대원들 앞에서 서로 질세라 쏘아보았다. 이때까지 대원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난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모두들 행군이 몇 주씩 계속되면서 신경이 몹시 날카로워진 상태였다.

결국 조셉이 먼저 실베스터에게서 돌아섰다. 그는 성도들을 바라보며, 그들도 진영에서 드러나는 감정에 대해 자신처럼 부끄러움을 느끼는지 물었다. 조셉은 성도들이 인간이 아닌 개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람은 절대 자신을 짐승과 같은 위치에 놓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짐승보다 나아야 합니다.”²⁴

이 일로 진영의 분위기는 진정되었고, 이 작은 부대는 다시 미주리로 더 깊숙이 진군해 들어갔다. 매일 맡은 일들을 해내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와중에도 낸시와 유니스 홀부룩은 잭슨군이 가까워질수록 자신들이 더욱 위험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²⁵

진영의 본진이 미시시피강을 건너고 얼마 되지 않아서, 하이럼 스미스와 라이먼 화이트가 그들이 모집한 대원들을 이끌고 진영에 합류했다. 이제 진영에 자원한 대원은 이백 명을 넘어섰다.²⁶ 진영의 지도자들은 여전히 적들의 공격을 걱정했다. 조셉은 가족과 함께 온 대원들에게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 은신처를 찾으라고 권했다.

하지만 진영의 몇몇 여성은 뒤에 남겨지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 남성들이 길을 떠나기 직전에 조셉은 모두를 소집하여 말했다. “자매님들이 진영에 닥칠 포위와 공격을 감내하실 수 있다면 함께 가셔도 좋습니다.”²⁷

낸시와 유니스를 비롯한 진영의 여성들은 조셉이 이 문제를 자매들의 선택에 맡긴 것에 기뻐하며 자신들도 함께 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²⁸

며칠 후, 팔리 프렛과 올슨 하이드가 좋지 못한 소식을 들고 진영에 도착했다. 던클린 주지사가 민병대 지원 약속을 파기했다는 소식이었다.²⁹ 주지사의 도움 없이는 미주리 성도들이 평화적으로 시온의 땅에 돌아갈 수 없으리라는 것을 진영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조셉과 중대장들은 행군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추방되

어 미주리강 북쪽 클레이군에 머물고 있던 성도들에게 가서 그들이 잭슨군 주민들과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울 생각이었다.³⁰

이스라엘 진영은 미주리 대평원을 가로지르며 행군했다. 목 적지에 도착할 날이 하루쯤 남았을 때, 노예로 보이는 흑인 여성 한 명이 초조한 얼굴로 소리쳤다. “이 지역에 있는 일단의 남자들이 오늘 아침 당신들이 여길 지나갈 때 당신들을 죽이겠다고 했어요!”³¹

진영은 한층 더 조심스럽게 행군을 이어 갔다. 그러나 마차에 문제가 생겨, 이스라엘 진영은 어쩔 수 없이 피싱강의 분기점이 내려다보이는 언덕에서 밤을 보내게 되었다. 추방된 성도들이 있는 곳까지는 이제 16킬로미터 정도만 가면 되었다. 대원들이 천막을 치고 있을 때, 요란한 말발굽 소리를 내며 다섯 명의 남자들이 진영 안으로 쳐들어왔다. 이 낯선 남자들은 무기를 휘두르면서, 지금 성도들을 썩 다 몰아내기 위해 300명 이상이 달려오고 있다고 쾌재를 외쳐 댔다.³²

이스라엘 진영은 공포에 휩싸였다. 상대의 규모가 더 우세하다는 것을 알게 된 조셉은 진영 주변에 보초들을 세웠다. 적들의 공격이 임박하고 있었다. 그때 대원 중 한 명이 폭도들을 선제 공격하자고 선지자에게 간청했다.

하지만 조셉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안 됩니다. 그저 조용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지켜보십시오.”³³

하늘에 잿빛 구름이 짙게 드리워졌다. 20분 뒤, 진영이 머무는 야영지로 폭우가 쏟아졌다. 대원들은 천막에서 나와 우왕좌왕하며 몸을 피할 곳을 찾았다. 피싱강의 강물은 범람하여 강둑을 모조리 다 삼켜 버렸다.³⁴ 진영 안으로 거센 바람이 몰아치면서 나무와 천막들이 쓰러져 나갔다. 하늘에서는 번개가 번쩍였다.

월포드 우드럽을 비롯한 이스라엘 진영의 대원들은 근처에 있는 작은 교회 건물로 들어가 웅송그리고 앉았다. 그들이 모여 있는 지붕 위로 우박이 쏟아져 내렸다.³⁵ 잠시 후, 조셉이 황급히 교회 건물로 들어와서 모자와 옷에서 빗물을 털어 냈다. 그는 이렇게 소리쳤다. “여러분, 이것은 평범한 폭풍우가 아닙니다. 이 폭풍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도들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들은 긴 의자에 누워 밤새 찬송가를 불렀다.³⁶ 아침이 되어 야영지로 돌아가 보니, 천막과 장비들이 물에 흠뻑 젖은 채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그러나 다행히 수리할 만큼 망가진 것은 하나도 없었고, 폭도들이 온 흔적도 없었다.

강에서는 불어난 강물이 유유히 흐르며 반대편 강둑에 있는 적들을 막아 서고 있었다.³⁷

그로부터 며칠 동안 조셉은 주변 군의 관료들을 만나 행군의 목적을 설명하고 시온의 성도들을 위해 도움을 요청했다. 그동안 이스라엘 진영은 클레이군의 성도들과 연락을 취했다. 조셉은 관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우리 사이에 벌어진 어려움이 해결되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것뿐입니다.”³⁸

관료들은 주민들의 분노가 잠잠해지도록 힘을 보태기로 하면서도, 진영이 잭슨군에 들어가는 것은 위험하다며 만류했다. 성도들이 인디펜던스로 행군하려 한다면 혈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었다.³⁹

이튿날인 6월 22일, 조셉은 교회 지도자들이 모인 평의회에서 이스라엘 진영을 위한 계시를 받았다. 주님은 대원들의 희생을 받아들이셨고, 또한 그들이 신성한 권능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할 방향을 다시금 바로잡아 주셨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시온은 해의 왕국의 율법의 원칙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세 워질 수 없[느니라.]”

그분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배우고 경험함으로써 그들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린 후에야 시온을 구축할 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 일은 나의 장로들이 높은 곳에서 오는 권능을 부여받기까지는 이루어질 수 없느니라.” 이렇게 권능을 부여받는 일은 주님의 집, 곧 커틀랜드 성전에서 이루어질 것이었다.

주님께서서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행군해 온 이들을 기쁘게 여기셨다. “나는 그들의 기도를 들었고 그들의 헌물을 받아들이리니, 그들의 신앙의 시험을 위하여 그들이 여기까지 인도되는 일이 내게 필요하도다.”⁴⁰

대원들 중에는 이 계시를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이들도 있었지만, 미주리의 성도들을 위해 무언가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졌다고 느끼며 저항하는 이들도 일부 있었다. 몇몇은 싸워 보지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수치스러워하며 분노했다.⁴¹

진영은 곧 해산되었고, 공동 기금에서 남은 얼마 안 되는 돈은 대원들에게 배분되었다. 대원 중 일부는 미주리에 남아 일하며 성도들이 다시 그 땅에서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

다. 브리검과 히버를 비롯한 대다수 대원들은 집으로 돌아가 성전을 완공하고 권능의 엔다우먼트를 준비하기 위해 길을 나설 채비를 시작했다.⁴²

비록 이스라엘 진영이 시온을 구속하지는 못했지만, 윌포드 우드럽은 행군을 통해 자신이 배웠던 것들에 대해 감사함을 느꼈다. 그는 선지자와 함께 1,600킬로미터 가까이 되는 거리를 여행했으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 보이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았다.⁴³ 이 경험을 통해 그는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되었다.

그는 복음 전파에 힘쓰게 될 자신의 미래를 전혀 알지 못한 채, 미주리에 남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은 무엇이랄도 하기로 결정했다.⁴⁴



성역을 위임받은 청지기들

해산을 앞둔 이스라엘 진영에 치명적인 콜레라가 발생하여 대원들 사이에 무서운 위세로 창궐하기 시작했다. 바로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쓰러져 거동도 못하고, 연거푸 먹은 것을 게워내며 극심한 복통을 호소했다. 진영 곳곳에서 병자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려왔다. 대다수가 몸이 쇠약해져서 보초 서는 일도 하기가 힘들었다.

낸시 홀브룩은 콜레라 유행 초기에 전염된 이들 중 한 명이였다. 그에 뒤이어 낸시의 올케인 유니스도 곧 병에 걸렸고, 그녀는 근육에 극심한 경련을 일으키며 괴로워했다.¹ 월포드 우드럽은 그날 밤은 물론이고 그 이튿날까지도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중대에 있는 병자들을 돌보았다.² 조셉과 진영의 장로들이 환자들을 찾아다니며 축복을 주었지만, 그들 중 여러 명도 곧 콜레라에

걸리고 말았다. 며칠 후에는 조셉마저 콜레라로 쓰러져 사경을 헤매며 막사 안에서 꼼짝 못하고 누워 지냈다.³

콜레라는 대원들의 목숨을 앗아 가기 시작했다. 히버 김볼과 브리검 영을 비롯한 성도들은 시신을 담요로 싸서 근처에 있는 개울을 따라 죽은 이들을 묻었다.⁴

콜레라는 계속해서 기세를 떨치다가 7월 초에 이르러서야 소강 상태에 들었다. 그때까지 콜레라에 전염된 성도는 60명이 넘었다. 다행히 조셉과 낸시, 유니스를 비롯한 대부분의 성도들은 완쾌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콜레라로 여남은 명의 성도들을 떠나 보내야 했는데, 그렇게 세상을 떠난 이들 중에는 시드니 길버트와 진영 내의 몇 안 되는 여성 중 한 명인 벤티 패리쉬가 있었다. 조셉은 희생자와 그 가족을 애도했다. 진영 내의 마지막 희생자는 조셉의 사촌인 제시 스미스였다.⁵

겨우 죽을 고비를 넘긴 조셉은 이번 경험을 통해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실감했다. 스물여덟 살의 그는 자신의 신성한 사명을 완수하는 것에 대한 걱정이 더욱 깊어졌다.⁶ 지금 당장 자신이 죽는다면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교회는 자신의 목숨보다 오래도록 이어질 만큼 굳건한가?

이미 교회는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지도자들이 행정적인 부담을 나눠 지도록 지침을 변경해 둔 상태였다. 교회의 제일회장단에서는 시드니 리그돈과 프레드릭 윌리엄스가 보좌로서 함께 봉사하며 조셉을 돕고 있었고, 시온의 스테이크, 즉 성도들이 공식적으로 집합할 장소로서 커틀랜드가 이미 지명되어 있었다.⁷

또한, 고대에 베드로가 주님의 교회를 조직한 방식을 시현으로 본 조셉은 얼마 전에 커틀랜드에 있는 열두 명의 대제사들로 고등평의회를 조직하기도 했다. 고등평의회는 조셉을 도와 스테이크를 관리하고 조셉이 부재할 때에는 스테이크를 이끄는 임무를 대신 수행했다.⁸

클레라가 잠잠해지자, 곧 조셉은 교회 조직 체계를 더 촘촘히 갖추어 나가기 시작했다. 1834년 7월, 그는 클레이군의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 미주리주의 고등평의회를 조직하고, 데이비드 휘트머를 임명하여 윌리엄 펠프스와 존 휘트머를 보좌로 두며 그 지역의 교회를 감리하게 했다.⁹ 그런 다음 그는 성전을 완공하고, 시온을 구축하도록 성도들에게 힘을 줄 권능의 엔다우먼트를 받고자 하는 열망을 품고서 커틀랜드로 돌아갔다.

하지만 조셉의 눈앞에는 중대한 문제들이 버티고 서 있었다. 그해 봄에 커틀랜드를 떠날 당시, 사암으로 된 성전의 벽은 겨우 1.2미터 높이만큼밖에 공사가 진행되어 있지 않았다. 커틀랜드로 숙련된 작업자들이 유입되면서 조셉은 이제 드디어 당신의 집을 위한 주님의 계획을 성도들도 깨닫게 되리라는 희망을 품기도 했지만, 성도들은 인디펜던스 안팎으로 인쇄소와 상점에다 넓은 면적의 토지까지 잃게 되어 경제적으로 힘든 상태였다. 조셉과 시드니를 비롯한 교회의 지도자들은 커틀랜드 성전 대지를 매입하고 이스라엘 진영을 지원하기 위해 거액을 대출받은 탓에 큰 빚을 지고 있었다.

거기에도 교회가 운영하는 사업들은 계류 중이거나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고, 성도들을 대상으로 기부금을 모금할 만한 장치도 전혀 없었다. 따라서 교회는 성전 건립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었다. 교회 지도자들이 상환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이 성스러운 건물은 채권자들의 손에 넘어가게 될 것이었다. 그리고 성전을 잃으면, 권능의 엔다우먼트를 받고 시온을 구축하겠다는 소망도 모두 물거품이 되어 버릴 것이었다.¹⁰

커틀랜드에 있던 시드니 리그돈도 조셉처럼 성전 완공 문제로 시름에 잠겨 있었다. 시드니 리그돈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예정된 시간 안에 이 건물을 완공해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뿐 아니라 세상의 구원 또한 이 성전에 달려 있습니다.”¹¹

조셉이 미주리에 머무는 동안 시드니는 성전 건축 전반을 감독했다. 일을 할 젊은이가 부족했기 때문에 성전 건축 현장을 감독하던 알테머스 밀레트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성도들에게 공사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많은 여성들이 보통 남성들이 하던 일들을 도맡아 했다. 그들은 석공을 보조하고, 짐마차를 끌고 채석장을 오가며 성전에 쓰일 석재를 운반했다. 조셉과 이스라엘 진영이 커틀랜드로 돌아올 무렵에는 성전 벽이 조금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가 있었다.

이스라엘 진영이 돌아오자, 1834년 여름과 가을 동안 성전 건축은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¹² 성도들은 캐낸 돌을 성전 부지로 날라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성전 벽을 쌓아 올렸다. 조셉은 인근 개울에서 돌을 캐는 성도들과 함께 일했다. 성도들 중 일부는 교회의 제재소에서 기둥과 천장, 바닥에 쓰일 목재를 마련했고, 다른 성도들은 나무를 들어 올리고 필요한 곳에 비계 쌓는 일을 도왔다.¹³

에머를 포함한 여성들은 작업자들의 옷을 만들고 그들이 먹을 음식을 마련했다. 히버의 아내인 빌리트 킴볼은 자신이 신을 여분의 양말 한 켤레도 없는 형편에서도 작업자들을 돕기 위해 무려 45킬로그램의 양털로 실을 자아 옷을 짓고 바느질을 했다.

성전을 완공하고자 하는 성도들의 열정은 시드니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러나 하루하루 교회의 빛은 늘어 갔고, 시드니는 자신의 이름으로 이미 거액의 대출을 여러 건 받아 둔 상황이었다. 그는 교회가 이 돈을 상환하지 못하면 자신이 큰 타격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가난한 성도들이 성전을 완공하기 위해 희생하는 모습을 지켜볼 때면 그는 성전을 완공할 재원이나 방법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느꼈다.

시드니는 때로 근심을 이기지 못하고 성전 벽 위로 올라가 성전을 완공할 기금을 보내 주시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간청했다. 기도할 때마다 시드니의 발밑 바닥은 눈물로 흥건해졌다.¹⁴

한편, 뉴욕주에서 서부로 향하는 스물한 살 난 캐롤라인 티펫츠는 이제 커틀랜드까지 약 800여 킬로미터를 앞두고 있었다. 캐롤라인은 뉴욕주에서 가져온 큰 액수의 돈을 자신의 옷가지와 물건들 틈에 숨겨 미주리주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잭슨군 주변에 정착하겠다는 생각으로 남동생 해리슨과 함께 서부로 가는 중이었다. 두 남매는 미주리의 성도들이 박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미주리에 집합하여 시온의 땅이 교회의 적대 세력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토지를 매입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했다.¹⁵

성도들이 시온에서 추방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주님께서는 “잭슨 군과 그 주변의 여러 군에서 매입할 수 있는 모든 토지를 매입하”라는 계시를 주신 바가 있었다. 이를 위한 자금은 모두 기부를 통해 마련해야만 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든 교회 회원은 그들의 돈을 모두 모으라. 그리고 덕망이 높은 자들 곧 지혜로운 자들을 지명하고, 그들을 보내어 이 토지들을 매입하게 하라.”¹⁶

이 계시에 대해 듣게 된 캐롤라인의 지부 지도자들은 몇 안 되는 그들 지부 회원들에게 부탁하여, 미주리의 토지를 매입할 기금을 모으기 위해 금식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게 했다. 이에 일부 회원들은 현금과 부동산으로 마련한 큰 액수를 기금에 보냈고, 그 외의 다른 회원들도 몇 달러씩을 기부하며 정성을 모았다.

이때 캐롤라인은 250달러가량 되는 돈을 기부했는데, 그녀는 지부에서 가장 큰 액수를 기부한 회원이었으며, 누구도 캐롤라인이 이만한 돈을 내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었다. 그녀는 약속된 땅을 구속하는 데 이 돈이 힘이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캐롤라인이 기부한 액수까지 더해서 기금은 총 850달러 정도가 되었다. 이것은 당시에 상당한 금액이었다.

교회 모임이 끝난 후, 해리슨과 그의 사촌인 존은 미주리로 가서 토지를 매입하도록 임무 지명을 받았다. 그리고 캐롤라인도 여정에 합류하여 자신이 보낸 기부금을 지키는 데 힘을 보태기로 했다. 존이 몇 가지 일을 다 처리한 뒤, 여정은 시작되었다. 가족들은 이들을 위해 미주리까지 타고 갈 말과 짐마차를 준비해 주었다.

캐롤라인은 서쪽 땅에서 시작할 새 생활을 고대하며 마차에 올랐다. 이들 티펫츠 일행은 미주리로 가는 길에 커틀랜드를 거쳐갈 예정이었다. 지부의 지도자들은 커틀랜드에 있는 선지자에게 전할 소개 편지를 그들 편에 함께 보냈다. 편지에는 기부금의 출처와 그 돈의 쓰임에 대한 그들의 기대가 담겨 있었다.¹⁷

1834년 가을, 조셉과 교회의 지도자들은 대출받은 성전 부지 매입금 상환 날짜를 점점 더 못 맞추고 있었다. 대출금 이자는 쉬지 않고 불어났다. 일부 작업자들은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성전 건축에 참여하며 교회의 재정적인 부담을 다소 줄여 주었고, 회원들은 여분의 현금이나 물건이 생기면 성전 건축을 위해 교회에 바쳤다.¹⁸

교회 안팎의 사람들은 성전 건축을 위해 대출 기한을 연장해 가며 돈을 빌려 주었다. 기부금과 대출금은 물자를 사고, 고용될 다른 방도가 없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용도로 쓰였다.¹⁹

이러한 노력 덕분에 성전의 벽은 점점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었다. 그해 12월에는 목수들이 2층에 쓰일 기둥을 놓을 수 있을 만큼 벽이 높이 올라갔다. 그러나 아직도 돈은 빠듯했고, 교회의 지도자들은 더 많은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했다.²⁰

12월 초, 티펫츠 가족이 커틀랜드에 도착했다. 해리슨과 존은 그들의 지부에서 가져온 편지를 고등평의회에 전달했다. 이제 겨울이 시작되고 있었기에, 해리슨과 존은 계속해서 미주리까지 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커틀랜드에서 겨울을 보내는 것이 좋을지를 두고 고등평의회에 의견을 구했다. 얼마간 상의를 한 후, 고

등평의회는 티벳츠 가족에게 봄이 될 때까지 오하이오에 머물 것을 권했다.

자금난에 허덕이던 고등평의회는 또한 이 젊은이들에게 교회에 돈을 좀 빌려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지도자들은 봄이 되어 그들이 떠나기 전에 그 돈을 갚겠다고 약속했다. 해리슨과 존은 지부에서 가져온 850달러 중 일부를 교회에 대출해 주는 데 동의했다. 고등평의회는 캐롤라인이 낸 돈이 기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를 모임에 초대해 대출 조건을 설명했다. 캐롤라인은 그들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다음 날, 조셉과 올리버는 티벳츠 가족 덕분에 재정적인 여유가 생긴 것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리며 기뻐하였다.²¹

겨울 동안 교회는 대출과 기부를 통해 더 많은 자금을 확보했다. 그러나 성전 건축 비용은 여전히 그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점점 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티벳츠 가족의 사례는 먼 곳에 있는 교회의 지부 회원들도 주님의 사업 안에서 자신의 몫을 다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 새해가 되었을 때, 조셉은 먼 곳에 있는 지부들을 강화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이제 그는 성도들이 권능의 엔다우먼트를 받을 수 있도록 성전을 완공하기 위해 그런 지부들의 도움을 구해야 했다.

해법은 조셉이 몇 해 전 받았던 계시에 이미 나와 있었다. 그 계시에서 주님은 올리버 카우드리와 데이비드 휘트머에게 세상에 복음을 전파할 열두 명의 사도를 물색하라고 명하셨다. 이 사도들은 신약전서의 사도들처럼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이 되어

그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개종자들을 시온과 그 지부들로 모으는 역할을 해야 했다.²²

또한, 열두 명의 사도들은 정원회를 이루어 고등평의회로서 곳곳을 다니며 오하이오와 미주리의 고등평의회가 담당하는 지역 외의 곳들을 돌보아야 했다.²³ 그들은 십이사도로서 일하며 선교 사업을 지휘하고, 지부들을 감독하며, 시온과 성전을 위한 기금을 모으는 일을 할 것이었다.

2월 초 어느 일요일, 조셉은 브리검과 조셉 영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이렇게 말했다. “이곳에서 멀지 않은 지부들의 모든 형제들에게 다음 주 토요일에 열릴 연차 대회에 참석해 달라고 공지하시기 바랍니다.” 조셉은 그 대회에서 열두 명의 형제가 새로운 정원회에 임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브리검에게 “형제님도 그중 한 명이 되실 겁니다.”라고 말했다.²⁴

일주일 후인 1835년 2월 14일, 커틀랜드의 성도들이 연차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모였다. 조셉의 지시에 따라, 올리버와 데이비드, 그리고 몰몬경의 증인인 마틴해리스가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들을 발표했다. 사도로 부름을 받은 형제들은 모두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파한 경험이 있었고, 그중 여덟 명은 이스라엘 진영의 행군에 참여한 사람들이었다.²⁵

서른 중반의 토머스 마쉬와 데이비드 패튼이 열두 명 중 가장 연장자였다. 초기 개종자 중 한 명인 토머스는 몰몬경 초판이 아직 인쇄 중일 때 몰몬경에 대한 간증을 얻었다. 데이비드는 개종 후 3년 동안 여러 차례 선교 사업을 다녀온 경험이 있었다.²⁶

일주일 전에 조셉이 말했던 대로 브리검 또한 정원회 일원으로 부름받았다. 그리고 그의 절친한 친구인 히버 김볼도 함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두 사람은 모두 이스라엘 진영에서 중대장으로서 충실하게 봉사한 경험이 있었다. 이제 다시 한 번 주님의 일에 전념하기 위해 목수 브리검은 작업대를, 도공 히버는 돌림판을 떠나게 되었다.

십이사도 중에는 신약전서의 사도들인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같은 친형제도 두 쌍 있었다. 동부와 서부에서 복음을 전했던 팔리 프랫과 올슨 프랫은 이제 곳곳의 교회 지부에서 봉사하며 함께 헌신할 것이었다. 남부와 북부에서 복음을 전파했던 루크 존슨과 라이먼 존슨도 이제 사도의 권세를 지니고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것이었다.²⁷

주님은 교육을 받은 이들과 그렇지 못한 이들을 고루 선택 하셨다. 선지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올슨 하이드와 윌리엄 매클렐른은 정원회에 예리한 지성을 더해 주었고, 스물세 살의 나이로 선교사로서 큰 성공을 거뒀던 존 보인턴은 사도 가운데 유일하게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다. 반면 선지자의 동생인 윌리엄은 정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었다. 그러나 그는 열정적인 연설가였고, 반대에 맞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발 빠르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옹호하는 데 앞장섰다.²⁸

올리버는 십이사도를 부른 뒤 그들에게 특별한 책임을 부여하며 이렇게 말했다. “얼굴을 마주하고 하나님을 뵈 때까지 절대로 노력을 멈추지 마십시오. 신앙을 강화하십시오. 의심과 죄와 모든 불신앙을 떨쳐 버리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그들이 먼 타국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많은 자녀를 시온의 안전한 울타리 안으로 모을 수 있을 것임을 약속했다.

올리버는 이렇게 간증했다. “여러분은 이 성역을 위임받은 청지기들입니다.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간결하고 순수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기겠습니다.”²⁹

십이사도를 조직하고 2주 후, 조셉은 십이사도와 더불어 복음을 전하고, 지부들을 강화하며, 교회를 위한 기부금을 모으는 임무를 맡을 또 다른 신권 정원회를 조직했다. 칠십인 정원회라는 이름의 이 새로운 정원회는 모두 이스라엘 진영에 참여했던 이들로 구성되었다. 신약전서에 나오는 칠십 명의 제자들이 둘씩 짝을 지어 모든 도시를 다니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과 같이, 그들도 주님의 사업을 위해 세상 곳곳으로 보내졌다.³⁰

주님께서는 이 정원회를 감리하도록 실베스터 스미스와 조셉 영 등 일곱 명의 남성을 택하셨다. 실베스터 스미스는 이스라엘 진영이 행군하던 당시 선지자와 언쟁을 벌였던 바로 그 중대장이었다. 이제 두 사람은 커틀랜드 고등평의회에 도움으로 지난 여름의 불화를 해결하고 상대방을 용서한 상태였다.³¹

선지자는 칠십인 정원회를 부른 직후 이 새로운 정원회를 향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주리에서 싸워 보지 못한 일로 아직도 저에게 화가 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싸우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조셉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주리로 부르신 이유는 기꺼이 희생하여 시온에

자신의 삶을 헌납하고자 하는 그들의 의지를 시험하시고, 그들이 지닌 신앙의 힘을 키워 주고자 하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가르쳤다. “하나님께서서는 온 땅의 나라들에 복음의 문을 열 열두 사람과 그들의 지시를 받고 그 뒤를 따를 칠십인을 부르심으로써 당신의 왕국을 세우셨습니다. 목숨을 바쳐 아브라함 못지않은 큰 희생을 치러 낸 사람들 가운데서 십이사도와 칠십인을 택하지 않으셨다면 이 일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³²



나를 버리지 말아 줘

1835년 여름, 사도들은 미국 동부와 캐나다로 선교 사업을 떠났고, 성도들은 성전을 완공하여 권능의 엔다우먼트를 받을 준비를 하기 위해 힘을 모아 일했다. 미주리와 달리 폭력 사태와 손실을 겪지 않은 커틀랜드의 교회는 개종자들이 모여들어 주님의 사업에 힘을 보태면서 영적인 성장과 번영을 이루어 나갔다.¹

그해 7월, 커틀랜드의 작은 마을에는 “이집트 유물”을 홍보하는 전단이 나붙었다. 전단은 이집트 무덤에서 발굴된 백여 구의 미라에 대한 선전이였다. 그 미라의 일부는 고대의 파피루스 두루마리들과 함께 미국 전역에서 전시되며 많은 구경꾼들을 몰고 다녔다.²

이 유물 전시의 주최자는 마이클 찬들러라는 사람이었다. 찬들러는 조셉 스미스에 대한 이야기를 접한 뒤 그가 이 유물들을 사들일 수도 있을 거란 생각에 커틀랜드까지 그를 찾아왔다.³

조셉은 그가 가져온 유물 중 미라보다는 파피루스 두루마리에 더 관심이 갔다. 그 파피루스에는 조셉이 처음 보는 문자와 사람, 배, 새, 뱀 등의 신기한 형상이 가득했다.⁴

조셉은 찬들러에게 허락을 받은 후 두루마리를 집으로 가져가서 밤새 살펴보았다. 그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선지자의 삶에서 이집트가 중요한 역할을 했고, 또 니파이와 몰몬을 비롯한 몰몬경의 저자들이 모로나이가 “개정된 애굽어”라고 칭한 언어로⁵ 몰몬경을 기록했음을 알았다.

그 두루마리에 적힌 내용을 살펴보던 조셉은 구약의 축복사 아브라함이 남긴 중요한 가르침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튿날, 조셉은 찬들러를 만나 두루마리의 가격을 물었다.⁶ 찬들러는 두루마리와 미라는 따로 판매할 수 없으며, 둘을 합한 가격은 2,400달러라고 답했다.⁷

그것은 조셉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큰 금액이었다. 당시 성도들은 여전히 한정된 예산으로 성전을 완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고, 이제 커틀랜드에는 조셉에게 돈을 빌려줄 사람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조셉이 보기에 이 두루마리는 매우 가치 있는 물건이었다. 그는 서둘러 여러 사람과 함께 돈을 마련했다.⁸

조셉이 서기들을 두고 이 고대의 상징들을 해석하는 작업을 시작하자 성도들은 흥분에 휩싸였다. 성도들은 주님께서 곧 파피루스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밝혀 주시리라고 확신했다.⁹

조셉은 해석 작업을 하는 때가 아니면 방문객들도 직접 볼 수 있게 두루마리와 미라를 전시했다. 특히 에머는 이 유물들에 큰 관심을 보였다. 그녀는 조셉이 아브라함의 기록에서 이해한 바를

설명할 때마다 눈을 반짝이며 귀를 기울였다.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미라를 보여 달라고 부탁할 때면, 그녀는 종종 직접 유물들을 보여 주고 조셉에게 들은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었다.¹⁰

그 무렵의 커틀랜드 성도들은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성도들을 공격했고, 조셉과 시드니는 빛 때문에 마음이 천근만근이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에머는 자신의 주변 곳곳에서 주님의 축복을 목격할 수 있었다. 7월에 성전 건축 작업자들은 지붕 공사를 마무리하고 곧 높은 첨탑을 세우기 시작했다.¹¹ 건물은 아직 완공되지 않았지만, 조셉과 시드니는 이 건물에서 안식일 모임을 열기 시작했다. 설교를 들으러 오는 사람이 많을 때는 건물 안에 약 천 명까지도 사람들이 들어찼다.¹²

에머와 조셉의 집은 성전 가까이에 있었다. 그래서 에머는 자신의 집 마당에서 성전 건축 과정을 모두 볼 수 있었다. 이 무렵 알테머스 밀레트와 조셉 영은 성전 외벽에 청회색 회반죽을 바른 뒤 마름돌을 쌓아 올린 것처럼 보이게 하려 금을 긋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¹³ 어린이들은 알테머스의 지시에 따라 깨진 유리나 그릇 조각을 모으는 일을 도왔다. 이 조각들은 급게 갈려서 회반죽에 들어갔다. 햇살이 좋은 날, 그 회반죽이 발라진 성전 외벽은 유리 파편에 반사된 햇빛 때문에 마치 보석처럼 반짝거렸다.¹⁴

에머의 집은 언제나 사람들로 붐볐다. 스미스 가족의 집에는 그들 가족 외에도 많은 사람이 묵고 있었는데, 그 집에서 지내는 이들 중에는 교회의 새로운 인쇄소 운영자들도 몇 있었다. 교회의 인쇄소에서는 교회의 새로운 신문인 *메신저 앤드 애드보케이트* (*Latter Day Saints' Messenger and Advocate*) 발행 등 여러 가

지 일을 계획하고 진행했다. 이 인쇄소에서 출간한 책 중에는 에머가 윌리엄 펠프스의 도움을 받아 편집한 찬송가집도 있었다.¹⁵

이 찬송가집에는 다른 기독교 교회에서 쓰는 기존의 찬송가와 더불어 교회의 성도들이 만든 새로운 찬송가들이 함께 실렸다. 윌리엄 펠프스는 팔리 프렛 및 최근에 교회로 개종한 엘리자 스노우와 함께 몇 곡의 찬송가를 작곡했는데, 찬송가집 마지막 장에 실린 곡은 그가 쓴 “타는 듯한 하나님 영”이라는 성가였다. 이 곡에서 윌리엄 펠프스는 복음을 회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다.

인쇄소에서 출간될 예정인 또 다른 책으로는 교리와 성약이라는 이름의 계시 모음집이 있었다. 교리와 성약은 조셉과 올리버의 감독하에 편집되었는데, 이 책에는 결국 출간되지 못한 ‘계명의 책’에서 발췌된 계시들과 최근에 받은 계시들,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장로들에게 신앙을 주제로 전했던 여러 편의 강의가 수록되었다.¹⁶ 성도들은 교리와 성약을 성경과 물론경만큼이나 중요한 경전으로 여겼다.¹⁷

이런 작업들이 마무리되어 가던 그해 가을, 미주리 교회의 지도자들이 성전 헌납과 권능의 엔다우먼트를 준비하기 위해 커틀랜드로 건너왔다. 10월 29일, 에머와 조셉은 커틀랜드에 온 에드워드 파트리지 일행에 감사를 표하는 저녁 만찬을 준비했다. 모든 참석자가 일체감을 느끼며 기뻐하고 있을 때, 뉴얼 휘트니가 에드워드에게 이듬해에는 시온에서 만찬을 함께 들고 싶다는 소망을 전했다.

에머도 친애하는 마음으로 이들을 응시하며,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이 약속의 땅에서도 함께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는 말을 전했다.

조셉은 이들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¹⁸

만찬이 끝난 후, 조셉과 에머는 커틀랜드 고등평의회 모임에 참석했다. 이 모임에서 조셉의 남동생인 윌리엄은 의붓딸을 육체적으로 학대한 한 자매를 고발했다. 조셉과 윌리엄의 어머니인 루시 스미스가 이 사건의 증인 중 한 명이었다. 루시는 증언을 하던 중 평의회가 이미 보고받고 해결 지은 일을 거론했고, 이에 조셉이 루시의 발언을 제지했다.¹⁹

하지만 그것을 본 윌리엄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그는 지금 어머니의 말을 의심하는 것이냐며 조셉을 비난했다. 조셉이 윌리엄에게 자리에 앉아 달라고 요청했으나 윌리엄은 조셉의 말을 무시하고 그대로 서 있었다.

조셉은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쓰며 다시 말했다. “앉아 주십시오.”

윌리엄은 차라리 자신을 밀쳐 쓰러트리라고 하면서 이대로는 못 앉겠다고 버텼다.

이런 상황에 조셉의 마음도 동요되었다. 조셉이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조셉의 아버지가 그를 말리며 자리를 지키라고 설득했다. 조셉은 평의회에 요청하여 공청회를 이만 마치게 했다. 모임이 끝난 후, 겨우 마음이 가라앉은 조셉이 윌리엄에게 정중히 인사를 건넸다.

그러나 윌리엄은 불같이 화를 냈다. 그는 여전히 조셉이 잘못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²⁰

그 무렵, 스물두 살의 리디아 베일리는 하이럼 스미스와 그의 아내 제루샤에게 고용되어 이들 부부의 집에 있는 방문객용 숙소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녀는 조셉이 이삼 년 전에 시드니와 함께 캐나다로 단기 선교 사업을 갔을 때 침례를 준 개종자였다.²¹ 리디아는 개종 후 커틀랜드로 이주했고, 하이럼과 제루샤는 그런 그녀를 가족처럼 돌봐 주기로 약속했다.

리디아는 숙소 일로 쉴 새 없이 분주했다. 미주리의 교회 지도자들이 성전 헌납 준비차 커틀랜드에 와 있었기 때문에 리디아와 제루샤는 계속해서 그들의 식사를 준비하고 침대를 정돈하고 집을 치워야 했다. 하지만 손님들과 대화를 나눌 틈도 없는 와중에도 유독 한 사람이 리디아의 눈에 들어왔는데, 그는 바로 스미스 가족의 오랜 친구인 뉴얼 나이트였다.²²

하루는 일을 하던 중에 제루샤가 리디아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 “나이트 형제님은 부인과 사별했어.”

“그렇군요.” 리디아는 짐짓 관심 없다는 듯 대답했다.

제루샤가 말했다. “작년 가을에 그렇게 됐어. 정말 힘들어하셨지.”

리디아는 뉴얼이 겪은 상실에 대해 들으며 자신의 지난 아픔들을 떠올렸다.²³ 리디아는 열여섯 살에 캘빈 베일리라는 청년과 결혼을 했었다. 캘빈은 결혼 후 술을 많이 마셨고, 때때로 아내와 딸을 때렸다.

캘빈의 술 문제로 농장마저 잃게 된 이 가족은 더 좁은 집으로 쫓겨나듯 이사를 했다. 리디아는 그 집에서 아들을 낳았지만 아기는 하루도 살지 못하고 죽었다. 얼마 후에 리디아는 캘빈에게 버림을 받고 딸과 함께 친정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삶이 안정되어 가는 듯싶더니 딸이 아프기 시작했다. 딸을 잃은 리디아는 자신의 행복도 그걸로 끝이 났다고 생각했다. 리디아의 부모는 딸이 상실감을 이겨 낼 수 있도록 그녀를 캐나다에 있는 친구들에게로 보냈다. 리디아는 그곳에서 복음을 접하고 침례를 받았으며, 개종 후 서서히 행복과 희망을 회복해 나갔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외로웠기에 자신의 동반자가 되어 줄 누군가를 간절히 찾고 있었다.²⁴

어느 날, 스미스 가족의 집 2층에서 뉴얼이 리디아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만큼 당신도 외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 같군요. 우리가 서로에게 동반자가 되어 준다면 좋지 않겠습니까?”²⁵

리디아는 말 없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제 상황을 알고 계시는군요.” 리디아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배어 있었다. “전 제 남편이 어디에 있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알지 못하죠.” 리디아는 켈빈과 정식으로 이혼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뉴얼과 결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방을 나서며 말했다. “저는 정결하라는 계명을 어기거나 하나님 아버지를 거스르는 일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게 제 감정과 삶을 희생하는 일일지라도 말이죠.”²⁶

조셉은 윌리엄과의 언쟁이 있고 난 다음 날, 윌리엄에게서 편지 한 통을 받았다. 윌리엄은 고등평의회가 이번 일로 조셉이 아니라 자신을 비난한 것에 화가 나 있었다. 그는 고등평의회 앞에서 자신이 조셉을 탄압한 것은 타당한 행위였다고 믿었다. 윌리엄은 자신의 행동을 옹호하기 위해 조셉에게 사적으로 만날 것을 제의했다.²⁷

조셉은 윌리엄의 요구에 응하면서, 그날 일어난 일에 대해 각자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잘못을 인정하며 서로 사과하자고 다했다. 그리고 그는 집안에서 늘 중재자 역할을 해 주던 하이럼에게 이 일의 잘잘못을 공정하게 가려 달라고 부탁했다.²⁸

이튿날, 윌리엄이 집으로 조셉을 찾아왔다. 형제들은 돌아가면서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을 해명했다. 조셉은 윌리엄이 평의회 앞에서 부적절한 말을 하고 자신을 교회 회장으로 존중해 주지 않아 화가 났다고 털어놓았다. 윌리엄은 자신의 무례를 인정하지 않으며 계속해서 조셉을 탓했다.

하이럼은 신중하게 동생들의 말을 경청했다. 조셉과 윌리엄이 말을 마치자, 하이럼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윌리엄은 하이럼의 말을 끊으며 두 형이 모든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형들은 윌리엄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가 버렸다. 그날 오후, 윌리엄은 조셉에게 자신의 전도 허가증을 반납했다.

두 형제가 다투었다는 소식은 곧 커틀랜드 전역으로 퍼져 나갔다. 이 일로 평소 끈끈하던 스미스 가족들의 관계에 금이 갔고, 조셉의 형제자매들은 서로에게 등을 돌렸다. 조셉은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이 일을 교회에 반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 걱정되었다. 그래서 그는 윌리엄이 화를 가라앉히기를 바라며 동생과 거리를 두고 지냈다.²⁹

11월 초까지도 윌리엄의 비난은 그치지 않았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성도들 사이에서도 서로 편을 가르는 이들이 생겨났다. 사도들은 윌리엄의 행동을 규탄하며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그를 빼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러나 조셉은 십이사도 정원회가 윌리엄에게 인내할 것을 촉구하는 계시를 받았다.³⁰

조셉은 논쟁이 번지는 것을 보며 서글퍼했다. 지난 여름만 해도 성도들은 같은 목적을 바라보며 선의로 함께 일했으며, 이집트에서 온 기록을 입수하고 성전 건축에서 큰 진전을 보이는 등 주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지 않았던가.

그러나 이들은 권능의 엔다우먼트를 받을 날을 눈앞에 둔 지금까지도 생각과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었다.³¹

한편, 1835년의 가을 내내 뉴얼 나이트는 리디아 베일리와 결혼 하겠다는 마음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었다. 오하이오주에서는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성의 재혼이 합법임을 알게 된 뉴얼은 리디아에게 자신과 새 생활을 시작해 보자며 구애를 계속했다. 리디아도 뉴얼과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그녀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인지에 대한 확신이 필요했다.

뉴얼은 사흘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다. 사흘째 되는 날, 그는 하이럼에게 이 문제를 조셉을 통해 알아 봐 달라고 부탁했다. 하이럼은 그 제안에 흔쾌히 응했고, 뉴얼은 금식한 상태로 성전 건설 현장에서 일을 계속해 나갔다.

그날 오후, 하이럼은 여전히 건설 작업에 매진하고 있는 뉴얼을 다시 찾아갔다. 하이럼은 조셉이 주님께 여쭙 뒤 리디아와 뉴얼이 결혼해야 한다는 응답을 받았다고 전했다. 조셉은 이렇게 말했다. “결혼식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어떠한 법도 그들을 가로막을 수 없다고 전해 주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도 인간의 법률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뉴얼은 펴 듯이 기뻐했다. 그는 연장을 내려놓고 리디아가 일하는 곳으로 달려가서 소식을 전했다. 리디아 역시 뉴얼의 이야

기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두 사람은 관용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뉴얼은 그 자리에서 리디아에게 청혼했고, 리디아는 받아들였다. 뉴얼은 그런 다음에야 식당으로 달려가서 금식을 마쳤다.

바로 다음 날에 있을 결혼식은 하이럼과 제루샤가 준비해 주기로 했다. 리디아와 뉴얼은 결혼식 집행을 조셉에게 부탁하고 싶었지만, 그들은 조셉이 결혼식을 집행해 본 경험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게다가 그에게 법률적인 권한이 있는지도 확실치 않았다.

다음 날, 결혼식에 사람들을 초대하던 하이럼이 아직 두 사람을 부부로 맺어 줄 사람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을 때, 조셉이 반가운 목소리로 소리쳤다. “잠깐만요! 제가 결혼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오하이오주의 법은 정식으로 조직된 교회의 성직자라면 누구든 결혼식을 집행할 권한이 있음을 인정했다.³²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셉은 자신은 뿔기세택 신권의 직분이 있기에 결혼식을 집행할 신성한 권리 역시 있다고 확신했다. 조셉은 이렇게 말했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는 제게 결혼의 성스러운 테두리 안에서 사람들을 결합시킬 권세를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그 특권을 사용하겠습니다.”

저녁을 앞둔 11월의 쌀쌀한 저녁, 하이럼과 제루샤는 자신들의 집으로 하객들을 맞아들였다. 피로연 음식이 내뿜는 기분 좋은 향기 속에서 성도들은 결혼식을 축하하며 함께 기도하고 노래했다. 조셉은 자리에서 일어나 리디아와 뉴얼의 손을 잡고 앞으로 이끌었다. 그는 결혼은 하나님이 에덴동산에서 제정하신 것이고, 이 의식은 영원한 신권 아래 집행되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조셉은 리디아와 뉴얼을 바라보았다. 그는 두 사람이 평생 남편과 아내로서 삶을 함께하겠다는 성약을 맺게 했다. 조셉은 이들이 부부가 되었음을 선언하고, 새로운 가정을 시작할 이들을 북돋우며 오랫동안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축복을 주었다.³³

리디아와 뉴얼의 결혼은 암울한 조셉의 겨울에 온기를 가져다 주었다. 조셉은 윌리엄과 사이가 벌어진 일의 영향으로 이집트에서 온 두루마리나 권능의 엔다우먼트를 위해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일 등에 집중하지 못했다. 그는 주님의 영을 따르며 밝은 마음으로 성도들을 이끌고자 노력했지만, 가족 간에 분란이 생긴 상황에서 교회를 이끄는 책임을 수행하는 것은 몹시도 힘든 일이었다. 그래서 조셉은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종종 모진 말을 하기도 했다.³⁴

12월에 윌리엄은 자신의 집에서 비공식적인 토론회를 열기 시작했다. 조셉은 그 토론이 영으로 배우고 가르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참석했다. 처음 두 번의 모임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세 번째 모임에서 윌리엄이 토론 중에 다른 사도의 말을 방해하자 방 안 분위기는 금세 경직되었다.

몇몇 사람들은 이 모임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자 윌리엄은 화를 냈고, 사람들은 서로 언쟁을 벌였다. 이를 가만 두고 볼 수 없었던 조셉도 곧 논쟁에 개입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급기야 조셉과 윌리엄은 상대방을 모욕하기에 이르렀다.³⁵ 이들의 아버지인 조셉 스미스 일세가 두 아들을 진정시켜 보려 했지만, 그들의 귀에는 어떤 말도 들리지 않는 듯했다. 결국 윌리엄은 조셉에게 덤벼들었다.

조셉은 허둥지둥 외투를 벗으려다 소매에 팔이 걸리면서 그대로 윌리엄의 손에 잡혔다. 조셉은 윌리엄의 억센 주먹에 셀 수도 없이 얻어맞았다. 타르와 깃털 칠을 당했던 일로 아직도 상처 투성이인 조셉의 몸은 더 심하게 상했다. 윌리엄은 몇몇 형제들이 달려들어 말린 후에야 겨우 조셉에게서 떨어졌다. 조셉은 꼼짝 못한 채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³⁶

머칠 뒤 몸이 나아질 즈음 조셉은 윌리엄에게 전갈을 받았다. 윌리엄은 “겸손하게 내 잘못을 고백해야만 한다는 느낌이 들었어.”라고 말했다. 윌리엄은 자신이 부름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생각에 두려워하며 자신을 십이사도 정월회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³⁷

그는 이렇게 간청했다. “내가 한 일 때문에 나를 버리지 말아 줘, 형. 나를 구원하기 위해 부디 애써 줘. 그간 형에게 한 일들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어.”³⁸

조셉은 화해하고 싶다는 뜻을 적어 윌리엄에게 답장을 보냈다. “나도 하나님께서 나와 나 사이의 적개심을 거두어 주시기를, 또 모든 축복이 회복되고, 과거는 영원히 잊히기를 바라고 있어.”³⁹

새해 첫날, 조셉과 윌리엄은 아버지와 형 하이럼과 함께 모였다. 조셉 스미스 일세는 아들들을 위해 기도했으며, 아들들에게 서로 용서하라고 간청했다. 조셉은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과 윌리엄의 반목이 아버지에게 매우 큰 고통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방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가득했고, 조셉은 마음이 녹아내렸다. 윌리엄도 깊이 뉘우치는 얼굴이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조셉에게 용서를 구했다.

조셉은 자신도 잘못이 있음을 알기에 동생에게 사과했다. 그런 후 두 사람은 서로 복돋우고 서로의 차이점을 온유한 마음

으로 극복하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다.

조셉은 아내와 어머니를 방으로 불러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이 언약을 재차 맺었다. 두 사람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조셉은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드렸다.⁴⁰



하나님의 영

조셉은 윌리엄과 화해한 뒤 다시 성전을 완공하는 데 집중했다. 성전은 유럽의 높다란 대성당에 비하면 아담했지만, 오하이오에 있는 대부분의 건물보다는 규모가 월등히 컸다. 성전의 화려한 종탑과 나무 위로 살짝 솟은 반짝이는 붉은 지붕은 커틀랜드로 들어오는 여행자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반짝이는 회벽과 화려한 초록 문, 고딕 양식의 뾰족한 창문이 달린 커틀랜드 성전은 눈이 부시게 아름다웠다.¹

1836년 1월 말이 되자 성전 내부는 공사가 거의 완료되었다. 조셉은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성스러운 권능의 엔다우먼트를 받을 수 있도록 교회의 지도자들을 준비시켰다. 사실 성도들은 엔다우먼트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지 못했다. 조셉은 구약전서에서 모세가 아론의 제사들에게 씻음과 기름 부음을 행했던 것처럼

자신이 신권에 성임된 남성들에게 상징적으로 씻음과 기름 부음 의식을 집행한 후에 엔다우먼트가 주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²

또한, 성도들은 신약전서에서 엔다우먼트에 대한 통찰이 담긴 구절들을 읽어 알고 있었다. 신약전서에서 예수님은 부활 후 사도들에게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는 복음을 전파할 목적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하셨다. 그리고 나중에 오순절 날 사도들이 이 권능을 받았을 때, 영이 마치 급한 바람처럼 그들에게 임했으며, 사도들은 방언을 했었다.³

엔다우먼트를 준비하는 성도들은 자신들에게도 영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마음 깊이 바랐다.

1월 21일 오후, 조셉은 자신의 보좌들과 아버지와 함께 성전 뒤편에 있는 인쇄소의 다락으로 올라갔다. 그곳에서 그들은 깨끗한 물로 자신들을 위해 상징적인 씻음 의식을 한 뒤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축복했다. 씻음 의식을 마친 일행은 인쇄소 바로 앞에 있는 성전으로 갔다. 그곳에서 그들은 커틀랜드 및 시온의 감독단과 함께 서로의 머리에 성별된 기름을 붓고 축복을 주었다.

조셉의 차례가 되자 조셉의 아버지가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후기의 모세로서 교회를 이끌도록 축복하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을 주었다. 그리고 뒤이어 조셉의 보좌들도 조셉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를 축복했다.⁴

의식이 끝난 후, 조셉의 눈 앞에 하늘이 열리고 미래에 관한 시현이 펼쳐졌다. 제일 먼저 그가 보게 된 것은 해의 왕국이었다. 해의 왕국의 아름다운 문은 불꽃처럼 타올랐다. 조셉은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또한 그는 구약전서의 선지자인 아담과 아브라함을 보았으며, 그

들 곁에는 조셉의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조셉의 형 앨빈도 함께 있었다.

조셉은 형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앨빈은 모로나이가 처음으로 방문한 뒤 얼마 안 가서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앨빈은 합당한 권세 아래 침례를 받을 기회가 없었다. 그런데 그런 앨빈이 어떻게 해의 영광을 상속받을 수 있었던 것일까? 물론 조셉의 가족은 앨빈이 지옥에 있다던 목사의 말을 믿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앨빈의 영원한 운명을 어떤 식으로도 전혀 짐작하지 못하고 있었다.

앨빈을 보고 놀라워하던 조셉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은 자로서 만일 머물기를 허락받았다면 그것을 받아들였을 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해의 왕국의 상속자가 되리라.”

주님은 모든 인간이 자신의 행위와 마음속 소망을 근거로 심판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다. 앨빈과 같은 상황에 놓인 이들은 지상에서 충분히 기회를 얻지 못했기에 그것을 이유로 정죄받지는 아니할 것이었다. 또한 그분은 조셉과 에머가 저세상으로 떠나 보낸 네 명의 아기들처럼, 책임을 질 수 있는 연령에 이르기 전에 죽은 모든 어린아이들도 해의 왕국에서 구원을 얻게 되리라고 가르치셨다.⁵

시현이 닫힌 후, 조셉과 그의 보좌들은 다른 방에서 기도를 드리며 그들을 기다리던 커틀랜드 및 시온의 고등평의회 일원들에게 기름 부음 의식을 행했다. 의식을 마치자 이들 앞에 더 많은 하늘의 시현이 펼쳐졌다. 어떤 이들은 천사들을 보았고, 또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았다.

영으로 충만해진 형제들은 그 밤이 다 가도록 앞으로 다가 올 일을 예언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⁶

그로부터 두 달이 지난 1836년 3월 27일 아침, 리디아 나이트는 다른 성도들과 어깨를 맞대고 성전 회당에 앉았다. 안내자들은 최대한 많은 사람을 회당 안으로 안내하려 했고, 사방은 발 디딜 틈 없이 인파로 가득 찼다. 실내는 천여 명의 성도들로 북적였다. 전면에 있는 출입구 밖에서는 실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안에 자리가 생기기를 바라며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⁷

리디아는 넉 달 전에 뉴얼과 결혼한 뒤로 이미 몇 차례 성전에 와 본 적이 있었다. 이들 부부는 종종 성전에 와서 함께 설교나 신앙에 관한 신학 강의를 들었다.⁸ 그러나 오늘 리디아가 성전에 온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었다. 오늘 성도들은 성전에 모여 완공된 이 건물을 주님께 헌납할 것이었다.

리디아가 앉은 자리에서 보이는 회당의 양 끝에는 세 줄로 된 연단이 있었다. 아름다운 목각 장식을 한 그 연단 너머에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다. 리디아의 정면은 성전의 서쪽 끝부분으로, 제일회장단과 멜기세덱 신권 지도자들이 앉을 설교단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리고 리디아의 뒤쪽에 있는, 성전의 동편 벽에는 감독단과 아론 신권 지도자들이 앉는 연단이 벽을 따라 놓여 있었다. 미주리주 고등평의회의원인 뉴얼은 이 연단 옆에 따로 마련된 자리에 앉았다.

리디아는 헌납식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면서, 회당을 떠받치는 높은 기둥들과 연단에 새겨진 아름다운 목각 장식을 경이로

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측면 벽에 난 높은 창을 통해 때이른 아침 햇살이 회당 안으로 쏟아지고 있었다. 건물 천장에는 커다란 휘장이 달려 있었는데, 이 휘장은 필요할 때 회중석 사이로 내려서 회당의 공간을 분리할 수 있었다.⁹

조셉은 경내에 더는 빈 자리가 보이지 않자, 연단에서 일어나 좌석을 찾지 못한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그는 성전 근처에 있는 인쇄소 1층의 교실에서 별도의 모임을 열겠다고 제안했다.¹⁰

몇 분 뒤 경내가 정리되자 시드니가 헌납식의 시작을 알렸다. 개회 이후 시드니는 힘찬 어조로 두 시간가량 말씀을 전했다. 뒤이어 잠깐의 휴식 시간이 주어졌지만 거의 모든 회중은 그대로 자리를 지켰다. 그리고 마침내 조셉이 앞으로 나와 전날 올리버와 시드니의 도움으로 준비한 헌납 기도를 올렸다.¹¹

조셉은 이렇게 기도했다. “오 주여, 우리가 당신께 비옵나니, 당신께서 우리에게 짓도록 명하신 바 곧 당신의 종들인 우리의 손으로 지은 이 집을 받아 주시옵소서.” 조셉은 선교사들이 지상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권능으로 무장하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구했다. 또 그는 미주리의 성도들에게 축복이 임하기를 간구하고,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과 흩어진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했다.¹²

조셉은 주님께 이 성도들에게 권능을 부여해 주실 것을 간청했다. “당신의 성역자들의 기름 부음이 높은 곳에서 오는 권능으로 그들 위에 인봉되게 하시옵소서. 당신의 종들 위에 성약의 증거를 두사, 그들이 나아가 당신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들로 율법을 인봉하게 하시고 … 당신의 성도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그는 고대의 사도들이 경험했듯이 휘몰아치는 강풍처럼 주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해지기를 간구했다.¹³

“오 들으소서. 오 들으소서. 오 우리 기도를 들으소서. 오 주여! 이러한 간구에 응답해 주시고, 이 집을 당신께 헌납하오니, 받아 주[소서.]”¹⁴

조셉이 “아멘.” 하고 기도를 마치자, 합창단이 윌리엄 펠프스가 새로 작곡한 찬송가를 불렀다.

타는 듯한 하나님의 영 충만하여
후기의 영광이 내림하누나
옛날의 시현과 축복 회복되오며
천사들도 세상 다시 찾아 주네⁵

리디아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회당에 들어찬 성도들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과 한 목소리로 외쳤다. “호산나! 호산나! 하나님과 어린 양께 호산나!”¹⁶

성전 헌납이 완료된 후, 커틀랜드는 주님의 영광과 권능에 휩싸였다. 그날 저녁에 성전에 모인 조셉과 교회 지도자들은 구주의 사도들이 오순절에 경험했던 것처럼 방언을 말했다. 어떤 이들은 방언하는 사람들 위로 하늘의 불이 임하는 것을 보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천사들을 보았다. 성전 밖에 있던 성도들은 성전 위에 드리운 밝은 구름과 불기둥을 목격했다.¹⁷

3월 30일, 조셉과 그의 보좌들은 다시 한 번 성전에 모였다. 그들은 구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하셨듯이 십이사도와 칠십인, 그리고 선교 사업에 부름받은 형제들까지 약 300명에 달하는 교회 지도자들의 발을 씻겨 주고자 했다. 조셉은 이렇게 선포했다. “지금이 바로 우리의 희년이요, 기쁨의 시기입

니다.” 성전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금식을 하고 있었다. 조셉은 미리 몇 사람에게 부탁하여 이 자리에서 쓸 빵과 포도주를 사 오게 했고, 또 다른 몇몇에게는 물을 준비해 달라고 부탁해 두었다.

조셉과 그의 보좌들은 먼저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들의 발을 씻긴 후, 차례로 다른 정원회의 발을 닦아 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했다.¹⁸ 이들은 몇 시간 동안 서로를 축복하고 예언하며 호산나를 외쳤다. 초저녁이 되자 성전에 빵과 포도주가 도착했다.

십이사도가 빵을 자르고 포도주를 따르는 동안, 조셉은 말씀을 전했다. 조셉은 그들이 커틀랜드에서 지낼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주님께서는 권능을 부여하여 그들을 선교사로 보내실 예정이었다. 조셉이 말했다. “온유함과 진지함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치십시오.” 조셉은 그들에게 종교적인 믿음을 두고 논쟁을 벌이지 않도록 지시하고, 우리의 신앙에 끝까지 충실할 것을 권고했다.

“온 민족에게 왕국의 열쇠에 대해 증언하고, 복음의 문을 열어 주어, 칠십인들이 여러분의 뒤를 따르게 하십시오.” 조셉은 이제 교회의 조직이 완성되었으며,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주님께서 이 시대에 이들을 위해 마련하신 의식을 모두 받았다고 선언하며 이렇게 말했다.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십시오.”

조셉과 그의 보좌들은 집으로 돌아갔고, 이제 십이사도가 남은 모임을 이끌었다. 또 한 번 성전은 영으로 충만해졌다. 그들은 예언과 방언을 했으며, 복음 안에서 서로에게 권면했다. 천사의 성역을 본 이도 있었고, 구주의 시현을 본 이도 있었다.

영의 현시는 끊임없이 이어졌고, 이 일은 새벽까지 계속되었다. 성전 문을 나서는 지도자들은 조금 전까지 경험한 기적과 영광으로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가슴이 벅찼다. 그들은 자신이 권능을 받았고, 이제 정말 세상에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었음을 느꼈다.¹⁹

성전이 헌납되고 일주일만 지난 부활절 일요일 오후, 천여 명의 성도들은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렸다. 십이사도가 회중을 위해 주님의 만찬을 집행한 후, 조셉과 올리버는 성전 회당 서편에 있는 가장 높은 설교단 둘레로 휘장을 쳤다. 두 사람은 회중이 보지 못하는 휘장 안쪽 공간에서 조용히 무릎을 꿇고 기도드렸다.²⁰

두 사람이 기도를 마쳤을 때, 구주께서 그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셨다. 그분은 태양보다도 더 밝게 빛나는 얼굴과 불꽃처럼 빛나는 두 눈, 그리고 눈처럼 하얀 머리칼을 하고 계셨다. 그분은 순금처럼 빛나는 설교단 흥벽 위에서 계셨다.²¹

구주께서 격류와 같은 소리로 말씀하셨다. “그 힘을 다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집을 지은 나의 모든 백성은 마음으로 기뻐할지어다. 이는 보라, 내가 이 집을 받아들였고 내 이름이 여기에 있을 것이며, 내가 이 집에서 자비 가운데 나의 백성에게 나 자신을 나타낼 것임이니라.”²² 주님은 성도들에게 성전을 성스럽게 지키라고 명하시며, 그들에게 권능의 엔다우먼트가 내려졌음을 확인해 주셨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셨다. “참으로 수천 수만의 마음은 이 집에서 부어질 축복과 나의 종들이 이 집에서 받은 엔다우먼트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리라.

주님은 마지막으로 이런 약속을 주셨다. “이 집의 명성은 외국에까지 퍼지리니, 이는 나의 백성의 머리 위에 부어질 축복의 시작이니라.”²³

조셉과 올리버 주위로 펼쳐지던 시현이 닫힌 후, 곧 다시 한번 하늘이 열렸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바로 앞에 선 모세를 보았다. 모세는 성도들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의로운 이들을 시온으로 데려올 수 있도록 두 사람에게 이스라엘을 집합하기 위한 열쇠들을 맡겼다.

뒤이어 나타난 일라이어스는 이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음의 경륜의 시대를 맡겼다. 일라이어스는 그들과 그들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대가 복을 받으리라고 말했다.

일라이어스가 떠난 뒤, 또 하나의 영광스러운 시현이 펼쳐졌다. 조셉과 올리버는 구약전서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광경을 시현으로 보았다.

엘리야는 구약전서에 나오는 자신의 예언, 즉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이켜지리라고 했던 예언을 들어 이렇게 선포했다. “말라기의 입으로 말한 바 된 그때가 완전히 이르렀나니 ...

이 경륜의 시대의 열쇠들이 너희 손에 맡겨지나니, 이로써 너희가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 수 있으리라.”²⁴

모든 시현이 닫히고, 이제 휘장 안에는 조셉과 올리버 두 사람만 남아 있었다.²⁵ 설교단 뒤편에 있는 둥근 창으로 햇살이 비쳐 들었지만, 조금 전까지 순금처럼 빛나던 홍벽은 이제는 빛을 잃고 평범한 모습으로 남아 있었다. 우레와 같이 그들을 뒤흔들

던 하늘의 음성은 어느덧 사라지고, 휘장 너머에서 성도들이 움직이는 나직한 소리들이 두 사람의 귀를 두드렸다.

조셉은 이 사자들이 그들에게 중요한 신권 열쇠들을 주었음을 알았다. 나중에 조셉은 성도들에게 엘리야가 신권 열쇠들을 회복해 주었음을 알렸다. 그 열쇠들은 가족을 영원히 인봉하고, 땅에서 매인 것을 하늘에서도 매이게 하며, 부모를 자녀에게, 자녀를 부모에게 연결시킬 것이었다.²⁶

성전 헌납 후 며칠에 걸쳐, 권능의 엔다우먼트로 강화된 선교사들이 복음 전파를 위해 세계 만방으로 파송되었다. 파트리지 감독을 비롯한 미주리에서 온 여러 성도들도 시온을 건설하겠다는 결의를 다시 한 번 불태우며 서부로 떠났다.²⁷

리디아와 뉴얼 나이트도 그들의 대열에 끼고 싶었지만, 두 사람은 그럴 만한 돈이 없었다. 뉴얼은 커틀랜드에서 지내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성전 건축 현장에서 보수 없이 일했었고, 리디아는 처음 이곳에 올 당시 수중에 있던 돈의 대부분을 조셉과 교회에 빌려준 터였다. 두 사람 다 그런 희생을 치른 것을 후회하지 않았지만, 리디아는 그 돈을 갖고 있었더라면 여비를 하고도 남았으리라는 생각에 안타까워했다.

부부가 여비 마련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때, 조셉이 그들을 찾아왔다. “뉴얼 형제님, 서부의 보금자리로 곧 떠나시겠군요. 준비는 잘 되셨습니까?”

조셉의 질문에 뉴얼은 “아직은 준비가 좀 부족하네요.”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조셉은 리디아를 향해 이렇게 말했다.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자매님이 넓은 마음으로 저를 도와주셨던 일을 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 조셉은 밖으로 나가서 리디아에게 빌렸던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들고 다시 돌아왔다.

조셉은 두 사람에게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나서는 여정이 편안할 수 있도록 이 돈을 경비에 보태라고 당부했다. 하이럼 역시 미주리까지 가는 증기선을 탈 오하이오강까지 자신의 마차로 그들 부부를 데려다 주겠다고 자청했다.

부부가 길을 떠나기 전, 조셉 일세는 이들의 집을 찾아와 리디아에게 축복을 주었다. 약 1년 전에 주님은 조셉 일세를 교회의 축복사로 부르시고,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야곱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었던 것처럼 성도들에게 축복사의 축복을 주도록 권세를 부여하셨다.

조셉 일세는 리디아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녀에게 축복을 주었다. “그대는 과거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마음에 고통을 느꼈느니라. 그러나 그대는 위로를 받으리라.”

조셉 일세는 주님께서 그녀를 사랑하시며, 뉴얼을 보내셔서 그녀를 위로하게 하셨다고 말했다. 그리고 축복사는 리디아에게 이렇게 약속했다. “두 사람은 영혼으로 하나가 되리니, 고통과 죽음은 물론 그 무엇도 그대들을 갈라놓지 못하리라. 그대는 목숨이 보존될 것이며 안전하고 신속하게 시온의 땅으로 가게 되리라.”²⁸

축복을 받은 리디아와 뉴얼은 교회와 시온의 미래를 낙관하며 미주리를 향해 길을 나섰다. 주님은 성도들에게 권능의 엔다우먼트를 부여하셨고, 커틀랜드는 성전의 높은 첨탑 아래서 번

영을 이룩해 나갔다. 성도들은 이 기간에 받은 시현과 축복을 통해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었다. 이제 지상과 천국의 사이에 드리워진 휘장이 활짝 열릴 날이 곧 임박하는 듯했다.²⁹

제3부



깊은 물에 던져질지라도

1836년 4월~1839년 4월

네가 구덩이에나 살인자들의 손에 던져지고
사형이 네게 선고될지라도, 네가 깊은 물에 던져질지라도,
몰아치는 큰 파도가 너에 대하여 음모를 꾸밀지라도,
맹렬한 바람이 네 원수가 될지라도, 여러 하늘이 흑암을
몰아오고 모든 원소가 힘을 합쳐 길을 가로막을지라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옥의 바로 그 턱이 입을 크게
벌려 너를 삼키려 할지라도, 내 아들이, 이 모든
일이 네게 경험이 되고 네 유익이 될 줄 알라.

교리와 성약 122:7



1836~1839



미주리

• 아담-온다이-아만

갤러틴 • 그랜드강



데이비스군



파웨스트 •



• 혼즈밀

콜드웰군
크리크

캐럴군

클레이군



• 리버티

브류트강

레이군

미주리강



• 디윗

• 인디펜던스

잭슨군

영국 선교부
(1837년)

프레스턴 •

리버풀 •

• 위커폴드

• 맨체스터

그레이트브리튼

헤리퍼드셔 •





주님을 시험하라

성전이 헌납된 후, 조셉은 커틀랜드에 깃든 희망과 선의의 분위기를 만끽했다.¹ 1836년 봄 내내 성도들은 풍성한 영적 은사들을 목격했다. 눈부신 흰옷을 입고 성전 지붕에 서 있는 천사들을 목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일각에서는 혹시 이미 복천년이 시작된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났다.²

조셉은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증거를 어디서든 볼 수 있었다. 5년 전에 조셉이 커틀랜드에 처음 이주해 왔을 때만 해도 교회는 혼란스럽고 무질서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을 더욱 온전히 받아들여, 마침내 이 작은 마을을 시온의 굳건한 스테이크로 일궈 냈다. 성전은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고 협력할 때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증거가 되었다.

이런 커틀랜드의 성공이 기쁘기는 했지만, 조셉은 잭슨군 외곽의 미주리강을 따라 작은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있는 미주리

의 성도들에 대한 걱정으로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다. 조셉과 그의 보좌들은 장로들이 권능의 엔다우먼트를 받은 이후 시온을 구속하리라고 하셨던 주님의 약속을 믿었지만, 그 약속이 언제, 어떻게 실현될지는 전혀 알 수 없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시온으로 눈을 돌려 주님의 뜻을 알고 자 금식을 하고 주님께 기도를 드렸다.³ 그러면서 조셉은 주님께 서 성도들에게 잭슨군 안팎의 땅을 모두 사들이라고 하셨던 계시를 떠올렸다.⁴ 이미 성도들은 클레이군에 있는 땅을 일부 사들이고 있었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문제는 더 많은 땅을 매입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데 있었다.

4월 초 무렵, 조셉은 교회의 재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교회 인쇄소 직원들을 만났다. 그들은 시온을 구속하기 위해 성도들이 가진 자원을 모두 바쳐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들은 미주리에서 더 많은 땅을 살 수 있도록 조셉과 올리버가 앞장서서 기금을 모금하는 방안을 추천했다.⁵

하지만 불행히도 교회는 땅을 사고 성전을 짓는 과정에서 이미 수만 달러의 빚을 지고 있었기에, 선교사들이 기부금을 모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커틀랜드의 교회는 여전히 자금난에 시달렸다. 회원들 다수가 재산을 토지 형태로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금을 기부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이렇듯 현금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부채를 정리하거나 시온에서 더 많은 땅을 사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다.⁶

다시 한번 조셉은 주님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그 무렵, 팔리 프랫은 커틀랜드에서 북쪽으로 320여 킬로미터 떨어진 캐나다 남부의 해밀턴이란 도시 외곽에 있었다. 권능의 엔다우먼트를 받은 이후 처음으로 선교 사업을 나온 팔리는 그 지방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인 토론토로 향하는 중이었다. 빈털터리 신세로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땅에 발을 들인 그는 이곳에서 주님께서 자신에게 명하신 일을 어떻게 완수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했다.

몇 주 전, 십이사도와 칠십인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커틀랜드를 떠날 때까지만 해도 팔리는 가족과 함께 집에 머물 예정이었다. 커틀랜드에 있는 많은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대출을 받아 그 지역에서 땅을 사고 집을 짓느라 큰 빚을 안고 있었다. 그 뿐 아니라, 몸이 아파 자신의 손길이 필요한 아내 생크폴도 걱정이었다. 팔리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선교 사업을 나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다.⁷

그러던 중 팔리는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히버 김볼에게서 축복을 받았다. 히버는 친구이자 동료 사도로서 그에게 다음과 같은 축복을 주었다. “의심하지 말고 나아가 성역을 행하라. 그대가 진 빛과 삶에 필요한 것들은 생각하지 말라. 그대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주님께서 풍성히 마련해 주시리라.”

히버는 자신이 받은 영감에 따라 팔리에게 토론토로 떠날 것을 권고하며, 그곳에서 복음의 충만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들을 찾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었다. 그는 팔리가 영국에서 수행될 선교 사업의 기초를 놓을 것이며, 부채에서도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축복했다. “그대는 부와 은과 금을 얻게 되리니, 그 재물을 세는 일에 싫증을 낼 지경에까지 이르지니라.”

히버는 생크풀에 대해서도 축복했다. “그대의 아내는 이 시간부터 치유되어 아들을 낳으리라.”⁸

놀라운 축복이었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팔리는 전에 선교 임지에서 큰 성공을 거둔 경험이 있기는 했으나 토론토는 그에게 완전히 새롭고 낯선 땅이었다. 또 평생 큰돈을 벌어 본 적이 없는 그가 빚을 갚을 돈을 선교 사업 중에 얻을 것 같지도 않았다.

무엇보다도 제일 가망이 없어 보이는 약속은 생크풀에 대한 것이었다. 거의 마흔이 다 된 생크풀은 몸이 약하고 자주 병을 앓았다. 팔리와 생크풀은 결혼한 지 십 년이 지나도록 아직 자녀가 없었다.⁹

그러나 주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이 있었던 팔리는 역마차에 몸을 싣고 진창길을 달리며 북동쪽으로 향했다. 그는 나이아가라 폭포에 도달하여 캐나다로 들어간 이후부터는 도보로 해밀턴까지 갔다. 팔리는 곧 향수병과 선교 사업의 방대한 책임으로 압도되고 말았다. 약속된 축복의 실현이 너무도 까마득하게만 보이는 상황에서 그는 이제 자신이 축복에 대한 신앙을 어떻게 행사해야 할지 간절히 알고 싶었다.

그러던 중 그는 불현듯 다음과 같은 영의 속삭임을 느끼게 되었다. “주님을 시험하라. 그리고 그분이 하지 못하실 일이 있는지 보라.”¹⁰

한편, 미주리에 사는 열두 살 소녀인 에밀리 파트리지는 클레이 군에 다시 찾아온 봄을 보며 안도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성전 헌납을 위해 커틀랜드로 떠나 있는 동안, 에밀리네 가족은 방 한 칸

짜리 통나무집에서 존 코릴과 그의 아내 마거릿 가족과 함께 지냈다. 존은 감독인 아버지 팔리의 보좌였다. 이 두 가족이 들어오기 전까지 이 통나무집은 원래 마구간이었지만, 에밀리의 아버지와 코릴 형제는 퇴비를 치우고 바닥을 덮어 이곳에 가족들이 살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실내에는 다행히 큰 벽난로가 있었고, 가족들은 그 주변에 모여 몸을 녹이며 혹독한 겨울을 견뎠다.¹¹

봄이 되자, 에밀리의 아버지는 다시 감독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미주리로 돌아왔다. 에밀리의 아버지를 비롯해 커틀랜드에서 권능의 엔다우먼트를 받은 교회의 지도자들은 시온의 미래를 낙관하는 듯 보였다.¹²

날이 풀리자 에밀리는 다시 학교에 다닐 준비를 시작했다. 성도들은 클레이군에 도착하자마자 과수원 근처에 있는 오두막 건물에 학교를 설립했다. 에밀리는 과수원에서 친구들과 노는 것과, 머리 위로 드리운 가지에서 떨어진 과일을 주워 먹는 것을 좋아했다. 에밀리와 친구들은 쉬는 시간이면 나뭇가지로 집을 만들고 덩굴로 줄넘기를 하고 놀았다.¹³

에밀리의 반 친구들은 대부분이 교회 회원이었지만, 개중에는 그 지역에서 오래 정착해 살아온 가정의 아이들도 있었다. 보통 그런 아이들은 에밀리와 같은 가난한 집의 아이들보다 더 좋은 옷을 입었고, 몇몇은 낡고 헤진 옷을 입은 어린 성도들을 놀리기도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그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런대로 잘 어울렸다.

그러나 부모들은 그렇지 않았다. 점점 더 많은 성도들이 클레이군으로 들어와 계속해서 땅을 사들이자 기존 정착민들은 갈수록 불안해지고 초조해졌다. 그들도 처음에는 이주해 오는 성도

들을 환영했고, 성도들이 강 건너에 두고 온 자기네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잠시 지낼 피난처도 내 주었었다. 그들은 성도들이 클레이군에 집을 짓고 영구적으로 살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¹⁴

처음에는 성도들과 이웃 주민들 사이의 이런 긴장감이 에밀리의 학교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거의 없었지만,¹⁵ 봄이 무르익어 가고 이웃 주민들의 적대감이 커지자, 에밀리와 가족들은 잭슨군에서 겪었던 악몽이 되풀이되어 다시 집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워졌다.

팔리는 계속해서 북쪽으로 나아가면서, 자신이 목표한 곳에 이를 수 있기를 바라며 주님의 도움을 구했다. 그는 얼마 후에 만난 한 남성에게서 현금 10달러와 함께 토론토에 사는 존 테일러를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하는 소개장을 받았다. 팔리는 그 돈으로 토론토까지 가는 증기선 표를 끊을 수 있었고, 곧 테일러의 집에 도착했다.

존 테일러와 레오노라 테일러는 영국에서 온 젊은 부부였다. 팔리는 이 부부와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이 성경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교리는 모두 거부한다고 주장하는 한 기독교 단체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팔리를 만나기 얼마 전에 존과 레오노라는 금식을 하며 참된 교회의 사자를 보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했었다.

하지만 그들은 팔리가 말하는 회복된 복음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이튿날 아침, 팔리는 테일러의 집에 가방을 맡겨 두고 근처 성직자들을 찾아가 자신을 소개했다. 팔

리는 그들의 신도들에게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하고자 했다. 그 외에도 팔리는 법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집회를 열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시의 관료들도 만나 보았다. 하지만 그의 요청은 번번이 거절당했다.

낙담한 그는 근처 숲으로 가서 기도를 드린 후, 테일러의 집으로 돌아와 가방을 챙겼다. 팔리가 집을 나서려던 찰나, 존 테일러가 그를 불러 세웠다. 존은 팔리에게 자신은 성경을 소중히 여긴다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¹⁶ “프랫씨, 어떤 종류의 원리를 가르치든지 간에 가능하시다면 성경으로 그 원리를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했다. 팔리는 존에게 사도와 선지자를 믿느냐고 물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요.”

존의 대답에 팔리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죄 사함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침례와 성신의 은사를 위한 안수례를 가르칩니다.”

그러자 존은 “그렇다면, 조셉 스미스와 몰몬경, 그리고 당신의 교회에 주어졌다는 새로운 계시들은 어떻습니까?”라고 물었다.

팔리는 조셉 스미스가 정직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간증했다. 그런 다음, 그는 이렇게 말했다. “몰몬경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죠. 선생께서 성경의 참됨에 대해 간증할 수 있는 것처럼 저도 이 책에 대해 강력하게 간증할 수 있습니다.”¹⁷

그렇게 대화를 나누던 팔리와 존은 다른 방에서 레오노라가 이웃인 이사벨라 월턴과 나누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레오노라는 이사벨라에게 이렇게 말했다. “미국에서 한 신사분이 오

셨는데, 주님께서 자신을 이 도시로 보내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제 떠나신다고 하니 아쉬워요.”

그러자 이사벨라가 말했다. “그분에게 저희 집에 묵으라고 말씀해 주세요. 저희 집에는 빈방과 침대도 있고, 음식도 많답니다.” 이사벨라의 집에는 그날 밤 팔리가 그녀의 친구와 친척들을 가르칠 수 있는 공간도 있었다. 이사벨라가 말했다. “그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이 될 가르침을 전하시기 위해 여기로 보내 주신 사람 같다는 영의 속삭임이 느껴져요.”¹⁸

팔리와 대화를 마친 존은 몰몬경을 읽으면서 그 가르침을 성경과 비교해 보기 시작했다. 그는 이전에도 다른 여러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를 공부한 적이 있었지만, 팔리가 가르친 원리들과 몰몬경은 그의 마음을 사로잡는 강렬한 무언가가 있었다. 모든 것이 명확했고, 하나님의 말씀과도 일치했다.

존은 곧 팔리를 자신의 친구들에게 소개하기 시작했다. “이분은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오신 분입니다. 이분의 말씀으로는 주님께서 참된 교회를 세우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누군가가 이렇게 물었다. “당신도 몰몬이 될 작정입니까?”

이에 존은 이렇게 대답했다. “모르겠습니다. 먼저 공부를 해 보고 주님께 기도로 도움을 구할 생각입니다. 만일 여기에 진리가 있다면 받아들일 것이고, 오류가 있다면 깨끗하게 돌아설 것입니다.”¹⁹

얼마 후에 존과 팔리는 이사벨라 월턴의 친척들이 사는 인근의 농장 마을을 찾아갔다. 그곳에는 존의 친구인 조셉 필딩이

자신의 누이들인 머시와 메리와 함께 살고 있었다. 그들 역시 영국 출신으로, 테일러 가족과 종교적인 견해가 비슷했다.

존과 팔리는 말을 타고 필딩의 집으로 가던 중 이웃집으로 달려가는 머시와 메리의 모습을 보았다. 조셉 필딩은 집 밖으로 나와 존과 팔리에게 냉랭한 얼굴로 인사를 건네면서, 자신은 두 사람이 오지 않기를 바랐다고 말했다. 조셉 필딩의 누이들을 비롯한 마을 주민 대부분은 두 사람의 설교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들이 몰문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팔리의 물음에 조셉 필딩은 이렇게 답했다.

“모르겠습니다. 이름 자체가 경멸스럽게 느껴집니다.” 조셉 필딩은 자신들은 성경의 가르침과 모순되는 새로운 계시나 교리는 찾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팔리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게 문제라면 저희가 곧 선생님의 편견을 없애 드리지요.” 팔리는 조셉 필딩에게 누이들을 집으로 불러 달라고 부탁했다. 그날 저녁에 그 마을에서 종교 집회가 열린다는 것을 안 팔리는 그 집회에서 설교를 하고 싶어 했다.

팔리는 이렇게 제안했다. “함께 저녁을 드시고 그 집회에 가시죠. 선생님과 누이분들이 동의하신다면, 저도 성경에 나오는 오래된 복음을 가르치고, 그것에 어긋나는 새로운 계시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는 데 동의하겠습니다.”²⁰

그날 저녁, 조셉과 머시, 메리 필딩은 사람들로 가득 찬 방에서 팔리의 설교를 들었다. 팔리의 설교는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회복된 복음이나 몰문경에 관한 그의 가르침은 성경에 어긋나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얼마 안 가서 팔리는 테일러 가족과 필딩 가족뿐 아니라 그 지역에 지부를 조직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사람에게 침례를 주었다. 히버 김볼이 준 축복에 언급되었던 주님의 약속들은 그렇게 성취되기 시작했다. 이제 팔리는 생크풀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 몇 군데에서 요구한 부채 상환 날짜가 임박했지만, 그는 여전히 값을 돈을 마련해야 했다.

팔리는 커틀랜드로 돌아가기 전에 새로 생긴 자신의 친구들과 악수를 나눴다. 팔리의 친구들은 차례로 악수를 나누면서 그의 손에 조금씩 돈을 쥐어 주었다. 그렇게 친구들이 쥐어 준 돈은 수백 달러에 달했다. 그 돈이면 급하게 갚아야 할 돈은 충분히 갚을 수 있었다.²¹

커틀랜드에 도착하여 팔리가 본 생크풀은 건강한 모습이었다. 주님의 약속이 또 하나 실현된 것이다. 팔리는 몇 군데의 빚을 갚은 뒤, 전도용 소책자와 물몬경을 모아 선교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캐나다로 돌아갔다. 그는 이번 여정에는 생크풀을 함께 데리고 갔다.²² 하지만 여행이 계속되면서 생크풀은 점점 기진맥진해졌다. 캐나다의 성도들은 그녀의 허약한 모습에 과연 그녀가 약속된 축복대로 아들을 낳을 수 있을지 의문스러워했다. 하지만 얼마 후, 팔리와 생크풀은 첫 번째 아이를 갖게 되었다.²³

프랫 부부가 떠나 있는 동안, 커틀랜드에 있는 그들의 집에는 이 부부의 친구인 캐롤라인과 조너선 크로스비가 세 들어 살고 있었다. 성전이 헌납되기 몇 달 전에 커틀랜드로 이주해 온 이 부부는 친구들과 자주 모여 예배를 드리고, 찬송가를 부르고, 식사를 했다.²⁴

성전이 완공되자, 커틀랜드에는 더 많은 성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다행히 이 지역에는 성도들이 모일 땅이 충분했으나 아직 개발된 면적은 많지 않았다. 성도들은 서둘러 더 많은 집을 지었다. 물론, 성도들 대부분은 현금이 부족했으므로 대출을 받아 돈을 마련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아무리 빨리 집을 지어도 새로 이주해 들어오는 사람들을 다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대개는 이미 자리를 잡은 성도들이 자신들의 집을 개방해서 사람들을 들이거나 남는 방을 세를 놓았다.

마을에서 집을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십이사도 중 한 명인 존 보인턴은 크로스비 부부를 찾아가 프렛의 집을 자신들에게 빌려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는 크로스비 부부가 프렛 부부에게 내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주겠다고 했다.²⁵

크로스비 부부는 당시 새집을 짓고 있었으므로, 그렇게 넉넉한 돈이 생기면 그들에게도 좋을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만의 오붓한 생활이 좋았고, 당시 캐롤라인은 첫 아이를 임신 중이었다. 만일 프렛의 집에서 나가 산다면, 그들은 이웃에 사는 노부인 세이브레 그레이저의 집으로 가야 하는데, 그레이저 자매의 집은 비좁고 침실도 하나뿐이었다.

조너선은 이사에 관한 결정을 온전히 캐롤라인에게 맡겼다. 캐롤라인은 프렛의 집에서 누리던 안락함과 여유로운 공간을 포기하고 그레이저 자매 집으로 가는 것이 내키지 않았다. 여윌 돈이 얼마가 생기든 간에 그건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캐롤라인은 보인턴의 대가족이 커틀랜드로 집합하도록 도울 수만 있다면, 자신의 이런 작은 희생쯤은 감수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며칠 뒤, 캐롤라인은 기쁜 마음으로 프렛의 집에서 나가자고 조너선에게 말했다.²⁶

6월 하순에 선지자 조셉은 윌리엄 펠프스를 비롯한 클레이군의 교회 지도자들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편지에는 지역 관료들이 교회 지도자들을 법정으로 소환해 성도들이 클레이군에서 계속 거주하는 문제를 논의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관료들은 차분하고 공손한 말투로 이야기했지만, 사실 그들은 타협의 여지를 전혀 주지 않았다.

그렇다고 성도들이 잭슨군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으므로, 관료들은 성도들끼리 생활할 새로운 장소를 찾으라고 권고했다. 결국 클레이군의 교회 지도자들은 또 다시 폭력적인 방법으로 추방될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그 지역을 떠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²⁷

그해 안에 잭슨군으로 돌아가려 했던 조셉의 희망은 그렇게 무너지고 말았다. 그러나 그 일로 미주리의 성도들을 타할 수는 없었다. 조셉은 이렇게 답장을 썼다. “여러분이 저희보다 상황을 더 잘 아시고, 그곳을 떠나는 문제와 관련하여 당연히 지혜로 인도를 받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²⁸

이제 조셉은 미주리 성도들이 정착할 새로운 장소를 찾아야 했다. 땅을 매입할 자금을 모아야 한다는 압박감이 또 다시 찾아왔다. 조셉은 커틀랜드 인근에 교회 상점을 열기로 결정하고, 판매할 물건을 들이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빌렸다.²⁹ 상점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으나, 조셉이 외상을 지려는 사람들을 거절하지 못하리라 생각한 많은 성도들은 조셉의 그런 친절과 신의를 악용했다. 그중 일부는 필요한 물건을 물물교환을 하자고 요구했고, 그 결과 현찰로 수익을 얻는 일은 점점 더 요원해졌다.³⁰

7월이 다 끝나도록 상점은 물론 교회 지도자들이 시도한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교회의 부채를 갚을 자금은 확보되지 않았

다. 그러다 조셉은 한 교회 회원에게서 돈이 숨겨진 은닉처가 있다는 말을 듣고, 다급한 마음에 시드니와 하이럼, 올리버를 대동해 동쪽 해안에 있는 도시인 살렘으로 갔다. 그러나 살렘에서의 일은 소득 없이 끝났고, 조셉은 주님께 의지하며 인도를 구했다.³¹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응답하셨다. “나 주 너희 하나님은 너희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행에 온 것을 불쾌히 여기지 아니하노라. … 너희 부채에 대하여는 염려하지 말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그것을 갚을 힘을 줄 것임이니라. 시온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는 내가 시온을 자비롭게 다룰 것임이니라.”³²

그들은 교회의 재정적인 짐을 해결할 어떠한 방안도 찾지 못한 채 한 달 뒤에 커틀랜드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해 가을, 조셉과 그의 보좌들은 시온에 필요한 자금을 모을 새로운 계획을 제안했다.



어떠한 댓이 농일지라도

1836년 가을 내내 조너선 크로스비는 커틀랜드에 새로 집을 짓느라 바빴다. 11월에 벽과 지붕이 올려졌지만, 바닥과 창문, 문 공사까지 마치려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했다. 곧 아기가 태어날 것이었기에 캐롤라인은 조너선에게 최대한 공사를 서둘러 달라고 재촉했다. 지금 사는 집의 주인과 관계가 나쁜 것은 아니었지만, 캐롤라인은 하루빨리 그 비좁은 공간을 벗어나 자신만의 집으로 가고 싶었다.¹

조너선이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공사를 완료하려고 바빠 움직이던 무렵, 교회의 지도자들은 커틀랜드 세이프티 소사이어티 창립 계획을 발표했다. 이 기관은 커틀랜드의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고 교회 자금을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마을 은행이었다. 커틀랜드 세이프티 소사이어티는 미국의 여타 소규모 은행들과 마찬가지로 지역 경제 부흥을 위해 사람들에게 부동산이나 채

화를 살 돈을 빌려주고, 그들에게서 이자를 받고 대출금을 회수함으로써 수익을 내는 구조였다.²

대출금은 은행권 형태로 발행하고, 은행권에 대한 지급 준비금은 세이프티 소사이어티가 보유한 얼마 안 되는 은화와 금화로 마련할 계획이었다. 이러한 경화 보유량을 늘리기 위해 은행은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판매했고, 투자자들은 시간을 두고 돈을 나눠서 내기로 되어 있었다.³

11월 초가 되자 커틀랜드 세이프티 소사이어티의 주주는 서른 명을 넘어섰으며, 이들 주주 중에는 수중에 있는 돈의 상당 금액을 투자한 조셉과 시드니도 있었다.⁴ 주주들은 시드니를 기관의 회장으로, 조셉을 출납원으로 선출하여 은행의 계좌에 대한 책임을 맡겼다.⁵

은행 설립을 위한 계획이 마련된 후, 올리버는 은행권 인쇄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할 목적으로 동쪽으로 떠났고, 올슨 하이드는 은행에 대한 합법적인 운영 인가를 받기 위해 주의회를 찾아갔다. 조셉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금과 은을 바치도록 요청받았던 구약전서의 성구를 인용하며 모든 성도에게 세이프티 소사이어티에 투자하라고 촉구했다.⁶

조셉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노력을 받아들이셨다는 느낌을 받았으며, 만일 성도들이 주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인다면 모든 것이 잘 되리라고 약속했다.⁷ 선지자의 말에 대한 신뢰로, 더 많은 성도들이 세이프티 소사이어티에 투자했지만, 신생 은행의 주식을 사는 것을 무척 조심스러워하는 이들도 있었다. 크로스비 부부도 주식을 사는 문제를 놓고 고민했으나, 집을 짓는 데 큰돈을 들인 상황인지라 그들은 그럴 만한 자금이 없었다.⁸

12월 초에 마침내 창문과 문을 달아 공사를 완료한 후, 두 사람은 그들의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했다. 내부 공사가 아직 진행 중이었지만, 집 안에는 난방을 하고 요리할 수 있는 좋은 화덕이 있었다. 그리고 집 근처에는 쉽게 물을 길 수 있게 조너선이 만든 우물도 있었다.

캐롤라인은 집을 장만해서 더할 수 없이 행복했다. 그녀는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거센 눈보라가 몰아치던 12월 19일에 건강한 사내아이를 낳았다.⁹

커틀랜드 세이프티 소사이어티는 겨울의 한복판인 1837년 1월에 문을 열었다.¹⁰ 영업 첫날부터 조셉은 막 인쇄기에서 뽑은 뾰뾰한 은행권을 발행했다. 은행권 앞면에는 은행의 이름과 조셉의 서명이 함께 들어가 있었다.¹¹ 더 많은 성도들이 종종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커틀랜드 안팎으로 은행권이 본격적으로 유통되기 시작했다.¹²

얼마 전에 미국 북동부에서 커틀랜드로 이주한 피비 카터는 세이프티 소사이어티와 어떠한 거래도 없었지만, 세이프티 소사이어티가 약속한 번영의 혜택이 자신에게도 돌아올 날을 고대했다. 곧 서른이 되는 나이에 미혼인 피비는 커틀랜드에 재정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이 없었다. 비슷한 처지의 다른 여성들처럼 피비도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기에, 그녀는 샅바느질을 하고 이곳으로 오기 전에 오하이오주에서 했던 것처럼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근근이 살아가고 있었다.¹³ 커틀랜드의 경기가 나아지면 새 옷과 교육에 돈을 들일 사람이 많아질 것이었다.

그러나 피비가 커틀랜드로 오기로 한 것은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라 영적인 이유에서였다. 피비의 부모는 딸의 침례를 반대했다. 그녀가 성도들과 함께 집합하기 위해 떠나겠다고 말하자 피비의 어머니는 강하게 만류했다. “피비, 몰몬이즘이 거짓이란 걸 알게 되면 돌아오겠니?”

피비는 “네 어머니, 그렇게 할게요.”라고 약속했다.¹⁴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을 찾았다는 것을 알았다. 커틀랜드에 도착하고 몇 달 후에 조셉 스미스 일세로부터 받은 축복사의 축복을 통해 그녀는 자신을 위해 지상과 하늘에 큰 보상이 준비되어 있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었다. 주님께서는 피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안심하라, 그대의 어려움은 이제 끝이 났도다. 그대는 오래도록 살아가며 좋은 날들을 맞이하리라.”¹⁵

그렇게 피비는 집을 떠날 때 받았던 느낌에 대한 확신을 얻었다. 그녀는 슬픈 마음에 차마 작별 인사를 하지 못하고 다음과 같은 편지만 탁자에 남겨 둔 채 집을 떠났다. “제 걱정은 마세요. 저는 주님께서 저를 돌봐 주시고 제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리라는 것을 믿어요.”¹⁶

피비는 축복사의 축복에 담긴 약속을 믿었다. 축복사는 피비가 여러 자녀를 둔 어머니가 되고 지혜와 학식, 이해력을 갖춘 남성의 아내가 되리라고 축복했다.¹⁷ 사실, 피비는 결혼에 대한 기대가 거의 없었다. 그녀는 결혼해서 자녀를 둔 대부분의 여성보다 자신이 나이가 더 많다는 것을 알았다.

1837년 1월의 어느 날, 피비는 친구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짙은 머리칼에 담청색 눈을 가진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비보다 생일이 며칠 더 빠른 그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행군을 마치고

미국 남부에서 선교 사업을 한 뒤 얼마 전에 커틀랜드로 돌아왔다.

그의 이름은 윌포드 우드럽이었다.¹⁸

겨울 동안 커틀랜드의 성도들은 큰돈을 빌려 계속해서 부동산과 재화를 사들였다. 고용주들은 종종 임금을 은행권으로 지급했는데, 은행권은 통화로 사용하거나 세이프티 소사이어티 사무실에서 경화로 교환할 수도 있었다.¹⁹

한편, 그랜디슨 뉴얼이라는 사람은 세이프티 소사이어티가 영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남몰래 은행권을 사 모으고 있었다. 인근 마을의 오랜 정착민인 그랜디슨은 조셉과 성도들을 증오했다. 성도들이 이주해 오기 전까지 지역의 유력 인사였던 그는 성도들을 괴롭힐 방법을 찾는 데 아주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 방법이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²⁰

그는 일자리를 구하러 찾아오는 성도들을 단칼에 거절하고, 선교사들이 자신의 집 근처에서 복음을 가르칠 때면 사람들을 모아 선교사들에게 달걀을 던졌다. 또, 닥터 필라스터스 험버트라는 사람이 조셉을 비방하는 발언들을 모으기 시작하자 그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도 했다.²¹

하지만 그의 그 모든 수고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그 지역으로 계속해서 모여들었다.²²

커틀랜드 세이프티 소사이어티가 문을 열자, 그랜디슨은 이것이 성도들을 공격할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생각했다. 오하이오주에 은행이 늘어나는 것을 우려했던 주의회는 올슨 하이드의 인가 신청을 거부했다. 따라서 세이프티 소사이어티는 공식적인

은행이 될 수 없었고, 예금과 대출 업무만 할 수 있었다. 주주들이 있어야 은행의 지급 준비금을 유지할 수 있기에, 세이프티 소사이어티의 성공은 주식을 사는 주주들에게 달려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할 만큼 충분한 경화를 보유한 주주는 드물었으며, 이 점을 파악한 그랜디슨은 세이프티 소사이어티가 지급 준비금이 워낙 적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²³

그는 많은 사람이 은행권을 금과 은으로 교환한다면 세이프티 소사이어티가 파산할 것이라는 계산에 따라 지방 곳곳을 다니면서 은행권을 사들였다.²⁴ 그는 그렇게 모은 은행권을 세이프티 소사이어티의 사무실로 가져가서 현금으로 바꿔 달라고 요구하고, 은행권을 현금으로 바꿔 주지 않으면 기관을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²⁵

궁지에 몰린 조셉과 세이프티 소사이어티의 임원들은 그랜디슨의 은행권을 현금으로 바꿔 주고, 그저 투자자가 더 많이 나타나기만을 기도하는 것밖에 다른 방도가 없었다.

월포드 우드럽도 가진 돈이 거의 없었지만 커틀랜드 세이프티 소사이어티에서 20주의 주식을 사들였다.²⁶ 그의 절친한 친구인 워렌 패리쉬는 세이프티 소사이어티에서 간사로 일했다. 워렌과 그의 아내 벤티는 월포드와 함께 이스라엘 진영의 일원으로서 함께 서쪽으로 행군했던 동료였다. 벤티가 콜레라로 사망한 후, 워렌은 월포드의 동반자로서 선교 사업을 했으며, 귀환 후에는 커틀랜드로 돌아와 조셉의 서기이자 믿음직한 친구로 선지자의 곁을 지켰다.²⁷

선교 사업이 끝난 후부터 월포드는 마땅한 거처 없이 이따금 워렌과 같은 친구들의 도움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었다. 그러나 피비 카터를 만나고부터는 그도 결혼을 꿈꾸게 되었다. 그가 세이프티 소사이어티에 투자한 것도 가정을 꾸리기 전에 경제적 자립을 꾀하려는 그의 노력 중 하나였다.

그러나 1월 말에 세이프티 소사이어티는 위기에 봉착했다. 그랜디슨 뉴얼은 세이프티 소사이어티의 지급 준비금을 모조리 빼내려 했고, 지역의 신문사들은 세이프티 소사이어티가 합법적인 기관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기사들을 쏟아 냈다. 게다가 일부 성도들은 이웃 주민들이 하는 것처럼 일확천금을 꿈꾸며 땅과 재화에 대한 투기를 일삼았다. 주식을 사는 일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는 성도들도 많았다. 곧 커틀랜드 안팎의 많은 노동자와 사업체들이 세이프티 소사이어티의 은행권을 거부하기 시작했다.²⁸

파산을 우려한 조셉과 시드니는 일시적으로 세이프티 소사이어티의 문을 닫고 다른 지역의 은행과 협력 관계를 맺어 보자 커틀랜드를 떠났다.²⁹ 그러나 세이프티 소사이어티의 빈약한 시작은 많은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았다. 결국 성도들은 투자를 촉구했던 선지자의 영적 지도력을 의심하기 시작했다.³⁰

주님은 과거에 조셉을 통해 경전을 계시하셨기에 성도들은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믿는 신앙을 행사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 그러나 세이프티 소사이어티에 관련된 조셉의 발언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 실제로 자신들의 투자금에 손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이자, 성도들은 불안감을 느끼고 조셉을 비난했다.

하지만 월포드 우드럽은 그런 와중에도 세이프티 소사이어티가 성공하리라는 믿음을 놓지 않았다. 선지자 조셉은 다른 은

행과 협력 관계를 체결한 후에 커틀랜드로 돌아와 자신을 닮아 있는 성도들의 불평에 응대했다.³¹ 그로부터 얼마 후에 열린 연차 대회에서 그는 교회에서 성도들의 돈을 빌려 세이프티 소사이어티와 같은 기관을 설립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성도들이 빈약하고 궁핍한 가운데 후기의 사업을 시작한 것과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시간과 재능을 바쳐 시온에 집합하고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신 일을 상기시켰다. 큰 대가를 치른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노력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구원에 꼭 필요한 일이었다.³² 교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사업을 진척하기 위해 이 사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방안을 찾아야만 했다.

조셉은 채권자들에게 큰 빚을 졌다는 사실을 후회하고 인정했다. “우리는 분명 그들에게 빚을 졌습니다. 그러나 외국에 있는 우리 형제들이 돈을 가지고 오면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그는 성도들이 커틀랜드에 집합하여 그들의 재산을 주님께 헌납한다면, 교회의 부채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었다.³³

조셉의 설교를 듣고 있던 윌포드는 그의 말에서 권능을 느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아, 이 말씀은 우리가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가슴에 각인되어 영원토록 남을 것이다.’ 그는 어느 누가 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도 그가 하나님에게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의심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다.³⁴

그러나 성도들의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4월 중순부터는 온 나라에 닥친 금융 위기의 영향으로 커틀랜드의 경기도 어려워졌다. 수년간 과도한 대출을 시행한 끝에 영국과 미국의 은행들이 흔들리자 경제 붕괴에 대한 공포가 나라 곳곳을 뒤덮었다. 은행들은 대출금을 회수했으며, 일부 은행은 대출을 완전히

중단했다. 은행들이 문을 닫고 사업체가 도산하여 실업이 급증하면서 마을마다 공황 상태가 확산되었다.³⁵

이런 상황에서 커틀랜드 세이프티 소사이어티처럼 어려움에 처한 기관이 재기를 꿈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고, 이 난관을 바로잡기 위해 조셉이 할 수 있는 일도 거의 전무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국가의 경제 공황이 아닌 조셉에게 돌리는 편이 더 쉽다는 것을 알았다.

채권자들은 조셉과 시드니를 끈질기게 괴롭혔다. 어떤 사람은 그들이 돈을 갚지 않았다며 소송을 걸었고, 그랜디슨 뉴얼도 조셉이 자신을 상대로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으로 조셉을 형사 고발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선지자는 자신이 체포되거나 죽게 되는 상황에 대한 걱정이 깊어졌다.³⁶

약혼을 한 윌포드와 피비가 조셉에게 결혼식 집행을 부탁했지만, 두 사람의 결혼식 당일에 조셉은 프레드릭 윌리엄스에게 결혼식 집행을 맡긴 채 종적을 감추었다.³⁷

조셉이 갑작스럽게 사라진 지 얼마 안 되어, 자신의 안전을 알리는 조셉의 편지가 에머에게 배달되었다.³⁸ 조셉과 시드니는 자신들을 해하려는 사람들을 피해 모처에 피신해 있었다. 그들이 있는 장소는 비밀이었지만, 그들과 연락이 닿을 방법을 알았던 뉴얼 휘트니와 하이럼은 멀리서나마 두 사람에게 필요한 조언을 전했다.³⁹

에머는 조셉이 처한 어려움을 이해했다. 조셉의 편지가 도착하자, 그랜디슨 뉴얼의 친구들로 보이는 사람들은 편지의 소인

을 뜯어보며 조셉의 행방을 알아내려 했다. 경영난에 허덕이는 조셉의 상점을 염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에머는 그런 와중에도 긍정적인 태도를 잃지 않았지만, 아이들이 걱정되었다. 한 살배기인 프레드릭은 아직 어려서 상황을 몰랐으나 여섯 살인 줄리아와 네 살인 조셉은 당분간 아버지가 집에 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불안해했다.⁴⁰

에머는 커틀랜드의 많은 사람이 의심과 불신앙에 빠진 이런 상황에서 자신은 주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4월 말경에 에머는 조셉에게 편지를 보냈다. “내 주변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없다면, 그건 정말 슬픈 일일 거예요. 하지만 나는 여전히 믿어요. 우리가 겸손하고 최대한 충실하다면, 우리 발 앞에 어떠한 댓이 놓일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거예요.”⁴¹

그렇지만 에머는 채권자들이 조셉이 없는 틈을 타서 재산이나 돈을 탈취해 가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에머는 통탄했다. “당신 소유로 있는 것들에 대해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우선권을 가진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에머는 남편이 어서 집으로 돌아오기만을 바랐다. 이제 그녀는 거의 아무도 믿지 않았고, 조셉의 빚을 갚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그 누구에게도, 그 무엇도 주려고 하지 않았다. 더욱이 에머는 아이들이 홍역에 노출된 채 생활해 온 것이 걱정스러웠다.

“아이들이 아플 때에는 당신이 집에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을 꼭 기억하세요. 아이들도 늘 당신을 생각하고 있어요.”⁴²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팔리와 생크폴은 출산을 위해 커틀랜드로 돌아왔다. 생크폴은 히버의 예언대로 사내아이를 낳았고, 아이의 이름은 아버지 이름을 따서 팔리라고 지었다. 그러나 극심한 산고를 겪은 생크폴은 출산 후 몇 시간 만에 숨을 거뒀다. 갓 태어난 아기를 홀로 돌볼 수 없었던 팔리는 젖을 먹일 수 있는 여성에게 아들을 맡기고 캐나다로 돌아갔다. 그는 그곳에서 영국으로 선교 사업을 떠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조셉 필딩과 같은 성도들도 팔리의 준비 과정을 함께 도왔다. 조셉 필딩은 그 이전부터 바다 건너 친구와 친척들에게 회복된 복음에 관한 편지를 보내고 있었다.⁴³

팔리는 캐나다에서 선교 사업을 마친 후 오하이오주로 돌아와서 커틀랜드의 젊은 미망인인 메리 앤 프로스트와 재혼했다. 이후에 그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장인 토머스 마쉬에게서 편지를 받았는데, 토머스는 그에게 돌아오는 여름에 커틀랜드에서 사도들이 정원회 모임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영국으로 선교 사업을 가는 것을 미루도록 촉구했다.⁴⁴

토머스의 말에 따라 팔리가 다른 사도들이 모이기를 기다리는 동안, 조셉과 시드니는 커틀랜드로 돌아와 부채를 해결하고 성도들 사이의 긴장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⁴⁵

그로부터 며칠 뒤에 시드니는 팔리를 찾아가서 상환 기한이 지난 대출금을 어서 갚으라고 요구했다. 전에 팔리는 커틀랜드의 땅을 사기 위해 조셉에게 2,000달러를 빌린 적이 있었는데, 후에 조셉은 자신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팔리에게 상환받을 권리를 세이프티 소사이어티에 넘겼다. 그래서 이제는 시드니가 상환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팔리는 2,000달러는 없지만 그때 샀던 땅으로 그 돈을 갚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시드니는 그 돈을 다 갚으려면 땅과 함께 집까지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⁴⁶

시드니의 말에 팔리는 분개했다. 처음에 땅을 팔 때 조셉은 내가 이 거래로 손해를 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또, 큰 부와 부채 없는 삶을 약속한 히버 김볼의 축복은 도대체 어떻게 됐단 말인가? 팔리는 조셉과 시드니가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땅도 집도 잃는다면, 그와 그의 가족은 당장 갈 곳이 없어질 것이었다.⁴⁷

이튿날, 팔리는 분노를 가득 담아 조셉에게 편지를 보냈다. “마침내 나는 우리가 관여한 투기의 모든 부분에 악마의 손길이 미쳤다는 것을 온전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일은 거짓과 기만으로 이어졌고, 우리는 이웃을 이용하고 말았죠.” 팔리는 조셉에게 자신은 여전히 몰몬경과 교리와 성약을 믿지만, 선지자의 행실 때문에 마음이 어지러워졌다고 항의했다.

그는 조셉에게 회개를 권고하고, 땅을 줄 테니 그것으로 빚을 갚은 것으로 하라고 요구했다. 팔리는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적 조치까지도 취할 생각이었다.

그는 이렇게 경고했다. “고통스럽지만, 그렇게 되면 나는 강탈과 탐욕, 그리고 자신의 형제를 이용한 죄로 당신을 고소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⁴⁸

팔리가 조셉에게 편지를 보낸 지 며칠 후인 5월 28일, 윌포드 우드럽은 일요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성전으로 갔다. 커틀랜드에서 조셉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윌포드는 여전히 조셉

의 충실한 협력자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몇 년 동안이나 조셉과 함께 일했던 워렌 패리쉬는 재정적인 위기 속에서 조셉이 했던 역할을 비난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아예 조셉을 반대하는 무리의 선두에 서 있었다.

월포드는 교회 내에서 논쟁을 일으키는 분위기가 가시기를 기도했다.⁴⁹ 그러나 그는 상황을 도울 만큼 커틀랜드에 오래 머물 수가 없었다. 최근에 그는 북동부 메인주의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폭스 제도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영감을 받았다. 그곳은 피비의 부모가 사는 곳과도 가까웠다. 월포드는 폭스 제도로 가는 길에 자신의 부모님과 여동생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싶었다. 피비도 남편과 함께 가서 시댁 식구들을 만나고, 나중에는 남편과 북쪽으로 가서 친정 식구들까지 만나겠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었다.⁵⁰

월포드의 마음속에는 가족을 만날 날에 대한 기대만큼이나 조셉과 커틀랜드의 교회 상황에 대한 걱정이 가득했다. 월포드는 성전에 앉아 연단에 있는 조셉을 올려다보았다. 큰 반대에 직면한 선지자 조셉은 의기소침한 모습이었다. 세이프티 소사이어티가 파산하면서 그는 수천 달러를 잃으며 어느 누구보다도 큰 손해를 입었다.⁵¹ 다른 많은 사람과 달리 조셉은 파산해 가는 세이프티 소사이어티를 포기하지 않았다.

조셉은 회중을 응시하며 자신을 비난하는 이들에 맞서 주님의 이름으로 자신을 변호했다.

월포드는 조셉의 말을 듣는 동안 하나님의 권능과 영이 조셉에게 임한 것을 보았다. 그는 시드니를 비롯한 사람들이 연단에 서서 조셉의 고결성을 간증할 때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느꼈다.⁵² 모임 막바지에 워렌은 자리에서 일어나 회중 앞에서 조셉을 맹렬히 비난했다.

윌포드는 그의 장황한 비난을 들으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는 슬픔에 잠겨 이렇게 되뇌었다. “오, 워렌, 워렌.”⁵³



진리는 이기리

1837년의 늦은 봄, 사도인 토머스 마쉬와 데이비드 패튼, 윌리엄 스미스는 그들이 살던 미주리를 떠나 커틀랜드로 길을 나섰다. 시온의 많은 성도들은 인디펜던스에서 북동쪽으로 80킬로미터가량 떨어진 솔 크리크 강변에 정착해 있었다. 그들은 그곳에서 파웨스트라고 하는 마을을 세웠다. 이 정착촌은 조셉이 설계한 시온의 도시 계획에 따라 만들어졌다. 미주리주의회는 성도들과 주변의 이웃들 간에 계속되는 문제들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고자 성도들이 정착할 곳으로 콜드웰군을 조직했다. 그곳은 파웨스트와 솔 크리크 주변 일대를 모두 아울렀다!

토머스는 어서 나머지 십이사도들을 다시 만나고 싶었다. 특히 팔리가 영국에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로는 더 이상 가만있을 수가 없었다. 다른 나라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주님의 사업에서 중요한 단계였다. 토머스는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으로서는 사도들을 한자리에 모아 함께 선교 사업을 계획하고 싶어 했다.

커틀랜드의 반대 세력에 관해 보고받은 내용도 마음에 걸렸다. 반대 세력 중에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인 록 존슨과 라이먼 존슨, 존 보인턴도 포함되어 있었다. 토머스는 십이사도가 더욱 단합하지 않는다면 영국에서 이루어질 선교 사업도 성공할 수 없으리라는 두려움이 있었다.²

오하이오에서 있던 히버 킴볼은 반년 전에 커틀랜드 세이프티 소사이어티가 생긴 이후 십이사도들이 분열해 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교회의 빛을 갠기 위한 조셉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자, 올슨 하이드와 윌리엄 매클렐른, 올슨 프렛도 조셉에게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했다. 이제 팔리 프랫조차 조셉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었기에 이제 커틀랜드에서 충실히 남아 있는 사도는 브리검 영과 히버 킴볼뿐이었다.³

어느 날, 히버와 함께 성전의 연단에 앉아 있던 선지자 조셉이 히버 쪽으로 몸을 기울여 이렇게 말했다. “히버 형제님, 주님의 영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나의 종 히버를 영국으로 가게 하여 내 복음을 전파하고 그 나라에 구원의 문을 열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히버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는 배운 것 없는 도공에 불과했다. 당시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고, 영국의 국민들은 학식 있고 종교에 헌신적이기로 유명했다. 히버는 기도했다. “오 주님, 저는 언변이 뛰어나지도 않을뿐더러, 아무리 보아도 이

일을 하기에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어찌 그 나라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⁴

사실 가족들도 걱정이었다. 히버는 아내 빌리트와 자녀들을 남겨두고 바다를 건너 복음을 전하러 간다는 것이 엄두조차 나지 않았다. 그는 자신보다 다른 사도들이 이 부름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선임 사도인 토머스 마쉬는 초기에 물문경을 읽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 중 하나였다. 주님은 왜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는가?

아니면, 브리검 영은 어떤가? 히버는 조셉에게 브리검이라도 함께 가면 어떨지 물어보았다. 브리검은 히버보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십이사도로서도 히버보다 선임이었다.

하지만 조셉은 안된다고 했다. 그는 브리검이 커틀랜드에 있기를 바랐다.⁵

히버는 하는 수 없이 부름을 받아들이고 곧 떠날 준비를 했다. 그는 매일 성전에서 주님의 보호와 권능을 구하며 기도했다. 히버의 부름에 대한 소식은 금세 커틀랜드 곳곳으로 퍼졌다. 브리검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은 히버의 결정을 열렬히 지지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선지자 말씀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영광스러운 일을 할 권능으로 축복받으실 겁니다.”

하지만 존 보인턴은 비판적이었다. “당신이 타락한 선지자의 부름을 받을 만큼 어리석은 분이라면, 전 애써 당신을 돕지 않겠습니다.” 라이먼 존슨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그는 히버가 가겠다는 결심을 굳힌 것을 보고 자신의 망토를 벗어서 히버의 어깨에 둘러 주었다.⁶

얼마 후에 조셉 필딩은 캐나다 성도들과 함께 커틀랜드로 왔으며, 그와 몇몇 성도들은 선교사 부름을 받았다. 이로써 팔리

가 캐나다에서 선교 사업을 한 것이 영국에서 이루어질 선교 사업의 기초를 놓으리라는 히버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올슨 하이드도 불만을 품었던 과거를 회개하고 선교 사업에 합류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버는 브리검의 사촌인 윌라드 리차즈에게 함께 가 줄 것을 부탁했다.⁷

영국으로 떠나던 날, 히버는 아내 빌리트와 자녀들과 함께 무릎을 꿇었다. 그는 하나님께 바다 건너까지 안전한 항해를 허락해 주시고, 선교 임지에서 자신이 쓸모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며, 자신이 없는 동안 가족을 돌봐 주시기를 기도드렸다. 그런 다음 그는 눈물을 흘리며 자녀들을 한 명씩 축복한 뒤 영국 제도를 향해 떠났다.⁸

미국의 경제 위기는 1837년 여름까지 지속되었다. 조너선 크로스비는 돈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동나기 시작하자 집 공사를 중단하고 조셉과 에머의 새집을 짓는 현장에 인부로 들어갔다. 그러나 이제 조셉이 인부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세이프티 소사이어티의 은행권뿐이었다. 커틀랜드에서는 이 은행권을 받는 곳이 점점 줄고 있었다. 머지않아 이 은행권은 거의 휴지 조각처럼 될 것이었다.

인부들은 별이가 나온 일자리를 찾아 한 명 한 명 떠나갔다. 그러나 경제 공황의 여파로 커틀랜드 안팎은 물론, 미국 어느 곳에서도 일자리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 물가가 오르고, 토지는 급격히 가치가 떨어졌다. 커틀랜드에서는 자립하여 생활하거나 인부를 부릴 만한 재산을 가진 이가 드물었다. 조셉은 교회의 부

채를 갠기 위해, 압류될 위험을 무릅쓰고 성전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했다.⁹

조너선이 조셉의 집을 짓는 일을 하는 동안, 그의 아내 캐롤라인은 심한 감기로 침대에 누워 지내는 일이 많았다. 그녀는 가슴에 염증이 생겨 아들에게 젖을 먹이지 못했다. 게다가 먹을 것이 점점 바닥을 드러내면서 이들 가족은 당장 다음 끼니도 장담할 수 없게 되었다. 어느 정도 소출이 나오는 작은 텃밭이 있었지만, 소를 키우고 있지는 않아서 아들을 먹이려면 이웃에서 우유를 사 와야만 했다.

캐롤라인은 주변의 많은 사람이 자신과 다름없는 처지임을 알고 있었다. 이따금 음식을 얻을 수는 있었지만,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겨우 입에 풀칠만 하며 지내는 상황에서 음식을 다른 사람과 나눌 만큼 풍족히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캐롤라인은 팔리 프랫과 보인턴 가족, 그리고 자신들의 절친한 벗들이 그들의 곤궁을 교회 탓으로 돌리는 것을 보게 되었다. 캐롤라인과 조너선 부부는 세이프티 소사이어티에서 돈을 잃지는 않았지만, 그들도 경제 위기의 영향을 벗어날 수는 없었다. 다른 사람들처럼 그들도 하루하루를 겨우 버텼다. 그러나 조너선도, 캐롤라인도 교회를 떠나거나 선지자 조셉을 등지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조너선은 조셉의 집을 짓던 인부 중 맨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이었다. 그는 집에 먹을 것이 완전히 떨어지자 하루 동안 일을 쉬고 음식을 구하러 나갔다. 그렇지만 그는 결국 빈손으로 집에 돌아와야만 했다.¹⁰

“이제 어떻게 하죠?” 캐롤라인이 물었다.

조너선은 조셉과 에머도 경제적으로 어렵긴 했지만 그들은 간혹 먹을 것이 있어서 자신들보다 덜 가진 이들에게 나눠 주기도 한다는 것을 알았다. 조너선이 말했다. “날이 밝으면 에머 자매님께 가서 우리 사정을 이야기해 볼게요.”

이튿날, 조너선은 다시 조셉의 집으로 일을 하러 갔다. 그러나 그가 말을 꺼낼 틈을 찾기도 전에 에머가 먼저 그에게 다가왔다. “집에 음식들은 좀 있으신가요? 다른 분들이 모두 떠나도 형제님은 계속 오셔서 일을 해 주시니, 형제님께 선물을 드리고 싶었어요.” 에머는 손에 커다란 햄을 들고 있었다.¹¹

깜짝 놀란 조너선은 에머에게 고맙다고 말하면서, 마침 집에 먹을 것이 다 떨어졌고 캐롤라인도 아파서 누워 있다고 자신의 어려운 형편을 털어놓았다. 그 말을 들은 에머는 조너선에게 자루를 하나 가져다가 들고 갈 수 있는 만큼 밀가루를 가져가라고 말했다.

그날 오후, 조너선은 먹을 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다. 덕분에 캐롤라인은 며칠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었다. 그녀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태어나서 처음 먹어 본다는 생각마저 들었다.¹²

6월 말이 되자, 커틀랜드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던 사람들이 점점 더 공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워렌 패리쉬를 위시한 반대자들은 성전에서 열리는 일요 모임을 방해하고, 조셉에게 온갖 죄를 다 뒤집어씌웠다. 혹여 성도들이 조셉을 옹호하려 하기라도 하면, 그들은 성도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만큼 큰 소리로 아우성을 치며 성도들의 목숨을 위협했다.¹³

조셉 필딩이 영국으로 떠나기 전에 함께 커틀랜드로 왔던 그의 누이 메리 필딩은 오하이오의 소란스러운 상황에 경악했다. 어느 날 아침에 팔리 프렛은 성전에서 열린 모임에 가서 조셉에게 회개할 것을 요구하며, 이제 거의 교회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 버렸다고 단언했다.

팔리의 말을 들은 메리는 마음이 아팠다.¹⁴ 자신에게 복음을 가르쳤던 사람이 그때와 똑같은 그 목소리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비난하고 교회를 규탄하고 있었다. 커틀랜드에서는 팔리가 조셉에게 보낸 분노 가득한 편지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팔리는 자신의 불만을 보란 듯이 공개적으로 말하고 다녔다. 그는 존 테일러가 마을에 오자, 그를 데려다가 조셉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때, 존은 팔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형제님은 캐나다를 떠나기 전에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강력히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형제님은 그것을 계시와 성신의 은사를 통해 알았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 뒤 존은 이렇게 간증했다. “저 역시 그때 형제님이 전하셨던 그 간증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6개월 전에 참되었다면, 그것은 오늘도 참된 것입니다. 그때 조셉 스미스가 선지자였다면, 지금도 그는 선지자입니다.”¹⁵

그 무렵에 조셉은 병상에 누워 있었다. 그는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고개도 들지 못할 만큼 쇠약해져 있었다. 주치의와 에머가 곁을 지키는 가운데, 그는 의식을 잃었다 회복하기를 반복했다. 시드니는 조셉이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고 말할 정도였다.¹⁶

조셉을 비판하던 사람들은 그의 고통에 환호하며 이것은 조셉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라고 떠들었다. 그러나 선지자의

많은 친구들은 그가 낮기를 바라며 성전에 가서 밤새 기도를 올렸다.¹⁷

조셉이 회복되기 시작할 무렵, 메리와 빌리트 김볼이 조셉을 찾아왔다. 조셉은 자신이 누워 있는 동안 주님께서 자신을 위로하셨다고 말했다. 메리는 기운을 차린 조셉을 보고 기뻐했다. 그녀는 선지자에게 몸이 완쾌되면 캐나다에 있는 성도들을 방문해 달라고 부탁했다.

다음 일요일에 메리는 성전에 열리는 다른 모임에 참석했다. 아직은 조셉이 모임에 참석할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모임은 선지자 없이 진행되었고, 워렌 패리쉬는 연단으로 성큼 성큼 걸어가 선지자의 자리에 앉았다. 모임을 주재하던 하이럼은 패리쉬의 도발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교회가 놓인 상황을 주제로 긴 설교를 전했다. 하이럼이 성도들에게 그들이 맺은 성약을 일깨우는 동안, 메리는 그의 겸손한 모습을 감탄하며 바라보았다.

하이럼은 회중을 향해 말했다. “저는 마음이 부드러우며, 지금 어린아이가 된 것만 같습니다.” 그는 벽찬 목소리로, 이제 교회는 이 시각부터 일어서기 시작할 것이라고 성도들에게 약속했다.

며칠 뒤, 메리는 여동생 머시 앞으로 편지를 썼다. “오래지 않아 교회에 질서와 평화가 회복되리라는 희망이 생겼어. 그렇게 되도록 우리 다 같이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자.”¹⁸

한 달 후, 메리의 오빠인 조셉 필딩은 역마차에서 내려 프레스턴의 거리에 들어섰다. 이 도시는 목초지 한가운데에 세워진 영국

서부의 산업 중심지였다. 도시에 있는 많은 공장과 제분소의 높은 굴뚝에서는 잿빛 연기가 뿜어져 나왔고, 그 바람에 그 많은 교회들의 첨탑은 거무스름한 연기에 가려 흐릿하게만 보였다. 도시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리블강은 굽이굽이 바다를 향해 흘러가고 있었다.¹⁹

영국으로 간 선교사들이 리버풀 항구에 도착한 것은 이를 전이었다. 히버는 영의 속삭임에 따라 조셉 필딩의 형인 제임스가 목사로 있는 프레스턴으로 일행을 이끌고 왔다.²⁰ 조셉 필딩과 그의 누이들은 그때까지 계속해서 제임스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자신들의 개종 이야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에 대해 간증해 왔었다. 제임스는 동생들이 적은 내용에 흥미를 보이며 자신의 신도들에게도 조셉 스미스와 후기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를 전했다.

선교사들이 프레스턴에 도착한 날은 선거일이었다. 그들이 거리를 걸어갈 때 그들 머리 위로 노동자들이 창밖에 내건 선거 홍보 현수막이 보였다. 현수막에 금색으로 박혀 있던 문장은 선교사들을 위해 준비된 것은 아니었지만, 선교사들은 그것을 통해 힘을 얻을 수 있었다. 현수막에 적힌 문구는 “진리는 이기리”였다.

선교사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라, 진리는 이기리!”²¹

조셉 필딩은 그 길로 형을 찾아갔다. 그는 형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주님께서 그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며 커틀랜드를 떠날 때부터 기도를 멈춘 적이 없었다. 동생과 마찬가지로 제임스도 신약전서를 신봉했고, 그 가르침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었다. 그가 회복된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선교사들에게도, 그리고 주님의 사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었다.

제임스는 자신의 집을 찾아온 조셉 필딩과 선교사들에게 이튿날 아침에 박스홀 예배당에서 설교를 해 달라고 부탁했다. 조셉 필딩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형이 자신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는 형이 예배당에 선교사들을 들임으로써 무엇을 잃게 될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다.

설교는 제임스의 생업이었다. 회복된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는 직업을 잃게 되는 것이었다.²²

파웨스트에서 커틀랜드로 가던 토머스 마쉬와 데이비드 패튼, 윌리엄 스미스는 반대 방향에서 오는 팔리 프랫과 마주치자 매우 당혹스러웠다. 그때 팔리는 손실을 메우기 위해 땅을 일부 팔고 셰이프티 소사이어티의 주식을 현금으로 바꾼 뒤 홀로 미주리로 가는 길이었다.²³

토머스는 십이사도를 다시 모으겠다는 결의로, 팔리에게도 함께 커틀랜드로 돌아가자고 권했다. 팔리는 그토록 큰 상처와 실망을 얻은 곳에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²⁴ 그러나 토머스는 팔리가 선지자와 화해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팔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다독였다.

팔리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조셉에게 편지를 쓸 때 그는 자신이 선지자를 위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팔리는 자신이 스스로를 기만하고 있음을 알았다. 팔리는 온유한 심령으로 조셉에게 회개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조셉을 응징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를 비난한 것이었다.

팔리는 자신이 배신감에 이성을 잃고 조셉의 어려움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것도 깨달았다. 선지자에게 맞서 목소리를 높인 것도, 그가 이기적이고 탐욕스럽다며 몰아세운 것도 모두 자신의 잘못이었다.²⁵

부끄러움을 느낀 팔리는 토머스 일행과 커틀랜드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바꿨다. 팔리는 커틀랜드에 도착하자마자 선지자의 집을 찾아갔다. 조셉은 몸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지만 서서히 상태가 나아지고 있었다. 조셉을 만난 팔리는 눈물을 흘리며 그에게 상처를 주었던 자신의 언행에 대해 사과했다. 조셉은 팔리를 용서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며 그를 축복해 주었다.²⁶

한편, 토머스는 나머지 십이사도들을 다시 하나로 모으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그가 애쓴 덕분에 올슨 프렛은 조셉과 화해했으나, 윌리엄 매클렐른은 결국 떠나 버렸고, 존슨 형제들과 존 보인턴도 여전히 화가 난 상태였다.²⁷

하지만 토머스는 곧 조셉이 자신과 상의하지 않은 채 히버 킴볼과 올슨 하이드를 영국으로 보냈다는 것을 알고는 불만을 터트리기 시작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장으로서 선교 사업을 지휘하고 영국에서 선교 사업을 이끄는 것은 자신의 소관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가 커틀랜드로 온 것도 십이사도를 모아 외국으로 보내기 위해서였다.²⁸

토머스는 히버와 올슨, 그리고 그들이 영국에서 하고 있는 일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자존심이 상하고 분한 마음이 드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다.²⁹

토머스는 7월 23일에 조셉과 함께 그 일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은 함께 만나 견해차를 좁혔으며, 조셉은 토머스를 위한 계시를 받았다.³⁰ 그 계시에서 주님은 토머스에게 다음과 같이 확언

하셨다. “너는 널리 모든 나라 가운데 십이사도와 관련하여 나의 왕국의 열쇠들을 지니도록 내가 택한 사람이[라.]” 주님은 토머스의 잘못을 용서하시며, 그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그분은 십이사도는 선교 사업과 관련된 일을 조셉과 그의 보좌들의 권세 아래 행하여야 한다고 단언하셨다. “그들이 너를 어디로 보내든지 너는 가라.” 주님은 토머스에게 제일회 장단의 지시를 따르면 선교 임지에서 큰 성공을 거두리라고 말씀하셨다.³¹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약속하셨다. “어디든지 내가 나의 이름을 전파하는 곳에서는, 그들이 내 말을 받아들일도록 효과적인 문이 네게 열리리라.”

또한, 주님께서서는 토머스에게 정원회에 생긴 균열을 바로잡을 방법을 일러 주셨다. “너는 겸손하라. 그리하면 주 네 하나님 이 손을 잡고 너를 인도할 것이요, 네 기도에 대한 응답을 네게 주리라.”

주님은 토머스와 십이사도들에게 조셉과의 견해차를 내려 놓고 선교 사업에 집중하라고 권고하셨다. “삼가 이 곳에 있는 나의 교회의 업무에 관하여는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 앞에서 너희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 그리고 나서 온 세상에 다니며 … 모든 피조물에게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부름이 얼마나 큰가 보라.”³²



서쪽으로

1837년 8월에 제네타 리차즈가 잠시 영국 프레스턴에 들렀을 때, 그녀의 친구인 앤과 토머스 윌슬리 부부는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에 관해 그녀에게 들려줄 말이 많았다.

앤은 오랫동안 병을 앓으며 쇠약해진 끝에 온몸이 앙상하게 말라 있었다. 그때 그녀를 가르치던 히버 킴볼은 만일 그녀가 신앙을 지니고, 회개하며, 침례의 물로 들어간다면 병이 치유되리라고 약속했다. 얼마 후에 앤은 다른 여덟 명의 사람과 함께 침례를 받고 이 새로운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 그 뒤로 점차 그녀의 건강도 좋아지기 시작했다.

침례받은 사람 중에는 제임스 필딩의 신도들이 많았다. 필딩 목사는 선교사들이 자신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허락했지만, 침례를 받는 것은 거절했으며, 자신의 신도들이 빠져나가자 분한 마음이 들었다.¹

제네타는 미국인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흥미로워했다. 그녀는 높은 굴퓏과 복잡한 거리를 특징으로 하는 프레스턴에서 약 24킬로미터 거리에 있는 워커폴드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 살았다. 제네타는 그 마을의 목사였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자랐다.

이제 스무 살 생일을 겨우 몇 주 앞둔 제네타는 하나님의 진리를 더 배우고 싶다는 호기심을 느꼈다. 제네타는 윌슬리 가족을 방문했다가 히버를 만나게 되었다. 그녀는 천사와 금판에 적힌 고대의 기록, 고대의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계시를 받는 살아 있는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히버는 그날 저녁에 있을 자신의 설교에 제네타를 초대했다. 그곳에 가서 히버의 설교를 들은 제네타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다음 날에도 히버의 설교를 들었고, 그가 하는 말이 참되다는 것을 알았다.

이튿날, 제네타는 히버에게 침례를 받고 싶다고 말했다. 히버는 올슨 하이드와 함께 제네타의 안내에 따라 리블강으로 가서 그녀에게 침례를 주었다. 그들은 강기슭에서 제네타에게 확인 의식도 베풀었다.

침례를 받은 제네타는 다른 성도들과 함께 프레스턴에 머물고 싶었지만, 워커폴드에 있는 부모님댁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그녀는 새로 찾은 신앙을 부모님에게 전하고 싶었지만, 성도들과 함께하겠다는 결심을 아버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었다.

히버는 제네타에게 이렇게 말했다. “주님께서 자매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머지않아 자매님 아버지의 예배당에서 가르칠 특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제네타는 그 말이 맞기를 바라며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다.²

그해 여름에 조셉은 토론토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 캐나다로 갔다. 그가 없는 동안 커틀랜드 성전에서 열린 일요 모임에서, 조셉 일세는 세이프티 소사이어티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인 조셉의 성품을 옹호하며, 맨 뒷자리에 앉아 있는 반대 세력의 행태를 규탄했다.

이렇게 축복사인 조셉 일세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워렌 패리쉬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자신도 한 말씀을 전하겠다고 했다. 조셉 일세는 방해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지만, 워렌은 성큼성큼 방을 가로질러 와서 기어이 연단에 섰다. 그는 조셉 일세를 붙잡고 연단에서 끌어내리려 했다. 조셉 일세는 그 지역의 치안 판사인 올리버 카우드리를 다급히 불렀지만, 오랜 벼를 돕기 위해 올리버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그때, 자신의 아버지가 위협에 처한 것을 본 윌리엄 스미스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워렌을 연단에서 끌어냈다. 그러자 존 보인턴이 칼을 뽑아 들고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윌리엄의 가슴에 칼을 들이대고, 한 발자국만 더 움직이면 찢러 버리겠다고 동료 사도인 윌리엄을 위협했다. 다른 반대자들도 칼과 권총을 주머니에서 꺼내 들고 윌리엄을 에워쌌다.

성전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문으로 몰려들고, 가까운 창문으로 빠져나갔다. 그 사이에, 도망치는 사람들을 비집고 보안관들이 뛰어들어왔다. 그들은 무장한 사람들을 진정시키려 했다.³

몇 주 뒤에 커틀랜드로 돌아온 조셉은 그 소식을 듣고 비상 대회를 열어 성도들을 소집했다. 이 대회에서 조셉은 교회의 지도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해 지지를 물었다.⁴ 성도들은 조셉과 제일회장단은 지지했으나 존 보인턴과 록 존슨, 라이먼 존슨은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⁵

커틀랜드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은 자명했지만, 그래도 조셉은 이번의 신임 지지를 통해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 교회의 유일한 스테이크인 커틀랜드는 성도들의 집합지가 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도시는 경제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반대 세력의 이간질로 교회의 연약한 회원들은 조셉을 반대했다. 이제 커틀랜드를 평화와 영적인 힘의 장소로 여기는 이는 많지 않았다.

최근에 주님께서는 시현을 통해 조셉에게 새로운 시온의 스테이크들을 만들고 교회의 경계를 확장하도록 촉구하셨다. 이제 조셉과 시드니는 미주리로 가서 파웨스트에 있는 새로운 정착지를 살펴보고 성도들이 집합할 수 있도록 다른 스테이크들을 세울 때가 되었다고 믿었다.⁶

조셉이 미주리를 방문할 이유가 또 있었다. 그는 커틀랜드에서 배도가 일어나 시온의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을 염려했다. 존 휘트머와 윌리엄 펠프스는 계시에서 지시받은 것과 달리 감독단이나 고등평의회와는 아무 논의도 하지 않은 채 파웨스트를 세웠다. 그들은 기부금을 사용해 자신들 명의로 땅을 사고 팔며 개인적인 이익을 챙기기도 했다.

두 사람 모두 잘못을 인정하기는 했지만, 조셉과 교회의 다른 지도자들은 그들이 아직 미주리 땅을 부정직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의심을 버리지 못했다.⁷

또한, 파웨스트로 옮겨 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던 제일회장단 일원들이 미주리에 미칠 영향도 걱정이었다. 프레드릭 윌리엄스는 커틀랜드 세이프티 소사이어티의 경영을 놓고 조셉과 충돌한 일이 있었고, 그 일로 그들의 우정에 금이 가 있었다.⁸ 그러는 동안, 올리버도 조셉이 지역 경제와 정치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고 있었다. 올리버뿐만 아니라 미주리 교회의 회장인 데이비드 휘트머도 조셉이 선지자 역할을 하면서 현세적인 문제에 지나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생각했다.⁹

워렌 패리쉬나 다른 반대자들과 결탁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지난 여덟 달 동안 조셉에 대한 충성심이 약해져 있었다. 조셉은 그들이 시온에서 문제를 일으킬까 봐 걱정이 되었다.

조셉은 커틀랜드를 떠나기 전에 형 하이럼과 토머스 마쉬에게 먼저 파웨스트로 가서 자신과 이 지도자들 사이에 균열이 커지는 상황을 충실한 성도들에게 경고해 달라고 부탁했다.¹⁰ 하이럼은 그 임무를 받아들였다. 몇 주 뒤면 여섯 번째 아이를 출산할 아내 제루샤를 남겨 두고 떠나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했다.¹¹

올리버는 교회를 이끄는 방식을 놓고서만 조셉과 의견이 갈리는 것이 아니었다. 조셉은 영감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동안 복수 결혼에 관해 배운 후로, 때때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이 원리를 시행하도록 명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조셉은 이를 당장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지만, 몇 년 뒤에 주님의 천사를 통해 아내를 한 명 더 두라는 명을 받았다.¹²

하지만 조셉은 이 계명을 받은 뒤 이에 대한 반감이 생겼고, 그 감정을 이겨 내느라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 그는 복수 결혼을 시행함으로써 닥칠 시련을 예견할 수 있었기에 그것을 피하고 싶었다. 그러나 천사는 그에게 복수 결혼을 시행하도록 촉구하며, 흔들림 없이 고결한 이들과만 이 계시를 공유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천사는 주님께서 그분의 선택된 종들을 통해 복수 결혼을 공개적으로 시행해도 된다고 여기실 때까지는 이 원리를 기밀로 하라고 명했다.¹³

패니 앨저는 조셉이 커틀랜드에 살았던 몇 년 동안 그의 집에서 일했던 젊은 여성이었다. 조셉은 그녀의 가족을 잘 알았으며 그들을 신뢰했다. 그녀의 부모는 교회가 조직되던 첫해에 교회에 들어온 충실한 성도들이었다. 또한 그녀의 삼촌인 리바이 헨콕은 이스라엘 진영에서 행군에 참여하기도 했었다.¹⁴

조셉은 리바이의 도움과 패니 부모의 허락을 받아 주님의 명령대로 패니에게 청혼했다.¹⁵ 패니는 조셉의 가르침과 함께 그의 청혼도 받아들였으며, 그녀의 삼촌이 두 사람의 결혼식을 집행했다.¹⁶

그러나 아직 교회에서 복수 결혼을 가르칠 시기는 되지 않았기에 조셉과 패니는 천사가 지시한 대로 자신들의 결혼을 비밀에 부쳤다.¹⁷ 그러나 커틀랜드의 일부 사람들에게 이 소문이 퍼졌고,¹⁸ 1836년 가을에 패니는 커틀랜드를 떠났다.¹⁹

올리버는 조셉과 패니의 관계를 신랄하게 비난했지만, 그가 이 관계를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²⁰ 에머가 이 결혼에 대해 얼마나 알았는지 또한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다. 결국 패니는 다른 남성과 결혼하여 성도들과는 거리를 두고 지냈다.

나중에 그녀는 친형제 중 한 명에게 조셉과의 복수 결혼에 관해 묻는 편지를 받고는 이렇게 답했다.

“그건 우리만의 문제야. 거기에 대해서는 해 줄 말이 없어.”²¹

1837년 가을에 조셉과 시드니가 파웨스트로 떠날 무렵, 월포드 우드럽은 대서양 북부의 폭스 제도에서 어부들과 고래잡이들과 함께 생활하며 선교 사업을 하고 있었다.²² 월포드 우드럽이 동반자 조너선 헤일과 함께 폭풍우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이 섬에 도착한 것은 8월의 마지막 주였다. 두 사람 다 상륙수가 올창한 이 지역을 잘 알지 못했지만, 그들은 주님의 백성들이 바다의 섬들로부터 모여들 것이라고 했던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도록 힘을 보태고 싶었다.²³

두 사람이 커틀랜드를 떠나기 전에 몇몇 반대자들은 조너선 이 폭스 제도에서 한 사람도 침례를 주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며 그의 의욕을 꺾으려 했었다. 조너선은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다.²⁴

월포드와 조너선은 이미 여러 달 동안 함께 일하고 있었다. 그들은 커틀랜드를 떠난 후 코네티컷주에 있는 월포드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침례를 받은 사람은 월포드의 삼촌과 숙모, 사촌뿐이었다.²⁵ 얼마 후에 피비 우드럽도 합류하여, 세 사람은 해안을 따라 피비의 부모가 사는 메인주로 갔고, 남편과 조너선이 선교 사업을 계속해 나가는 동안 피비는 그곳에 머물렀다.²⁶

월포드와 조너선이 폭스 제도에서 첫 번째로 만난 사람 중에는 기디언 뉴턴이라는 목사가 있었다. 월포드와 조너선은 그의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몰몬경을 건넸다. 그 후에 윌포드는 조너선과 함께 그 목사의 교회로 가서 신약전서를 가르쳤다.²⁷

그리고 그날부터 며칠 동안 두 사람은 주로 학교의 사택에서 복음을 가르쳤다. 폭스 제도 사람들은 똑똑하고 근면하며 친절했다. 기디언은 가족과 함께 그 두 선교사가 여는 모임에 대부분 참석했다. 기디언은 몰몬경을 공부했으며, 몰몬경이 참됨을 증거하는 영도 느꼈다. 그러나 몰몬경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확신이 서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가 자신의 신도들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었다.²⁸

폭스 제도에서 지낸 지 일주일이 넘어가던 어느 날 아침, 윌포드는 많은 사람이 모인 기디언의 교회에서 설교를 했다. 사람들이 윌포드의 설교를 반기는 모습을 보고 걱정이 된 기디언은 그날 오후에 윌포드와 조너선을 만났다. 그는 몰몬경을 제법 많이 읽어 보았다며, 자신은 몰몬경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폭스 제도에서 자신이 지닌 영향력을 이용해 두 사람의 복음 전도를 막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기디언은 자신이 직접 설교하기 위해 교회로 갔고, 윌포드와 조너선은 그들이 과연 앞으로 그곳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의심이 밀려왔다. 그러나 기디언이 교회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텅 비어 있었다. 그의 설교를 들으러 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²⁹

그날 밤, 윌포드와 조너선은 저스터스 임스라는 선장과 그의 아내인 벅시의 집에 있었다. 임스 부부는 선교사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고, 윌포드는 일요 모임을 한 차례 한 후에 그들에게 침례를 권유했다. 그들은 기쁘게도 윌포드의 권고를 받아들였다.³⁰

윌포드는 조너선을 돌아보며, 그들이 폭스 제도에서 성공하지 못하리라던 커틀랜드의 반대자들을 떠올렸다. 그리고는 저스터를 가리키며 말했다. “가서 그에게 침례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틀렸음을 증명합시다.”³¹

한편, 파워스트에서 임무를 시작한 하이럼은 동생 조셉이 아내의 소식을 갖고 도착하기를 날마다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하이럼과 토머스의 눈에 비친 파워스트는 번영하는 지역이었다. 성도들은 집을 짓고 정원을 가꾸기 위해 넓은 길을 닦고 널찍한 도시 구획을 만들 계획이었다. 거리에서 아이들이 웃고 뛰노는 가운데 말과 마차, 수레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지나갔다. 그 도시에는 집과 오두막, 호텔, 그리고 감독의 창고를 비롯한 상점도 여러 곳 있었다. 도시의 한가운데는 성전이 들어설 예정이었다.³²

조셉과 시드니는 11월 초에 파워스트로 왔지만 하이럼에게는 전할 소식이 없었다. 그들이 바로 몇 주 전에 커틀랜드를 떠날 때까지도 제루샤는 아직 출산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³³

조셉은 앞으로의 성장을 염두에 두고 정착촌을 확장할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속히 파워스트에서 대회를 소집했다. 그와 시드니는 이 지역이라면 폐지어 몰려오는 이웃이나 폭력의 위험 없이 성도들이 여유롭게 집합하여 성장하는 것이 가능하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조셉은 이 대회에서 정착지를 확장할 계획을 발표했다으며 주님께서 성전과 관련한 그분의 뜻을 밝히실 때까지 새로운 성전을 짓는 것을 미루겠다고 알렸다.

또한, 선지자는 파워스트의 성도들에게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에는 프레드릭 윌

리엄스가 제일회장단의 직분에서 물러났으며, 시드니 리그돈은 이 공석을 채우기 위해 하이럼을 지명했다. 성도들은 하이럼을 제일회장단의 새로운 일원으로 받아들였다.³⁴

며칠 뒤, 커틀랜드에서 하이럼 앞으로 편지가 왔다. 편지에는 그가 오래 기다리던 소식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편지를 쓴 사람은 그의 아내 제루샤가 아니라 동생 새뮤얼이었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사랑하는 하이럼 형, 나는 오늘 저녁에 형에게 편지를 써야 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리에 앉았어. 분별 있는 남자라면 누구나 자기 가족의 상황을 정확히 알고 싶어 한다는 걸 알기 때문이야.”

하이럼은 편지를 읽으며 어찌할 바를 몰랐다. 제루샤는 건강한 여자아이를 낳았지만, 출산 후 급격히 쇠약해 졌다. 스미스 가족은 제루샤가 기운을 차리도록 정성껏 그녀를 돌보았지만, 그녀는 며칠 뒤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³⁵

하이럼과 조셉은 곧바로 커틀랜드로 돌아갈 준비를 시작했다. 조셉은 미주리를 떠나기 전에 은밀히 토머스 와 올리버를 만났다.³⁶ 그들은 조셉과 페니 앨저의 결혼에 대한 올리버의 반대 의견을 놓고 이야기를 나눴으나 생각의 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³⁷ 마침내 조셉은 올리버에게 손을 내밀며 둘 사이에 생긴 갈등을 모두 떨쳐 내고 싶다고 말했다. 올리버는 조셉의 손을 맞잡았고, 둘은 그렇게 헤어졌다.³⁸

조셉과 시드니, 하이럼은 몇 주 뒤에 다시 커틀랜드에 도착했다. 하이럼이 친척 집으로 가 보니,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를 잃은 다섯 아이는 슬픔에 빠져 있었고, 제루샤는 성전 옆 묘지에

묻혀 있었다. 하이럼은 제일회장단의 책임을 새로 맡은 상황에서 어떻게 혼자서 다섯 아이를 돌보아야 할지 속수무책이었다.³⁹

조셉은 하이럼에게 재혼을 권하며 아내가 될 사람으로 메리 필딩을 추천했다.⁴⁰ 메리 필딩은 친절하고 학식이 있으며 교회에 헌신하는 여성이었다. 그녀는 하이럼의 훌륭한 동반자가 되어 그의 자녀들을 잘 돌볼 것 같았다.

하이럼은 얼마 후에 메리에게 청혼했다. 서른여섯 살의 메리는 그때까지 여러 번 청혼을 받고도 항상 거절해 왔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메리에게 절대로 아이가 딸린 홀아비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 적이 있었다. 하이럼의 청혼을 받아들이면, 메리는 하루아침에 여섯 아이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었다.

메리는 깊이 생각한 끝에 청혼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스미스 가족을 동경하고 있었으며, 조셉을 형제로 여겼고, 성품이 겸손한 하이럼을 존경했다.⁴¹ 그들은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결혼식을 올렸다.⁴²

조셉이 커틀랜드로 돌아오자 많은 성도들이 안도했으나, 그가 교회에 화합을 되찾아 주리라는 소망은 곧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워렌 패리쉬와 룩 존슨, 존 보인턴은 매주 그랜디슨 뉴얼을 비롯한 교회의 적대 세력과 모여서 제일회장단을 비판했다. 한때는 교회의 충실한 일꾼이었던 마틴 해리스도 곧 그들에게 가담했고, 그 해가 끝나갈 무렵에는 반대 무리의 주동자들이 그들만의 교회를 조직하기에 이르렀다.⁴³

얼마 후에 빌리트 김볼은 영국에 있는 남편에게 편지를 보내 오하이오의 교회 상황을 알렸다. 빌리트는 십이사도 정원회에

서 함께 일했던 룩 존슨과 존 보인턴에 대한 남편의 사랑을 알기에 이 끔찍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망설여졌다.⁴⁴

빌리트는 이렇게 적었다. “이 소식을 들으면 분명 당신은 몹시 마음이 아플 거예요. 그들은 몰몬경과 교리와 성약은 믿지만 이 사업은 부정한다고 했어요.”⁴⁵

머린다 하이드는 이 편지의 말미에 남편 올슨 앞으로 짤막한 글을 남겼다. 머린다는 자신의 오빠인 룩 존슨의 배도로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당신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일이 지금 커틀랜드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아무도 서로를 신뢰하지 않는 것 같아요.” 머린다는 위험한 시기를 헤쳐 나갈 올바른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 상황을 주시하며 기도해야만 했다.

그녀는 남편에게 이렇게 적었다.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당신이 그리워요.”⁴⁶

그 무엇도 반대자들의 감정을 누그러뜨리지는 못하는 것 같았다. 그들은 조셉과 시드니가 커틀랜드 세이프티 소사이어티를 잘못 관리했으며 성도들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워렌은 선지자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에 가까운 사람이어야 한다고 믿었고, 그래서 그는 세이프티 소사이어티의 실패를 들어 조셉이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다.⁴⁷

커틀랜드의 고등평의회는 여러 달 동안 반대 세력의 주동자들과 화해를 시도한 끝에 결국 그들을 파문했다. 그러자 그들은 성전을 점거하고 그곳에서 자신들이 세운 교회의 모임을 열었으며, 아직도 조셉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있다면 커틀랜드 밖으로 추방하겠다고 위협했다.

빌리트는 반대 세력이 성도들에게 등을 돌린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믿었지만, 그들을 생각하면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컸

다. 빌리트는 남편에게 이렇게 적었다.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적긴 했지만, 그중에는 제가 사랑하는 이들도 있어요. 전 그들을 정말 사랑해요. 그들이 안타까워요.”⁴⁸ 빌리트는 세이프티 소사이어티의 붕괴가 영적으로도 현세적으로도 그들에게 고비가 되었음을 알고 있었다. 그녀 역시 조셉이 세이프티 소사이어티를 관리하는 동안 실수를 저질렀다고 생각했지만, 그렇다고 선지자에 대한 신앙을 잃은 것은 아니었다.

“조셉이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회개했다는 것을 믿을 이유는 충분해요.” 그녀는 교회가 능히 어려움을 견뎌 내리라고 믿었다.

“주님은 징계를 견디지 못하고 그분을 부인하는 자는 성결해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히버가 선교 사업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자신은 커틀랜드에 홀로 남아 아이들과 함께 그러한 적대감을 겪어 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의미였다. 혹은 만일 상황이 더 나빠진다면, 그들은 집을 버리고 미주리로 가야 할지도 몰랐다.

빌리트는 이렇게 적었다. “달아나야 한다면, 그렇게 할 거예요.”⁴⁹

새해가 되자, 커틀랜드에서는 반대 세력들은 점점 더 과격해지고 공격적으로 변해 갔다. 교회는 폭도들의 위협에서 벗어날 새가 없었고, 선지자는 부채와 누명 탓에 끝없이 쫓기고 있었다. 얼마 후에는 지역의 보안관이 구속 영장을 들고 그를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만일 체포된다면, 조셉은 거금이 들어가는 재판에 회부되거나 감옥에 갇힐 수도 있었다.⁵⁰

1838년 1월 12일, 선지자는 주님께 도움을 구하여 계시를 받았다. 주님은 이렇게 지시하셨다. “나의 교회의 회장단은 방법이 정해지는 대로 가족들을 데리고 속히 서쪽으로 가라.”

또한, 주님은 조셉의 친구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미주리에 집합하라고 말씀하셨다. “오 너희 시온의 백성들이여, 너희 가운데 평안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안전하지 못하리라.”⁵¹

스미스 가족과 리그돈 가족은 즉시 탈출할 계획을 세웠다. 그날 저녁에 조셉과 시드니가 커틀랜드를 몰래 빠져나가면, 가족들이 마차를 타고 바로 뒤따라 가는 것이었다.

그날 커틀랜드의 밤이 깊어질 무렵, 조셉과 시드니는 말에 올라타고 도시를 빠져나갔다.⁵² 그들은 날이 밝을 때까지 남쪽으로 달렸다. 6킬로미터에 달하는 길이었다. 말들이 지치자, 두 사람은 길을 멈추고 아내와 자녀들을 기다렸다.

조셉도 시드니도 다시 커틀랜드를 볼 수 있으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 가족들이 도착하자, 두 사람은 그들이 탄 마차에 올라타고 파워스트로 출발했다.⁵³



거룩하고 성별된 땅

1838년의 겨울은 길고 추웠다. 조셉과 시드니의 가족이 서쪽으로 향하는 동안, 올리버 카우드리는 미주리주 북부 지역 일대를 터덜터덜 걷고 있었다. 그는 눈과 비에 젖은 몸으로 시온의 새로운 스테이크를 세울 장소를 물색 중이었다. 그가 보기에 이 지역은 지금껏 본 어느 곳보다도 좋아 보였다. 올리버는 이곳저곳을 샅샅이 살피며 성도들이 도시와 제분소를 세울 부지를 탐색했다. 이 인적 드문 황무지에서 그는 매일 거의 굶다시피 했고, 밤에는 축축한 흙바닥에서 잠을 청했다.

3주 후에 파웨스트로 돌아갔을 때, 올리버는 온몸의 기력이 쇠진한 상태였다.¹ 기운을 좀 차렸을 무렵, 그는 토머스 마쉬와 데이비드 패튼, 고등평의회가 자신은 물론 미주리 교회의 회장단인 데이비드 휘트머, 존 휘트머, 윌리엄 펠프스의 부정행위를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²

그 지역의 토지를 임의로 처분했다는 것이 주된 혐의였다. 얼마 전, 존 휘트머와 윌리엄 펠프스가 파웨스트에 있는 교회 소유지를 팔아 수익을 가로챈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일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다. 더욱이 올리버, 존, 윌리엄은 최근 잭슨군에 있는 자신들의 사유지 일부를 매각했었다. 잭슨군 토지가 그들의 사유지였기에 그 땅을 매각할 법적 권리가 그들에게 있었다고는 해도, 이는 이미 주님께 헌납된 땅이었으며, 그 땅을 매각하지 말라는 계시가 있었다. 그렇게 세 사람은 기록한 성약을 파기하고, 시온에 대한 자신들의 부족한 신앙을 여실히 드러냈던 것이다.

미주리 고등평의회 앞에 선 올리버는 자신과 나머지 두 사람이 잭슨군 토지 대금을 치렀으니 매각도 자신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실, 올리버는 평의회 일부 회원들의 진의가 의심스러웠다. 그는 토머스 마쉬를 비롯하여 지위와 권세를 탐내는 듯 보이는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었다. 올리버는 그들의 이간질로 선지자 조셉이 자신에게 등을 돌렸고, 또 그 때문에 꺾끄러웠던 둘의 관계가 더욱 악화된 것이라고 생각했다.³

그는 자신의 형제에게 이렇게 털어놓았다. “그런 권력 다툼을 보니 마음이 아파. 평안을 얻고자 이곳에 왔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그걸 얻을 수 있는 곳으로 가야겠어.”

제일회장단의 일원인 올리버는 고등평의회에의 관할 밖이었기에, 그의 부름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하지만 데이비드, 존, 윌리엄은 그들의 직책에서 물러나게 되었다.⁴

나흘 뒤, 올리버는 이 세 사람을 비롯해 적극적으로 교회를 떠나고 싶어 하는 몇몇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 대다수는 워렌 패리쉬와 그가 커틀랜드에 새로 세운 교회를 지지했다. 이들 역시 워렌처럼 선지자 조셉에 맞서기로 결의했다.⁵

조셉이 파워스트로 돌아올 날을 성도들이 기다리는 동안,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올리버의 경멸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그는 자신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이해한다는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는 “무분별하고 무지한 자들에게서는 그 어떤 칭찬이나 동의도 기대하지 않는다.”라며 냉소했다.⁶

하지만 물몬경과 복음의 회복에 대한 그의 신앙은 변함이 없었다. 그는 선지자 조셉과 함께 겪었던 성스러운 경험들을 잊거나 부인할 수 없었다. 두 사람은 형제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으나,

이제 그런 것은 모두 아득한 옛일이 되고 말았다.⁷

영국 워커폴드에 있는 집에 돌아온 제네타 리차즈는 부모님에게 자신이 침례받은 일과 히버 킴볼이라는 선교사에 대해 이야기했다. 제네타의 부모인 존과 엘린 리차즈는 딸의 이야기를 흥미로워했다. 존은 펜과 종이를 꺼내 그 선교사에게 자신이 다니는 교회로 와서 설교해 달라는 짝막한 편지를 적었다.

“돌아오는 일요일에 이곳에 오신다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모르는 사이지만, 우리의 축복받은 구속주께서는 우리를 잘 아실 테니까요.”

그다음 토요일에 존은 자신을 찾아온 히버를 따뜻하게 맞이했다. “당신이 바로 최근에 미국에서 왔다던 그 성직자시군요.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는 히버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음식을 대접했다.

이들의 대화는 밤 늦게까지 계속되었다.⁸ 제네타는 친분을 쌓아 가는 히버와 아버지를 보면서, 두 사람의 확연히 대비되는

몇몇 특징을 발견했다. 이제 72세가 된 그녀의 아버지는 워커폴드에 있는 교회에서 40년 이상 설교를 해 온 목사였다. 작은 키에 갈색 가발을 쓴 그는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읽을 줄 알았다.⁹ 반면, 히버는 키가 크고 거대한 체격에 머리가 벗겨졌다. 그는 40이 채 안되었으며, 정규 교육을 거의 받은 적이 없었고, 사회적으로 세련된 면모도 부족했다.

그러나 그런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금세 친구가 되었다. 다음 날 아침, 둘은 함께 워커폴드 예배당으로 걸어갔다. 미국에서 온 선교사가 설교할 것이라는 소식에 교회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신도들이 모여들어 작은 예배당은 그야말로 초만원을 이루었다. 목사는 찬송과 기도로 모임을 시작한 후, 히버에게 설교를 부탁했다.

히버는 연단에 서서 일반 사람들이 쓰는 일상적인 언어로 설교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진실한 회개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권세를 받은 사람에게 침수로써의 침례와 성신의 은사를 받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1년 전에 캐나다의 개종자들이 그랬듯이, 워커폴드 사람들 역시 자신들이 성경에 관해 이해하는 바에 부합하는 그 메시지를 쉽게 받아들였다. 그날 오후, 더 많은 사람이 히버의 설교를 듣기 위해 다시 예배당을 찾았다. 그가 설교를 마쳤을 때, 사람들의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다. 제네타의 아버지는 히버에게 다음 날 또 한 번 설교를 해 달라고 부탁했다.

곧 워커폴드의 많은 사람이 제네타와 같은 믿음을 공유하게 되었다. 월요일에 설교가 끝나자 사람들은 히버에게 수요일에 다시 한번 설교를 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주말까지 히버는

총 여섯 명에게 침례를 주었고, 설교를 더 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이 그에게 쇄도했다.¹⁰

1838년 3월 14일, 조셉과 에머는 세 자녀와 함께 두 달여의 여정 끝에 파웨스트에 도착했다. 성도들은 시온으로 돌아온 선지자 조셉을 열렬히 환영하며 그의 가족을 기쁘게 맞이했다. 이들의 친절하고 따뜻한 환영은 조셉이 커틀랜드에서 겪었던 반목과 대립과는 사뭇 다른 그야말로 행복한 변화였다. 조셉은 자신을 둘러싼 성도들에게서 단합의 영과 풍성한 사랑을 느꼈다.¹¹

조셉은 미주리에서 새롭게 다시 시작하고 싶었다. 곧 있으면 커틀랜드와 미국 동부, 캐나다에서 성도들이 속속 도착할 것이고, 그들을 모두 수용하려면 교회는 성도들이 평화롭게 모여 번영할 수 있는 시온의 스테이크를 세워야만 했다.

올리버가 성도들이 새로 집결할 수 있는 지역을 이미 물색해 두었고, 그의 보고에 따르면 그 지역은 전도유망해 보였다. 하지만 성도들이 새로 정착을 시작하기 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직 남아 있었다. 바로 악화되고 있는 파웨스트 내의 갈등 문제였다. 올리버와 같은 친구들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는 것은 몹시 슬픈 일이었지만, 미주리에서마저 커틀랜드에서처럼 불화가 판을 치게 할 수는 없었다.

조셉은 파웨스트가 비교적 평화로운 것은 토머스 마쉬와 고등평의회 지도력 덕분이라고 여겼다. 고등평의회는 윌리엄 펠프스와 존 휘트머를 그들의 직분에서 물러나게 한 뒤, 두 사람을 파문했고, 조셉은 그들의 결정을 승인했다. 그리고 조셉은 이제 더는 올리버의 배도에 대한 조치를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다.¹²

4월 12일, 에드워드 파트리지는 올리버의 교회 내 지위를 심의하기 위해 감독의 평의회를 소집했다. 올리버의 불순종은 공공연하게 알려진 상황이었다. 그는 교회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교회의 다른 지도자들의 권고를 무시했고, 토머스와 고등평의회에 모욕적인 내용의 서한을 보내기까지 했다. 또한, 그는 계시에 반하여 책슨군에 있는 자신의 사유지를 매각하고, 조셉을 간음으로 무고했으며, 하나님의 대의를 저버렸다.¹³

올리버는 평의회에 참석하는 대신, 파트리지 감독에게 자기 변호를 담은 서한을 보내 낭독하게 했다. 그 서한에는 올리버 자신이 책슨군 사유지를 매각한 것이나 교회 지도자들과 대립한 것을 부인하는 내용은 없었다. 그 대신, 그는 계시나 성약 또는 계명과는 상관없이 그 토지를 매각할 법적 권리는 자신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주장했다. 또한, 그는 교회에서 탈퇴했다.¹⁴

그날 평의회는 남은 하루 내내 올리버의 행실에 대한 몇몇 성도들의 증언을 듣고, 증거들을 검토했다. 조셉은 자리에서 일어나 올리버는 자신이 과거에 신뢰하던 사람이었음을 밝혔고, 또한 올리버가 제기한 혐의에 대한 답변으로 자신과 패니 엘저의 관계를 설명했다.¹⁵

평의회는 증언을 더 들은 뒤 올리버의 문제를 논의했다. 올리버와 마찬가지로, 그들 역시 개인의 선택의지와 자유에 관한 원리를 소중하게 여겼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지난 10여 년 동안 성도들에게 개인적인 욕구를 제쳐 두고 각자가 가진 것을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데 헌납하며 단합할 것을 강력히 권고해 오셨다.

올리버는 그런 원리를 외면한 채 자신의 판단에 의존하여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 그리고 주님의 계명을 멸시했다. 파트리지

감독과 평의회는 올리버의 죄를 재차 검토한 다음, 올리버를 교회에서 내보내겠다는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렸다.¹⁶

영국의 리블강 뱌리는 이제 혹독한 겨울 추위가 물러나고 봄내음이 물씬 풍기고 있었다.¹⁷ 워커폴드 인근 마을의 푸른 목초지를 지나던 윌라드 리차즈는 길가의 울타리 틈에서 자그마한 흰 꽃 한 송이를 꺾었다.¹⁸ 그 지역에 세워진 여러 지부를 순회 중이던 그는 그날 오후 히버 킴볼과 올슨 하이드가 약 8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설교하는 것을 들으러 갈 계획이었다.

8개월 전에 영국에 도착한 윌라드와 그의 동반자들은 리블강 뱌리 일대의 여러 도시와 마을을 다니며 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었다. 새로운 성도들 상당수는 젊은 노동자 계층이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담긴 희망과 화평의 메시지에 마음이 이끌려 복음으로 개종했다. 히버의 단순한 설교 방식은 이들에게 편안하게 다가왔다. 히버는 금세 그들의 신뢰를 얻었다.¹⁹

윌라드는 히버보다 교육을 더 많이 받았고 약초학을 연구하기도 했지만, 쉽게 설명하는 능력이 부족했다. 그래서 때때로 히버는 윌라드에게 메시지를 단순하게 전하고, 복음의 첫째 되는 원리에 초점을 맞추도록 일깨워 주어야 했다. 한편, 윌라드는 여러 난관을 극복하고 맨체스터 인근 도시인 프레스턴 남부에 교회의 강한 지부를 세우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가 침례를 준 많은 사람들은 매년 가득한 공장에서 오랜 시간 근무하며 박봉에 시달리는 삶을 살았다. 그들은 선교사들이 전하는 회복된 복음을 듣고 영을 느꼈고, 주님의 재림이 머지않았다는 약속에 기뻐했다.²⁰

한 교회 회원의 집에 도착한 윌라드는 부엌에 들어가 조금 전에 꺾은 흰 꽃을 매달아 두었다. 곧이어 윌라드가 있던 곳으로 젊은 여성 두 명이 들어왔다. 그중 한 명은 제네타 리차즈였다.

윌라드는 제네타에 대해 이미 들은 적이 있었다. 그들은 성이 같기는 했지만 친척은 아니었다. 제네타가 교회에 들어왔을 때, 히버는 윌라드에게 편지로 그녀에 관해 말한 적이 있었다. “나는 오늘 자네의 아내에게 침례를 주었네.”

윌라드는 당시 33세로, 교회 대부분의 미혼 형제들에 비해 훨씬 나이가 많았다. 윌라드는 히버가 그녀에게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지, 했다면 어떤 말을 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윌라드와 그 젊은 여성들은 모두 그날 같은 모임에 참석할 예정이었기에 모임 장소까지 함께 걸으며 대화를 나누었다.

길을 가던 중에 윌라드가 불쑥 말을 꺼냈다. “저는 제 성 리차즈가 참 좋습니다. 언제까지나 그게 제 성이었으면 하죠.” 그리고 그는 대답하게 물었다. “당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네타?”

제네타가 답했다. “저도 그래요. 앞으로도 성을 바꿀 일은 없을 것 같아요.”²¹

그날 이후로 윌라드는 제네타와 더 자주 시간을 함께 보냈다. 몇 주 뒤, 히버와 올슨이 미국으로 돌아가겠다고 발표했을 때, 윌라드와 제네타는 프레스턴에 있었다.

사도들은 떠날 준비를 하던 중에 하루 날을 잡아 프레스턴 성도들이 자주 모임을 했던 큰 건물에서 대회를 열었다. 모임은 하루 종일 진행되었다.²² 설교를 한 뒤 찬송가를 부르기 전에 그들은 40명에게 확인 의식을 하고, 100명이 넘는 어린이들을 축복했으며, 몇몇 남성을 신권에 성임했다.

히버와 올슨은 성도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 전에 조셉 필딩을 새로운 선교부 회장으로 성별하고, 윌라드와 젊은 공장 사무원인 윌리엄 클레이튼을 그의 보좌로 불렀다. 그런 다음, 영국과 미국 성도들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에서 그들은 새로운 회장과 악수를 했다.²³

그해 봄에 선지자 조셉은 파웨스트에서 다음과 같은 계시를 받았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빛을 받라. 그리하여 네 빛이 열국을 위한 기가 되게 하라.” 주님은 교회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로 칭하도록 선포하셨으며, 또한 파웨스트가 거룩하고 성별된 땅임을 확인해 주셨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파웨스트시가 나의 성도들의 집합에 의하여 속히 개발되어야 함이 나의 뜻이니라. 그리고 또한 … 주변 지역에서 다른 장소들이 스테이크를 위하여 지정되는 것이 나의 뜻이니라.”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 파웨스트에 성전을 세우라고 명하시며, 1838년 7월 4일을 공사 시작일로 지정하셨다.²⁴

얼마 후, 조셉과 몇몇 형제들은 콜드웰군 북쪽에 있는 데이비스군으로 가서 교회 회원들의 정착지인 스프링힐을 방문했다. 조셉은 그곳이 미주리로 이주해 올 성도들이 모일 만한 적합한 장소이기를 바랐다.²⁵

콜드웰군이 특별히 후기 성도들을 위해 조성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은 그곳의 토지 대부분을 조사 평가하여 지가를 너무 높게 책정해 가난한 성도들이 매입할 수 없게 만들었다. 하지만 데이비스군에는 아직 사람이 살지 않는 광활한 대지가 많았다. 그리고 그곳은 아직 정부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따

라서 교회 회원들은 그곳에서 무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었고, 나중에 정부에서 그 지역을 조사할 때쯤이면, 그때는 이미 땅을 경작해서 얻은 돈으로 토지를 매입할 수 있을 것이었다.²⁶

그러나 성도들이 인근의 다른 군으로 이주하는 데에는 일부 위험 요소가 있었다. 성도들이 콜드웰군에만 정착하기로 약속했다고 믿는 데이비스군의 일부 주민들은 성도들에게 그곳에 발도 들이지 말라며 엄포를 놓았다. 하지만 다행히 성도들이 그곳에 정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기에 그런 주장도 오래가지는 못했다.²⁷

조셉은 북쪽을 둘러보며 주변 경관의 아름다움에 감탄했다. 조셉의 눈에 데이비스군은 무한한 자유가 보장되고, 새로운 정착지를 세우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것만 같았다.

초원 지대라 나무는 거의 없었지만, 사냥할 수 있는 야생 동물은 많아 보였다. 조셉이 본 동물만 해도 야생 칠면조, 야생 닭, 사슴, 엘크 등 여러 종이 있었다. 주변으로는 개울과 강이 흘러 땅이 기름지고 초록빛 풀이 무성했다.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강인 그랜드강은 증기선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강폭이 넓고 깊었다. 성도들은 그런 이동 수단을 이용해 이곳에 모이고 상업 활동도 할 수 있을 것이었다.

조셉은 동반자들과 함께 말을 타고 강둑을 따라 16킬로미터를 더 달린 끝에 스프링힐에 도달했다. 스프링힐은 널찍한 초록 골짜기가 내려다보이는 절벽 기슭에 조성된 작은 마을이었다. 이 외딴 마을의 지도자는 그랜드강을 오가는 배를 운항하며 근근이 생활하고 있는 라이먼 화이트였다.²⁸

조셉 일행은 절벽 위에 천막을 친 다음, 다시 말을 타고 절벽을 내려가 배로 향했다. 조셉은 그 지역을 확보해 강 근처에 성

도들을 위한 도시를 세우고자 했다. 주님께서는 계시를 통해 이 곳이 최초의 인류 아담이 죽기 전에 자녀들을 축복했던 아담-온다이-아만 계곡임을 밝혀 주셨다.²⁹ 조셉은 선지자 다니엘이 예언한 것처럼 이 계곡이 구주께서 지상에 다시 오실 때 아담이 자기 백성을 방문하러 올 곳이라고 이야기했다.³⁰

정착은 조셉이 희망했던 대로 모든 일이 잘 이루어졌다. 1838년 6월 28일, 라이먼 집 근처의 작은 숲에서 조셉은 그 성스러운 땅에 시온의 새로운 스테이크를 조직하고, 성도들에게 그곳으로 모이도록 지시했다.³¹



우리에게 자유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1838년 6월 중순, 부모님 댁 현관 계단에 선 월포드 우드립은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을 가족들에게 전하겠다고 결의를 재차 다졌다. 그는 폭스 제도에 지부를 조직한 후 아내를 보기 위해 미국 본토로 돌아왔다. 월포드의 아내 피비는 첫 번째 출산을 앞두고 있었다. 당시 그는 보스턴과 뉴욕을 비롯한 동부 해안의 여러 도시를 거치며 설교를 전했고, 이제 북부로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모님 집에 들른 것이었다.¹

월포드는 자신의 가족들이 진리를 받아들인다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만 같았다. 그의 아버지 아팩은 평생 진리를 찾아 왔지만 아직 찾지 못한 상태였다. 누이인 유니스도 자신의 삶에 더 많은 빛이 함께하기를 갈구하고 있었다.² 며칠에 걸쳐 가족들과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 본 후, 월포드는 가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다. “우리는 긴장과 불안이 들끓는 시기를 보내고 있다.”³ 이제 그는 곧 이곳을 떠나야만 했다. 부모님 집에 너무 오래 있다가는 첫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었다.

월포드는 더 열렬히 기도했지만, 가족들은 점점 더 침례에서 마음이 멀어지고 있었다. 그는 일지에 이렇게 기록했다. “사탄이 가족 전체의 마음에 커다란 분노와 유혹을 불어넣었다.”⁴

7월 1일, 그는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 열렬히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했다. 마침내 월포드의 말은 가족들의 마음에 와닿았고, 그들의 염려는 사라졌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을 느끼고 월포드가 하는 말이 진리임을 깨달았다. 그들은 이제 진리를 실천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월포드는 곧바로 집 근처에 있는 운하로 가족들을 데리고 갔다. 이들은 다 함께 물가에 서서 찬송가를 불렀고, 이어서 월포드가 기도를 드렸다. 그런 다음, 월포드는 물속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아버지와 새어머니, 누이, 숙모, 사촌, 그리고 가족의 친구 한 명에게 침례를 주었다.

월포드는 마지막 사람까지 침례를 준 다음, 기쁜 마음으로 물에서 나왔다. 그는 다짐했다. “이 순간을 잊지 말자.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임을 기억하자.”

온몸이 물에 흠뻑 젖은 채로 그들은 집으로 돌아왔다. 월포드는 그들 한 명 한 명의 머리 위에 차례로 손을 얹고, 그들을 각각 교회 회원으로 확인했다.⁵

이틀 후, 월포드는 부모님에게 작별 인사를 한 뒤, 부디 아내의 출산일 전에 도착할 수 있기를 바라며 서둘러 메인주로 떠났다.⁶

그해 봄과 여름, 미주리주에는 엄청난 규모의 성도들이 몰려들었다. 캐나다에서 큰 성공을 거둔 선교사인 존 페이지는 토론토 지역에서 대규모 개종자 무리를 이끌고 시온으로 향했다.⁷ 커틀랜드에서는 칠십인 정원회가 가난한 성도들의 이주 준비를 돕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가 약속된 땅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기를 바라며 가진 것을 나누고 서로 도왔다.⁸

파웨스트에 있는 성도들은 7월 4일에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축하하고 새로운 성전의 정초식을 기념하는 퍼레이드를 벌였다. 조셉 스미스 일세와 소규모의 군부대 대열이 선두에 서고, 제일회장단과 성전 건축가를 비롯한 교회의 다른 지도자들이 그 뒤를 따라 행진했다. 행렬의 맨 마지막은 기마 부대가 장식했다.⁹

시드니 리그돈은 성도들과 함께 행진하면서, 마침내 실현된 교회의 단합을 실감했다. 지난 몇 주에 걸쳐 교회에서는 반대자들에 대한 여러 건의 선도 조치가 있었다. 올리버 카우드리 사건 직후, 고등평의회는 데이비드 휘트머와 라이먼 존슨 역시 파문했다.¹⁰ 또 얼마 후에 감독의 평의회는 제일회장단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고 욕정에 탐닉한 윌리엄 매클렐른을 힐책했다.¹¹

윌리엄은 그 이후에 교회를 떠나 파웨스트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주했지만, 올리버와 데이비드를 비롯한 다른 반대자들은 여전히 이 지역에서 함께 지내고 있었다. 시드니는 6월에 이들을 공개적으로 규탄했다. 그는 산상수훈에 나오는 표현을 빌려 그들을 맛을 잃은 소금, 즉 아무런 쓸모가 없어 밖에 버려지고 못사람의 발에 밟히는 소금에 비유했다. 조셉은 성도들에게 반대자들을 대할 때 법을 지키도록 권고하면서도 시드니의 규탄에 지지 의사를 표했다.¹²

그로부터 일주일 전에 반대자들에 맞서 교회를 수호하겠다고 결속했던 일부 성도들은 시드니의 설교에 고무되어 대담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¹³ 이들을 지칭하는 명칭은 여러 개가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그들은 구약전서에 나오는 단 지파를 따라 단 단원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조셉은 이 무리를 조직하는 데 관여하지는 않았으나 그들의 활동 중 일부를 허용했던 것으로 보인다.¹⁴

교회를 수호하려는 열망에 가득 찬 단 단원들은 교회 안팎에서 가해지는 위협에 맞서 성도들의 권리를 보호하기로 맹세했었다. 그들 중 다수는 불화 때문에 커틀랜드 지역 사회가 와해되고, 조셉과 여러 사람들이 폭도에게 위협당하고 시온의 이상향이 위태롭게 되는 과정을 목격한 경험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파웨스트 지역 사회를 그와 같은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맹세했던 것이다.

시드니가 반대자들을 공개적으로 규탄하던 시기에, 단 단원들은 올리버와 데이비드, 그리고 그밖의 사람들을 향해 콜드웰군을 떠나지 않으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고를 받은 이들은 며칠 만에 모두 그 지역을 영원히 떠났다.¹⁵

7월 4일, 퍼레이드 행렬이 마을 광장에 들어서자 성도들은 미국 국기를 장대에 매달아 들고 굴착 공사가 진행 중인 성전 부지 주변에 둥그렇게 둘러섰다. 성도들은 기초 공사 중인 부지에서서 일꾼들이 조심스럽게 주춧돌을 놓는 과정을 지켜보았다. 그런 다음, 시드니가 연단에 올라가 회중에게 연설했다.¹⁶

열정적인 연설을 하는 미국의 독립 기념일 전통을 따라, 그는 성도들을 향해 자유와 그들이 견뎌 온 핍박에 대하여, 그리고 영적인 배움을 얻는 과정에서 성전의 중요한 역할에 대하여 역설

했다. 연설 막바지에 그는 교회의 적대 세력에게 더는 성도들을 건드리지 말라는 경고의 음성을 높였다.

“우리의 권리가 무고하게 짓밟히는 일은 더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는 자나 무리는 결국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시드니는 청중을 향해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공격을 가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들의 권리는 수호할 것임을 확실히 밝혔다. “폭도들이 우리를 박해하러 온다면, 어느 한쪽이 사라지지 않고는 끝나지 않을 전멸전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마지막 피 한 방울도 놓치지 않기 위해 끝까지 그들을 뒤쫓을 것이고, 그들이 살길은 오로지 우리를 몰살하는 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더는 집과 농경지를 버리고 떠나지 않기로 했다. 더이상 박해 앞에서 묵묵히 참지도 않을 것이었다. 시드니는 이렇게 선포했다. “오늘 우리는 결코 무너질 수 없는 명분과 결의로 우리에게 자유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명분과 결의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¹⁷

“호산나! 호산나!” 성도들은 환호했다.¹⁸

성도들이 파워스트에서 결집할 무렵, 일라이자 에이블은 그곳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캐나다 동부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그는 괴로운 꿈에 시달렸다. 꿈에서 그는 자신이 뉴욕에서 침례를 주었던 유니스 프랭클린이라는 여성이 몰몬경과 조셉 스미스에 대한 회의에 빠져 괴로워하는 것을 보았다. 그가 본 유니스는 잠도 못 자고 밥도 먹지 못한 채 오로지 자신이 속았다는 기분에만 사로잡혀 있었다.¹⁹

침대에서 일어난 일라이자는 즉시 뉴욕으로 떠났다. 일라이자와 유니스와 그의 남편 찰스를 처음으로 만난 것은 그가 유니스의 마을에서 복음을 전파하던 그해 봄의 일이었다.²⁰ 일라이자의 설교는 거칠고 투박했다. 빈곤한 가정에서 태어난 흑인인 그는 교육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었다.

하지만, 다른 선교사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멜기세덱 신권에 성임되었으며, 커틀랜드 성전에서 의식에 참여했고, 권능의 엔다우먼트를 받았다.²¹ 학업적으로 부족한 면은 신앙과 영의 권능으로 채워졌다.

일라이자의 설교를 들은 유니스는 감동을 느꼈다. 반면, 찰스는 설교가 끝난 후 자리에서 일어나 일라이자와 논쟁을 벌이려 했다. 일라이자는 찰스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내일 선생님 댁에 잠시 들르겠습니다. 그때 이야기하시지요.”

다음 날, 일라이자는 그들의 집으로 가서 조셉 스미스에 관해 가르쳤지만, 찰스는 여전히 반신반의했다.

“표적을 확실히 보아야만 믿을 수 있다는 겁니까?” 일라이자가 물었다.

찰스는 “그렇소.”라고 대답했다.

일라이자가 말했다. “구하시는 걸 얻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마음고생도 심하게 하실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 부부를 다시 만났을 때, 일라이자는 찰스가 여러 가지 슬픈 일을 겪은 뒤 마침내 기도로 주님께 용서를 구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이제 두 사람은 교회에 들어올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들은 일라이자에게 침례를 받았다.²²

그때 유니스는 신앙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그로부터 얼마 뒤 어느 일요일 아침 유니스는 자신의 집 현관에서 있는 일라이자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를 만나면 해야 할 말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유니스는 그에게 몰몬경은 허구이고, 조셉 스미스는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현관에서 있는 일라이자를 보고는 대신 그에게 집 안으로 들어오도록 권했다.

대화를 조금 나눈 뒤, 일라이자가 말했다. “자매님, 자매님은 구주께서 침례를 받으신 뒤에 겪으셨던 것처럼 오랜 시간 유혹을 겪은 것은 아니지만, 그분과는 다른 방식으로 유혹을 경험했군요.” 일라이자는 유니스 부부에게 그날 오후에 근처 학교 건물에서 설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소식을 이웃들에게도 전해 달라고 부탁한 다음, 유니스의 집을 떠났다.

유니스는 그 모임에 가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날 오후에 마음을 바꿔 남편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가서 한번 봐야겠어요.”라고 말했다.

모임 장소에 도착한 유니스는 일라이자의 설교를 듣고 다시 한번 감동을 느꼈다. 일라이자는 신약전서에 나오는 한 구절을 인용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²³ 일라이자의 목소리와 회복된 복음 메시지는 유니스의 마음을 열었다. 영이 그녀의 마음속에 스며들었고, 전에 느꼈던 확신이 다시 물밀듯이 밀려 들어왔다. 그녀는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선지자이며, 몰몬경이 참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일라이자는 유니스에게 2주 뒤에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일라이자가 떠난 뒤, 유니스의 마을에는 일라이자가 여성 한 명과 어린이 다섯 명을 살해했다는 거짓 내용이 실린 전단이 돌았다. 전단에는 일라이자에게 걸린 현상금도 나와 있었다.

이를 본 이웃들은 유니스에게 물었다. “이제 당신의 그 물문 장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들은 일라이자가 마을에 돌아와 다시 설교를 하기는커녕 그 전에 잡혀갈 것이 뻔하다고 단언했다.

일라이자가 누군가를 살해했다는 것을 믿지 않았던 유니스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다시 와서 약속을 지킬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실 겁니다.”²⁴

그녀는 교회를 음해하려는 세력이 그 소문을 꾸며 냈다고 생각했다. 백인들이 흑인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트리는 일은 사실 흔한 일이었다. 노예 제도가 불법인 지역에서조차도 그런 일은 자주 있었다. 백인과 흑인 간의 교류는 법과 관행으로 엄격히 제한되었으며, 때로 사람들은 잔인한 방법까지 써 가며 교류를 차단하려 했다.²⁵

일라이자는 약속대로 설교를 하기 위해 2주 뒤에 돌아왔다. 설교를 하기로 한 학교 건물은 수많은 인파로 붐볐는데, 그들은 일라이자가 체포되거나 더 심한 일을 당하는 것을 직접 보려고 온 듯했다.

일라이자는 자리에 앉았다. 몇 분 후, 일라이자가 일어서서 말했다. “친구 여러분, 제가 여성 한 명과 아이 다섯 명을 살해했다는 전단이 살포되었습니다. 제 목에는 엄청난 액수의 현상금까지 걸려 있지요. 자,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유니스는 고개를 돌려 건물 안을 둘러보았다. 장내는 얼어붙은 듯 조용했다.

“저와 해결할 일이 있는 분은 지금 나오십시오. 하지만 설교를 시작한 후에는 제게 손 하나 댈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일라이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반응을 기다렸다. 회중은 숨 죽인 채 그를 지켜보았다. 잠시 뒤, 일라이자는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한 다음, 강렬한 설교를 했다.

일라이자는 마을을 떠나기 전에 유니스와 찰스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그들에게 “집을 처분하고 서쪽으로 떠나십시오.”라고 조언했다. 그 지역은 점점 더 성도들에 대한 편견이 악화되고 있었지만, 65킬로미터 떨어진 곳에는 교회 지부가 있었다. 주님께서서는 당신의 백성이 외롭게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셨다.

유니스와 찰스는 일라이자의 충고를 받아들여 곧바로 지부가 있는 곳으로 집을 옮겼다.²⁶

한편, 미주리에 있던 조셉은 교회의 미래를 낙관하고 있었다. 그는 시드니가 7월 4일에 했던 연설을 소책자로 출판했다. 그는 성도들이 이제는 폭도와 반대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미주리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했다.²⁷

하지만 고질적인 문제들이 아직도 남아 있었다. 교회는 여전히 상당량의 부채를 지고 있었고, 많은 성도들이 계속되는 박해와 국가적인 경제난, 커틀랜드에서의 재정 파탄, 그리고 미주리주로 이주하는 데 든 막대한 비용 등으로 극빈 상태에 처해 있었다. 게다가 주님께서서는 제일회장단에게 더는 자금 대출을 받지 말라고 명하셨다.²⁸ 교회는 기금이 필요했지만, 기금 마련을 위한 확실한 제도는 여전히 오리무중이었다.²⁹

얼마 전에 교회 감독인 에드워드 파트리지와 뉴얼 휘트니가 헌납의 법에 순종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십일조를 제안한 일

이 있었다. 그러나 조셉은 성도들이 재산을 헌납해야 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주님께서 십일조로 어느 정도를 요구하시는지는 확실히 알지 못했다.³⁰

십이사도 정원회에 대해서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었다. 이틀 전에 파웨스트에 도착한 사도 히버 김블과 올슨 하이드의 서한에 따르면, 그들은 영국에서 선교 사업을 마친 뒤 무사히 커틀랜드에 도착했다. 히버는 아내 빌리트와 자녀들과 재회하여 이제 미주리로 이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³¹ 다른 여섯 사도인 토머스 마쉬, 데이비드 패튼, 브리검 영, 팔리 프랫, 올슨 프랫, 윌리엄 스미스도 여전히 굳건한 신앙으로 미주리에서 봉사 중이거나 다른 곳에서 선교 사업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머지 네 사도가 교회를 떠난 탓에 정원회는 이제 새로운 사도를 불러야만 했다.³²

7월 8일, 조셉과 교회의 다른 지도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주님께 기도드렸고, 계시가 홍수처럼 쏟아졌다. 주님께서 올리버 그레이저라는 성도를 지명하시어 그에게 제일회장단을 대표해 교회의 부채를 청산하게 하셨다. 빛은 성도들이 커틀랜드에 두고 온 재산을 처분해서 갚도록 조치되었다.³³

그런 다음, 주님께서 십일조에 관한 조셉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셨다. “나는 그들의 모든 잉여 재산을 시온에 있는 나의 교회의 감독의 손에 바칠 것을 요구하노니, 이는 나의 집의 건축을 위함이고, 시온의 기초를 놓기 위함이고.” 또한,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잉여 재산을 바친 후에도 해마다 그들이 거둔 수익에서 십분의 일을 바쳐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경고하셨다.

“만일 나의 백성이 이 율법을 준행하여 거룩하게 지키지 … 아니하면, … 그 곳은 너희에게 시온의 땅이 되지 아니하리라.”³⁴

또한, 주님은 십이사도와 관련한 계시에서, 토머스 마쉬에게는 파웨스트에 남아 교회의 출판을 도우라고 명하셨고, 다른 사도들에게는 복음을 전파하는 임무를 주셨다.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셨다. “만일 그들이 마음을 지극히 낮추고 온유하고 겸손하며 오래 참음으로 이를 행하면, … 내가 그들의 가족을 부양할 것이요, 이제부터 그들에게 효과적인 문이 열리리라.”

주님은 십이사도가 이듬해에 외국으로 나가기를 바라셨다. 그분은 십이사도 정원회에게 약 1년 뒤인 1839년 4월 26일에 파웨스트 성전 부지에 함께 모여 영국으로 또다시 선교 사업을 떠나라고 지시하셨다.³⁵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은 정원회의 결원을 보충할 네 명을 지명하셨다. 새로운 사도로 부름받은 존 테일러와 존 페이지는 당시 캐나다에 있었다. 나머지 두 사도 중 한 명인 윌라드 리차드는 영국에서 선교부 회장단으로 봉사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인 윌포드 우드럽은 메인주에 있었는데, 그는 첫아이의 출산이 임박한 상황이었다.³⁶

윌포드의 아내 피비 우드럽은 7월 14일에 딸 세라 에머를 낳았다. 피비가 무사히 분만을 마치고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자 윌포드는 더없이 기뻐했다.³⁷ 아내가 산후조리를 하는 동안 윌포드는 남편을 잃고 홀로된 처제 세라를 도와 일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는 일지에 이렇게 적었다. “종일 잔디를 깎았다. 안 하던 일을 했더니 밤이면 무척 피곤했다.”³⁸

며칠 뒤, 폭스 제도에서 선교 사업 중이던 조셉 볼에게서 편지가 왔다. 조셉 볼은 편지에서, 커틀랜드에 있는 반대 세력들이

폭스 제도에 있는 월포드의 개종자들에게 편지를 보내 그들의 신앙을 흔들여 놓으려 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폭스 제도에 있는 성도 대부분은 그런 편지를 무시했지만, 몇몇은 교회를 떠났다. 그 중에는 월포드가 그해 후반에 미주리로 데려오려 했던 사람들도 있었다.³⁹

월포드는 세라 에머가 태어난 지 2주 만에 폭스 제도의 성도들을 강화하고, 그들이 시온으로 이주할 준비를 하는 것을 돕기 위해 그곳으로 서둘러 갔다. 피비를 홀로 남겨 두고 나올 때, 월포드는 이렇게 기도했다. “오, 하나님, 제가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하소서. 제가 없는 동안 아내와 또 당신께서 저희에게 주신 아이를 축복해 주소서.”⁴⁰

월포드가 일주일이 조금 더 걸려서 폭스 제도에 도착했을 때, 편지 한 통이 그보다 더 먼저 폭스 제도에 도착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편지는 미주리에 있는 토머스 마쉬가 보낸 서한이었다. 서한의 내용은 이러했다. “주님께서는 십이사도에게 가능한 한 빨리 이곳에 집결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드럽 형제님, 형제님이 십이사도 중 한 사람으로 임명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주님은 월포드가 가능한 한 빨리 파워스트로 와서 영국으로 선교 사업을 떠날 준비를 하기를 바라셨다.

월포드는 담담한 표정으로 편지를 내려놓았다. 물론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는 이미 몇 주 전에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으리라는 느낌을 받은 바가 있었다. 그날 밤, 월포드는 머릿속으로 밀려드는 수만 가지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⁴¹



할 만큼 했기에

1838년 8월 6일은 미주리주 선거일이었다. 그날 아침, 존 버틀러는 투표를 하기 위해 말을 타고 데이비스 군청 소재지인 갤러틴으로 갔다.¹

몇 년 전에 침례를 받아 후기 성도가 된 존은 그해 여름에 아내 캐롤라인과 함께 아담-온다이-아만 인근의 소규모 정착지로 이주해 왔다. 그는 지역 민병대 대장이자 단 단원의 일원이었다.²

약 1년 전에 세워진 갤러틴은 주택과 술집들이 모여 있는 작은 읍내였다. 존이 도착했을 때, 광장은 군 전역에서 몰려든 남자들로 붐볐다. 투표소는 광장 한쪽 편에 있는 작은 집 안에 설치되어 있었다.³ 투표를 하려는 사람들이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밖에는 선거 운동원들이 군중과 뒤섞여 있었다.⁴

존은 그들에게서 떨어져 있는 작은 무리의 성도들과 합류했다. 데이비스군은 성도들에게 결코 호의적이지 않았다. 조셉이 아

담-온다이-아만에 스테이크를 조직한 이후로 성도들이 그 지역으로 모여들면서 정착지는 이제 200채 이상의 새 건물들이 들어서며 번영하고 있었다. 다른 정착민들은 성도들이 그렇게 군 선거에 영향력을 끼칠 정도의 규모가 된 것을 두고 불쾌해했다. 주민들과 마찰을 빚지 않기 위해 존과 동료들은 함께 투표한 후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⁵

존이 투표소 쪽으로 가고 있을 때, 주 하원 의원 후보인 윌리엄 페니스턴이 위스키 통 위에 올라서서 연설을 시작했다. 윌리엄은 그해 초에 성도들의 표심을 잡으려 시도했지만, 성도들 대부분은 그의 상대편 후보를 지지했다. 이를 안 윌리엄은 그 이후로 성도들에 대한 맹렬한 비난을 퍼붓기 시작했다.

“몰론 지도자들은 말 도둑, 거짓말쟁이, 사기꾼 집단입니다.” 윌리엄이 주위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외쳤다. 존은 점점 기분이 언짢아졌다. 윌리엄은 존 일행을 향한 군중들의 적개심에 불을 당기고 있었다. 그곳에 모인 남자들은 이미 성도들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데다가, 그날 아침에 투표소가 열렸을 때부터 위스키를 마시고 있는 사람도 많았다.

윌리엄은 성도들이 주민들의 재산을 빼앗고 선거를 좌지우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⁶ 그러면서 성도들은 그 지역 주민이 아니므로 선거권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나는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당신들을 클레이군에서 몰아내려 했소.” 윌리엄은 존과 성도들 쪽으로 몸을 돌려 사랑하듯 떠벌렸다. “지금 당장 당신들이 공격을 당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대로 내버려 둘 것이오.”⁷

사람들은 계속해서 위스키를 마셔 대며 취했다. 성도들을 모욕하는 욕지거리가 존의 귓가를 때렸다. 존은 조금씩 뒤로 물

러서기 시작했다. 그는 키가 180센티미터가 넘는 건장한 체구였지만, 그가 갤러틴에 온 목적은 투표지, 싸움이 아니었다.⁸

그때, 갑자기 한 남자가 후기 성도 한 명에게 주먹을 날렸다. 다른 성도가 이를 막으려 뛰어들었지만, 군중은 오히려 그를 쳐서 땅에 쓰러뜨렸다. 그러자 또 다른 성도가 근처 장작더미에서 장작을 하나 집어 든 후, 공격을 가한 남자의 머리를 가격했다. 머리를 맞은 남자는 존의 발치에 쓰러졌다. 양편의 남자들은 곧바로 몽둥이를 집어 들고, 칼과 채찍을 꺼내 들었다.⁹

상대편은 성도들의 네 배가 넘는 숫자였지만, 존은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 있는 성도들과 지도자들을 지킬 작정이었다. 그는 울타리용 목재더미에서 굵은 참나무 목재를 하나 집어 들고 난투극 속으로 달려들었다. “자, 단 단원 여러분! 우리의 임무를 다합시다!” 존이 큰 소리로 외쳤다.

그는 성도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해 몽둥이를 휘두르기 시작했다. 다만, 죽이지는 않고 정신을 잃고 쓰러질 정도로만 가격했다. 그의 동료들도 막대기든 돌이든 손에 잡히는 대로 모조리 들고 맞서 싸우기 시작했다. 성도들은 자신들에게 달려드는 이들을 모두 쓰러뜨렸고, 싸움은 2분 만에 끝이 났다.¹⁰

존은 숨을 고르며 광장을 둘러보았다. 부상당한 남자들은 바닥에 쓰러져 꿈쩍도 하지 못했다. 다른 사람들은 슬금슬금 기어서 현장에서 도망치고 있었다. 윌리엄 페니스턴은 위스키 통에서 뛰어내려 근처 언덕으로 달아난 지 오래였다.

그때 무리 중 한 남자가 존에게 다가와 이제 가서 투표를 해도 된다고 말했다. 그 남자는 이렇게 말했다. “몽둥이는 내려놓으시지요. 이제는 필요 없지 않소?”¹¹

하지만 존은 몽둥이를 더 세게 움켜쥐었다. 그는 투표를 하고 싶었지만, 무기도 없이 그 작은 집에 들어갔다가는 꼼짝없이 붙잡히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대신 그는 주위를 둘러보고는 그 자리를 떠나려 했다.

그러자 한 남자가 “당신을 체포해야겠소.” 하고 소리쳤다. 그 사람은 존에게 맞은 사람 중 몇 명이 죽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존은 “나는 법을 준수하는 사람이지만 이런 불한당들에게 재판을 받고 싶지는 않소.” 하고 말한 뒤 말을 타고 읍내를 떠났다.¹²

다음 날, 존은 파웨스트로 말을 타고 달려가 조셉에게 이 사건을 보고했다. 깰러틴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소문이 미주리주 북부 지역으로 순식간에 퍼져 나갔다. 폭도들은 성도들을 공격할 준비를 시작했다. 존이 표적이 될 것을 걱정한 조셉은 존에게 가족들을 데이비스군 밖으로 피신시켰느냐고 물었다.

“아니요.” 존의 대답에 조셉은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면 어서 가서 가족들을 피신시키십시오. 하루도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존은 “겁쟁이가 되기는 싫습니다.”라며 버텼지만 조셉은 다시 한번 다그쳤다.

“어서 가서 제 말대로 하십시오.”¹³

존은 즉시 집으로 갔고, 조셉은 무장한 자원자들과 함께 데이비스군에 있는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 떠났다. 아담-온다이어만에 도착한 조셉 일행은 깰러틴에서 벌어진 싸움에서 사망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안심한 그들은 라이먼 화이트의 집에서 그날 밤을 보냈다.

다음 날 아침, 라이먼과 무장한 성도들은 지역 치안 판사인 애덤 블랙의 집을 찾아갔다. 애덤이 폭도를 선동하여 성도들을 쫓는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라이먼은 애덤에게 데이비스군에 있는 성도들을 공정하게 대하겠다고 성명서에 서명하라고 요구했으나 애덤은 이를 거절했다.

그날 오후, 조셉은 백여 명의 성도들을 이끌고 애덤의 집을 다시 찾았다. 파웨스트 지역 단 단원 지도자였던 샘프슨 아바드는 단원 세 명을 애덤의 집에 들여보내 강제로 성명서에 서명하게 하려 했다. 애덤은 이 역시 거절하며 조셉을 만나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선지자 조셉이 들어가서 협상에 참여했고, 이후 판사가 성명서를 직접 작성하고 서명하는 데 동의하면서 이 일은 평화롭게 마무리되었다.¹⁴

그러나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얼마 후에 애덤은 조셉과 라이먼이 무장한 세력과 함께 자신의 집을 포위하고 협박했다는 죄목으로 그들을 고발했다. 조셉은 성도들에 대한 민심이 극도로 안 좋은 데이비스 대신 자신이 거주하는 콜드웰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함으로써 체포당할 위기를 모면했다.¹⁵

그러는 동안 미주리주 북부 전역의 주민들은 회의를 소집하여 깰러틴 사건과 점점 규모가 커져 가는 후기 성도 이주민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몇몇 폭도들은 데이비스군에 있는 교회 회원들의 가정과 농장을 습격하여 행패를 부렸다. 그들은 근방의 후기 성도 정착지를 공격 목표로 삼았다.¹⁶

이런 긴장 상태를 완화하기 위해 조셉은 9월 초에 데이비스군으로 다시 가서 자신에 대한 혐의를 소명했다. 법정 공판에

서 애덤은 조셉이 성명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한 적이 없음을 시인했다. 그러나 담당 판사는 선지자 조셉에게 두 달 후에 다시 와서 재판관을 받으라는 명령을 내렸다.¹⁷

미주리주 정부에는 성도들의 협력자들이 있었으므로, 곧 주 민병대가 소집되어 자경단을 해산시켰다. 하지만 데이비스군과 인근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성도들을 그 지역 밖으로 몰아내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조셉은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미주리주의 박해자들은 결코 잠들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도 했다.¹⁸

8월의 마지막 날, 피비와 윌포드 우드럽 부부는 말을 타고 메인주에 있는 피비의 부모님 댁 근처의 백사장 해변을 거닐었다. 썰물 때가 되어 대서양에서부터 밀려온 파도가 해안선을 따라 부서졌다. 저 멀리 수평선 근처에는 미풍에 돛을 부풀리며 지나가는 배들이 아스라이 보였고, 한 무리의 새들이 머리 위에서 맴돌다 물 위로 내려앉았다.

피비는 말에서 내려 모래 위에 흩어진 조개껍데기를 주웠다. 그녀는 윌포드와 함께 시온을 향해 서부로 갈 때 그것을 기념물로 가져가고 싶었다. 거의 평생을 바닷가에서 살아온 피비의 집에는 언제나 조개껍데기 장식이 빠지지 않았다.¹⁹

윌포드는 십이사도 정원회로 부름받은 이후로 하루빨리 미주리주에 가고 싶어 했다. 그는 최근에 폭스 제도를 방문하여 성도들에게 자신들 부부와 함께 시온으로 갈 것을 강력히 권유했으나 그 권유를 받아들인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는 실망감을 느끼며 본토로 돌아왔다. 지부의 일부 회원들은 같이 가겠다고

했지만, 그 섬에서 처음으로 침례를 받았던 저스티스와 벤티 에임스 부부를 포함한 다른 회원들은 섬에 남기로 했다.

윌포드는 “그 결정이 어리석었음을 깨달을 즈음에는 이미 때가 너무 늦을 것이오.”라고 말했다.²⁰

그러나 떠나는 것이 내키지 않는 것은 피비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에 대단히 만족하고 있었다. 집은 안락하고, 따뜻하고, 익숙했다. 메인주에 계속 머문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멀리 떨어져 살 일도 없을 것이었다.²¹ 반면, 미주리는 그곳에서 2,400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이었다. 그곳으로 떠난다면 앞으로 영영 가족을 못 볼 수도 있었다. 과연 그녀는 그런 희생을 치를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까?

피비는 자신의 속마음을 윌포드에게 털어놓았다. 윌포드는 가족을 떠나는 불안감에 대해서는 아내를 이해해 주었지만, 집에 대한 애착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다. 시온이 안전과 보호의 장소임을 그도 아내도 이미 알고 있었다.

윌포드는 일지에 이렇게 기록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곳이면 시온 땅이든 어디든 갈 것이다. 메인에서 미주리까지 가는 길에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자매들을 모두 버려야 할 지라도, 가는 내내 허브 잎만 씹어 먹으며 버텨야 하더라도, 나는 갈 것이다.”²²

9월 내내, 피비와 윌포드 부부는 폭스 제도 지부 회원들이 본토로 와서 서부로 향하는 여행길을 함께하기를 고대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자, 윌포드는 조금해졌다. 시간이 지체되고 있었다. 여행 시기를 늦출수록 날씨도 나빠질 가능성이 높았다.

사실, 피비가 출발을 망설이는 이유는 날씨만이 아니었다. 당시 그들의 딸 세라 에머는 기침이 심했다. 피비는 이런 딸을 데리고 추운 날씨에 그렇게 장거리 여행을 하는 것이 현명한 일인지 의문스러웠다.²³ 그즈음, 선거일에 데이비스군에서 벌어진 소동에 대한 과장된 기사가 지역 신문에 보도되었다. 기사를 읽은 사람들은 모두 아연실색했다.

피비와 월포드의 이웃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했다. “가지 않는 것이 좋겠어요. 그곳에 갔다간 목숨을 잃고 말 거예요.”²⁴

며칠 후, 시온으로 떠날 준비를 한 약 50명의 폭스 제도 성도들이 월포드를 찾아왔다. 피비는 월포드가 미주리에 있는 십이사도들과 합류해야 하므로 지금 바로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집과 가족을 뒤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미주리로 가는 여정은 험난할 것이 분명하며, 딸은 여전히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새로운 곳에 도착한다 해도 폭도들로부터 안전하리라는 보장도 없었다.

그러나 피비는 집합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전에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 집을 떠난 적이 있지 않았는가? 그녀는 이번에도 다시 한번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비는 부모님에게 작별 인사를 하면서 자신이 마치 신앙을 위해 집과 가족을 버렸던 구약시대의 롯이 된 기분이 들었다.

이별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녀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마침내 마차에 올랐다.²⁵

스물한 살의 찰스 헤일즈는 캐나다 성도 일행과 함께 9월 말에 미주리주 드윗에 도착했다. 시온에 모이라는 부름에 응답한 수천

명의 성도 중 한 사람인 그는 연초에 부모 형제와 함께 토론토를 떠나 이곳까지 왔다. 드윗은 파웨스트에서 남동쪽으로 110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었으며, 콜드웰군으로 가는 길목에 있어 마차 행렬이 잠시 쉬고 식량을 다시 채울 수 있는 경유지였다.²⁶

그러나 찰스가 도착했을 때 드윗은 폭도들에게 포위된 상태였다. 드윗에는 약 400명의 성도가 살고 있었는데, 그 정착지 및 주변 지역의 주민들은 성도들에게 10월 1일까지 떠나지 않으면 강제로 추방하겠다고 압박을 가했다. 드윗 성도들의 지도자인 조지 핑클은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성도들이 그곳에 남을 것이며, 그 지역에서 살 권리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²⁷

단 단원들이 미주리 주민들을 상대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은 드윗에서의 긴장감을 더욱 부추겼다. 주민들은 성도들에 대해 집결하기 시작했고, 언제든 드윗을 공격할 수 있도록 외곽에 진을 쳤다. 성도들은 미주리 주지사 릴번 보그스에게 보호를 요청했다.²⁸

대부분의 캐나다 성도들은 총들을 피하기를 바라며 파웨스트로 계속해서 나아갔다. 그러나 조지는 찰스에게 거기에 남아 드윗을 지켜 달라고 부탁했다. 농부이자 음악가였던 찰스는 총보다는 쟁기나 트롬본에 더 익숙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조지는 드윗 주변에 방어 시설을 구축하고 전투에 대비할 사람들이 더 필요했다.²⁹

성도들에게 정착지를 떠나라고 했던 시한에서 하루가 지난 10월 2일, 폭도들이 총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 성도들은 대응 사격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틀 후, 찰스와 20여 명의 성도들은 방어 시설에서 각자 위치를 잡고 대응 사격을 실시했다. 이들의 사격에 폭도들 쪽에서 한 명의 부상자가 나왔다.

그들은 곧바로 성도들의 방어 시설에 맹공격을 퍼부었고, 찰스와 성도들은 근처 통나무집으로 몸을 피했다.³⁰ 폭도들은 드윗으로 통하는 도로들을 막아 성도들의 보급로를 차단했다.

이틀 후인 10월 6일, 조셉과 하이럼 스미스는 라이먼 와이트와 소규모의 무장 병력을 대동하여 드윗으로 숨어들어 갔다. 성도들은 음식과 다른 물자들이 거의 바닥난 상태였다. 포위 상태가 빨리 끝나지 않는다면, 총탄이 아닌 굶주림과 질병이 성도들에게 더 큰 위협을 초래할 것이었다.³¹

라이먼은 최후의 순간까지 드윗을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그곳의 열악한 상황을 본 조셉은 평화로운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방향을 바꾸었다.³² 만약 포위 작전 중에 미주리 주민이 한 명이라도 죽는다면, 폭도들은 드윗으로 쳐들어와 성도들을 모조리 쓸어버릴 것이 분명했다.

조셉은 한 우호적인 미주리 주민의 협조를 얻어 보그스 주지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전달했다. 하지만 나흘 후에 돌아온 그 주민은 주지사가 공격을 받는 성도들을 보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주지사는 충돌 사태가 오로지 성도들과 폭도들 사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는 그들끼리 싸워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³³

인근에 있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적들이 모여드는데도 성도들은 주 민병대로부터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했다. 조셉은 포위 상태를 끝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폭도들에게 굴복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드윗 성도들은 극도로 지쳐 있었고, 그 수도 턱없이 적었다. 정착지를 계속 지키겠다는 판단은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실

수가 될 수도 있었다. 조셉은 어쩔 수 없이 드윗을 버리고 파워스트로 후퇴하기로 결정했다.

10월 11일 아침, 성도들은 가지고 갈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짐을 마차에 싣고 대평원을 향해 길을 떠났다.³⁴ 찰스도 함께 떠나고 싶었지만, 아직 떠날 준비가 안 된 캐나다 성도 한 명이 그에게 남아서 자신을 도와 달라고 부탁하는 바람에 함께 가지 못했다. 찰스는 그의 부탁에 응하면서, 자신들도 금방 일행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드윗을 겨우 빠져나온 후, 그 성도는 자신이 탄 말이 힘이 빠지자 다시 돌아가 버렸다. 적지에 더 머물고 싶지 않았던 찰스는 홀로 낮선 평원을 걷기 시작했다. 길도 정확히 모르는 채로 그는 콜드웰군 방향인 북서쪽을 향해 무작정 걸었다.³⁵

드윗 성도들이 파워스트에 도착하고 며칠 후인 10월 15일, 조셉은 모든 남성을 소집했다. 미주리주 북부 전역에 걸친 폭도들의 만행을 피해 파워스트로 후퇴한 성도들은 수백 명에 달했다. 그들 대부분은 도시 전체에 흩어져서 마차나 천막에서 지냈다. 날씨는 벌써 추워졌고, 성도들은 협소한 곳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³⁶

조셉이 보기에 상황은 견잡을 수 없이 통제 불능의 상태로 빠져들고 있었다. 적들이 사방에서 몰려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잭슨군과 클레이군에서 폭도들의 공격을 받을 때만 해도, 성도들은 충돌을 피하고 변호사와 판사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되찾아 줄 거라 믿으며 묵묵히 그 상황을 견디려 했다. 그런데 결과

는 어떠했는가? 조셉은 이러한 핍박에 신물이 났다. 이제 그는 적들에게 더욱 강경히 맞서고 싶었다. 성도들은 다른 대안이 없었다.

“우리는 할 만큼 했습니다.” 조셉은 형제들에게 외쳤다. “법은 늘 우리에게 불리했고, 단 한 번도 우리 편이 되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법대로 하자, 법에 호소하겠다!’ 하는 바보 같은 소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수년간 토지를 약탈당하고, 성도들에게 자행된 범죄가 처벌 없이 넘어가는 것을 봐 온 조셉은 정치인과 변호사를 불신했다. 성도들을 외면한 주지사의 행태는 그런 불신을 더욱더 가중했다. 조셉은 말했다. “이제 우리 문제는 우리 손으로 직접 해결 할 것입니다. 주지사에게 청원했으나, 그는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군 민병대에게도 도움을 요청했으나 그들 역시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셉은 주 자체가 폭도들과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드윗에서 폭도들에게 굴복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데이비스에서 우리를 공격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성도들이 아무 것도 빼앗기지 않게 할 작정이었다.³⁷

선지자 조셉은 모두의 생사를 건 전투의 시작을 선언했다.³⁸



하나님과 자유

드윗을 포위 공격했던 사람들은 도시가 함락되자 아담-온다이-아만을 향해 북쪽으로 나아갔다. 인접한 여러 군에서는 파웨스트와 솔크릭 주변의 정착지들을 공격하려는 또 다른 폭도단이 결성되기 시작했다. 이 폭도들은 성도들을 데이비스에서 콜드웰까지, 그리고 콜드웰에서 지옥까지 몰아내겠노라고 맹세했다! 과거에 교회의 법률적 조력자였던 주 민병대 지휘관 알렉산더 도니 판 장군은 대부분이 후기 성도로 구성된 주 민병대 공식 부대인 콜드웰군 민병대에게 적으로부터 그들의 공동체를 사수할 것을 촉구했다.

데이비스군에 있는 성도들이 심각한 위험에 처한 것을 알게 된 조셉과 시드니는 콜드웰군 민병대와 다른 무장 병력을 아담-온다이-아만으로 보냈다. 조셉과 하이럼은 말에 올라 그들과 함께 북쪽으로 달려갔다.²

1838년 10월 16일, 그들이 아담-온다이-아만 외곽에 막사를 치고 있을 때, 하늘에서 폭설이 내려 그 일대가 온통 눈밭이 되었다. 그 시각에 강 하류 지역에 사는 아그네스 스미스는 잠자리를 준비하는 중이었다. 그녀는 조셉의 막내 동생인 돈 칼로스의 아내로 당시 돈은 외출한 상태였고, 집에는 아그네스와 어린 두 딸뿐이었다.

자정 무렵, 한 무리의 남자들이 집으로 쳐들어와 아그네스를 포위했다. 겁에 질린 그녀는 얼른 두 딸을 품에 안았다. 폭도들은 세 모녀에게 총구를 들이대며 눈밭이 퍼붓는 바깥으로 쫓아냈다.

몸을 덮을 외투나 담요 하나 없이 쫓겨난 아그네스와 두 딸은 서로 부둥켜안은 채 괴한들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는 광경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았다. 불길은 순식간에 번지며 시커먼 연기를 내뿜었다. 화염은 아그네스가 소유했던 모든 것을 삼시간에 집어삼켰다.

그녀는 얼른 여기서 도망쳐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들이 갈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은 5킬로미터 거리의 아담-온다이-아만뿐이었다. 하지만 이미 밤이 깊은 데다 길은 발목이 푹푹 빠지도록 눈이 쌓여 있었다. 그리고 그만한 거리를 걷기에 두 딸은 아직 너무 어렸다. 거기까지 가려면 족히 몇 시간은 걸릴 테지만, 아그네스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방금 집도 잃지 않았는가.

폭도들은 집마다 쳐들어가 성도들을 내쫓고 불을 질렀다. 아그네스는 두 딸을 양팔에 하나씩 안고, 서쪽 방향으로 터벅터벅 걷기 시작했다. 발은 금세 젖어 들었지만, 추위 때문에 감각이 없었다. 아이들을 안은 팔과 허리로 통증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얼마 못 가 양쪽으로 수 킬로미터쯤 뻗은 개울이 나타났다. 얼음같이 차가운 개울물은 깊이가 꽤 있었지만, 그렇다고 못 건

널 정도는 아니었다. 이런 추운 날씨에 몸이 물에 젖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지만, 조금만 더 가면 성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딸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려면 개울을 건너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좀 더 높이 들어 올린 후, 개울 속으로 들어갔다. 물은 허리춤까지 올라왔다.³

10월 17일 이른 새벽, 아그네스와 두 딸은 극도로 춥고 지친 상태로 비틀거리며 겨우 아담-온다이-아만에 당도했다. 다른 피해자들도 비슷한 상태로 그곳에 속속 도착했다. 대부분이 잠옷만 겨우 걸친 여성과 아이들이었다. 그들은 폭도들이 자신들을 내쫓고, 집을 불태우고, 소와 말과 양들을 훔쳐 버렸다고 피해 사실을 전했다.⁴

피난민들을 본 조셉은 경악했다. 독립기념일 연설에서 시드니는 성도들이 선제공격을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었다. 하지만 적들이 그토록 제멋대로 날뛰다면, 드윗 성도들에게 일어났던 일이 아담-온다이-아만에서도 충분히 되풀이되고도 남을 것이었다.

폭도들의 세를 약화시키고 무력 사태를 조속히 끝내겠다는 목적으로, 성도들은 적들에게 장비를 제공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인근 정착지를 공격하기로 결정했다. 교회와 민병대 지도자들은 병력을 네 개의 부대로 나눈 후, 깰러틴과 두 곳의 다른 정착지를 습격하도록 명령했다. 그중 한 부대는 주변 지역을 다니며 정찰하기로 했다.⁵

다음 날인 10월 18일 아침은 안개가 짙었다. 데이비드 패튼은 100명의 무장 병력을 이끌고 아담-온다이-아만을 출발하여 갤러틴으로 말을 타고 달렸다.⁶ 그들이 도착했을 때 갤러틴은 이미 텅 비어 있었다. 미처 그곳을 떠나지 못한 몇몇 낙오자만이 성도들을 보고 달아나고 있었다.

도로가 풀리자 데이비드 일행은 잡화점에 침입하여 아담-온다이-아만으로 피난 온 성도들에게 줄 각종 물품을 한가득 챙겼다. 몇몇 형제들은 그 잡화점에서 무거운 상자와 통을 들고 나와 마차에 실었다. 잡화점 물건을 다 챙긴 후에는 다른 상점과 가정집에 들어가서 누비이불과 침구, 외투와 옷가지들을 들고 나왔다.

난입은 몇 시간 동안이나 지속되었다. 신고 갈 수 있을 만큼 모두 챙긴 일행은 상점과 다른 건물에 불을 지르고 그곳을 빠져 나왔다.⁷

성도들은 아담-온다이-아만을 굽어보는 언덕 꼭대기에 서서 저 멀리 하늘 위로 띠를 그리며 올라가는 검은 연기를 지켜보았다.⁸ 민병대와 함께 그 정착지에 왔던 토머스 마쉬는 이 분쟁의 표징을 지켜보며 두려움을 느꼈다. 이제 주 정부는 이번 급습을 계기로 교회에 등을 돌리게 될 테고, 그러면 죄 없는 사람들마저 고통에 빠지게 될 것이 분명했다. 토머스는 조셉과 시드니가 열띤 설교와 연설을 하며 폭도들의 공격에 대한 위협성을 너무 과장했다고 생각했다. 무차별 공격을 당한 피난민들이 정착지로 쏟아져 들어올 때도 그는 그들의 집이 공격당한 것을 그저 별개의 소소한 사건으로 치부했다.

토머스는 이제 더는 조셉과 뜻을 같이하지 않았다. 지난해, 영국으로 선교 사업을 보낼 사도들을 준비시키러 커틀랜드에 갔을 때, 그는 자신도 없이 선교 사업이 이미 시작된 것을 알고는 크게 실망했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검손을 되찾고 선지자 조셉을 거역하지 말라고 권고하셨으나 그는 영국에서 선교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계속 의문을 제기하면서, 자신의 지도력 없이는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심 생각했다.

그 후에 미주리주로 이주해서는 치즈를 만들 우유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합의된 사안을 놓고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가 다른 자매와 논쟁을 벌인 사건이 발생했었다. 그 사건에 관해 감독과 고등평의회가 엘리자베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자, 토머스는 그 건을 조셉과 제일회장단에 회부했다. 하지만 제일회장단에서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⁹

그 사건으로 토머스는 자존심이 크게 상했고, 그의 분노는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았다. 그의 적의는 점점 커져서, 이제 그는 다른 사람들도 모두 자신과 같이 분노하기를 바라게 되었다. 조셉은 토머스에게 이미 두 차례나 교회를 떠날 의사가 있는지 물은 바가 있었다. 그때 그의 대답은 이러했다. “제가 교회를 떠난다면, 형제님은 좋은 동료 하나를 잃게 되는 겁니다.”¹⁰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토머스는 이렇게 선지자 조셉에게서 가장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게 된 것이었다. 그는 미주리주 사태의 책임을 조셉에게로 돌렸고, 폭력에 대한 그의 대응 방식을 비난했다. 그리고 그는 영국에서 돌아온 이후에 다시 신앙이 흔들렸던 올슨 하이드 사도와 다른 몇몇도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알았다.¹¹

급습에 가담했던 이들이 아담-온다이-아만으로 돌아온 직후, 폭도들이 파웨스트로 몰려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걱정이 된 성도들의 부대는 그들의 도시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 급히 콜드웰군으로 돌아갔다.¹²

토머스도 그들과 함께 돌아왔으나 그는 도시를 지키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짐을 모두 싣 뒤 밤을 틈타 파웨스트를 떠났다. 그는 하늘의 징계가 조셉과 그를 따르는 성도들에게 비처럼 쏟아질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폭도나 정부가 파웨스트를 쳐부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다.¹³

토머스는 남쪽으로 향했다. 그는 미주리에서 최대한 멀리 떠나고 싶었다. 그리고 그는 미주리를 떠나기 전에 문서 하나를 마지막으로 작성했다.¹⁴

미주리 북부 전역에 습격 사건과 무력 충돌이 급속도로 번지는 동안, 찰스 헤일즈는 평원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다. 그는 드윗을 떠난 이후로 방향도 알지 못한 채 정처 없이 걸어 다녔다. 가족을 마지막으로 본 것도 벌써 몇 주 전의 일이었다. 가족이 파웨스트에 잘 도착했는지, 폭도들로부터 무사한지 확인할 방법도 전혀 없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면서 그저 계속 걷는 것뿐이었다. 그는 파웨스트로 가는 올바른 방향을 알려 줄 누군가를 만나기만을 간절히 바랐다.

어느 날 저녁, 찰스는 밭에서 옥수수를 수확하는 한 남자를 발견했다. 그 남자는 혼자인 데다 무기도 없어 보였다. 만일 그가 야박하거나 성도들에게 적대적인 사람이라 해도, 찰스가 당할

최악의 상황은 그의 사유지에서 쫓겨나는 정도가 전부일 것이었다. 그리고 만에 하나 그가 친절한 사람이라면, 잠자리와 음식을 기대해 볼 수도 있었다.

찰스는 농부에게 다가가 하룻밤 재워 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농부는 대답 대신 찰스에게 물몬이냐며 되물었다.

그렇다고 말하면 음식과 따뜻한 잠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찰스는 사실대로 대답했다. 농부는 그렇다면 자신은 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면서 파웨스트는 거기에서 한참을 더 가야 한다고만 답했다.

“저는 이 지역을 전혀 모릅니다.” 찰스는 자신이 길을 잃었으며 이제는 더 걸을 수도 없다고 호소했다. 발은 물집이 잡히고 쓰라렸다. 날은 이미 저물었고, 오늘도 꼼짝없이 평원에서 추위에 떨며 밤을 보내야 할 판이었다.

농부는 찰스를 가엾게 여기는 듯했다. 그는 드윗이 포위되었을 때 몇몇 폭도가 자기 집에 머문 적이 있었는데, 폭도들은 그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물몬을 집에 들이지 않겠다는 맹세를 하게 했다고 말했다.

그런 다음, 농부는 찰스에게 하룻밤 머물 만한 근처의 장소와 파웨스트로 가는 방향을 알려 주었다. 큰 일은 아니었지만, 그는 자신이 해 줄 수 있는 최선의 도움을 준 것이었다.

찰스는 농부에게 고마움을 표시한 뒤 질게 깔려 오는 밤의 어둠 속을 다시 걷기 시작했다.¹⁵

10월 24일 밤, 드루실라 헨드릭스는 두려움에 떨면서 콜드웰군에 있는 자신의 집 창밖을 내다보았다. 인근 파웨스트는 비상 사

태가 벌어지고 있었다. 데이비스군 습격 사건은 미주리주 민병대에 있던 많은 협조자들마저 돌아서게 했고, 그들은 무력 사태의 모든 책임을 성도들에게 돌렸다.¹⁶ 폭도들은 드루실라의 집에서 남쪽으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불을 놓기 시작했다. 평원은 연기를 내뿜으며 시커멓게 그을렸다.¹⁷

불안한 기운이 감도는 가운데, 드루실라와 남편 제임스는 집을 버리고 파웨스트로 피난할 준비를 시작했다. 앞으로 몇 주 동안은 음식이 부족할 것이므로, 양배추 절임을 만들기 위해 텃밭에서 양배추를 따서 채를 썬 후 사이사이에 소금을 뿌렸다.

그들은 밤까지 계속해서 일했다. 밤 10시경, 드루실라와 제임스는 양배추를 소금물에 절이기 위해 눌러 놓을 돌을 찾으려고 마당으로 나갔다. 제임스의 뒤를 따라 걷던 드루실라의 눈에 희미한 달빛 아래 키가 큰 남편의 형체가 또렷이 들어왔다. 그녀는 남편의 키가 얼마나 큰지를 새삼 실감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녀는 제임스가 그렇게 우뚝 서 있는 모습을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다.

일을 마치고 두 사람이 잠자리에 들었을 때, 이웃에 사는 찰스 리치가 그들의 현관문을 두드렸다. 폭도들이 남쪽 정착지들을 습격했다는 소식이었다. 찰스는 성도들이 집에서 쫓겨나고 형제들 두세 명이 구타를 당한 뒤 포로로 잡혀 갔다고 하면서, 자신과 데이비드 패튼이 지금 포로를 구해 오기 위해 구조대를 꾸리고 있다고 말했다.

드루실라는 일어나 불을 밝혔고, 제임스는 자신의 말을 가지러 나갔다. 드루실라는 권총을 가져와 남편의 외투 주머니에 넣었다. 제임스가 말을 끌고 나오자 드루실라는 칼을 가져와 조심스럽게 남편의 허리에 채워 주었다. 제임스는 외투를 입으며 인사를

하고 말에 올랐다. 드루실라는 떠나는 그에게 총을 한 자루 더 주여 주면서 말했다.

“등에 총을 맞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해요.”¹⁸

그날, 찰스 헤일즈는 비틀거리는 몸으로 겨우 파웨스트에 도착하자마자 구조대에 합류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극도로 지치고 발의 통증도 심했지만, 찰스는 말과 총을 빌려 40명의 남자와 함께 다시 길을 떠났다.¹⁹

그들은 남쪽으로 계속해서 말을 몰았다. 도중에 외딴 정착지에 있던 형제들까지 합류하면서 구조대의 수는 75명이 되었다. 포로들은 파웨스트에서 19킬로미터 떨어진 크룩트 강 유역의 막사에 잡혀 있었다. 찰스의 일행 중에는 캐나다에서 그에게 침례를 주었던 사도 팔리 프렛도 있었다.

칠혹같이 어둡고 엄숙한 분위기가 감도는 밤이었다. 또각또각 말발굽 소리, 칼집과 권총집 안에서 철컥거리는 무기 소리가 이 정적을 가르며 들려 왔다. 저 멀리 불타는 평원은 불빛에 번쩍이고 있었고, 이따금 머리 위로 유성이 섬광을 내며 지나갔다.²⁰

구조대는 동이 트기 전에 크룩트 강에 도착했다. 적진이 가까워지자, 그들은 말에서 내려 대형을 짰다. 모두 모이자, 데이비드 패튼이 말했다. “승리를 위해 주님을 신뢰합시다.” 그는 대원들에게 자신을 따라 강을 건너라고 했다.²¹

찰스와 대원들은 조용히 낮은 언덕을 올랐다. 강변을 따라 불타고 있는 모닥불들이 시야에 들어왔다. 언덕 꼭대기에 오르는 데 갑자기 감시병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 왔다. “거기 누구요?”

“우린 당신네 친구들이요.” 데이비드가 말했다.

“무기가 있소?” 감시병이 물었다.

“그렇소.”

“그렇다면 무기를 내려놓으시오.”

“와서 가져가시오.”²²

“당장 내려놓으라고!”

당황한 감시병은 성도들에게 총을 발사했다. 찰스 근처에서 있던 한 청년이 몸통에 총을 맞고 거꾸러졌다. 감시병은 허둥지둥 언덕을 뛰어 내려가며 도망쳤다.²³

“자유를 위해 진격!” 데이비드가 외쳤다. “대원들, 일제히 돌격!”

찰스와 대원들은 언덕 아래로 내달려 줄지어 늘어선 나무와 개암 덩굴 뒤로 길을 따라 정렬하여 자리를 잡았다. 저 아래에서는 천막에서 쏟아져 나온 남자들이 강독을 엄폐물 삼아 몸을 숨기고 있었다. 구조대의 사격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적군의 우두머리가 외쳤다. “전원, 공격!”²⁴

적군의 총알이 찰스의 머리 위로 핑 소리를 내며 날아가더니 길가에서 위치를 잡고 있던 제임스 헨드릭스의 목에 명중했다. 제임스는 그대로 고꾸라졌다.²⁵

“발사!” 데이비드 패튼의 외침과 동시에 새벽 하늘에 총성이 울려 퍼졌다.

양측이 무기를 다시 장전하는 동안 전장에는 섬뜩한 침묵이 흘렀다. 찰스 리치가 “하나님과 자유!”라고 외치자 성도들은 그 말을 복창했다. 데이비드는 또 한 번 공격 명령을 내렸다.

성도들이 언덕 아래로 내달리자 미주리인들은 다시 한 차례 사격을 가한 뒤 강 건너편으로 후퇴하기 시작했다. 데이비드는 무리에서 뒤쳐진 한 남자를 발견하고 그 뒤를 쫓았다. 몸을 휙 돌

려 데이비드의 흰 외투를 얼핏 포착한 그는 데이비드의 바로 앞에서 정면으로 총을 쏘았다. 총알은 복부를 관통했고 데이비드는 그 자리에 쓰러졌다.²⁶

미주리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전투는 끝이 났다. 전장에는 적군 한 명과 성도 한 명이 죽어 있었다. 데이비드 패튼과 다른 성도 한 명도 죽어 가고 있었다.²⁷ 제임스 헨드릭스는 아직 의식은 있었지만, 목 아래로 아무런 감각도 느끼지 못했다.²⁸

찰스 헤일즈와 구조대원 대부분은 부상이 없거나 경미한 정도였다. 그들은 적군 막사를 수색하여 잡혀 있던 성도들을 찾아냈고, 제임스와 데이비드를 다른 부상자들과 함께 언덕 위 마차로 옮겼다.

동틀 무렵, 모든 대원은 말을 타고 파웨스트를 향해 북쪽으로 달렸다.²⁹

크룩트 강 전투가 끝난 후, 곧바로 그 전투에 대한 과장된 보고서 여러 편이 미주리 주지사 릴번 보그스에게 전달되었다. 성도들이 전투에서 50명의 미주리인들을 살해했다는 보고도 있었고, 사망자 수가 거의 60명에 이른다는 보고도 있었다. 전투에 관한 소문만 무성한 가운데, 보그스 주지사는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길이 없었다.

국경 분쟁 시기에는 급히 조직된 민병대가 무법의 자경단처럼 보이거나 행동할 때가 많았다. 그날 아침 성도들이 폭도로 알고 공격했던 대상은 사실 미주리주 민병대 소속 병사들이었던 것이다. 이 사건은 주 정부에 대한 성도들의 반란 행위로 간주되었다.³⁰

인디펜던스에서 오랜 기간을 살아온 보그스 주지사는 잭슨 군에서 성도들을 추방하는 것을 지지했었고 성도들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았었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양측에서 지원을 간곡히 요청할 때에도 중립적인 태도를 견지해 왔었다.³¹ 몰몬의 침략 행위에 대한 소문이 퍼져 나가면서, 주 전역에서는 성도들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는 탄원이 쇄도하기 시작했다.

주지사에게 날아든 편지와 문서 중에는 교회의 사도인 토머스 마쉬가 보낸 자술서도 있었다. 토머스는 그 자술서에서 조셉이 주 정부와 국가, 나아가서는 전 세계를 통치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몰몬들은 스미스의 예언이 국법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 믿는다.”라며 경고했다.³² 그리고 자술서에는 그 내용이 사실임을 증언하는 올슨 하이드의 진술도 함께 첨부되어 있었다.³³

그 문서가 도착하면서, 이제 성도들의 유죄 입증에 필요한 요건이 모두 다 갖춰졌다. 크룩트 강의 무력 사태가 있고 얼마 안되어, 주지사는 미주리주 민병대 소속 몇 개 사단에 몰몬 무장 세력을 진압하고 성도들의 항복을 받아 내라는 명령을 내렸다. 또한, 그는 미주리주 군대 제1사단 사단장에게 집행 명령을 내렸다.

1838년 10월 27일, 주지사는 이런 문건을 작성했다. “가장 가공할 만한 정보에 따르면, 몰몬은 공공연하게 무력적인 방법으로 법에 맞서고, 미주리 주민들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켰다. 그러므로 최대한 작전을 서두를 것을 명하는 바이다. 필히 몰몬을 적으로 간주하여 근절하거나 미주리주에서 추방하도록 하라.”³⁴



천사처럼 싸우라

1838년 10월 30일, 콜드웰군의 작은 정착촌 혼즈밀은 산뜻하고 쾌적한 오후를 맞고 있었다. 아이들은 파아란 하늘 아래 솔크리크 강변에서 모여 놀고, 여자들은 강가에서 빨래를 하고 끼니를 준비했다. 남자들은 겨울을 나기 위해 들판에서 농작물을 수확하고, 강변의 방앗간에서 일을 했다.¹

아만다 스미스는 천막 안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두 딸 앨비라와 오텐샤는 그 근처에서 놀고 있었다. 그녀의 남편 워렌은 어린 세 아들 윌라드와 사디우스, 앨마를 데리고 대장간에 가 있었다.²

스미스 가족은 파워스트로 가는 길에 혼즈밀을 지나는 중이었다. 지난여름에 가난한 성도들과 함께 커틀랜드를 떠난 이 가족은 이런저런 문제로 여정이 지체되는 바람에 다른 성도들을 놓치고 뒤처져 있었다. 함께 출발했던 대다수 성도들은 이미 파

웨스트에 도착했기에, 아만다와 워렌은 어서 빨리 그곳으로 가고 싶었다.³

천막에서 숨을 돌리던 아만다는 흠뻑 밖으로 눈을 돌렸다 가 그대로 온몸이 얼어붙었다. 무장을 하고 얼굴을 검게 칠한 남자들이 정착촌으로 들어오고 있었다.⁴

그 지역의 다른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아만다도 폭도의 공격을 걱정하고 있었다. 아만다와 함께 움직이던 소규모 일행은 혼즈밀에 도착하기 전에 짐마차를 습격당한 적이 있었다. 그때 괴한들은 아만다 일행이 가지고 있던 무기를 빼앗은 뒤 일행을 감시하며 사흘 동안 그들을 잡아 두고 풀어 주지 않았었다.⁵

이후 혼즈밀에 도착했을 때, 이 지역의 지도자들은 이 정착촌이 안전하다고 안심시켜 주었다. 정착촌 성도들의 지도자인 데이비드 에번스는 성도들과 평화롭게 지내고 싶다고 말한 이웃 주민들과 휴전 협정을 맺은 상태였다. 그러나 그는 만일을 대비해 정착촌 둘레에 보초들을 세웠다.

그런데 지금 혼즈밀의 성도들에게 위협이 닥쳐오고 있었다. 아만다는 황급히 어린 딸들을 데리고 물방아용 연못 옆에 있는 숲으로 내달렸다. 그녀의 등 뒤로 총성이 울렸다. 빗발치듯 날아드는 총알들이 핑핑 소리를 내며 숲을 향해 허둥지둥 내달리는 아만다와 다른 사람들 옆을 스쳐 지나갔다.⁶

대장간 근처에 있던 데이비드가 모자를 흔들며 총격을 멈추라고 소리쳤으나 폭도들은 그 말을 무시하고 다가와서 달아나는 성도들을 향해 다시 총을 쏘아댔다.⁷

아만다는 딸들을 꼭 붙들고 협곡으로 달려 내려갔고, 총격은 더욱더 거세졌다. 협곡 기슭에 이른 그녀는 딸들과 함께 빠른

걸음으로 연못에 가로놓인 판자 다리를 건너 반대편 언덕을 오르
기 시작했다.

아만다와 함께 달리던 메리 스테드웰은 폭도들을 향해 양
손을 들어 보이며 총격을 멈춰 달라고 애원했다. 폭도들은 다시
총을 쏘았고, 총알은 메리의 손을 관통했다.

아만다는 메리에게 쓰러진 나무 뒤로 숨으라고 소리친 뒤,
딸들을 데리고 숲속으로 더 깊이 뛰어가 반대편 언덕의 덤불 뒤
로 몸을 숨겼다.

이제 폭도의 시야에서 벗어난 아만다는 딸들을 바짝 끌어
안았다. 정착촌에서는 총소리가 그칠 줄 몰랐다.⁸

총격이 시작되었을 때, 아만다의 여섯 살배기 아들 엘마는 형
사디우스와 함께 아버지를 따라 대장간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성도들이 보관해 둔 총이 몇 자루 있었다. 그 안에서 수십 명의
남자들이 그 대장간을 요새 삼아 필사적으로 공격을 막아 내고
있었다. 총을 든 사람들은 통나무 벽 틈새로 폭도들에게 총을 쏘
았다.

엘마와 사디우스는 겁에 질린 채 다른 소년과 함께 대장간
의 풀무 밑으로 기어 들어갔다. 바깥에서는 폭도들이 대장간을
둘러싸고 성도들을 향해 포위망을 좁혀 오고 있었다. 몇몇이 문
으로 달려가 공격을 멈추라고 소리쳤지만, 폭도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총탄으로 성도들을 쓰러트렸다.⁹

총격이 점점 더 과격하고 거세지는 동안, 엘마는 풀무 밑에
숨어 있었다. 폭도들은 이제 대장간을 에워싸고 통나무 벽 틈새
로 총구를 들이밀며 성도들의 눈앞에서 총을 쏘아 댔다. 가슴과

팔, 허벅지에 총을 맞은 성도들은 하나둘 바닥에 쓰러져 갔다.¹⁰ 풀무 아래 숨은 엘마의 귓전에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남자들의 신음 소리가 들려왔다.

폭도들은 곧 출입문으로 몰려와 도망치는 사람들을 끝까지 공격했다. 엘마 옆에 숨어 있던 아이는 세 발의 총탄을 맞고 힘없이 쓰러졌다. 엘마도 폭도에게 들켜 총을 맞았고, 엉덩이에 큰 상처를 입었다.¹¹ 사디우스는 한 폭도에게 총을 맞은 뒤 바깥으로 끌려 나갔다. 그 남자는 열 살 난 사디우스의 머리에 거칠게 총구를 들이대고 방아쇠를 당겼다. 사디우스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¹²

그 광경을 본 다른 폭도가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이렇게 어린애까지 죽이다니 부끄러운 일이군.”

그러자 다른 남자가 소리쳤다. “이 녀석도 크면 몰몬이 될 것 아닌가.”¹³

파웨스트의 성도들은 보그스 주지사가 근절령을 내렸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폭도들이 공격해 오기 전에 주지사가 자신들을 도와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다. 10월 30일, 성도들은 멀리서 250명 규모의 군대가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은 마침내 주지사가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민병대를 보낸 것이라고 생각했다.¹⁴

이 군대의 지휘관은 과거에 성도들을 도운 적이 있는 알렉산더 도니판 장군이었다. 파웨스트 경계 바로 바깥에 대열을 지어 서 있던 성도들의 군대는 도니판 장군이 그 맞은편에 민병대를 위치시키자 곧 휴전기를 내걸었다. 장군은 주지사의 명령서를 기다

리며 군대를 대기시켰다. 사실 그의 군대는 파웨스트를 지키려고 온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목적은 성도들을 진압하는 것이었다.¹⁵

콜드웰 연합군을 이끄는 후기 성도 조지 힝클은 그들의 군대가 미주리주의 군대보다 수적으로 우세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고 후퇴 명령을 내렸다. 조셉은 조지의 명령을 듣고 귀를 의심했다. 그는 후퇴하는 군대의 행렬을 거슬러 올라가며 소리쳤다.

“후퇴라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후퇴를 한단 말입니까?” 조셉은 군대를 향해 다시 돌아가서 원래대로 대열을 지으라고 외쳤다.¹⁶

그때, 미주리 민병대에서 보낸 전령이 도착하여 애덤 라이트너와 그의 가족을 안전하게 내보내라는 명령을 전달했다. 애덤 라이트너는 교회의 회원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여러 해 전 인디펜던스에서 폭도들 틈에서 계명의 책 낱장들을 지켜 냈던, 지금은 스무 살이 된 메리 롤린스의 남편이었다.

애덤과 메리, 그리고 애덤의 누나인 리디아와 그의 남편 존 클레민슨만 파웨스트에서 나오도록 소환된 것이었다. 전령의 말을 전해 들은 메리는 리디아에게 의견을 물었다.

리디아는 말했다. “우린 올케가 하자는 대로 할게.”

메리는 전령에게 공격이 시작되기 전에 여성과 어린이들이 파웨스트를 떠나도 되는지를 물었다.

“그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제 친정 식구들은 가도 될까요?”

“주지사님은 오직 당신네 두 가족만 이곳을 떠나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¹⁷

메리는 이렇게 답했다. “그렇다면 전 가지 않겠어요. 성도들이 죽는 곳에서 저도 함께 죽겠어요. 저는 뺏속까지 몰몬이에요. 저는 제가 몰몬이라는 게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당신의 남편과 아이도 생각하십시오.”

메리가 말했다. “원한다면 남편은 아이를 데리고 떠나도 좋아요. 하지만 전 남아서 이들과 고통을 함께하겠어요.”¹⁸

조셉은 돌아가려 하는 전령들에게 다가가 말했다. “군대에 가서 전하십시오. 5분 안에 퇴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시오!”¹⁹

민병대의 병사들은 대열로 돌아갔고, 곧 미주리주의 군대는 본진으로 퇴각했다.²⁰ 그날 오후, 새뮤얼 루카스 장군이 이끄는 800명 규모의 군대가 도착했다. 새뮤얼 루카스는 5년 전에 잭슨군에서 성도들을 몰아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다.²¹

파웨스트에서 무장을 할 수 있는 성도는 많아야 300명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은 가족과 가정을 지키겠다는 결의로 단단히 무장되어 있었다. 선지자는 성도들의 군대를 마을 광장으로 소집하여 전투 준비를 하라고 말했다.²²

조셉은 그들에게 “천사처럼 싸우십시오.”라고 말했다. 그는 미주리 민병대가 공격해 온다면, 주님께서 부족한 병력의 두 배에 달하는 천사들을 보내 주시리라고 믿었다.²³

그러나 선지자는 선제공격을 원하지는 않았다. 그날 밤, 성도들은 가진 것을 모두 동원하여 도시의 동쪽과 서쪽과 남쪽에 3킬로미터에 달하는 방어벽을 쌓았다. 남자들은 집의 기둥과 짐마차 사이를 가로대로 연결하여 울타리를 치고, 여자들은 공격에 대비해 물자를 모았다.

보초들은 밤새 한잠도 자지 않고 마을을 지켰다.²⁴

한편, 혼즈밀에서는 물방아용 연못 근처의 커다란 나무 뒤에 숨어 있던 윌라드 스미스가 조심스럽게 대장간을 향해 기어가고 있었다. 열한 살 된 윌라드는 아만다의 맏아들이었다. 공격이 시작되었을 때 윌라드는 아버지와 동생들과 함께 있으려고 했지만, 대장간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혼자서 나뭇더미 뒤에 숨어 있었다. 그러다 곳곳에 흩어진 폭도들이 자신을 찾아내자, 그는 총알을 피해 이 집에서 저 집으로 도망을 다니며 폭도들이 정착촌을 떠날 때까지 버텼다.

윌라드는 곧 대장간 문간에서 싸늘하게 식은 아버지의 시신을 발견했다. 머리에 끔찍한 총상을 입은 동생 사디우스의 시신도 보았다. 대장간 바닥에는 두 사람 외에도 여남은 구의 시체가 바닥에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다. 윌라드는 시체들 틈바구니에서 동생 엘마를 발견했다. 엘마는 먼지를 뒤집어쓴 채 미동도 없었지만, 다행히 숨은 붙어 있었다. 엘마는 총상을 입어 피로 바지가 흥건했다.²⁵

윌라드는 얼른 동생을 안고 밖으로 나갔다. 어머니가 숲에서 나와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어린 엘마를 죽였구나!” 아만다는 두 아들을 보고 울음을 터트렸다.

윌라드가 말했다. “아니에요, 엄마. 하지만 아버지와 사디우스는 죽었어요.”

윌라드는 엘마를 안고 천막으로 들어가 조심스럽게 자리에 눕혔다. 폭도들이 천막 안을 살살이 뒤지고 칼로 침대요를 난도질

하여 그 안에 들었던 지푸라기를 사방에 흩뿌려 놓았다. 아만다는 흩어진 지푸라기를 평평하게 고르고 그 위에 옷을 덮어서 엘마가 누울 자리를 만들었다. 그녀는 아들의 바지를 자르고 상처를 살폈다.²⁶

살가죽이 벗겨진 상처는 처참했다. 엉덩 관절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상태였다. 아만다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머릿속이 하얘졌다.

윌라드를 보내 도움을 구하게 한다고 한들 어디로 보낼 것인가? 얇은 천막 너머로는 부상자들의 신음과 함께 남편과 아버지, 형제를 잃은 성도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도움을 청할 만한 사람들은 모두 다른 누군가를 돌보고 있거나 슬픔에 빠져 있었다. 아만다는 자신이 하나님께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²⁷

엘마의 의식이 돌아오자, 그녀는 엘마에게 주님께서 엉덩이를 낫게 해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엘마는 엄마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자신도 그렇게 믿는다고 대답했다.

아만다는 다른 세 자녀를 엘마 곁으로 불러 모으고 기도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는 상처 입은 제 불쌍한 아들을 보고 계시며 저의 미숙함을 아십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 주십시오.”²⁸

기도를 마치자, 아만다에게 행동을 지시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아직 바깥에는 모닥불에서 연기가 나고 있었다. 아만다는 재 빨리 물에 재를 풀어 젓물을 만들었다. 그리고는 깨끗한 형짚에 젓물을 적셔서 엘마의 상처를 살살 닦아 냈다. 그녀는 아들의 상처가 깨끗해질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했다.

그런 뒤 윌라드에게 밖에 가서 느릅나무 뿌리를 모아 오게 했다. 윌라드가 뿌리를 들고 돌아오자, 아만다는 그것을 찢어서 걸쭉해진 덩어리를 하나로 뭉쳤다. 그리고 그것을 상처에 붙이고 아마천으로 덮었다.

아만다는 아들에게 말했다. “이제 이대로 움직이지 말고 누워 있으렴. 주님께서 네 엉덩이를 낫게 해 주실 거야.”²⁹

엘마가 잠들고 다른 아이들이 천막 안에서 무사한 것을 확인한 아만다는 그제서야 바깥으로 나가 숨죽여 울었다.³⁰

이튿날인 10월 31일 아침, 성도들의 군대를 이끄는 조지 핑클과 다른 지도자들은 휴전을 뜻하는 백기를 들고 도니판 장군을 찾아갔다. 도니판은 아직 주지사의 명령을 받지 못한 상태였지만, 그는 자신의 군대가 성도들을 몰살시킬 권한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도니판은 휴전에 관한 이야기는 명령서가 도착할 때까지 미루어야 할 것 같다고 말하면서, 이제 민병대는 성도들의 오랜 적인 루카스 장군이 지휘할 것이라고 말했다.³¹

조지는 파웨스트로 돌아가서 자신이 들은 바를 조셉에게 보고했다. 그즈음에 혼즈밀에서 온 전령도 파웨스트에 도착하여 그고 열일곱 명이 사살되고, 여남은 명이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을 전했다.³²

조셉은 가슴이 무너졌다. 미주리의 갈등은 이제 습격이나 사소한 충돌 수준을 넘어서 있었다. 폭도와 민병대가 성도들의 방어벽을 넘어서는 날에는 파웨스트의 성도들도 혼즈밀과 같은 운명이 될 것이었다.³³

조셉은 조지에게 강한 어조로 말했다. “개처럼 구걸을 해서라도 평화 협정을 맺어야 합니다.” 선지자는 성도들이 학살을 당하게 하느니 차라리 자신이 목숨을 내놓거나 20년간 감옥살이를 하겠다고 했다.³⁴

그날 오후, 주지사의 명령서가 도착했다. 조지를 비롯한 군대의 지도자들은 파웨스트 근처 언덕에서 루카스 장군과 만나기로 약속했다. 오후에 약속 장소에 도착한 장군은 큰 소리로 근절령을 읽어 내려갔다. 성도들은 충격에 빠졌다. 지금 파웨스트는 싸움에 굶주린 약 3천 명의 미주리 민병대에 포위되어 있다는 것을 성도들은 알고 있었다. 루카스가 할 일은 이제 명령을 내리는 것뿐이었고, 그러면 그의 군대가 도시를 초토화할 것이었다.

그러나 루카스 장군은 성도들이 지도자들과 무기를 민병대에 넘기고, 땅을 판 뒤 영원히 미주리를 떠난다면 어느 정도는 자비를 베풀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지에게 한 시간의 말미를 주겠다고 하면서 조건을 수락하지 않으면 성도들을 전멸하겠다고 했다.³⁵

그날 저녁, 파웨스트로 돌아가던 조지는 과연 조셉이 이 조건을 받아들일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조지는 콜드웰 민병대의 지휘관으로서 적군과 협상할 자격이 있었지만, 조셉은 조지가 미주리주 군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전에 제일회장단과 논의하기를 바랐다.

시간은 다 되어 가고, 미주리주 민병대는 당장이라도 공격을 감행할 태세였다. 이런 상황에서 조셉을 만난 조지는 루카스 장군이 조셉을 비롯한 교회의 지도자들과 분쟁을 끝내는 것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도

들을 위협에서 구하고 싶었던 조셉 스미스는 백기를 들고 루카스 장군을 만나는 데 동의했다. 비록 조셉은 민병대의 일원은 아니었지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고자 했다.³⁶

조셉과 조지는 시드니 리그돈과 팔리 프렛, 라이먼 화이트, 조지 로빈슨과 함께 해가 지기 전에 속히 파웨스트를 떠났다. 미주리 진영까지 절반쯤 갔을 때, 말을 탄 루카스 장군이 병사들과 대포를 대동하고 이쪽으로 오는 것이 보였다. 그것을 본 조셉은 그들이 자신들을 미주리 진영까지 안전하게 호위하러 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일행 앞에 말을 세운 루카스 장군은 자신의 병사들에게 즉각 이들을 포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때, 조지 헝클이 루카스 장군에게 다가서며 말했다. “여기 포로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기꺼이 넘기겠습니다.”

루카스 장군은 칼을 뽑아 들었다. “신사 여러분, 당신들은 나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루카스의 병사들은 날카로운 함성을 지르며 그들을 포위했다.³⁷

조셉은 당혹스러웠다. 조지가 대체 무슨 일을 저질렀단 말인가? 선지자의 혼란은 곧 분노로 바뀌었다. 그는 루카스에게 대화를 요구했지만, 루카스는 이를 묵살한 채 말을 몰고 가 버렸다.

루카스의 군인들은 조셉과 다른 지도자들을 미주리 진영으로 끌고 갔다. 수많은 군인들이 그들에게 악랄한 위협과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다. 조셉 일행이 그 군인들 사이를 지나가는 동안 그들은 의기양양하게 괴성을 지르며 그들의 얼굴과 몸에 침을 뱉었다.

루카스 장군은 조셉과 지도자들을 삼엄하게 감시하고 찬바닥에서 자게 했다. 이제 그들은 자유를 박탈당한 전쟁 포로가 된 것이었다.³⁸



어찌해야 이 상황이 끝이 날까요?

미주리 진영에서 거친 함성과 고함이 들려오자, 리디아 나이트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밀려왔다. 지금 선지자는 평화 협상을 위해 그곳에 가 있지 않은가? 하지만 지금 들리는 소란스러운 소리는 마치 굶주린 늑대 떼가 울부짖는 소리 같았다.

불안한 눈빛으로 창밖을 내다보던 리디아는 집 쪽으로 혈레벌떡 뛰어오는 남편을 발견했다. 뉴얼은 리디아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간절히 기도해야겠소.”라고 말했다. 민병대가 선지자를 포로로 잡아갔다는 소식이었다.

리디아는 온몸에 힘이 쭉 빠졌다. 지난 밤, 크룩트 강 전투에서 싸웠던 두 명의 병사가 숨을 곳을 찾아 나이트 가족의 문을 두드렸다. 미주리 민병대에서는 이 접전에 가담한 성도들을 처벌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이었다. 그들을 숨겨 주었다가는 자칫 가

죽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었다. 하지만 리디아는 차마 그들을
모른 척할 수가 없어서, 결국 그들을 자신의 집에 숨겨 주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이 정말 안전한 것인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뉴얼은 그날 밤 보초를 서기 위해 집을 비워야만 했다. 만
일 뉴얼이 없는 틈에 민병대가 마을로 들어와 이 집에 숨은 병사
들을 찾아낸다면, 어쩌면 그들은 병사들을 죽일지도 모르는 일이
었다. 그리고 민병대가 리디아와 아이들에게 무슨 짓을 할지 어찌
알겠는가?

뉴얼은 집을 나서면서 리디아에게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남
자가 없는 집을 노리는 놈들이 돌아다니니 밖에는 절대 나가지
마시오.”

뉴얼이 떠나자, 리디아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성전이 현
납된 후 서쪽으로 떠난 리디아와 뉴얼은 이제 손수 지은 집에
살며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 폭도의 공격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그들의 삶은 순조로웠다. 리디아는 이 모든 것이 무너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다.

아직도 저 멀리서 미주리 사람들의 아우성이 그치지 않고
있었다. 리디아는 애가 탔지만, 기도로 애써 마음을 가라앉혔다.
그녀는 하나님이 하늘을 다스리는 분임을 알았다. 그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변치 않을 사실이었다.¹

이튿날인 1838년 1월 11일 아침에 뉴얼은 잠시 집으로 돌아왔다.
조지 힝클은 마을 광장으로 성도들의 군대를 소집했고, 미주리
민병대는 그들의 진영 바깥에 대열을 짓고 서서 당장이라도 파웨
스트로 쳐들어올 태세였다.

“어찌해야 이 상황이 끝이 날까요?” 리디아가 물었다. “불안하고 두려워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하지만 영은 모든 것이 결국 잘되리라고 말해요.”

뉴얼이 소총을 집어 들며 말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요. 다녀오리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 주실 거요.”²

성도들의 군대가 광장에 집합하는 동안, 루카스 장군의 군대는 파웨스트 남동쪽에 있는 평원으로 진군해 왔다. 루카스 장군은 성도들이 저항할 경우 바로 진압에 들어가도록 군대에 대기 명령을 내렸다. 오전 10시, 조지는 광장에 집합한 병력을 이끌고 미주리 민병대로 접근했다. 그는 루카스 장군 앞으로 가서 허리띠에서 자신의 칼과 총을 꺼내 장군에게 건넸다.³

미주리 병사들은 탄자를 가져와 자신들의 대열 앞에 놓았다. 조지는 자신의 군대로 돌아가서 명령을 내렸다. 그는 한 명씩 탄자 앞으로 가서 미주리 민병대 소속의 행정병들 앞에 무기를 내려놓으라고 지시했다.⁴

성도들은 자신들보다 훨씬 막대한 병력에 포위되어 있었기에 그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뉴얼은 자신의 총을 내놓을 차례가 되자 탄자 앞으로 걸어가 루카스 장군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장군, 이 총의 주인은 나요. 누구도 나에게 이 총을 내놓으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소.”

루카스가 쏘아붙였다. “팔 내려. 안 그러면 쏘 버릴 테니.”

뉴얼은 화가 났지만, 총을 내려놓고 대열로 돌아갔다.⁵

모든 성도가 무장을 해제하자 도시는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가 되었다. 루카스 장군은 성도들의 군대를 파웨스트로 퇴각시킨 후, 그들을 포로 신분으로 마을 광장에 잡아 두었다.

그는 민병대에 도시를 점령하라는 명령을 내렸다.⁶

미주리 민병대는 순식간에 집과 천막을 습격하여 옷장과 저장 통들을 뒤지며 무기와 귀중품을 찾았다. 또한, 그들은 침구와 옷가지, 음식, 돈을 약탈하고 집의 기둥과 울타리 가로대, 그리고 헛간에 불을 질렀다. 소와 양, 돼지 등 가축은 총을 쏜 뒤 숨이 끊어지도록 길에 버려 두었다.⁷

리디아는 집에 머물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때, 민병대 병사 셋이 문을 두드렸다. “이 집에 남자는 없나?” 병사 하나가 물었다.

“당신들이 내 남편을 데려가지 않았습니까?” 리디아가 문을 가로막고 서서 말했다. 병사를 안으로 들인다면, 숨어 있는 두 사람이 발각될 수도 있었다.

“이 집에 무기는 없나?”

“남편이 총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안에서는 낮선 사람들을 보고 겁에 질린 아이들이 울음을 터트리기 시작했다. 리디아는 애써 용기를 내어 병사들에게 소리쳤다. “가세요! 이 어린 것들이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 안 보이세요?”

병사가 말했다. “뭐, 집에 남자도 무기도 없는 게 틀림없는 거지?”

리디아가 말했다. “다시 말씀드리죠. 내 남편은 포로로 잡혀 광장에 있고, 총도 그이가 가져갔어요.”

병사는 투덜거리며 다른 둘과 함께 돌아갔다.

리디아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온몸이 후들거렸지만, 이제 민병대 병사들은 이 집을 떠났고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 무사했다.⁸

히버 김볼은 마을 광장에서 성도들과 함께 삼엄한 감시를 받고 있었다. 그런데 자신을 부르는 귀에 익은 음성이 들렸다. 고개를 들어 보니, 과거에 사도직에 있었던 윌리엄 매클렐른이 다가오고 있었다. 윌리엄은 눈에 거슬릴 만큼 유난히 붉은 색깔의 수장이 달린 모자와 셔츠를 착용하고 있었다.⁹

윌리엄이 말했다. “히버 형제, 이제 포로로 전락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어떻게 생각하시오?” 윌리엄은 병사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그들은 멋대로 마을을 약탈하며 이 집 저 집을 다니는 중이었다.

윌리엄은 계속 지껄었다. “대체 꼴이 이게 뭐요? 불쌍도 하지. 당신 가족들은 모든 걸 다 빼앗기고 맨몸만 남았더군. 당신 네 형제들도 당신과 같은 처지가 아니오? 그래도 조셉한테 불만이 없소?”¹⁰

성도들의 처지가 암울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조셉은 붙잡혔고, 성도들은 무방비 상태로 모욕을 당했다.

그러나 히버는 윌리엄이나 토머스 마쉬, 올슨 하이드와 달리 조셉과 성도들을 버릴 수 없었다. 그는 지금껏 함께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항상 조셉에게 충실했다. 히버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된다 해도 끝까지 조셉을 저버리지 않기로 결심했다.¹¹

히버가 윌리엄에게 되물었다. “지금 어디에서 지냅니까? 사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에 대한 히버의 다음과 같은 간증과 절대 성도들을 버리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는 윌리엄의 질문에 대한 답이 되기에 충분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선지자에게 만족합니다. 물문이 즈음 참되고, 조셉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입니다.”¹²

민병대가 마을을 약탈하여 성도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재산을 탈취한 것은 모두 루카스 장군의 묵인 하에 이루어진 일이었다. 미주리 민병대는 정착촌 곳곳에서 성도들을 내쫓고, 거리로 달아나는 성도들을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 병사들은 저항하는 성도들에게 채찍을 휘두르고 행패를 부렸다.¹³ 집 안에 숨어 있던 여자들을 찾아내 때리고 강간하는 병사들도 있었다.¹⁴ 루카스 장군은 성도들이 반란죄를 범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식으로 성도들에게 벌을 주고 자기 군대의 위력을 과시할 심산이었다.⁵

그날 하루 내내 루카스 장군 휘하의 장교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더 많이 잡아들였다. 병사들은 조지 헝클의 안내로 메리와 하이럼 스미스의 집에도 쳐들어갔다. 그들은 병중에 있는 하이럼을 무력으로 끌어내어 조셉과 다른 포로들이 잡혀 있는 곳과 함께 가두었다.¹⁶

그날 저녁, 루카스 장군은 포로들을 군사 법정에서 세울 준비에 돌입했다. 민병대의 장교인 모지스 윌슨은 라이먼 화이트를 끌어들여 법정에서 조셉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게 하려고 모략했다.

모지스는 라이먼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을 다치게 하거나 죽일 생각은 없소. 법정에 나와서 조셉에게 불리한 증언만 해 준다면, 목숨을 살려 주는 것은 물론이고 원하는 지위까지도 주겠소.”

라이먼은 격분했다. “조셉 스미스는 인류의 적이 아니요. 만일 내가 그의 권고를 듣지 않았다면, 당신은 지금쯤 무사하지 못했을 것이오!”

“거 참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군.” 모지스가 물었다. “오늘 밤에 군법 재판이 있소. 당신도 참석하겠소?”

“내 발로는 가지 않을 것이오.”¹⁷

모지스는 라이먼을 다른 포로들이 있는 곳으로 돌려보냈다. 루카스 장군은 곧 재판을 소집했다. 조지 힝클과 민병대의 장교 여럿이 재판에 참석했다. 재판에 참석한 유일한 변호사인 도니판 장군은 재판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며, 민병대는 조셉과 같은 민간인을 재판에 넘길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루카스 장군은 아랑곳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했다. 포로들은 한 명도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공판은 일사천리로 전개되었다. 조지 힝클은 루카스가 성도들에게 아량을 베풀어 주기를 바랐다. 그러나 루카스는 성도들에게 반역죄를 씌워 총살형을 선고했다. 그 자리에 있던 장교 대다수가 이 판결을 지지했다.¹⁸

재판이 끝난 후, 모지스는 라이먼에게 재판 결과를 알렸다. “당신들의 운명이 결정되었소.”

라이먼은 경멸하듯 모지스를 쏘아보았다. “할 테면 하시오. 죄는 당신들에게 돌아갈 것이요.”¹⁹

그날 저녁에 루카스 장군은 도니판 장군에게 9시 정각에 조셉과 포로들을 마을 광장으로 끌고 가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처형하라고 지시했다. 도니판은 격노했다.²⁰

그는 성도들을 은밀히 만나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 일로 명예도 불명예도 얻을 생각이 없소. 나는 이 일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요.” 그는 날이 밝기 전에 병사들을 이끌고 퇴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²¹

그런 다음, 그는 루카스 장군에게 전갈을 보냈다. “그것은 피도 눈물도 없는 살인 행위입니다. 나는 장군의 명령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만일 장군이 그들을 처형한다면, 나는 이생의 심판대에서 당신에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이 도우시기를!”²²

이튿날 아침에 도니판 장군의 군대는 약속대로 떠나고 없었다. 루카스 장군은 조셉과 성도들을 처형하는 대신 잭슨군에 있는 본부로 압송하도록 지시했다.²³

조셉은 무장한 병사들에게 양팔이 결박된 채 몇 가지 물건을 챙기기 위해 폐허가 된 파웨스트의 거리를 지나 자신의 집으로 갔다. 그가 집에 도착하자 에머와 아이들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아직 그가 살아 있다는 것에 그저 안도했다. 조셉은 병사들에게 가족과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간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에머와 아이들은 차마 조셉을 보낼 수 없어 그에게 매달렸다. 병사들은 칼을 뽑아 들고 가족들을 떼어 놓았다. 다섯 살배기 조셉이 아버지를 꼭 붙들고 훌쩍이며 말했다. “우리랑 같이 있으면 안 돼요?”²⁴

그러자 병사 하나가 아이에게 칼을 겨누며 으름장을 놓았다. “이 녀석, 저리 가! 안 그러면 찢러 버릴 테다!”²⁵

밖에서는 군대가 운집한 성도들 사이로 포로들을 끌고 가서 포장마차 속으로 그들을 몰아넣었다. 그런 후 민병대는 마차 둘레로 무장 병력을 세워 성도들과 지도자들 사이를 가로막았다.²⁶

조셉이 마차에 탄 채 출발을 기다리고 있을 때, 웅성거리는 성도들 사이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난 선지자의 어머니 되는 사람ियो. 내가 마차로 갈 수 있게 누가 좀 도와줘요!” 루시 스미스였다.

마차의 포장은 두꺼운 캔버스 천이어서 밖이 보이지 않았다. 마차 앞쪽에 있던 하이럼은 천막 밖으로 손을 내밀어 어머니와 손을 맞잡았다. 병사들은 루시를 총으로 위협하며 당장 돌아

가라고 으박질렀다. 하이럼의 손에서 루시의 손이 미끄러져 나갔고, 마차는 이제 곧 출발할 모양이었다.

조셉은 마차의 뒤편에 있었다. 그런데 그때 천막 너머에서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스미스 선생, 맥의 어머니와 누이가 와 있소.”

조셉은 천막 밑으로 손을 내밀었다. 어머니의 손이 느껴졌다. 루시가 말했다. “조셉, 네 목소리도 듣지 못하고 너를 보낼 순 없어.”

“어머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예요.” 조셉이 말을 마치기 무섭게 마차가 휘청이더니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²⁷

며칠 후, 포로들은 미주리주 리치몬드의 한 통나무 집에 갇힌 채 바닥에 누워 있었다. 루카스 장군은 조셉과 지도자들을 잭슨군으로 호송하여 그들이 동물이나 된 듯 대중 앞에 공개했으며, 그러던 중에 합법적인 심리를 위해 그들을 리치몬드로 보내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이제 포로들은 각각 발목에 족쇄를 차고 서로 사슬로 묶인 채 잠을 청했다. 바닥은 차고 딱딱했으며, 통나무집에는 내부를 덮힐 불도 없었다.²⁸

잠들지 못하고 뜯눈으로 누워 있던 팔리 피 프렛은 성도들을 강간하고살해했다고 지껄이는 보초들의 말소리에 구역질이 날 것만 같았다. 그는 제발 그들이 입을 다물도록 당장 일어나 꾸짖고 싶었지만, 그저 입술을 꼭 깨물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바로 옆에서 철커덕 하고 쇠사슬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더니 조셉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선지자는 우레와 같은

음성으로 말했다. “잠잠하라, 너희 지옥의 악마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어 명하노니, 잠잠하라! 나는 지금부터 단 한 순간도 더는 그러한 언사를 용납하지 않겠노라!”

보초들은 깜짝 놀라 무기를 움켜쥐고 조셉을 쳐다봤다. 조셉도 위엄 있는 얼굴로 그들을 노려보았다. “그 언사를 당장 그치라. 그렇지 않으면 지금 당장 너희가 죽든 내가 죽든 하리라!”

방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보초들은 총을 내렸다. 일부는 구석으로 몸을 피했고, 또 일부는 두려워 떨며 조셉의 발 앞에 몸을 굽혔다. 선지자는 침착하고 위엄 있는 모습으로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보초들은 조셉에게 용서를 구했고, 교대 조가 올 때까지 한 번도 입을 열지 않았다.²⁹

1838년 11월 12일, 조셉을 비롯한 60명 이상의 성도들은 리치몬드 법정으로 호송되었다. 법정에서 이들은 반역과 살인, 방화, 강도, 절도 혐의로 그들을 기소할 증거가 충분한지 심리를 받을 예정이었다. 성도들을 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결정할 사람은 오스틴 킹 판사였다.³⁰

심리는 2주가 넘도록 계속되었다. 조셉에게 불리한 결정적인 증언을 내놓은 사람은 단 단원의 지도자였던 샘프슨 아바드였다.³¹ 파웨스트가 포위되었을 때 미주리주에서 달아나려다 민병대에 체포된 그는 포로들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으면 그 역시 기소하겠다고 협박을 받고 있었다.³²

샘프슨은 어떻게든 살고 싶은 마음에 자신이 단 단원에서 한 일은 모두 조셉의 명령을 따른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성도들이 미주리주 및 미국 정부에 대항하여 권리를 찾고자 싸우

게 된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조셉의 믿음 때문이었다고 증언했다.

또한, 샘프슨은 구약전서의 다니엘이 말한 돌처럼, 조셉은 교회가 지상을 가득 채우고 지상의 왕국들 위에 서리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³³

이 말을 들은 킹 판사는 깜짝 놀라 조셉에게 다니엘의 예언에 관해 물었다. 조셉은 그 예언을 믿는다고 증언했다.

판사는 서기에게 말했다. “그대로 적으시오. 반역에 대한 중요한 증거요.”

그러자 조셉의 변호인이 반론을 제기했다. “판사님, 그렇다면 성경을 반역으로 규정한다는 말씀이십니까?”³⁴

기소 측에서는 성도들에 대해 불리한 증언을 할 사람으로 과거의 교회 지도자들을 포함한 40여 명을 소환했다. 자신들도 기소될 것을 두려워한 존 코릴과 윌리엄 펠프스, 존 휘트머 등은 조셉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조건으로 자유를 보장받기로 미주리주 정부와 거래를 했다. 그들은 선서를 한 뒤, 분쟁 당시의 잔학 행위를 상세히 구술했으며, 모든 책임을 조셉에게 돌렸다.

한편, 성도들 측에서도 조셉을 방어하기 위해 몇 안 되는 증인을 세웠으나, 그들의 증언은 판사에게 거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조셉의 편에서 증언을 할 수 있는 증인들은 더 있었지만, 그들은 교란을 당하거나 겁을 먹고 법정에서 달아나 버렸다.³⁵

심리가 끝날 무렵, 리치몬드의 감옥에서는 팔리 프렛을 포함한 다섯 명의 성도들이 크룩트 강에서 일어난 싸움과 관련해 살인죄 혐의를 다룰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조셉과 하이럼 스미스, 시드니 리그돈, 라이먼 화이트, 케일럽 볼드윈, 알렉산더 맥레이는 반역죄에 대한 재판이 열릴 때까

지 대기하도록 리버티라는 도시의 감옥으로 이송되게 되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그들은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다.³⁶

대장장이는 이 여섯 사람을 쇠사슬로 함께 묶어 커다란 짐마차 쪽으로 끌고 갔다. 여섯 명의 죄수들은 마차로 기어 올라가 거친 나무 바닥에 앉았다. 짐칸의 높은 면은 거의 그들의 머리까지 닿았다.

여정은 꼬박 하루가 걸렸다. 리버티에 들어선 마차는 도시의 중심부를 달려 법원을 지난 후, 작은 석조 감옥이 있는 북쪽으로 올라갔다. 12월의 추위 속에서, 감옥의 문은 조셉 일행을 기다리고 있거나 한 듯 활짝 열려 있었다.

죄수들은 하나씩 짐마차에서 내려 감옥 입구로 걸어갔다. 호기심에 찬 사람들이 죄수들의 얼굴을 보려고 주변으로 몰려들었다.³⁷

조셉은 맨 마지막으로 마차에서 내렸다. 그는 문으로 걸어가면서 무리를 보고 모자를 들어 올리며 정중하게 인사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몸을 돌려 어둡한 감옥 안으로 걸어 내려갔다.³⁸



온 지옥 떨며 떨어뜨리려 하나

1838년 11월 중순, 파웨스트의 성도들은 굶주림과 추위로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미주리 민병대는 성도들의 집을 초토로 만들고, 저장되어 있던 식량도 거의 모조리 쓸어 갔다. 그나마 들판에 남아 있던 농작물은 모두 얼어 버린 상태였다.¹

루카스 장군에 이어 파웨스트에서 미주리 군대를 맡은 사람은 존 클라크 장군이였다. 존 클라크는 전임자 못지않게 성도들을 인정사정없이 대했다.² 그는 성도들이 땅을 침범하고 법을 어겼다고 비난했다. “지금 이 어려움은 당신들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요, 법에 불만을 품고 법을 따르지 않았으니 말이요.”

그는 겨울이 눈앞이라 봄이 될 때까지는 성도들이 파웨스트에 머무르는 것을 허락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 후에는 떠나라고 충고했다. “다시는 감독이나 회장 따위를 둔 조직을 만들지 마시

오. 그렇게 한다면 사람들의 시기심을 건드려서 지금과 같은 재앙을 피하지 못할 것이요.”³

혼즈밀의 상황은 더 심각했다. 학살이 일어난 다음 날부터 폭도들은 성도들을 향해 미주리주를 떠나라며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고 했다. 아만다 스미스를 비롯한 생존자들은 당장이라도 그곳을 떠나고 싶었지만, 말과 의복, 식량 등 장거리 이동에 필요한 물품을 모두 약탈당한 상황이라 곧바로 떠날 수도 없었다. 게다가 아만다의 아들 엘마와 같은 수많은 부상자들은 그렇게 먼 거리를 움직일 만한 몸 상태가 아니었다.⁴

정착촌의 여성들은 기도 모임을 열고 부상자들의 치유를 위해 주님께 간구했다. 하지만 기도 모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폭도들은 모임을 계속한다면 정착촌을 전멸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때부터 여성들은 떠날 준비를 하는 동안 이목을 끌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애를 쓰며 소리 없이 기도했다.

엘마 후, 아만다는 아이들을 데리고 천막에서 오두막으로 거처를 옮겼다.⁵ 아만다는 살해된 남편과 아들을 생각하며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혼자서 돌보아야 할 네 명의 어린 자녀가 있었다. 그녀는 엘마의 상처가 나을 때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혼즈밀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 못내 불안했다. 하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떠난다 한들, 대체 어디로 간단 말인가?

미주리 북부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같이 그 고민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만일 봄까지 이곳을 떠나지 않는다면 민병대가 주지사의 근절령을 시행할까 봐 두려워했다. 그러나 이제 자신들을 이끌어 줄 지도자들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미주리를 떠날 것이며, 가더라도 어디로 모여야 할지를 전혀 알 수가 없었다.⁶

성도들이 파워스트를 떠나기 위해 준비하는 동안, 피비 우드립은 오하이오 서부의 노변에 있는 여관에서 심각한 두통과 고열에 시달리며 자리에 누워 있었다. 피비와 월포드는 폭스 아일랜드의 성도들과 함께 눈과 비를 뚫고 두 달을 묵묵히 서쪽으로 움직이며 시온으로 가는 길이었다. 그 과정에서 피비의 딸 세라 에머를 비롯하여 여러 어린아이들이 병을 얻었다.⁷ 그 성도들 중 두 가족은 겨울까지 시온에 다다르지 못하리라는 생각에 대열에서 이탈해 나갔다.⁸

여관에 오기 전까지 피비는 울퉁불퉁한 길에서 짐마차가 흔들릴 때마다 극도의 고통을 느꼈다.⁹ 급기야 피비가 숨쉬기조차 힘겨워하던 어느 날, 월포드는 아내의 회복을 위해 행렬을 멈추었다.

피비는 자신이 분명 죽어 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월포드는 피비를 축복하고 그녀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해 할 수 있는 것보다 했지만, 피비는 점점 더 심하게 열이 올랐다. 마침내 피비는 월포드를 곁으로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간증하고, 상황이 어렵더라도 신앙을 행사하라는 말을 남겼다. 이튿날, 피비는 호흡이 완전히 멈추었다. 그녀는 자신의 영이 육신을 떠나는 것을 느꼈다.¹⁰

피비는 월포드가 생명이 다한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때 두 명의 천사가 방으로 들어왔다. 그중 한 천사가 피비에게 선택을 해야 한다며, 그녀는 천사들과 함께 영의 세계로 가서 안식을 얻거나, 아니면 생으로 다시 돌아가 앞으로 벌어질 어려움을 감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생에 머문다 해도 앞날이 호락호락하지는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근심 걱정에서 시달리는 삶, 불확실한 미래가 기

다리고 있는 삶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것일까? 윌포드와 세라 에머의 얼굴을 바라보던 피비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네, 돌아가겠어요!”

피비가 결정을 내리는 순간, 윌포드도 신앙을 행사했다. 그는 아내에게 성별된 기름을 붓고 아내의 머리에 손을 올린 뒤 죽음의 세력을 꾸짖었다. 윌포드가 축복을 마치자, 피비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 피비가 눈을 뜨니, 두 천사가 방을 떠나는 모습 보였다.¹¹

한편, 미주리에서는 리버티 감옥에 갇힌 조셉과 하이럼을 비롯한 포로들이 체온을 잃지 않기 위해 서로 몸을 바짝 붙이고 있었다. 좁고 눅눅한 감옥은 대부분이 지하층이었고, 사면은 돌과 나무로 된 1.2미터 두께의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천장 가까이에 난 손바닥만한 창문 두 개로 어느 정도 빛이 들어오긴 했으나 지하 감옥의 퀴퀴한 냄새를 가시게 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포로들은 돌바닥에 쌓인 더러운 지푸라기 위에서 잠을 잤고, 아무리 배가 고파도 차마 삼킬 수 없는 역겨운 음식이 나와 먹은 음식을 도로 게우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때도 있었다.¹²

12월 초에 에머는 조셉을 찾아가 파웨스트 성도들의 소식을 전했다.¹³ 조셉은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야기를 듣자 자신을 배반한 이들에 대해 크게 분개했다. 그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구술했다. 교회를 등진 이들을 규탄하며 성도들이 굴하지 않도록 격려하는 내용이었다.

조셉은 결연하게 말했다. “죽은 듯이 보일지라도 시온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화평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시며, 여러분이 영혼의 역경에서 벗어나도록 길을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¹⁴

1839년 2월, 하이럼의 아내 메리와 그녀의 여동생 머시가 갓 태어난 하이럼의 아들 조셉 에프 스미스를 데리고 감옥에 갇힌 지도자들을 만나러 갔다. 11월에 아이를 낳은 메리는 그 전부터 하이럼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메리는 출산과 혹한기를 겪으며 몸이 쇠약해진 탓에 도저히 리버티까지 갈 여력이 없었다. 그러나 하이럼의 부탁도 있었고, 어찌면 남편을 다시는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녀는 여행을 감행했다.¹⁵

간수는 메리와 머시가 감옥에서 포로들과 함께 밤을 보낼 수 있도록 지하로 내려가는 작은 뚜껑문을 열어 주었다. 그들이 아래로 내려가자 간수는 문을 닫고서 묵직한 자물쇠를 채웠다.¹⁶

그날 밤에는 누구도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메리와 머시는 조셉과 하이럼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야위고 지저분한 모습으로 비좁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¹⁷ 하이럼은 아직 신생아인 아들을 품에 안고 메리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이럼과 지도자들은 모두 불안해하고 있었다. 간수와 보조들은 조셉과 하이럼이 탈출을 꾀하고 있다고 단정하고 잠시도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이튿날 아침, 메리와 머시는 지도자들에게 작별 인사를 한 뒤 지하 감옥을 나왔다. 그들이 보조를 따라 밖으로 나가는데 뒤에서 뚜껑문이 날카로운 경첩 소리를 내며 황 하고 굳게 닫혔다.¹⁸

그해 겨울에 파웨스트에 있던 브리검 영과 히버 김볼은 조셉이 보낸 편지를 받았다. “이제 십이사도인 여러분에게 교회 제반의 관리를 맡기려 합니다.” 조셉은 기존의 십이사도 가운데 가장 연장자인 사람을 토머스 마쉬를 대신해 정원회의 회장으로 지명하라고 지시했다.¹⁹ 그러나 가장 연장자였던 데이비드 패튼은 크룩트 강에서 충상을 입고 숨졌으므로, 이제 서른일곱 살이 된 브리검 영이 미주리의 성도들을 이끌어야 했다.

브리검은 이미 미주리주 고등평의회에 도움을 받으며 조셉이 없는 동안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사안 결정을 하고 있었다.²⁰ 그러나 이제 그는 더 많은 과제들을 해결해야만 했다.

클라크 장군은 성도들에게 봄까지 미주리주를 떠나라고 했지만, 폭도들은 벌써부터 말을 타고 도시를 헤집고 다니며 2월 말까지 남아 있는 사람이 있으면 몰살해 버리겠다고 위협하고 있었다. 떠날 형편이 되는 많은 성도들은 겁을 먹고 최대한 서둘러 떠났고, 이제 가난한 성도들만 남아 스스로 목숨을 지켜 내야 했다.²¹

1월 29일, 브리검 영은 파웨스트의 성도들에게 모두가 미주리주를 벗어날 수 있도록 서로 돕겠다는 성약을 맺으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가난한 성도들이 근절령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우리는 절대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브리검 영을 위시한 파웨스트의 지도자들은 모든 성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일곱 명의 남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미주리 탈출 과정을 이끌게 했다.²² 위원회는 궁핍한 성도들을 위해 기부금과 물자를 모으고,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의 깊게 따져 보았다. 그리고 몇몇은 미주리주 전역에 있는 길을 조사했다. 그들은 주로 잘 닦여 있는 길을 탐색했으며, 성도들에게 적대적인 지역은 피했다. 그렇게 하여 선택된 경로는 모두 파웨스트

에서 260킬로미터 떨어진 미주리주 접경 지역의 미시시피강에 맞닿아 있었다.

그들은 당장 미주리를 탈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²³

2월 초에 에머는 여덟 살인 줄리아, 여섯 살인 조셉 삼세, 두 살배기 프레드릭, 그리고 생후 7개월 된 아기 알렉산더까지 네 아이를 데리고 파웨스트를 떠났다.²⁴ 가진 것을 대부분 약탈당하거나 파웨스트에 남겨 두고 왔기에, 에머는 마차와 말을 내어 준 친구들과 함께 움직였다. 에머는 조셉의 중요한 서류들도 갖고 있었다.²⁵

에머와 아이들은 얼어붙은 미주리 땅을 일주일 이상 달렸다. 도중에 말 한 마리가 죽었다. 미시시피강에 이르러 보니, 혹독한 추위에 넓은 강이 얼어 있었다. 배는 다닐 수 없었지만, 얼음은 일행이 걸어서 건널 수 있을 만한 두께로 얼어 있었다.

에머는 프레드릭과 알렉산더를 안고 얼음 위로 발을 내디뎠다. 어린 조셉과 줄리아는 에머의 치맛자락을 양쪽에서 꼭 붙들고 있었다. 이들은 조심조심 미끄러운 얼음 위를 걸어간 끝에 멀찍이 떨어진 강둑에 닿았다.²⁶

무사히 미주리를 빠져나와 일리노이주에 도착한 에머는 가까운 곳에서 퀸시라는 마을을 발견했다. 퀸시 주민들은 기대 이상으로 친절했다. 그들은 성도들이 얼어붙은 강을 건너도록 도와주고 식량과 의복을 나누어 주었으며, 사정이 딱한 사람들에게는 피난처와 일자리까지 마련해 주었다.²⁷

에머는 퀸시에 도착한 직후 조셉에게 편지를 썼다. “난 아직 살아 있어요. 앞으로 더 많은 어려움이 닥쳐 오더라도 그게 하늘의 뜻이고 당신을 위해 내가 겪어야만 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그

렇게 하겠어요.” 조셉과 에머의 아이들은 몸이 아픈 프레드릭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사했다.

“우리 집과 우리가 가진 거의 모든 것을 남겨 둔 채 아이들만 데리고 나오면서, 그리고 그 쓸쓸한 감옥에 갇힌 당신을 두고 미주리를 떠나오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품었는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에머는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를 믿었고, 더 좋은 날이 오기를 희망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은 고통을 기록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복수하지 않으신다면, 슬프게도 내 생각이 틀린 것이겠지요.”²⁸

성도들이 미주리를 빠져나가는 동안, 아만다 스미스의 가족은 아들 엘마의 부상 탓에 아직도 혼즈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아만다는 주님께서 엘마의 엉덩이를 낫게 해 주시리라는 믿음을 잃지 않고 아들을 간호했다.

“주님이 정말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엄마?” 어느 날 엘마가 물었다.

아만다는 대답했다. “그럼, 그렇고말고. 그분은 시현을 통해 내게 모든 것을 보여 주셨단다.”²⁹

시간이 지나면서 정착촌 인근의 폭도들은 점점 더 적대감을 드러내며 성도들에게 떠날 기한을 통보했다. 그러나 떠나야 할 날이 다가와도 엘마의 상처는 여전했기에, 아만다는 떠나기를 거부했다. 그렇지만 겁이 난 아만다는 소리 내어 기도하고 싶은 마음에 옥수숫대 더미 속에 숨어서 주님께 힘과 도움을 주시기를 간

구했다. 아만다가 기도를 마치자, 어떤 음성이 들려왔다. 친숙한 찬송가 가사를 되풀이하는 음성이었다.

구원 얻으려고 품에 안긴 영혼
저희 원수에게 내주지 않으리
온 지옥 떨며 떨어뜨리려 하나
저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³⁰

아만다는 이 가사를 듣고 힘을 얻었으며, 그 무엇도 자신을 해하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³¹ 얼마 후, 아만다가 개울에서 물을 길는데 집에서 아이들의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놀라서 달려가 보니, 엘마가 방 안을 뛰어다니고 있었다.

“엄마, 저 다 나왔어요! 다 나왔다고요!” 엘마가 소리쳤다. 엉덩이에 부드러운 연골이 자라나서 이제 엘마는 걸을 수도 있었다.

엘마가 움직일 수 있게 되자, 아만다는 가족들을 챙겨 자신의 말을 훔쳐간 미주리 주민을 찾아가서 말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자신이 여태 말을 먹었으니 그 대가로 5달러를 주어야 말을 내어 주겠다고 했다.

아만다는 그 말을 무시하고 뜰로 나가 말을 끌고 나왔다.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곧바로 일리노이주로 향했다.³²

하루하루 파워스트를 떠나는 성도가 늘어 가자, 드루실라 헨드릭스는 자신의 가족이 그곳을 떠나지 못하게 될까 봐 불안해하고 있었다. 혼즈밀에서 네 발의 총탄을 맞았던 아이잭 리니는 성도들이 자신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며 드루실라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그녀는 남편이 이 여정을 감당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다.

남편 제임스는 크룩트 강 전투에서 목에 총상을 입고 목 아래로 전신이 마비된 상태였다. 전투가 끝난 후에 드루실라는 이웃집에서 부상당한 이들 사이에 누워 있는 남편을 발견했다. 그녀는 슬픔을 가누지 못했지만 마음을 다잡고 남편을 집으로 데려왔다. 그리고 사지의 감각을 되살리기 위해 갖가지 치료법을 다 동원했지만 어떤 것도 소용이 없었다.

파웨스트에서 성도들이 항복한 뒤로 그녀는 동쪽으로 가기 위해 땅을 팔고 일을 하여 물품들과 작은 짐마차를 살 만큼 돈을 모았으나, 아직 마차를 끌 가축을 구하지 못한 상태였다.

드루실라는 마차를 끌 도리가 없으니 미주리를 떠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임스는 신권 축복을 받은 뒤부터 어깨와 다리를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었지만, 먼 거리를 걸을 만큼은 아니었다. 제임스를 미주리주 밖으로 안전하게 데려가려면 가축이 필요했다.

미주리를 떠나야 할 기한이 다가오자, 드루실라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폭도들은 남편을 죽이러 오겠다고 그녀를 위협했다.

어느 날 밤, 드루실라가 제임스의 침상 곁에서 아키에게 젓을 먹이는데, 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엄마!” 드루실라의 큰아들 윌리엄이 소리쳤다. “폭도들이 오고 있어요!” 잠시 후, 쿵쿵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드루실라는 누구냐고 물었다. 밖에서는 우리가 누구든 상관 말라는 말과 함께 지금 당장 문을 열지 않으면 부숴 버리겠다는 고함소리가 들렸다. 드루실라는 한 아이를 시켜 문을 열게 했다. 그러자 가짜 턱수염으로 얼굴을 가리고 무장을 한 남자들이 우르르 방안으로 몰려 들어왔다.

“일어나!” 폭도들이 드루실라에게 소리쳤다.

하지만 자신이 떠나면 남편이 살해되고 말 거란 생각에 그녀는 꼼짝할 수가 없었다. 그때, 폭도 한 명이 옆에 있던 탁자에서 양초를 집어 들고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폭도들은 단 단원을 찾고 있다면서 침대 밑과 집 뒤편을 들쭉했다.

그들은 급기야 제임스의 이불을 걷어 내고 그를 추궁하려 했지만, 제임스는 말을 할 만한 기력이 없었다. 흐릿한 불빛 아래로 야위고 창백한 제임스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다.

폭도는 물을 달라고 했고, 드루실라는 물이 있는 곳을 알려 주었다. 그들은 물을 마시면서 총을 장전했다. 무리 중 하나가 말했다. “다 준비됐어.”

폭도들은 드루실라의 눈앞에서 손가락을 방아쇠로 가져갔다. 그들이 자리에서 일어서자 드루실라는 곧 총탄이 날아오리라 생각하며 마음의 준비를 했다. 그러나 폭도들은 잠시 방 안을 어슬렁거리다 곧 밖으로 나가 말을 타고 떠났다.

얼마 후에 제임스를 안타깝게 여긴 한 의사가 드루실라에게 남편에게 도움이 될 방법을 알려 주었다. 제임스는 서서히 기력을 되찾았다. 그리고 그들의 친구인 아이잭은 드루실라의 가족을 위해 소에 씌우는 멍에도 구해다 주었다.

이제 그들은 영원히 미주리를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³³

폭스 아일랜드 지부의 회원들과 함께 일리노이주에 도착한 윌포드와 피비 우드럽은 미주리주에서 성도들이 추방되었다는 소

식을 들었다. 퀴시는 강 유역에 발달된 활기찬 도시였다. 많은 교회 회원들이 퀴시에 정착하자, 우드럽 일가는 성도들과 합류하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만나기 위해 3월 중순에 그곳으로 갔다.³⁴

퀴시에서는 몇 주 동안 미주리 감옥에서 고초를 겪고 풀려난 에드워드 파트리지가 건강이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이끄는 일을 돕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 히버를 비롯한 선임 지도자들은 성도들이 미주리에서 탈출하도록 계속 지휘하고 있었다.³⁵

월포드와 피비가 찾아보니 에머와 그 자녀들은 현지 판사인 세라와 존 클리블랜드 부부의 집에 머물고 있었다. 선지자의 부모 형제들과 브리검 영 및 메리 앤 영, 존 테일러와 레오노라는 퀴시 인근에서 생활하고 있었다.³⁶

이튿날, 브리검은 형편이 어려운 50가구가 미주리를 떠날 수 있도록 파워스트의 대피 위원회에 자금과 말을 조달해 달라는 공지를 냈다. 퀴시에 있는 성도들도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브리검은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자비의 손길을 내밀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성도들은 50달러와 여러 마리의 말을 위원회에 내놓았다.³⁷

이튿날, 월포드는 새로 도착한 교회 회원들을 만나기 위해 미시시피강 강둑으로 나갔다. 얼어붙을 듯 추운 날씨에 추적추적 비는 내리고, 난민이 된 성도들은 지치고 굶주린 채 진창에서 웅숭그리고 있었다.³⁸ 퀴시의 주민들이 성도들을 친절히 대하고는 있었지만, 월포드는 머지않아 성도들이 그들만의 장소를 필요로 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다행히 아이잭 깬런드라는 사람이 퀴시 북쪽 강굽이에 면한 습지를 일부 팔겠다고 하여, 파트리지 감독 등이 그와 접촉 중

이었다. 그 땅은 성도들이 시온으로 그리던 젓과 꿀이 흐르는 땅
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러나 그곳은 언젠가 성도들이 바로 들어가
서 새로운 집합 장소로 쓸 수 있는 땅이었다.³⁹



오 하나님이지여, 당신은 어디 계시나이까?

리버티 감옥의 포로들에게 시간은 느릿느릿 흘렀다. 수감 첫 달에는 가족과 친구들이 옷가지와 음식을 들고 찾아와 따뜻한 말을 나누는 때도 자주 있었다. 그러나 겨울이 끝나 갈 무렵에 성도들이 일리노이로 탈출하면서부터는 감옥으로 오는 편지도, 찾아오는 친구도 급격히 줄어 포로들은 더욱 고립감을 느꼈다.¹

1839년 1월에 그들은 지방 법원 판사에게 항소했다. 그러나 건강이 몹시 좋지 않았던 시드니 리그돈만 보석으로 풀려나고, 조셉과 하이럼, 라이먼 화이트, 알렉산더 맥레이, 케일럽 볼드윈은 다시 지하 감옥으로 돌아가 봄에 열릴 재판을 기다려야 했다.²

조셉은 감옥 생활에 지쳐 가고 있었다. 그를 야유하는 사람들은 철창 사이를 들여다보거나 그에게 고래고래 욕설을 했다. 감옥에는 작은 옥수수빵 외에는 먹을 것이 없을 때가 많았다. 12월

부터 침상으로 사용하던 지푸라기는 이제 엉길 대로 엉겨 붙어 등이 배겼다.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불을 지피면 지하 감옥은 금세 연기로 가득 차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³

재판 일정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은 편파적인 배심원이 유죄 판결을 내려 자신들이 처형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 차례 탈옥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보초들에게 붙잡히고 말았다.⁴

조셉은 신성한 부름을 받은 이래로 반대 세력에 직면해서도 늘 앞으로 나아가며, 주님께 순종하고 성도들을 집합하는 일에 힘써 왔었다. 그러나 지난 몇 년 사이 크게 번성한 교회는 이제 붕괴하기 직전에 이른 듯했다.

폭도들은 잭슨군의 시온에서 성도들을 몰아냈다. 내부의 반대자들은 커틀랜드의 교회를 분열시켰고, 그 결과 성전마저 채권자들의 손에 넘어가고 말았다. 그리고 지금, 이웃들과 참혹한 전쟁을 치른 성도들은 거할 집도 없이 미주리강 동편의 제방을 따라 흩어져 낙심해 있었다.

조셉은 미주리 주민들만 가만있었더라면 미주리는 아무 문제 없이 평화롭고 조용했으리라고 생각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량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보금자리에서 끌려 나와 구타당하고 죽음으로 내몰릴 만한 이유는 어디에도 없었다.⁵

조셉은 이런 부당함에 화가 치밀었다. 구약전서에서 주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협에서 구해 주시고, 당신의 팔을 휘둘러 그들의 적을 완파하셨다. 그러나 성도들이 몰살될 위기에 처한 지금, 그분은 손을 놓고 계셨다.

어째서일까?

성도들을 보금자리에서 몰아내고, 그들의 땅을 수탈하고, 입에 담을 수도 없는 폭력을 저지른 이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자유를 만끽하는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왜 그토록 많은 무고한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들이 고통받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충실한 종들이 사랑하는 이들과 멀리 떨어져 지옥과 같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그분은 잠자코 계시는 것일까? 대체 어떤 목적이 있으시기에 성도들이 그분을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그들을 버리셨단 말인가?

“오 하나님이지여, 당신은 어디 계시나이까?” 조셉은 울부짖었다. “어느 때까지 당신의 손이 멈추어 계시[렵니까?]”

조셉이 주님을 부르며 씨름하는 동안, 퀸시의 사도들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에 주님은 사도들에게 1839년 4월 26일에 파웨스트의 성전 부지에 집합하도록 그들에게 명하신 적이 있었다. 그들은 그곳에서 계속 성전의 기초를 놓은 뒤 영국으로 또 한 번의 선교 사업을 떠나야만 했다. 정해진 날짜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자, 브리검 영은 사도들이 파웨스트로 돌아가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퀸시에 있던 여러 교회 지도자들은 더는 그 계시를 따를 필요가 없다고 믿었다. 그들은 폭도들이 성도들을 죽이겠다고 공언했던 장소로 돌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일리노이에서 자신들을 몹시 필요로 하는 이 시점에, 목숨을 걸고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적의 영토까지 들어갔다 오는 것을 주님이 바라실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⁷

게다가 십이사도 정원회의 상황도 불안했다. 토머스 마쉬와 올슨 하이드는 배도했고, 팔리 프랫은 감옥에 갇혔으며, 히버 김볼과 존 페이지는 아직 미주리에 있었다. 또, 가장 최근에 부름받은 사도인 월포드 우드럽과 윌라드 리차즈, 그리고 조셉의 사촌인 조지 에이 스미스는 아직 성임을 받지 못한 상태였고, 윌라드는 영국에서 선교 사업 중이었다.⁸

그러나 브리검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들이 파웨스트에서 만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으며,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퀸시의 사도들도 자신과 한마음이 되어 이 결정을 따라 주기를 바랐다. 그들은 교회의 미래가 불확실한 그 시점에 가족을 남겨 두고 파웨스트로 떠나야 했다. 만일 사도들이 체포되거나 살해되면,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은 다가올 고난을 스스로 감당해야 할 것이었다.

그러나 이 일의 엄중함을 아는 올슨 프랫과 존 테일러, 월포드 우드럽, 조지 에이 스미스는 주님의 명을 따르는 데 필요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기로 뜻을 모았다.

브리검은 결정이 내려진 후 이렇게 말했다. “주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순종하고 나머지는 그분의 손에 맡기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⁹

한편, 리버티 감옥에 갇힌 조셉은 성도들에 대한 우려와 그들이 겪는 부당한 처사를 생각하며 괴로워하고 있었다. 3월 19일 저녁에 그는 에머와 동생 돈 카를로스, 그리고 파트리지 감독이 보낸 편지를 받았다.¹⁰ 이 편지들을 읽고 조셉과 다른 지도자들은 약

간 힘을 얻었지만, 그래도 조셉은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져 어려움을 겪는데도 자신은 지저분한 감옥에 갇혀만 있다는 사실이 내 마음에 걸렸다.

편지가 도착한 다음 날, 조셉은 성도들 앞으로 보내는 두 통의 서한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 서한에서 그 어느 때보다 허심탄회하게 마음속의 생각을 털어놓았다. 그가 구술하는 말은 서기 역할을 했던 동료가 받아 적었다. 절망한 성도들을 북돋고자 했던 선지자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확언했다.

“이 모든 사악하고 잔인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유는 오직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 되고 우리 마음이 사랑으로 인봉되게 하기 위함입니다.”¹¹

그러나 그는 성도들이 박해받으며 사지로 내몰렸던 그 몇 달의 시간을 그대로 덮어 둘 수 없었다. 조셉은 보그스 주지사와 민병대를 비롯해 성도들을 해친 이들을 규탄했다. 그는 울분을 토하며 주님께 기도했다. “당신의 분노가 우리의 원수를 향하여 불붙게 하시고 또 당신 마음의 맹렬한 분노 가운데 당신의 검으로 우리가 당하는 부당한 처사에 대하여 우리의 원수를 갚아 주시옵소서.”¹²

조셉은 그들의 적이 비단 성도들에게 잘못을 저지른 이들만을 뜻하는 것은 아님을 알았다. 교회의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성도들 중에는 자신의 죄를 덮고, 자신의 자존심과 야망을 채우며, 다른 사람들을 복종시키려 무력을 동원하는 이들이 있었다. 그들은 성도들 사이에서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그릇되게 사용했다.

조셉은 영감을 받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슬픈 경험을 통하여 배웠나니 곧 거의 모든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조그마한 권세를 가지자마자, 즉시 불의한 지배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려는 천성과 기질이 있다.”¹³

의로운 성도라면 더 높은 원리에 따라 행동해야 했다. 주님은 말씀하셨다. “신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권능이나 영향력도 유지될 수 없고 또 되어서도 아니 되며, 다만 설득으로, 오래 참음으로, 온화함과 온유함으로, 그리고 거짓 없는 사랑으로 [그렇게 되어야 하느니라.]” 이와 같이 하지 않으려 했던 이들은 신권으로 다른 사람의 삶을 축복하는 데 필요한 영과 권세를 잃게 되었다.¹⁴

조셉은 계속해 무고한 성도들을 대신해 읍소했다. “오 주여, 어느 때까지 그들이 이러한 부당한 처사와 불법적인 억압을 당해야 당신의 마음이 그들에게 부드러워지시[겠나이까?]”¹⁵

주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다. “내 아들이, 네 영혼에 평강이 있을지이다. 네 역경과 네 고난은 잠시 뿐이리니, 그리고 나서 만일 네가 이를 잘 견디어내면, 하나님이 너를 높이 들어 올리실 것이요, 너는 너의 모든 원수를 이기리라.”¹⁶

주님은 조셉을 잊지 않으셨다고 확인해 주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지옥의 바로 그 턱이 입을 크게 벌려 너를 삼키려 할지라도, 내 아들이, 이 모든 일이 네게 경험이 되고 네 유익이 될 줄 알라.”

구주께서는 조셉에게 성도들의 고통이 아무리 크더라도 당신이 겪으신 고통보다는 크지 않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다. 주님은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고통을 끝낼 수 있으셨다. 하지만 그분은 그렇게 하시는 대신 속죄 희생의 일부로서 그들의 슬픔을 함께 짊어지고 그들과 함께 고난을 겪는 편을 택하셨다. 그분은 그 고통을 겪음으로써 자비로워지셨고, 고난 속에서 그분

게 의지하는 모든 이를 구하고 단련할 권능을 얻으셨다. 주님은 조셉에게 인내하라고 이르시며, 절대 그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 하셨다.

“너의 날은 알려져 있고 너의 해는 더 짧게 헤아림을 받지 아니할 것인즉, 그러므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영원무궁토록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¹⁷

그렇게 주님께서 옥중에 있는 조셉에게 평안을 말씀하시는 동안, 히버 김볼과 미주리의 성도들은 선지자가 풀려날 수 있도록 미주리주 대법원을 찾아가 계속해서 탄원을 올렸다. 히버의 간청에 판사들은 동정심을 보였고, 일부 판사들은 조셉이 수감된 것이 법적으로 과연 타당한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사안에 대해 조치를 취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¹⁸

낙담한 히버는 조셉에게 이 일을 보고하기 위해 리버티로 돌아갔다. 그러나 보초들이 그를 지하 감옥으로 들여보내 주지 않았으므로, 히버는 하는 수 없이 감옥의 창밖에 서서 안에 갇힌 동료들을 향해 크게 소리를 질렀다. 그는 자신이 최선을 다했지만 아무런 결실도 얻지 못했다고 소리쳤다.

조셉이 안에서 히버의 말을 받았다. “담대하십시오. 가능한 한 빨리 모든 성도들을 멀리 데려가십시오!”¹⁹

며칠 뒤, 히버는 아직도 곳곳에 도사리는 위험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조심스럽게 파웨스트로 들어갔다. 소수의 지도자와 몇몇 가족을 제외하고는 도시는 텅 비어 있었다. 히버의 가족은 두 달 전에 이곳을 떠났으며, 그 후 그는 그들에게서 아무 소식도 듣

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가족과 옥중에 갇힌 지도자들, 그리고 폭도의 손에 고통받고 죽어 간 이들을 생각하며 절망감과 외로움을 느꼈다. 그는 조셉과 마찬가지로 어서 이 고통이 끝나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교회가 처한 비극적인 상황과 조셉을 감옥에서 구해 내지 못한 일을 되짚어 보던 히버의 가슴에 주님의 사랑과 감사함이 가득 차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종이 한 장을 무릎에 올려놓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영감을 기록했다.

히버는 다음과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끝이 올지라도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음을 기억할지이다. 내 영은 그대의 마음속에서 왕국의 평화로운 것들을 그대에게 가르치리라.”

주님은 히버에게 가족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이르시며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다. “내가 그들을 먹이고 입히며 그들에게 베틀을 보내 주리라. 만일 그대가 충실하여 앞으로 나아가며 지상의 나라들에 나의 복음을 가르친다면, 그들에게 영원히 평화가 임할지이다.”²⁰

기록을 마쳤을 때 히버의 마음이 평온해졌다.

조셉은 어둡고 참혹한 지하 감옥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은 후로 자신과 교회가 주님께 버림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 그는 에드워드 파트리지와 성도들 앞으로 보내는 편지에서 후기의 사업에 대해 담대하게 간증했다. “지옥이 베수비오산의 들끓는 용암처럼 분노를 토해 내더라도 몰몬이즘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는 확고했다.

“진리는 물론이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창시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수호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때가 찬 시대의 서막을 여시며 그분의 복음의 경륜의 시대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²¹

조셉은 성도들에게 미주리에서 겪은 부당한 처사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을 모아서 미국의 대통령과 여러 관료들 앞으로 보내 검토를 요청하도록 촉구했다. 그는 성도들이 잃은 것에 대해 법적으로 보상받을 길을 찾는 것은 성도들의 의무라고 믿으며 이렇게 권고했다.

“우리의 능력 안에 놓여 있는 모든 일을 기쁘게 행[합시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최대한의 확신을 가지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며, 그의 팔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기를 바[랍시다.]”²²

서한을 보내고 며칠이 지난 후, 조셉과 옥중의 지도자들은 께러틴에서 열릴 대배심에 참석하기 위해 리버티 감옥을 나섰다. 조셉은 떠나기 전에 어머니에게 편지를 적었다. “우리 프레드릭과 조셉, 줄리아, 알렉산더가 보고 싶소. 아버지가 더할 나위 없이 사랑한다고 전해 주오. 폭도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그들에게 가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고 말시오.”²³

포로들이 께러틴에 도착했을 때, 방에 있던 일부 변호사들은 술을 마시고 있었고, 바깥에서는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서성이며 할 일 없이 창문 안을 기웃거렸다. 판사석에 앉은 사람은 11월에 열렸던 심리에서 성도들과 맞섰던 변호사였다.²⁴

조셉과 지도자들은 데이비스군에서 열릴 심리가 공정하게 진행되지 못하리라고 확신했다. 이에 그들은 재판 장소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행히 이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교회의 지도자

들은 곧 보안관 한 명과 새로운 보초 네 명과 함께 다른 군의 법정으로 출발했다.²⁵

그곳으로 이동하는 동안 이 새로운 보초들은 그들을 너그럽고 인간적으로 대했다.²⁶ 조셉은 캘러턴에서 열린 친선 레슬링 대회에서 가장 강한 출전자를 쓰러트린 일로 그들의 존경을 받았다.²⁷ 성도들에 대한 여론도 달라지고 있었다. 미주리의 일부 주민들은 주지사의 근절령을 점점 불편하게 여기며 이대로 모든 상황을 종료하고 포로들을 풀어 주기를 바랐다.²⁸

데이비스군을 떠난 이튿날에 조셉과 지도자들은 중간 기착지에 들러 보초들에게 위스키를 샀다. 그날 밤, 보안관은 조셉과 지도자들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 “난 기분 좋게 술이나 한잔하고 자려고 하오. 당신들은 당신들 원하는 대로 하시오.”

보안관과 세 명의 보초들이 술에 취하자, 조셉과 지도자들은 남은 보초 한 명의 도움을 받아 말 두 마리를 나눠 타고 동쪽을 향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²⁹

이틀 뒤, 조셉 일행이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는 동안, 다섯 명의 사도들은 미시시피강을 건너 파웨스트를 향해 반대편으로 길을 나섰다. 브리검 영은 윌포드 우드럽, 올슨 프랫과 같이 한 마차에 타고, 존 테일러와 조지 에이 스미스, 그리고 성전의 숙련공으로 일했던 알페우스 키틀러가 다른 마차에 함께 탔다.

그들은 약속된 날짜에 파웨스트에 도착하기 위해 서둘러 평원을 건넜다. 도중에 그들은 사도 존 페이지와 마주쳤다. 그는 가족을 데리고 미주리에서 나와 동쪽으로 가던 중이었다. 그들은 존에게 자신들과 함께 가자고 설득했다.³⁰

사도들은 일주일을 달린 끝에 달이 비치는 4월 25일 밤에 파웨스트에 도착했다. 황폐한 거리는 잡초가 무성했고, 온통 쥐 죽은 듯 조용했다. 조셉의 탈출 소식을 들은 뒤 파웨스트로 먼저 와 있던 히버 김볼이 은신처에서 나와 사도들을 맞이했다.

이들은 몇 시간 동안 함께 있다가 동쪽 지평선에서 햇살이 퍼지자 조용히 마을 광장으로 나갔다. 그들은 아직 도시에 남아 있는 몇몇 성도들과 함께 걸어서 성전 부지로 갔다. 그들은 거기서 찬송가를 불렀다. 알페우스는 성전의 기초를 놓으라는 주님의 명령을 이행하는 의미로 커다란 바위를 굴러 부지의 남동쪽 모퉁이에 가져다 놓았다.³¹

월포드가 그 바위 위에 앉자, 사도들은 그를 가운데 두고 둥글게 섰다. 그들은 다 함께 월포드의 머리에 손을 얹었고, 브리검은 그를 사도로 성임했다. 월포드가 성임되자 다음으로 조지가 그 자리에 앉아서 사도로 성임받았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아침 햇살을 받으며 고개를 숙이고 서로 돌아가며 기도를 올렸다. 그리고 기도를 마친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어 다툼으로 파괴된 미주리 평원과 온 세상에 시온의 평화가 퍼지게 될 날을 고대하는 찬송가 “Adam-ondi-Ahman(아담-온다이-아만)”을 불렀다.

그런 뒤 알페우스는 본래 있던 자리로 바위를 되돌려 놓았다. 그들은 이제 성도들이 시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준비해 주실 때까지 이 기초를 주님께 맡기기로 했다.³²

이튿날, 사도들은 미주리를 떠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마지막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 말을 타고 50여 킬로미터를 달려갔다. 그들은 이제 곧 영국으로 떠날 것이었지만, 우선은 일리노이에서

사랑하는 이들의 얼굴을 다시 보고, 어느 곳이 됐든 그들이 새로운 집합 장소에 정착하도록 돕고 싶었다.³³

그 무렵, 퀴시에 도착한 한 여객선에서 남루한 차림의 승객 몇 명이 물에 내렸다. 그중 창백하고 야윈 모습의 한 남자는 챙 넓은 모자와 파란 겹옷 차림에 수염이 덩수룩한 얼굴을 옷깃으로 가리고 있었다. 그는 밑단을 낡은 장화에 말아 넣은 다 해진 바지를 입고 있었다.³⁴

파웨스트에서 보안관으로 일한 적이 있는 디믹 헌팅턴은 추레한 모습의 낯선 사람이 강둑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얼굴과 행동거지가 어딘가 낯이 익어 디믹은 그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디믹은 그를 더 가까이에서 보고서야 비로소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조셉 형제님? 맞죠?” 디믹이 소리쳤다.

조셉은 손을 들어 올려 디믹을 진정시켰다. “쉿!” 조셉이 바짝 긴장한 소리로 말했다. “제 가족은 어디에 있습니까?”³⁵

조셉 일행은 탈출 후 잠시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도망쳤다. 그들은 미시시피강을 향해, 그리고 미주리주 당국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먼 곳의 자유를 향해 미주리에서도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뒷길만을 이용해서 움직였다.³⁶

선지자를 본 디믹은 여전히 놀라움이 가시지 않는 얼굴로 에머와 아이들은 퀴시에서 6킬로미터가량 떨어진 곳에서 지내고 있다고 대답했다.

조셉은 “최대한 빨리 저를 제 가족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십시오.”라고 부탁했다.

디믹과 조셉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뒷길을 따라 도시를 빠져나간 뒤 클리블랜드의 집으로 향했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조셉은 말에서 내려 집을 향해 걸어갔다.

마침 문간에 나와 있던 에머가 단번에 남편을 알아보았다. 그녀는 그대로 달려나가 남편의 품에 안겼다.³⁷

제4부



때가 찬 시대

1839년 4월~1846년 2월

이 집이 나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되게 하여
내가 그 안에서 나의 백성에게 나의 의식을
드러낼 수 있게 할지어다.

이는 창세 이전부터 감추어져 온 것들,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관한 것들을
내가 나의 교회에 드러내려고
생각하고 있음이니라.

교리와 성약 124:40~41

1839~1846



아이오와준주

미시시피강

미시시피강

• 딕슨



태평양 선교부
(1843년)

타히티

투부아이

태평양

몬트로즈 •

• 나부



라무스

• 카테지

• 와르소



퀸시 •



일리노이



스프링필드 •

미주리

일리노이강

미시시피강





도시를 세우라

1839년 4월 하순, 성도들과 재회하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조셉은 교회 지도자들이 사고 싶어 했던 커머스와 그 주변 땅을 살펴보기 위해 북쪽으로 말을 몰았다. 커머스는 퀸시에서 80킬로미터가량 떨어진 마을이다. 선지자는 반년 만에 처음으로 무장한 보초의 감시나 자신을 해하려는 사람들의 위협 없이 먼 길을 가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성도들이 환영받고 자신들의 믿음이 존중받는 듯한 환경에서 동료들과 함께하고 있었다.

조셉은 수감 시절에 커머스 주변의 땅을 팔려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로 그곳에 교회를 정착시키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었다. 조셉은 편지에 이렇게 적었다. “그 땅을 사겠다는 사람이 딱히 있는 게 아니라면, 우리가 그 땅을 사겠습니다.”¹

그러나 파웨스트에서 전해 가을을 보낸 많은 성도들은 오로지 한 장소에만 집합하는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다. 에드워드

파트리지도 갈등을 피하고 궁핍한 성도들을 돌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국 각지에 흩어져서 소규모 공동체를 이루고 생활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기도 했다.² 그러나 주님은 성도들에게 집합하라는 명을 철회하신 적이 없었으며, 조셉은 그 점을 잘 알고 있었다.

커머스에 들어서자, 강물이 범람하여 형성된 습지가 눈에 들어왔다. 나무가 우거진 완만한 언덕 너머로는 굽이쳐 흐르는 미시시피강이 내려다보였다. 드문드문 자리 잡은 집들도 보였다. 강 건너 아이오와 준주의 몬트로즈라는 마을 인근에는 교회가 매입할 수 있는 땅이 더 있었는데, 그곳에는 군대가 버리고 간 막사도 몇 채 남아 있었다.

조셉은 이 지역에서 성도들이 시온의 스테이크를 세우고 번영할 수 있으리라고 믿었다. 커머스는 여태껏 본 땅 중에 제일 좋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커머스를 끼고 흐르는 미시시피강은 대서양에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외국의 성도들이 집합하고 상업 활동을 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어 보였다. 게다가 이 지역은 아직까지 정착민도 많지 않았다.

그러나 이곳으로 성도들을 집합시키는 것은 여전히 위험성이 따르는 일이었다. 만일 조셉이 소망하는 대로 교회가 성장한다면, 미주리 주민들이 그랬듯이 이곳의 인근 주민들도 성도들을 경계하고 등을 돌릴지도 몰랐다.

조셉은 기도했다. “주여,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주님은 대답하셨다. “도시를 세우고 내 성도들을 이곳으로 부르라.”³

그해 봄에 월포드와 피비 우드럽은 몬트로즈의 막사로 거처를 옮겼다. 그 근처로 이주한 사람들 중에는 브리검과 메리 앤 영, 올슨과 세라 프렛도 있었다. 이 세 명의 사도들은 가족들이 자리를 잡으면 정원회의 다른 일원들과 함께 영국으로 선교 사업을 떠날 계획이었다.⁴

얼마 후, 수천 명의 성도가 이 새로운 집합 장소로 왔다. 그들은 천막이나 마차에서 생활하며 집을 짓고, 음식과 의복을 마련하고, 강 양편으로 농지를 개간했다.⁵

새로운 정착촌이 성장해 가는 동안 조셉은 십이사도와 자주 만나 새로운 활력으로 그들을 가르치며 그들이 선교 사업을 떠날 수 있도록 준비시켰다.⁶ 조셉은 하나님께서는 십이사도에게 밝히지 않으실 것은 선지자에게도 밝히지 않으신다고 가르치며, 이렇게 말했다. “아무리 미약한 성도라 하더라도 속히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⁷

그는 십이사도에게 복음의 첫째 되는 원리와 부활 및 심판, 시온 건설에 대해 가르쳤다. 또한, 과거에 교회를 배반했던 사도들을 상기시키며 충실할 것을 촉구했다. “절대 하늘을 배반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말며, 여러분의 형제를 배반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시를 배반하지 마십시오.”⁸

그 무렵, 올슨 하이드가 십이사도 정원회로 돌아오고 싶다는 뜻을 전해 왔다. 그는 자신이 미주리에서 조셉을 비난하고 성도들을 등진 일을 부끄러워하고 있었다. 시드니 리그돈은 어려운 상황이 또 닥치면 올슨이 다시 자신들을 배신할 것을 걱정하여 그에게 사도직을 회복시켜 주는 것에 다소 회의적인 마음이었지만, 조셉은 그를 반갑게 맞이하고 그의 십이사도 직분도 회복해

주었다.⁹ 7월에는 미주리 감옥에서 탈출한 팔리 프렛이 다시 사도들과 합류했다.¹⁰

그 무렵, 습지에서 올라온 모기 떼의 공격으로 새로운 정착민들 사이에 말라리아가 창궐했다. 많은 성도들이 고열과 오한을 호소하며 몸져누웠다. 대부분의 십이사도들도 도저히 영국으로 떠나지 못할 만큼 병세가 위중해졌다.¹¹

7월 22일 월요일 아침, 집 안에 있던 월포드의 귀에 밖에서 자신을 부르는 조셉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우드럽 형제님, 저와 함께 가시죠.”

월포드가 밖으로 나와 보니 조셉이 여러 명의 형제들과 함께 서 있었다. 조셉과 여러 형제들은 오전 내내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이 천막과 저 천막을 두루 다니며 병자들의 손을 잡아 주고 그들을 치유했다. 그들은 커머스의 성도들을 축복하고 난 뒤 배로 강을 건너가서 몬트로즈의 성도들에게도 병 고침의 축복을 주었다.¹²

월포드는 이들 일행과 함께 걸어서 마을 광장을 지나 자신의 친구인 일라이자 포담의 집까지 갔다. 일라이자는 눈이 퀘하고 온 몸이 창백했다. 그의 아내 애나는 남편의 수의를 준비하며 흐느껴 울었다.¹³

일라이자에게 다가간 조셉은 그의 손을 잡고 이렇게 물었다. “포담 형제님, 병 고침을 받을 신앙이 있지 않으십니까?”

일라이자가 대답했다. “너무 늦은 게 아닐까 걱정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으십니까?”

“믿습니다, 조셉 형제님.”

“일라이자 형제여,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대에게 명하노니, 일어나 온전하게 되라.”

집 전체를 뒤흔드는 듯한 조셉의 말이 떨어지자 일라이자는 그대로 침상에서 일어났다. 그의 얼굴에는 어느덧 생기가 돌아와 있었다. 그는 곧 옷을 입고 먹을 것을 달라고 한 뒤, 조셉을 따라 밖으로 나가 다른 이들에게 성역을 베푸는 일을 도왔다.¹⁴

그날 저녁에 일라이자와 애나를 찾아간 피비 우드럽은 어안이 병병했다. 바로 몇 시간 전만 해도 애나는 남편을 거의 포기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일라이자는 뜰에 나가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자신이 건강해진 것 같다고 말하고 있지 않은가? 피비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¹⁵

병자들을 축복하고 낫게 하려는 조셉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커머스와 몬트로즈의 말라리아는 그 위세가 쉽사리 꺾이지 않았다. 곧 정착촌에는 병사하는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사망자가 늘어가자 열여덟 살의 지나 헌팅턴은 자신의 어머니도 말라리아를 이기지 못하고 숨을 거둘까 걱정이 되었다.

지나는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의지해 생활하며 매일 어머니를 보살폈지만, 얼마 못 가서 결국 그녀의 온 가족이 모두 병으로 쓰러졌다. 조셉은 이따금 그들의 안부를 확인하며 그 가족을 돕고 지나의 어머니가 더 편안할 수 있도록 자신이 도울 일이 없는지 살폈다.

어느 날, 지나의 어머니는 딸을 불러 이렇게 말했다. “난 이제 죽을 때가 되었단다. 그런데 두렵지가 않구나.” 어머니는 지나에게 부활에 대해 간증했다. “구주께서 의로운 이들과 함께 지상의 성도들을 만나러 오실 때, 나도 승리하여 나아올 거란다.”

어머니가 숨을 거두자, 지나는 가슴이 미어졌다. 이 가족의 고통을 알았던 조셉은 계속해서 그들을 보살펴 주었다.¹⁶

언젠가 집에 들른 조셉에게 지나는 이렇게 물었다. “제가 저 세상에 가면 어머니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조셉은 말했다. “물론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매님은 하늘 아버지의 아내이신 영원한 어머니도 만나고 알게 될 것입니다.”

“하늘 어머니도 계시다는 말씀인가요?” 지나의 물음에 조셉은 이렇게 대답했다.

“물론이지요. 어머니도 있어야 부모가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당신 자신을 아버지라 칭하실 수 있겠습니까?”¹⁷

월포드는 8월 초에 존 테일러와 함께 영국으로 출발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새롭게 시작되는 선교 사업에 첫 번째로 뛰어든 사도들이 되었다. 이들이 떠날 당시 피비는 둘째를 임신 중이었고, 존의 아내인 레오노라와 그들의 세 자녀는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다.¹⁸

그다음으로 떠나야 할 사도는 팔리와 올슨 프랫이었다. 올슨과 세라는 겨우 열하루 전에 딸 리디아를 잃고 아직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팔리의 아내인 메리 앤은 선교 사업을 떠나는 사도들에 합류하여 함께 여행길에 올랐다. 가장 어린 사도인 조지 에이 스미스는 아직 병이 다 낫지 않은 몸을 이끌고, 약혼녀인 벤티바 바이글러와의 결혼도 미룬 채 선교 임지로 향했다.¹⁹

9월 중순, 메리 앤 영은 남편 브리검과 작별 인사를 나눴다. 브리검은 다시 몸 상태가 나빠졌지만, 자신에게 지워진 일을 해내겠다는 결의만큼은 굳건했다. 메리 앤은 본인 건강도 좋지 않고

남편이 없는 동안 다섯 아이를 부양할 돈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도 남편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기만을 바랐다.

메리 앤은 이렇게 말했다. “가서 당신이 맡은 사명을 모두
이루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실 거예요. 저도 저와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게요.”²⁰

브리검이 떠나고 며칠 뒤, 메리 앤은 남편이 겨우 미시시피
강 건너편에 있는 김볼의 집까지밖에 가지 못했고, 거기에서 결국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메리 앤은 브리검이 떠날 수 있을 만
큼 기운을 차릴 때까지 간호하기 위해 그 길로 강을 건넜다.²¹

김볼의 집에 가서 보니, 김볼의 아내 빌리트와 두 아들은 병
상에 누워 있고, 네 살배기 아들만 혼자 우물에서 무거운 통으로
물을 길어 나르고 있었다. 히버 역시 일어설 수도 없을 만큼 몸
상태가 말이 아니었지만, 그의 마음은 오직 이튿날 브리검과 함
께 선교 사업을 떠나겠다는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메리 앤은 다음 날 아침에 짐마차가 도착할 때까지 브리검
을 간호했다. 자리에서 일어나 길을 나서는 히버의 얼굴은 몹시
고통스러워 보였다. 그는 침상에 누워 고열로 몸을 떨고 있는 빌
리트를 안아 준 뒤 자녀들과 인사를 나누고는 비틀거리는 몸으로
마차에 올랐다.

병색이 완전한 브리검은 몸이 다 나은 후에 떠나라고 붙잡
는 아내 메리 앤과 누나 패니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며 애써 아무
렇지도 않은 듯 말했다.

“이렇게 기운이 넘쳐 본 적이 없어요.”

그러자 패니가 말했다. “거짓말!”

브리검은 힘겹게 마차에 올라 히버 옆에 앉았다. 마차가 언
덕을 내려가는 동안, 아픈 가족을 남겨 두고 떠나는 히버의 가슴

은 찢어지는 듯했다. 그는 마부에게 마차를 세워 달라고 부탁한 뒤 브리검에게 이렇게 말했다. “마음이 정말 힘드네요. 함께 일어서서 가족들에게 용기를 주면 어떻겠습니까?”

집 안에 누워 있던 빌리트는 밖에서 나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놀라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메리 앤과 패니는 문간에 선 채 멀지 않은 거리에서 일어나는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빌리트도 휘청휘청 걸어와 그들과 함께 섰고, 이내 모처럼 환하게 웃었다.

저쪽에서 브리검과 히버가 짐마차 뒤쪽에서 서로에게 기대어 선 채 이렇게 외치고 있었다. “만세! 만세!” 두 사람은 모자를 들어 흔들며 소리쳤다. “이스라엘 만세!”

집에 남은 여성들도 함께 소리쳤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거예요!”²²

사도들이 영국으로 떠날 무렵, 일리노이와 아이오와의 성도들은 조셉이 감옥에서 지시한 대로 그들이 미주리에서 당한 가혹한 처사들을 상세하게 기록했다. 가을이 되자, 교회 지도자들은 수백 건의 진술을 확보하여 공식적인 청원 준비에 돌입했다. 성도들이 집과 땅, 가축 등 그들이 잃은 재산에 대한 보상으로 요구한 금액은 총 2백만 달러가 넘었다. 조셉은 자신들의 주장을 직접 미국의 대통령과 국회에 전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조셉은 마틴 밴 뷰런 대통령이 시민의 권리를 옹호할 고매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대통령을 비롯해 워싱턴 디시의 국회의원들이 성도들의 고통에 관한 기록을 읽고 성도들이 미주리에서 잃은 땅과 재산을 보상하는 데 동의해 주기를 바랐다.²³

일리노이의 집에서 장장 1,600여 킬로미터를 달려간 조셉은 1839년 11월 29일, 워싱턴에 있는 대통령 저택의 정문에 도착했다. 조셉은 자신의 친구이자 법률 자문가인 일라이어스 히그비와 일리노이주의 하원 의원인 존 레이놀즈를 대동했다.²⁴

정문에 있던 문지기는 이들을 맞이하여 저택 안으로 안내했다. 조셉과 일라이어스는 최근에 새롭게 단장한 대통령 저택 내부의 우아한 방들을 보면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대통령 저택의 방들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서부 성도들의 거처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안내인은 대통령이 방문객과 접견 중인 2층 응접실로 그들을 안내했다. 조셉은 청원서와 여러 장의 소개서를 손에 들고 문 밖에서 차례를 기다리면서, 레이놀즈 하원 의원에게 자신을 “후기 성도”라고만 소개해 달라고 부탁했다. 레이놀즈는 짐짓 놀라워하며 조셉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대답했다. 레이놀즈는 성도들을 돕는 일에 적극적인 인사는 아니었지만, 성도들의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들이 일리노이의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²⁵

본래 조셉은 이렇게 소규모 대표단으로 대통령을 만날 생각이 아니었다. 10월에 일리노이를 떠날 때만 해도 시드니 리그돈에게 이 만남을 주도하게 하려는 계획이었으나 안타깝게도 시드니는 건강 문제로 중간에 여행을 포기해야 했다.²⁶

마침내 대통령이 있는 응접실 문이 열리자, 세 사람은 안으로 들어갔다. 마틴 벤 뷰런 대통령은 조셉과 마찬가지로 뉴욕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었으나 나이는 조셉보다 한참 위였다. 그는 팽팔막한 체구에 안색이 밝았으며, 얼굴의 위쪽과 측면은 하얗고 부스스한 머리칼로 덮여 있었다.

레이놀즈 하원 의원은 약속대로 조셉을 후기 성도라고만 소개했다. 대통령은 특이한 명칭을 듣고 미소를 띠며 선지자와 악수를 나눴다.²⁷

대통령과 인사를 한 조셉은 소개장을 건넨 뒤 조용히 기다렸다. 소개장을 읽던 벤 뷰런은 곧 눈살을 찌푸리며 이렇게 말했다. “도와 달라는 말씀입니까?” 경멸이 드러나는 말투였다.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있겠습니까?”²⁸

조셉은 할 말을 잃었다.²⁹ 그는 대통령이 이렇게 즉각 자신의 요청을 일축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었다. 그와 일라이어스는 청원을 거절하기 전에 성도들이 당한 고통에 대한 부분이라도 한 번 읽어 봐 달라며 대통령에게 간청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해 줄 수 있는 일은 없는 것 같군요. 제가 여러분 편에 선다면 저는 미주리주 전체와 맞서게 될 테고, 그러면 다음 선거에서 미주리주 전체가 저에게 등을 돌리지 않겠습니까?”³⁰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저택을 나온 조셉과 일라이어스는 이번에는 국회를 찾아가 청원서를 제출했다. 국회의원들이 실제로 청원서를 검토하고 논의하기까지는 몇 주가 소요될 것이었다.³¹

조셉은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동부에 있는 교회의 지부들을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워싱턴 안팎의 마을과 도시에서 설교를 할 생각이었다.³²

1840년 1월 11일, 윌포드 우드럽과 존 테일러가 영국 리버풀에 도착했다. 윌포드는 영국이 처음이었지만, 존은 사실상 가족과 친구들에게 돌아간 셈이었다. 두 사람은 짐을 찾은 후 존의 매부

인 조지 캐년의 집으로 갔다. 조지와 그의 아내 앤은 자신들의 집을 찾은 이들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들은 두 사람에게 안으로 들어와 함께 저녁을 들자고 청했다.

캐년 부부는 다섯 자녀를 키우고 있었다. 그중 맏이는 총명하고 책을 좋아하는 열세 살 소년으로, 이름은 조지였다. 윌포드와 존은 저녁을 먹은 뒤 캐년 가족에게 물문경과 *A Voice of Warning*[경고의 음성]이라는 소책자를 건넸다. 경고의 음성은 몇 해 전에 팔리 프랫이 뉴욕시에서 출판한 전도용 책자였다. 존은 누이의 가족에게 복음의 첫째 되는 원리를 가르친 후 그 책들을 읽어 보도록 권했다.³³

캐년 가족은 윌포드와 존이 프레스턴행 기차를 타고 조셉 필딩과 윌라드 리차즈를 만나러 가는 동안 두 사람의 짐을 맡아 주기로 했다.³⁴ 조셉과 윌라드는 모두 히버 김볼과 올슨 하이드가 일 년 전에 선교 사업을 떠난 후로 영국 성도들과 결혼해서 살고 있었다. 윌라드는 히버의 예언대로 제네타 리차즈라는 여성과 결혼했다.

존은 프레스턴에서 조셉 필딩과 윌라드를 만난 뒤 리버풀로 돌아왔고, 윌포드는 남동쪽에 있는 산업 지역인 스태퍼드셔로 가서 곧 지부를 세웠다. 어느 날 저녁, 윌포드는 그곳의 성도들과 모인 자리에서 자신에게 임하는 영을 느꼈다. “너는 이 모임을 마지막으로 앞으로 여러 날 동안 이 사람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니라.” 주님의 말씀이었다.

윌포드로서는 뜻밖의 메시지였다. 그는 이제 막 스태퍼드셔에서 선교 사업을 시작한 데다 그에게 가르침을 들으려는 많은 이들과 약속도 잡혀 있는 상태였다. 그는 이튿날 더 구체적인 지시를 구하며 기도했다. 그러자 영은 그에게 더 남쪽으로 내려가라고

지시하며, 그곳에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윌포드는 다음 날 스탠퍼드셔의 성도인 윌리엄 벤보우와 함께 남쪽에 있는 존과 제인 벤보우의 농장으로 갔다. 존과 제인 벤보우는 윌리엄의 형과 형수였다.³⁵ 존과 제인은 널찍한 하얀 벽돌 집에 살았으며, 370평 규모의 번창하는 농장을 소유했다. 이 집에 도착한 윌포드와 윌리엄은 벤보우 가족과 함께 새벽 두 시까지 회복에 대해 이야기했다.

벤보우 부부는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있었다. 최근에 그들은 다른 이들과 뜻을 같이하여 과거에 다니던 교회를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찾고 있었다. 자칭 형제 연합회[United Brethren]라고 하는 이 무리는 벤보우 농장에서 남쪽으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갯필드 엘름과 그 외 장소에 예배당을 짓고, 자신들 가운데에서 목사를 선택하여 하나님께 더 많은 빛을 구하고 있었던 것이다.³⁶

존과 제인은 그날 저녁에 윌포드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마침내 그들이 복음의 충만함을 찾았음을 믿게 되었다. 이튿날, 윌포드는 벤보우의 집에 모인 수많은 이웃에게 설교를 하고, 얼마 뒤에는 근처 연못에서 존과 제인에게 침례를 주었다.

그 후로 몇 주 동안 그는 150명 이상의 형제 연합회 일원들에게 침례를 주었는데, 그중에는 무보수로 성직 일을 하던 사람도 46명이나 있었다. 침례를 요청하는 사람이 늘자, 윌포드는 윌라드 리차즈에게 편지로 도움을 구했다.³⁷

“하루에 네다섯 차례나 침례 요청을 받는데 저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됩니다!”³⁸

2월 5일, 예수일곱 살의 매튜 데이비스는 그날 저녁에 워싱턴에서 몰몬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설교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매튜는 뉴욕시의 유명 신문사에서 일하는 기자였다. 그는 후기 성도에 대해 궁금해하는 자신의 아내 메리를 위해 선지자의 설교를 들어 보고 그 이야기를 아내에게 알려 주고자 했다.

설교 집회에서 매튜가 본 조셉은 소박한 차림새를 한 농부로, 체격이 다부지고 얼굴은 준수하며 태도에는 위엄이 있었다. 그의 설교에는 그가 정식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지만, 매튜는 조셉이 심지가 굳고 박식한 사람임을 알 수 있었다. 선지자는 진솔해 보였으며, 그의 목소리에는 경박함이나 광신적인 면모가 전혀 없었다.

조셉은 “지금부터 시간이 허락하는 만큼 여러분에게 우리가 믿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말로 설교를 시작했다. 그는 하나님과 그분의 속성에 대해 간증하며 이렇게 선포했다. “그분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그분은 인간의 타락을 예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더없이 자비로우신 그분은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의 계획도 미리 정해 두셨습니다.”

그런 후 조셉은 이렇게 말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습니다. 또한, 그분이 아담 안에서 타락한 모든 인간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음을 믿습니다.” 조셉은 모든 사람이 순수하고 깨끗하게 태어났으며, 어려서 죽은 아이들은 선과 악을 구분할 줄 모르므로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천국에 가게 된다고 가르쳤다.

매튜는 조셉의 설교에 감명을 받았다. 조셉은 하나님이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존재이며, 모든 남성과 여성의 영혼도 그러하다고 가르쳤다. 매튜는 선지자가 다음 생에서 받게 될 보상과

별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으며, 다만 하나님의 징벌에는 시 작과 끝이 있음을 믿는다고 말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두 시간이 지난 후, 선지자는 몰몬경에 대한 간증으로 설교 를 마쳤다. 그는 그 책의 저자는 자신이 아니며, 자신은 그저 하 나님께 그 책을 받았을 뿐이라고 밝혔다.

조셉의 설교를 되짚어 보던 매튜는 그날 저녁 조셉이 전한 설교에는 사회에 해가 될 만한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달았 다. 이튿날, 매튜는 아내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 썼다. “그의 가르침은 깊이가 있었소. 그대로 따르기만 한다면,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거친 언행이 사그라지고 우리가 좀 더 합리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소.”

매튜는 선지자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생각은 없었지만, 그가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의 가르침에는 폭력 도 분노도 비난도 없었소. 그의 종교는 온유하고 겸손하며, 부드럽 게 설득하는 종교인 것 같소.”

그는 다음과 같이 편지를 마무리했다. “나는 몰몬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오.”³⁹

국회가 성도들의 청원을 검토하기를 기다리던 조셉은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는 생활에 점점 지쳐 가고 있었다. 그해 겨울에 조셉 은 에머에게 편지를 썼다. “사랑하는 에머, 당신과 아이들이 몹시 그립소. 아이들에게 내가 사랑한다고, 최대한 빨리 돌아가겠다고 전해 주오.”⁴⁰

조셉은 에머와 결혼할 때만 해도 그들의 결합은 죽음으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었다.⁴¹ 그러나 이후에 주님께서서는 조셉에게

결혼과 가족 관계가 신권의 권능을 통해 무덤 너머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밝혀 주셨다.⁴² 최근에 조셉은 팔리 프랫과 동부에 있는 교회의 지부들로 함께 방문을 다니면서, 의로운 성도들은 가족과 영원한 관계를 쌓음으로써 사랑 안에서 성장하고 증식할 수 있다는 것을 팔리에게 말해 주기도 했다. 충실한 가족은 지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먼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든지 간에 언젠가 다가올 세상에서 다시 함께하리라는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었다.⁴³

조셉은 워싱턴에서 소식을 기다리며 정치인들의 장황한 연설을 듣느라 짜김치가 되었다. 그들의 말은 오만한 언사와 헛된 약속 투성이었다. 조셉은 하이럼에게 쓴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정치인들은 아주 사소한 상황에서도 말재주를 자랑하려는 기질이 있어. 지나치게 예의를 차리며 머리를 조아리기도 하고 자신의 재담을 과시하려고 말을 꼬고 뒤집기도 하지. 정말로 중요한 일은 뒷전이고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며 겉으로만 잘 보이려고 하는 것 같아.”⁴⁴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상원 의원 중 한 명인 존 시 캘훈과의 면담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조셉은 워싱턴에 있는 것이 시간 낭비임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모두가 자유와 정의를 말했지만, 미주리 주민들이 성도들에게 저지른 일에 대해 책임을 물으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⁴⁵

선지자가 일리노이로 돌아간 뒤에도 일라이어스 히그비는 계속해서 성도들의 손실을 보상할 방법을 찾고자 노력했다. 3월에 상원에서는 성도들의 청원을 검토한 후 미주리주 대표단에게 미주리에서 그들이 했던 일들을 소명하게 했다. 그리고 의원들은 이 사안을 숙고한 끝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론지

었다. 그들은 성도들이 고통을 겪었음을 인정하면서도 국회는 주 정부의 행위를 간섭할 권한이 없다고 여겼다. 성도들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곳은 오직 미주리주 당국뿐이었던 것이다.⁴⁶

일라이어스는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조셉에게 편지를 썼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바를 다했습니다.”⁴⁷



아름다운 곳

키머스를 휩쓴 말라리아는 1940년까지도 전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에밀리 파트리지는 언니 해리엇과 함께 천막과 짐마차, 아직 덜 지어진 집들을 찾아다니며 병자들을 보살폈다. 이제 열여섯 살이 된 에밀리는 척박한 생활에 익숙해졌다. 에밀리의 가족은 초라하게나마 있었던 그들의 집에서 쫓겨나기를 반복하며 10년 가까운 세월을 보낸 끝에 오하이오에 와서야 처음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병자들을 돌보던 에밀리와 해리엇도 결국 고열과 오한으로 쓰러졌다. 딸들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은 에드워드 파트리지와 그의 아내 리디아는 강가의 버려진 창고에 작은 방을 얻어 천막에 있던 딸들을 그곳으로 옮겼다. 그런 다음, 에드워드는 그곳에서 2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땅에다 가족들이 살 집을 짓기 시작했다.

사실, 미주리에서 시련을 겪으며 건강을 잃은 에드워드 파트리시 감독은 일을 할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었다. 오래지 않아 에드워드도 몸에서 열이 나기 시작했다. 그는 약으로 몸을 추스른 후 다시 집 공사를 시작했으나 일이 주 정도 후에 또 다시 몸져누웠다. 그러나 그는 약을 더 먹고는 공사를 계속해 나갔다.

비좁고 답답한 창고 방은 에밀리와 해리엇, 그리고 마찬가지로 병상에 누워 있는 에밀리의 다른 남매들의 회복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에밀리는 1840년 봄이 지나면서 점차 열이 떨어졌지만, 해리엇은 점점 상태가 나빠졌다. 5월 중순, 해리엇은 1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¹

해리엇의 죽음은 파트리시 가족에게 크나큰 충격을 안겨 주었다. 장례를 치른 후, 에드워드는 가족들에게 더 나은 처치를 마련해 주고 싶은 마음에, 자신의 소유지에 짓고 있던, 아직 완성도 되지 않은 외양간으로 가족들을 옮기려 했다. 그러나 힘에 부친 일을 밀어붙인 끝에 그는 기력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다. 동료 성도인 윌리엄과 제인 로 부부는 이 가족을 돕기 위해 에밀리 남매들을 집으로 데려가 간호해 주었다.

에드워드는 여러 날을 고통에 시달리다 해리엇이 죽은 지 열흘쯤 후에 숨을 거뒀다. 에밀리는 언니와 아버지를 잃고 깊은 슬픔에 빠졌다. 에밀리는 언니 해리엇과 사이가 각별했다. 에밀리는 아버지가 가족과 교회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는 것을 알았다. 심지어 불평하는 성도들과 믿음 없는 반대자들, 적대적인 이웃들이 그의 영혼을 지치게 할 때도 아버지는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다.²

시간이 지나면서 에밀리는 병과 슬픔의 안개에서 벗어났지만, 이제 그녀의 삶은 전과 같을 수 없었다. 에밀리와 열아홉 살

된 그녀의 언니 엘리자는 궁핍한 가족의 생계에 힘을 보태기 위해 일자리를 구해야 했다. 엘리자는 재봉 기술 덕분에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지만, 에밀리는 특별한 재주가 없었다. 물론 접시를 닦고, 바닥을 쓸고 닦는 등 다른 집안일은 할 수 있었지만, 커머스에서 그런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은 넘쳐 났다.³

다행히 성도들은 에밀리의 아버지가 교회를 위해 큰 희생을 했다는 것을 잊지 않았다. 교회 신문인 *Times and Seasons*[타임즈 앤드 시즌즈]에는 다음과 같은 파트리지 감독의 부고가 실렸다. “파트리지 감독은 그 누구보다도 교회의 신뢰를 크게 얻었던 사람이다. 종교는 그의 전부였다. 그는 종교를 위해 일생을 보내고, 종교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⁴

성도들은 파트리지 감독을 기리고 그의 가족을 돕기 위해 그가 시작한 주택 공사를 마저 마무리했고, 에밀리의 가족은 이제 자신들만의 보급자리를 갖게 되었다.⁵

1840년 봄이 되자, 미시시피강 유역의 새로운 도시는 희망찬 시작을 알렸다. 성도들은 습지의 물을 강으로 빼고, 그 땅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가꾸기 위해 배수로와 운하를 팠다. 그들은 도로 계획을 세우고, 기초를 놓으며, 집을 짓고, 정원을 가꾸고, 밭을 갈았다. 이렇게 열심히 일한 결과, 6월 무렵에는 250채가량의 가옥이 완공되었다.⁶

조셉은 커머스에 도착할 당시 도시의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곧바로 나부라는 이름을 새로 붙였었다. 그는 제일회장단 성명서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 도시의 이름은 히브리어에서 나온 말로, 아름다운 상황 또는 장소를 뜻합니다. 또한, 이 말은

휴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⁷ 조셉은 나부가 그 이름과 같은 곳이 되기를, 성도들이 최근 몇 해 동안의 갈등에서 벗어나 이곳에서 휴식할 수 있기를 소망했다.

그러나 평화와 휴식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그는 알았다. 성도들은 오하이오와 미주리에서 겪었던 반대와 박해를 피하기 위해 서로 더욱 끈끈한 관계를 맺고 이웃과 지속적인 우정을 쌓을 필요가 있었다.⁸

이 무렵에 조셉은 윌리엄 펠프스의 편지를 받았다. 윌리엄은 교회를 버리고 미주리주 법정에서 조셉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뒤 오하이오에 살고 있었다. 윌리엄은 편지에 이렇게 적었다. “제 상황은 저도 알고 형제님도 알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친구들이 도와준다면, 저는 구원을 받고 싶습니다.”⁹

윌리엄이 잘못을 저지르긴 했으나 진실한 사람임을 알았던 조셉은 얼마 후 그에게 답장을 보냈다. “형제님의 행동으로 우리가 큰 고통을 겪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고통의 쓴잔은 비워졌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이루어졌으며, 우리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조셉은 미주리에서 겪었던 암울한 나날을 잊어버리려고 했으므로 윌리엄을 용서하고 그에게 다시 교회 일을 맡겼다.

“사랑하는 형제여, 전쟁은 끝났습니다. 처음에 친구였다면 또다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¹⁰

조셉은 하루라도 빨리 성도들에게 영적인 가르침을 더 전해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주님께서는 리버티 감옥에 있던 조셉에게 그의 날이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셨다. 조셉은 친구들에게 자신이 마흔을 넘기지 못할 것 같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하나님께 계시로 받은 것들을 더 늦기 전에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했다.¹¹

그러나 조셉은 도시를 건설하고 교회의 현세적인 일들을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짧았다. 그는 항상 교회의 사업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왔으며, 오랫동안 파트리지 감독과 같은 이들에게 의지하여 부담을 덜곤 했다. 하지만 이제 에드워드도 없으니, 조셉은 뉴얼 휘트니 감독과 나부에서 부름받은 다른 감독들에게 더욱더 의지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영적인 성역에 집중하려면 교회 행정의 현세적인 측면을 지휘하는 부분에서 아직 도움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¹²

얼마 후, 조셉은 존 쿡 베넷이라는 낯선 이의 편지를 받게 되었다. 존은 나부로 이주하여 교회의 회원이 되어 성도들을 위해 봉사하고 싶다는 뜻을 조셉에게 전했다. 의사이자 일리노이주 민병대의 고위 간부인 그는 목사와 교수로 재직할 경력도 있었다. 존은 이렇게 말했다. “당신과 함께한다면 제가 훨씬 더 행복해질 것이라 믿습니다. 빠른 답장 기다리겠습니다.”¹³

그리고 그후로 며칠 사이에 조셉은 존에게서 두 통의 편지를 더 받았다. 존은 약속했다. “저에게 의지하셔도 좋습니다. 당신의 사람들이 저의 사람들이 되고, 당신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는 날이 속히 오기를 희망합니다.” 그는 연설 솜씨와 지치지 않는 활력으로 자신이 성도들에게 매우 가치 있게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¹⁴

“당신과 함께하고 싶은 소망이 나날이 커집니다. 괜찮으시다면, 제 사업을 즉시 접고 당신이 계시는 터없이 행복한 곳으로 당장 달려가겠습니다.”¹⁵

조셉은 존의 편지를 읽은 뒤, 존처럼 유능한 사람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한다면 성도들을 복돋았다. 그런 능력이 있는 사

람이라면 일리노이주에서 교회가 확고히 서는 데 분명 도움이 될 것이었다.

조셉은 존에게 답장을 보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기 위해 이 계절이 가기 전까지 이곳으로 오시겠습니까? 저는 그 누구보다 기쁘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형제님을 맞이하겠습니다.”¹⁶

나부가 자리를 잡아가자, 조셉은 집합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얼마 전에는 영국에 간 사도들이 보낸 성도들 마흔한 명이 바다를 건너 이곳 나부로 이주해 왔다. 조셉은 앞으로 몇 달, 그리고 몇 년 동안 더 많은 성도들이 이곳으로 올 것이라 예상했다.

조셉은 그해 7월에 전한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나부는 주요 집합 장소입니다. 원하기만 한다면, 누구든 이곳에 와서 나부의 청빈을 누리게 하십시오!”

조셉은 성도들이 미주리에서 추방되고 정부에 제출한 청원이 수포로 돌아가면서 많은 이들이 시온의 미래와 집합을 불안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알았다. 조셉은 시온이란 단순히 잭슨군에서 땅 몇 평을 차지하는 것이 아닌 그 이상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그들이 이해하기를 바랐다. 그는 “성도들이 집합하는 곳이 시온입니다.”라고 선포했다.

이제 주님께서는 나부와 주변 지역에 스테이크를 세우라는 명을 성도들에게 주셨다. 시간이 가고 더 많은 성도가 시온에 집합하면, 교회는 추가로 스테이크를 조직하고, 이 땅은 주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었다.

조셉은 설교를 마치기 전에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교회가 뒷받침해 준다면, 저는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만큼 웅장한 성전을 지을 책임을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그는 손을 뻗어 언덕 높은 곳의 한 지점을 가리키며 성도들이 그곳에 성스러운 성전을 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셉은 간절한 심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살아서 그 성전이 완공되는 날을 볼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말할 것입니다. ‘오, 주님,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의 종이 평화롭게 눈감게 하소서.’”¹⁷

몇 주 뒤, 나부에 무더위가 이어지고 여전히 많은 사람이 병으로 죽어 가는 와중에 조셉의 친구인 세이머 브린슨이 세상을 떠났다.¹⁸ 장례식에 참석한 조셉은 세이머의 미망인 해리엇을 비롯해 그 자리에 있던 수천 명의 성도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 그리고 그러한 말을 하던 중에 조셉은 제인 네이먼을 보았다. 제인에게는 침례도 받기 전에 십 대의 나이로 사망한 사이러스라는 아들이 있었다.

제인이 아들 영혼의 안위를 근심하고 있음을 안 조셉은 자신의 형 앨빈처럼 침례받지 못하고 죽은 이들의 구원에 관하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성도들에게 밝히기로 결정했다.¹⁹

조셉은 성경을 펴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한 말씀을 읽어 내려갔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²⁰ 그는 바울의 이 증언은 산 자가 죽은 자를 대신하여 침례를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렇게 하면 육신은 죽었으나 영은 살아 있는 그들에게 침례의 혜택을 선사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조셉은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자 하는 모든 이를 위한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나 그분의 가르침을 알지 못하고 죽은 수많은 사람도 거기에 포함된다고 말했다.²¹

제인은 조셉이 설교를 마치기 무섭게 교회의 장로와 함께 강으로 가서 사이러스를 위해 침례를 받았다. 그날 저녁에 제인이 아들을 대신해 침례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조셉은 제인에게 침례를 준 장로가 의식에서 어떤 의식문을 사용했는지를 물었다. 장로가 했던 말을 그대로 말해 주자, 조셉은 그가 정확하게 침례를 행했음을 확인해 주었다.²²

존 베넷은 1840년 9월에 나부에 도착했다. 조셉은 나부와 교회의 법적, 정치적 사안을 관리하는 것에 관하여 그에게 적극적으로 조언을 구했다. 존은 선지자와 나이가 비슷했지만 교육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이었다. 그는 키가 작고 머리는 희끗희끗 세어 가고 있었으며 눈동자는 검고 얼굴은 가름하고 준수했다. 존은 쉽게 침례를 받아들였다.²³

루시 스미스는 병든 남편을 걱정하느라 새로 온 유명인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조셉 일세도 파트리지 감독처럼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로 미주리를 떠나왔고, 나부의 무더위에 건강은 날로 더 악화되고 있었다. 루시는 남편이 회복되기를 바랐지만, 조셉 일세는 각혈까지 했다. 그녀는 남편의 죽음이 가까웠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밀려왔다.

조셉과 하이럼은 아버지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아버지의 병상을 찾았다.²⁴

루시는 나머지 가족에게도 전갈을 보냈고, 그동안 조셉은 아버지의 곁을 지켰다. 그는 죽은 자를 위한 침례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받게 되는 축복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했다. 이야기를 듣던 조셉 일세는 더없이 기뻐하며 앨빈을 위해 침례를 집행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잠시 후, 거의 모든 자녀가 집에 모였고, 루시는 자녀들을 아버지의 병상 주변에 둘러앉게 했다. 죽음을 앞둔 조셉 일세는 아직 말할 힘이 있을 때 자녀 하나하나를 다 축복해 주고자 했다. 조셉의 차례가 되자, 조셉 일세는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를 축복했다.

“계속해서 충실하라.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가족, 그대의 후손이 축복을 받으리라. 그대는 살아서 그대의 일을 마치리라.”

조셉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버지, 정말 그렇게 될까요?”

조셉 일세는 축복사로서 선지자에게 이렇게 약속했다. “그래, 그렇단다. 넌 하나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일에 대한 계획을 다 마칠 수 있을 거야.”

조셉 일세는 모든 자녀를 축복한 뒤 루시를 바라보았다. “어머니여,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여인 중 한 명이시오.”

루시가 고개를 저었지만, 조셉 일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이어 갔다. “우리가 같은 날 죽기를 바라곤 했지만, 내가 죽을 때 당신도 죽기를 바라지는 마시오. 내가 떠나도 당신은 남아서 이 아이들을 위로해 주어야 한단오.”

잠시 말을 멈춘 후, 조셉 일세는 소리쳤다. “앨빈이 보이는구나.” 두 손을 맞잡은 조셉 일세는 숨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러다 숨이 점점 가빠지더니 이내 조용히 눈을 감았다.²⁵

조셉 일세가 죽고 몇 주가 지난 뒤, 성도들은 1840년 10월 연차 대회를 위해 나부에 모였다. 조셉은 죽은 자를 위한 침례에 관해 더 많은 가르침을 전했으며, 죽은 자의 영은 살아 있는 친척이 구원 의식을 대신 받아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²⁶

성도들은 대회의 각 모임 사이 휴식 시간에 미시시피강으로 달려갔다. 그곳에서는 강물에 허리 높이까지 몸을 담근 장로들이 죽은 조부모와 부모, 형제, 자녀들을 위해 침례를 받고자 하는 성도들을 향해 손짓을 하며 그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곧 하이럼도 형 앨빈을 위해 침례를 받았다.²⁷

강물 속에 서 있는 장로들의 모습을 보던 빌리트 김볼은 10여 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 침례를 받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녀는 히버가 영국에서 돌아와 침례를 집행해 주기를 바랐지만, 조셉은 가능한 한 빨리 죽은 자를 구속하라고 촉구했으므로 그녀는 지금 바로 어머니를 위해 침례를 받기로 했다.²⁸

에머 스미스 역시 가족들을 생각하고 있었다. 에머의 아버지 아이잭 헤일은 1839년 1월에 세상을 떠났다. 아이잭은 끝내 딸 부부와 화해하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 몇 년 전에 조셉을 비난하며 몰몬경은 “거짓과 사악함으로 만들어 낸 어리석은 위조품”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썼고, 교회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그 편지를 출판해도 된다고 허락하기까지 했다.²⁹

하지만 에머는 자신의 아버지를 사랑했다. 그녀는 그날 강에서 아버지를 위해 침례를 받았다.³⁰ 에머는 아버지가 이생에서는 회복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기를 바랐다.

그해 가을에 조셉과 존 베넷은 나부 법률 현장의 초안을 작성했다. 이 현장의 목적은 성도들에게 가능한 한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하여 그들이 자기 스스로를 다스리게 하고, 또한 미주리에서와 같은 부당한 일에 대해서는 자신들을 지키게 하려는 데 있었다. 만일 주의회가 이 현장을 승인한다면, 나부 시민들은 시를 위해 자체적으로 법을 만들어 통과시키고, 지방 법원을 운영하며, 대학을 설립하고, 민병대를 조직할 수 있었다.³¹

교회를 위한 조셉의 계획도 점점 더 확대되어 갔다. 선지자는 더 많은 성도가 집합할 것을 예상하고 나부 인근에 여러 스테이크와 새로운 정착촌들을 세웠다. 또, 조셉은 올슨 하이드와 존 페이지에게 부름을 주어 팔레스타인으로 가서 선교 사업을 시작하도록 지명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아브라함 자손들의 집합 장소로 헌납할 계획이었다. 이 두 사도는 팔레스타인에 가기 위해 유럽을 거치면서 유럽의 여러 도시에서 복음을 전파할 것이었다.³²

조셉과 제일회장단은 이렇게 선포했다. “머지않아 우리는 온 땅과 온 나라의 백성들과 모든 언어와 방언, 피부색의 사람들이 이 장소에 모여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더불어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만군의 주이신 그분을 예배할 것입니다.”³³

12월 초에 존 베넷은 일리노이주의회를 설득하여 나부 현장을 승인받았다. 즉, 성도들에게 도시 계획을 추진할 권한이 생긴 것이었다. 존은 의기양양하여 나부로 돌아왔고, 조셉은 기회가 될 때마다 그를 칭찬했다.³⁴

한 달여 후인 1841년 1월 19일에 주님은 새로운 계시로 성도들을 축복하셨다. 주님은 에드워드 파트리지와 조셉 스미스 일

세, 그리고 크룩트 강 전투에서 목숨을 잃은 데이비드 패튼을 맞아 아들이시어 보살피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이럼 스미스는 조셉 일세의 뒤를 이어 교회의 축복사로 부름받았으며, 한때 올리버 카우드리가 했던 것처럼 조셉 곁에서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 역할로 봉사하도록 지명받았다.³⁵

또, 주님은 존 베넷에게 조셉을 도와 성도들을 대표하여 교회 외부의 사람들과 계속 소통하라고 명하시며, 의롭게 일한다면 주님의 축복이 따를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만일 그가 권고를 받아들이면, 자기 상을 결코 잃지 아니 하리라. … 나는 그가 행한 일을 보았나니, 만일 그가 계속하면, 나는 그 일을 받아들일 것이니라.”³⁶

또한, 주님은 과거에 잭슨군에서 성도들이 시온 건설에 들인 노력을 받아들여셨으나 이제는 나부를 건설하고 더 많은 스테이크를 세우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부 하우스라는 호텔을 지어 나부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휴식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시온의 영광에 대해 생각할 장소를 제공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³⁷

무엇보다도, 주님께서서는 성도들에게 새로운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집이 나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되게 하여 내가 그 안에서 나의 백성에게 나의 의식을 드러낼 수 있게 할지어다.”³⁸

죽은 자를 위한 침례도 그 의식 중 하나였다. 지금까지 주님은 성도들에게 미시시피강에서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행하도록 하셨으나 이제는 성전 안에서 특별한 침례반을 헌납할 때까지 그 의식을 멈추라고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의식[은] 나의 집에 속한 것이니라.”³⁹

주님은 성전에서 행해질 다른 의식들과 영감을 주는 새로운 진리들을 장차 알려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창세 이전부터 감추어져

온 것들,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관한 것들을 내가 나의 교회에 드러내려고 생각하고 있음이니라. 그리고 나는 이 집에 관한 모든 것과 그 신권[을] ... 나의 종 조셉에게 보여 주리라.”⁴⁰

주님은 성도들의 근면과 순종을 보상하리라고 약속하시며, 온 힘을 다해 성전을 짓도록 촉구하셨다.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 한 채를 짓되 이 곳에 지으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모든 일에 충실함을 너희가 내게 입증하며, 그리하여 나로 너희에게 복을 주어 존귀와 불멸과 영생으로 너희에게 면류관을 씌우게 하라.”⁴¹

새해가 시작되었을 때, 성도들은 미래를 낙관하고 있었다. 1841년 2월 1일에 성도들은 존 베넷을 나부의 시장으로 선출했으며, 베넷은 시 법원의 수석재판관도 겸하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새로운 대학의 총장이자 민병대의 소장, 제일회장단 보좌의 보조이기도 했다.⁴² 조셉과 다른 지도자들은 그에게 도시를 이끌고 번영을 가져올 능력이 있다고 굳게 믿었다.

존의 권세와 책임이 확대되자, 에머도 그가 성도들에게 크나큰 도움이 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존과 성도로서 정을 나누거나 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존이 거만한 장군처럼 나부 곳곳을 휘젓고 다닌다고 생각했다. 그는 조셉의 마음을 얻으려 애쓰지 않을 때는 오직 자기 자신 외에 다른 사람은 안중에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존 베넷의 재능과 역량은 물론 그에 관한 모든 것이 에머는 근심스럽기만 했다.⁴³



그들이 집합하게 하소서

메리 앤 데이비스는 영국 털리에 찾아온 1841년의 어느 봄날, 관에 누운 남편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보았다. 이윽고 관 뚜껑이 닫히자 남편의 친구들은 교회 뜰에 있는 묘지의 고즈넉한 모퉁이로 관을 운구해 갔다. 존 데이비스는 한창때인 스물다섯의 나이에 세상을 등졌다. 메리는 검은 상복 차림으로 멀어지는 관을 바라보며 불현듯 외로움에 휩싸였다. 이제 그녀는 마을에서 유일한 후기 성도였다.

존은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 존과 메리는 일 년 전에 열린 성도들의 모임에 참석했었다. 윌포드 우드럽이 히어포드셔 근처에서 수백 명의 형제 연합회 일원들에게 침례를 준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두 사람은 형제 연합회의 일원은 아니었으나 당시 그 지역에서는 회복된 복음이 빠르게 퍼지며 많은 이의 관심을 끌고 있었다.¹

메리와 존은 그 지역에 교회가 설립되기를 바라며 선교사들에게 자신의 집을 개방했다. 영국 선교부는 크게 성장해 있었다. 선교사가 들어간 지 단 4년 만에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성도 수는 6천 명을 넘어섰고,² 심지어 수많은 교회에서 나온 거리의 목회자들이 사람들을 끌어모으려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는 런던에서도 선교사들은 40명가량의 성도들로 구성된 지부를 설립하는 데 성공했다. 런던의 지부는 젊은 미국인 장로 로렌조 스노우가 이끌었다.³

그러나 교회에 대한 반대 기류는 이미 영국 전역에서 만연해 있었다. 대부분의 도시에는 거리마다 온갖 종교적 이념을 표방하는 값싼 소책자가 난무했다.⁴ 그 가운데에는 미국에서 건너온 반몰몬 소책자들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모두 후기 성도를 조심하라는 경고성 내용이었다.⁵

팔리 프랫은 거짓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직접 글을 써서 소책자를 만들고, 매달 *Latter-day Saints' Millennial Star*[후기 성도 밀레니얼 스타]라는 제목으로 신문을 발행하기 시작했다. 이 신문은 나부와 영국 전역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소식을 보도했다. 또한, 브리검 영은 영국의 성도들을 위해 찬송가와 몰몬경이 출판되도록 조치했다.⁶

선교사들이 텔리에 있는 메리와 존의 집에서 복음을 가르치자 적대 세력은 메리와 존 부부에게도 마수를 뻗기 시작했다. 난폭한 사람들이 빈번히 모임을 훼방하고 선교사들을 쫓아냈다.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고, 급기야 한 무리의 남자들이 존을 바닥에 때려눕히고 인정사정없이 발로 차는 일이 발생했다. 존은 영영 회복되지 못했다. 얼마 뒤에는 낙상 사고를 크게 당했는데, 그때

부터 그는 각혈을 하기 시작했다. 선교사들이 존 부부를 방문하려고 했지만, 적의에 가득 찬 이웃들은 그마저도 허락하지 않았다. 존은 끝내 일어나지 못하고 점점 기력을 잃어 가다 결국 그대로 숨을 거뒀다.

장례식을 치른 후, 메리는 나부로 가서 성도들과 함께 집합하기로 결심했다. 최근에 브리검 영과 히버 김볼을 비롯한 몇몇 사도들은 자신들이 그해 봄에 고국으로 돌아갈 때 영국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데리고 가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었다. 메리는 바로 뒤이어 그보다 규모가 적은 무리의 성도들과 함께 북미로 떠날 계획을 세웠다.

가족 중 유일한 후기 성도였던 메리는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친정을 찾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완강한 반대를 예상했지만, 아버지는 떠나는 시각과 배편을 물을 뿐 별말이 없었다.

기일이 되자, 메리는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을 느끼며 브리스틀의 항구 마을을 향해 길을 나섰다. 몇 달 전에 남편 존과 결혼식을 올렸던 교회 앞을 지나던 메리는 지금껏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돌아보았다.

스물네 살에 홀로되어 혈혈단신 새로운 땅을 향해 출발한 그녀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운명의 배를 탈 것이었다.⁷

한편, 나부에서는 신문사의 편집장인 토머스 샤프와 조셉 스미스가 높은 연단에 나란히 앉아 수천 명의 성도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1841년 4월 6일은 교회 설립 11주년 기념일이자 연차 대회 첫날이었다. 웅성이는 회중의 말소리 위로 취주악단의 연주가 울

러 들어갔다. 이제 잠시 후면, 성도들은 새로운 성전의 초석을 놓으며 이 중요한 날을 함께 기념할 것이었다.

토머스는 교회의 회원은 아니었지만, 나부 시장 존 베넷의 초대를 받아 이 자리에 참석해 있었다.⁸ 그가 이곳에 온 이유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었다. 신문사의 편집자인 토머스는 단 몇 마디 말로 교회의 평판에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인물이었다. 따라서 그는 잠재적인 협력자로서 나부에 오게 된 것이었다.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토머스도 이 지역은 처음이었다. 토머스는 일 년 전, 스물셋이 채 되지 않은 나이에 변호사로 일하기 위해 서부로 이주했고, 나부에서 남쪽으로 하루 거리에 있는 워소라는 도시에 자리를 잡았다. 그는 이곳에 온 지 몇 달 만에 이곳에서 유일한 비물몬 신문사의 편집장이 되었다. 그는 설득력 넘치는 글솜씨로 명성이 자자했다.⁹

토머스는 사실 성도들의 가르침에는 관심이 없었다. 다만, 그들이 신앙에 헌신하는 모습에서 약간 감동을 받았을 뿐이었다.¹⁰ 그러나 이날의 행사가 인상적이었다는 것은 그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귀청이 터질 듯 요란한 대포 소리가 시작을 알리자, 650명 규모의 시 민병대인 나부 군단이 거리 행진을 시작했다. 조셉 스타미스와 존 베넷은 민병대 장교를 상징하는 황금색 견장을 단 뺏뺏한 푸른색 외투 차림으로 군단을 이끌고 마을 곳곳을 지나 언덕으로 올라갔다. 언덕에는 성전을 짓기 위한 기초 공사가 마무리되어 있었다. 성도들은 토머스를 예우하는 뜻에서 그를 군단 행

렬의 선두 가까이에서 서게 했다. 그의 자리는 조셉 및 민병대 보좌관들과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다.¹¹

정초식이 시작되고, 시드니 리그돈은 성도들이 최근에 겪은 고난과 성전을 짓기 위해 들인 노력을 주제로 한 시간가량 고무적인 연설을 했다. 그에 뒤이어, 조셉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부들에게 성전 기초의 남동쪽 모퉁이에 커다란 바위를 놓도록 지시했다.

그는 이렇게 발표했다. “제일회장단을 상징하는 이 주춧돌이 이제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리며 바로 놓였습니다. 이로써 성도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장소를 얻게 되었고, 인자는 머리 두실 곳을 얻게 되었습니다.”¹²

이 성스러운 기념행사가 끝난 뒤, 조셉은 토머스를 비롯한 외부 손님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칠면조 요리로 만찬을 베풀었다. 그는 손님들이 나부에서 환영받고 있음을 알려 주고 싶어 했다. 그들과 신앙을 공유할 수는 없을지라도 적어도 그들을 환대하는 자신의 마음만큼은 그들이 받아들여기를 바랐다.¹³

이튿날, 조셉은 토머스가 자신의 신문에 정초식에 관한 호의적인 기사를 냈음을 알고 흡족해했다. 성도들은 교회가 조직된 이래 처음으로 이웃의 동조와 정부의 지지, 요직의 친구들을 모두 얻은 듯이 보였다.¹⁴

조셉은 자신이 이렇게 나부에서 호의를 받고 평화로운 시절을 누리는 만큼, 주님께서는 그가 당신의 모든 계명에도 순종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알았다. 설사 그것이 성도들의 신앙을 시험하는 일이 될지라도, 특히 복수 결혼은 그 어떤 계명보다도 큰 시련이 될 것이었다.¹⁵

조셉은 결혼과 가족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계시를 통해 이해하고 있었다. 주님은 사슬의 고리들처럼 세대와 세대를 인봉하는 신권 열쇠를 회복하도록 선지자 엘리야를 커틀랜드 성전으로 보내셨다. 조셉은 주님의 지시대로, 남편과 아내는 현세와 영원토록 함께 인봉되어 아브라함의 축복을 상속받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마련하신 영원한 계획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더 많은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다.¹⁶

몰몬경의 선지자 야곱은 하나님이 명하지 않으셨다면 누구든 “오직 한 아내”만을 두어야 한다고 가르쳤다.¹⁷ 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때로 당신을 충실히 따르는 이들에게 복수 결혼을 명하셨는데, 이는 더 많은 이에게 축복을 베푸시고 성약의 백성을 일으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 아브라함은 사라 외에 하갈과 복수 결혼을 함으로써 고난을 겪었으나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를 통해 큰 민족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다. 복수 결혼을 행하는 성도들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겪게 될 것이었다. 주님은 성도들에게 순종하고 희생한다면 승영에 이르게 되리라고 약속하셨다.¹⁸

조셉은 커틀랜드를 떠난 뒤 몇 년 동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간은 성도들에게 복수 결혼을 소개하지 못했다. 그러나 나부에서는 상황이 달라졌다. 성도들은 이곳에서 큰 안전을 누리며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다.

또한, 조셉은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는 미국의 헌법을 신뢰했다. 그해 초에 나부시의회는 이 권리를 인정하며 나부 내에서 모든 종교 집단이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음을 선포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령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에게 모두 똑같

이 적용되었다. 나부에는 이슬람교를 따르는 사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레에는 일부다처제를 시행하기도 하는 이슬람교도를 특정하여 그들을 보호하는 조항이 있었다.¹⁹ 또한, 비록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 있는 정치인들은 조셉에게 실망을 안겨 주었지만, 그는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는 미국 공화국의 건국 이념을 믿고 신뢰했다.²⁰

그러면서도 그는 복수 결혼의 시행이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 줄 것임을 알기에 여전히 그 원리를 공개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망설이고 있었다. 다른 종교 및 유토피아적 공동체에서는 여러 형태의 결혼을 시행하기도 했지만, 성도들은 항상 일부일처제 결혼을 가르쳐 왔었다. 대부분의 미국인이 그렇듯이, 대다수 성도들은 일부다처제를 그들이 속한 사회보다 미개한 사회와 관계된 것으로 여겼다.

조셉은 복수 결혼에 관한 자신의 견해나 이 계명에 순종하는 어려움에 관해서는 어떠한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 에머 또한 복수 결혼의 시행에 관해 알게 된 시기나 복수 결혼이 자신의 결혼 생활에 미친 영향에 관해 아무것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과 가까이 지낸 이들이 쓴 글에 따르면, 두 사람은 모두 복수 결혼으로 괴로운 시간을 보냈음이 분명하다.

위험이 따를 것이 분명하고, 본인 역시 이에 대한 확신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셉은 성도들에게 하루빨리 복수 결혼을 가르쳐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먼저 이 원리를 충실한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은밀히 소개한다면, 이에 대한 단단한 지지층이 형성될 것이고, 그러면 복수 결혼을 공개적으로 가르칠 때를 대비할 수 있을 것이었다. 복수 결혼을 받아들여려면, 사람들은 편견을 버리고 사회적 관습을 달리 바라볼 필요가 있었다. 또한, 그들

은 하나님께서 사회적 관습과 동떨어진 것을 명하시더라도 그분께 순종하기 위해 큰 신앙을 행사해야만 했다.²¹

1840년 가을 무렵, 조셉은 스물다섯 살의 루이자 비먼과 복수 결혼을 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루이자의 가족은 처음으로 몰몬경을 믿고 회복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 속했다. 루이자는 부모를 여윈 후에 언니인 메리와 형부이자 이스라엘 진영의 대원이었던 베이츠 노블과 함께 나부로 이주했었다.²²

베이츠는 조셉과 루이자가 복수 결혼에 관해 이야기할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²³ 조셉은 베이츠에게 이렇게 말했다. “형제님께 이 원리를 밝히며 저는 제 목숨을 형제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지더라도, 부디 저를 적들의 손에 넘기지 마십시오.”²⁴

조셉은 얼마 후에 루이자에게 청혼했다. 루이자는 자신이 그 청혼에 어떤 반응을 보였으며, 언제, 왜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조셉은 연차 대회가 열리기 하루 전인 1841년 4월 5일 저녁에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루이자와 베이츠를 만났다. 베이츠는 조셉에게 권세를 받았고, 의식을 집행하기 위해 조셉이 가르쳐 주는 의식문을 그대로 따라 말하며 두 사람을 인봉했다.²⁵

그해 여름, 존 베넷이 그 지역 법원 조직에서 요직에 임명되자 성도들은 환호했다. 그러나 그 지역에는 성도들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우려하며 분노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들은 경쟁 구도에 있는 정치 세력이 성도들의 표를 얻기 위해 존을 임명했다고 보았다.²⁶

경쟁 세력에 속했던 토머스 샤프는 과연 존이 그런 직위와 명예를 얻을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 침례를 받은 것도 진지한 마음에서였는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신문 사설을 통해 시민들에게 존의 임명을 반대하도록 촉구했다.²⁷

또한 그는 이 지역에 집합한 수백 명의 영국 성도들이 표출하는 불만을 과장해서 알리기도 했다. “많은 이들이 이 땅을 떠날 결심을 했으며, 영국에서 이민을 계획하고 있는 지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이 교회의 도시가 처한 통탄할 만한 상황을 경고했다고 한다.” 그는 영국 성도들이 불만스러워하는 가장 큰 이유가 선지자의 사명에 대한 신앙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²⁸

그 사설을 읽고 격노한 조셉은 신문 구독을 취소하는 편지를 구술하여 토머스에게 보냈다.

“선생, 나는 이제 이 신문을 구독하지 않겠습니다. 이 신문에 실린 기사는 나를 모독했습니다. 그런 일을 벌이고도 이런 쓰레기같은 종이에 구독료를 지불하게 할 속셈인 것으로 보이나, 도덕적인 사람이라면 부당함만 가득한 당신의 신문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요.

경멸을 담아,

조셉 스미스

추신: 당신의 그 비열한 신문에
위 내용을 실어 주시길 바랍니다.²⁹

편지를 읽고 화가 난 토머스는 다음 호 신문에 조셉의 선지자 부름을 비꼬는 논평과 함께 이 편지를 나란히 실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토머스가 자신의 신문을 이용해 성도들의 환심을 사려 한

다는 비난이 쏟아졌다.³⁰ 토머스는 성도들이 이 지역에 사는 다른 시민들의 권리를 정치적으로 점점 더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여겼고, 그와 같은 자신의 견해를 독자들에게 알리고자 했다.

토머스는 그 증거로서 조셉이 최근에 발표했던 선언문을 다시 한번 신문에 실었다. 그 선언문에는 만방의 성도들에게 집합하여 나부를 건설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토머스는 독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그의 뜻이 곧 그들의 법이라면,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권리와 특권은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³¹

비판의 수위가 점점 더 높아지자 조셉은 토머스 때문에 지역의 다른 사람들까지 성도들에게 등을 돌리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었다.³² 그렇게 된다면, 성전의 초석이 놓이고 배편으로 영국에서 이민자들이 몰려드는 현 상황에서 모든 것이 위태로워질 것이었다. 성도들은 인디펜던스와 파워스트를 잃은 것처럼 나부를 또 잃을 수는 없었다.

영국 남서부에 있는 브리스틀 항구의 부두는 크고 작은 선박이 오가는 분주한 곳이었다.³³ 메리 앤 데이비스가 탄 북미행 배에는 벼룩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깨끗한 침대가 비치되어 있었다. 메리를 비롯한 승객들은 여행 가방 하나만 침대 곁에 둘 수 있었고, 나머지 짐은 모두 짐칸에 보관해야 했다.

메리는 배가 출항 준비를 하는 일주일 동안 브리스틀에 머물렀다. 승객들은 모두 사생활 보호를 위해 침대 사이에 커튼을 쳤으므로, 커다란 방은 여러 개의 작은 칸막이방으로 나뉘어 있었다. 그들은 브리스틀의 좁은 거리를 다니며 도시의 이모저모를 온몸으로 체험했다.

메리는 내심 부모님이 한 번은 자신을 보러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가 배편과 출항 지점을 물을 이유도 없지 않았을까?

그렇지만 그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배웅 대신, 딸을 붙잡아 두기 위해 메리의 아버지가 고용한 변호사들이 매일같이 배를 들락거리며 검은 눈동자에 상복을 입은 젊은 과부에 대해 탐문하고 다녔던 것이었다. 메리는 실망스러웠지만, 시온으로 집합하겠다는 결심으로 상복을 벗고 배에 탑승한 여느 젊은 여성들과 같은 옷차림을 하기 시작했다.

얼마 후에 배는 돛을 올리고 무사히 캐나다를 향해 출발했다. 두 달 후, 북미 대륙에 도착한 메리 일행은 증기선과 기차, 운하용 선박을 타고 남쪽으로 가서 커틀랜드 부근의 항구에 다다랐다. 메리 일행은 한시라도 빨리 성도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마을로 내려갔다. 그들은 그곳에서 교회의 작은 지부를 이끌던 윌리엄 펠프스를 만났다.³⁴

이제 커틀랜드는 전과 같지 않았다. 윌리엄은 일요일마다 성전에서 모임을 열었는데, 연단에 혼자 앉을 때가 많았다. 회중석에 앉아 있던 메리는 성전이 마치 버려진 것 같다고 생각했다.

몇 주 뒤, 영국에서 온 또 한 무리의 성도들이 커틀랜드에 도착했다. 무리 중에는 피터 모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여행을 계속해서 증기선으로 오대호를 건너고 시카고까지 가서 육로로 나부까지 가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여행을 빨리 끝마치고 싶었던 메리와 몇몇 성도들은 어린 여섯 자녀를 데리고 다니는 피터 모건 일행에 합류했다.³⁵

메리와 피터는 나부로 가는 길에 서로 조금 더 가까워졌다. 아내를 잃고 홀로 아이들을 키우던 피터는 영국 북서부의 흑연광에서 일을 했었다. 그의 아내인 루스는 아이를 낳다 사망했으며, 그후 이들 가족은 이민을 결정했다. 본래 피터는 영국에서 살 생각이었지만, 브리검 영이 나부로 가도록 그를 설득했다.³⁶

나부에 도착하자, 메리는 영국에서 온 친구들을 찾아 도시 곳곳을 다녔다. 그녀는 거리를 지나던 중에 커다란 통나무 위에서 설교를 하는 한 남자를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 멈추어 설교에 귀를 기울였다. 그는 활기가 넘쳤고, 꾸밈없는 설교로 그곳에 모인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는 이따금 몸을 앞으로 숙이기도 하고, 마치 책상에 기대듯이 바로 앞에 있는 키 큰 남자의 어깨에 손을 짚기도 했다.

메리는 한눈에 그가 조셉 스미스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다섯 달의 여정 끝에 마침내 그녀는 성도들 틈에 섞여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다.³⁷

한편, 지구 반대편에서는 올슨 하이드가 난생처음 본 예루살렘 앞에서 감격해하고 있었다. 두꺼운 성벽을 두른 이 고대 도시는 계곡으로 둘러싸인 언덕 위에 세워져 있었다. 여독으로 지친 몸을 이끌고 도시의 서쪽 관문으로 향하던 올슨은 일행 뒤편으로 불쑥 거대한 모습을 드러낸 성벽과 탑들을 힐끗 돌아보았다.³⁸

애초에 그는 존 페이지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바랐지만, 존 페이지는 미국을 떠나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올슨

은 홀로 출발해 영국을 지나 유럽을 거치면서 유럽 대륙의 대도시들을 지나왔다. 그런 다음에 그는 유럽 남동부에 있는 콘스탄티노플로 가서 증기선을 타고 해안가 도시인 자파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영국의 신사들과 그들의 무장한 하인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정을 세웠다.

올슨은 며칠 동안 예루살렘의 울퉁불퉁한 흙길을 걸어 다니며 도시의 종교 및 정부 지도자들을 만났다. 예루살렘에는 약 1만 명의 주민이 있었고, 대부분 아랍어를 썼다. 이 도시는 수 세기 동안 갈등을 겪으며 방치된 탓에 일부는 아예 폐허가 되어 황량한 모습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슨은 성경에서 읽었던 장소들을 찾아다니며 이 도시와 그 성스러운 역사에 경외감을 느꼈다. 그는 구주의 비유 소재가 되었던 사람들의 일상을 지켜보면서 자신이 예수께서 살아 계시던 시대에 와 있다는 상상을 해 보았다. 또, 켓세마네에 갔을 때는 올리브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그리스도의 속죄를 생각했다.³⁹

1841년 10월 24일,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시각에 그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걸으셨던 곳 부근의 비탈을 걸어 내려갔다. 그는 감람산을 오르다 뒤로 돌아 계곡 너머로 예루살렘을 바라보았다. 구주 시대에 성전이 있던 자리 부근으로 거대한 바위 사원이 솟아 있었다.⁴⁰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일부 후손들이 재림 전에 예루살렘에 집합하리라고 약속하셨다. 이를 생각한 올슨은 자리에 앉아 하나님께 흠어진 잔류민을 그들의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문을 적었다.⁴¹

“그들이 당신의 말씀에 따라 이 땅에 집합하게 하소서. 마치 구름과 같이, 창가에 모여든 비둘기와 같이 그들이 오게 하소서.”

울슨은 기도를 마치고 그곳에 돌을 쌓아 올렸다. 그런 뒤 다시 계곡을 건너 시온 산으로 가서 자신이 사명을 완수했음을 뜻하는 간단한 기념물로 삼기 위해 그곳에 더 많은 돌을 쌓아 올렸다. 그런 후에 그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다시 한번 떠나먼 여 행길을 시작했다.⁴²



우리는 그들을 시험하여

1842년 1월 5일, 조셉은 나부에 상점을 열고 쾌활한 얼굴로 수많은 손님을 맞이했다. 조셉은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성도들에게 봉사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좋아. 내가 바라는 것은 주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승영에 이르는 것이야.”¹

승영에 관한 교리는 조셉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² 2월이 되자, 그는 커틀랜드에서 샀던 이집트 두루마리와 아브라함의 기록에 대한 미완성 번역본으로 다시 관심을 돌렸다.³ 새로운 경전의 가르침에 따르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충실하고 당신의 계명에 가까이 순종하는지를 시험하기 위해 그들을 지상으로 보내셨다고 했다.

구주께서는 지구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로써 우리는 그들을 시험하여 주 그들의 하나님을 명하는 것

은 무엇이든지 그들이 다 행하는지를 보리라.”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이들은 더 큰 영광으로 승영하게 되고, 순종하지 않는 이들은 이 영원한 축복을 잃게 될 것이었다.⁴

조셉은 성도들에게 이 진리를 배우게 하여 그들이 승영을 향해 나아가 하나님의 면전에 들어가도록 돕고 싶었다. 커틀랜드 시절에는 많은 남성이 선교 임지에서 겪게 될 어려움에 대비해 권능의 엔다우먼트를 받고 힘을 얻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부 성전에서 더 큰 영적 엔다우먼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계시자 요한이 신약전서에서 예언했듯이, 주님은 교회의 충실한 남성과 여성에게 더 많은 의식과 지식을 계시해 주시므로써 그들을 왕과 여왕, 제사와 여제사로 삼으실 것이었다.⁵

조셉은 십이사도를 비롯한 믿음직한 동료들이 이 신성한 권능의 엔다우먼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키면서 주님에 대한 순종을 역설했다. 또한, 그는 조금 더 많은 성도에게 복수 결혼의 원리를 가르치고 그 신성한 기원에 대해 간증했다. 지난 여름에 영국에 갔던 사도들이 나부로 돌아온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 선지자는 그들 중 몇 명에게 이 원리를 가르친 후 주님의 계명으로서 그 원리에 순종하도록 지시했다.⁶ 복수 결혼이 승영이나 더 큰 권능의 엔다우먼트를 받는 데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었지만, 주님께 순종하고 자신의 삶을 기꺼이 그분께 바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

조셉처럼 사도들도 처음에는 이 새로운 원리에 대해 반감을 보였다. 브리검은 아내를 한 명 더 두어야 한다는 결정을 놓고 몹시 괴로워하며 차라리 일찍 죽기를 바랐다. 히버 김볼과 존 테일러, 윌포드 우드럽도 이 원리에 순종하는 것을 최대한 미루고 싶어 했다.⁷

조셉은 주님의 명에 따라 루이자 비먼과 결혼한 후에 다른 여성들과도 인봉되었다. 그는 특정 여성에게 복수 결혼에 관해 가르칠 때 자신에게 인봉되는 것이 옳은 일인지를 알도록 영적인 확인을 구하라고 가르쳤다. 모든 여성은 아니었지만, 몇몇 여성은 그 권고를 받아들였다.⁸

나부에서 일부 성도들은 현세와 영원을 위한 복수 결혼을 시행했다. 그것은 그들의 인봉이 현세는 물론 다음 세상까지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일부일처 형태의 결혼과 마찬가지로, 이 형태의 결혼에서도 성적인 관계를 통해 자녀를 가질 수 있었다. 일부 성도들은 영원만을 위한 복수 결혼을 시행하기도 했는데, 이런 형태의 복수 결혼을 하는 이들은 그들의 인봉이 다음 생애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었다.⁹

경우에 따라, 교회에 반감을 품은 성도나 교회 회원이 아닌 남성과 결혼한 여성, 심지어는 교회의 인정받는 회원과 결혼했다 하더라도 현세만을 위한 결혼을 한 여성은 다른 남성에게 영원을 위해 인봉될 수 있었다. 인봉 의식 이후에는, 그 여성은 다음 생애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결혼과 승영의 축복을 고대하며 현재의 남편과 계속 결혼 생활을 유지했다.¹⁰

1842년 초에 조셉은 메리 라이트너에게 그러한 인봉을 제안했다. 메리의 남편인 애덤은 교회의 회원이 아니었다. 조셉은 메리와 이야기를 나누며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음 생애를 위해 함께 인봉될 것을 명하셨다고 말했다.¹¹

그러자 메리가 물었다. “하나님께서 형제님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왜 저에게는 알려 주지 않으실까요?”

“진지하게 기도해 보세요. 자매님이 증거를 얻게 될 것이라고 천사가 제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¹²

메리는 조셉의 권유에 마음이 불안해졌다. 조셉은 메리에게 복수 결혼을 가르치며 영원한 결혼 성약에서 비롯되는 끝없는 축복을 설명했다.¹³ 애덤과 메리의 결혼은 오직 이생 동안만 함께하기로 약속한 결혼이었다. 이제 그녀는 남편이 합당한 권세 아래 침례받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와는 영원한 성약을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¹⁴

메리는 애덤에게 침례 이야기를 꺼내며 그에게 교회의 회원이 되도록 간청했다. 애덤은 자신은 조셉을 존경하지만 회복된 복음은 믿지 않으며 침례도 받지 않겠다고 답했다.¹⁵

메리는 영원한 결혼의 축복을 간절히 원했으나 남편과는 그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지자 당혹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그녀의 마음에 의심의 물결이 밀려왔다. 결국, 메리는 주님께 기도하며 조셉의 권유가 옳은지 알 수 있게 천사를 보내 주시도록 간구했다.¹⁶

어느 날 밤, 친척과 함께 있던 메리는 방이 빛으로 밝아지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아서 놀란 눈으로 바로 옆에 선 흰옷 차림의 천사를 보았다. 그 천사는 얼굴이 밝고 아름답게 빛났으며, 번개 같은 눈으로 메리를 응시했다.

메리는 겁을 먹고 이불을 뒤집어썼고, 천사는 그 자리를 떠났다.

그리고 돌아온 일요일, 조셉은 메리에게 응답을 받았느냐고 물었다.

“증거는 얻지 못했지만, 전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을 보았어요.” 메리가 말했다. “천사를 보았는데, 겁이 나서 죽을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러자 조셉이 말했다. “자매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천사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자매님이 충실하다면, 그보다 더 위대한 것들도 보게 될 것입니다.”¹⁷

메리는 계속 기도했다. 그리고 그녀는 마침내 천사를 보았으며, 그 일로 조셉의 말을 더욱 믿게 되었다. 메리는 그 후로 며칠 동안 도저히 부인할 수도, 무시할 수도 없는 영적 증거들을 더 받았다. 애덤은 여전히 이생에서 메리의 남편이었지만, 그녀는 다음 생에서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모두 받고 싶었다.¹⁸

얼마 후에 메리는 조셉의 권유를 받아들였고, 브리검 영은 다음 생을 위해 두 사람을 인봉했다.¹⁹

존 테일러와 윌포드 우드럽은 조셉의 지시에 따라 *Times and Seasons*[타임즈 앤드 시즌스]의 1842년 3월호를 시작으로 선지자가 번역한 아브라함서를 잡지에 게재하기 시작했다. 이 기록을 읽은 성도들은 세상의 창조와 인생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 자녀들의 영원한 운명에 관한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며 전율을 느꼈다. 그들은 아브라함이 우림과 둠뎀을 가지고 있었고, 주님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나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그들은 지구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이미 존재하는 물질로 조직되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자녀들이 승영에 이르게 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배웠다.²⁰

성도들은 아브라함서의 출판과 영혼을 성장시키는 그 교리에 더욱 고무되어 계속해서 헌신적으로 새로운 도시를 세우고 성전을 짓는 데 매진했다.

이 무렵에 나부에는 이미 천여 채의 통나무집이 있었으며, 완공되었거나 공사 중인 목조 가옥과 벽돌집도 여러 채 있었다.²¹ 조셉은 도시를 더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나부를 네 지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을 와드로 칭했으며, 각 와드를 감리하도록 감독을 지명했다. 각 와드는 열흘에 하루씩 주님의 집을 짓는 일에 노동력을 제공하여 성전 건축을 도와야 했다.²²

나부에서 미혼으로 재봉 일을 하며 홀로 생계를 잇던 마거릿 쿡은 성전 공사가 진행되어 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마거릿은 세라 김볼 밑에서 일했는데, 세라는 교회의 초기 개종자 중 한 명으로 후기 성도가 아닌 성공한 상인과 결혼했었다.

일하는 시간이면 마거릿은 종종 세라와 함께 성전을 건축하는 수고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성전 벽의 높이는 아직 1미터도 채 되지 않았지만, 벌써 숙련공들은 성전 지하에 임시로 공간을 만들어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행할 커다란 침례반을 설치했다. 침례반은 송판으로 정교하게 모양을 잡은 타원형 웅덩이로, 외부가 섬세하게 장식되었으며, 손으로 깎아 만든 열두 마리의 황소가 등으로 그 아래를 받친 형태를 하고 있었다. 침례반이 헌납되자, 성도들은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다시 행하기 시작했다.²³

성전에 기여하고 싶은 열망이 강했던 마거릿은 제대로 된 신발과 바지, 셔츠도 없이 일하는 인부들의 모습을 눈여겨 보았

다. 마저릿은 세라에게 인부들을 위해 함께 새 셔츠를 만들자고 제안했고, 세라는 마저릿이 바느질을 해 준다면 자신이 옷감을 대겠다고 응답했다. 두 사람은 나부의 다른 여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이 일을 총괄할 단체를 결성했다.²⁴

얼마 후에 세라는 여남은 명의 여성을 집으로 초대하여 이 새로운 단체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그들은 글숨씨가 좋기로 유명한 엘리자 스노우에게 규약의 초안을 작성해 달라고 부탁했다. 엘리자는 곧바로 이 문서를 작성하여 그것을 선지자에게 보였다.

조셉은 그것이 매우 잘 작성된 규약이라고 칭찬했다. 선지자는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가서 자매님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의 헌신을 받아들이셨으며, 그들은 그들을 위해 더 나은 것을 준비하셨다고 전하십시오.” 조셉은 며칠 후에 자신의 상점에서 이 단체와 모임을 하고 싶다며 이렇게 말했다.

“저는 신권의 방식을 좇아 신권에 따라 여성들을 조직할 것입니다.²⁵ 이제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열쇠가 있습니다.”²⁶

1842년 3월 17일 목요일, 에머 스미스는 계단으로 조셉의 상점 위층에 있는 커다란 방으로 올라갔다. 마저릿 쿡과 세라 킴볼, 엘리자 스노우 외에도 열아홉 명의 여성이 새로운 조직을 만들기 위해 그 자리에 모여 있었다. 또, 영국에서 돌아온 뒤 조셉의 서기로 일하기 시작한 윌라드 리차즈와 존 테일러도 조셉과 함께 모임에 참석했다.²⁷

그 자리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여성은 열다섯 살이었던 소피아 마크스였고, 가장 나이가 많은 여성은 스다섯 살이었던 세라 클리블랜드였다. 여성들은 대부분 어머니와 나이가 비슷했다. 영국에서 태어난 레오노라 테일러를 제외하면 모두 미국 동부에서 성도들과 함께 서부로 온 여성들이었다. 이들 중에는 세라 김볼이나 세라 클리블랜드처럼 부유한 여성들도 있었지만, 그 외 다른 여성들은 현재 입은 옷 외에는 가진 것이 거의 없었다.

여성들은 서로 잘 아는 사이였다. 필린다 메릭과 테스디모나 풀머는 혼즈밀 학살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었고, 에이탈리아 로빈슨과 낸시 리그돈은 자매지간이었다 또한, 에머 스미스와 벅시바 스미스, 엘리자 스노우와 소피아 패커드는 각각 인척 관계였다. 세라 클리블랜드와 앤 휘트니는 어머니가 어려운 시절을 보내며 가족을 데리고 오갈 곳이 없을 때, 어머니의 가족을 자신들의 집으로 들여 도와준 이들이었다. 엘비라 카울스는 어머니의 집에서 기거하며 어머니를 도와 그녀의 자녀들을 돌보고 있었다.²⁸

에머는 나부에서 여성들을 위한 조직을 시작한다는 것에 흡족해했다. 최근에 조셉을 비롯한 그 지역의 남성들은 백 년의 역사를 지닌 친목 단체 프리메이슨에 가입한 일이 있었다. 오랫동안 그 단체의 일원이었던 하이럼 스미스와 존 베넷이 나부에 프리메이슨 지부가 조직되도록 힘쓴 결과였다. 그러나 나부의 여성들이 갖게 된 조직은 프리메이슨과 종류가 달랐다.²⁹

모든 참석자가 “타는 듯한 하나님의 영”을 부르고 존 테일러가 기도를 한 후, 조셉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이 새로운 조직을 통해 여성들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 돌보고, 잘

못을 범한 이들을 올바르게 바로잡고, 지역 사회를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런 후 그는 여성들에게 회장을 선출하게 했는데, 회장은 신권 정원회와 마찬가지로 두 명의 보좌를 선택하게 될 것이었다. 이로써 여성들은 처음으로 교회에서 공식적인 권함과 책임을 맡게 되었다.³⁰

에머의 친구인 앤 휘트니가 에머를 회장으로 추천했고, 여성들은 만장일치로 에머를 회장으로 선출했다. 그런 후에 에머는 세라 클리블랜드와 앤 휘트니를 자신의 보좌로 지명했다.

조셉은 자신이 1830년에 에머를 위해 받은 계시를 읽으며, 그녀가 그 당시에 경전을 해설하고 교회의 여성들을 가르치도록 성임 또는 성별되었다고 언급했다. 조셉은 주님께서 그녀를 “택함을 받은 여인”으로 부르셨으며, 그녀가 이 조직을 감리하도록 선택된 것이 그 증거라고 말했다.

그에 이어, 존 테일러는 세라와 앤을 에머의 보좌로 성임하고, 에머의 새 부름을 확인시켜 주며 그녀에게 필요한 힘을 축복해 주었다. 조셉은 몇 가지를 더 가르친 후 에머에게 모임의 순서를 넘겼고, 존은 이 조직의 명칭을 정하자고 제안했다.

에머의 보좌들은 나부 여성 상호부조회라는 명칭을 추천했으나, 존은 그보다는 미국 전역에 결성된 다른 여성 단체의 명칭을 따라서 나부 여성 자선회로 하자고 제안했다.³¹

에머는 “자선” 보다는 (구조를 의미하는) “부조”가 더 마음에 든다고 했지만, 엘리자 스노우는 “부조”라는 말은 큰 재난에 특별히 대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들의 조직은 일상의 문제에 더 초점을 둘 것이 아니었던가?

에머는 이렇게 주장했다. “우리는 특별한 일을 할 것입니다. 많은 수의 물문을 태운 배가 급류에 갇힌다면, 우리는 이를 구조가 시급한 상황으로 여길 것입니다. 특별한 일들과 긴급한 요청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 말을 조용히 숙고해 보았다. 존이 입을 열었다. “맞는 말씀입니다. 매우 설득력 있는 주장이어서 반박을 할 수가 없네요.”

시적 언어에 늘 관심이 많았던 엘리자는 그 명칭을 살짝 바꾸어 볼 것을 권했다. 그녀는 나부 여성 상호부조회 대신 “나부의 여성 상호부조회”를 제안했다. 모두 그 이름에 동의했다.

에머는 이렇게 말했다. “이 조직에 속한 여성은 모두 선을 행하겠다는 열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조직의 동기는 무엇보다 사랑이어야 했다. 신약전서에서 바울이 가르쳤듯이, 마음에 사랑이 충만하지 않는다면 선행은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³²

그해 봄에 조셉은 상호부조회와 자주 만났다. 상호부조회는 오래된 성도들과 새로 침례받은 이민자들이 더해지면서 빠르게 성장했다. 세 번째 모임이 열릴 무렵에는 참석하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 조셉의 상점에 다 앉을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조셉은 자매들이 상호부조회를 통해 준비되어 성전에서 권능의 엔다우먼트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랐다. 그는 여성들에게 악을 멀리하고 고대의 신권 방식에 따라 운영되는 택함받은 조직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다.³³

그 무렵, 조셉은 나부의 몇몇 남성이 혼외 성관계를 하고도 그런 행위는 비밀이 유지되기만 하면 허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는 보고에 우려를 느끼고 있었다. 이렇게 순결에 관한 주님의 가르침을 변질시키며 그런 유혹을 부추기는 장본인들은 사실 계명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이들이었다. 그대로 두면, 그들은 성도들에게 심각한 걸림돌이 될 것이 분명했다.

3월 31일에 조셉은 교회 당국은 절대 그런 행위를 승인하지 않았음을 밝히는 서한을 작성하여, 에머에게 그것을 상호부조회에서 낭독해 달라고 부탁했다. 조셉은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런 행위를 멈추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기 때문입니다.”³⁴

조셉은 성도들이 승영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해지기를 바랐다. 그해 봄에 조셉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고자 한다면, 하나님과 같이 되거나 하나님이 지니신 원리를 지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그만큼 악마와 가까워지며, 우리는 지식을 잃게 됩니다. 지식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³⁵

조셉은 교회의 여성들을 이끌고, 여성들이 그런 지식을 쌓고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책임을 상호부조회의 회장단에 맡겼다.

“이 조직은 하나님께서 확립하신 반차를 통해, 즉 지도자로 임명받은 사람들을 통해 지시를 받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열쇠를 여러분에게 위임합니다. 이 조직은 기쁨으로 가득 찰 것이며, 지금 이 시각부터 지식과 지혜가 넘쳐 흐를 것입니다.”³⁶

1842년 5월 4일, 브리검 영과 히버 김볼, 윌라드 리차즈는 조셉의 상점 2층이 새롭게 단장된 것을 알아차렸다. 벽에는 새로운 벽화가 그려져 있었고, 바로 옆에는 마치 정원처럼 작은 나무와 식물들이 있었다. 방은 양탄자를 커튼처럼 매달아서 두 구역으로 분할해 놓았다.³⁷

조셉은 그날 아침에 특별한 모임을 열기 위해 세 사도를 상점으로 불렀다. 제일회장단의 일원이자 가장 가까운 조연자인 그의 형 하이럼과 윌리엄 로도 초대했다. 감독인 뉴얼 휘트니와 조지 밀러, 나부의 스테이크 회장인 윌리엄 마크스, 교회의 지도자인 제임스 애덤스도 그 자리에 참석해 있었다.³⁸

그날 오후 내내 선지자는 이들에게 한 가지 의식을 소개했다. 그중에는 커틀랜드 성전 및 고대 히브리의 성막에서 행해졌던 의식과 유사한 씻음 및 기름 부음 의식도 있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남성들에게는 몸에 착용하여 자신의 성약을 상기하게 될 성스러운 내의가 주어졌다.³⁹

하나님께서 조셉에게 새로 밝혀 주신 의식에는 승영에 이르는 진리가 담겨 있었다. 이 의식에서는 구원의 계획을 통해 사람들을 단계적으로 인도할 목적으로 경전에 나오는 창조와 에덴동산의 이야기가 언급되었으며, 아브라함서의 번역문에 나오는 새로운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아브라함과 고대의 선지자들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을 얻은 것이었다.⁴⁰ 그 과정에서 그들은 의롭고 순결하게 생활하며 주님을 섬기는 데 헌신하겠다는 성약을 맺었다.⁴¹

조셉은 이 의식을 엔다우먼트라 칭했으며, 그는 거기에 모인 형제들이 그날 배운 특별한 지식을 다른 어느 곳에서도 밝히지 않으리라고 믿었다. 커틀랜드에서 받았던 권능의 엔다우먼트와 마찬가지로 이 의식도 성스러운 것이었으며, 영적인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의 장로들에게 영적인 은사와 신성한 권능이 주어진 것 이상을 의미했다. 성전이 완공되는 대로 남성과 여성은 이 의식을 받고, 하나님과의 성약 관계를 강화하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왕국에 헌납함으로써 더 큰 권능과 보호를 얻게 될 것이었다.⁴²

의식이 끝나자, 조셉은 브리검에게 몇 가지 지침을 주었다. “제대로 준비를 갖춘 것은 아니었지만, 현재 처한 상황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형제님이 이 사안을 맡아서 이 모든 의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⁴³

그날 그들은 엔다우먼트에서 배운 진리에 경외감을 느끼며 상점을 나섰다. 히버 킴볼은 이 의식이 어떤 면에서는 프리메이슨의 의식을 연상시킨다고 생각했다. 프리메이슨 모임에는 남성들이 솔로몬 성전의 건축가에 관한 상징적인 이야기를 실연하는 순서가 있었다. 또한 그들은 어떤 몸짓과 말을 배우며 그것들을 비밀로 지키기로 서약했는데, 이 모든 것은 그들이 굳건한 토대를 세우고 점차 빛과 지식을 더해 가는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었다.⁴⁴

그러나 엔다우먼트는 남성과 여성을 위한 신권 의식으로, 프리메이슨 의식에는 없는 신성한 진리를 가르쳤다. 히버는 다른 사람들도 그러한 진리를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히버는 영국에 있는 팔리와 메리 앤 프렛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 “우리는 선지자를 통해 신권에 관한 소중한 것들을

몇 가지 받았습시다. 두 분도 이것들을 통해 기쁨을 얻으실 겁니다. 지면으로는 알려 드릴 수가 없네요. 문자로 적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부디 와서 직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⁴⁵



반역자인지 참된 성도인지

1842년 5월 6일 저녁, 미주리주 인디펜던스의 거리에는 그칠 줄 모르고 비가 내렸다. 린번 보그스는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의자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다.¹

미주리 주지사 임기는 이미 일 년여 전에 끝났지만, 그는 여전히 정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했으며 최근에는 공석이 생긴 미주리주 상원 의원 선거에 출마한 상태였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의 실정으로 이번 선거는 거의 승산이 없었다. 그는 근절령으로 수천 명의 성도들을 주에서 몰아낸 일뿐만 아니라 아이오와 준주와의 접경 분쟁에 공격적으로 대응한 일로 일부 미주리 주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었고, 미주리주 의사당 건립에 필요한 기금 모금 방식에 대해서도 의혹을 받고 있었다.²

보그스는 창문을 등지고 앉아 신문 기사 제목을 눈으로 훑었다. 선선하고 어두운 저녁, 빗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질퍽한 뜰을 밟소리도 없이 건너온 누군가가 창 너머로 보그스를 향해 묵직한 권총을 겨누었다. 순간 총신에서 불이 번쩍했고, 보그스는 신문 위로 고꾸라졌다. 그의 머리와 목에서 피가 쏟아져 나왔다.

총소리를 듣고 황급히 방으로 달려온 보그스의 아들은 도움을 청하며 고함을 질렀고, 그를 쏜 범인은 바닥에 총을 버리고 진창에 발자국만 남긴 채 그대로 사라졌다.³

보그스 저격범의 흔적을 찾는 수사가 한창일 무렵, 나부에서는 하이럼이 그와는 다른 성질의 범죄 수사를 진행 중이었다. 5월 초에 몇몇 여성이 나부의 시장인 존 베넷의 추악한 행위를 고발했던 것이다. 여성들은 시의회 의원이 배석한 자리에서 하이럼에게 존이 한 행위를 털어놓았는데, 그들은 존이 남몰래 찾아와 성관계를 제안했고, 이를 함구하기만 하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그 행위를 “영적인 아내를 두는 것”이라는 말로 포장하며 조셉이 그런 행위를 승인했다고 거짓말을 했다.⁴

처음에는 여성들도 존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존은 계속해서 그렇게 우기며 자신의 친구들을 시켜 여성들 앞에서 그 말이 참이라는 맹세까지 하게 했다. 그는 만일 이것이 거짓이라면 자신이 그 죄를 다 감당하게 될 것이고, 만약 여성들이 임신을 하

게 된다면 의사인 자신이 낙태 수술을 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여성들은 결국 존의 말에 넘어갔다. 그리고 그의 몇몇 친구들이 찾아와 비슷한 청을 했을 때 그들의 말에도 굴복했다.

하이럼은 충격을 받았다. 하이럼은 오래전부터 존이 처음에 본인이 주장하던 것과는 다른 모습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다. 그의 과거에 대한 소문은 그가 나부에 와서 시장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고, 이에 조셉은 조지 밀러 감독을 보내 소문의 진상을 파악하게 했다. 조지는 존이 이곳저곳을 다니며 많은 재능을 이용해 사람들을 놀라한 전력이 있음을 알아냈다.

또한, 존은 자녀들과 아내도 있으며 오랜 기간 동안 아내를 학대하고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도 알아냈다.⁵

윌리엄 로와 하이럼이 이러한 사실들의 신빙성을 확인해 주자, 조셉은 존을 만나 그가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꾸짖었다. 존은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약속했지만 조셉은 이제 그를 믿지 않았으며 전처럼 그를 신뢰하지도 않았다.⁶

여성들의 증언을 들은 하이럼은 존에 대해 더 큰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이럼과 조셉, 윌리엄은 존을 교회에서 파문한다는 문서를 작성한 후 다른 지도자들의 서명을 받았다. 하지만 존이 저지른 죄는 아직 조사 중이었으며, 추문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이 일을 마무리하고 싶었으므로 그들은 파문 사실을 공개하는 것은 보류하기로 했다.⁷

그러나 시장이 도시와 성도들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어 버렸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하이럼은 즉각 존에 대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느꼈다.

존은 하이럼이 자신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안절부절못했다. 그는 하이럼의 사무실로 찾아가 눈물을 흘리며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애걸복걸했다. 그렇게 많은 여성을 속였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 자신은 이제 끝이라면서 하이럼에게 사정했다. 존은 조셉과 이야기해서 상황을 바로잡고자 했다.

사무실 밖으로 나간 두 사람은 마침 뜰을 가로질러 자신의 상점 쪽으로 향하는 조셉과 마주치게 되었다. 존은 조셉에게 다가가며 울부짖었다. “조셉 형제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존은 붉어진 눈으로 눈물을 뚝뚝 흘렸다. “제 죄를 인정합니다. 제발 남들에게 알리지만 말아 주십시오.”

“왜 제 이름을 팔아서 그런 지독한 악행을 저지른 것입니까?” 조셉은 존을 추궁했다. “제가 한 번이라도 형제님께 부도덕한 것을 가르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사람이 있는 데서든 없는 데서든 부도덕하거나 불의한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시의회 의원 앞에서 그 말을 맹세할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존은 조셉을 따라 그의 사무실로 갔다. 조셉의 서기는 존에게 종이와 펜을 건넸다. 시의회 의원이 도착하자 조셉은 바깥으로 나왔다. 존은 책상 위로 몸을 구부리고 앉아서 조셉이 자신에게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것을 가르친 일이 없다는 사실을 글로 적었다.⁸ 그런 후에 그는 나부의 시장직에서 물러났다.⁹

그로부터 이틀 후인 5월 19일, 시의회는 존의 사임을 받아들이고 조셉을 시장직에 임명했다. 조셉은 회의를 마치기 전에 존에게 할 말이 있느냐고 물었다.

존은 이렇게 말했다. “저는 교회의 지도자들과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계속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제가 신뢰와 우정을 온전히 회복할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언젠가 제 신앙을 시험할 기회가 생긴다면, 제가 반역자인지, 아니면 참된 성도인지 밝혀질 것입니다.”¹⁰

토요일이 되자, 일리노이주의 한 신문은 릴번 보그스 총격 사건과 관련하여 새로운 소식을 내놓았다. 보그스는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부지했고, 경찰은 범인의 신원을 조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밝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일각에서는 이것이 보그스의 정치적 경쟁자들이 꾸민 일이라는 말도 있었으나 이 신문은 이 사건의 배후로 성도들을 지목하며 조셉이 보그스가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리라고 예언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신문 기사는 이렇게 단정했다. “그렇기에, 그 소문을 뒷받침할 근거는 무궁무진하다.”¹¹

조셉은 이 기사를 읽고 몹시 불쾌해했다. 그는 자신이 하지 않은 일로 범죄 혐의를 뒤집어쓰는 데 진력이 나 있었다. 조셉은 그 신문의 편집자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 썼다. “내가 릴번 더블유 보그스 주지사의 종말에 대한 예견을 했다는 당신의 주장은

명백히 부당한 것입니다. 누구의 죄에 대해서도 내 손은 깨끗하고, 내 마음은 청결합니다.”¹²

하지만 조셉은 저격범 혐의를 받으면서도 공개적으로 자신을 방어할 만한 겨를이 없었다. 그는 존 베넷의 행적에 관한 일주일 간의 조사를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빠듯했다.¹³ 제일회 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 나부 고등평의회는 매일같이 피해자들의 증언을 듣고 있었다. 조셉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이 성도들 사이에 구축하고자 노력했던 영원한 성약 관계를 존이 조롱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심각하게 왜곡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십의에 나온 피해자 중 한 명인인 캐서린 워렌은 혼즈밀 학살 사건으로 남편을 잃은 과부였다. 다섯 자녀를 홀로 키우며 몹시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던 그녀는 가족을 부양하느라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캐서린에 따르면, 나부에서 그녀를 제일 먼저 이용한 사람은 존 베넷이었다. 그녀는 고등평의회에 이렇게 말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 달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으며, 만약 제가 임신이라도 하게 된다면 그것은 교회에 불명예가 될 것이라고 그에게 말했죠.” 그러나 캐서린은 교회 지도자들이 그 행위를 승인했다는 존의 거짓말에 넘어갔다.

그리고 얼마 후부터는 존의 친구 몇 명이 비슷한 거짓말로 그녀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캐서린은 고등평의회에 이렇게 증언했다. “지난 겨울, 제가 한 일을 생각하니 문득 끔찍했어요.” 조셉과 교회의 지도자들이 존의 행위를 승인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녀는 존

의 행위를 들춰내기로 마음먹었던 것이다. 캐서린의 증언을 들은 조셉과 고등평의회는 캐서린의 회원 자격은 계속 유지하게 했으나 그녀를 농간한 남성들은 교회에서 파문했다.¹⁴

또한 조사가 마무리된 후, 존에게도 공식적인 파문 공지가 전해졌다. 그는 한 번 더 자비를 구하며 자신을 징계하되 비공개로 진행해 줄 것을 평의회에 요청했다. 그는 자신의 연로한 어머니가 이 소식을 들으면 낙담하여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는 돌아가시고 말 것이라고 했다.¹⁵

하이럼 못지않게 조셉도 존이 저지른 범죄에 혐오감을 느꼈다. 그러나 당시 성도들은 보그스 총격 사건을 주도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었다. 게다가 신문 편집자들도 나부에서 추문을 찾으려고 혈안인 상황이었으므로, 조셉과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 사건에 이목이 쏠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최대한 조심해야 했다. 그들은 존이 파문되었다는 소식을 공개하지 않기로 하고, 그가 마음을 고쳐먹고 달라지는지 지켜보기로 했다.¹⁶

조셉은 존에게 기만당한 여성들이 걱정스러웠다. 당시 미국의 많은 지역에서는 여성이 간통을 저질렀다고 여겨질 경우,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잔인하게 배척받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조셉은 상호부조회의 여성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남을 비난하지 않도록 당부하며 이렇게 권고했다.

“회개하고 개심하되, 주변의 어떤 사람에게도 상처 주지 않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선지자는 성도들이 악을 용납하지 않기를 바랐지만, 다른 사람을 멀리하는 것 역시 바라지 않았다. 조셉은 다음과 같이 말하며 성도들을 일깨웠다. “마음이 청

결한 자가 되십시오. 예수님은 사람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그분은 ‘너희가 본 바 내가 행하는 것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상호부조회의 행동 지침이 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에머도 “근거 없는 소문과 쓸데없는 말은 모두 그만두십시오.”라고 말하며 조셉의 권고에 힘을 실어 주었다. 하지만 에머는 징계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에 의구심을 느꼈다. 에머는 여성들에게 말했다. “죄를 덮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국법에 어긋나는 죄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에머는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죄를 범한 사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야 한다고 믿었다.¹⁷

하지만 조셉은 계속해서 이 일을 비공개로 다루었다. 존의 과거 행적을 볼 때, 그는 잘못이 밝혀지고 권한을 빼앗긴 뒤에는 그 지역을 떠나는 경향이 있었으므로 참고 기다린다면 존이 제 발로 나부를 떠날 가능성도 있었다.¹⁸

상호부조회는 1842년 5월 27일에 성도들이 자주 예배를 드리는 숲 근처에서 열 번째 모임을 열었다. 이제 상호부조회 회원 수는 수백 명에 달했다. 한 달 전에는 피비 우드럽과 아만다 스미스, 리디아 나이트, 에밀리 파트리지도 여남은 명의 여성들과 함께 이 조직의 일원이 되었다.¹⁹

일주일에 한 번 모임이 열릴 때면, 피비는 바쁜 일상의 일들을 제쳐 두고 그곳으로 달려갔다. 그곳에서 그녀는 주변 사람들의

어려움에 대해 알고, 교회의 여성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설교를 들었다.

설교는 주로 조셉과 에머가 맡아 했지만, 이날은 뉴얼 휘트니 감독이 머지않아 주님께서 여성들에게 주실 축복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바로 얼마 전에 엔다우먼트를 받은 휘트니 감독은 여성들에게 항상 주님의 사업에 집중하고 그분의 권능을 받도록 준비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여성들 없이는 지상에서 그 무엇도 회복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휘트니 감독은 하나님께서 충실한 성도들을 위해 귀중한 것들을 많이 마련해 두셨음을 약속했다. “우리는 헛된 것들을 바라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옳은 일을 하려고 애쓰다면, 비록 판단을 잘못하는 일이 많다 하더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될 것입니다.”²⁰

그로부터 이틀 후, 피비와 윌포드는 언덕에 올라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인 성전을 찾았다. 그들은 윌포드가 영국에 있던 시기에 딸인 사라 에머를 잃는 등 가족으로서 많은 난관을 겪었다. 이제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 자녀도 둘을 더 얻었다.

윌포드는 *Times and Seasons*(타임즈 앤드 시즌스)의 사무실을 운영하며 안정된 일을 했으므로 가족을 부양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 우드럽 가족은 도시에 있는 아담한 집에서 살며 성전 남쪽 부근에 벽돌집을 새로 짓고 있었다. 그들은 그 지역에서 많

은 친구와 왕래하며 지냈는데, 그중에는 영국에서 큰 농장을 팔고 성도들이 있는 곳으로 이주해 온 존과 제인 벤보우도 있었다.²¹

그러나 휘트니 감독이 말했듯이 성도들은 여전히 주님의 사업에 참여하고, 그들을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해물을 피하며, 옳은 일을 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해야 했다.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기 위해 성전의 중요성은 더욱더 커지고 있었다. 5월 29일에 피비는 성전 지하로 내려가 침례관에서 조부모와 종조부를 위해 침례를 받았다.²² 피비는 윌포드에게서 침례를 받으면서 자신의 죽은 친족들이 회복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분의 희생을 기억하겠다는 성약을 맺으리라고 믿었다.

존 베넷은 파문 통보를 받고 2주가 지나도록 여전히 나부에 그대로 머물고 있었다. 상호부조회는 나부의 여성들에게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해 주의를 주며 그가 교회 지도자들에 관해 퍼뜨린 거짓말을 강하게 비판했다.²³ 존의 불미스러운 과거가 더 드러나면서, 조셉은 이제 전임 시장의 파문을 알리고 그가 저지른 끔찍한 죄를 사람들에게 알릴 때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조셉은 6월 15일자 *Times and Seasons*(타임즈 앤드 시즌스)에 존의 파문 소식을 짧게 실었다.²⁴ 그리고 며칠 뒤에는 성전 부지에 모인 천여 명의 성도 앞에서 존이 거짓말을 하고 여성을 농락한 일을 숨김없이 공개했다.²⁵

사흘 뒤, 존은 분개하며 나부를 떠났다. 그는 성도들은 자신과 함께할 자격이 없다고 비난하며 상호부조회로 폭도를 보내겠다고 위협했다. 하지만 에머는 의연하게 대처했다. 그녀는 상호부조회에서 존의 됃됨이를 비판하는 소책자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에머는 여성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명을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번영할 것입니다.”²⁶

조셉은 더 많은 기사로 존을 고발하며 전임 시장인 존이 과거에 오랫동안 저지른 일탈 행위를 자세히 다루었다. 기사에서 조셉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그는 회개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순박한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가장 추악하고 저속한 방법으로 간음을 저지름으로써 올곧은 사람이 받는 신뢰나 존경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다.”²⁷

존은 가까운 마을에 방을 얻어 지내며 조셉과 성도들을 신랄히 비난하는 서한을 작성해 일리노이의 유명 신문사로 보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많은 범죄를 조셉에게 뒤집어씌우며 조셉이 수많은 죄를 지었다고 비난했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자신의 죄악을 덮기 위해 터무니없는 거짓을 꾸미고 이야기를 부풀렸다.

그는 급기야 조셉이 린번 보그스 총격 사건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서한을 작성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선지자가 보그스의 처참한 죽음을 예언했다는 신문 기사의 이야기를 되풀이하며, 조셉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자신의 친구와 경호원인 포터 록웰을 미주리로 보냈다고 주장했다.²⁸

성도들은 존이 끊임없이 거짓말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미주리의 비판자들은 이미 그 편지를 근거로 맹렬한 분노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또한, 총상에서 회복된 보그스는 자신을 암살하려 한 자들을 정의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고, 포터 록웰이 당시 가족을 만나기 위해 인디펜던스에 왔었다는 사실을 파악한 후부터는 아예 조셉을 살인 미수 공범으로 몰았다. 그는 미주리의 신임 주지사인 토머스 레이놀즈에게 일리노이 당국이 조셉을 체포하여 미주리의 재판정에 세우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²⁹

레이놀즈 주지사도 이에 동의하며, 일리노이주의 주지사인 토머스 칼린에게 조셉을 범죄를 저지르고 미주리에서 달아난 범인으로 취급할 것을 요구했다.³⁰

성도들은 조셉이 3년 전에 미주리에서 탈출한 뒤로는 그곳에 돌아간 적이 없으며, 그가 총격 사건에 가담했다는 증거도 없음을 알았기에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성도들에게 우호적이었던 일리노이 시민들과 나부시의회는 즉시 주지사 앞으로 조셉의 체포를 반대하는 청원을 올렸다.³¹ 에머와 엘리자 스노우, 아만다 스미스는 쿤시에서 칼린 주지사를 만나 조셉을 지지하는 상호부조회의 청원을 직접 전달했다. 주지사는 그들의 간청을 듣긴 했으나 결국 조셉과 포터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³²

8월 8일, 나부에 도착한 보안관 대리와 관리 두 명은 보그스 총격 사건의 주범 혐의를 받는 포터와 그 방조범 혐의를 받는 조셉 스미스를 체포했다. 그러자 나부시의회는 두 사람을 데려가기 전에 영장을 살펴볼 권리를 보안관 대리에게 요구하고 나섰다. 조셉

은 전에도 누명을 쓴 적이 있었으며, 또 나부 현장에 따르면 성도들은 사법 제도의 남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권리가 있었다.

의회가 영장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던 보안관 대리는 조셉과 포터를 나부시 경찰서장에게 넘긴 후, 주지사에게 처분을 구하기 위해 나부를 떠났다. 그리고 이틀 뒤에 돌아온 그는 죄수들이 이미 종적을 감추고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³³



일곱 번째 난관

1842년 8월 11일, 조셉과 친구 에라스투스 더비는 조용히 노를 저으며 달빛이 흐르는 어두운 미시시피 강을 따라 내려갔다. 나부와 몬트로즈를 가르며 길게 뻗은 강 너머로 수목이 우거진 섬 두 개가 윤곽을 드러냈다. 섬 사이로 노를 저어가던 두 사람은 강둑에 정박한 다른 배를 발견하고는 그쪽으로 다가갔다.¹

그 전날, 불공정한 재판에 넘겨지게 될 상황을 우려한 조셉과 포터는 체포를 피하고자 나부를 급히 빠져나왔다. 포터는 일리노이주를 벗어나기 위해 동쪽으로 갔고, 조셉은 서쪽으로 가서 강을 건넌 후 아이오와 준주에 있는 그의 삼촌 존의 집으로 갔다. 그곳은 일리노이주 보안관과 그 일행의 관할권을 벗어나는 지역이었다. 조셉은 하루종일 집안에 몸을 숨기고 지냈으며, 가족과 친구들을 몹시 그리워했다.

조셉과 에라스티스가 섬에 닿자 에머와 하이럼, 그리고 조셉의 절친한 친구들이 그들을 맞아 주었다. 조셉은 에머의 손을 잡고 사람들과 함께 배에 앉아서 나부의 상황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²

상황은 생각보다 더 위험했다. 친구들은 아이오와 주지사가 조셉과 포터의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것은 조셉이 삼촌 집에 숨어 있는 것이 더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제 보안관들은 강 양편에서 그를 수색해 들어올 것이었다.

조셉의 친구들은 이러한 체포 기도는 불법이며, 미주리에 있는 적들이 선지자를 잡으려고 꾸며 낸 뻔뻔한 계략이라고 믿었다. 지금으로서는 조셉이 다시 일리노이 쪽으로 넘어간 뒤 그곳에 있는 친구의 농장에 피신해 있으면서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었다.³

조셉은 섬을 떠나며 가슴 벅찬 감사함을 느꼈다. 역경의 순간에 몇 번이고 자신을 버리고 배신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 친구들은 이 어두운 밤중에 자신을 돕고자 달려와 주었고, 자신과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진리를 선택한 사람들이었다.

조셉은 생각했다. ‘이들이야말로 나의 형제들이다. 그러므로 나는 살 것이다.’

조셉이 그 누구보다도 감사함을 느낀 사람은 에머였다. ‘이 일곱 번째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여전히 확고하고 흔들림 없이 변함없는 모습으로 내 곁에 있는 다정한 에머!’⁴

그 후로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날 때까지도 에머는 조셉을 자주 만나 대화를 나누었다. 직접 만날 수 없을 때는 서신을 보냈

다.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던 보안관들을 따돌린 날에는 은신처에서 조셉을 만나 다음 일을 논의했다. 그녀는 조셉과 성도들 간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조셉이 신뢰해야 할 사람을 선별하여 그에게 해를 끼치려는 사람들을 막는 데 헌신했다.⁵

보안관들은 필요하다면 일리노이의 모든 집을 수색하겠다고 위협했다. 조셉은 자신이 붙잡혀 미주리로 다시 끌려갈까 봐 걱정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잘 알았다. 몇몇 친구들은 그에게 성전에 쓸 목재를 벌목 중인 일리노이 북부의 소나무 숲으로 피신하라고 재촉했다.⁶

하지만 조셉은 피신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싫었다. 그는 계속 일리노이에 머물며 사태를 끝까지 지켜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 그렇지만 에머가 원한다면 기꺼이 그럴 용의도 있었다. 그는 편지에 이렇게 적었다. “내 안전은 당신과 함께하는 것이요. 만약 당신과 아이들이 함께 가지 않는다면, 나도 가지 않을 것이요.”

한편으로는 가족을 잠시라도 어딘가로 데리고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적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의 한쪽에서 자행되는 비열하고, 저급하고, 사악한 이 상스러운 행위에 신물이 나오. 가족과 함께 6개월이라도 여기서 멀리 떠나 있을 수 있다면 내 생에서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이요.”⁷

에머는 그날 오후에 이렇게 답장했다. “당신이 떠나야 할 필요를 느낀다면 전 언제든지 함께 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곳을 떠나지 않고도 당신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확신도 여전히 있어요. 당신을 지킬 방법은 많이 있으니까요.”⁸

그날 저녁, 에머는 일리노이 주지사 토머스 칼린에게 조셉의 결백을 보장하는 편지를 한 통 썼다. 암살 시도가 있었을 당시 조셉은 미주리에 있지 않았으므로 그에게는 혐의가 없다는 논리였

다. 에머는 미주리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잘못하면 그가 살해될지도 모른다고 믿었다.

“부디 아무것도 모르는 제 아이들이 아버지가 부당하게 감옥이나 죽음의 문턱으로 끌려가는 것을 한 번 더 목격하는 그런 끔찍한 슬픔을 겪지 않게 해주시길 간청드립니다.”⁹

얼마 후 주지사는 에머에게 답신을 보냈다. 그의 서신은 정중했고, 조셉에 대한 조치는 오로지 의무감의 발로로 이루어졌음을 신중한 말로 주장했다. 그는 조셉이 법을 따르기를 희망한다고 하면서 그 건에 관련하여 마음을 바꿀 의향이 없음을 전했다.¹⁰

에머는 이에 굴하지 않고 남편을 체포하는 것이 왜 위법인지를 설명하는 두 번째 편지를 썼다.

“이 성도들이나 스미스 씨를 계속 박해하는 것이 일리노이주나 미국에, 또는 일리노이주나 미국의 어떤 지역에, 또는 주지사님이나 어떤 개인에게 도대체 무슨 이득이 되단 말입니까?”

에머는 편지를 보낸 뒤 답신을 기다렸다.¹¹

한편, 나부에 있는 대부분의 성도는 조셉이 바로 지척에 피신해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조셉이 워싱턴 DC로 돌아갔다고 믿었고, 어떤 이들은 그가 유럽으로 갔다고 생각했다. 보안관과 관리들이 조셉의 행방을 찾아 나부 시내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모습을 본 성도들은 조셉의 안전이 갈수록 염려가 되었다.¹²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서 선지자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일상생활을 계속해 나갔다.

다른 영국 이민자들과 마찬가지로, 메리 데이비스는 계속해서 나부의 새 보금자리에 적응하는 중이었다. 나부에 도착한 이

후 그녀는 커틀랜드에서 만난 피터 모건이라는 사람과 결혼했다. 피터는 젊은 나이에 아내를 잃고 홀로 자녀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메리는 그 아이들의 새어머니가 되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선교 사업을 떠난 올슨 하이드의 집을 세내어 살고 있었으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일거리를 찾으려고 인간힘을 썼다.¹³

나부에는 농장이나 건축 일은 넘쳐 났지만, 피터처럼 영국의 광업이나 제조업 중심지에서 생활하며 일했던 숙련된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거의 없었다. 지역의 기업가들은 나부에 제분소, 공장, 주물 공장 등을 세우려고 했지만, 이러한 사업들은 이제 겨우 시작 단계였으므로 영국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숙련된 노동자들을 모두 수용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¹⁴

안정적인 직업이 없었던 메리와 피터는 음식과 빨감을 사기 위해 그들이 가진 것을 조금씩 내다 팔며 첫 번째 겨울을 버텼다. 다행히 피터가 영국에서 광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조셉이 그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조셉은 피터에게 나부 남쪽에 있는 그의 소유지에서 발견된 탄광맥을 발굴하게 했다. 그곳에서 발굴된 석탄은 품질이 매우 우수했으며, 피터는 조셉을 위해 그 광맥에서 석탄을 세 수레나 채굴했다.¹⁵

일부 가난한 이민자 가족들은 보수가 좀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 이웃 마을과 도시로 떠났다. 하지만 메리와 피터는 나부에 남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어떻게든 견디어 보기로 했다. 그들은 마감 공사도 다 끝나지 않은 하이드의 집 바닥에 나무 판자를 펼쳐 놓고 그 위에 닭털 매트리스를 얹어 침대로 사용했다. 또, 낮은 옷장을 탁자로 썼으며, 찬장이 없어 그릇을 바깥에 내놓고 보관했다.¹⁶

나부의 여름철 열기는 숨이 막힐 정도였지만, 오후나 저녁 쯤 공기가 시원해지면 모건 가족도 다른 가족들처럼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함께 시내 산책을 나갔다. 거리에는 정치나 지역 소식, 또 복음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때로 성도들은 강연회를 열거나 연극을 보러 가거나 새로 결성된 나부 관악대가 최신 유행곡을 연주하는 것을 듣기도 했다. 아이들은 어김없이 때로 모여 해가 미시시피강 너머로 사라지고 어스름이 지는 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할 때까지 바깥에서 구슬치기나 줄넘기 등을 하며 놀았다.¹⁷

8월 하순, 그해 초여름에 공표되었던 존 베넷의 편지가 전국 신문에 다시 실리면서 교회의 평판은 상당한 타격을 입었고, 선교사들은 회복된 복음을 나누는 데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교회 지도자들은 수백 명의 장로를 선교사로 내보내어 부정적인 언론에 대항하게 했다.

8월 29일, 장로들은 가르침을 받기 위해 성전 부지 근처에 있는 작은 숲에 모였다. 하이럼이 말씀을 하고 있을 때 조셉이 단상에 올라와 자리에 앉자 그곳에 참석한 사람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었다. 장로 대부분은 조셉이 8월 초에 피신을 간 이후로 그를 보지 못했었다.

조셉을 찾던 일리노이주 당국 관계자들이 최근 그 지역을 떠나면서 이제 조셉은 경계를 다소 풀 수 있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그는 집에서 가족과 함께 조용히 지내며 십이사도와 그 외 교회 지도자들을 은밀히 만났다.¹⁸

장로들과 그 대회에 참석한 지 이틀 후, 조셉은 상호부조회 모임에 참석해도 될 정도로 상황이 안전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상호부조회 자매들에게 최근 있었던 시련과 자신에 대한 혐의에 관해 이야기했다. “제가 잘못을 저지르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을 범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범하는 잘못이란 다른 사람들처럼 인간적인 약점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흠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조셉은 자신을 옹호해 주고 자신을 대신해 주지사에게 청원을 해 준 에머와 다른 여성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상호부조회는 저를 적들로부터 지켜 내기 위해 가장 적극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한 조치들이 없었다면, 더욱 심각한 결과가 발생했을 것입니다.”¹⁹

그 주에 조셉과 에머 부부는 한때 사도였던 존 보인턴을 집으로 초대했다. 존은 반대자인데다가 커틀랜드 성전에서 조셉의 형제를 칼로 위협한 적도 있었지만, 조셉과 있었던 갈등은 이제 덮어 두기로 했다. 조셉 가족과 존이 정오의 식사를 즐기고 있을 때, 일리노이주 보안관과 두 명의 무장한 관리들이 선지자를 체포하라는 새로운 명령을 받고 집으로 들이닥쳤다. 존이 이들의 주위를 탄 데로 돌려 시간을 버는 동안, 조셉은 뒷문으로 빠져나가 옥수수밭을 지나 창고에 몸을 숨겼다.

에머는 보안관에게 수색 영장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보안관은 영장은 없다고 대꾸하며 경관들과 함께 그녀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방문과 커튼을 열어젖히며 모든 방을 샅샅이 뒤졌지만, 결국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날 밤에 보안관 일행이 마을을 떠나자 조셉은 친구인 에드워드와 앤 헌터의 집으로 피신했다.²⁰ 조셉은 며칠 후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적었다. “나 자신의 안전과 이 백성의 안

전을 위하여 잠시 이곳을 떠나는 것이 내게 필요하고도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련에 갇혀 있고 싶지는 않았다. 조셉은 이 편지에서 죽은 자를 위한 침례에 관한 새로운 계시를 전했다.

“그리고 또, 진실로 이같이 주께서 이르시느니라 나의 성전의 일과 내가 너희에게 지정해 준 모든 일을 계속하고 그치지 말라.” 주님께서서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수행하는 대리 침례를 기록으로 남기고 증인을 세워 죽은 자의 구속이 지상과 하늘에 기록되게 하라고 명하셨다.²¹

머칠 후, 조셉은 성도들에게 대리 침례에 관하여 또 하나의 가르침을 전했다. 그는 말라기에 나오는 구절을 다음과 같이 풀이하여 적었다. “아버지와 자녀 간에 일종의 굳게 매는 연결이 없으면 땅은 저주로 치심을 당하리라.” 그는 과거와 현 세대는 죽은 자를 구속하고 때가 찬 경륜의 시대가 도래하도록 함께 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 시대가 도래하면 주님께서 이전에는 한 번도 밝히신 적이 없는 것들과 더불어 성도들을 위해 예비해 두신 모든 열쇠와 권능과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조셉은 산 자와 죽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에 넘치는 기쁨을 억누를 길이 없었다. 비록 적에게 부당하게 쫓기며 숨어 지내는 형편이었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 안에서 환희를 느꼈다.

그는 성도들에게 물었다. “이제 우리가 받은 복음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듣습니까? 기쁨의 소리! 하늘에서 온 자비의 소리요, 땅에서 솟아난 진리의 소리입니다!” 그는 몰몬경 및 신권과 그 열쇠를 회복하는 천사들, 그리고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훈에 교

훈을 더하여 당신의 계획을 밝히시는 하나님에 대한 환희로 다음과 같이 썼다.

“이 위대한 대업에 우리가 나아가지 아니하겠습니까? 너희 마음으로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땅은 소리를 발하여 노래할 지어다. 죽은 자들은 임마누엘 왕에게 영원한 찬양의 노래를 부를 지어다.”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고, 그분께서 죄와 죽음을 이기신 것이 틀림없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하늘에서 우리에게 들리는 그 음성은 얼마나 영화로운고!”
조셉은 큰 기쁨에 차 있었다.²²

1842년 가을, 칼린 주지사는 에머의 두 번째 편지에 답신을 보냈다. 남편을 위한 그녀의 헌신적인 노력에는 찬사를 보내지만 결국은 어떠한 도움도 줄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²³ 그맘때쯤, 존 베넷은 조셉과 성도들에 관한 책 한 권 분량의 폭로 문서를 발행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자칭 “나부의 비밀스러운 부인 제도”라는 것에 관해 강연하기 시작했다. 그는 조셉의 복수 결혼에 관하여 대부분 자신이 만들어 낸 터무니 없는 소문으로 청중을 유인했다.²⁴

이처럼 존이 전면적인 공세를 펼치는 가운데 칼린 주지사가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겠다고 물려서자 조셉의 근심은 커져만 갔다. 미주리에 있는 적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한, 자수하여 법정에서 설 수는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평생을 숨어 지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를 비호해 주었다는 이유로 주 정부가 가족과 성도들을 벌하는 사태가 오기 전까지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까?²⁵

조셉의 도피가 시작된 지 3개월 후인 12월 무렵, 칼린 주지사의 임기가 끝이 났다. 신임 주지사인 토머스 포드는 조셉의 소송

건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거절했으나, 선지자가 겪은 역경에 동정을 표하고, 법원이 그의 손을 들어 줄 것이라는 확신을 보였다.²⁶

조셉은 그를 신뢰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더 나은 대안도 없는 상황이었다. 1842년의 성탄절 다음날, 조셉은 나부 군단의 장군이자 윌리엄 로와 형제지간인 윌슨 로에게 투항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일리노이주 주도인 스프링필드로 가서 조셉을 체포하라는 미주리 주지사의 명령이 합법적이었는지, 그리고 조셉을 미주리주로 돌려보내 법정에 세울 것인지를 결정하는 공판에 참석했다.²⁷

조셉이 스프링필드에 도착하자 큰 소란이 일었다. 호기심 많은 구경꾼들은 새 의사당 건물 건너편의 법정에 몰려들어 스스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일컫는 사람을 조금이라도 구경하고자 서로를 밀치며 목을 길게 뻗었다.

“저 중에 조 스미스가 누구요?” 누군가가 물었다. “저 덩치 큰 남자인가?”

“콧날이 참 날카롭기도 하네!” 또 다른 누군가가 말했다. “선지자라고 하기엔 너무 생글거리는데!”²⁸

재판은 일리노이주에서 가장 존경받는 판사인 나다니엘 포프가 주재했다. 조셉은 자신의 변호사인 저스틴 버터필드와 함께 앞쪽에 앉았다. 그 근처에서는 조셉의 서기 역할을 하고 있는 윌라드 리차즈가 몸을 구부리고 앉아 공책에 소송 절차를 기록하고 있었다. 다른 몇몇 성도들도 법정에 몰려들었다.²⁹

포프 판사는 이 소송을 조셉이 보그스 주지사 총격 사건의 공범인지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조셉이 미주리에 있었다가 도피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일리노이주의 젊은 지방 검사인 조사이아 램본은 모두 진술에서

조셉이 보그스의 죽음에 관해 예언했다고 하는 주장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는 조셉이 보그스 총격에 관해 예언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미주리주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결론지었다.³⁰

램본이 진술을 마치자 조셉의 변호사는 총격이 일어났을 때 조셉은 미주리에 있지 않았으므로 조셉에게 씌워진 보그스 주지사 관련 혐의와 기소 내용은 모두 잘못되었다고 변론했다. “조셉이 미주리주에서 도피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습니다.” 버터필드 변호사는 말했다. “도피 사실이 입증되기 전까지는 송환될 수 없습니다. 조셉이 도피했다는 사실을 반드시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조셉이 결백함을 보여 주는 증인 선서를 제출했다. 그는 “피고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미주리주로 송환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며 변론을 마무리했다.³¹

다음 날 아침인 1843년 1월 5일, 조셉과 변호사들이 판결을 듣기 위해 다시 출석한 가운데 법정에는 기대로 들쭉였다. 성도들은 포프 판사가 조셉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다면 선지자가 해질 녘에 적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초조한 마음으로 판결을 기다렸다.

포프 판사는 오전 9시가 조금 지나 도착했다. 자리에 앉으면서 그는 검사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판결문은 무척 길었으며, 윌라드 리차즈는 한 마디도 놓치지 않고 빠르게 받아적었다.

그 전날 피고측 변호사가 진술할 때, 판사는 조셉이 미주리에서 재판받도록 소환된 것은 위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스미스 씨는 석방되어야 합니다.” 판사는 조셉을 더 구금해야 할 어떠한 이유도 찾지 못했다.

조셉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피신 생활 다섯 달 만에 그는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되었다.³²



영원한 성약 안에 하나 되어

1843년 1월 10일, 조셉이 나부로 돌아오자 친구와 친척들은 모두 에머의 집에 모여 그의 무사 귀환을 축하했다. 얼마 후에 조셉과 에머는 재판 승소와 결혼 16주년을 기념하는 만찬을 열었다. 윌슨 로와 엘리자 스노우는 연회를 위해 노래를 작곡했다. 조셉과 에머는 음식을 대접했고, 손님들은 함께 웃으며 이야기꽃을 피웠다.¹

조셉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행복했다. “저의 어머니나 형제자매, 친구들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기대가 없다면,”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제 가슴은 순식간에 터져 버릴 것입니다.”² 그는 성도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위한 침례와 엔다우먼트, 또한 영원한 결혼을 통해 신성한 성약을 맺게 된다는 사실에서 위안을 얻었다. 그 영원한 성약은 그들을 함께 인봉하고, 그들의 관계가 무덤 너머에서도 계속되도록 보장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엔다우먼트를 받은 여성은 한 명도 없었고 남성 중에서도 소수만 받았으므로, 성도들 대다수는 아직 영원한 결혼 성약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 조셉은 자신의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살게 되리라는 약속을 믿었으며, 성전이 완공되어 성도들에게 이러한 의식을 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

그는 속도를 내어 앞으로 나아갔고 성도들에게도 함께 보조를 맞출 것을 독려했다. 조셉은 성스러운 의식을 받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은 놀라운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믿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자신이 받은 신성한 지식을 더 많은 성도들에게 전하여 그들이 고양되고 승영에 필요한 성약을 맺고 지키도록 돕는 것이 그의 목표였다.³

그해 겨울 미시시피강은 퐁퐁 얼어붙어 뱃길이 완전히 끊겼다. 눈이 자주 왔고, 살을 에는 바람이 평원을 가로지르고 언덕을 넘어 매섭게 불어 났다. 추위와 질퍽한 눈을 막을 수단이라곤 목 짧은 신발과 얇은 재킷, 올이 다 드러난 낡은 솔이 전부였기에 성도들은 야외 활동을 오래 할 수 없었다.⁴

겨울이 끝나 가고 있음에도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다. 에밀리 파트리지는 스미스 가족의 집에서 빨래를 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도맡고 있었다. 에밀리와 엘리자 자매가 스미스 가족의 집에 살며 일한 지는 이제 2년이 넘었다. 그들의 재혼한 어머니도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었다.⁵

에밀리는 상호부조회에 소속된 일원이었으므로 주변 여성들과 자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가끔 복수 결혼에 대한

소문이 그녀의 귀에 들어왔다. 은밀히 그 결혼을 시행하고 있는 성도가 30명 이상이 되었고, 그중에는 에밀리의 이복 자매 두 명과 이복형제 한 명도 있었다. 에밀리는 그것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아는 바가 없었다.⁶

그러나 일 년 전쯤, 조셉은 그녀에게 무언가 할 말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그는 편지로 적겠다고 했으나 에밀리는 복수 결혼에 대한 이야기일까 두려워서 그의 제안을 거절했었다. 후에 에밀리는 그렇게 했던 것을 후회했다. 그녀는 언니에게 복수 결혼에 대해 자신이 아는 것을 이야기하며 조셉과 나눈 대화에 대해 말했다. 하지만 엘리자는 화가 난 듯 보였고, 에밀리는 거기에서 이야기를 멈추었다.⁷

에밀리는 비밀을 털어놓을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자 마치 깊은 물속에서 홀로 사투를 벌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에밀리는 주님께 의지했고, 자신이 해야 할 바를 알려 주시기를 기도했다. 몇 달 후, 그녀는 조셉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신성한 확인을 받게 되었다. 설사 그것이 복수 결혼에 대한 것일지라도 말이다.⁸

에밀리의 열아홉 번째 생일로부터 며칠 후인 3월 4일, 조셉은 그녀에게 히버 김볼의 집에서 이야기를 하자고 말했다. 에밀리는 복수 결혼의 원리를 받아들일겠다는 마음의 준비를 한 채 일을 마치고 집을 나섰다. 예상했던 대로 조셉은 복수 결혼에 관한 가르침을 전했고, 자신에게 인봉되었느냐고 물었다. 에밀리가 동의하자 히버는 인봉 의식을 집행했다.⁹

나흘 후, 언니 엘리자도 조셉에게 인봉되었다. 그제서야 두 자매는 서로 터놓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으며, 자신들이 맺은 성약에 대해 배우고 느낀 것을 나눌 수 있었다.¹⁰

성도들은 존 베넷의 폭로 문서에 실린 각종 혐의에 대해 조셉을 지속적으로 옹호했다. 존의 주장은 대부분이 꾸며 낸 것이거나 명백한 거짓이었지만, 조셉이 여러 명의 여성과 결혼했다는 주장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몰랐던 하이럼 스미스와 윌리엄 로는 존의 주장을 맹렬히 부인하며 순종적으로 복수 결혼을 행하는 성도들의 행위를 의도치 않게 비난했다.¹¹

브리검 영은 그 점이 염려스러웠다. 제일회장단 일원이 복수 결혼의 시행에 대해 모르고 있는 한, 그들은 계속해서 일부다처제를 비난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조셉과 다른 이들이 주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따르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미 조셉은 하이럼과 윌리엄에게 복수 결혼에 관해 가르치려 시도했으나 실패한 경험이 있었다. 언젠가 조셉이 평의회 모임 중에 그 주제를 꺼내려 하자 윌리엄이 그의 말을 가로막은 적도 있었다. “만일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남자가 한 명 이상의 아내를 두어야 한다고 내게 말한다면 나는 그를 죽일 것이오!”

브리검은 하이럼과 윌리엄의 이런 반응에 조셉이 기운 빠져하는 것을 보았다. 어느 일요일, 브리검은 저녁 일과를 마치려던 참에 뜻밖에도 조셉의 방문을 받게 되었다. 조셉은 브리검에게 “지금 저의 집으로 오셔서 설교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부탁했다.

보통 브리검은 성도들과 모임을 하는 것을 좋아했지만, 오늘은 그 자리에 하이럼도 와서 가르치기로 되어 있었다. “저는 가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브리검이 말했다.¹²

브리검과 아내 매리 앤은 기도와 영감을 통해 자신들도 복수 결혼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브리검은 매리 앤의 동의를 받아 1842년 6월에 루시 앤 데커라는 여인과 인봉했다.

조셉이 그에게 복수 결혼의 원리를 처음으로 가르친 지 1년이 지났을 무렵의 일이었다. 루시는 첫 번째 남편과 헤어진 상태였고 돌봐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었다.¹³

“브리검 형제님.” 조셉은 간청했다. “저와 함께 가지 않겠다면 저도 오늘 집에 가지 않겠습니다.”

결국 브리검은 마지못해 조셉을 따라 나섰다. 조셉의 집에 가보니 하이럼이 벽난로 옆에 서서 집안을 가득 채운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다. 그는 손에 성경, 물몬경, 교리와 성약을 들고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국을 세우도록 그들에게 주신 율법임을 단호하게 설명했다.

하이럼은 “이외의 것은 사람의 것이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라고 성도들에게 말했다.

그의 설교를 듣고 있던 브리검은 감정이 격해지기 시작했다. 옆에서는 조셉이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있었다. 하이럼이 말을 마치자 조셉은 팔꿈치로 브리검을 슬쩍 찌르며 말했다. “일어나십시오.”

브리검은 일어나서 하이럼이 내려놓은 경전들을 다시 집어들었다. 그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책들을 한 권씩 내려놓으며 이렇게 말했다. “살아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다면, 이 책들은 나에게 호밀 짚을 태우고 남은 재만큼도 값어치가 없습니다.”¹⁴ 그는 그들에게 후기의 선지자가 없다면, 후기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조셉 스미스를 통해 복음을 전해 주시기 이전과 비교해서 더 나을 것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설교를 마쳤을 때, 브리검은 자신의 말이 하이럼의 마음을 움직였음을 알 수 있었다. 자리에서 일어난 하이럼은 겸손히 성도들에게 용서를 구했다. 그는 브리검이 옳다고 말했다. 경전이

소중한 것은 사실이지만, 살아 있는 선지자를 대신할 수는 없었다.¹⁵

그해 봄, 조셉은 인근에 있는 소규모 스테이크들을 방문하기 위해 나부를 자주 비웠다. 선지자가 어딜 가든 새로운 서기인 윌리엄 클레이튼이 늘 그와 동행했다. 윌리엄은 영국에서 온 젊고 똑똑한 청년이었다. 윌리엄은 1840년에 아내 루스와 함께 나부로 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선지자의 서기로 고용되었다.¹⁶

4월 1일, 윌리엄은 조셉과 최근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올슨 하이드와 함께 나부에서 만나질 거리에 있는 라무스라는 마을에서 어떤 모임에 참석했다.¹⁷ 다음날 아침, 윌리엄은 올슨 하이드가 설교를 하면서 재림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거하게 하는 것은 성도들의 특권이라고 가르치는 것을 들었다.¹⁸

후에 그들이 조셉의 누이인 소프로니아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조셉이 말했다. “하이드 장로님, 몇 가지 정정해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다면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올슨이 대답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사람의 마음속에 거하신다는 것은 낡은 종파적 관념이며, 잘못된 것입니다.” 조셉이 설명했다. “우리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그대로 그분을 보게 될 것이며, 그분이 우리와 같은 사람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¹⁹

조셉은 그 대회 저녁 모임에서 그 주제를 더 깊이 가르쳤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람처럼 만져 볼 수 있는 살과 뼈로 된 몸

을 가지셨으며, 아들도 그러하십니다.” 조셉은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성신은 영의 인격체이십니다.”²⁰

윌리엄은 조셉의 설교 내용을 일기장에 최대한 많이 받아 적었다. 그는 조셉이 이야기하는 심오한 진리에 이끌렸고, 그에 관해 더 많은 것을 알고자 하는 갈망을 느꼈다.

윌리엄은 우리가 인생에서 얻은 지식과 예지는 부활이 일어날 때 우리와 함께 부활한다는 조셉의 가르침을 기록했다. 조셉은 이렇게 말했다. “만일 어느 사람이 이생에서 자신의 부지런함과 순종을 통하여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지식을 얻는다면, 장차 올 세상에서 그만큼의 유익을 얻을 것입니다.”²¹

그로부터 한 달 후, 조셉과 윌리엄은 라무스로 다시 가서 벤자민과 멜리사 존슨의 집에 머물렀다. 조셉은 존슨 부부에게 남자와 여자가 새롭고도 영원한 결혼 성약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 인봉될 수 있음을 가르쳤다. 또한 그는 신권 반차에 따른 이 성약에 들어가야만 승영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관계는 무덤 너머에서 끝날 것이며 영원한 진보와 증식도 멈추게 될 것이었다.

영원한 결혼에 관한 조셉의 설명에 윌리엄은 경외심을 느꼈다. “나는 영원한 성약 안에서 아내와 하나 되고 싶은 열망을 느낀다.”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그날이 빨리 오길 바란다.”²²

올슨 하이드가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는 것은 곧 피터와 메리 모건 가족이 나부에 있는 하이드의 집을 비워 줘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갈 곳이 없어진 그들은 성전 위원회로부터 부지를 얻어 그곳에 천막을 쳐 놓고 생활했다. 부지 대금은 피터가 성전에서

일을 하며 갇아 나가기로 했다. 메리는 영국에서 가져온 무명실을 음식과 맞바꾸었다.

피터는 곧 석공이 되었는데, 그는 성전에 쓰일 석회석 덩어리를 깎고 다듬는 일을 했다.²³ 이제 벽이 4미터 가까이 올라간 곳도 있었다. 임시 바닥도 만들어져서 성도들은 성전 안에서 모임을 할 수도 있었다.²⁴

성전은 피터와 메리가 커틀랜드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웅장해지고 있었다. 1층과 2층에는 성도들이 모여 복음을 배우는 방이 들어서고, 나부 성전 외관은 별, 달, 태양을 새긴 화려한 돌 조각으로 장식될 예정이었다. 그것은 부활에 관한 조셉의 시현에 묘사된 영광의 왕국들과, 계시자 요한이 교회를 묘사한 “해를 옷 입을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관을 썼더라”라는 구절을 상기시켜 주었다.²⁵

인부들은 여러 주 동안 마을 북쪽 채석장에서 화약을 터뜨리며 돌을 캐냈다. 그렇게 캐낸 돌은 끈을 사용해 네모난 형태로 잘라 낸 뒤 소가 끄는 수레에 실려 성전 근처 작업장까지 운반되었다. 작업장에서는 피터와 같은 인부들이 네모난 돌덩어리를 자르고 윤을 내어 적당한 크기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렇게 다듬어진 돌은 숙련된 장인들이 조각을 새겨 넣어 더욱 화려하게 장식되었다. 석조 과정을 마친 돌은 기중기로 끌어 올려 제자리에 배치되었다.²⁶

안정적인 일자리와 그들 소유의 땅이 생긴 피터와 메리는 채소밭을 가꾸고 집도 지으면서 그들 앞에 펼쳐질 안락한 미래를 꿈꾸었다.²⁷

에밀리 파트리지가 조셉에게 인봉된 지 두 달이 지났다. 그녀는 여전히 스미스 가족의 집에서 빨래와 옷 수선을 하고 아이들을 돌보며 생활하고 있었다. 그해 봄에 열두 살이 된 줄리아 스미스는 미술 수업을 받았다.²⁸ 스미스가의 소년들도 제법 성장해서 어린 조셉은 열 살, 프레드릭은 여섯 살, 알렉산더는 이제 다섯 살이 다 되어 있었다. 큰 아이들은 에밀리의 여동생 리디아와 함께 학교에 다녔고, 어린 조셉도 리디아의 아홉 살짜리 남동생 에드워드와 함께 놀았다.²⁹

조셉에게 인봉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에밀리는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있다는 자신의 간증을 신뢰했다. 에밀리와 엘리자는 그들의 결혼을 계속 비밀에 부쳤다. 복수 결혼을 행했던 사람들은 절대로 그것을 일부다처제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들이 보기에 그 용어는 세상적인 용어일 뿐 신권 의식을 일컫는 말은 아니었다.³⁰ 조셉이나 다른 누군가가 “일부다처제”나 “영적 아내”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면, 복수 결혼을 시행했던 사람들은 그 말이 자신들이 맺은 성약 관계를 지칭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했다.³¹

성경을 제외하고는 조셉이 따라야 할 본보기나 선례가 없었으며, 주님께서도 당신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에 관해 항상 세세한 지시를 주시는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다른 계명이나 계시와 마찬가지로 조셉은 스스로 내린 최선의 판단에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 그로부터 많은 세월이 지난 후, 에밀리와 다른 이들은 조셉이 복수 결혼에 어떻게 순종했는지, 그리고 그들은 나부에서 그 원리와 관련하여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기록으로 남겼다. 그들의 일화는 주로 짧고 단편적이었다.³²

하지만 조셉이나 에머는 복수 결혼에 대해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기록해 두지 않았으므로 많은 의문이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로 남아 있다. 에밀리의 기록에는 복수 결혼과 관련하여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들이 묘사되어 있다. 에머는 때로 복수 결혼을 완강히 거부하기도 했지만, 마지못해 계명으로 받아들이기도 했다. 복수 결혼을 시행하라는 주님의 명과 에머의 반대 사이에서 갈등하던 조셉은 때로 에머에게 알리지 않고 복수 결혼을 행했으므로 관련 당사자들 모두에게 괴로운 상황이 연출될 때도 있었다.³³

5월 초, 에머는 에밀리와 엘리자를 한쪽으로 데리고 가서 복수 결혼의 원리를 설명했다.³⁴ 에머는 조셉에게 아내가 될 사람을 자신이 정한다는 조건으로 두 명까지 추가로 인봉하는 데 동의하기로 했다. 그렇게 그녀가 선택한 사람은 바로 에밀리와 엘리자였다. 에머는 그들이 조셉에게 이미 인봉된 줄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았다.³⁵

에밀리는 조셉에게 이미 인봉되었음을 알리기보다는 일단 비밀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³⁶ 며칠 후에 에밀리와 엘리자는 에머를 증인으로 세운 채 다시 한번 조셉에게 인봉되었다.³⁷

5월 14일, 조셉이 다른 대회에 참석하러 떠난 사이, 하이럼은 성전에서 아내를 한 명 이상 두는 것에 반대하는 설교를 했다. 하이럼은 몰몬경에서 야곱이 승인되지 않은 복수 결혼을 비난했던 부분을 인용하면서 그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것이라고 일갈했다.³⁸

하지만 설교를 끝낸 후, 하이럼은 자신이 가르친 것이 확실한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복수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부 전

체를 휩쓸고, 조셉이 여러 아내를 두고 있다는 소문이 널리 퍼져 나갔다.³⁹

하이럼은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싶었지만, 조셉이 자신에게 뭔가 말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조셉이 그에게 복수 결혼에 관한 뜻을 내비쳤던 적도 있었다. 아마도 하이럼의 반응을 떠보고 싶었던 것이리라. 하이럼은 조셉이 자신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십이사도에게는 무언가를 말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어느 날 설교를 끝낸 직후 하이럼은 집 근처에서 브리검을 발견하고는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겠냐고 물었다.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것 중에 십이사도들은 알고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두 사람은 울타리용 가로대를 쌓아 놓은 더미 위에 앉았다. “저는 형제님이 아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제가 아는 것에 대해서는 압니다.” 브리검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저는 남자가 한 명 이상의 아내를 두어야 한다는 계시를 조셉이 받았다는 사실을 오랫동안 불신해 왔습니다.” 하이럼이 말했다.

그러자 브리검은 이렇게 답했다. “만일 형제님이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앞으로 조셉과 그의 행동과 그가 가르치는 교리에 반대하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한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이럼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했다. “온 마음을 다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진실을 알고 싶을 뿐입니다.”

브리검은 조셉이 복수 결혼에 관해 주님으로부터 어떤 계시를 받았는지를 설명했다. 하이럼은 조셉이 계명에 따라 그렇게 행했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고는 눈물을 흘렸다.⁴⁰

1843년 5월 하순, 에머와 조셉은 조셉의 상점 위층 방에서 영원을 위해 인봉되었다. 그들이 오랫동안 바라 왔던 일이 엄숙히 거행된 순간이었다.⁴¹ 그런 후 조셉은 브리검과 메리 앤 영, 윌라드와 제네타 리차즈, 하이럼과 메리 필딩 스미스, 남편을 여윈 메리의 여동생 머시 톰슨에게 다음 날 아침에 그곳으로 와 달라고 부탁했다. 그들도 같은 의식을 받게 하기 위해서였다.⁴²

모임이 있기 전, 하이럼은 자신의 복잡한 가족 상황이 염려되었다. 신권으로 함께 인봉된 사람들만 영원한 결혼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면 6년 전에 사별한 자신의 첫 번째 아내 제루샤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형님이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받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로 제루샤 형수님도 형님께 인봉될 수 있습니다.” 조셉이 말했다.

“지금의 아내는 어떻게 한단 말인가?” 하이럼이 물었다.

“지금의 형수님과도 영원한 성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특별한 인봉에서 메리는 제루샤의 대리 역할을 하는 데 동의했다. “그런 다음에 저도 당신에게 영원히 인봉될 거예요.” 메리는 하이럼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을 사랑해요. 나는 당신과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⁴³

5월 29일 아침, 조셉은 자신이 초대한 사람들과 함께 상점 뒷방에 모였고, 각 부부는 영원히 결합되도록 인봉되었다. 그 방에서 유일한 과부였던 머시 톰슨은 소외감을 떨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자신도 몇 해 전에 말라리아로 세상을 떠난 남편 로버트에게 인봉될 수 있음을 알게 된 후,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었다.⁴⁴

머시가 의식을 받을 차례가 되자 조셉은 로버트를 대리할 사람으로 그녀의 형부인 하이럼을 적극 추천했다. 조셉은 먼저 머시를 로버트에게 인봉했고, 그런 다음 메리를 제루샤의 대리인 역할로 세운 후 하이럼과 제루샤를 인봉했다.⁴⁵

브리검은 찬송가와 기도로 모임을 폐회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것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며 남은 오전 시간을 함께 보냈다. 이날의 유쾌한 화합의 분위기는 마치 지난 몇 년간 성도들을 괴롭혀 왔던 모든 것들을 달래 주는 듯했다.⁴⁶



하나님께서 심판자 되시니

1843년 6월 1일, 애디슨과 루이자 프랫 부부는 딸들과 함께 나부의 한 선착장을 향해 걷고 있었다. 애디슨은 하와이로 3년간 선교 사업을 떠나는 길이었다. 그는 막내딸 앤을 팔에 안고 있었으며, 나머지 세 딸 엘런, 프랜시스, 로이스도 침울한 표정으로 아버지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떠나 보내는 것이 두려웠다!

애디슨은 최근에 브리검 영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태평양에서 포경선을 타며 보냈던 자신의 젊은 시절과 하와이에 대해 애정을 담아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 하와이에는 교회가 들어가지 않았기에 브리검은 애디슨에게 그곳에 가서 선교부를 열면 어떻게 될는지 의사를 물어 왔다. 애디슨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간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조셉과 십이사

도들은 그에게 한 무리의 장로들을 이끌고 하와이로 가도록 부름을 주었다.²

루이자는 애디슨이 그 임무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사흘 동안 계속 울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하와이가 그녀에게는 마치 이상하고 위험천만한 세계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나부에 집 한 칸이 없었고, 돈이나 물물 교환을 할 만한 물자도 거의 없었다. 이제 딸들을 입히고 교육할 책임은 오로지 그녀의 몫이었다.

가족들과 함께 선착장으로 걸어가는 루이자는 여전히 마음이 약해져 있었지만, 애디슨이 그 부름을 받기에 합당하다는 사실만은 기쁘게 생각했다. 나부에는 남편이 복음을 전파하러 떠나는 동안 홀로 남겨지는 여성들이 많았다. 그해 여름에는 선교사들이 사방으로 떠나고 있었고, 루이자는 시련에 맞서며 주님을 신뢰하기로 다짐했다.

애디슨은 감정을 다스리려고 애를 썼다. 가족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자신을 싣고 갈 증기선 갑판에 오르며 그는 손수건을 들어 눈물을 훔쳤다. 강변에 선 딸들은 울음을 터뜨렸다. 프랜시스도 아버지를 다시는 만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³

바다에 익숙한 애디슨은 자신의 앞에 어떤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지 잘 알았다. 선교 사업을 위해 그를 성별한 십이사도는 그에게 비바람과 폭풍을 극복할 힘과 용기를 축복해 주었다. 그들은 그가 충실함을 증명한다면, 무사히 집으로 돌아와 가족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영을 통해 약속했다.⁴

며칠 뒤, 조셉의 가족은 나부를 떠나 일리노이주 덕슨에 있는
에머의 언니 집으로 갔다. 그곳은 북쪽으로 며칠을 가야 나오는
곳이었다. 에머는 떠나기 전, 앤 휘트니에게 상호부조회 여성들이
가난한 사람들과 성전을 건축하는 남성들을 돕도록 독려해 달라
고 지시했다.⁵

최근에 조셉은 성도들에게 성전 의식에 관하여 말하며 성
전을 짓는 목적은 주님이 주시는 엔다우먼트를 받기 위해서임을
가르쳤다. 에머는 자신이 그 가르침을 들은 이후 성전에 깊은 관
심을 갖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성전 건축이 서둘러 진행될 수 있
도록 상호부조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의논해 보라고 앤에게
당부했다.

에머는 “성전 위원회와 이야기해서 그분들이 바라고, 또 우
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거예요.”라고 말했다.⁶

이러한 임무를 맡은 앤은 그해의 첫 번째 상호부조회 모임을
소집하고, 여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돕기 위한 방법을 제안해
달라고 말했다. 몇몇 자매들은 기부를 요청하고 새 옷을 만들 털
실과 기타 재료를 모으는 일을 하겠다고 했다. 뜨개질, 바느질, 또
는 헌 옷 수선 등을 하겠다고 나서는 이들도 있었다. 한 여성은
나이 든 자매들에게 뜨개실을 주어 겨울에 성전 일꾼들에게 줄
양말을 만들게 하자고 제안했다.

폴리 스트링햄과 루이자 비먼은 일꾼들을 위해 옷을 만들
겠다고 했고, 메리 펠쇼는 비누를 기부하겠다고 자원했다. 필린
다 스탠리는 아마 천을 만들 아마를 기부하고, 매일 짜는 우유의
1/4을 기부하겠다고 했다. 에스터 진은 방적기로 직접 실을 뽑아
기증하기로 약속했다.

“천사들이 여러분을 보고 기뻐할 것입니다!” 체이스 자매는 주님의 집을 짓는 일에 기꺼이 힘을 보태려는 여성들의 마음을 칭찬하며 그렇게 간증했다.

그날 모임을 마치기 전에 앤은 방 안에 있던 어머니들에게 성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딸들을 준비시키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그녀는 그들을 사랑으로 가르치며, 그 성스러운 건물 안에서 진지하고 예의 있게 행동하도록 가르치라고 권고했다.⁷

6월 21일, 32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에머의 언니를 방문한 스미스 가족은 그곳에서 위급한 소식을 듣고 도착한 윌리엄 클레이튼과 스티븐 마크햄을 만났다. 미주리 주지사가 조셉에게 예전의 반역죄에 대한 혐의로 미주리에서 재판을 받을 것을 다시 요구했으며, 일리노이주의 포드 주지사 역시 선지자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조셉은 이렇게 말했다.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미주리 사람들은 저를 해할 수 없습니다.”⁸

며칠 뒤, 가족들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후기 성도 장로라 주장하는 두 명의 사내가 문을 두드렸다. 에머의 형부는 그들에게 조셉은 마당에 있는 헛간 근처에 있다고 말해 주었다.

잠시 후, 에머와 가족들은 밖에서 나는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게 되었다. 문 밖으로 달려 나간 그들은 사내들이 조셉의 가슴에 총구를 들이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한 사내가 조셉의 목살을 잡고 고함쳤다. “한 발짝이라도 움직이면 바로 쏘아 버리겠다!”

“그러시오!” 조셉은 가슴을 활짝 열어젖히며 말했다. “나는 그 총이 전혀 두렵지 않소.”

밖으로 뛰어나간 스티븐 마크햄은 사내들을 향해 돌진했다. 그들은 깜짝 놀라 스티븐에게 총구를 겨누었다가 재빨리 다시 조셉에게 총구를 돌리고는 총으로 그의 갈비뼈를 누르며 스티븐에게 소리쳤다. “멈춰!”

그들은 몸싸움을 벌이며 조셉을 마차 뒤편에 밀어 넣고는 나오지 못하게 막았다. 조셉은 “여러분, 나는 인신보호영장을 받고 싶소.”라고 말했다. 그 영장이 있으면 현지 판사가 조셉의 체포가 합법적이었는지 여부를 가릴 수 있었다.

“빌어먹을!” 그들은 권총으로 조셉의 갈비뼈를 다시 한번 세계 치며 말했다. “네겐 없어!”

스티븐이 마차로 달려들어 말의 재갈을 움켜쥔 사이 에머는 집으로 뛰어 들어가 조셉의 외투와 모자를 집어 들었다. 그 순간, 조셉의 눈에 집 앞을 지나는 한 남자가 보였다. “이 사람들이 나를 납치하려 하고 있소!” 조셉이 외쳤다. 하지만 그 남자는 계속 가던 길을 갔고, 조셉은 스티븐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라고 했다.

“어서 가시오!” 조셉은 소리쳤다.⁹

조셉을 잡으러 온 사람들은 일리노이주와 미주리주에서 온 경관들이었다. 그들은 그날 오후에 조셉을 인근 여관에 감금하고, 변호사 면회도 허락하지 않았다. 스티븐은 재빨리 조셉이 당한 학대 행위를 현지 당국에 보고했다. 당국은 경관들을 곧 납치 및 학대죄로 체포했다. 곧 스티븐은 근처 법원에서 인신보호영장을 확보했다. 그 영장에 따라 조셉은 9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열리는 공판에 참석해야 했다.

그곳의 판사가 출타 중임을 알게 된 조셉과 그를 잡으러 왔던 경관들, 그리고 그 경관들을 체포한 사람들은 법률상의 혼란을 정리해 줄 다른 법정을 찾기로 했다.¹⁰

나부에서는 조셉이 붙잡혔다는 소식을 들은 윌슨 로와 하이럼이 선지자를 구하기 위해 100여 명의 남성을 소집했다. 그들은 기병을 조직해 사방으로 다니며 선지자를 찾게 하고, 몇몇은 증기선에 태워 강 상류로 보냈다.

조셉은 자신을 구하러 오는 무리 중 두 명을 먼저 발견하고는 마음을 놓으며 경관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번에 나는 미주리로 가지 않을 것이요. 저기 내 사람들이 오고 있소.” 그 두 명은 이내 20명으로 늘어났고, 곧 더 많은 이들이 합류했다. 그들은 조셉과 경관들의 발길을 나부로 돌렸다. 그들은 나부 지방 법원에서 영장의 합법성을 가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¹¹

정오 무렵, 선지자는 법 집행관 몇 명 및 그를 구하러 온 기병들과 함께 나부 부근에 이르렀다. 아이들과 함께 먼저 나부로 돌아온 에머는 하이럼과 함께 말을 타고 나가 조셉을 맞았다. 나부 관악대가 애국심이 담긴 노래를 연주하는 가운데 시민들은 총과 대포를 발포하며 조셉의 도착을 축하했다. 곧 대초원의 꽃들로 장식된 말이 이끄는 마차 행렬이 이들 가운데로 합류했다.

길 양편에 늘어선 군중은 선지자의 무사 귀환을 기뻐하며 자신들의 앞을 지나는 행렬을 위해 선지자의 집까지 서서히 길을 터 주었다. 행렬이 선지자의 집에 도착하자 루시 스미스는 아들을 껴안았고, 조셉의 아이들은 아버지를 보기 위해 집 밖으로 달려 나왔다.

이쯤 살이었던 프레드릭은 이렇게 말했다. “아빠, 미주리 사람들이 아빠를 다시 잡아가지는 않겠죠?”

조셉은 주위에 모여든 수백 명의 성도들에게 말을 하기 위해 담장 위로 올라갔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살피 주신 덕분에 저는 미주리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다시 한번 벗어났습니다.”라고 말했다. “여러분의 친절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¹²

예상했던 대로 나부 법원에서는 조셉의 체포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이에 격분한 두 명의 체포 경관들은 주지사에게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포드 주지사는 법원의 판결을 침해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자 주 전역에 있는 성도들의 반대 세력들은 분노했다. 그들은 조셉이 다시 한번 소추를 면하게 될까 봐 두려워했다.¹³

한편, 수백 명의 성도들은 계속해서 나부와 인근 스테이크에 모여들었다. 동부에 있는 코네티컷주에서는 제인 매닝이라는 젊은 여성이 어머니와 형제들, 그리고 지부 회원 몇몇과 함께 운하선을 타고 나부를 향한 여정길에 올랐다. 이 무리의 인솔자는 그들의 지부 회장으로 봉사했던 찰스 완델이라는 선교사였다.

지부의 다른 회원들은 모두 백인이었지만, 제인과 그녀의 가족은 노예에서 해방된 흑인이었다. 제인은 코네티컷에서 나고 자랐으며, 거의 평생을 부유한 백인 부부 밑에서 일을 하며 살아왔다. 그녀는 기독교 교회에 들어갔지만, 금세 불만스러워졌다.

그러다 후기 성도 장로가 그 지역에서 설교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그의 설교를 들어 보기로 결심했다. 그녀가 다니던 교회의 목사는 그곳에 가지 말라고 말렸지만, 제인은 설교를 들으러 갔고, 자신이 참된 복음을 찾았음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몇 킬로

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그 지역의 가장 큰 교회 지부에서 그다음 일요일에 침례와 확인을 받았다.¹⁴

제인은 열성적인 새로운 개종자였다. 침례를 받고 3주가 지난 뒤, 그녀는 기도하는 중에 방언의 은사를 경험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그녀와 가족들은 시온을 향한 집합의 길을 걷고 있었다.¹⁵

제인과 가족은 무사히 뉴욕을 지나 운하에 도착했다. 그들은 그곳에서 지부 회원들과 합류하여 오하이오를 지나 일리노이까지 남쪽으로 여행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운하 관리 직원들은 매닝 가족이 운임을 지불하지 않으면 여행을 계속할 수 없다고 통보해 왔다.

제인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오하이오에 닿을 때까지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었다. 그런데 왜 지금 당장 운임을 지불해야 한다고 하는 것일까? 백인인 지부 회원들은 아무도 운임을 선불로 내라는 요구를 받지 않았다.

매닝 가족은 가진 돈을 세어 보았지만, 운임을 지불하기에는 부족했다. 그들은 완텔 장로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그마저도 거절당했다.

배는 출항을 시작하여 곧 시야에서 사라졌다. 제인과 가족들은 수중에 남은 돈도 거의 없었을 뿐더러 나부까지는 아직 1,300여 킬로미터 이상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맨몸으로 서부 여정에 오른 제인은 몇 안 되는 자신의 일행을 시온으로 이끌기로 마음을 다잡았다.¹⁶

7월 12일 아침, 윌리엄 클레이튼이 조셉의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조셉과 하이럼이 들어왔다. 하이럼이 조셉에게 말했다. “네가 계시를 기록하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 가서 에머에게 읽어 줄게. 에머에게 그 계시가 참되다는 것을 확신시킬 수 있을 거야. 그러면 너도 평안히 지낼 수 있겠지.”

하지만 조셉은 이렇게 대답했다. “형님은 에머를 잘 모르세요.” 그해 봄과 여름에 조셉은 에머가 직접 선택한 몇몇 여성을 포함한 여러 여성들과 인봉되었다.¹⁷ 하지만 에머가 조셉이 아내들을 선택하는 것을 도왔다고 해서 그 원리에 쉽게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니었다.

“이 교리는 아주 간단해.” 하이럼이 말했다. “분별력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이 계시가 참되고, 순수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납득할 수 있어.”

“그렇다면 한번 지켜보죠.” 조셉은 윌리엄에게 종이를 꺼내 자신이 구술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록해 달라고 부탁했다.¹⁸

그 계시의 많은 부분은 조셉이 이미 전에 계시로 받은 적이 있는 내용이었다. 이는 영원한 결혼의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과 그에 따른 축복과 약속에 관한 계시였다. 이 계시에서 주님은 복수 결혼에 관한 조건도 언급하셨는데, 그것은 조셉이 이미 1831년에 성경을 번역하며 알게 된 것들이었다. 계시의 나머지 부분은 조셉과 에머에게 주는 새로운 권고로, 복수 결혼에 관한 그들의 질문과 현재 그들이 겪는 고충에 관한 내용이었다.

주님께서는 결혼이 사후에도 계속되기 위해 남자와 여자는 신권 권세로 결혼해야 하며, 그들의 성약은 약속의 성령으로 인봉되어야 하고, 그들은 성약에 충실해야 한다고 계시하셨다. 또

한, 그분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이들은 승영이라는 영광스러운 축복을 상속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¹⁹

주님께서서는 “그때에 그들은 신이 되리니, 이는 그들에게 끝이 없음이라.”라고 선포하셨다. “그때 그들은 만물 위에 있으리니, 이는 만물이 그들에게 복종함이라.”²⁰

주님께서서는 계속해서 복수 결혼에 대해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이 충실할 경우 셀 수 없이 많은 후손을 축복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성약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다.²¹ 주님께서서는 태초부터 당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한 남성과 한 여성 사이의 결혼을 성임하셨다. 하지만 의로운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그들의 승영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주님께서 복수 결혼을 허락하신 때도 있었다.²²

이 계시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주어진 것이었지만, 계시의 마지막 부분에는 조셉의 복수 아내들과 관련하여 에머에게 주는 권고도 언급되어 있었다. 주님께서서는 이렇게 지시하셨다. “그리고 나의 여종 에머 스미스는 나의 종 조셉에게 주어진 사람 ... 모두를 받아들이라.” 그분은 에머에게 조셉을 용서하고, 그와 함께 지내며, 자신의 성약을 지키라고 명하셨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그녀는 축복을 받고 번성하게 되며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주님께서서는 또한 성약을 깨트리고 주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닥칠 무서운 결과에 대해 에머에게 경고하셨다.²³

조셉이 구술한 그 계시는 10쪽 분량이었다. 윌리엄은 펜을 내려 놓고 자신이 기록한 계시를 조셉에게 읽어 주었다. 조셉은 계시가 정확하게 쓰였음을 확인했으며, 하이럼은 그것을 가지고 에머에게로 갔다.²⁴

하지만 그날 오후에 조셉의 사무실에 돌아온 하이럼은 그렇게 심한 말을 들어 본 것은 정말이지 난생처음이라고 이야기했다. 그가 계시를 읽어 주자 에머는 분노하며 계시를 거부했다고 했다.

“형님은 에머를 모른다고 했잖아요.” 조셉이 나직이 말했다. 그는 계시가 적힌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집어넣었다.²⁵

다음 날, 조셉과 에머는 오랫동안 가슴이 미어지는 대화를 나누었다. 정오가 되기 전, 조셉은 윌리엄 클레이튼을 방으로 불러 중재를 요청했다. 조셉과 에머 둘 다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같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너무도 사랑하고 끔찍이 아꼈으며, 자신들이 맺은 영원한 성약을 지키고자 했다. 하지만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노력이 이제 그들을 갈라놓고 있었다.²⁶

에머는 특히 미래를 걱정하는 듯했다. 조셉의 적들이 복수 결혼에 대해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다시 감옥에 갇히면? 그가 살해되더라도 한다면? 에머와 아이들은 조셉에게 의지해 생활하고 있었지만, 사실 가족의 재정은 교회의 재정과 얽혀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조셉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단 말인가?

조셉과 에머는 이야기를 나누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날 저녁 무렵 그들은 해결책에 도달했다. 에머의 재정적 안정을 위해 조셉은 그녀와 아이들에게 재산 일부를 양도했다.²⁷ 그리고 그해 가을을 끝으로 조셉은 더는 복수 결혼을 하지 않았다.²⁸

1843년 8월 말, 스미스 가족은 강 근처에 있는 2층짜리 집으로 이사했다. 나부 맨션이라고 불렸던 그 새 집은 그들의 네 자녀와 조셉의 연로한 어머니, 그리고 그들을 위해 일하며 함께 숙식하

는 사람들이 다 지낼 수 있을 만큼 널찍했다. 조셉은 그 집의 많은 공간을 호텔로 사용할 계획이었다.²⁹

몇 주 뒤에 가을로 접어들 무렵, 제인 매닝과 그녀의 가족이 선지자를 만나고 그들이 지낼 곳을 구하기 위해 조셉과 에머의 집을 찾아왔다. “들어오세요!” 에머는 지친 일행을 맞아 주었다. 조셉은 그날 밤을 보낼 수 있는 곳으로 그들을 안내했다. 그들은 모두 함께 의자에 둘러앉았다.

“자매님이 이 작은 무리를 이끌고 오셨군요, 그렇죠?” 조셉이 제인에게 말했다. “여기까지 오면서 겪으신 일들을 좀 들려주시겠어요?”

제인은 조셉과 에머에게 뉴욕에서부터 시작된 자신들의 기나긴 여정을 이야기했다. “신발이 다 닳고, 발에 물집이 잡히고 터져 피가 날 때까지 걸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시작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저희 발을 낫게 해 달라고 간구했죠. 기도는 응답되었어요. 우리의 발이 다 나았거든요.”

그들은 별빛 아래에서, 아니면 길가에 있는 헛간에서 잠을 잤다. 도중에 만난 사람들은 그들이 도망한 노예가 아님을 증명하는 “해방 증서”가 없다는 이유로 그들을 감옥에 가두겠다고 위협했다.³⁰ 그들은 간혹 다리가 없는 깊은 개울을 맨몸으로 건너고, 칙흑 같은 밤과 서리가 내리는 추운 아침을 견디며 서로를 도왔다. 나부 부근에 다다랐을 때, 이들은 아픈 아이에게 병자 축복을 했고, 그 아이는 그들의 신앙으로 치유되었다.

제인은 자신들의 여정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여기까지 오면서 기쁘게 찬송가를 부르고, 하나님의 무한한 선하심과 자비에 감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조셉이 말했다.
“여러분은 이제 우리의 친구입니다.”

매닝 가족은 스미스 가족의 집에서 일주일을 머물렀다. 그 동안 제인은 나부행 배편로 부쳤던 자신의 짐 가방을 찾으려 했지만, 가방은 도중에 없어져 버렸는지, 아니면 누가 훔쳐갔는지 행방이 묘연했다. 그녀의 가족들은 곧 일할 곳과 살 곳을 마련해서 거처를 옮겼다.

어느 날 아침, 조셉은 제인이 울고 있는 것을 보고 연유를 물었다. 그녀는 “사람들이 모두 집을 얻어 떠나 버렸어요. 그런데 저는 아직도 갈 곳이 없어요.”라고 말했다.

조셉은 그녀에게 “자매님이 원한다면 이곳에서 함께 생활해도 좋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제인을 데리고 어머니에게 가서 상황을 설명했다. “제인이 지낼 곳이 없다는군요. 제인도 우리 집에서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그럼요, 제인이 원한다면 얼마든지요.”라고 대답했다.

제인은 금세 이 바쁜 가족의 일원이 되었고, 조셉의 가족과 그곳에서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 역시 제인을 환영했다. 제인은 짐 가방을 찾지 못했지만, 조셉과 어머니가 곧 상점에서 그녀에게 새 옷들을 사 주었다.³¹

그해 가을, 가족들이 새로운 집에 적응해 사는 동안 복수 결혼에 대한 어머니의 고민은 점점 더 깊어 갔다.³² 13년 전에 주님께 받은 계시에서 그녀는 계속해서 성약과 계명을 지키면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리라는 약속을 받았었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때 이렇

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를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있는 곳에 너는 올 수 없느니라.”³³

에머는 자신이 조셉과, 그리고 주님과 맺은 성약을 지키고자 했다. 하지만 이따금 복수 결혼은 자신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벅찬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에머는 조셉이 복수 결혼을 한 몇몇 아내들에게 자신의 집에 들어와 함께 생활하는 것을 허락하기는 했지만, 그들을 볼 때면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들을 불쾌히 대할 때도 있었다.³⁴

결국, 에머는 에밀리와 엘리자 파트리지에게 자신의 집에서 영영 떠날 것을 요구했다. 에머는 조셉을 옆에 두고 그 자매들을 방으로 불러 그와의 관계를 즉시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³⁵

자신이 버림을 받았다고 느낀 에밀리는 방을 나서며 에머와 조셉에게 분노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을 향해 이렇게 되뇌었다.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하찮게 여겨선 안 돼.” 그녀는 에머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했지만, 결혼 성약을 깨트리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자매들을 뒤쫓아 방 밖으로 나간 조셉은 계단 아래에서 에밀리를 만났다. “에밀리, 괜찮니?” 조셉은 말했다.

조셉을 힐끗 본 에밀리는 이렇게 대답했다.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저 같은 기분이 들 거예요.” 조셉은 금방이라도 땅 속으로 곤두박질 칠 것처럼 보였다. 에밀리는 조셉이 측은해 보였다. 그녀는 무슨 말을 더 하려고 했지만, 그러기도 전에 조셉은 먼저 방 밖으로 나가 버렸다.³⁶

수십 년이 흐른 뒤, 그때보다 더 나이가 든 에밀리는 당시의 고통스러웠던 나날들을 회상했다. 복수 결혼에 대한 에머의 복잡한 심경과 그것이 그녀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 그녀는 이렇게 기록했다.³⁷

“당시에 복수 결혼을 한다는 것은 에머는 물론 누구에게라도 힘들었을 것이다. 그 상황에서 에머보다 더 잘할 수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³⁸

에밀리의 기록은 다음과 같은 말로 끝이 난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시나니.”³⁹



어깨를 맞대고

1843년 11월 초, 피비 우드럽은 동부 지역에서 넉 달간의 선교 사업을 마치고 돌아온 윌포드를 반갑게 맞이했다. 윌포드는 가족에게 줄 선물과 피비와 자녀들이 머물고 있는 *Times and Seasons*(타임즈 앤드 시즌스) 사무실에 필요한 인쇄용품들을 마차에 한가득 싣고 돌아왔다.¹

지난 7월에 딸을 출산한 피비는 한 달 전부터 남편이 돌아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금슬이 좋은 윌포드 부부는 선교 사업을 하느라 떨어져 지내야 하는 것이 싫었다. 다른 사도 부부들과 달리 현세와 영원을 위한 인봉을 아직 받지 못한 그들은 하루빨리 그 의식을 받고 싶어 했다.

윌포드가 집을 떠나 있는 동안 피비는 남편에게 보낸 편지에서 영원한 세상에서 그들의 사랑에 금이 갈 수도 있다고 생각

하는지 묻은 적이 있었다. 윌포드는 그에 대한 답으로 그들의 사랑이 무덤 너머에서 더욱 깊어지기를 바라는 시를 써서 보냈다.²

윌포드가 돌아온 지 일주일인 지난 11월 11일, 우드럽 부부는 존과 리어노라 테일러의 집을 방문했다. 그곳에서 하이럼 스미스는 부활, 속죄, 그리고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을 통한 승영에 관해 가르쳤다. 그런 다음 그는 현세와 영원까지 함께할 수 있도록 피비와 윌포드를 인봉했으며, 이들은 다 함께 행복한 저녁 시간을 보냈다.³ 우드럽 부부는 곧 엔다우먼트를 받을 준비를 시작했다.

가을이 시작될 무렵, 조셉은 일 년 만에 다시 성도들에게 엔다우먼트 의식을 베풀기 시작했다. 그는 전에 약속한 대로 여성들에게도 엔다우먼트 의식을 베풀었으며, 9월 28일에는 나부 맨션 하우스에서 에머에게 엔다우먼트를 집행했다.⁴ 그로부터 얼마 후, 에머는 제인 로와 로잔나 마크스, 엘리자베스 더피와 메리 필딩 스미스에게 씻음 및 기름 부음 의식을 집행했다. 후기에 여성이 성전 의식을 집행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⁵

에머는 그후로 몇 주에 걸쳐서 루시 스미스, 앤 휘트니, 머시 톱슨, 제네타 리차즈, 리어노라 테일러, 메리 앤 영을 비롯한 여러 자매들에게 이 의식을 베풀었다. 얼마 후부터는 다른 여성들도 에머의 감독에 따라 의식을 집행하기 시작했다.⁶

피비와 윌포드는 12월에 씻음과 기름 부음 및 엔다우먼트를 받았다.⁷ 그해 말까지 엔다우먼트를 받은 남성과 여성은 모두 42명에 달했으며, 이들은 조셉의 상점 위층 방에 자주 모여 함께 기도하고 영원한 것들에 관해 가르침을 받았다.⁸

윌리엄 로는 그해 가을 동안 엔다우먼트를 받은 성도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면서도 자신이 간음죄를 저지른 사실을 조셉과 하이럼에게 숨겼다. 간음을 저지른 윌리엄은 자신의 영혼을 죄로 더럽혔다고 느꼈다.⁹

그 무렵, 하이럼은 결혼에 관한 계시의 사본을 윌리엄에게 건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사본을 집으로 가져가서 읽어 보십시오. 조심히 다루고, 읽고 난 후에 다시 가져다주십시오.” 윌리엄은 계시를 읽어 본 후 그것을 아내 제인에게 보여 주었다. 그는 그것이 진짜 계시인지 의심했으나 제인은 반대로 그것이 진짜 계시임을 확신했다.

윌리엄은 그 계시를 조셉에게로 가져갔고, 조셉은 그것이 진짜 계시임을 확인해 주었다.¹⁰ 윌리엄은 조셉에게 이 계시를 더는 가르치지 말라고 간청했지만, 조셉은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복수 결혼을 가르치라고 명하셨으며, 그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정죄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간증했다.¹¹

어느 순간에 윌리엄은 자신의 죄에 환멸을 느꼈고, 마침내 하이럼에게 진실을 털어놓았다. 그는 자신이 살 자격도, 그렇다고 죽을 자격도 없는 것만 같다고 토로했다. 그래도 제인과 영원히 인봉되고 싶었던 그는 조셉에게 그것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조셉은 그 문제를 주님께 여쭙었고, 주님께서 윌리엄이 간음을 저질렀으므로 그 의식을 받을 수 없다는 계시를 답으로 주셨다.¹²

이 일로 윌리엄의 마음에는 조셉에 대한 분노가 싹트기 시작했다.¹³ 12월 하순부터 윌리엄과 제인은 엔다우먼트를 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모임에 발길을 끊었다.¹⁴ 제인은 재산을 조용히 처

분하고 그냥 나부를 떠나자고 제안했으나 윌리엄은 조셉을 짓밟고 싶어 했다.¹⁵ 그는 선지자를 반대하는 이들과 은밀히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고, 얼마 못 가서 제일회장단의 직책을 잃게 되었다.

윌리엄은 마침내 조셉과 연을 끊을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나부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가자는 제인의 제안을 외면한 채 선지자에게 대적하여 그를 끝장내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혔다.¹⁶

윌리엄 로의 배도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조셉에게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었다. 조셉은 1844년 초, 어느 쌀쌀한 일요일에 회중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여러 해 동안 성도들이 하나님의 것들을 받을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모든 고난을 겪고 나서도 자기네 관습에 반대되는 것에 부딪히면 그 즉시 유리처럼 산산조각으로 부서지고 마는 사람들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교회가 조직된 이후로 조셉은 자신이 가르치는 원리에 동의하지 않거나 자신이 선지자로서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신앙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을 보아 왔다. 그들 대부분은 조용히 교회를 떠났지만, 에즈라 부스, 워렌 패리쉬, 존 베넷처럼 교회를 떠난 후 선지자와 교회, 그리고 교회의 가르침에 대적하여 싸우다 급기야 성도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지경에 이르는 자들도 종종 있었다. 윌리엄이 그중 어떤 길을 걷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였다.

한편, 조셉은 성도들이 성전에서 행하는 구원 의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키는 일을 계속해 나갔다. “이 성전이 당

장 완공되어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볼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조셉은 그곳에 모인 많은 성도들에게 말했다. “저는 모든 성도들이 살아 있는 친척들을 모두 이곳으로 모이게 하여 그들이 인봉되고 구원받도록 힘써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¹⁷

그러나 그것은 성도들이 성전을 완공해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조셉은 알고 있었다. 조셉은 나부 주변 지역에서 커져 가는 갈등이 벌써부터 걱정스러웠다. 작년 여름에 있었던 일리노이주 선거 이후 조셉을 비방하는 사람들은 그가 성도들의 표심을 흔들다고 비난하며 시위를 했다. “그런 자는 가장 위험한 인물이 될 것이 틀림없지. 그렇게 큰 무리를 이끌어 왔던 자니 특히 더 그렇지 않겠나.”¹⁸

긴장이 얼마나 단시간에 고조될 수 있는지 잘 아는 조셉은 사회에서 성도들을 방어해 줄 지원 세력이 중앙 정부 내에 있기를 바랐다. 몇 달 전에 조셉은 다가오는 대선에 나선 대통령 후보 다섯 명에게 서신을 보내어 미주리주에서 성도들이 입은 손실에 대한 배상을 받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이에 그중 세 명의 후보가 답신을 보내왔는데, 두 명은 배상 문제는 대통령 차원이 아니라 주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고, 나머지 한 후보는 성도들에게 동조하는 듯했으나 이렇다 할 확답을 주지는 않았다.¹⁹

후보들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낙담한 조셉은 결국 자신이 직접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비록 선거에서 이길 확률은 희박했지만 그는 이 기회를 통해 성도들의 고충을 널리 알리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 온 이들의 권리를 옹호하고자

했다. 조셉은 수백 명의 성도들이 미 전역에서 자신을 위해 선거 운동을 해 줄 것으로 기대했다.

1844년 1월 29일, 십이사도 정원회는 조셉을 대통령 후보로 공식 지명했으며, 조셉은 이를 수락했다. 그는 이렇게 공약했다. “제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사람들의 권리와 자유를 수호하겠습니다.”²⁰

그 무렵, 애디슨 프랫은 남아프리카 해안 부근에서 포경선에 몸을 싣고, 바다로 내린 작은 배 네 척에 나눠 탄 선원들이 전력으로 노를 저으며 큰 고래를 뒤쫓는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선원들이 고래 옆으로 배를 바짝 붙이고 작살을 꽂았으나 고래는 등에 작살을 맞고서도 물속 더 깊은 곳으로 잠수해 들어갔고, 그 바람에 배들은 산더미 같은 파도 위로 솟구쳐 올라갔다.

고래는 작살에 연결된 밧줄을 순식간에 끊어 버리고서 다시 포경선 가까이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 광경을 더 잘 보기 위해 돛대 꼭대기로 올라간 애디슨은 이 거대한 생명체가 살 속 깊숙이 박힌 두 개의 작살을 빼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울부짖으며 물을 뿜어 대는 것을 생생하게 보았다. 배가 가까이 접근하자 고래는 공격을 피해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멀찍이 떨어진 곳의 수면 위로 다시 떠올랐다. 선원들이 다시 한번 고래를 쫓았으나 고래는 금세 멀리 달아나 있었다.

이 추격전을 지켜보면서, 애디슨은 나부로 이주한 지 얼마 안 되어 받았던 축복사의 축복을 떠올렸다. 하이럼 스미스는 그 축복

에서 애디슨이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며 지상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었다. 축복을 마치고 하이럼은 이렇게 말했다. “아무래도 형제님은 고래잡이를 나가셔야 할 듯합니다.”²¹

애디슨과 동료 선교사들이 바다에 나온 지 벌써 몇 달이 지나고 있었다. 그들은 대서양을 가로질러 남쪽으로 내려간 후 희망봉을 돈 다음, 호주 너머의 섬들까지 갈 계획이었다. 하와이행 배를 찾지 못한 그들은 하와이보다 더 남쪽에 있는 타히티행 포경선 표를 예약했다. 항해는 일 년 가까이 걸릴 예정이었으며, 애디슨과 동료 선교사들은 이미 선원들과 회복된 복음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포경선을 타고 가는 낮 시간은 대부분 즐겁게 보냈지만, 밤이 되면 애디슨은 악몽에 시달리기도 했다. 하루는 조셉과 성도들이 탄 배가 폭풍 속으로 휩쓸려 가는 꿈을 꾸었는데, 배가 모래톱을 지나면서 바닥에 부딪혀 선체가 갈기갈기 찢어지고, 배안으로 물이 쏟아져 들어와 뱃머리가 가라앉기 시작했다. 꿈에서 일부 성도들은 물에 빠져 죽었으며, 침몰하는 배에서 간신히 빠져 나온 이들도 굶주린 상어에게 잡아 먹히고 말았다.²²

또 어느 날에는 자신의 가족과 교회가 나무를 떠나는 꿈을 꾸기도 했다. 꿈에서 애디슨은 한참 그들을 찾아 헤맨 끝에 비옥한 분지에 정착한 그들을 발견했다. 루이자와 아이들은 언덕 위 조그만 오두막에 살고 있었고, 그 주변으로는 경작된 밭이 펼쳐져 있었다. 아내는 애디슨을 반갑게 맞이했고, 함께 걸으면서 외양간과 밭 위쪽에 있는 소 목초지를 보여 주기도 했다. 뜰에는 울

타리가 없어 돼지들이 말썽을 피우고 있었지만, 루이자는 집을 잘 지키는 충견을 키우고 있었다.²³

애디슨은 이런 꿈을 꿀 때마다 가족이 염려되었고, 적들이 성도들을 또다시 괴롭힐까 봐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²⁴

그해 겨울, 머시 필딩 톰슨과 메리 필딩 스미스는 성전 기금 마련을 위해 나부 여성들을 대상으로 동전을 모금했다. 지난해 말에 머시는 시온을 세우는 일을 돕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알고자 기도하던 중 동전 모금을 시작하라는 영감을 받았다. “성전에 쓸 유리와 못을 사기 위해 자매들에게 일주일에 1센트씩 기부하도록 독려하라.”라는 속삭임이 들렸다.

머시가 그 방안을 제의하자 조셉은 추진을 권하면서 주님께서 그녀를 축복해 주시리라고 말했다. 여성들은 머시의 계획을 열렬히 지지했다. 머시와 메리는 매주 동전을 모금했으며,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한 여성들의 이름을 정성스레 기록했다.

하이럼도 모금에 참여한 여성들을 도우며 제일회장단의 전폭적인 지지를 전했다. 그는 동전을 기부한 모든 여성의 이름을 주님의 율법의 책에 기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것은 조셉과 서기들이 십일조와 계시 및 다른 성스러운 것들을 기록하는 책이었다.²⁵

나부에서 동전 모금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후, 자매들은 영국에 있는 *Millennial Star*(밀레니얼 스타)지 사무실로 편지를 보내어 그곳에 있는 교회 자매들에게도 동전 모금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성전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매주 소액을 기부하는

모금 운동을 시작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미 천 명이 이 일에 동참해 주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여성이 참여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이 위대한 사업을 진척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²⁶

곧 영국 선교부에 있는 자매들이 보낸 동전들이 바다를 건너 나부에 도착하기 시작했다.

조셉은 윌리엄 펄프스의 도움을 받아 무소속 대통령 후보 선거 공약을 만들었고, 전국적으로 공약을 홍보할 소책자 초안을 작성했다.²⁷ 그는 대통령에게 더 많은 권력을 부여하여 폭도들을 진압하고, 노예 소유주에게 보상금을 주어 노예를 해방하며, 교도소를 배움과 교화의 장소로 변화시키고,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완전한 동의를 받아 나라의 서쪽 경계를 넓힐 것을 제안했다. 조셉은 자신이 후기 성도만이 아니라 만민의 옹호자임을 유권자들에게 알리고 싶었다.²⁸

그는 신정 민주주의를 시행하면 재림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킬 정의롭고도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믿었다. 그가 말하는 신정 민주주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를 이루며 살겠다는 선택을 하는 사회를 의미했다. 또한, 그는 선거 운동이 실패해 억압당하고 짓밟히는 이들이 보호받지 못한 채 방치될 상황에 대비하여, 마지막 때에 그들을 보호할 장소를 미국이 아닌 다른 지역에 마련하고 싶어 했다.

미주리주와 일리노이주에서 끊이지 않는 위협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조셉은 최근 서부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었다. 나부를 떠날 생각은 아니었지만, 그는 나부가 수용할 수 있는 규모 이상으로 교회가 성장하리라고 기대했다. 조셉은 성도들이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고, 복천년까지 주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공정한 법률을 제정할 곳을 찾고 싶었다.

그는 캘리포니아와 오리건, 텍사스 등을 생각했다. 당시만 해도 그곳은 모두 미국의 국경 밖에 있는 지역이었다. “대표단을 파견해 그 지역들을 조사해 보십시오.” 그는 십이사도에게 지시했다. “성전이 완공된 후 우리가 이주하여 단시일에 도시를 세우고 건전한 환경에서 우리만의 정부를 세우기에 좋은 장소를 찾아보십시오.”²⁹

3월 10일과 11일, 선지자는 지상에 주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일을 감독할 새로운 평의회를 구성했다.³⁰ 이 평의회는 하나님의 왕국 평의회 또는 오십인 평의회로 알려졌다. 조셉은 평의회 안에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길 바랐으며, 구성원들에게 각자의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도록 격려했다.

첫 번째 모임을 휴회하기 전에 평의회 구성원들은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새로운 헌법에 따라 자신들만의 내각을 구성하는 것에 관하여 열정적인 토론을 벌였다. 그들은 그것이 사람들에게 깃발이 되어,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분의 자녀들을 모으시고자 여러 나라들을 향해 기치를 세울 것이라는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할 것이라 믿었다.³¹

이 시기에 교회 지도자들과 모임을 할 때면 조셉은 무거운 표정을 지을 때가 많았다. 그는 무언가 중요한 사건이 곧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원수들이 저를 죽일지도 모릅니다. 제게 있는 열쇠와 권능을 여러분에게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지상에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는 모든 신권 열쇠를 십이사도에게 넘겨 주어야만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그래야 주님의 사업이 계속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³²

“지금부터 이 교회를 인도하는 책임은 십이사도의 어깨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도 이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게 될 것입니다.” 그는 사도들을 향해 말했다. “그렇게 해서 이 권능과 열쇠들은 이 지상에서 영원히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조셉은 앞에 놓인 길이 순탄치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십시오.” 조셉은 말했다. “설령 목숨을 빼앗긴다 해도 적들이 여러분에게서 앗아갈 수 있는 것은 그 이상은 없습니다. 위협과 죽음의 문턱으로 걸어 들어갈 때 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돌아가셨습니다.”³³

조셉은 사도들의 머리 위에 인봉 권능의 성스러운 열쇠를 포함하여, 자신이 없더라도 주님의 사업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모든 신권 열쇠를 인봉했다.³⁴ “저는 이 교회를 인도하는 의무와 책임을 제 어깨에서 여러분의 어깨 위로 넘겨드립니다.” 선

지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 서로 어깨를 맞대고 그 아래에 당당하게 서십시오. 주님께서서는 잠시 저를 쉬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조셉의 얼굴에 드리웠던 그늘은 사라져 버렸다. 그의 얼굴은 맑고 권능으로 충만했다. “저는 마치 코르크처럼 가벼운 느낌입니다. 저는 자유로움을 느낍니다.” 조셉은 형제들에게 말했다. “저를 건져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³⁵



사회적 골칫거리

윌리엄 로는 제일회장단에서 해임된 후 줄곧 조셉을 피해 다녔다. 1844년 3월 말에 하이럼이 두 사람을 화해시켜 보려고 했지만, 윌리엄은 선지자가 복수 결혼을 계속 지지하는 한 관계 회복은 없다고 못 박았다.¹ 그 무렵, 조셉은 윌리엄을 비롯한 마을의 몇몇 사람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²

조셉은 음모에 가담한 사람들에게 대해 담대히 말했다. “저는 그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알을 품은 늙은 암탉을 쫓아내지 못할 것입니다.”³ 그러나 그는 나부에서 반대 세력이 커져 가는 것에 대한 걱정을 감출 수 없었다. 죽음의 위협이 피부로 다가오자 그는 성도들에게 가르침을 전할 시간이 끝나 가고 있음을 실감했다.⁴

그해 봄에 조셉에 대한 살해 음모를 꾸미던 자들이 교회의 회원인 에머 해리스와 그의 열아홉 살 된 아들 데니슨을 자신들의 모임에 초대했다. 에머 해리스는 이 사실을 조셉에게 알렸다. 조셉은 말했다. “해리스 형제님, 그런 모임에 참석하지도, 그들에게 관심을 두지도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조셉은 해리스 형제에게 데니슨을 그 모임으로 보내어 그들에게 대응할 방법을 알아 보게 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나중에 조셉은 데니슨과 그의 친구 로버트 스콧을 만나 그 임무를 위해 두 사람을 준비시켰다. 공모자들의 위험성을 알기에, 선지자는 두 청년에게 가능하면 모임에서 말을 아끼고 누구의 기분도 상하게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다.⁵

1844년 4월 7일, 연차 대회 둘째 날에 조셉은 음모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고 성도들을 향해 말씀을 전했다. 그가 연단에 설 때, 회중 사이로 한 줄기 세찬 바람이 불어 들었다. 그는 요란한 바람 소리 속에서 회중을 향해 말했다. “정신을 집중하지 않으면 제 말을 듣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그는 최근에 세상을 뜬 자신의 친구 킹 폴레트에 관해 이야기하며 소중한 사람을 잃은 모든 사람에게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⁶

선지자는 다음 세상에서 어떤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모든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다. 그는 잠시라도 영적인 휘장을 걷고 하나님의 본성과 성도들의 신성한 잠재력에 관해 가르치고 싶었다.

그는 성도들에게 물었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실까요?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분의 모습을 보거나 음성을 듣거나 그분과 대화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조셉은 잠시 회중에게 생각할 시간을 준 뒤 말을 이었다. “만약 오늘 휘장이 걷힌다면, 그리하여 세상이 그 궤도를 따라 돌게 하시고 권능으로써 만물을 유지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오늘 보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분이 온전한 사람의 형상을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조셉은 성도들이 지식을 구하고 성약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마련하신 궁극적인 계획을 성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작은 단계에서부터 시작하여 한 단계씩 오르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며 승영에 승영을 더한다면, 영원한 권능의 보좌에 앉은 이들처럼 여러분도 영광 중에 앉을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이 죽음을 이긴다는 진리를 다시금 일깨워 주었다. “사랑하는 이를 잃고 통곡하는 이들이 지상에서 입었던 육신이 사라지더라도, 슬픔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불멸의 영광을 입고 다시 살아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을 안다면, 얼마나 큰 위안이 되겠습니까?”

이는 많은 인내와 신앙, 배움이 필요하며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선지자는 성도들을 안심시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 모든 것을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덤으로 간 뒤에도 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설교 막바지에 선지자는 사색에 잠겼다. 그는 세상을 떠난 가족과 친구들에 관해 이야기했다. “그들은 단지 잠시 우리 곁을 떠난 것뿐입니다. 그들은 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곳을 떠날 때 우리의 어머니와 아버지, 친구,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이와 인사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조셉은 어린아이를 잃은 어머니들에게 그 자녀들과 다시 만나게 될 것임을 확약해 주었다. 또한 그는 영원한 세상에서 성도들은 더는 폭도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이며 기쁨과 행복 속에 거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⁸

이날 성도들 앞에 선 조셉은 숲에서 지혜를 구하던 그 미숙하고 배운 것 없는 농촌 소년이 아니었다. 주님께서는 마치 돌을 다듬듯 하루하루, 해가 갈수록 서서히 조셉을 다듬어 친히 손에 들고 사용하실 더 훌륭한 도구로 변모시키셨다.⁹ 그러나 성도들은 조셉의 삶과 사명을 거의 이해하지 못했다.

조셉은 말했다. “여러분은 제 마음이 어떤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제가 살아온 삶을 믿지 않으셨지만 저는 여러분을 탓하지 않습니다. 저도 직접 겪지 않았더라면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언젠가 자신의 삶이 평가된 후에 성도들이 자신을 더 잘 알게 되기를 바랄 뿐이었다.

조셉이 말씀을 마치고 자리에 앉자, 합창단이 찬송가를 불렀다. 조셉의 설교는 거의 두 시간 반 동안 이어졌다.¹⁰

성도들은 그의 설교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충만한 영을 느꼈다. 엘런 더글러스는 연차 대회가 끝나고 일주일 후, 영국에 있는 부모님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 “그 가르침을 들었을 때 우리

의 가슴에는 기쁨이 가득했어요.” 엘런 부부와 그 자녀들은 1842년에 배를 타고 영국을 떠나 나부로 온 첫 번째 개종자 무리의 일원이었다. 그들은 조셉이 그 설교에서 가르친 진리를 들으면서 자신들이 성도들과 함께 집합하기 위해 그토록 큰 희생을 치렀던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

많은 영국인 개종자들이 그랬듯이 더글러스 가족도 그간 모아 둔 돈의 대부분을 이주 비용으로 모두 써 버려서 생활이 곤궁했다. 엘런의 남편인 조지는 나부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숨을 거뒀으며, 엘런도 고열에 시달리느라 여덟 명의 자녀를 돌볼 길이 없었다. 얼마 후 한 친구는 엘런에게 상호부조회에 도움을 구해 보라고 귀뜸을 해 주었고, 엘런은 나부에 도착한 후 상호부조회에 들어갔다.

연차 대회가 끝난 후 부모님 앞으로 보낸 편지에서 엘런은 이렇게 말했다.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친구는 제가 도움도 필요하고 또 오랫동안 앓았으니, 제가 손 놓고 있으면 자기도 나서겠다고 했죠.” 엘런은 자녀들에게 옷가지를 비롯해 많은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결국 상호부조회의 한 회원에게 도움을 구하기로 했다.

엘런은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 자매님은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그런 다음, 세상 어느 곳에서도 받아 본 적이 없는 선물을 짐마차로 가져다주었죠.”

엘런은 자녀들과 함께 땅을 빌려 소를 기르고 여남은 마리의 닭을 키우며 자신들 소유의 땅을 장만하기 위해 돈을 모았다. 엘런은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했다. “제 평생 이렇게 삶이 즐거웠던 적은 없었어요. 영국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보내 주시고 제

가 그들의 말을 믿도록 마음을 열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정
말 기쁨을 느끼고 있어요.”

그녀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 대한 간증으로 편지를 마무리
했다. “제가 진리를 말씀드렸다는 것을 두 분도 아실 날이 올 거
예요.”¹¹

그해 봄에 데니슨 해리스와 로버트 스콧은 윌리엄 로가 연 비밀
모임에 참석했다. 두 사람은 거기서 알게 된 정보를 조셉에게 가서
보고했다.¹² 윌리엄은 자신을 교회의 개혁가로 여기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몰몬경과 교리의 성약을 믿는다고 했지만, 복수 결혼과 조
셉이 최근에 가르친 하나님의 본질에 관해서는 분개했다.¹³

데니슨과 로버트는 음모를 꾸미는 이들 가운데서 윌리엄의
아내인 제인과 윌리엄의 형 윌슨을 발견했다. 또, 거기에는 성전
주변의 토지 개발 문제를 놓고 충돌하기 전까지 조셉과 친구로
지냈던 로버트와 찰스 포스터도 있었고,¹⁴ 존 베넷의 오랜 협력자
인 촌시와 프랜시스 히그비도 지역에서 소란을 벌이곤 하는 조셉
잭슨이란 사람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¹⁵

선지자는 데니슨과 로버트가 위협을 무릅쓰고 자신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에 감동을 느꼈다. 데니슨과 로버트가 음모자들의
모임에 두 번째로 참석한 뒤, 조셉은 그들에게 한 번 더 그 모임
에 가라고 지시하며 이렇게 당부했다. “반드시 말을 삼가야 합니
다. 저는 물론 나부시를 조금이라도 해하게 하는 일에 가담하겠
다는 약속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조셉은 공모자들이 그들
을 죽일지도 모른다면 주의를 주었다.

돌아온 일요일, 데니슨과 로버트는 평소 모임이 열리는 장소로 갔다. 그곳에는 총과 총검을 들고 주변을 감시하는 사내들이 있었다. 데니슨과 로버트는 집으로 들어가서 공모자들의 논의에 말없이 귀를 기울였다. 모두 조셉이 죽어야 한다는 데 동의했지만, 계획이 하나로 정리되지는 않았다.

모임을 마치기 전에 프랜시스 히그비는 각 공모자에게 연대책임을 지고 단결하겠다는 서약을 받았다. 방에 있던 사람들은 차례로 하나씩 일어나 오른손에 성경을 들고 맹세했다. 그러나 데니슨과 로버트는 차례가 돌아왔는데도 제자리에서 꿈쩍도 하지 않았다.

“여기 참석한 모든 사람이 조셉 스미스에 반대해서 확고한 증언을 하는 것을 듣지 못했소?” 공모자들이 따져 물었다. “그를 무너뜨리고 이 위협에서 사람들을 구하는 것은 우리의 엄숙한 의무요.”

데니슨과 로버트는 이렇게 말했다. “저희는 그저 여러분이 저희의 친구라고 생각해서 참석했습니다. 모임에 참석해서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임의 주동자들은 감시하던 남자들에게 데니슨과 로버트를 잡아 지하 저장고로 데려가라고 명령했다. 두 젊은이는 그곳에서 한 번 더 서약할 기회를 받았다. “아직도 서약을 못 하겠다면, 너희 피를 볼 수밖에 없다.” 공모자들은 헐박했다.

하지만 데니슨과 로버트는 서약을 거부했으며, 죽음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했다.

“잠깐!” 저장고에 있던 누군가가 소리쳤다. “얘기가 아직 안 끝났잖아!”

공모자들은 다시 논쟁을 벌였고, 그중 한 사람이 테니스과 로버트를 죽이는 것은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렇게 이유를 댔다. “저놈들 부모가 수색을 해 오면 우리가 위험해질 거야.”

무장한 남자들은 테니스과 로버트를 강으로 끌고 가서 풀어 주었다. 그들은 두 사람에게 경고했다. “입만 열어 봐, 어디서든 눈에 띄면 밤이든 낮이든 숨통을 끊어 놓을 테니.”¹⁶

두 사람은 그 길로 조셉과 그와 함께 있던 조셉의 경호원에 게 달려가 이 일을 보고했다. 그들의 보고를 듣던 선지자는 두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것을 감사해하면서도 표정이 굳어졌다. 조셉은 말했다. “형제님들, 여러분은 이 일이 어떤 결말을 맞을지 알지 못합니다.”

경호원이 물었다. “그들이 형제님을 살해할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까? 형제님의 목숨이 위험해질까요?”

조셉은 바로 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청년들에게 윌리엄 로를 비롯한 음모를 꾸미는 자들은 분명 자신을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간증했다. “저는 거짓 선지자가 아닙니다. 저는 암흑의 계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결단코 악마에게 계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¹⁷

그해 봄, 조셉은 혼란 속에서도 오십인 평의회와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며 신정 민주주의의 이상적인 특성과 그것의 통치 및 실행 방법을 논의했다. 오십인 평의회는 4월 연차 대회 직후에 열린

한 모임에서 조셉을 선지자이자 제사요 왕으로 받아들이는 투표를 시행했다.

이 평의회 의원들은 정치적인 권한이 없었으므로, 이 투표가 어떤 현실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해, 재림에 앞서 지상에 세워진 주님 왕국의 수장으로서 조셉이 맡은 신권 직분과 책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여기에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의로운 성도들을 하나님의 왕과 제사로 삼으신다고 한 계시자 요한의 간증이 언급되었으며, 만왕의 왕이라는 구주의 칭호에 대한 의미가 더해졌다.¹⁸

그날 오후, 조셉은 평의회에 교회의 회원이 아닌 사람이 몇 명 포함되어 있다는 것에 주목했다. 이에 그는 오십인 평의회 안에서 각자의 종교적인 견해는 모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선포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은 동등한 권리가 있으며 존중받아야 한다는 폭넓고 자유로운 원리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 조직에 속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자유의사로 자신의 하나님과 자신이 원하는 종교를 선택할 특권이 있습니다.”

조셉은 마치 학교 선생님처럼 기다란 자를 집어 들고 크게 손동작을 하며 말했다. “사람은 편협함에 대한 유혹이 가장 적을 때 그것을 물리쳐야 합니다.” 조셉은 종교적 불관용이 세상을 피로 물들게 했다고 말했다. “어떤 정부에서도, 혹은 어떤 정치 거래에서도 한 사람의 종교적인 견해가 문제시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사람은 종교적 편견과 무관하게 법률에 의거하여 판단받아야 합니다.”

조셉이 말을 마칠 무렵에 의도치 않게 자가 푹 하고 소리를 내며 부러졌다. 방 안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깜짝 놀랐는데,

이때 브리검이 재치 있게 덧붙였다. “우리 의장님의 손에서 자가 부러졌듯이, 모든 포악한 정부도 우리 앞에 무너질 것 같습니다.”¹⁹

4월 말, 윌리엄과 제인 로가 공공연히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 가자 32명의 교회 지도자들로 구성된 평의회가 그 두 사람과 로버트 포스터를 기독교인답지 못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파문했다. 그러나 파문을 결정하는 심리에서 아무도 자신들에게 변호할 기회를 주지 않자, 윌리엄은 화를 내며 평의회 결정에 불복했다.²⁰

몇몇 사도와 다수의 장로들이 선교 사업을 위해, 또 대통령 선거에 나간 조셉을 지원하기 위해 나부를 떠난 후, 교회를 비판하는 무리의 목소리는 점점 더 거세어졌다. 로버트 포스터와 존시히그비는 법정에서 선지자에게 불리하게 쓰일 증거를 찾아다녔다.²¹ 윌리엄 로는 4월 21일에 공개적으로 모임을 주최하여 조셉을 타락한 선지자로 비난하고, 새로운 교회를 조직했다.

그 모임에서 윌리엄의 추종자들은 그를 새 교회의 회장으로 추대했다. 그들은 일요일마다 모임을 열었고, 불만이 있는 성도들을 자신들의 명분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방법을 궁리했다.²²

한편, 성도들이 일리노이에 도착한 직후부터 적대감을 드러냈던 젊은 신문사 편집장인 토머스 샤프는 자신의 신문을 조셉과 교회에 대한 비판 기사로 가득 채웠다.

그는 자신이 성도들을 공격하는 것을 정당화하며 이렇게 말했다. “몰몬 교회의 수장이 우리 시민들에게 거듭 모욕과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를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도 그런 무법자이자 배신자, 흡혈귀 같은 집단을 폭로하고자 애쓰는 우리에게 뭘 훈계하겠다는 생각 따위는 절대 하지 못할 것입니다.”²³

5월 10일, 윌리엄과 그의 추종자들은 *Nauwoo Expositor*(나부 익스포지터)라는 신문 발행 계획을 발표했다. 그들은 이 신문에 “나부시에서 일어나는 일을 있는 그대로 완전하고 솔직하며 간결하게” 진술할 것이라고 천명했다.²⁴ 또, 프랜시스 히그비는 조셉 스미스가 공공연하게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윌리엄과 윌슨은 그가 복수 결혼을 시행하여 간음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조셉 스미스를 고발했다.²⁵

자신에 대한 거짓 고발이 늘어 가는 가운데 조셉은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의 왕국에 대항하여 악마는 항상 그 반대편에 자신의 왕국을 세웁니다.” 조셉은 엔다우먼트를 받은 성도들과 함께 자신의 상점 2층에 모여 적들에게서 벗어나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다.²⁶ 조셉은 체포를 피하고 싶었지만, 다시 숨어 지내고 싶은 마음도 없었다. 당시 에머는 임신한 몸으로 건강도 좋지 않았으므로, 조셉은 아내 곁을 지키고 싶었다.²⁷

5월 말, 결국 조셉은 군청 소재지인 카테지로 가서 자신에 대한 고발을 법률적으로 다루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²⁸ 조셉은 스무 명 남짓한 친구들과 함께 카테지로 향했다.

하지만 판사 앞에 서서 재판을 받으려 했을 때, 검찰관들이 증인을 놓쳐 버리는 바람에 더는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심리는 몇 달 뒤로 연기되었고, 보안관들은 조셉에게 나부로 돌아가도 좋다고 했다.²⁹

조셉이 풀려나자 격분한 토머스 샤프는 신문에 다음과 같은 사설을 냈다. “우리는 지금껏 조 스미스가 나부 밖에서는 안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예를 충분히 보고 들었다. 머지않아 그가 폭력적인 방법으로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이 들리더라도 우리는 놀라지 않을 것이다. 이 나라는 이제 감정이 극도로 격해졌으며, 아주 사소한 도발에도 분노가 폭발할 것이다.”³⁰

조셉에 대한 반대가 거세지는 와중에도 성도들은 계속해서 그들의 도시를 건설했다. 루이자 프랫은 남편이 남태평양으로 선교 사업을 나가 있는 동안 네 딸을 홀로 돌보고 먹이며 간신히 생계를 꾸려 나갔다. 남편 애디슨이 나부를 떠나기 전에 목재를 조금 사 두긴 했지만, 막상 집을 지으려고 하니 재료가 부족했다. 인근 주에 본인 소유의 땅이 약간 있었기에, 루이자는 가까운 제재소로 가서 그 땅을 담보로 목재를 살 수 있는지 문의했다.

자신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담보를 잡고 목재를 사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루이자는 제재소 주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자라고 의심할 필요는 없어요. 일반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더 정확하거든요.”

다행히 제재소의 주인은 루이자에게 담보로 목재를 파는 것을 꺼리지 않았으며, 루이자는 곧 아담한 목조 가옥을 지을 만큼의 목재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그녀가 고용한

인부들은 계속해서 실망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루이자는 믿을 만한 사람을 찾을 때까지 인부를 갈고 또 갈아야 했다.

집이 지어지는 동안, 루이자는 재봉사로 일했다. 딸들이 홍역에 걸려 앓아누웠을 때는 밤낮으로 간호하며 아이들이 다 나을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를 드렸다. 루이자는 겉으로 보기에 모든 것을 충분히 잘 해내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사실 자주 외로움에 시달렸고, 이런 짐을 감당하기에는 자신이 너무도 부족하고 무력하다고 느꼈다.

집이 완공된 후, 루이자는 딸들과 함께 새 집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집에 손수 만든 양탄자를 깔고, 자신이 번 돈으로 물건을 사들였다.

몇 달이 지나는 동안, 그녀는 물물 교환을 하고 외상 빚을 지면서 변변치 않은 벌이로 살림을 하고 제재소에 진 빚을 갚아 나갔다. 식량이 떨어지고 빚만 늘어 가던 어느 날 딸들은 루이자에게 이렇게 물었다. “어머니, 우린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불평은 주님께나 하렴.” 루이자는 냉담하게 내뱉었다.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그녀는 알 수가 없었다. 자신의 돈을 가진 사람들에게 대해 불평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을 고용하고도 돈을 주지 않는 사람들을 욕해야 하는가?

바로 그때, 한 남성이 와서 제법 많은 목재를 그녀의 집에 놓고 갔다. 판매를 할 수도 있을 만한 양이었다. 그런 다음에는 또 다른 남성이 와서 밀가루 45킬로그램과 돼지고기 11킬로그램을 놓고 갔다.

딸 프랜시스가 말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이런 행운이 어디 있어요!”

루이자는 감사함으로 마음이 북받쳤고, 앞으로 더는 불평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³¹

6월 초가 되자, 윌리엄 로가 단언했듯이 나부의 거리에 *Nauwoo Expositor*(나부 익스포지터)가 눈에 띄기 시작했다. 그 신문의 머리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었다. “우리는 조셉 스미스가 가르치는 악랄한 원리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 원리들은 정녕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가르친 원리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신문 기사에서 윌리엄과 그의 추종자들은 조셉이 회복된 복음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조셉이 엔다우먼트를 소개하고 복수 결혼을 시행하며 승영과 하나님의 본질에 관해 새로운 교리를 가르친 것을 그 예로 들었다.³²

그들은 시민들에게 성도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조셉이 교회와 주의 역할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고 규탄하면서 그가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나선 것을 비난했다.

그들은 불길한 어조로 공표했다. “위대한 힘으로 일어나 이 땅에서 폭군과 악당들의 영향력을 몰아내자!”³³

익스포지터가 등장한 다음 날, 조셉은 이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나부 시의회를 소집했다. 이미 많은 이웃이 교회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으므로, 조셉은 익스포지터가 그들을 자극하여 폭력 사태를 촉발할까 봐 걱정스러웠다. 조셉은 말했다. “그런 신문은 폭력을 양산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그 존재 자체가 안전에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³⁴

하이럼은 성도들이 폭도들 때문에 미주리에서 내쫓긴 일을 시의회에 상기시켰다. 하이럼도 조셉과 마찬가지로, 그 신문을 중단시킬 법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그것이 성도들과 맞서도록 사람들을 선동하리라는 생각에 염려스러웠다.

토요일 밤이 깊어 갔고, 모임은 월요일이 되어서야 끝이 났다.³⁵ 같은 날, 시의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임을 다시 열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다시 논의했다. 조셉은 그 신문을 사회적 골칫거리로 선포하고, 그 인쇄기를 파손할 것을 제안했다.³⁶

존 테일러도 이에 동의했다. 존은 *Times and Seasons*(타임즈 앤드 시즌스)의 편집자로서 출판과 언론의 자유를 중시했지만, 존과 조셉은 명예 훼손에 맞서 자신을 보호할 헌법상의 권리가 있다고 믿었다. 익스포지터와 그들의 인쇄기를 부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테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합법적인 일이라고 믿었다.

조셉은 그 방에 모인 모든 사람이 그 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일리노이주 헌법에서 출판의 자유에 관한 조항을 낭독했다. 시의원 한 사람이 권위 있는 법률서를 가져와 지역 사회의 치안을 어지럽히는 불법 방해물을 제거하는 것에 관한 법적 정당성이 설명된 부분을 찾아 읽어 주었다. 법률적인 근거가 확보되자, 하이럼은 인쇄기를 파손하고 활자를 흩어 버리자는 조셉의 제안을 다시 한번 평의회 일원들에게 알렸다.³⁷

윌리엄 펠프스는 자신이 미국 헌법과 나부시 헌장, 그리고 국법을 검토해 보았음을 평의회에 보고했다. 그는 나부시가 그 신문을 불법 방해물로 선포하고 즉시 인쇄기를 부수는 것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

시의회는 투표를 통해 그 인쇄기를 부수기로 의견을 모았고, 조셉은 나부시 경찰서장에게 집행 명령을 내렸다.³⁸

그날 저녁, 나부 경찰서장은 100여 명의 경관을 이끌고 익스포지터 사무실에 도착했다. 그들은 커다란 망치를 들고 안으로 들어가서 밖으로 인쇄기를 끌고 나와 산산조각을 냈다. 그런 다음에는 활자가 든 상자를 뒤집어엎고 흩어진 활자 위에 불을 놓았다. 발견된 신문도 모두 불길 속에 던져졌다.³⁹

이튿날, 토머스 샤프는 자신의 신문을 추가로 발행하여 인쇄기가 파손되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전쟁과 몰살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었다! 시민들이여 모두 일어나라!” 그는 사람들에게 촉구했다. “무엇을 따져 물을 시간 따위는 이제 없다. 각자 스스로 논평하라. 모두 총과 탄환을 들고 싸움에 나서자!”⁴⁰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도머스 샤프가 무기를 들도록 사람들을 선동하자 나부 곳곳에서 성도들에 대한 분노가 들불처럼 번졌다. 시민들은 *Expositor*(익스포지터) 인쇄기가 파손된 것에 항의하기 위해 워소와 카테지 인근에 결집했고, 마을의 지도자들은 지역의 남성들에게 함께 성도들과 맞서 싸우는 데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¹ 채이틀이 지나기도 전에 무장 폭도 3백 명이 카테지에 집결했다. 그들은 당장 나부로 달려가 성도들을 몰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²

피터 모건과 제이콥 퍼트는 나부에서 북동쪽으로 160킬로미터가량 떨어진 한 호텔에 앉아 식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이 그곳까지 간 이유는 교회에서 구입할 수 있는 석탄층을 찾으라는 조셉의 지시 때문이었다. 조셉은 석탄을 캐서 교회 소유의 증기선인 *메이드 오브 아이오와*[*Maid of Iowa*]로 미시시피강을 따라 실어 나르면 이윤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믿었다.³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피터는 신문을 펼쳤다. 그 신문에는 나부에서 벌어진 대규모 전투로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기사가 실려 있었다.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내 아내 메리와 아이들은 무사할까? 피터는 두려움에 떨며 제이콥에게도 기사를 보여 주었다.

둘은 곧바로 다음 배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나부까지 50여 킬로미터 앞둔 지점에서 그 기사가 오보였음을 알게 된 두 사람은 안도했다. 그러나 폭력 사태가 일어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인 것만 같았다.⁴

시의회는 인쇄기를 부수자는 결정을 검토하면서도 그 일이 이토록 격렬한 반대를 불러일으키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윌리엄 로는 나부에서 달아났지만, 그의 추종자 중 일부가 성전을 파괴하고 조셉의 집에 불을 지르고 교회의 인쇄소를 부수겠다며 성도들을 협박하고 있었다.⁵ 프랜시스 히그비는 인쇄기가 파손되자 조셉과 시의원들이 폭동을 선동했다면서 그들을 고발했다. 그는 열흘이 지나면 나부에서 더는 물문을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⁶

6월 12일, 카테지에서 온 경찰이 조셉과 시의원들을 체포했다. 그러나 나부의 지방 법원은 고발에 대한 근거를 찾지 못하여 그들을 풀어 주었다. 이에 조셉의 반대 세력들은 더 크게 분노했다. 이튿날, 조셉은 3백 명의 폭도가 나부를 공격하기 위해 카테지에 결집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⁷

조셉과 지도자들은 미주리에서처럼 또다시 이웃들과 큰 충돌을 겪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포드 주지사 앞으로 긴급히 편지를 보내어 시의회가 취한 조치를 설명하고 폭도의 공격에

대비해 도움을 요청했다.⁸ 조셉은 성도들에게 침착하게 도시를 지킬 준비를 하도록 하는 한편, 절대 소동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그런 다음, 그는 나부 군단을 소집하고 나부시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조셉은 평상시의 법치를 유예하고 군대가 나부를 통솔하게 했다.⁹

6월 18일 오후, 나부 군단이 나부 맨션 하우스 앞에 집결했다. 조셉은 민병대의 사령관으로서 제복을 갖춰 입고 옆에 있던 연단 위로 올라가 대원들을 향해 말했다. “우리의 적들이 저 조셉의 목숨을 끊어 놓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피를 맛보는 순간, 그들은 충만한 복음의 정신이 마음속에 불꽃처럼 살아 있는 모든 사람의 피를 갈구하게 될 것입니다.”

조셉은 칼을 뽑아 올리며, 과거에는 그러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자유를 지켜 내야 한다고 소리쳤다. “모두 죽음의 순간까지 저와 함께 싸우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조국의 법률을 수호하겠습니까?”

“네!” 민병대 대원들은 우렁차게 대답했다.

“온 마음을 다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힘든 시기에 제 곁을 지켜 주셨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¹⁰

조셉으로부터 시의회가 인색기를 부순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들은 토머스 포드 주지사는 성도들이 옳은 신념으로 그런 조치를 취했음을 이해했다. 지역 사회에서 어떤 행위가 불법적 방해 행위임을 선포하고 그것을 파괴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와 선례가 모

두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주지사는 시의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그들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믿었다. 무엇보다도 신문에 대한 합법적인 폐간 조치라는 것 자체가 드문 일이었다. 그 시절에는 지역 사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폭도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일을 해결했다. 십여 년 전에 잭슨군에서 자경단이 성도들의 신문을 파손한 것이 바로 그런 경우였다.¹¹

또한 법의 허용 여부를 떠나서 포드 주지사는 일리노이주의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매우 중시했다. 주지사는 선지자에게 다음과 같이 답장을 보내왔다. “인쇄기를 부순 것은 법률에 비추어서도 인간의 자유에 비추어서도 매우 야만적인 불법 행위였습니다. 그 신문에 설사 비방하는 기사가 가득했음지라도 그것으로 인쇄기를 파손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주지사는 나부시 현장이 선지자가 생각하는 만큼 지역의 법정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셉을 비롯해 폭동으로 고발된 시의원들에게 나부 밖에 있는 법원으로 가서 자수를 하고 법원의 결정에 따를 것을 권고했다. “저는 정말로 평화를 지키고 싶습니다.”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다. “무분별한 작은 행동이 싸움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주지사는 시의 지도자들이 항복하고 법정에 선다면, 자신이 그들을 지켜 주겠다고 약속했다.¹²

카테지에는 성도들을 증오하는 이들이 특히 많다는 것을 알기에, 조셉은 주지사가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가 계속 나부에 머물면, 그것이 반대자들의 화를 돋우고 폭도들을 나부로 끌어들이어 성도들을 위협에 몰아넣게 된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었다. 성도들을 보호할 가장 좋은 방법

은 나부를 떠나 서쪽으로 가거나 워싱턴 DC에 도움을 청하는 것이 더욱더 분명해졌다.

조셉은 주지사 앞으로 편지를 써서 나부를 떠나겠다는 계획을 알렸다. “모든 성스러운 것의 이름으로 훌륭한 주지사께 간청합니다. 부디 아무 힘 없는 우리 여성들과 아이들을 폭도들의 손아귀에서 지켜 주십시오.” 조셉은 만일 성도들이 조금이라도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¹³

그날 밤, 조셉은 가족들과 잘 자라는 인사를 나눈 뒤에 하이럼, 윌라드 리차즈, 포터 록웰과 함께 작은 배를 타고 미시시피강 건너편으로 출발했다. 배에서 물이 샐기 때문에 포터가 노를 젓는 동안 조셉과 하이럼, 윌라드는 장화로 계속해서 물을 퍼내야 했다. 그렇게 몇 시간을 더 가서 6월 23일 아침에 그들은 아이오와 준주에 도착했다. 조셉은 포터에게 나부로 돌아가 말을 물고 오도록 지시했다.¹⁴

조셉은 포터가 떠나기 전에 에머에게 보내는 편지를 적어 그에게 주었다. 편지에는 에머와 자녀들, 그리고 어머니의 생계를 위해 필요하다면 그들의 부동산을 팔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는 에머에게 말했다. “낙담하지 마시오.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당신을 보게 될 거요.”¹⁵

에머는 그날 오전 늦게 하이럼 킴볼과 자신의 조카인 로렌 조 왓슨을 아이오와로 보냈다. 그녀는 조셉을 설득해 집으로 돌아오게 한 뒤 그를 자수시킬 생각이었다. 조셉을 찾아간 두 사람은 주지사가 조셉과 그의 형 하이럼이 자수할 때까지 군대를 보내 나부를 점령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렸다. 또 얼마 안 가서는 포

터가 레이놀즈 카훈과 함께 에머의 편지를 들고 와서 나부로 돌아오라고 다시금 조셉에게 간청했다. 하이럼 김볼과 로렌조, 레이놀즈는 조셉이 나부를 떠나 성도들을 위협에 빠뜨렸다면 그가 비겁하다고 말했다.¹⁶

조셉이 말했다. “그런 말을 듣느니 차라리 죽겠습니다. 제 목숨이 친구들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면, 저에게도 가치가 없습니다.” 이제 조셉은 자신이 나부를 떠나는 것으로는 성도들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카테지로 간다면 그의 목숨은 어떻게 될 것인가? 조셉은 포터에게 의견을 물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포터가 대답했다. “형제님이 가장 연장자이니 제일 잘 아시겠죠.”

조셉이 하이럼을 돌아보며 말했다. “형님이 제일 연장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돌아가서 행복하고, 그런 다음에 상황을 지켜 보자.”

“형님이 가신다면 저도 가겠습니다. 하지만 우린 죽음을 면치 못할 겁니다.”

“죽든지 살든지 그건 운명에 맡기자꾸나.”

조셉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곧 레이놀즈에게 배를 준비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들은 자수를 결심했다.¹⁷

늦은 오후에 조셉이 집으로 돌아오자 에머는 가슴이 무너졌다. 다시 조셉을 마주한 에머는 자신이 남편을 사지로 불러들인 것은 아닌지 불안감에 휩싸였다.¹⁸ 조셉은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가르

침을 전하고 싶었지만, 그러는 대신 가족과 함께 집에 머물렀다. 조셉과 에머는 자녀들을 한데 모았고, 조셉은 그들을 축복했다.

이튿날 이른 아침에 조셉과 에머는 자녀들을 데리고 집 밖으로 나갔다. 조셉은 가족들 한 명 한 명에게 입을 맞추었다.¹⁹

에머가 울먹이며 말했다. “당신은 돌아올 거예요.”

조셉은 말에 올라탄 후 하이럼과 시의원들을 대동하여 카테지로 향했다. 조셉이 말했다. “나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가노라. 그러나 나는 여름 아침처럼 고요하도다.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나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양심에 아무 거리낌이 없도다.”²⁰

이들이 성전을 향해 언덕을 올랐을 때, 동편에서 떠오른 태양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성전의 벽면을 금빛 햇살로 물들이고 있었다. 조셉은 말을 세우고 나부시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곳은 하늘 아래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며 이들은 가장 훌륭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앞으로 겪게 될 시련을 거의 알지 못합니다.”²¹

하지만 조셉은 멀리 가지 못했다. 일행은 나부를 떠난 지 세 시간 만에 군대와 마주쳤는데, 그 군대는 나부 군단이 소지한 일리노이주 관할의 무기를 몰수하라는 주지사의 명령을 받아 진군하고 있었다. 조셉은 나부로 돌아가서 명령이 집행되는 과정을 직접 살피기로 했다. 만일 성도들이 저항하면 폭도들이 그것을 빌미로 성도들을 공격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다.²²

조셉은 나부로 돌아가 다시 에머와 자녀들을 만났다. 그는 다시 작별을 고한 뒤 에머에게 같이 가겠냐고 물었지만, 에머는

아이들 곁에 있어야 했다. 조셉은 침통한 표정으로 생각에 잠겼다. 자신의 운명에 대한 불길한 확신이 그의 얼굴에 역력했다.²³ 조셉이 떠나기 전에 어머니는 그에게 축복을 부탁했다. 시간이 촉박했기에, 선지자는 어머니에게 원하는 축복을 적으라고 한 뒤 자신이 돌아와서 거기에 서명하겠다고 약속했다.

어머니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와 분별의 은사를 받고 싶다고 적었다. “나 자신을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생산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하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또한 11월에 태어날 아기를 포함해 자신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구했고, 영원한 결혼 성약에 대한 소망을 표현했다. “나는 온 마음을 다해 남편을 공경하고 존경하며, 항상 그를 신뢰하고 그와 한마음 한뜻으로 행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인 그의 옆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는 겸손을 간구했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이들을 위해 예비하신 축복을 받으며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했다. “삶에서 어떤 운명을 마주하더라도, 만사에 임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²⁴

6월 24일 월요일 자정 무렵, 스미스가의 형제들이 카테지에 도착하자 주변에서 야유와 욕설이 쏟아졌다. 나부 성도들의 무기를 몰수한 민병대는 조셉과 하이럼을 호송하며 소란스러운 카테지의 거리를 지나갔다. 이 형제들이 밤을 보내기로 계획된 호텔 부근

광장에서는 카테지 그레이라는 민병대의 또 다른 부대가 야영을 하고 있었다.

조셉이 옆으로 지나가자 카테지 그레이의 대원들은 서로를 밀치며 고개를 내밀었다. 그중 한 명이 소리쳤다. “그 빌어먹을 선지자라는 작자는 어디 있는 거야? 길 좀 비켜 봐. 조 스미스 얼굴 좀 한 번 보자고!” 민병대의 대원들은 공중으로 총을 던지며 아우성을 쳤다.²⁵

이튿날 아침, 조셉 일행은 경찰서로 가서 자수 의사를 밝혔다. 9시 정각이 조금 지났을 무렵, 포드 주지사의 요청으로 조셉과 하이럼은 주지사와 함께 군대가 집결해 있는 곳을 지나가게 되었다. 이들 일행을 본 민병대와 폭도들은 소리 없이 그들을 둘러쌌고, 이내 카테지 그레이의 대원들이 공중으로 모자를 던지고 칼을 뽑으며 야유를 보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전날 밤과 마찬가지로 소리를 지르며 형제들을 조롱했다.²⁶

그날 조셉과 하이럼은 폭동을 일으킨 혐의에 대한 재판이 열릴 때까지 대기하라는 명령을 받고 법정에서 나왔다. 그들이 카테지를 떠나기 전, 윌리엄 로의 동료 두 명이 와서 나부에 계엄을 내린 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조셉과 하이럼은 정부와 일리노이 주민에 대해 반역을 일으킨 죄로 기소되었으며 반역죄는 사형죄에 해당하므로 보석으로는 석방될 수 없었다.

조셉과 하이럼은 감방에 갇힌 채 그날 밤을 보내야 했다. 스미스 형제의 친구 몇 명이 두 사람을 보호하며 곁을 지키기 위해 함께 감방에 머물기로 했다. 그날 밤, 조셉은 어머니에게 힘이 될 소

식을 담아 편지를 썼다. “이제 막 주지사가 나부에 군대를 보내기로 합의했다고요. 나도 주지사와 함께 갈 것이오.”²⁷

이튿날, 형제들은 카테지 감옥 2층에 있는 더 안락한 방으로 옮겨졌다. 방에는 큰 창문이 세 개가 나 있었고 침대도 하나 놓여 있었다. 나무로 된 문은 빗장이 부러져 있었다. 그날 저녁, 근무 중에 있던 보초들에게 하이럼은 소리 내어 몰몬경을 읽어 주었으며, 조셉은 몰몬경이 참되다는 신성한 사실에 대한 강력한 간증을 전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복되었고, 천사들은 여전히 인간에게 성역을 행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왕국이 다시 한번 지상에 세워졌다고 간증했다.

해가 떨어진 후, 윌라드 리차즈는 초가 다 타들어 갈 때까지 밤늦도록 자리에 앉아 글을 썼다. 조셉과 하이럼은 침대에 누웠고, 그들을 방문한 스티븐 마크햄과 존 풀머도 바닥에 매트리스를 깔고 누워 있었다. 존 테일러와 댄 존스는 그 옆에서 딱딱한 바닥 위에 함께 누워 있었다. 댄 존스는 웨일스 출신의 하천 선박 선장으로, 약 1년 전에 교회의 회원이 된 사람이었다.²⁸

자정이 다가오고 있는 깊은 밤, 조셉의 머리맡에 있는 창문 밖에서 총성이 울렸다. 선지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바닥에 누워 있던 댄 옆으로 자리를 옮겼다. 조셉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댄에게 죽음이 두렵냐고 물었다.²⁹

“때가 되었습니까?” 댄이 억센 웨일스 억양으로 되물자 조셉이 대답했다. “저는 명분이 있으니 죽음을 맞이한다 해도 그리 두렵지 않습니다.”

조셉은 댄에게 속삭였다. “형제님은 웨일스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죽기 전에 형제님이 받은 사명을 다 이룰 것입니다.”

자정 무렵, 댄은 군대가 감옥을 지나며 행군하는 소리에 잠을 깬다. 그는 일어나서 창밖을 내다보았다. 밖에는 한 무리의 남성들이 몰려들고 있었다. 그중 누군가가 말했다. “몇 명이나 들어갈 건가?”

그 말에 소스라치게 놀란 댄은 재빨리 형제들을 깨웠다.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 그에 이어 몸으로 문을 들이치는 소리가 들려 왔다. 밖에 있는 남자들이 쳐들어올 것에 대비해 누군가의 자를 들어 방어 태세를 갖추었다. 형제들은 무덤과도 같은 정적 속에서 공격이 시작되기만을 기다렸다.

“들어오시오!” 결국 조셉이 소리쳤다. “우린 준비됐소!”

문밖에서 폭도들이 우왕좌왕하는 소리가 들려 왔다. 공격을 할지 말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모양이었다. 소란은 끊임없이 계속되었고, 마침내 새벽이 되어서야 우르르 계단을 내려가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³⁰

이튿날인 1844년 6월 27일, 조셉의 편지가 에머에게 전달되었다. 그 편지는 윌라드 리차즈가 조셉의 말을 받아 적어 작성한 것이었다. 포드 주지사와 민병대는 나부로 가고 있었다. 그러나 약속과 달리 주지사는 조셉을 데려가지 않았다. 그 대신 그는 카테지에서 민병대의 한 부대를 해산시켰으며, 겨우 카테지 그레이 부대의 대원 몇 명만 남겨 감옥을 지키게 했다. 카테지 감옥에 갇힌 형제들은 이제 바람 앞의 등불과도 같은 처지가 되었다.³¹

여전히 조셉은 성도들이 주지사를 환대하며 경보를 울리지 않기를 바랐다. 조셉은 에머에게 일렀다. “근절령의 위험은 없지만, 안전을 위해 주의하는 것이 좋겠소.”³²

조셉은 편지 아랫부분에 다음과 같이 몇 문장을 직접 적었다. “나는 내게 죄가 없음을 알고 내가 최선을 다했음을 알기에 운명을 따르고자 하오.” 조셉은 자녀들과 친구들에게 사랑을 전해 달라고 부탁하며 이렇게 말했다. “반역죄와 관련해서는 나는 아무런 잘못도 범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아무것도 입증할 수 없을 것이오.” 조셉은 자신과 하이럼이 잘못될 것이란 걱정은 접어 두라고 이른 후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었다. “부디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³³

그날 오후, 나부에 도착한 포드 주지사는 성도들 앞에서 연설을 했다. 그는 위기 상황이 일어난 것을 성도들의 잘못으로 돌리고 그 여파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성도들을 위협했다. “익스포지터 인쇄기를 부수고 시에 계엄령을 선포하는 중대한 범죄가 자행되었습니다. 엄중한 대가가 치러져야 하므로 여러분은 비상 사태에 대비해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³⁴

그는 나부가 잿더미로 변할 수도 있으며, 저항한다면 성도들을 몰살하겠다고 경고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분노의 횃불이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더 잘못된 행동을 한다면 그 횃불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³⁵

성도들은 분노가 치밀었지만, 평화를 지키라는 조셉의 당부를 생각해서 주지사의 경고를 듣고 일리노이주의 법률을 지지하겠다고 서약했다. 주지사는 흡족해하며 연설을 마쳤고, 군대는 시가지를 행군했다. 군인들은 칼을 뽑아 들고 성도들을 위협하듯 휘두르며 시가지를 지나갔다.³⁶

그날 오후, 카테지 감옥의 시간은 더디게 흘렀다. 여름철 더위에 형제들은 겉옷을 벗고 바람이 들어오도록 창문을 열었다. 밖에는 여덟 명의 카테지 그레이 대원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고, 나머지 대원들은 근처에서 야영 중이었다. 형제들이 있는 방의 문 밖에도 보초가 한 명 더 앉아 있었다.³⁷

스티븐 마크햄과 댄 존스 등의 형제들은 조셉의 심부름을 하러 외출을 나가 있었다. 감옥에는 지난밤을 함께 보낸 형제들 중 윌라드 리차즈와 존 테일러만이 조셉과 하이럼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오전에 면회를 온 친구들은 공격이 닥칠 때를 대비해 형제들에게 6원발 권총과 단발식 권총을 몰래 쥐여 주었다. 스티븐은 “악당을 내리치는 막대기”라고³⁸ 이름 붙인 튼튼한 지팡이를 감옥에 남겨 두고 갔다.

존은 분위기를 누그러뜨리고 시간도 때울 겸 성도들 사이에서 당시 인기 있던 영국 찬송가를 불렀다. 궁핍하고 겸손한 나그네가 결국 자신이 구주임을 밝힌다는 가사의 찬송가였다.

그때에 내가 보니
그는 나그네가 아니라
손에 못자국 난 구주
내 눈앞에 서 계셨네
초라한 이름 부르며
내게 말씀하시길
두려워 말라 내가 한 모든 것
내게 한 것이라

존이 노래를 마치자 하이럼은 다시 한번 더 불러 달라고 요청했다.³⁹

오후 4시 정각이 되자 보초들이 교대했다. 조셉은 문가에서 새로운 보초와 이야기를 하고, 하이럼과 윌라드는 둘이서 나지막이 대화를 나누었다. 한 시간 후, 간수가 방으로 들어와서 폭도들의 공격에 대비해 더 안전한 감방으로 가지 않겠냐고 형제들에게 물었다.

조셉이 말했다. “저녁을 먹은 후에 가겠습니다.” 간수가 떠나자 조셉이 윌라드에게 물었다. “우리가 감방으로 들어가면 형제님도 같이 가지겠습니까?”

“혹시 제가 형제님을 버릴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윌라드가 대답했다. “만약 형제님이 반역죄로 교수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제가 형제님을 대신해서 교수형을 받고 형제님을 풀어 주게 할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에 윌라드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⁴⁰

몇 분 뒤, 문밖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서너 발의 총성이 울렸다. 윌라드가 창밖을 내다보니, 진흙에 화약을 섞어 얼굴을 검게 칠한 100여 명의 괴한들이 감옥 입구로 몰려들고 있었다. 조셉과 하이럼은 곧바로 권총을 집어 들었다. 존과 윌라드는 지팡이를 곧 봉처럼 움켜쥐었다. 폭도들이 우르르 계단을 뛰어 올라왔다. 그들은 방 안으로 진입하려 밀어닥쳤고, 네 명의 형제들은 온몸으로 문을 밀어 막았다.⁴¹

그러자 폭도들은 문에 대고 총을 쏘았고, 총성이 계단을 타고 울려 퍼졌다. 총탄이 나무문을 뚫고 날아들자 조셉과 존, 윌라드는 얼른 문 옆으로 비켜섰다. 그러나 그중 한 발이 하이럼의 얼

굴에 명중했고, 하이럼은 몸을 비틀거리며 문에서 떨어졌다. 또 한 발의 총탄이 그의 허리에 날아와 박혔다. 하이럼의 권총이 발사되며 그는 그대로 쓰러졌다.⁴²

“하이럼 형!” 조셉이 울부짖었다. 조셉은 6연발 총을 움켜쥐고 문틈을 살짝 벌린 뒤 총을 한 발 쏘았다. 폭도들은 소총으로 방 안을 공격했고, 조셉은 폭도들을 향해 무작정 방아쇠를 당겼다. 존은 문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총과 총검을 지팡이로 내리쳤다.⁴³

조셉의 권총이 두세 번 불발되자, 존은 창가로 달려가 깊숙이 들어간 창턱을 오르려 했다. 그러나 방을 가로지르며 날아든 총알에 다리를 맞고 균형을 잃고 쓰러졌다. 온몸에 힘이 빠진 존은 창턱에 몸이 부딪혔고, 그때 주머니 속에 있던 그의 시계가 바늘이 5시 16분을 가리키는 순간 박살이 났다.

“총에 맞았어요!” 존이 소리쳤다.

빗발치는 총탄의 공격 속에서 존은 바닥을 기어 침대 밑으로 몸을 숨겼다. 그는 둔부에 총상을 입어 살이 깊게 찢겨 나갔고, 손목과 무릎 윗부분에도 각각 한 발씩 총알을 맞았다.⁴⁴

방 건너편에서 윌라드와 조셉은 함께 온 힘을 다해 문을 막고 있었다. 윌라드는 폭도들이 들이미는 소총과 총검을 계속해서 쳐냈다. 그러다 갑자기 선지자가 권총을 바닥에 내던지고 창문을 향해 돌진했다. 그가 창턱을 오르는 순간, 두 발의 탄알이 그의 등에 날아와 박혔다. 창문을 뚫고 들어온 또 한 발의 탄알은 그의 심장 바로 밑을 관통했다.

“오 주님, 나의 하나님.” 조셉은 절규했다. 선지자는 앞으로 몸을 휘청이더니 머리부터 고꾸라지며 그대로 창밖으로 떨어졌다.

윌라드는 총탄이 계속해서 날아드는 가운데 달려가서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창밖 아래에서는 폭도들이 구름처럼 몰려

들어 피범벅이 된 조셉을 에워싸고 있었다. 선지자는 돌로 된 우물 바로 옆에 왼쪽으로 누워 있었다. 윌라드는 친구의 목숨이 아직 끊어지지 않았다는 조짐이 보이기를 바라며 아래를 응시했다. 하지만 몇 초가 지나도 조셉은 움직임이 없었다.

주님의 선지자요 선견자인 조셉 스미스가 세상을 떠난 것이었다.⁴⁵



전능한 기초

아직 해도 뜨지 않은 6월 28일 새벽, 다급히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에머는 밖으로 나갔다. 문밖에는 에머의 조카인 로렌조 왓슨이 먼지를 뒤집어쓴 채 서 있었다. 그리고 로렌조는 에머가 가장 두려워하던 그 말을 전했다.¹

포터 록웰은 말을 타고 거리를 다니며 큰 소리로 조셉의 부고를 알렸다. 선지자의 순교 소식에 도시는 잠을 깨었다.² 사람들은 소식을 듣기 무섭게 조셉의 집 앞으로 모여들었다. 에머와 아이들은 친구들 및 그 집에 기거하는 이들과 함께 집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조셉의 어머니인 루시 스미스는 멍한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며 침실 안을 서성였고, 아이들은 다른 방에 웅기종기 모여 있었다.³

에머는 침통한 기색으로 입을 다물고 우두커니 홀로 앉아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에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음을

터트렸다. “왜 내 남편이, 왜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가 죽어야 하는 거야!”

에머가 흐느끼고 있을 때, 나부시 경찰서장인 존 그린의 방으로 들어왔다. 존 그린은 애써 에머를 위로하며 고난은 그녀에게 생명의 왕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 왕관은 남편이었어요.” 에머는 날카롭게 받아친 뒤 말했다. “오, 하나님. 왜 제가 이렇게 버림받은 건가요?”⁴

그날 오후, 윌라드 리차즈와 새뮤얼 스미스가 조셉과 하이럼의 시신을 마차에 싣고 나부로 돌아왔다. 그들은 뜨거운 여름 햇빛을 막기 위해 시신을 나무 상자에 눕히고 잔가지로 그 위를 덮었다.⁵

윌라드와 새뮤얼은 전날 있었던 일로 크게 동요했다. 새뮤얼은 감옥으로 형들을 찾아가려 했지만, 카테지에 도착하기 전에 폭도들과 마주쳐 두 시간이 넘도록 총을 쏘며 쫓아오는 폭도들의 추격을 피해 도망쳤다.⁶ 윌라드는 꺾불에 미미한 상처만 입은 채 무사히 살아남았다. 1년 전에 선지자는 총탄이 빗발치고 양쪽에서 친구들이 쓰러지는 가운데서도 윌라드는 옷자락 한 곳 상하지 않고 살아남으리라는 예언을 한 적이 있었다. 그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다.⁷

반면, 존 테일러는 심각한 부상으로 카테지의 한 호텔에서 생사를 헤매고 있었다.⁸ 전날 밤에 윌라드와 존은 성도들에게 보내는 짙막한 편지를 썼다. 두 사람은 살해된 조셉과 하이럼에 대한 보복에 나서지 말도록 성도들에게 간청했다. 편지는 윌라드가 마무리했고, 출혈이 심해 기력이 약해진 존은 간신히 서명만 적어 넣었다.⁹

윌라드와 새뮤얼이 성전 부근에 이르자 여러 명의 성도들이 두 사람의 마차를 맞이했다. 그들은 마차를 뒤따라 함께 마을로 들어갔다. 마차는 천천히 성전을 지나 언덕 아래의 나부 맨션으로 향했다. 곧 거의 모든 나부 주민들이 마차 뒤로 늘어서면서 긴 행렬이 이루어졌다. 성도들은 통곡하며 걸었다.¹⁰

스미스 가족의 집 앞에 당도한 후, 윌라드는 조셉이 지난번에 나부 군단에게 연설했던 바로 그 연단 위로 올라갔다. 만여 명의 인파를 바라보면서, 윌라드는 주지사와 폭도들을 향한 그들의 분노를 느낄 수 있었다.¹¹

“보상의 율법을 믿으십시오.” 그는 성도들에게 간청했다. “복수는 주님께 맡기십시오.”¹²

그날 밤, 루시 스미스는 나부 맨션의 식당에서 마음을 굳게 먹고 에머와 메리, 손주들을 기다렸다. 집 안에는 염을 하기 위해 몇 명의 남성들이 옮겨 놓은 조셉과 하이럼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었다. 루시와 가족들은 고인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 시간을 기다리는 중이었다. 루시는 간신히 마음을 다잡으며 살해당한 두 아들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힘을 내기 위해 기도했다.

준비가 끝나고 제일 먼저 에머가 안으로 들어갔지만, 그녀는 곧바로 쓰러져 방 밖으로 실려 나왔다. 뒤이어 메리가 몸을 떨며 들어갔다. 그녀는 양옆에 매달린 제일 어린 두 아이와 함께 하이럼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메리는 두 팔로 남편의 머리를 감싸 안고 흐느껴 울었다. “사랑하는 하이럼, 그 사람들이 당신을 쏜 거예요?” 메리는 남편의 머리칼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슬픔이 북받쳐 올랐다.

에머도 곧 친구들의 부축을 받으며 방으로 다시 들어갔다. 에머는 메리 옆에서 하이럼을 내려다보았다. 에머는 하이럼의 차가운 이마에 손을 대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을 건넸다. 그런 후 에머는 친구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이제 그이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이제 괜찮아요.”

에머는 일어서서 홀로 조셉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남편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그의 뺨에 손을 얹었다. “오, 조셉, 조셉! 결국 그들이 내게서 당신을 앗아갔군요!”¹³ 그의 어린 아들 조셉은 무릎을 꿇고 아버지에게 입을 맞췄다.

루시는 누를 수 없는 슬픔이 북받쳐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기도했다. “나의 하나님이지여, 어찌하여 이 가족을 버리셨나이까?” 가족들이 겪어야 했던 온갖 고난에 대한 기억이 물밀듯이 떠올랐지만, 생명이 다한 아들들의 얼굴은 그저 평안해 보였다. 루시는 조셉과 하이럼이 이제 적의 손아귀에서 멀리 벗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때 루시의 귓가에 한 음성이 들려왔다. “그들이 안식을 얻도록 그들을 내게로 데려왔느니라.”¹⁴

다음 날, 수천 명의 인파가 두 스미스 형제를 기리기 위해 나부 맨션 밖으로 줄지어 모였다. 구름 한 점 없는, 무더운 여름 날이었다. 성도들은 한쪽 문으로 들어와 관을 지나서 다른 쪽 문으로 나가며 조문했다. 조문 행렬은 매시간 이어졌다. 두 형제는 내부가 흰 아마와 검고 부드러운 우단으로 된 잘 짜인 관에 누워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유리로 가려졌고, 문상객들은 유리 너머로 그들의 마지막 얼굴을 볼 수 있었다.¹⁵

고인들과의 마지막 대면이 끝나자, 윌리엄 펠프스가 수천 명의 성도들 앞에서 선지자의 장례식 설교를 전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선견자 조셉에 대해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그는 대중의 의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변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습니다.”

윌리엄은 간증했다. “그는 주님의 계명과 율법을 가져다주고, 성전을 세우고, 사람들이 더 큰 사랑과 은혜를 품도록 가르치기 위해 왔습니다. 그는 계시, 선지자, 사도라는 순수하고 영원한 원리를 토대로 지상에 이 교회를 세우고자 왔습니다.”¹⁶

장례식이 끝난 후, 메리 앤 영은 브리검에게 편지로 비보를 전했다. 브리검은 조셉의 대통령 선거 유세를 위해 십이사도 정원회의 몇몇 일원들과 동쪽으로 몇 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가 있었다. 메리 앤은 이렇게 적었다. “당신이 떠난 뒤로 이곳에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조셉 스미스와 하이럼 스미스 형제님들이 흉악한 폭도들에게 희생되었어요.” 메리 앤은 자신의 가족은 건강하다며 브리검을 안심시켰지만, 정작 남편과 다른 사도들의 안전은 알 길이 없었다. 나부에는 지난 3주 동안 우편물이 아예 들어오지 않았으며, 폭도들은 매일매일 성도들을 위협하고 있었다.

“이런 폭풍 속에서 제가 침착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돌아오는 길 조심하시고 당신의 목숨에 해가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의 눈에 절대 띄지 마세요.”¹⁷

같은 날, 빌리트 킴볼도 히버에게 편지를 썼다. “편을 들어 당신에게 편지를 쓰는 일이 이렇게 힘들었던 적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한 번도 제게 이런 일을 목격하게 하신 적이 없으셨죠.”

빌리트는 윌리엄 로와 그의 추종자들이 아직도 교회 지도자들에게 복수를 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었다. 히버의 안전을 염려한 빌리트는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내키지 않았다.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어요. 당신도 분명 목숨이 위험할 거예요. 부디 그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당신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해요.”¹⁸

얼마 후, 피비 우드럽은 부모님에게 편지를 써서 카테지에서 벌어졌던 일을 전하며 이렇게 간증했다.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 일도 절대 주님의 사업을 막지는 못할 거예요. 오히려 그분의 사업은 더 빨리 진전될 거예요. 지금 조셉과 하이럼은 우리와 함께 있을 때보다 교회에 좋은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곳에 계시다고 믿어요.”

피비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제 신앙은 강합니다. 제가 참된 몰몬이즘의 신앙을 지니고 있다는 이유로 이 편지를 쓴 후 한 시간 내에 죽게 될지라도, 저는 절대 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 일이 주님의 사업이라는 것을 저는 확실히 알아요.”¹⁹

메리 앤, 빌리트, 피비의 편지가 동쪽으로 전해지는 동안 브리검영과 올슨 프랫도 조셉과 하이럼이 살해당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러나 그 소문이 사실인지는 알 길이 없었다. 7월 16일, 그들은 뉴잉글랜드 지부를 방문했을 때, 그 지부의 한 회원이 나부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이 소상히 적힌 편지를 받았다. 브리검은 편

지를 읽으면서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다. 그는 한 번도 꺾어 본 적이 없는 심한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런데 퍼뜩 브리검의 머릿속에 신권이 떠올랐다. 조셉은 성도들에게 엔다우먼트를 베풀고 그들을 영원히 인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열쇠를 가지고 있었고, 그 열쇠들이 없다면 주님의 사업은 전진할 수가 없었다. 브리검은 조셉이 이 열쇠들을 무덤으로 가져갔다는 생각에 잠시 두려움이 밀려왔다.

그러나 그 순간 계시가 전해져, 그는 조셉이 그 열쇠들을 십이사도에게 부여했던 일을 떠올리게 되었다. 그는 무릎을 치며 말했다. “왕국의 열쇠들은 바로 이 교회에 있어.”²⁰

브리검과 올슨은 동부의 여러 주에 있는 다른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 보스턴으로 갔다. 그들은 즉시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나부에 가족이 있는 선교사들에게 모두 귀환하라고 권고했다.²¹

브리검은 그 지역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업을 위해 누군가를 보내셨다면, 지옥의 모든 악마도 그 사람이 목적을 성취할 때까지는 그의 목숨을 해할 수 없습니다.” 그는 조셉이 죽기 전에 십이사도에게 모든 신권 열쇠를 주었으며, 이는 곧 성도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남긴 것이라는 간증을 전했다.²²

한편, 어머니는 남편의 죽음을 애통해하면서도 이제 홀로 시어머니와 자녀들을 부양해야 한다는 생각에 걱정이 가득했다. 조셉은 가족의 재산을 교회의 재산과 구분하기 위해 법적으로 엄청난 노력을 시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상당한 빚을 남겼고, 유연도 없었다. 교회의 재산 관리인으로서 조셉을 대체할 사람을

교회가 빨리 지정하지 않으면 자신의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지게 될 것이기에 에머는 근심이 컸다.²³

나부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은 관재인을 임명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선지자의 생존한 형제 중 가장 연장자인 새뮤얼 스미스가 그 책임을 맡아야 한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는 카테지에서 폭도들에게 추격을 당한 뒤로 시름시름 앓다가 7월 말에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²⁴ 나머지 사람들은 지역의 스테이크 지도자들이 새 관재인을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윌라드 리차즈와 윌리엄 펠프스는 십이사도들이 동부에서 선교 사업을 마치고 돌아와 선출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을 때까지 결정을 미루기를 바랐다.

하지만 에머는 속히 결정이 나서 교회 지도자들이 당장 관재인을 지명해 주기를 바랐고, 그녀는 나부 스테이크의 회장인 윌리엄 마크스를 적임자로 여겼다.²⁵ 그러나 뉴얼 휘트니 감독은 에머의 선택에 강하게 반발했다. 윌리엄은 복수 결혼을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성전 의식에 대해서도 거의 관심이 없었다.

휘트니 감독은 사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단언했다. “마크스가 가장 중요한 사안들을 경시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만약 그가 임명된다면 우리의 영적인 축복은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교회는 자산을 소유하고 법적인 의무를 지는 법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기에 뉴얼은 주님이 조셉에게 계시하신 것을 온전히 지지하는 사람이 새 관재인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다.²⁶

이 무렵, 부상에서 상당히 회복된 존 테일러가 나부로 돌아왔다. 팔리 프랫 또한 선교 사업을 마치고 돌아와 존과 윌라드 리차즈, 윌리엄 펠프스와 함께 에머와 윌리엄 마크스에게 다른 사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줄 것을 요청했다. 그들은 성급한

결정을 내리기보다 합당한 권능을 통해 새로운 관재인을 임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여겼다.²⁷

8월 3일에는 시드니 리그돈이 나부로 돌아왔다. 대통령 선거에 나간 조셉과 함께 부통령 후보로 출마했던 시드니는 그 직책을 얻는 데 필요한 법적 요건에 따라 다른 주로 이주한 상태였다. 그러다 선지자의 순교 소식이 들리자, 그는 제일회장단의 일원인 자신이 교회를 이끌어야 한다고 확신하며 서둘러 일리노이주로 돌아왔다.

시드니는 자신의 주장에 힘을 싣기 위해 교회에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시현을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받았다고 발표했다. 그가 말하는 보호자란 조셉이 없는 교회를 돌보고 그를 대변할 사람을 이르는 것이었다.²⁸

시드니의 도착은 팔리를 비롯한 사도들에게 근심거리가 되었다. 관재인 문제를 두고 갈등이 벌어지면서, 교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감리 역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더욱 분명해졌다. 그러나 그들은 윌리엄 마크스와 마찬가지로 시드니도 주님께서 조셉에게 계시하신 여러 가르침과 실천 사항을 거부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더 중요한 것은 최근 몇 년 동안 조셉은 전만큼 시드니에게 의지하지 않았으며, 그에게는 신권의 모든 열쇠들을 부여하지도 않았다는 점이었다.²⁹

시드니는 나부에 도착한 다음 날 자신이 교회를 이끌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성전 완공과, 성도들에게 영적인 권능을 주는 일에 관해서는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 대신, 앞으로 어려운 시기가 닥칠 것이라고 경고하며 이 마지막 시대에 자신이 담대히 성도들을 인도하겠다고 공약했다.³⁰

얼마 후, 교회의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시드니는 새 지도자를 선출하고 관재인을 지명하기 위해 이틀 안에 성도들을 소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윌라드와 다른 사도들은 불안한 마음에, 시드니의 주장을 검토하고 정원회의 나머지 일원들이 모두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윌리엄 마크스는 타협 끝에 나흘 뒤인 8월 8일로 모임 일정을 잡았다.³¹

8월 6일 저녁, 브리검 영, 히버 김볼, 올슨 프렛, 윌포드 우드럽, 라이먼 화이트가 증기선을 타고 나부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삼시간에 퍼졌다. 성도들은 곧장 거리로 나가서 집으로 돌아온 사도들을 맞이했다.³²

새로 도착한 사도들은 이튿날 오후에 윌라드 리차즈, 존 테일러, 팔리 프렛, 조지 에이 스미스와 함께 시드니와 교회의 다른 평의회 일원들을 만났다.³³ 시드니는 8월 8일에 새 지도자를 선출하는 방침과 관련해 생각이 바뀌어 있었다. 그는 그날은 성도들과 함께 기도 모임을 열고 싶으며, 문제에 대한 결정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 되어 “서로 마음을 녹일” 수 있을 때까지 미루고 싶다고 말했다.³⁴

시드니는 여전히 자신에게 교회를 이끌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렇게 말했다. “저는 이 교회가 조셉을 위해 세워져야 하며, 우리가 받는 모든 축복은 그를 통해서만 와야 한다는 시현을 받았습시다.” 시드니는 자신이 약 10년 전에 조셉과 함께 위대한 하늘의 시현을 보았는데, 최근에 본 시현은 그 시현의 연장선 위에 있다고 했다.

그는 조셉이 1833년에 받았던 계시를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저는 조셉의 대변자로 성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나부로 와서 교회가 올바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³⁵

시드니의 말은 윌포드에게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했다. 윌포드는 자신의 일지에 “그것은 아류 시현이었다.”라고 적었다.³⁶

시드니가 말을 마치자 브리검 영이 일어나서 조셉은 사도의 모든 열쇠와 권능을 십이사도들에게 부여했다고 간증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저는 누가 교회를 인도하든 그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점에 관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만은 알아야겠습니다.”³⁷

시드니가 기도 모임을 열기로 한 8월 8일, 브리검 영은 이른 아침에 열리는 십이사도 정원회 모임을 놓치고 말았다. 여태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다.³⁸ 집 밖으로 나간 브리검은 수천 명의 성도들이 성전 근처의 숲에 모여 있는 광경을 보게 되었다. 바람이 세차게 불던 그날 아침, 시드니는 뒤쪽에서 불어오는 거센 바람을 맞으며 짐마차 안에 서 있었다. 시드니는 기도 모임을 하는 대신 자신이 교회의 보호자라는 주장을 또 한 번 펼치고 있었다.

그는 한 시간 이상 연설을 하며 조셉과 하이럼은 영원토록 신권 권세를 지닐 것이고, 그들이 죽은 후에도 남은 사람들이 충분히 교회를 이끌 수 있도록 평의회를 조직해 두었다고 간증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선포했다. “모든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부름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는 재차 자신의 자리와 부름은 조셉의 대변자라고 말했다. 그는 이 사안을 회중의 투표에 부치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는 성도들에게 자신의 견해를 알리고자 했다.³⁹

시드니가 말을 마치자 브리검이 성도들을 향해 몇 분만 더 이 자리에 머물러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교회의 일을 처리하기에 앞서 조셉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그는 성도들이 시급히 여기는 문제는 새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임을 감지할 수 있었다. 브리검은 그들 중에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힘을 가지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걱정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교회의 새 지도자를 지지할 수 있도록 그날 오후에 다시 모여 달라고 성도들에게 부탁했다. 그렇게 해서 정원회별로, 그리고 교회 전체가 함께 투표를 하기로 했다. 브리검이 말했다. “5분이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적대적으로 행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남성과 여성이 ‘아멘’을 외칠 것입니다.”⁴⁰

에밀리 호이트는 그날 오후에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다시 숲으로 온 사람 중 한 명이었다. 30대 후반인 에밀리는 선지자의 사촌으로, 교사 전문학교를 졸업했다. 지난 몇 년 동안 조셉 및 하이럼과 가까이 지내온 에밀리와 새뮤얼 부부는 그 두 형제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슬퍼하고 있었다. 그들은 강 건너 아이오와 준주에 살고 있었지만, 시드니의 기도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그날 나부에 왔었다.⁴¹

2시 정각 무렵, 신권 정원회와 평의회 구성원들이 연단과 그 주위에 함께 자리를 잡고 앉았다. 브리검 영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⁴² “그동안 리그돈 회장님이 교회의 회장이 되는 것에 관해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 말씀드리건대, 온 세상에 있는 하나님 왕국의 열쇠는 십이사도 정원회에 있습니다.”⁴³

말씀을 듣던 에밀리는 혹시 자신이 조셉의 말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여 얼른 브리검을 올려다보았다. 브리검은 조셉과 같이 표현하고, 같은 방식의 논리로 말하고 있었으며, 목소리마저 조셉과 똑같았다.⁴⁴

브리검은 다음과 같이 말을 이었다. “선지자 조셉 형제는 위대한 사업의 기초를 놓았으며, 우리는 그 위에 이 사업을 이룩해 나갈 것입니다. 전능한 기초가 놓였으므로, 우리는 세상에 없던 왕국을 그 위에 세울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이 성도들을 없애는 속도보다 더 빨리 왕국을 세울 것입니다.”

브리검은 그러려면 성도들이 주님의 뜻에 따라 신앙으로 생활하며 함께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일 여러분께서 시드니 리그돈이나 윌리엄 로, 혹은 다른 누구를 지도자로 삼고 싶으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드리건대, 어느 누구도 십이사도와 선지자 조셉 사이에 다른 사람을 끼워 넣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조셉은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이 온 세상을 위해 왕국의 열쇠를 십이사도들의 손에 맡겼기 때문입니다.”⁴⁵

사도인 브리검이 성도들을 향해 십이사도를 교회의 지도자로 지지해 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에밀리는 조셉에게 임했던 영과 권능이 이제 브리검에게 임한 것을 느꼈다. 브리검은 말했다. “이제 모든 남성과 여성, 모든 정원회에 질서가 세워졌습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 중에 이를 찬성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들어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에밀리를 비롯한 전체 회중이 손을 들었다.⁴⁶

브리검은 말했다. “우리는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의 선지자가 기초를 놓았으므로, 우리는 그 위에 왕국을 세울 것입니다. 다른 기초가 놓일 수는 없으며, 왕국의 기초는 이미 놓였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엔다우먼트를 받게 될 것입니다.”⁴⁷

7년 뒤, 에밀리는 브리검이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모습을 목격했던 경험을 기록하면서 연단에 선 그의 얼굴과 목소리가 조셉과 매우 흡사했다고 간증했다. 그 후 몇 년 동안 수십 명의 성도들도 그녀와 똑같은 간증을 하며, 조셉 스미스가 지냈던 선지자의 권세가 그날 브리검에게로 옮겨진 모습을 자세히 설명했다.⁴⁸

에밀리는 이렇게 기록했다. “브리검이 성도들의 일을 관리할 권한을 지녔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해 줄 말은 이것뿐이다. 하나님의 영을 얻어 스스로 알아보라. 그러면 주님께서 당신의 유익을 위해 답해 주시리라.”⁴⁹

이튿날, 월포드는 아직도 도시에 우울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음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일지에 이렇게 적었다. “선지자와 축복사가 세상을 떠났다.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열의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월포드와 십이사도들은 즉시 일을 시작했다. 그들은 그날 오후에 모여서 뉴얼 휘트니와 조지 밀러를 교회의 관재인으로 지명하여 조셉의 재정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 짓게 했다.⁵⁰

사흘 뒤에 그들은 아마사 라이먼을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 부르고, 미국 동부와 캐나다를 지방부로 나누어 고등평의회에서 관리하게 했다. 브리검과 히버, 월라드는 이 직책을 맡을 사람들을 부르고 미국 안에서 교회를 관리하기로 했으며, 월포드는

피비와 함께 영국으로 가서 영국 선교부를 감리하고 그곳의 인쇄 시설을 관리하기로 했다.⁵¹

월포드가 선교 사업을 준비하는 동안, 다른 사도들은 나부의 교회를 강화하기 위해 힘썼다. 8월 8일에 열린 모임에서 성도들은 십이사도를 지지했지만, 일각에서는 교회 안에서 편을 갈라 사람들을 끌어오려 하는 시도도 있었다. 그중에는 제임스 스트랭이라는 교회의 새로운 회원도 있었는데, 그는 조셉이 편지로 자신을 진정한 후계자로 지명했다고 주장했다. 제임스의 집은 위스콘신 준주에 있었으므로 그는 성도들을 그곳에 집합시키고 싶어 했다.⁵²

브리검은 성도들에게 반대 세력을 따르지 않도록 주의를 주며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흩어지지 마십시오. 이곳 나부에 그대로 남아 성전을 짓고 엔다우먼트를 받으십시오.”⁵³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성전을 완공하는 것이었다. 월포드와 피비는 영국으로 떠나기 전날인 8월 27일 밤에 친구들과 함께 성전으로 갔다. 월포드와 피비는 이제 2층 꼭대기까지 올라간 성전 벽 아래에 서서 달빛에 비친 성전의 장엄하고 숭고한 모습에 경탄했다.

그들은 사다리를 타고 성전 벽의 맨 꼭대기에 올라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월포드는 성도들에게 성전을 지을 힘을 주신 것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렸고, 그들이 성전을 완공하여 엔다우먼트를 받고 주님의 사업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간구했다. 또한, 그는 선교 임지에서 자신과 피비를 지켜 달라고 기도했다.

“선교 사업을 의롭게 수행하고, 이 땅으로 돌아와서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의 집의 뜰을 밟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⁵⁴

다음 날, 우드럽 부부가 떠나기 전에 브리검이 피비에게 그녀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축복해 주었다. 그는 이런 약속을 주었다. “그대는 그대의 남편과 마찬가지로 그대의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축복을 받으리라. 또한, 그대를 통해 많은 좋은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그대가 겸손한 마음으로 나간다면, 그대는 보호를 받고 돌아와 주님의 성전에서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게 되리라.”

그날 오후에 윌포드와 피비는 영국으로 떠났다. 그들과 함께 선교 사업을 떠나는 이들 가운데는 댄 존스와 그의 아내인 제인도 있었다. 그들은 조셉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웨일스로 향했다.⁵⁵



권능을 부여받아

1844년 가을, 십이사도 정원회는 모든 성도 앞으로 다음과 같은 서한을 보냈다. “우리가 가장 큰 관심을 쏟아야 할 곳은 성전입니다.” 그들은 성전 건축이 가속화되도록 자금과 물자, 노동력을 보태 달라고 성도들을 독려했다. 그들 앞에는 권능의 엔다우먼트가 기다리고 있었기에, 이제 그것을 받을 장소만 있으면 되었다.¹

성도들도 사도들 못지않게 마음이 급했다. 지난 9월에 피터 모건은 미시시피강에서 북쪽으로 몇 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성도들의 새로운 탄광에 관하여 윌라드 리차즈에게 편지를 보냈었다. 피터와 메리는 최근에 나부에 있는 집을 팔아서 교회의 탄광을 사는 데 그 돈을 보탠 후 탄광 근처의 허름한 오두막으로 거처를 옮겨 살고 있었다. 하지만 피터는 얼른 나부로 돌아가서 주님의 집에 쓰일 돌을 자르고 싶었다.

그는 윌라드에게 말했다.“제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 뿐입니다. 성전이 세워지고 있는데, 저는 그 일을 돕는 특권에서 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²

성전 벽체가 높이 올라가자, 브리검은 조셉이 시작했던 일을 이어 가기로 마음먹었다. 선지자 조셉이 보였던 모범을 따라, 브리검은 엔다우먼트를 받은 성도들과 함께 자주 기도하며 교회가 보호되고 단합할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했다. 성전 지하에서는 조셉이 사망한 뒤로 중단되었던 죽은 자를 위한 침례가 다시 시작되었고, 더 많은 수의 장로들과 칠십인들이 선교 임지로 다시 나갔다.³

그러나 어려움은 절대 사라지는 법이 없었다. 9월에 브리검과 십이사도는 시드니가 자신들에 대해 음모를 꾸미며 조셉을 타락한 선지자로 매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시드니에게 배도의 죄를 물었고, 휘트니 감독과 고등평의회는 그를 파문했다. 시드니는 얼마 후 성도들이 절대로 성전을 완공하지 못하리라고 저주하며 나부를 떠났다.⁴

한편 에머 스미스는 여전히 가족들의 복지가 걱정이었다. 그녀는 또한 사도들을 온전히 지지하려 하지 않았다. 조셉의 부동산을 정리하도록 사도들이 지명한 관재인에게 협조하기는 했으나 조셉이 남긴 서류와 다른 재산에 대해 논쟁이 오가는 상황 속에서 그녀는 분노가 쌓여 갔다. 게다가 사도들이 계속해서 은밀히 복수 결혼을 가르치고 시행하는 것 또한 마뜩찮았다.⁵

복수 결혼을 통해 조셉에게 인봉되었던 여성들은 그가 남긴 부동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지는 않았다. 조셉이 사망한 후

에 일부 여성들은 자신들의 가족에게로 돌아갔고, 또 일부는 조셉이 없는 동안 그들을 돌보고 부양하기로 성약을 맺은 십이사도들과 결혼했다. 사도들은 계속해서 비밀리에 더 많은 성도들에게 복수 결혼을 소개하고, 복수 결혼을 통해 더 많은 아내를 맞이하여 그들과 가정을 이루기 시작했다.⁶

1845년 초에 성도들은 외부에서 가해 오는 어마어마한 시련에 직면했다. 먼저, 토머스 샤프 외 여덟 명의 남성들이 조셉과 하이럼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었지만, 성도들은 그들이 유죄 선고를 받으리라고는 예상하지 않았다. 또한, 일리노이주 의원들은 나부시현장을 폐지함으로써 교회 회원들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무력화하려 했다. 포드 주지사는 의원들의 그런 노력을 지지했다. 1845년 1월 말에 의회는 나부에 거주하는 성도들에게서 법을 제정하고 집행할 권리를 박탈했다. 또한 그들은 나부 지역의 경찰과 나부 군단을 해산시켰다.⁷

이러한 보호 수단이 사라지자 브리검은 성도들이 적의 공격을 이제 거의 맨몸으로 겪어야 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느꼈다. 그러나 성전이 완공되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었고, 성도들이 나부에서 달아난다면 엔다우먼트를 받는 것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마치기 위해 시간이 필요했다. 그러나 일 년이라도 더 나부에 머문다면 모두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었다.

브리검 영은 무릎을 꿇고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기 위해 기도했다. 주님의 응답은 간단했다. 그분은 성도들에게 나부에 머물며 성전을 완공하라고 지시하셨다.⁸

3월 1일 아침, 서른여덟 살의 루이스 대나가 아메리칸 인디언으로서 처음으로 오십인 평의회 의원이 되었다. 조셉이 살해된 뒤로 평의회 모임은 중단된 상태였다. 그러나 나부현장이 폐지되는 일이 벌어지자 성도들은 이제 나부에서 지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달았고, 십이사도 정원회는 나부시를 운영하고 나부를 떠날 계획을 세우기 위해 평의회를 소집했다.

루이스는 오네이다 부족의 일원으로 1840년에 가족과 함께 침례를 받았다. 그는 몇 차례 선교사로 봉사했는데, 미국 서부의 인디언 영토에서도 한 차례 봉사했고, 멀리 로키산맥까지도 가 본 경험이 있었다. 루이스의 친구와 친척들이 서부의 인디언 부족 내에 있다는 것을 안 브리검은 그에게 오십인 평의회 의원이 되어 그 부족과 그 땅에 관한 정보를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드리건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루이스는 평의회 모임에서 그렇게 다짐했다.⁹

지난 몇 년 동안 나라의 지도자들은 성도들에게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았다. 이에 성도들은 몹시 분노하고 있었으며,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제 이 나라를 떠나 조셉의 계획대로 새로운 집합 장소를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그곳에서 성도들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처럼 먼 나라들을 향해 기를 높이 들고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었다. 조셉과 마찬가지로 브리검도 인디언들이 사는 서쪽에 집합 장소를 마련하여 흩어진 이스라엘의 가지로서 그들과 함께 모일 수 있기를 바랐다.

브리검은 루이스 등 몇몇 평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원정대를 서쪽으로 보내서 인디언 부족들을 만나 성도들이 서쪽으로 이주

하는 목적을 설명하게 하자고 평의회에 제안했다. 원정대는 또한 성도들이 집합할 수 있는 장소를 찾는 임무도 수행할 것이었다.¹⁰

히버 김볼은 그 계획에 찬성했다. “그들이 장소를 찾는 동안 성전이 완공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엔다우먼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¹¹

평의회는 원정대를 승인했고, 루이스는 원정대의 지도자 직책을 받아들였다. 남은 3월과 4월 동안 그는 평의회 모임에 참석하며 원정대의 채비를 갖추고 목표를 달성할 가장 좋은 방법을 동료들에게 조언했다.¹² 평의회는 4월 말까지 네 사람을 지명하여 루이스와 함께 원정을 떠나게 했다. 그중에는 브리검의 형인 피니아스 영과 최근에 개종한 솔로몬 턴덜도 있었는데, 솔로몬 턴덜은 텔라웨어 인디언이 입양한 모히간 인디언이었다.¹³

얼마 후, 원정대는 나부를 떠나 미주리를 가로질러 남서쪽으로 이동한 후 그 너머의 영토로 들어갔다.¹⁴

애디슨 프랫이 나부에 아내와 아이들을 두고 남태평양의 섬 투부 아이로 온 지도 어느덧 2년이 되었다. 애디슨이 기회가 닿는 대로 집에 편지를 보낸 것처럼 분명 루이자도 애디슨에게 편지를 보냈을 텐데, 그는 가족들의 편지를 한 통도 받아 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도와준 투부아이 주민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었다. 이 작은 섬에는 약 2백 명의 주민이 있었고, 애디슨은 열심히 봉사하며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많은 친구를 사귀었다. 섬에서 일 년을 보내는 동

안 그는 부족장의 만팔인 레파 등 60명의 주민들에게 침례를 주었다. 에디슨이 침례를 준 이들 가운데는 나보타와 텔리 부부가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전부를 에디슨과 공유하며 그를 가족처럼 대했다. 나보타와 텔리가 나부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자기를 이곳으로 보내어 선교 사업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을 볼 때면 에디슨은 마치 영적인 만찬을 취하는 것 과도 같은 기분을 느꼈다.¹⁵

루이자와 딸들을 생각하면 향수병에 마음이 사무쳤지만, 그러한 그리움은 오히려 그들이 희생하는 이유를 되짚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에디슨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을 얻기를 바라기에 투부아이에 있는 것이었다. 그는 투부아이 성도들을 방문하기 위해 섬을 누비고 다니며 자주 따뜻한 사랑을 느꼈으며, 그럴 때마다 그와 주변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다.

그는 일지에 이렇게 적었다. “이곳에는 영원한 복음으로 맺어질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¹⁶

에디슨은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난 1845년 7월에 동료 선교사인 노아 로저스의 편지를 통해 조셉과 하이럼의 죽음을 알게 되었다. 당시 노아는 투부아이보다 미국에서 더 멀리 떨어진 타히티에서 봉사하고 있었다. 두 사람이 살해당했다는 편지를 읽으면서, 에디슨은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만 같았다.¹⁷

일주일 뒤, 노아가 다시 에디슨에게 편지를 보내왔다. 타히티와 그 주변 섬들에서는 선교 사업이 투부아이에서만 성공적이지 않았으며, 노아는 나부의 소식을 듣고 불안해하고 있었다. 그는 나부에 남겨 두고 온 아내와 아홉 자녀의 안전을 걱정했다.

그들은 미주리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당시에 큰 고초를 겪었기에, 노아는 가족들이 자신도 없이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는 곧장 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갈 계획이었다.¹⁸

에디슨도 노아를 따라갈 이유는 충분했다. 조셉이 사망한 데다 그도 가족과 교회가 걱정되었다. 그는 일지에 이렇게 적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주님만이 아신다.”¹⁹

며칠 뒤, 노아는 배를 타고 떠났으나 에디슨은 투부아이의 성도들 옆에 남기로 했다. 그다음 일요일에 그는 그 지역의 언어로 세 차례, 영어로 한 차례 설교를 전했다.²⁰

일리노이에 있는 루이자 프랫은 나부 남쪽의 소규모 정착촌 베어 크리크에 사는 친구 에라스터스와 루하마 더비를 방문했다.²¹ 그녀가 그곳에 있는 동안, 근처에 있는 성도들의 정착촌에서는 폭도들의 방화로 큰 화재가 일어났다. 에라스터스는 곧바로 이웃 정착촌을 지키기 위해 떠났고, 폭도들이 베어 크리크도 공격할 것에 대비해 두 여성은 남아서 집을 지켰다.

그날 밤, 두려움에 잠을 이룰 수 없던 루하마는 루이자에게 자신이 불침번을 설 테니 잠을 청하라고 했다. 아침이 되어 루이자가 일어나서 보니 루하마는 한껏 지쳐 있으면서도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었다. 긴장된 하루가 무사히 지나고 다시 어둠이 내리자, 루이자는 자신이 밤 동안 불침번을 서겠다고 루하마를 설득했다. 처음에 루하마는 너무 겁을 먹은 나머지 루이자를 믿지 못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친구를 이기지 못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며칠 뒤에 에라스터스가 돌아왔을 때, 두 여성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하지만 다행히도 모두가 무사했다. 에라스터스는 이웃 정착촌의 성도들이 비와 밤공기에 노출된 채 천막과 마차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²² 그 소식을 들은 브리검은 나부 밖에 사는 성도들에게 안전한 나부로 집합할 것을 요청했다. 브리검은 폭도들의 공격을 막고 성전을 완공하라는 주님의 명을 완수할 시간을 벌기 위해 포드 주지사에게 봄까지는 그 지역을 떠나겠다고 약속했다.²³

루이자는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남편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상황에서 혼자서 가족들을 데리고 움직여야 하는데, 루이자가 생각하기에 자신은 그럴 능력도 자원도 부족했다. 나부를 떠나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루이자는 마음이 초조해졌다.²⁴

일주일 동안 비가 내린 후, 마침내 1845년 10월 연차 대회가 시작되자 나부의 하늘은 맑게 개었다. 유난히도 따뜻한 날씨 속에서 도시 곳곳의 성도들은 언덕 위에 있는 성전으로 모여 새로 지은 1층 회당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내부는 아직도 공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곳이 많았지만, 외벽과 지붕은 모두 완성되었고 꼭대기에서는 종탑이 햇빛에 빛나고 있었다.²⁵

브리검은 성도들이 줄지어 회당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미어졌다. 그는 성전도, 이 나부도 버리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 있었던 폭도들의 공격은 성도들이 이곳에 더 오래 머물 경우 벌어질 일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²⁶ 또

한, 그해 봄에 조셉과 하이럼에 대한 살해 혐의를 받는 이들이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성도들은 이곳 일리노이에서는 자신들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더욱 확실히 깨닫게 되었다.²⁷

인디언 영토로 원정을 떠난 루이스 대니는 긍정적인 소식을 전해 왔고, 사도들과 오십인 평의회는 지난 몇 주 동안 새로운 집합 장소로 가능한 곳들을 두고 계속해서 논의를 해 왔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로키산맥 저편에 있는 그레이트 솔트레이크 밸리에 관심을 보였다. 솔트레이크 밸리에 대한 전망이 좋았으므로, 브리검은 성도들이 그 근처에 정착하여 나중에는 태평양 연안을 따라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되리라고 믿었다.²⁸

그러나 솔트레이크 밸리는 낮설고 광활한 황야 건너 2천 2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 있었고, 그곳까지 가는 길은 아직 제대로 닦여 있지 않은 데다가 식료품이나 생필품을 살 만한 상점도 거의 없었다. 성도들도 이미 나부를 떠나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잠재적인 위험을 떠안고 그토록 먼 길을 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다.

브리검은 주님의 도움으로 해낼 수 있다고 믿으며, 연차 대회를 계기로 회원들을 북돋고 안심시킬 계획이었다. 오후 모임의 첫 번째 연사로 나선 팔리 프랫은 교회가 서부로 이동할 계획이 있음을 언급했다. “주님은 우리를 더 넓은 활동 무대로 이끌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그곳에는 성도들이 성장하고 강화될 여지가 더 많으며, 우리는 그곳에서 자유와 평등권이라는 순수한 원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음 연사는 조지 에이 스미스였다. 그는 성도들이 미주리에서 경험한 박해에 관해 이야기했다. 근절령의 위협을 느낀 그들은 낙오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다 함께 미주리에서 대피했었다. 조지는 성도들이 이번에도 그렇게 하여 혼자 힘으로는 여행을 할 수 없는 이들을 돕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기를 바랐다.

조지의 말씀이 끝난 후, 브리검이 나와서 서부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뒤에 남겨 두지 않기로 성도들이 서로 약속을 하고, 주님과도 그렇게 할 것을 제안했다. 히버 김볼이 지지를 묻자, 성도들은 기꺼이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뜻으로 손을 들어 보였다.

브리검은 약속했다. “여러분이 이 성약을 충실히 지키신다면, 그 일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위대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필요한 수단을 비처럼 쏟아부어 주실 것임을 예언합니다.”²⁹

연차 대회가 끝나고 몇 달이 지나는 동안 성도들은 톱과 망치, 모루, 바늘을 모두 동원하여 서부로 가는 여정에 쓸 짐마차를 만들었다. 또한, 성도들은 나부를 떠나기 전에 의식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성전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을 배가했다.³⁰

인부들이 엔다우먼트와 인봉을 위해 성전의 꼭대기 층을 준비하는 동안, 지하에서는 죽은 자를 위한 침례가 계속 진행되었다. 브리검은 주님의 지시에 따라 이제부터는 남성이 여성을 대신하거나 여성이 남성을 대신해서 침례를 받을 수 없다는 지침을 주었다.³¹

그해 초에 브리검은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조셉은 살아 있는 동안 구속의 교리와 관련된 것을 다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위대한 백성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해의 왕국에서 승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얻는 법과 그들에게 그것들을 가르치는 법을 이해하는 이들에게 열쇠를 남겨 주었습니다.”

의식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은 곧 주님께서 계속해서 당신의 뜻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밝혀 주신다는 의미였다. 브리검은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은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알려 주시는 방식으로 이 백성을 줄곧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은 우리의 지혜가 자라게 하셨습니다. 작은 것을 받고 감사하게 여기는 사람은 점점 더 많은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³²

12월에 성전 꼭대기 층이 완성되자, 사도들은 그곳을 엔다우먼트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기 위해 준비했다. 그들은 성도들의 도움으로 두꺼운 커튼을 달아 큰 공간을 몇 개의 방으로 나누고 화분과 벽화로 장식했다. 그 층의 동쪽 끝에 있는 널찍한 공간은 칸막이를 쳐서 성전에서 가장 성스러운 곳인 해의 왕국실로 만들고, 거울과 그림, 지도와 멋진 대리석 시계로 장식했다.³³

사도들은 성도들에게 성전으로 와서 축복을 받도록 권고했다. 이미 엔다우먼트를 받았던 남성과 여성은 이제 돌아가며 그 의식에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했다. 그들은 성도들을 성전의 여러 방으로 인도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마련하신 계획을 가르쳤고, 성도들이 복음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헌신하겠다는 성약을 맺게 했다.³⁴

빌리트 김볼과 앤 휘트니는 여성들에게 씻음과 기름 부음 의식을 집행했다. 그런 다음에는 엘리자 스노우가 여성들을 나며

지 의식들로 안내했으며, 이미 엔다우먼트를 받은 여성들이 그 나머지 의식들을 도왔다. 브리검은 머시 톰슨에게 성전 안으로 거처를 옮겨 상주하며 그곳에서 의식을 돕도록 부름을 주었다.³⁵

새해가 시작되자 사도들은 부부들을 현세와 영원을 위해 인봉하기 시작했다. 얼마 안 가서 천여 쌍의 부부들이 새롭고도 영원한 결혼 성약을 맺었다. 샬리와 윌리엄 펠프스, 루시와 아이잭 몰리, 앤과 필로 디블, 캐롤라인과 조너선 크로스비, 리디아와 뉴얼 나이트, 드루실라와 제임스 헨드릭스 등 여기저기에서 교회를 따르고 시온을 위해 삶을 헌신한 남성과 여성들이 그때 인봉되었다.

또한, 사도들은 자녀들을 부모들에게 인봉하고, 남성과 여성을 세상을 떠난 배우자에게 인봉했다. 조셉이 집으로 금판을 가져오던 날 아침에 기쁨을 함께 나누었던 조셉 나이트 일세는 아내 폴리와 대리 인봉을 받았다. 폴리는 미주리주 잭슨군에 묻힌 첫 번째 성도였다. 성도들 중에는 가까운 친구의 영원한 가족으로 함께할 특별한 입양 인봉에 참여한 이들도 있었다.³⁶

신권을 통해 성도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고리처럼 주님께로, 그리고 서로에게로 연결시키는 그리스도의 계획은 그렇게 각 의식이 집행됨으로써 현실이 되었다.³⁷

그해 겨울, 교회의 적들은 봄이면 나부를 떠나겠다는 성도들의 약속을 의심하며 조바심을 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쓴 브리검과 사도들은 적들의 눈을 피해 다녔으며 심지어 성전 안에 숨기도 했다.³⁸ 성도들의 애국심에 의심을 품은 미국 정부가 성도들이 미국

을 떠나, 서부 지역을 다스리는 외부 세력과 동맹을 맺지 못하도록 군대를 파견한다는 소문도 나돌았다.³⁹

사도들은 떠나라는 압박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그들은 교회의 지도자들과 그들의 가족, 그리고 박해의 표적이 된 이들은 최대한 빨리 나부를 떠나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들은 미시시피강을 건너 아이오와주로 가면 적들의 공격을 좀 더 지연시키며 그들의 폭력을 막을 수 있으리라고 믿었다.

1846년 1월 초, 사도들은 오십인 평의회와 함께 탈출 계획을 마무리했다. 그들은 나부를 떠나기 전에 대리인을 임명하여 남겨진 재산을 관리하고 가난한 이들의 여행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팔도록 했다. 또한, 그들은 몇몇 남성이 뒤에 남아 성전을 완공하고 헌납하기를 바랐다.

브리검과 십이사도는 로키 산맥 너머에 있는 분지에 성도들을 집합시키기로 했다. 브리검은 날마다 성전에서 금식하고 기도한 끝에 조셉이 깃발이 휘날리는 산꼭대기를 가리키는 시현을 보았다. 조셉은 브리검에게 그 산의 그림자가 드리운 곳에 도시를 세우라고 말했다.

브리검은 그 지역을 탐낼 사람은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다. 그곳은 로키산맥 동편에 있는 평지에 비해 비옥하지 않았다. 그는 로키산맥 덕분에 성도들이 적으로부터 보호받고 온화한 기후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랐다. 또, 정착 후에는 태평양 연안에 항구를 건설하여 영국과 미국 동부에서 건너오는 이민자들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했다.⁴⁰

이틀 뒤에 다시 평의회가 열렸고, 브리검은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고 먼 나라들을 향해 기를 들어 올리하고자 했던 조셉의

염원을 거듭 숙고했다. 그리고 평의회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 산맥 꼭대기에 주님의 집이 우뚝 서고 자랑스러운 자유의 깃발이 산맥으로 둘러싸인 그 땅에 휘날리고 나서야 선지자들의 말이 증명될 것입니다.

저는 그곳이 어디인지를 압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깃발을 만들지도 압니다.”⁴¹

수천 명의 성도가 성전 의식을 완료한 2월 2일, 사도들은 이제 성전 공사를 중단하고, 미시시피강 건너로 마차를 실어 나를 배를 준비해야 한다고 공표했다. 브리검은 마차 부대의 대장들에게 전갈을 보내 네 시간 안에 떠날 수 있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런 후 그는 저녁 늦게까지 계속해서 성도들을 위해 엔다우먼트를 집행했고, 성전 사무장들에게는 모든 의식이 정확히 기록될 때까지 그곳에 머물라고 했다.⁴²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난 브리검은 자신의 엔다우먼트를 받으려고 성전 앞에 몰려온 성도들을 만났다. 브리검은 출발을 미루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며 그들을 타일렀다. 엔다우먼트를 받기 위해 그곳에 더 머문다면, 나무를 벗어나는 일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질 수도 있었다. 그는 서쪽으로 가면 더 많은 성전을 지어서 그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브리검은 이제 성도들이 해산하리라 생각하며 다른 쪽으로 걸어갔지만, 성도들은 계단을 올라 성전으로 가서 홀을 가득 메웠다. 결국 브리검은 발길을 돌려 그들을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간

절함이 묻어나는 그들의 표정을 본 그는 마음을 바꿨다. 성도들은 다가올 고난을 견디고 사망의 고통을 극복하여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가려면 권능의 엔다우먼트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성전 봉사자들은 그날 온종일 수백 명의 성도들을 위해 의식을 집행했다.⁴³ 이튿날인 1846년 2월 4일, 첫 번째 마차들이 나부를 벗어나는 동안 추가로 5백 명의 성도들이 자신의 엔다우먼트를 받았다.

2월 8일, 브리검과 사도들은 성전 2층에서 마지막 모임을 열었다. 그들은 제단 돌레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사도들은 서부로 향하는 성도들과 나부에 남아 성전을 완공하고 그분께 헌납할 성도들을 위해 축복을 간구했다.⁴⁴

그후로 며칠, 그리고 몇 주에 걸쳐서, 성도들은 각각 무리를 지어 밀바닥이 평평한 배에 마차와 황소 떼를 싣고 강을 건넌 후 이미 건너편에 가 있던 이들과 합류했다. 미시시피강 서쪽으로 몇 킬로미터 떨어진 높은 언덕에 다다른 많은 성도들은 나부를 돌아보며 나부 성전에 눈물겨운 작별을 고했다.⁴⁵

루이자 프렛은 하루하루 친구와 이웃들이 도시를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옆에서 도와줄 남편이 없는 상황에서 그녀는 아직도 서부로 가는 일에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다. 다들 이 여행이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가득하리라고 예상했으나, 그녀에게 떠날 준비가 되었는지 물어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고, 애디슨에게 선교사 부름을 준 이들 중에서도 그녀의 이주를 돕겠다고 나서는 이가 없었다.

루이자가 친구에게 자신의 그런 감정을 토로한 뒤, 어느 날 그 친구는 다음과 같은 말을 전했다. “프랫 자매님, 그분들은 자매님이 도움을 받지 않고도 현명하게 혼자 힘으로 갈 수 있기를 바라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까지도 기대하세요.”

루이자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곧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보여 드리겠어요.”⁴⁶

에밀리 파트리지는 휘몰아치는 눈보라를 맞으며 미시시피강 서쪽 강둑에서 쓰러진 나무에 앉아 떨고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와 자매들은 옛새 전에 강을 건너 그 근처에서 야영을 하고 있었지만, 에밀리는 그들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다. 나부를 떠난 많은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그녀도 피곤하고 배가 고팠으며, 앞으로 갈 길이 불안했다. 신앙 때문에 자신이 살던 곳에서 내쫓긴 것은 이번이 네 번째였다.⁴⁷

에밀리는 자신이 기억하는 삶의 모든 순간을 후기 성도로서 살아왔다. 그녀는 부모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봉사하고 시온을 건설하기 위해 박해와 궁핍을 겪는 모습을 보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 폭도들에 쫓겨 미주리를 떠나던 열여섯 살에 그녀는 이미 수년간 피난처와 평화로운 곳을 찾아다니며 살았었다.

이제 스물두 살이 되어 가는 이 시점에 그녀는 또 다른 여정을 시작하고 있었다. 에밀리는 조셉이 죽은 뒤 복수 결혼을 통해 브리검 영의 아내가 되었다. 지난해 10월에 그들은 아들을 낳았고, 아들 이름은 에밀리의 아버지 이름을 따서 에드워드 파트리지 영으로 지었다. 두 달 뒤에 에밀리는 성전에 가서 자신의 엔다우먼트를 받았다.

아기가 이 여정에서 살아남는다면, 로키산맥에서 자라며 자기 어머니가 어려서 겪었던 폭도들의 위험 따위는 겪지 않아도 될 것이었다. 그 아이는 에밀리가 잭슨군이나 나부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절대로 알지 못할 것이었다. 또, 조셉 스미스도 만나지 못할 것이고, 일요일 오후마다 성도들에게 전하던 그의 설교도 듣지 못할 것이었다.

에밀리는 미시시피강을 건너기 전에 조셉과 에머의 아들인 데이비드 하이럼을 보기 위해 나부 맨션에 들렀다. 데이비드 하이럼은 조셉이 죽고 다섯 달이 지난 뒤에 태어난 아이였다. 에머와 에밀리 사이에 있었던 좋지 않은 감정은 이제 말끔히 사라지고 없었다. 에머는 에밀리를 방으로 불러 살뜰히 대했다.

에머와 그 자녀들은 서부로 가지 않을 계획이었다. 그녀는 복수 결혼을 받아들이지 못해 힘겨워했고, 재산 분쟁이 계속되면서 교회 및 십이사도와의 관계가 복잡해져 있었다. 물론 그녀는 여전히 물몬경을 믿었고, 남편의 선지자 부름에 대한 강한 간증이 있었다. 하지만 에머는 사도들을 따라가는 대신 스미스가의 가족과 함께 나부에 남는 편을 택했다.⁴⁸

에밀리가 미시시피 강변에 앉아 있는 동안 큼지막한 눈송이들이 그녀의 옷자락에 내려앉았다. 추위는 더욱 매섭게 에밀리의 몸속을 파고들었다. 브리검은 아직 나부에 머물며 성도들이 나부를 떠나는 일을 지휘하고 있었으므로, 그녀는 일어나 아기를 안고 온기와 낮익은 얼굴을 찾아 모닥불 사이사이를 옮겨 다녔다. 그리고 얼마 뒤, 언니인 엘리자를 만나 슈거 크리크라 불리는 곳에 모여 야영 생활을 하는 성도들과 합류했다. 그곳에서 가족들은 천막과 마차 안에 웅크리고 앉아서 추위와 알 수 없는 미래에 맞서 서로 몸을 맞댄 채 온기와 위안을 찾고 있었다.⁴⁹

그 누구도 내일 일을 장담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은 무작정 어둠 속으로 뛰어든 것이 아니었다. 성도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과 성약을 맺음으로써 서부로 가는 동안 그들을 인도하고 지지해 줄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신앙으로 강화되었다. 그들은 로키산맥 정상 너머 서부 어디쯤엔가 그들이 집합하고, 성전을 짓고,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장소가 있으리라고 굳게 믿었다.⁵⁰

주

일부 출처는 약어로 기재되어 있으며, “인용 출처” 부분에는 모든 자료의 전체 인용 정보가 나와 있다. 많은 자료가 디지털로 열람 가능하며, saints.lds.org와 복음 자료실에서 볼 수 있는 전자책 버전에는 해당 자료들이 링크되어 있다.

주에 나오는 주제는 saints.lds.org에서 추가 정보를 열람할 수 있음을 뜻한다.

서문

1. Woodruff, Journal, Oct. 20, 1861.
2. Joseph Smith and others, *History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edited by B. H. Roberts (Salt Lake City: *Deseret News*, 1902-1912 [vols. 1-6], 1932 [vol. 7]); B. H. Roberts, *A Comprehensive History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Century I*, 6 vols. (Salt Lake City: *Deseret News*, 1930).
3. 교리와 성약 69:8(Revelation, Nov. 11, 1831-A, at josephsmithpapers.org).
4. 모사이야서 3:19 참조.

제1장: 믿음으로 구하고

1. Raffles, “Narrative of the Effects of the Eruption,” 4-5, 19, 23-24.
2. Raffles, “Narrative of the Effects of the Eruption,” 5, 7-8, 11.
3. Wood, *Tambora*, 97.
4. Wood, *Tambora*, 78-120; Statham, *Indian Recollections*, 214; Klingaman and Klingaman, *Year without Summer*, 116-18.
5. Wood, *Tambora*, 81-109; Klingaman and Klingaman, *Year without Summer*, 76-86, 115-20.
6. Klingaman and Klingaman, *Year without Summer*, 48-50, 194-203.
7.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131;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2, [11]-book 3, [2]. **주제: 조셉 스미스의 다리 수술**
8.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3, [3]; Stilwell, *Migration from Vermont*, 124-50.
9.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3, [4]; Bushman, *Rough Stone Rolling*, 18-19, 25-28. **주제: 조셉 일세와 루시 맥 스미스 가족**
10.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3, [5];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131-32.
11.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3, [2];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131.
12.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3, [5]-[6]; Lucy Mack Smith, History, 1845, 67;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132. **주제: 루시 맥 스미스**
13.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3, [6]-[7].
14.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3, [7]; Tucker, *Origin, Rise, and Progress of Mormonism*, 12. **주제: 조셉 일세와 루시 맥 스미스 가족**
15. Cook, *Palmyra and Vicinity*, 247-61. **주제: 팔마이러와 맨체스터; 조셉 스미스 시대의 기독교회**
16. Joseph Smith History, circa Summer 1832, 1-2, in *JSP*, HI:11-12.

17. 조셉 스미스—역사 1:5-6;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1]-2, in *JSP*, H1:208-10 (draft 2). **주제: 조셉 스미스 시대의 종교적 믿음**
18.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2, [1]-[6]; "Records of the Sess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Palmyra," Mar. 10, 1830.
19. Asael Smith to "My Dear Selves," Apr. 10, 1799, Asael Smith, Letter and Genealogy Record, 1799, circa 1817-46, Church History Library.
20.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miscellany, [5]; Anderson, *Joseph Smith's New England Heritage*, 161-62.
21. 조셉 스미스—역사 1:8-10;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2, in *JSP*, H1:208-10 (draft 2). **주제: 조셉 스미스 시대의 종교적 믿음**
22.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3, [8]-[10]; Joseph Smith History, circa Summer 1832, 1, in *JSP*, H1:11. **주제: 성스러운 숲과 스미스 가족 농장**
23. **주제: 각성 운동과 부흥회**
24. 사도행전 10:34-35; Joseph Smith History, circa Summer 1832, 2, in *JSP*, H1:12.
25. Neibaur, Journal, May 24, 1844, available at josephsmithpapers.org; 조셉 스미스—역사 1:10; Joseph Smith, "Church History," *Times and Seasons*, Mar. 1, 1842, 3:706, in *JSP*, H1:494.
26. Joseph Smith, Journal, Nov. 9-11, 1835, in *JSP*, J1:87; 조셉 스미스—역사 1:8-9;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2, in *JSP*, H1:210 (draft 2).
27. "Wm. B. Smith's Last Statement," *Zion's Ensign*, Jan. 13, 1894, 6; 야코보서 1:5.
28. 조셉 스미스—역사 1:11-14;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2-3, in *JSP*, H1:210-12 (draft 2); 야코보서 1:6.

제2장: 그의 말을 들으라

1. 조셉 스미스—역사 1:14;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3, *JSP*, H1:212 (draft 2); Interview, Joseph Smith by David Nye White, Aug. 21, 1843, [David Nye White], "The Prairies, Nauvoo, Joe Smith, the Temple, the Mormons, &c.," *Pittsburgh Weekly Gazette*, Sept. 15, 1843, [3], available at josephsmithpapers.org.
2. Interview, Joseph Smith by David Nye White, Aug. 21, 1843, [David Nye White], "The Prairies, Nauvoo, Joe Smith, the Temple, the Mormons, &c.," *Pittsburgh Weekly Gazette*, Sept. 15, 1843, [3], available at josephsmithpapers.org; Joseph Smith History, circa Summer 1832, 3, *JSP*, H1:12.
3. Joseph Smith, Journal, Nov. 9-11, 1835, in *JSP*, J1:88.
4. 조셉 스미스—역사 1:15; Hyde, *Ein Ruf aus der Wüste*, 15-16;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3, *JSP*, H1:212 (draft 2).
5. 조셉 스미스—역사 1:16; Joseph Smith, Journal, Nov. 9-11, 1835, *JSP*, J1:88;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3, *JSP*, H1:212 (draft 2).
6. 조셉 스미스—역사 1:16~17; Joseph Smith History, circa Summer 1832, 3, *JSP*, H1:12-13;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3, *JSP*, H1:214 (draft 2); Joseph Smith, Journal, Nov. 9-11, 1835, *JSP*, J1:88.
7. Joseph Smith History, circa Summer 1832, 3, in *JSP*, H1:13.
8. Interview, Joseph Smith by David Nye White, Aug. 21, 1843, [David Nye White], "The Prairies, Nauvoo, Joe Smith, the Temple, the Mormons, &c.," *Pittsburgh Weekly Gazette*, Sept. 15, 1843, [3], josephsmithpapers.org.
9. 조셉 스미스—역사 1:5~26; Joseph Smith History, circa Summer 1832, 3, *JSP*, H1:13; Levi Richards, Journal, June 11, 1843; Joseph Smith, "Church History," *Times and Seasons*, Mar. 1, 1842, 3:706, *JSP*, H1:494.
10. Joseph Smith History, circa Summer 1832, 3, in *JSP*, H1:13.
11. Pratt, *Interesting Account*, 5, *JSP*, H1:523.

12. 조셉 스미스—역사 1:20; Interview, Joseph Smith by David Nye White, Aug. 21, 1843, [David Nye White], "The Prairies, Nauvoo, Joe Smith, the Temple, the Mormons, &c.," *Pittsburgh Weekly Gazette*, Sept. 15, 1843, [3], josephsmithpapers.org;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3, *JSP*, HI:214 (draft 2); Joseph Smith History, circa Summer 1832, 3, *JSP*, HI:13.
13. 조셉 스미스—역사 1:20;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3, *JSP*, HI:214 (draft 2).
14. Bushman, "Visionary World of Joseph Smith," 183–204 참조.
15. 조셉 스미스—역사 1:21;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3, *JSP*, HI:216 (draft 2); Neibaur, *Journal*, May 24, 1844, josephsmithpapers.org. **주제: 조셉 스미스 시대의 기독교회**
16. Joseph Smith—History 1:22, 27;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4, *JSP*, HI:216–18 (draft 2); Interview, Joseph Smith by David Nye White, Aug. 21, 1843, [David Nye White], "The Prairies, Nauvoo, Joe Smith, the Temple, the Mormons, &c.," *Pittsburgh Weekly Gazette*, Sept. 15, 1843, [3], josephsmithpapers.org.
17. 조셉 스미스—역사 1:21–25;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4, *JSP*, HI:216–18 (draft 2).
18. Joseph Smith History, circa Summer 1832, 3, *JSP*, HI:13; 또한 Historical Introduction to Joseph Smith History, circa Summer 1832, *JSP*, HI:6 참조.
19. 조셉은 이 경험에 대해 평생 네 차례에 걸쳐 직접 쓰거나 다른 사람이 서술하도록 지도했다. 첫 번째 기록은 여기에서 볼 수 있다. Joseph Smith History, circa Summer 1832, 1–3, in *JSP*, HI:11–13. 조셉이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한 것을 글로 옮겼던 사람은 그 외에도 다섯 명이 더 있었다. 그렇게 작성된 아홉 개의 기사는 다음에서 찾을 수 있다. "Primary Accounts of Joseph Smith's First Vision of Deity," Joseph Smith Papers website, josephsmithpapers.org. 각 기사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한 분석은 다음을 참고한다. "첫 번째 시현 기록, 복음 주제, topics.lds.org. **주제: 조셉 스미스의 첫번째 시현 기록**
20. 조셉 스미스—역사 1:26;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4, *JSP*, HI:218 (draft 2)

제3장: 금판

1.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4–5, *JSP*, HI:220 (draft 2); Joseph Smith History, circa Summer 1832, 1, *JSP*, HI:11.
2. "Joseph Smith as Revelator and Translator," *JSP*, MRB:xxi; Turley, Jensen, and Ashurst-McGee, "Joseph the Seer," 49–50; 또한 Mosiah 8:17; Alma 37:6–7, 41; and Doctrine and Covenants 10:1, 4 (Revelation, Spring 1829, at josephsmithpapers.org) 참조.
3. Bushman, *Rough Stone Rolling*, 48–49; Bushman, "Joseph Smith as Translator," 242. **주제: 선견자의 돌**
4. Lucy Mack Smith, *History*, 1845, 95; 또한 엘마서 37:23 참조.
5. Joseph Smith History, circa Summer 1832, 4, *JSP*, HI:13–14; Joseph Smith—History 1:28–29;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5, *JSP*, HI:218–20 (draft 2).
6.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3, [10].
7. Joseph Smith History, circa Summer 1832, 4, *JSP*, HI:13–14; 조셉 스미스—역사 1:29–33;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5, *JSP*, HI:218–22 (draft 2); Pratt, *Interesting Account*, 6, *JSP*, HI:524; Hyde, *Ein Ruf aus der Wüste*, 17–20. **주제: 모로나이 천사**
8. Joseph Smith, *Journal*, Nov. 9–11, 1835, *JSP*, J1:88.
9. 조셉 스미스—역사 1:35;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5, *JSP*, HI:222 (draft 2); *LDS Messenger and Advocate*, Feb. 1835, 1:65–67; Turley, Jensen, and Ashurst-McGee, "Joseph the Seer," 49–54; "Mormonism—No. II," *Tiffany's Monthly*, July 1859, 164. **주제: 선견자의 돌**
10. 조셉 스미스—역사 1:36–41;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5–6, *JSP*, HI:222–26 (draft 2); Joseph Smith, *Journal*, Nov. 9–11, 1835, *JSP*, J1:88–89.

11. Oliver Cowdery, "Letter IV," *LDS Messenger and Advocate*, Feb. 1835, 1:78-79;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3, [11].
12. 조셉 스미스—역사 1:42~43;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6, *JSP*, H1:226 (draft 2).
13.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3, [10]-[11]; Oliver Cowdery, "Letter IV," *LDS Messenger and Advocate*, Feb. 1835, 1:79-80; Oliver Cowdery, "Letter VII," *LDS Messenger and Advocate*, July 1835, 1:156-57; 조셉 스미스—역사 1:44~46;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6-7, *JSP*, H1:230-32 (draft 2); Joseph Smith, Journal, Nov. 9-11, 1835, *JSP*, J1:88-89.
14.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3, [11]; 또한 Smith, *William Smith On Mormonism*, 9 참조.
15.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3, [11]; Smith, *Biographical Sketches*, 82; 조셉 스미스—역사 1:48-49;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7, *JSP*, H1:230-32 (draft 2); Joseph Smith, Journal, Nov. 9-11, 1835, *JSP*, J1:89.
16. Joseph Smith, Journal, Nov. 9-11, 1835, *JSP*, J1:89.
17. Oliver Cowdery, "Letter VIII," *LDS Messenger and Advocate*, Oct. 1835, 2:195-97. **주제: 보물 찾기**
18. Oliver Cowdery, "Letter VIII," *LDS Messenger and Advocate*, Oct. 1835, 2:195-97; 조셉 스미스—역사 1:51~52;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6-7, *JSP*, H1:230-32 (draft 2); 또한 Packer, "A Study of the Hill Cumorah," 7-10 참조.
19. 조셉 스미스—역사 1:52;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7, *JSP*, H1:232 (draft 2). **주제: 금판**
20. Joseph Smith, "Church History," *Times and Seasons*, Mar. 1, 1842, 3:707, *JSP*, H1:495.
21. Oliver Cowdery, "Letter VIII," *LDS Messenger and Advocate*, Oct. 1835, 2:197-98; 또한 Pratt, *Interesting Account*, 10, *JSP*, H1:527-29 참조.
22. Oliver Cowdery, "Letter VIII," *LDS Messenger and Advocate*, Oct. 1835, 2:198-99.
23. Knight, Reminiscences, 1; Joseph Smith, Journal, Nov. 9-11, 1835, *JSP*, J1:89; 조셉 스미스—역사 1:53-54;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7, *JSP*, H1:232-34 (draft 2); 또한 Jessee, "Joseph Knight's Recollection of Early Mormon History," 31 참조.
24. Joseph Smith, Journal, Aug. 23, 1842, *JSP*, J1:116-17.
25.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3, [12]; book 4, [3]; Smith, *Biographical Sketches*, 83.
26.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4, [1]-[3]; Smith, *Biographical Sketches*, 86-87; 또한 Lucy Mack Smith, History, 1845, 89; and Bushman, *Refinement of America*, 425-27 참조. **주제: 조셉 일세와 루시 맥 스미스 가족**
27.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4, [3]-[5].
28.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4, [6]-[8]; "Wm. B. Smith's Last Statement," *Zion's Ensign*, Jan. 13, 1894, 6.
29.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4, [7]; Joseph Smith, Journal, Aug. 23, 1842, *JSP*, J2:116-17.
30.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4, [2]-[3].
31.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4, [2]-[3]; Smith, *Biographical Sketches*, 85-86; Knight, Reminiscences, 1; 조셉 스미스—역사 1:54; Lucy Mack Smith, History, 1845, 88; 또한 Jessee, "Joseph Knight's Recollection of Early Mormon History," 31 참조.
32. Smith, *Biographical Sketches*, 86.

제4장: 깨어 있으라

1. Agreement of Josiah Stowell and Others, Nov. 1, 1825, *JSP*, D1:345-52.
2. Smith, *Biographical Sketches*, 91-92; Oliver Cowdery, "Letter VIII," *LDS Messenger and Advocate*, Oct. 1835, 2:200-202;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7-8, in *JSP*, H1:234 (draft 2); Smith, *On Mormonism*, 10. **주제: 보물 찾기**

3. Agreement of Josiah Stowell and Others, Nov. 1, 1825, *JSP*, DI:345-52.
4. Pratt, *Autobiography*, 47; Burnett, *Recollections and Opinions of an Old Pioneer*, 66-67; Woodruff, *Journal*, July 4, 1843, and Oct. 20, 1855; Emmeline B. Wells, "L.D.S. Women of the Past," *Woman's Exponent*, Feb. 1908, 36:49; Joseph Smith III, "Last Testimony of Sister Emma," *Saints' Herald*, Oct. 1, 1879, 289; 또한 Staker and Ashton, "Growing Up in the Isaac and Elizabeth Hale Home"; and Ashurst-McGee, "Josiah Stowell Jr.-John S. Fullmer Correspondence," 108-17. 참조
5. Baugh, "Joseph Smith's Athletic Nature," 137-50; Pratt, *Autobiography*, 47; Burnett, *Recollections and Opinions of an Old Pioneer*, 66-67; *Recollections of the Pioneers of Lee County*, 96; Youngreen, *Reflections of Emma*, 61, 67, 65, 69; Emmeline B. Wells, "L.D.S. Women of the Past," *Woman's Exponent*, Feb. 1908, 36:49.
6.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8, *JSP*, H1:234 (draft 2); Smith, *Biographical Sketches*, 92; Bushman, *Rough Stone Rolling*, 51-53; Staker, "Isaac and Elizabeth Hale in Their Endless Mountain Home," 104.
7.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7-8, *JSP*, H1:234-36 (draft 2); Knight, *Reminiscences*, 2; Joseph Smith III, "Last Testimony of Sister Emma," *Saints' Herald*, Oct. 1, 1879, 290.
8. William D. Purple, "Joseph Smith, the Originator of Mormonism," *Chenango Union*, May 2, 1877, [3]; 또한 An Act for Apprehending and Punishing Disorderly Persons (Feb. 9, 1788), *Laus of the State of New-York* (1813), 1:114 참조. **주제: 조셉 스미스의 1826년 재판**
9. "Mormonism—No. II," *Tiffany's Monthly*, July 1859, 169.
10. Knight, *Reminiscences*, 2.
11.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96; 또한 Knight, *Reminiscences*, 2 참조.
12. "The Original Prophet," *Fraser's Magazine*, Feb. 1873, 229-30 참조.
13. Lucy Mack Smith, *History*, 1845, 97.
14. Knight, *Reminiscences*, 2; Joseph Smith III, "Last Testimony of Sister Emma," *Saints' Herald*, Oct. 1, 1879, 289.
15. Joseph Smith III, "Last Testimony of Sister Emma," *Saints' Herald*, Oct. 1, 1879, 289;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8, *JSP*, H1:236 (draft 2).
16. Joseph Smith III, "Last Testimony of Sister Emma," *Saints' Herald*, Oct. 1, 1879, 290; Joseph Lewis and Hiel Lewis, "Mormon History. A New Chapter, about to Be Published," *Amboy Journal*, Apr. 30, 1879, 1; 또한 Oliver Cowdery, "Letter VIII," *LDS Messenger and Advocate*, Oct. 1835, 2:201 참조.
17.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8, *JSP*, H1:236 (draft 2);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4, [11]-[12]; book 5, [1]-[3]. **주제: 성스러운 숲과 스미스 가족 농장**
18. "Mormonism—No. II," *Tiffany's Monthly*, July 1859, 167-68.
19.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5, [4]-[6].
20. Knight, *Reminiscences*, 2.
21.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5, [6].
22. Lucy Mack Smith, *History*, 1845, 105.
23.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6, [1].
24. "Mormonism—No. II," *Tiffany's Monthly*, June 1859, 165-66;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5, [6].
25.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5, [6]-[7]; Knight, *Reminiscences*, 2.
26.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5, [7]-[8].
27. Knight, *Reminiscences*, 2-3;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5, *JSP*, H1:222 (draft 2); 또한 엘마서 37:23 참조.
28.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5, [8]-[10]; "Mormonism—No. II," *Tiffany's Monthly*, Aug. 1859, 166; Smith, *Biographical Sketches*, 103; 또한 창세기 25:29~34 참조.
29.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5, [10] and adjacent paper fragment.
30.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5, [11]. **주제: 금판**
31.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5, [11].

32. "The Old Soldier's Testimony," *Saints' Herald*, Oct. 4, 1884, 643-44; Salisbury, "Things the Prophet's Sister Told Me," 1945, Church History Library; Ball, "The Prophet's Sister Testifies She Lifted the B. of M. Plates," 1954, Church History Library; Smith, *William Smith On Mormonism*, 11;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5, [1]; Joseph Smith III, "Last Testimony of Sister Emma," *Saints' Herald*, Oct. 1, 1879, 290.
33.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5, [1]-[12]. **주제: 루시 맥 스미스**

제5장: 모든 것을 잃다

1. 조셉 스미스—역사 1:59;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8, in *JSP*, H1:236-38 (draft 2);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6, [1]-[2]; Knight, Reminiscences, 3.
2. Knight, Reminiscences, 3-4;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6, [1]-[3]; Joseph Smith History, circa Summer 1832, 1, *JSP*, H1:11.
3. "Mormonism—No. II," *Tiffany's Monthly*, Aug. 1859, 167-68;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6, [3]-[4];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8, *JSP*, H1:238 (draft 2). **주제: 몰몬경의 증인들**
4. "Mormonism—No. II," *Tiffany's Monthly*, Aug. 1859, 168-70.
5.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8-9, *JSP*, H1:238 (draft 2); Knight, Reminiscences, 3; "Mormonism—No. II," *Tiffany's Monthly*, Aug. 1859, 170.
6.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6, [6]; Lucy Mack Smith, History, 1845, 121.
7. "Mormonism—No. II," *Tiffany's Monthly*, Aug. 1859, 170.
8. "Mormonism—No. II," *Tiffany's Monthly*, Aug. 1859, 170;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9, *JSP*, H1:240 (draft 2).
9. Isaac Hale, Affidavit, Mar. 20, 1834, "Mormonism," *Susquehanna Register, and Northern Pennsylvanian*, May 1, 1834, [].
10.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9, *JSP*, H1:240 (draft 2); Knight, Reminiscences, 3.
11.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9, *JSP*, H1:240 (draft 2); Knight, Reminiscences, 3.
12. Joseph Smith History, circa Summer 1832, 5, *JSP*, H1:15; Knight, Reminiscences, 3. **주제: 몰몬경 번역**
13.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9, *JSP*, H1:238-40 (draft 2); Joseph Smith History, circa Summer 1832, 5, *JSP*, H1:15.
14. MacKay, "Git Them Translated," 98-100.
15. Bennett, "Read This I Pray Thee," 192.
16.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9, *JSP*, H1:240 (draft 2); Bennett, Journal, Aug. 8, 1831, in Arrington, "James Gordon Bennett's 1831 Report on 'The Mormonites,'" 355.
17. [James Gordon Bennett], "Mormon Religion—Clerical Ambition—Western New York—the Mormonites Gone to Ohio," *Morning Courier and New-York Enquirer*, Sept. 1, 1831, [2].
18.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9, in *JSP*, H1:240-42 (draft 2); Jennings, "Charles Anthon," 171-87; Bennett, "Read This I Pray Thee," 178-216.
19.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9, in *JSP*, H1:244 (draft 2); Bennett, Journal, Aug. 8, 1831, in Arrington, "James Gordon Bennett's 1831 Report on 'The Mormonites,'" 355; Knight, Reminiscences, 4. **주제: 학자들을 찾아간 마틴 해리스**
20. Joseph Smith History, circa Summer 1832, 5, in *JSP*, H1:15; 이사야 29:11~12; 니파이후서 27:15~19.
21.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6, [8];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9, in *JSP*, H1:244; Joseph Smith III, "Last Testimony of Sister Emma," *Saints' Herald*, Oct. 1, 1879, 289-90.
22.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9, in *JSP*, H1:244 (draft 2); Isaac Hale, Affidavit, Mar. 20, 1834, in "Mormonism," *Susquehanna Register, and Northern*

- Pennsylvanian*, May 1, 1834, [1]; Agreement with Isaac Hale, Apr. 6, 1829, in *JSP*, D1:28-34.
23. Briggs, "A Visit to Nauvoo in 1856," 454; 또한 Edmund C. Briggs to Joseph Smith, June 4, 1884, *Saints' Herald*, June 21, 1884, 396 참조.
 24. Joseph Smith III, "Last Testimony of Sister Emma," *Saints' Herald*, Oct. 1, 1879, 289-90; Briggs, "A Visit to Nauvoo in 1856," 454.
 25.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9, in *JSP*, H1:244 (draft 2); Isaac Hale, Affidavit, Mar. 20, 1834, in "Mormonism," *Susquehanna Register, and Northern Pennsylvanian*, May 1, 1834, [1].
 26.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6, [8].
 27.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6, [3]-[5], [8]-[9].
 28.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6, [9]-[10]; Joseph Smith III, "Last Testimony of Sister Emma," *Saints' Herald*, Oct. 1, 1879, 289-90.
 29. 에머는 후에 회고록에서 1829년에 조셉과 올리버 카우드리가 번역을 마무리하던 시기에 자신도 같은 방에 머물며 일을 도왔으며, 번역이 진행되던 1828년에도 함께 일했다고 언급했다. (Joseph Smith III, "Last Testimony of Sister Emma," *Saints' Herald*, Oct. 1, 1879, 290.)
 30. William Pilkington, Affidavit, Cache County, UT, Apr. 3, 1934, in William Pilkington, Autobiography and Statements, Church History Library; "One of the Three Witnesses," *Deseret News*, Dec. 28, 1881, 10.
 31. Briggs, "A Visit to Nauvoo in 1856," 454; Joseph Smith III, "Last Testimony of Sister Emma," *Saints' Herald*, Oct. 1, 1879, 289-90.
 32.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6, [10];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9, in *JSP*, H1:244; Joseph Smith History, circa Summer 1832, 5, in *JSP*, H1:15; Knight, Reminiscences, 5; and Historical Introduction to Preface to the Book of Mormon, circa Aug. 1829, in *JSP*, D1:92-93 참조.
 33.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9, in *JSP*, H1:244 (draft 2);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6, [10].
 34.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6, [10]-[11]; book 7, [1].
 35. Joseph Smith History, circa Summer 1832, 5, in *JSP*, H1:15.
 36.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9-10, in *JSP*, H1:244-46 (draft 2);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7, [1]; Knight, Reminiscences, 5.
 37.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9-10, in *JSP*, H1:244-46 (draft 2).
 38.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7, [1]-[2]. **주제: 조셉과 에머 헤일 스미스 가족**
 39.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7, [1]-[2].
 40.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7, [2]-[4].
 41.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7, [5].
 42.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7, [5]-[7]. **주제: 분실된 물몬경 원고**
 43.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7, [7]. **주제: 루시 맥 스미스**

제6장: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으로

1.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7, [9].
2. 교리와 성약 10:2(Revelation, Spring 1829, at josephsmithpapers.org) 참조.
3.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7, [5]-[7] 참조.
4.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7, [8]-[9].
5. 교리와 성약 3:1(Revelation, July 1828, at josephsmithpapers.org);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7, [8]-[9];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10, in *JSP*, H1:246 (draft 2).
6. 교리와 성약 3편(Revelation, July 1828, at josephsmithpapers.org); Joseph Smith History, circa Summer 1832, [6], in *JSP*, H1:16;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7, [8]-[9].

7. Lucy Mack Smith, History, 1845, 138;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7, [8]-[11].
8. Preface to Book of Mormon, circa Aug. 1829, in *JSP*, D1:92-94; "Testamoney of Martin Harris," Sept. 4, 1870, [4], Edward Stevenson Collection, Church History Library;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8, [5]; Historical Introduction to Revelation, Mar. 1829 [DC 5], in *JSP*, D1:14-16.
9. "Testamoney of Martin Harris," Sept. 4, 1870, [4], Edward Stevenson Collection, Church History Library;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6, [9]; book 8, [5].
10. 교리와 성약 5편(Revelation, Mar. 1829, at josephsmithpapers.org).
11. Revelation, Mar. 1829 [DC 5], in *JSP*, D1:17.
12. Isaac Hale, Affidavit, Mar. 20, 1834, in "Mormonism," *Susquehanna Register, and Northern Pennsylvanian*, May 1, 1834, [1]; "considered" in original changed to "consider."
13.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8, [6]-[7].
14.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7, [11].
15.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7, [12]; "Mormonism," *Kansas City Daily Journal*, June 5, 1881, 1; Morris, "Conversion of Oliver Cowdery," 5-8.
16.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7, [12]; Knight, Reminiscences, 5; 교리와 성약 4편(Revelation, Feb. 1829, at josephsmithpapers.org); 또한 Darowski, "Joseph Smith's Support at Home," 10-14 참조.
17.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7, [12].
18. Oliver Cowdery to William W. Phelps, Sept. 7, 1834, *LDS Messenger and Advocate*, Oct. 1834, 1:15.
19. 교리와 성약 6편(Revelation, Apr. 1829-A, at josephsmithpapers.org);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7, [12]; book 8, [1].
20.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15, in *JSP*, H1:284 (draft 2); Joseph Smith History, circa Summer 1832, [6], in *JSP*, H1:16;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8, [1]; 또한 교리와 성약 6:22-23(Revelation, Apr. 1829-A, at josephsmithpapers.org) 참조.
21.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8, [3]-[4]; Joseph Smith History, circa Summer 1832, [6], in *JSP*, H1:16.
22.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8, [4];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13, in *JSP*, H1:276 (draft 2); Agreement with Isaac Hale, Apr. 6, 1829, in *JSP*, D1:28-34; Oliver Cowdery to William W. Phelps, Sept. 7, 1834, *LDS Messenger and Advocate*, Oct. 1834, 1:14.
23.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18, in *JSP*, H1:296 (draft 2).
24.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15, in *JSP*, H1:284 (draft 2);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8, [4]; Joseph Smith III, "Last Testimony of Sister Emma," *Saints' Herald*, Oct. 1, 1879, 290. **주제: 1세대 후기 성도의 일상**
25. "물론경 번역," 복음 주제, topics.lds.org;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15, in *JSP*, H1:284 (draft 2); Oliver Cowdery to William W. Phelps, Sept. 7, 1834, *LDS Messenger and Advocate*, Oct. 1834, 1:14; Joseph Smith III, "Last Testimony of Sister Emma," *Saints' Herald*, Oct. 1, 1879, 290; "Golden Bible," *Palmyra Freeman*, Aug. 11, 1829, [2]. **주제: 물론경 번역**
26. 교리와 성약 10:45(Revelation, Spring 1829, at josephsmithpapers.org); 니파이전서 9:5; 물론경 말씀 1장; 교리와 성약 3편(Revelation, July 1828, at josephsmithpapers.org).
27. 교리와 성약 10:42-43(Revelation, Spring 1829, at josephsmithpapers.org). **주제: 분실된 물론경 원고**
28. Oliver Cowdery to William W. Phelps, Sept. 7, 1834, *LDS Messenger and Advocate*, Oct. 1834, 1:14; 모사이야서 8:16~18; 또한 움나이서 1:20; 모사이야서 8:8~13; 28:11~15, 20; 엘마서 37:21, 23; 이더서 3:24~28.
29. 교리와 성약 6:5, 11, 22~24(Revelation, Apr. 1829-A, at josephsmithpapers.org).
30. 교리와 성약 6:10~13(Revelation, Apr. 1829-A, at josephsmithpapers.org); 교리와 성약 8:4~8(Revelation, Apr. 1829-B, at josephsmithpapers.org); Historical Introduction to Revelation, Apr. 1829-B [DC 8], in *JSP*, D1:44-45; Revelation Book 1, 13, in *JSP*, MRB:15.

31.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8, [1]; Paul and Parks, *History of Wells, Vermont*, 81; Historical Introduction to Revelation, 1829-B [DC 8], in *JSP*, D1:44-45; see also Baugh, *Days Never to Be Forgotten*; Bushman, *Rough Stone Rolling*, 73; and Morris, "Oliver Cowdery's Vermont Years and the Origins of Mormonism," 106-29. **주제: 점치는 막대기**
32. 교리와 성약 6편(Revelation, Apr. 1829-A, at josephsmithpapers.org); 교리와 성약 8편(Revelation, Apr. 1829-B, at josephsmithpapers.org);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13-14, in *JSP*, H1:276-78 (draft 2); 또한 Book of Commandments 7:3; 교리와 성약 8:6~7 참조.
33. 교리와 성약 9편(Revelation, Apr. 1829-D, at josephsmithpapers.org); Oliver Cowdery to William W. Phelps, Sept. 7, 1834, *LDS Messenger and Advocate*, Oct. 1834, 1:14.

제7장: 동역자 된 종들

1. Oliver Cowdery to William W. Phelps, Sept. 7, 1834, *LDS Messenger and Advocate*, Oct. 1834, 1:14; Staker, "Where Was the Aaronic Priesthood Restored?," 158, note 49.
2. 제3니파이 8장; Oliver Cowdery to William W. Phelps, Sept. 7, 1834, *LDS Messenger and Advocate*, Oct. 1834, 1:15-16; see also Kowallis, "In the Thirty and Fourth Year," 136-90.
3. 제3니파이 9:13.
4. 제3니파이 10:9; 11:1.
5. 제3니파이 11:10; 15:21~24; 또한 요한복음 10:16 참조.
6. 제3니파이 11:33.
7. 제3니파이 11:23~33.
8. Oliver Cowdery to William W. Phelps, Sept. 7, 1834, *LDS Messenger and Advocate*, Oct. 1834, 1:13-16.
9. 교리와 성약 13:1(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17-18, in *JSP*, H1:292-94 [draft 2]); Oliver Cowdery to William W. Phelps, Sept. 7, 1834, *LDS Messenger and Advocate*, Oct. 1834, 1:15; Staker, "Where Was the Aaronic Priesthood Restored?," 142-59. **주제: 아론 신권의 회복**
10. Oliver Cowdery to William W. Phelps, Sept. 7, 1834, *LDS Messenger and Advocate*, Oct. 1834, 1:15.
11.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17-18, in *JSP*, H1:292-94 (draft 2); "Articles of the Church of Christ," June 1829, in *JSP*, D1:371.
12.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18, in *JSP*, H1:294-96 (draft 2).
13. "Mormonism," *Kansas City Daily Journal*, June 5, 1881, 1; James H. Hart, "About the Book of Mormon," *Deseret Evening News*, Mar. 25, 1884, [2]; Joseph F. Smith to John Taylor and Council of the Twelve, Sept. 17, 1878, draft, Joseph F. Smith, Papers, Church History Library;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21, in *JSP*, H1:306 (draft 2).
14.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18, in *JSP*, H1:296 (draft 2).
15. "Mormonism," *Kansas City Daily Journal*, June 5, 1881, 1; Dickinson, *New Light On Mormonism*, 250; "The Book of Mormon," Chicago Tribune, Dec. 17, 1885, 3;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21, in *JSP*, H1:306 (draft 2).
16.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8, [8]; Orson Pratt and Joseph F. Smith, Interview with David Whitmer, Sept. 7-8, 1878, [10], in Joseph F. Smith to John Taylor and Council of the Twelve, Sept. 17, 1878, draft, Joseph F. Smith, Papers, Church History Library; Cook, *David Whitmer Interviews*, 26-27.
17. Orson Pratt and Joseph F. Smith, Interview with David Whitmer, Sept. 7-8, 1878, [10], in Joseph F. Smith to John Taylor and Council of the Twelve, Sept. 17, 1878, draft, Joseph F. Smith, Papers, Church History Library.
18. James H. Hart, "About the Book of Mormon," *Deseret Evening News*, Mar. 25, 1884, [2].

19. Skousen, "Another Account of Mary Whitmer's Viewing of the Golden Plates," 40; [Andrew Jenson], "Eight Witnesses," *Historical Record*, Oct. 1888, 621.
20. Orson Pratt and Joseph F. Smith, Interview with David Whitmer, Sept. 7-8, 1878, [10], in Joseph F. Smith to John Taylor and Council of the Twelve, Sept. 17, 1878, draft, Joseph F. Smith, Papers, Church History Library.
21. Skousen, "Another Account of Mary Whitmer's Viewing of the Golden Plates," 40; [Andrew Jenson], "Eight Witnesses," *Historical Record*, Oct. 1888, 621.
22. [Andrew Jenson], "Eight Witnesses," *Historical Record*, Oct. 1888, 621; Orson Pratt and Joseph F. Smith, Interview with David Whitmer, Sept. 7-8, 1878, [10], in Joseph F. Smith to John Taylor and Council of the Twelve, Sept. 17, 1878, draft, Joseph F. Smith, Papers, Church History Library; Stevenson, *Journal*, Dec. 23, 1877.
23. Whitmer, *Address to All Believers in Christ*, 30.
24. "Letter from Elder W. H. Kelley," *Saints' Herald*, Mar. 1, 1882, 68; see also Bushman, *Rough Stone Rolling*, 77.
25.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34, in *JSP*, H1:352-54 (draft 2). **주제: 물몬경 번역; 금판**
26. 니파이후서 3:7~19.
27. Joseph Smith History, circa Summer 1832, [5], in *JSP*, H1:15; 니파이후서 26:16; 27:15~21.
28. 교리와 성약 17편(Revelation, June 1829-E, at josephsmithpapers.org); 교리와 성약 5:11-18(Revelation, Mar. 1829, at josephsmithpapers.org);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23, in *JSP*, H1:314-17 (draft 2).
29.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8, [11].
30.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24-25, in *JSP*, H1:316-18 (draft 2).
31. "Letter from Elder W. H. Kelley," *Saints' Herald*, Mar. 1, 1882, 68;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24-25, in *JSP*, H1:316-20 (draft 2); "Testimony of Three Witnesses," in Book of Mormon, 1830 edition, [589]. **주제: 물몬경의 증인들**
32.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25, in *JSP*, H1:320 (draft 2).
33.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8, [11]; book 9, [1].
34.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9, [1]; 2 Nephi 27:14.
35. "Testimony of Eight Witnesses," in Book of Mormon, 1830 edition, [590]. **주제: 물몬경의 증인들**
36.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9, [2].

제8장: 그리스도의 교회, 일어나다

1. Copyright for Book of Mormon, June 11, 1829, in *JSP*, D1:76-81.
2. "Prospect of Peace with Utah," *Albany Evening Journal*, May 19, 1858, [2]; "From the Troy Times," *Albany Evening Journal*, May 21, 1858, [2]; John H. Gilbert, Memorandum, Sept. 8, 1892, photocopy, Church History Library.
3. 교리와 성약 19편 (Revelation, circa Summer 1829, at josephsmithpapers.org); 또한 Historical Introduction to Revelation, circa Summer 1829 [DC 19], in *JSP*, D1:85-89; and Knight, *Reminiscences*, 6-7 참조.
4. McBride, "Contributions of Martin Harris," 1-9;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34, in *JSP*, H1:352 (draft 2).
5. John H. Gilbert, Statement, Oct. 23, 1887, Church History Library; Indenture, Martin Harris to Egbert B. Grandin, Wayne County, NY, Aug. 25, 1829, Wayne County, NY, Mortgage Records, volume 3, 325-26, microfilm 479, 556, U.S. and Canada Record Collection, Family History Library; Historical Introduction to Revelation, circa Summer 1829 [DC 19], in *JSP*, D1:85-89.

6. Copyright for Book of Mormon, June 11, 1829, in *JSP*, D1:76-81; John H. Gilbert, Memorandum, Sept. 8, 1892, photocopy, Church History Library; Porter, "The Book of Mormon," 53-54.
7. John H. Gilbert, Memorandum, Sept. 8, 1892, photocopy, Church History Library;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9, [8]; Joseph Smith to Oliver Cowdery, Oct. 22, 1829, in *JSP*, D1:94-97.
8. John H. Gilbert, Memorandum, Sept. 8, 1892, photocopy, Church History Library;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9, [2]; "Printer's Manuscript of the Book of Mormon," in *JSP*, R3, Part 1:xxvi. **주제: 몰몬경의 인쇄와 출판**
9. Oliver Cowdery to Joseph Smith, Nov. 6, 1829, in *JSP*, D1:100-101; Mosiah 3:18-19; 5:5-7; 4 Nephi 1:17; 또한 Oliver Cowdery to Joseph Smith, Dec. 28, 1829, in *JSP*, D1:101-4 참조.
10. Thomas B. Marsh, "History of Thomas Baldwin Marsh," *LDS Millennial Star*, June 4, 1864, 26:359-60; June 11, 1864, 26:375-76.
11.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9, [9]. 에브너 코울이 몰몬경에서 발췌한 부분의 예를 보려면, "The Book of Mormon," *Reflector*, Sept. 16, 1829, 10; "Selected Items," *Reflector*, Sept. 23, 1829, 14; "The First Book of Nephi," *Reflector*, Jan. 2, 1830, 1; and "The First Book of Nephi," *Reflector*, Jan. 13, 1830, 1 참조. **주제: 몰몬경 비난 세력**
12.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9, [9]-[12]; Lucy Mack Smith, History, 1845, 166-68.
13. Chamberlin, *Autobiography*, 4-11.
14. Copyright for Book of Mormon, June 11, 1829, in *JSP*, D1:76-81; John H. Gilbert, Memorandum, Sept. 8, 1892, photocopy, Church History Library; "Book of Mormon," *Wayne Sentinel*, Mar. 26, 1830, [3]. 일부 부수는 양가측으로도 재분되었다.
15. Title Page of Book of Mormon, circa early June 1829, in *JSP*, D1:63-65; 또한 Lucy Mack Smith to Solomon Mack, Jan. 6, 1831, Church History Library 참조.
16. Testimony of Three Witnesses, Late June 1829, in *JSP*, D1:378-82; Testimony of Eight Witnesses, Late June 1829, in *JSP*, D1:385-87.
17. Tucker, *Origin, Rise, and Progress of Mormonism*, 60-61.
18. Lucy Mack Smith to Solomon Mack, Jan. 6, 1831, Church History Library 참조.
19. Joseph Smith History, circa Summer 1832, 1, in *JSP*, H1:10; 교리와 성약 27:12-13 (Revelation, circa Aug. 1830, in Doctrine and Covenants 50:3, 1835 edition, at josephsmithpapers.org); Oliver Cowdery to Phineas Young, Mar. 23, 1846, Church History Library; "Joseph Smith Documents Dating through June 1831," in *JSP*, D1:xxxvii-xxxix; 또한 Cannon and others, "Priesthood Restoration Documents," 163-207 참조. **주제: 멜기세덱 신권의 회복**
20.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27, in *JSP*, H1:326-28 (draft 2).
21.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37, in *JSP*, H1:364 (draft 2); Stevenson, *Journal*, Dec. 22, 1877; Jan. 2, 1887: An Act to Provide for the Incorporation of Religious Societies (Apr. 5, 1813), *Laws of the State of New-York* (1813), 2:212-19. **주제: 그리스도 교회의 창립 모임**
22.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37-38, in *JSP*, H1:364-71 (draft 2).
23.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37, in *JSP*, H1:366; 교리와 성약 21편 (Revelation, Apr. 6, 1830, at josephsmithpapers.org); "History of Joseph Smith," *Times and Seasons*, Oct. 1, 1842, 3:928-29.
24.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9, [12]; Knight, *Reminiscences*, 8; 또한 Bushman, *Rough Stone Rolling*, 110 참조.
25.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38, in *JSP*, H1:372 (draft 2); Joseph Smith, "Latter Day Saints," in Rupp, *He Pasa Ekklesia*, 404-5, in *JSP*, H1:506.
26. Knight, *Reminiscences*, 7.

제9장: 죽든지 살든지

1.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39, *JSP*, H1:378 (draft 2).
2. 예를 들어, 마가복음 16:17~18 참조. **주제: 영의 은사**
3. 모사이야서 3:19.
4.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39, *JSP*, H1:380 (draft 2); Knight, *Reminiscences*, 7; see also Historical Introduction to Revelation, Apr. 1830-E [DC 23:6-7], *JSP*, D1:136.
5. Joseph Smith History, circa June-Oct. 1839, [11]-[13] (draft 1);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39-41 (draft 2); Joseph Smith History, circa 1841, 70-72 (draft 3), *JSP*, H1:380-87. **주제: 영의 은사**
6. Pratt, *Autobiography*, 30-37; Givens and Grow, *Parley P. Pratt*, 26-27.
7. Pratt, *Autobiography*, 37-38.
8. Pratt, *Autobiography*, 38-43.
9.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42, *JSP*, H1:390 (draft 2). **주제: 에머 헤일 스미스**
10.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42-43, *JSP*, H1:390-94 (draft 2); Diedrich Willers to L. Mayer and D. Young, June 18, 1830, Quinn, "First Months of Mormonism," 331. **주제: 교회 이름**
11.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43-44, 47, *JSP*, H1:394-98, 412 (draft 2); Knight, *Reminiscences*, 8.
12.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44-47, *JSP*, H1:396-412 (draft 2); Knight, *Reminiscences*, 8; Bushman, *Rough Stone Rolling*, 116-18; 사도행전 4:1~3; 5:17~33; 6~7; 24~26.
13. 교리와 성약 24:7, 9(Revelation, July 1830-A, josephsmithpapers.org).
14. 교리와 성약 25:7, 9, 12(Revelation, July 1830-C, josephsmithpapers.org); Grow, "Thou Art an Elect Lady," 33-39. **주제: 에머 헤일 스미스**
15.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52-53, *JSP*, H1:432 (draft 2). **주제: 영의 은사**
16.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53, *JSP*, H1:436 (draft 2); Deed from Isaac and Elizabeth Hale, Aug. 25, 1830, *JSP*, D1:167-71; Knight, *Autobiography*, 141.
17.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53-54, in *JSP*, H1:436 (draft 2).
18. Knight, *Autobiography*, 146; Bushman, *Rough Stone Rolling*, 119-21.
19. Knight, *Autobiography and Journal*, 22; Knight, *Autobiography*, 145-47.
20. Knight, *Autobiography*, 145-47; 교리와 성약 28편(Revelation, Sept. 1830-B, josephsmithpapers.org); Covenant of Oliver Cowdery and Others, Oct. 17, 1830, *JSP*, D1:204; 또한 교리와 성약 29편(Revelation, Sept. 1830-A, josephsmithpapers.org); 제3니파이 21:23-24; 이터서 13:3-10 참조. 이 계시에서는 거룩한 성의 장소가 "레이맨인들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했으나 출판될 때 "레이맨인과 가까운 변경"으로 편집되었다. (Book of Commandments 30:9, *JSP*, R2:80). **주제: 아메리칸 인디언; 시온/새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집합**
21.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58, *JSP*, H1:452 (draft 2); Minutes, Sept. 26, 1830, *JSP*, D1:192.
22. 교리와 성약 30:5-8(Revelation, Sept. 1830-D, josephsmithpapers.org); 교리와 성약 32편(Revelation, Oct. 1830-A, josephsmithpapers.org);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60, *JSP*, H1:458-60 (draft 2); Givens and Grow, *Parley P. Pratt*, 36.
23. Lucy Mack Smith, History, 1845, 189-90.
24. Pratt, *Autobiography*, 49. **주제: 초기 선교사; 오하이오주 커틀랜드**
25. Smith, "Copy of an Old Note Book," 31-35; Lucy Mack Smith, History, 1845, 186-87. **주제: 초기 선교사**
26. Rigdon, "Life Story of Sidney Rigdon," 18; Keller, "I Never Knew a Time," 23;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73.
27. "Sidney Rigdon and the Spaulding Romance," *Deseret Evening News*, Apr. 21, 1879, [2].
28.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73; see also Maki, "Go to the Ohio," 70-73.

29. Rigdon, "Life Story of Sidney Rigdon," 19;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73; "Mormonism," *Painesville Telegraph*, Feb. 15, 1831, [1].
30.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72-73; 1 Thessalonians 5:21.
31. Rigdon, "Life Story of Sidney Rigdon," 17; Keller, "I Never Knew a Time," 24; "Records of Early Church Families," *Utah Genealogical and Historical Magazine*, Oct. 1936, 27:161-62.
32. Mather, "Early Days of Mormonism," 206-7;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74; "Sidney Rigdon," *Millennial Harbinger*, Feb. 7, 1831, 100-101; see also Ezra Booth, "Mormonism—Nos. VIII-IX," *Ohio Star*, Dec. 8, 1831, 1.
33.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75. **주제: 오하이오주 커틀랜드**

제10장: 모이다

1. Allen, Autobiographical Sketch, [1]-[2]; 1830 U.S. Census, Mentor, Geauga County, OH, 266; Smith and Allen, "Family History of Lucy Diantha (Morley) Allen"; see also Givens and Grow, *Parley P. Pratt*, 39. **주제: 1세대 후기 성도의 일상**
2. Givens and Grow, *Parley P. Pratt*, 39-40; 사도행전 2:44; 4:32 참조. **주제: 헌납과 청지기 직분**
3. Oliver Cowdery to Joseph Smith, Nov. 12, 1830, in *JSP*, DI:213.
4. Staker, *Hearken, O Ye People*, 5-9.
5. Minute Book 2, Aug. 31, 1838; and Knutson, "Sheffield Daniels and Abigail Warren" 참조.
6. Oliver Cowdery to Joseph Smith, Nov. 12, 1830, in *JSP*, DI:211-14.
7.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75-76; Pratt, *Autobiography*, 61; "Williams, Frederick Granger," Biographical Entry, Joseph Smith Papers website, josephsmithpapers.org.
8. Pratt, *Autobiography*, 54-55.
9. Partridge, Genealogical Record, 2, 5;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10, [11].
10.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10, [11].
11.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10, [11]-[12]; Lucy Mack Smith, History, 1845, 191. **주제: 성찬 모임**
12. 교리와 성약 36편(Revelation, Dec. 9, 1830, at josephsmithpapers.org).
13. *JSP*, DI:224, note 158; License for Edward Partridge, Dec. 15, 1830, Edward Partridge, Papers, Church History Library.
14. 교리와 성약 35:20, 22(Revelation, Dec. 7, 1830, at josephsmithpapers.org).
15. *JSP*, DI:151, note 207; 또한 Maki, "Joseph Smith's Bible Translation," 99-104 참조. 조셉 스미스는 모세에 관한 이 계시를 받은 후에 성경 번역을 시작한 것 같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조한다. *Visions of Moses*, June 1830, in *JSP*, DI:150-56. **주제: 조셉 스미스 역 성경**
16. 모세서 1장(Visions of Moses, June 1830, at josephsmithpapers.org).
17. Bible Used for Bible Revision, at josephsmithpapers.org: Old Testament Revision 1, at josephsmithpapers.org: 창세기 5:18~24.
18. 제4니파이 1:1~18; 창세기 5:22~24; 모세서 7:18~19, 62, 69(Old Testament Revision 1, 16-19, at josephsmithpapers.org).
19. 모세서 7:28, 62(Old Testament Revision 1, 16-17, 19, at josephsmithpapers.org). **주제: 시온/새 예루살렘: 헌납과 청지기 직분**
20. 교리와 성약 37편(Revelation, Dec. 30, 1830, at josephsmithpapers.org).
21. 교리와 성약 29:8(Revelation, Sept. 1830-A, at josephsmithpapers.org). **주제: 이스라엘의 집합**
22. Whitmer, History, 9, in *JSP*, H2:21;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88.
23. Whitmer, History, 5-6, in *JSP*, H2:18.
24. 교리와 성약 38:18~19, 32(Revelation, Jan. 2, 1831, at josephsmithpapers.org). **주제: 권능의 엔다우먼트**

25. Whitmer, History, 9, in *JSP*, H2:21; Knight, *Autobiography and Journal*, 28. **주제: 교회 내 불화**
26. Knight, *Autobiography and Journal*, 28.
27. [Elizabeth Ann Smith Whitney], "A Leaf from an Autobiography," *Woman's Exponent*, Sept. 1, 1878, 7:51;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10, [12]; Lucy Mack Smith, History, 1845, 190;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92. **주제: 조셉과 에머 헤일리 스미스 가족**
28. Staker, Hearken, O Ye People, 74-81 참조.
29. [Elizabeth Ann Smith Whitney], "A Leaf from an Autobiography," *Woman's Exponent*, Sept. 1, 1878, 7:51; Tullidge, *Women of Mormondom*, 41-42.
30. [Elizabeth Ann Smith Whitney], "A Leaf from an Autobiography," *Woman's Exponent*, Aug. 15, 1878, 7:41.
31. [Elizabeth Ann Smith Whitney], "A Leaf from an Autobiography," *Woman's Exponent*, Sept. 1, 1878, 7:51.
32. Staker, *Hearken, O Ye People*, 45. **주제: 헌납과 청지기 직분**
33.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112; Staker, *Hearken, O Ye People*, 139; Pratt, *Autobiography*, 65.
34. Whitmer, History, 26, in *JSP*, H2:38.
35. Hancock, *Autobiography*, 79; 또한 McBride, "Religious Enthusiasm among Early Ohio Converts," 105-11 참조. **주제: 영의 은사**
36. [Elizabeth Ann Smith Whitney], "A Leaf from an Autobiography," *Woman's Exponent*, Sept. 1, 1878, 7:51.
37. Orson F. Whitney, "Newel K. Whitney," *Contributor*, Jan. 1885, 125; [Elizabeth Ann Smith Whitney], "A Leaf from an Autobiography," *Woman's Exponent*, Sept. 1, 1878, 7:51.

제11장: 나의 율법을 받으라

1. [Elizabeth Ann Smith Whitney], "A Leaf from an Autobiography," *Woman's Exponent*, Sept. 1, 1878, 7:51; Staker, Hearken, O Ye People, 226.
2. 1830 U.S. Census, Kirtland, Geauga County, OH, 268-73; Staker, Hearken, O Ye People, 402, 413; *JSP*, D1:530-31.
3. 고린도전서 1:2 참조.
4. Joseph Smith to Hyrum Smith, Mar. 3-4, 1831, in *JSP*, D1:272. **주제: 아메리칸 인디언**
5. Jackson, "Chief Anderson and His Legacy."
6. Pratt, *Autobiography*, 56-60. **주제: 레이벤인의 뿌리**
7. Joseph Smith to Hyrum Smith, Mar. 3-4, 1831, in *JSP*, D1:272. 조셉은 하이럼에게 보내는 이 편지에다 자신이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1월 29일에 받은 편지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었다.
8. "Mormonism," *Painesville Telegraph*, Feb. 15, 1831, [1]; 교리와 성약 41:3(Revelation, Feb. 4, 1831, at josephsmithpapers.org).
9. 교리와 성약 41:9~11(Revelation, Feb. 4, 1831, at josephsmithpapers.org). **주제: 감독**
10. Whitmer, History, 12, in *JSP*, H2:24; Historical Introduction to Revelation, Feb. 9, 1831 [DC 42:1-72], in *JSP*, D1:247; see also Harper, "The Law," 93-98.
11. 교리와 성약 42:1~72(Revelation, Feb. 9, 1831, at josephsmithpapers.org).
12. 교리와 성약 42:30~36(Revelation, Feb. 9, 1831, at josephsmithpapers.org). **주제: 헌납과 청지기 직분**
13. 교리와 성약 42:61(Revelation, Feb. 9, 1831, at josephsmithpapers.org).
14. 교리와 성약 50:2~3, 21~25(Revelation, May 9, 1831, at josephsmithpapers.org).
15. "History of Thos. Baldwin Marsh," *Deseret News*, Mar. 24, 1858, 18; Thomas Marsh and Elizabeth Godkin Marsh to Lewis Abbott and Ann Marsh Abbott, [circa Apr. 11, 1831], Abbott Family Collection, Church History Library. **주제: 시온/새 예루살렘**
16. Faulring and others, *Joseph Smith's New Translation of the Bible*, 57. **주제: 조셉 스미스 역 성경**

17. 창세기 17:5.
18. Old Testament Revision 1, 28 [Genesis 11:11-12:2], at josephsmithpapers.org.
19. 야람서 2:27-30.
20. "Report of Elders Orson Pratt and Joseph F. Smith," *LDS Millennial Star*, Dec. 16, 1878, 50:788; Doctrine and Covenants 132:1 (Revelation, July 12, 1843, at josephsmithpapers.org); "Plural Marriage in Kirtland and Nauvoo," Gospel Topics, topics.lds.org. **주제: 조셉 스미스와 복수결혼**
21.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11, [2]; Knight, *Autobiography and Journal*, 28-29.
22.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11, [4]-[6]; Lucy Mack Smith, History, 1845, 196-97.
23.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11, [7]-[9].
24.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11, [11]-[12].
25. Lucy Mack Smith, History, 1845, 202-3.
26.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12, [2]. **주제: 루시 맥 스미스**
27. Oliver Cowdery to "My Dearly Beloved Brethren and Sisters in the Lord," Apr. 8, 1831, in *JSP*, DI:292.
28. Pratt, *Autobiography*, 60; Rust, "Mission to the Lamanites," 45-49.
29. Oliver Cowdery to "Dearly Beloved Brethren," May 7, 1831, in *JSP*, DI:294-97; Richard W. Cummins to William Clark, Feb. 15, 1831, U.S. Office of Indian Affairs, Central Superintendency, Records, volume 6, 113-14; Pratt, *Autobiography*, 61.
30. Joseph Smith History, 1834-36, 9, in *JSP*, H1:28; Murdock, *Autobiography*, 197; Lucy Diantha Morley Allen, "Joseph Smith, the Prophet," *Young Woman's Journal*, Dec. 1906, 17:537. **주제: 조셉과 에머 헤일 스미스**
31. Joseph Smith History, 1834-36, 9, in *JSP*, H1:28; Murdock, *Autobiography*, 9.
32.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12, [6].

제12장: 많은 환난 후에

1. Young, "What I Remember," 1-2.
2. 교리와 성약 42:30~33(Revelation, Feb. 9, 1831, at josephsmithpapers.org); Knight, *Autobiography and Journal*, 29-30; see also Darowski, "Journey of the Colesville Branch," 40-44.
3. Young, "What I Remember," 4; Partridge, *Genealogical Record*, 6, 64; Lyman, *Journal*, 8. **주제: 1세대 후기 성도의 일상**
4. Lyman, *Journal*, 8; Partridge, *Genealogical Record*, 6; Minutes, circa June 3-4, 1831, in *JSP*, DI:317-27; Doctrine and Covenants 44:1-2 (Revelation, Feb. 1831-B, at josephsmithpapers.org).
5. 교리와 성약 52편(Revelation, June 6, 1831, at josephsmithpapers.org).
6. 교리와 성약 52:42(Revelation, June 6, 1831, at josephsmithpapers.org); 교리와 성약 38:18(Revelation, Jan. 2, 1831, at josephsmithpapers.org); 민수기 33:54; 34:2; 예레미야 11:5.
7. Lyman, *Journal*, 8.
8. Partridge, *Genealogical Record*, 6.
9. Darowski, "Journey of the Colesville Branch," 41-42.
10. Knight, *Reminiscences*, 9; Knight, *Autobiography*, 288-89; see also Staker, *Hearken, O Ye People*, 138-39.
11. Whitmer, *History*, 26, 29, in *JSP*, H2:37, 41; Knight, *Autobiography and Journal*, 29-30; 또한 다음 자료 참조. 교리와 성약 49편(Revelation, May 7, 1831, at josephsmithpapers.org); Historical Introduction to Revelation, May 7, 1831 [DC 49], in *JSP*, DI:297-99.
12. 교리와 성약 54:8(Revelation, June 10, 1831, at josephsmithpapers.org).
13. Knight, *Reminiscences*, 9.
14. Knight, *Autobiography and Journal*, 33. **주제: 시온/새 예루살렘**

15.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126-27.
16. [William W. Phelps], "Extract of a Letter from the Late Editor," *Ontario Phoenix*, Sept. 7, 1831, [2]; Ezra Booth, "Mormonism—No. V," *Ohio Star*, Nov. 10, 1831, [3]. **주제: 조셉 스미스의 예언**
17. Ezra Booth, "Mormonism—No. VI," *Ohio Star*, Nov. 17, 1831, [3]; "History of Luke Johnson," *LDS Millennial Star*, Dec. 31, 1864, 834; see also Bushman, *Rough Stone Rolling*, 162, 168-69. **주제: 미주리주 인디펜던스**
18.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127-29; Anderson, "Jackson County in Early Mormon Descriptions," 275-76, 290-93; Ezra Booth, "Mormonism—No. V," *Ohio Star*, Nov. 10, 1831, [3]; Ezra Booth, "Mormonism—No. VI," *Ohio Star*, Nov. 17, 1831, [3]; [William W. Phelps], "Extract of a Letter from the Late Editor," *Ontario Phoenix*, Sept. 7, 1831, [2]; Edward Partridge to Lydia Clisbee Partridge, Aug. 5-7, 1831, Edward Partridge, Letters, Church History Library; Richard W. Cummins to William Clark, Feb. 15, 1831, U.S. Office of Indian Affairs, Central Superintendency, Records, volume 6, 113-14.
19.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127.
20. 교리와 성약 57:1~4(Revelation, July 20, 1831, at josephsmithpapers.org); see also Woodworth, "The Center Place," 122-29. **주제: 시온/새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집합**
21. Edward Partridge to Lydia Clisbee Partridge, Aug. 5-7, 1831, Edward Partridge, Letters, Church History Library;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126-27; 교리와 성약 57편(Revelation, July 20, 1831, at josephsmithpapers.org); 교리와 성약 58:14~15(Revelation, Aug. 1, 1831, at josephsmithpapers.org).
22. Ezra Booth, "Mormonism—No. VII," *Ohio Star*, Nov. 24, 1831, [1].
23. 교리와 성약 58:3~4, 15~16(Revelation, Feb. 1, 1831, at josephsmithpapers.org).
24. Edward Partridge to Lydia Clisbee Partridge, Aug. 5-7, 1831, Edward Partridge, Letters, Church History Library. **주제: 감독**
25. Knight, Reminiscences, 9; Whitmer, History, 31-32, in *JSP*, H2:43-45;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137, 139.
26.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139; 시편 87:2~3.
27. Knight, Reminiscences, 9; Edward Partridge to Lydia Clisbee Partridge, Aug. 5-7, 1831, Edward Partridge, Letters, Church History Library.
28. Knight, Reminiscences, 9.
29. 교리와 성약 59:1~2(Revelation, Aug. 7, 1831, at josephsmithpapers.org).
30.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142; Phelps, "A Short History of W. W. Phelps' Stay in Missouri," [2]; "Missouri River," Geographical Entry, Joseph Smith Papers website, josephsmithpapers.org.
31. Ezra Booth, "Mormonism—No. VII," *Ohio Star*, Nov. 24, 1831, [1]; Bushman, *Rough Stone Rolling*, 164; Historical Introduction to Revelation, Aug. 12, 1831 [DC 61], in *JSP*, D2:37-39; Book of Commandments 62 [DC 61], at josephsmithpapers.org; see also [William W. Phelps], "The Way of Journeying for the Saints of the Church of Christ," *The Evening and the Morning Star*, Dec. 1832, 53.
32. Ezra Booth, "Mormonism—No. VII," *Ohio Star*, Nov. 24, 1831, [1]; see also McBride, "Ezra Booth and Isaac Morley," 130-36.
33. Edward Partridge to Lydia Clisbee Partridge, Aug. 5-7, 1831, Edward Partridge, Letters, Church History Library; 교리와 성약 57편(Revelation, July 20, 1831, at josephsmithpapers.org).
34. Edward Partridge to Lydia Clisbee Partridge, Aug. 5-7, 1831, Edward Partridge, Letters, Church History Library; Young, "What I Remember," 5.
35. Edward Partridge to Lydia Clisbee Partridge, Aug. 5-7, 1831, Edward Partridge, Letters, Church History Library. 원본 편지에는 "얼마 동안은 궁핍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로 "and shall for some time many privations here"라고 나와 있으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shall" 다음에 동사 "have"가 추가되었다.
36. Edward Partridge to Lydia Clisbee Partridge, Aug. 5-7, 1831, Edward Partridge, Letters, Church History Library; Young, "What I Remember," 5. **주제: 1세대 후기 성도의 일상**

37. Young, "What I Remember," 5; Edward Partridge to Lydia Clisbee Partridge, Aug. 5-7, 1831, Edward Partridge, Letters, Church History Library.

제13장: 은사가 돌아오다

1. Historical Introduction to Revelation, Aug. 12, 1831 [DC 61], in *JSP*, D2:38-39.
2. 교리와 성약 61:36~37(Revelation, Aug. 12, 1831, at josephsmithpapers.org).
3.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146; Historical Introduction to Revelation, Sept. 11, 1831 [DC 64], in *JSP*, D2:61-63.
4. Ezra Booth, "For the *Ohio Star*," *Ohio Star*, Oct. 13, 1831, [3]; Staker, *Hearken, O Ye People*, 296-302; Minutes, Sept. 6, 1831, in *JSP*, D2:59-61. **주제: 교회 내 불화**
5. 교리와 성약 64:7~10, 21, 33~34(Revelation, Sept. 11, 1831, at josephsmithpapers.org).
6. Elizabeth Godkin Marsh to Lewis Abbott and Ann Marsh Abbott, Sept. 1831, Abbott Family Collection, Church History Library; Isaiah 29:17; 35:1.
7. Elizabeth Godkin Marsh to Lewis Abbott and Ann Marsh Abbott, Sept. 1831, Abbott Family Collection, Church History Library. **주제: 초기 선교사들**
8. McLellin, Journal, Sept. 22, 1831; William McLellin to "Beloved Relatives," Aug. 4, 1832, photocopy, Church History Library; see also Shippis and Welch, *Journals of William E. McLellin*, 82-83.
9. McLellin, Journal, July 18, 1831.
10. McLellin, Journal, July 30-Aug. 19, 1831.
11. McLellin, Journal, Aug. 19-20, 1831.
12. McLellin, Journal, Aug. 20 and 24, 1831.
13. McLellin, Journal, Aug. 26-Oct. 4, 1831.
14. McLellin, Journal, Oct. 25-30, 1831; Shippis and Welch, *Journals of William E. McLellin*, 57, note 52; 교리와 성약 66편(Revelation, Oct. 29, 1831, at josephsmithpapers.org); Godfrey, "William McLellin's Five Questions," 137-41.
15. Minutes, Nov. 1-2, 1831, in *JSP*, D2:94-98; Ezra Booth to Rev. Ira Eddy, Sept. 12, 1831, *Ohio Star*; Oct. 13, 1831, [3]; Ezra Booth, "Mormonism—No. II," *Ohio Star*; Oct. 20, 1831, [3]. **주제: 교회 내 불화**
16. Whitmer, *Address to All Believers in Christ*, 54-55.
17. Minutes, Nov. 1-2, 1831, in *JSP*, D2:94-98; "Letter from Elder W H Kelley," *Saints' Herald*, Mar. 1, 1882, 67. **주제: 계명의 책; 조셉 스미스의 계시**
18. "Letter from Elder W H Kelley," *Saints' Herald*, Mar. 1, 1882, 67; 교리와 성약 1편(Revelation, Nov. 1, 1831-B, at josephsmithpapers.org); Historical Introduction to Revelation, Nov. 1, 1831-B [DC 1], in *JSP*, D2:103-4.
19. 교리와 성약 1:38(Revelation, Nov. 1, 1831-B, at josephsmithpapers.org).
20. Minutes, Nov. 1-2, 1831, in *JSP*, D2:97; Testimony, circa Nov. 2, 1831, in *JSP*, D2:110-14; 교리와 성약 67편(Revelation, circa Nov. 2, 1831, at josephsmithpapers.org); Historical Introduction to Revelation, circa Nov. 2, 1831 [DC 67], in *JSP*, D2:108-9; Historical Introduction to Revelation, Nov. 1, 1831-B [DC 1], in *JSP*, D2:103-4.
21. 교리와 성약 1:24(Revelation, Nov. 1, 1831-B, at josephsmithpapers.org).
22. 교리와 성약 67: 7~8(Revelation, Apr. 2, 1831, at josephsmithpapers.org); Historical Introduction to Revelation, Apr. 2, 1831 [DC 67], in *JSP*, D2:108-9.
23.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162; "Manuscript Revelation Books," in *JSP*, MRB:xxx-xxxi.
24. Testimony, circa Nov. 2, 1831, in *JSP*, D2:110-14; Minutes, Nov. 1-2, 1831, in *JSP*, D2:94-98.
25. Minutes, Nov. 8, 1831, in *JSP*, D2:121-24.
26. Brekus, *Strangers and Pilgrims*, 5, 213 참조.
27. Towle, *Vicissitudes Illustrated*, 137. **주제: 초기 교회의 반대 세력**
28. Towle, *Vicissitudes Illustrated*, 138, 142.
29. Towle, *Vicissitudes Illustrated*, 141-45.

제14장: 시현과 악몽들

1.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204.
2. George A. Smith, "Sketch of Church History," *Deseret News*, supplement, Dec. 21, 1864, 90; Staker, *Hearken, O Ye People*, 282-85; see also Hinsdale, "Life and Character of Symonds Ryder," 250. **주제: 병 고침**
3.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183; Faulring and others, *Joseph Smith's New Translation of the Bible*, 58; 또한 John 5:29; and Staker, *Hearken, O Ye People*, 319-24 참조. **주제: 조셉 스미스 역 성경**
4. Historical Introduction to Vision, Feb. 16, 1832 [DC 76], in *JSP*, D2:179-83; Dibble, "Recollections of the Prophet Joseph Smith," 303.
5. 교리와 성약 76:11~24 (Vision, Feb. 16, 1832, at josephsmithpapers.org). **주제: 시현(교리와 성약 76편)**
6. 고린도전서 15:39~40; 교리와 성약 76: 50~112(Vision, Feb. 16, 1832, at josephsmithpapers.org); Dibble, "Recollections of the Prophet Joseph Smith," 303-4; Historical Introduction to Vision, Feb. 16, 1832 [DC 76], in *JSP*, D2:180-82.
7. 교리와 성약 76:116(Vision, Feb. 16, 1832, at josephsmithpapers.org).
8. Dibble, "Philo Dibble's Narrative," 81; Dibble, "Recollections of the Prophet Joseph Smith," 304.
9. "Phelps, William Wines," Biographical Entry, Joseph Smith Papers website, josephsmithpapers.org; Bowen, "Versatile W. W. Phelps."
10. William W. Phelps, *The Evening and the Morning Star Prospectus*, in *Evening and Morning Star*, June 1832 (published Jan. 1835), 1-2.
11. Murdock, Journal, 18; Brigham Young, in *Journal of Discourses*, May 18, 1873, 16:42; Brigham Young, Discourse, May 18, 1873, in Historian's Office, Reports of Speeches, 1845-85, Church History Library; Brigham Young, in *Journal of Discourses*, Aug. 29, 1852, 6:281; Wilford Woodruff, in *Journal of Discourses*, Apr. 9, 1857, 5:84; Joseph Young, "Discourse," *Deseret Weekly News*, Mar. 18, 1857, 11; "Items for the Public," *The Evening and the Morning Star*, July 1832, 25; see also McBride, "The Vision," 148-54.
12. Cahoon, Diary, Nov. 1831;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205; 또한 Ezra Booth's letters printed weekly in the *Ohio Star* from Oct. 13 to Dec. 8, 1831 참조. **주제: 교회 내 분화**
13. Hayden, *Early History of the Disciples in the Western Reserve*, 220-21; Ryder, "A Short History of the Foundation of the Mormon Church," 3-4; Staker, *Hearken, O Ye People*, 344-49; Tullidge, *Women of Mormondom*, 404.
14.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205-6; 또한 Staker, *Hearken, O Ye People*, 349-50 참조.
15.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206-7; "History of Luke Johnson," *LDS Millennial Star*, Dec. 31, 1884, 834-35; 또한 Staker, *Hearken, O Ye People*, 351-52 참조. **주제: 자경주의**
16.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207-8; "History of Luke Johnson," *LDS Millennial Star*, Dec. 31, 1884, 835.
17.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208.
18.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208-9; Joseph Smith III, "Last Testimony of Sister Emma," *Saints' Herald*, Oct. 1, 1879, 289. **주제: 조셉과 에머 헤일 스미스 가족**
19. Staker, *Hearken, O Ye People*, 354-55;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209; Whitmer, History, 38-39, in *JSP*, H2:50-51; 또한 Minutes, Apr. 26-27, 1832, in *JSP*, D2:229-33; and Minutes, Apr. 30, 1832, in *JSP*, D2:237-40 참조.
20. 교리와 성약 72편(Revelation, Dec. 4, 1831-A, at josephsmithpapers.org); 교리와 성약 78편(Revelation, Mar. 1, 1832, at josephsmithpapers.org). **주제: 감독**
21. 교리와 성약 78:14(Revelation, Mar. 1, 1832, at josephsmithpapers.org).
22. 교리와 성약 82편(Revelation, Apr. 26, 1832, at josephsmithpapers.org); Historical Introduction to Revelation, Apr. 26, 1832 [DC 82], in *JSP*, D2:233-35.

23. 교리와 성약 82:15, 19(Revelation, Apr. 26, 1832, at josephsmithpapers.org); 또한 Godfrey, "Newel K. Whitney and the United Firm," 142-47 참조. **주제: 협동회사("협동교단")**
24.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213; "Joseph Smith-Era Publications of Revelations," in *JSP*, R2:xxvi; Newel K. Whitney, Statement, circa 1842, Historian's Office, Joseph Smith History Documents, circa 1839-56, Church History Library.
25. Joseph Smith to William W. Phelps, July 31, 1832, in *JSP*, D2:257-71. **주제: 교회 내 불화**
26. McLellin, Journal, Nov. 1831-Feb. 1832.
27. McLellin, Journal, Feb. 16, 1832.
28. McLellin, Journal, Feb. 25, 1832.
29. "History of Luke Johnson," *LDS Millennial Star*, Dec. 31, 1864, 26:835.
30. William McLellin to "Beloved Relatives," Aug. 4, 1832, photocopy, Church History Library; Joseph Smith to Emma Smith, June 6, 1832, in *JSP*, D2:251; 교리와 성약 75:6-8(Revelation, Jan. 25, 1832-A, at josephsmithpapers.org); 또한 Shipp and Welch, *Journals of William E. McLellin*, 79-85 참조.
31. Joseph Smith to William W. Phelps, July 31, 1832, in *JSP*, D2:262; Corrill, *Brief History*, 18-19, in *JSP*, H2:146. **주제: 감독; 헌납과 청지기 직분**
32. William McLellin to "Beloved Relatives," Aug. 4, 1832, photocopy, Church History Library; see also Shipp and Welch, *Journals of William E. McLellin*, 83-84; and Isaiah 2:3.
33. "To His Excellency, Daniel Dunklin, Governor of the State of Missouri," *The Evening and the Morning Star*, Dec. 1833, [2].
34. "The Elders in the Land of Zion to the Church of Christ Scattered Abroad," *The Evening and the Morning Star*, July 1832, [5]; William McLellin to "Beloved Relatives," Aug. 4, 1832, photocopy, Church History Library; 또한 Shipp and Welch, *Journals of William E. McLellin*, 83 참조.
35. Delilah Lykins to Isaac and Christina McCoy, Sept. 6, 1831, quoted in Jennings, "Isaac McCoy and the Mormons," 65-66.

제15장: 거룩한 곳

1. Phebe Crosby Peck to Anna Jones Pratt, Aug. 10, 1832, Church History Library; see also Johnson, "Give Up All and Follow Your Lord," 93.
2. Phebe Crosby Peck to Anna Jones Pratt, Aug. 10, 1832, Church History Library; "A Vision," *The Evening and the Morning Star*, July 1832, [2]-[3]; Doctrine and Covenants 76 (Vision, Feb. 16, 1832, at josephsmithpapers.org); see also Johnson, "Give Up All and Follow Your Lord," 94-96.
3. 교리와 성약 84:112-117(Revelation, Sept. 22-23, 1832, at josephsmithpapers.org). **주제: 협동회사("협동교단")**
4. 교리와 성약 84편(Revelation, Sept. 22-23, 1832, at josephsmithpapers.org);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229.
5. Joseph Smith to Emma Smith, Oct. 13, 1832, in *JSP*, D2:304-14; see also Pasko, *Old New York*, 1-2.
6. Joseph Smith to Emma Smith, Oct. 13, 1832, in *JSP*, D2:304-14.
7. Brigham Young, Sermon, Nov. 20, 1864, George D. Watt Papers, Church History Library, as transcribed by LaJean Purcell Carruth; Joseph Young to Lewis Harvey, Nov. 16, 1880, Church History Library; Historian's Office, Brigham Young History Drafts, 1856-58, 3-4; "History of Brigham Young," *LDS Millennial Star*, July 11, 1863, 25:439.
8. **주제: 조셉과 에머 헤일 스미스 가족**
9. Historian's Office, Brigham Young History Drafts, 1856-58, 3-4; Joseph Young to Lewis Harvey, Nov. 16, 1880, Church History Library; see also 1 Corinthians 12-14; and Doctrine and Covenants 45 (Revelation, circa Mar. 7, 1831, at josephsmithpapers.org). **주제: 영의 은사; 방언의 은사**

10. News Item, *Painesville Telegraph*, Dec. 21, 1832, [3]; see also Woodworth, "Peace and War," 158-64.
11.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244; 마태복음 24장; 조셉 스미스—마태; 교리와 성약 45편(Revelation, circa Mar. 7, 1831, at josephsmithpapers.org); 또한 "Revenge and Magnanimity," *Painesville Telegraph*, Dec. 21, 1832, [1]; and "The Plague in India," *Painesville Telegraph*, Dec. 21, 1832, [2] 참조.
12. 교리와 성약 84:49, 117~118(Revelation, Sept. 22-23, 1832, at josephsmithpapers.org).
13. 교리와 성약 87편(Revelation, Dec. 25, 1832, at josephsmithpapers.org). **주제: 조셉 스미스의 예언**
14. Historical Introduction to Minutes, Dec. 27-28, 1832, in *JSP*, D2:331-33; Historical Introduction to Revelation, Dec. 27-28, 1832 [DC 88:1-126], in *JSP*, D2:334-36; Joseph Smith to William W. Phelps, Jan. 11, 1833, in *JSP*, D2:364-67.
15. Minutes, Dec. 27-28, 1832, in *JSP*, D2:331-34.
16. 교리와 성약 88:68, 118~119(Revelation, Dec. 27-28, 1832, at josephsmithpapers.org). **주제: 선지자 학교; 커틀랜드 성전**
17. Joseph Smith to William W. Phelps, Jan. 11, 1833, in *JSP*, D2:367.
18. Hyde, *Orson Hyde*, 6, 9; "History of Orson Hyde," 1, in Historian's Office, Histories of the Twelve, 1856-58, 1861, Church History Library; Joseph Smith History, circa Summer 1832, 1, in *JSP*, H1:11; and Waite, "A School and an Endowment," 174-82.
19. 교리와 성약 88:78-80(Revelation, Dec. 27-28, 1832, at josephsmithpapers.org); Backman, *Heavens Resound*, 264-68.
20. Coltrin, Diary and Notebook, Jan. 24, 1833.
21. Minutes, Jan. 22-23, 1833, in *JSP*, D2:378-82.
22. Minutes, Jan. 22-23, 1833, in *JSP*, D2:378-82. **주제: 발 씻음**
23. School of the Prophets Salt Lake City Minutes, Oct. 3, 1883.
24. School of the Prophets Salt Lake City Minutes, Oct. 3, 1883; Brigham Young, Discourse, Feb. 8, 1868, in George D. Watt, Discourse Shorthand Notes, Feb. 8, 1868, Pitman Shorthand Transcriptions, Church History Library; see also Brigham Young, in *Journal of Discourses*, Feb. 8, 1868, 12:158. **주제: 지혜의 말씀(교리와 성약 89편)**
25. Woodworth, "Word of Wisdom," 183-91; Harper, Word of Wisdom, 45-49; Historical Introduction to Revelation, Feb. 27, 1833 [DC 89], in *JSP*, D3:11-19.
26. Revelation, Feb. 27, 1833, at josephsmithpapers.org. 이 계시의 또 다른 초기 사본에 기초한 현대 교리와 성약에는 "커틀랜드에 모인 대제사 평의회와 교회 그리고 또한 시온에 있는 성도의 유익을 위한 지혜의 말씀"이 있다.(교리와 성약 89:1; 또한 Revelation Book 2, 49 참조)
27. 교리와 성약 89편(Revelation, Feb. 27, 1833, at josephsmithpapers.org); Johnson, Notebook, [1]; "The Word of Wisdom," *Times and Seasons*, June 1, 1842, 3:800; Revelation Book 1, 168, in *JSP*, MRB:313. **주제: Word of Wisdom (DC 89)[지혜의 말씀: 교리와 성약 89편]**
28. 교리와 성약 89:1-4(Revelation, Feb. 27, 1833, at josephsmithpapers.org); Minute Book 2, Jan. 26, 1838; Historical Introduction to Revelation, Feb. 27, 1833 [DC 89], in *JSP*, D3:11-20.
29. School of the Prophets Salt Lake City Minutes, Oct. 3, 1883.
30. Minutes, Mar. 23, 1833-B, in *JSP*, D3:50-54;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287.
31. Minutes, Apr. 2, 1833, in *JSP*, D3:55-56;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283; Minutes, May 4, 1833, in *JSP*, D3:81-82.
32. Joseph Smith to "Brethren in Zion," Apr. 21, 1833, in *JSP*, D3:64-67; Historical Introduction to Revelation, Dec. 27-28, 1832 [DC 88:1-126], in *JSP*, D2:334.
33. 교리와 성약 95편(Revelation, June 1, 1833, at josephsmithpapers.org); Robison, *First Mormon Temple*, 8. **주제: 커틀랜드 성전**
34.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14, [1]; Doctrine and Covenants 95:13 (Revelation, June 1, 1833, at josephsmithpapers.org); Minute Book 1, June 3, 1833.
35. "The Elders Stationed in Zion to the Churches Abroad," *The Evening and the Morning Star*, July 1833, [6].
36. Plat of the City of Zion, circa Early June-June 25, 1833, in *JSP*, D3:121-31; Hamilton, *Nineteenth-Century Mormon Architecture and City Planning*, 13-19.

37. Plat of the City of Zion, circa Early June-June 25, 1833, in *JSP*, D3:127-28. **주제: 시온/새 예루살렘**
38. Joseph Smith to Church Leaders in Jackson County, MO, June 25, 1833, in *JSP*, D3:155-56.

제16장: 서막에 불과할 뿐

1. Young, "What I Remember," 6-7; "To His Excellency, Daniel Dunklin," *The Evening and the Morning Star*, Dec. 1833, [2]. **주제: 잭슨군 폭력 사건**
2. "The Elders Stationed in Zion to the Churches Abroad," *The Evening and the Morning Star*, July 1833, [6]-[7].
3. "Free People of Color," *The Evening and the Morning Star*, July 1833, [5]. **주제: 노예 제도와 노예 제도의 폐지**
4. "To His Excellency, Daniel Dunklin," *The Evening and the Morning Star*, Dec. 1833, [2]-[3].
5. Parley P. Pratt and others, "'The Mormons' So Called," *The Evening and the Morning Star*, Extra, Feb. 1834, [1]. **주제: 초기 교회의 반대 세력**
6. "To His Excellency, Daniel Dunklin," *The Evening and the Morning Star*, Dec. 1833, [2]-[3]; see also Breen, *The Land Shall Be Deluged in Blood*; and Oates, *Fires of Jubilee*. **주제: 노예 제도와 노예 제도의 폐지**
7. "To His Excellency, Daniel Dunklin," *The Evening and the Morning Star*, Dec. 1833, [2]-[3]; John Whitmer to Oliver Cowdery and Joseph Smith, July 29, 1833, in *JSP*, D3:191-94. **주제: 자경주의**
8. Reeve, *Religion of a Different Color*, 116-19; 2 Nephi 26:33; Staker, *Hearken, O Ye People*, 182-84.
9. *The Evening and the Morning Star*, Extra, July 16, 1833, [1];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326.
10. Topics.lds.org에서에서 복음 주제 "인종과 신권" 참조.
11. "To His Excellency, Daniel Dunklin," *The Evening and the Morning Star*, Dec. 1833, [2]; 또한 Whitmer, History, 42, in *JSP*, H2:54-55 참조.
12. Joseph Smith to Church Leaders in Jackson County, MO, June 25, 1833, in *JSP*, D3:148 참조.
13. "To His Excellency, Daniel Dunklin," *The Evening and the Morning Star*, Dec. 1833, [2]; Whitmer, History, 42, in *JSP*, H2:54-55.
14. [Edward Partridge], "A History, of the Persecution," *Times and Seasons*, Dec. 1839, 1:18, in *JSP*, H2:209. **주제: 잭슨군 폭력 사건**
15. "To His Excellency, Daniel Dunklin," *The Evening and the Morning Star*, Dec. 1833, [2]; Robert Weston, Testimony, Independence, MO, 581, Reorganized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 Day Saints v. Church of Christ of Independence, MO, and others, typescript, Testimonies and Depositions, Church History Library.
16. "To His Excellency, Daniel Dunklin," *The Evening and the Morning Star*, Dec. 1833, [2]; Edward Partridge and others, Memorial to the Legislature of Missouri, Dec. 10, 1838; Edward Partridge, Affidavit, May 15, 1839, copy, Edward Partridge, Papers, Church History Library.
17. Minute Book 2, Dec. 10, 1838, 164; John Patten, Affidavit, Oct. 28, 1839, in Johnson, *Mormon Redress Petitions*, 517; "To His Excellency, Daniel Dunklin," *The Evening and the Morning Star*, Dec. 1833, [2]; [Edward Partridge], "A History, of the Persecution," *Times and Seasons*, Dec. 1839, 1:18, in *JSP*, H2:209.
18. [Edward Partridge], "A History, of the Persecution," *Times and Seasons*, Dec. 1839, 1:18, in *JSP*, H2:209; Young, "What I Remember," 8.
19. Young, "What I Remember," 9. **주제: 계명의 책**
20. "Mary Elizabeth Rollins Lightner," *Utah Genealogical and Historical Magazine*, 1926, 17:195-96.

21. Young, "What I Remember," 7-8.
22. Edward Partridge, Affidavit, May 15, 1839, copy, Edward Partridge, Papers, Church History Library. 원본 출처에는 "신앙을 위해 고통을 감수하는 일은 어느 시대에도 있었소."라고 나와 있다.
23. Young, "What I Remember," 7;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327; "To His Excellency, Daniel Dunklin," *The Evening and the Morning Star*, Dec. 1833, [2].
24.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327-28; "To His Excellency, Daniel Dunklin," *The Evening and the Morning Star*, Dec. 1833, [2].
25. Edward Partridge, Affidavit, May 15, 1839, copy, Edward Partridge, Papers, Church History Library; "Tar and Feathers," *Deseret Weekly*, Dec. 23, 1893, 25-26; Young, "What I Remember," 7-8, 10;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327-28. **주제: 자경주의**
26. 교리와 성약 90:28~31(Revelation Mar. 8, 1833, at josephsmithpapers.org); Vienna Jaques, Statement, Feb. 22, 1859, Church History Library.
27. Vienna Jaques, Statement, Feb. 22, 1859, Church History Library; Young, "What I Remember," 8.
28. "Mary Elizabeth Rollins Lightner," *Utah Genealogical and Historical Magazine*, 1926, 17:196; Young, "What I Remember," 9.

제17장: 폭도들에게 목숨을 잃을지라도

1. "To His Excellency, Daniel Dunklin," *The Evening and the Morning Star*, Dec. 1833, [2]; Schaefer, *William E. McLellin's Lost Manuscript*, 167. McLellin's Lost Manuscript, 167.
2. Schaefer, *William E. McLellin's Lost Manuscript*, 166-67.
3. 교리와 성약 98:3(Revelation, Aug. 6, 1833, at josephsmithpapers.org).
4. Oliver Cowdery to Church Leaders in Jackson County, MO, Aug. 10, 1833, in *JSP*, D3:238, 240.
5. John Whitmer to Joseph Smith, July 29, 1833, in *JSP*, D3:186-98; "To His Excellency, Daniel Dunklin," *The Evening and the Morning Star*, Dec. 1833, [2]-[3].
6. Oliver Cowdery to Church Leaders in Jackson County, MO, Aug. 10, 1833, in *JSP*, D3:238-43.
7. Historical Introduction to Letter to Church Leaders in Jackson County, MO, Aug. 18, 1833, in *JSP*, D3:260. "닥터(Doctor)"는 직함이 아니라 험버트의 이름이다. **주제: 초기 교회의 반대 세력**
8. Joseph Smith to Church Leaders in Jackson County, MO, Aug. 18, 1833, in *JSP*, D3:258-69; Revised Plat of the City of Zion, circa Early Aug. 1833, in *JSP*, D3:243-58. **주제: 조셉 스미스의 계시**
9. [Edward Partridge], "A History, of the Persecution," *Times and Seasons*, Dec. 1839, 1:19, in *JSP*, H2:211; Historical Introduction to Letter, Oct. 30, 1833, in *JSP*, D3:331-35.
10. "To His Excellency, Daniel Dunklin," *The Evening and the Morning Star*, Dec. 1833, [2]-[3]; Joseph Smith to "Dear Brethren," Oct. 30, 1833, in *JSP*, D3:331-36; Edward Partridge to Joseph Smith, between Nov. 14 and 19, 1833, in *JSP*, D3:344-51.
11. Daniel Dunklin to Edward Partridge and others, Oct. 19, 1833, William W. Phelps, Collection of Missouri Documents, Church History Library; "To His Excellency, Daniel Dunklin," *The Evening and the Morning Star*, Dec. 1833, [3]; [Edward Partridge], "A History, of the Persecution," *Times and Seasons*, Dec. 1839, 1:19, in *JSP*, H2:212. **주제: 미국의 법적 제도와 정치 제도**
12. William W. Phelps and others to William T. Daniel Dunklin to Edward Partridge and others, Oct. 30, 1833, William W. Phelps, Collection of Missouri Documents, Church History Library.
13. [Edward Partridge], "A History, of the Persecution," *Times and Seasons*, Dec. 1839, 1:19, in *JSP*, H2:213.

14. Joseph Smith to "Dear Brethren," Oct. 30, 1833, in *JSP*, D3:336-41; "The Outrage in Jackson County, Missouri," *The Evening and the Morning Star*, Dec. 1833, [7].
15. Lydia B. [Hurlbut Whiting] English, Affidavit, in Johnson, *Mormon Redress Petitions*, 447-48. **주제: 잭슨군 폭력 사건**
16. [Edward Partridge], "A History, of the Persecution," *Times and Seasons*, Dec. 1839, 1:20, in *JSP*, H2:213-14.
17. Dibble, Reminiscences, [7]; Dibble, "Philo Dibble's Narrative," 82; [Edward Partridge], "A History, of the Persecution," *Times and Seasons*, Jan. 1840, 1:33, in *JSP*, H2:217. 목숨을 잃은 성도의 이름은 앤드루 바버였고, 폭도들의 이름은 토머스 린빌과 휴브리질이었다.(*JSP*, H2:57, note 173.)
18. Dibble, "Philo Dibble's Narrative," 83; Philo Dibble, Affidavit, Adams Co., IL, May 13, 1839, *Mormon Redress Petitions*, 1839-45, Church History Library.
19. Dibble, "Philo Dibble's Narrative," 83-84; Dibble, Reminiscences, [8].
20. Dibble, Reminiscences, [8].
21. "From Missouri," *The Evening and the Morning Star*, Jan. 1834, [5]; [Edward Partridge], "A History, of the Persecution," *Times and Seasons*, Jan. 1840, 1:33, in *JSP*, H2:218.
22. "The Outrage in Jackson County, Missouri," *The Evening and the Morning Star*, Dec. 1833, [8]; [Edward Partridge], "A History, of the Persecution," *Times and Seasons*, Jan. 1840, 1:33, in *JSP*, H2:217-19.
23. "From Missouri," *The Evening and the Morning Star*, Jan. 1834, [5]; Pratt, *History of the Late Persecution*, 19.
24. [Edward Partridge], "A History, of the Persecution," *Times and Seasons*, Jan. 1840, 1:34-35, in *JSP*, H2:219-20; "From Missouri," *The Evening and the Morning Star*, Jan. 1834, [5].
25. [William W. Phelps] to "Dear Brethren," Nov. 6-7, 1833, in *JSP*, D3:341.
26. Pratt, *History of the Late Persecution*, 20-22; Young, "Incidents in the Life of a Mormon Girl," 75-76; Lyman, *Journal*, 9.
27. Dibble, "Philo Dibble's Narrative," 84-85; Dibble, Reminiscences, [8]. **주제: 병 고침**
28. Edward Partridge to Joseph Smith, between Nov. 14 and 19, 1833, in *JSP*, D3:347; Emily Dow Partridge Young, "Autobiography," *Woman's Exponent*, Feb. 15, 1885, 13:138; Partridge, *Autobiographical Writings*, circa 1833-36, in Edward Partridge, *Miscellaneous Papers*, Church History Library; see also *JSP*, H1:192.
29. Joseph Smith, *Journal*, Nov. 13, 1833, in *JSP*, J1:16-17.

제18장: 이스라엘 진영

1. Joseph Smith, *Journal*, Nov. 14-19 and 25, 1833, in *JSP*, J1:18. **주제: 조셉 스미스의 계시**
2. "Grua, "Joseph Smith and the 1834 D. P. Hurlbut Case," 35-37" 참조. **주제: 초기 교회의 반대 세력**
3. Joseph Smith, *Journal*, Nov. 25, 1833, *JSP*, J1:20.
4. Joseph Smith to Edward Partridge and others, Dec. 10, 1833, *JSP*, D3:375-81; 또한 Joseph Smith to Church Leaders in Jackson County, MO, Aug. 18, 1833, *JSP*, D3:258-69; Joseph Smith to Emma Smith, June 6, 1832, *JSP*, D2:246-57; 교리와 성약 95편(Revelation, June 1, 1833, josephsmithpapers.org); 로마서 8:38-39 참조. "저희는 여러분이 고통을 겪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When we learn of your sufferings]가 원본 기록에는 "When we learn your sufferings"로 적혀 있다.
5. 교리와 성약 101:1~5, 17~18(Revelation, Dec. 16~17, 1833, josephsmithpapers.org); 또한 Grua, "Waiting for the Word of the Lord," 196-201.
6. 교리와 성약 101:43-62 (Revelation, Dec. 16-17, 1833, josephsmithpapers.org).
7. Wight, Reminiscences, 5-6; Pratt, *Autobiography*, 114; Minutes, Feb. 24, 1834, *JSP*, D3:453-57; "Elder John Brush," 23-24; William W. Phelps to "Dear Brethren," Dec. 15, 1833, *JSP*, D3:383.

8. Minutes, Feb. 24, 1834, *JSP*, D3:456-57. **주제: 시온 진영(이스라엘 진영)**
9. 교리와 성약 103:15, 27(Revelation, Feb. 24, 1834, josephsmithpapers.org); Woodruff, Journal, Apr. 1, 1834.
10. Woodruff, Journal, Apr. 1, 1834.
11. Woodruff, Journal, Apr. 11, 1834.
12. Woodruff, Journal, Apr. 26, 1834; Historian's Office, Brigham Young History Drafts, 1856-58, 3. **주제: 1세대 후기 성도의 일상**
13. Holbrook, Reminiscences, 34-35; Radke, "We Also Marched," 152-54, 160-61.
14. Woodruff, "History and Travels of *Zion's Camp*," 3-4; *JSP*, D4:138, note 182.
15. Holbrook, Reminiscences, 34; Woodruff, Journal, May 1, 1834;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477-78.
16. William W. Phelps to Joseph Smith, Dec. 15, 1833, *JSP*, D3:382-86; Robert W. Wells to Alexander Doniphan and David R. Atchison, Nov. 21, 1833, copy, William W. Phelps, Collection of Missouri Documents, Church History Library; Daniel Dunklin to David R. Atchison, Feb. 5, 1834, "Mormon Difficulties," *Missouri Intelligencer and Boon's Lick Advertiser*, Mar. 8, 1834, [1]. **주제: 시온 진영(이스라엘 진영)**
17. *It Becomes Our Duty to Address You on the Subject of Immediately Preparing* [Kirtland, OH: May 10, 1834], copy at Church History Library; Sidney Rigdon and Oliver Cowdery to "Dear Brethren," May 10, 1834, Cowdery, Letterbook, 49-50; Sidney Gilbert and others to Daniel Dunklin, Apr. 24, 1834, copy, William W. Phelps, Collection of Missouri Documents, Church History Library.
18. Kimball, "Journal and Record," 8; 또한 신명기 1장 참조.
19. Joseph Smith to Emma Smith, June 4, 1834, *JSP*, D4:52-59; Bradley, *Zion's Camp*, 27-28.
20. Joseph Smith to Emma Smith, June 4, 1834, *JSP*, D4:54.
21. Joseph Smith to Emma Smith, June 4, 1834, *JSP*, D4:52-59; "The Outrage in Jackson County, Missouri," *The Evening and the Morning Star*, June 1834, [8].
22. "Extracts from H. C. Kimball's Journal," *Times and Seasons*, Feb. 1, 1845, 6:788-89; George A. Smith, *Autobiography*, 29; Minutes, Aug. 28-29, 1834, *JSP*, D4:125.
23. Minutes, Aug. 28-29, 1834, *JSP*, D4:129-30, 강조체 추가.
24. Minutes, Aug. 28-29, 1834, *JSP*, D4:129-30. **주제: 교회 내 불화**
25. Kimball, "Journal and Record," 11; 또한 Crawley and Anderson, "Political and Social Realities of *Zion's Camp*," 413 참조.
26. Kimball, "Journal and Record," 11;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477-78.
27. Knight, Reminiscences, 36. 이 문장["If the sisters are willing to undergo a siege with the camp they can all go along with it.]은 원본 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과거 시제로 기록되어 있다. "if the sisters were willing to undergo a siege with the camp they could all go along with it."
28. Holbrook, Reminiscences, 36.
29. George A. Smith, *Autobiography*, 33; Pratt, *Autobiography*, 123-24; Daniel Dunklin to John Thornton, June 6, 1834, "The Mormons," *Missouri Intelligencer and Boon's Lick Advertiser*, July 5, 1834, [2].
30. Rich, Diary, June 14, 1834.
31. George A. Smith, *Autobiography*, 36; "Extracts from H. C. Kimball's Journal," *Times and Seasons*, Feb. 1, 1845, 6:789. **주제: 노예 제도와 노예 제도의 폐지**
32. George A. Smith, *Autobiography*, 36-37; McBride, Reminiscences, 5; "Extracts from H. C. Kimball's Journal," *Times and Seasons*, Feb. 1, 1845, 6:789-90.
33. Hancock, *Autobiography*, 145; Holbrook, Reminiscences, 37.
34. George A. Smith, "My Journal," 216; George A. Smith, *Autobiography*, 37; McBride, Reminiscences, 5-6; "Extracts from H. C. Kimball's Journal," *Times and Seasons*, Feb. 1, 1845, 6:790.
35. "Extracts from H. C. Kimball's Journal," *Times and Seasons*, Feb. 1, 1845, 6:790; George A. Smith, *Autobiography*, 37; Woodruff, Journal, May 1834.
36.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2, 332

37.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496-97; "Extracts from H. C. Kimball's Journal," *Times and Seasons*, Feb. 1, 1845, 6:790.
38. Declaration, June 21, 1834, *JSP*, D4:65-69; George A. Smith, *Autobiography*, 38; Holbrook, Reminiscences, 37-38; McBride, Reminiscences, 6;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497-98; "Propositions, c. of the 'Mormons,'" *The Evening and the Morning Star*, July 1834, [8].
39. George A. Smith, *Autobiography*, 39-40; McBride, Reminiscences, 6; Holbrook, Reminiscences, 38; Baldwin, Account of *Zion's Camp*, 13;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497-98.
40. 교리와 성약 105편(Revelation, June 22, 1834, josephsmithpapers.org). **주제: 권능의 언다우먼트**
41. Historical Introduction to Revelation, June 22, 1834 [DC 105], *JSP*, D4:70-72 참조.
42. Account with the Church of Christ, circa Aug. 11-29, 1834, *JSP*, D4:135-55; 교리와 성약 105편(Revelation, June 22, 1834, josephsmithpapers.org).
43. Wilford Woodruff, *Journal of Discourses*, Dec. 12, 1869, 13:158.
44. Wilford Woodruff, *Journal of Discourses*, July 27, 1862, 10:14; Minute Book 2, Nov. 5, 1834.

제19장: 성역을 위임받은 청지기들

1. Holbrook, "History of Joseph Holbrook," 17-18.
2. Woodruff, Journal, [June 1834].
3.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505. **주제: 병 고침**
4.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506; addenda, 16, note 18.
5. "Afflicting," *The Evening and the Morning Star*, July 1834, [8];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509.
6. George A. Smith, in *Journal of Discourses*, Nov. 15, 1864, 11:8; Joseph Smith, Journal, Jan. 11, 1834, in *JSP*, J1:25; "A Mormon Battle," *Erie Gazette*, July 31, 1834, [3].
7. Note, Mar. 8, 1832, in *JSP*, D2:201-4; Minutes, Feb. 17, 1834, in *JSP*, D3:435-39. **주제: 제일회장단: 와드와 스테이크**
8. Minutes, Feb. 17, 1834, in *JSP*, D3:435-39. **주제: 고등평의회**
9. Minutes and Discourse, circa July 7, 1834, in *JSP*, D4:90-96.
10. See Robison, *First Mormon Temple*, 45-58; Bushman, *Rough Stone Rolling*, 306-8; and Staker, *Hearken, O Ye People*, 401-34.
11. Kimball, "Journal and Record," 20.
12. Ames, *Autobiography and Journal*, [10]; see also Probert and Manscill, "Artemus Millet," 60-62.
13.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B-1, 553; Johnson, Reminiscences and Journal, 17-18; Staker, *Hearken, O Ye People*, 421-26, 436. **주제: 커틀랜드 성전**
14. Kimball, "Journal and Record," 20.
15. Tippets, *Autobiography*, [9]-[10]; 또한. 교리와 성약 101:67~73(Revelation, Dec. 16-17, 1833, at josephsmithpapers.org).
16. 교리와 성약 101:70~73(Revelation, Dec. 16-17, 1833, at josephsmithpapers.org).
17. Tippets, *Autobiography*, [8]-[10]; Minutes, Nov. 28, 1834, in *JSP*, D4:182-88; Editorial Note 그리고 Joseph Smith, Journal, Nov. 29, 1834, in *JSP*, J1:46-47.
18. See Staker, *Hearken, O Ye People*, 412-28, 435-37.
19. 다음 자료를 참조한다. 교리와 성약 90:28~29(Revelation, Mar. 8, 1833, at josephsmithpapers.org); Tullidge, *Women of Mormondom*, 441; Staker, *Hearken, O Ye People*, 436, notes 8-9; Joseph Smith, Journal, Sept. 23, 1835, in *JSP*, J1:62; and Ames, *Autobiography and Journal*, [12].

20. Ames, Autobiography and Journal, [10]; Corrill, *Brief History*, 21, in *JSP*, H2:151; Joseph Young to Lewis Harvey, Nov. 16, 1880, Church History Library; Robison, *First Mormon Temple*, 50.
21. Tippets, Autobiography, [11]-[12]; Minute Book 1, Nov. 29-30, 1834; Editorial Note and Joseph Smith, Journal, Nov. 29, 1834, in *JSP*, J1:46-47.
22. 교리와 성약 18편(Revelation, June 1829-B, at josephsmithpapers.org).
23. 교리와 성약 102:30(Revised Minutes, Feb. 18-19, 1834, at josephsmithpapers.org).
24. Young, *History of the Organization of the Seventies*, 1.
25. Minutes, Discourse, and Blessings, Feb. 14-15, 1835, in *JSP*, D4:219-28. **주제: 십이사도 정원회**
26. Patten, Journal, [1]-[2], [4]-[14].
27. See biographical entries for Luke Johnson, Lyman Eugene Johnson, Parley Parker Pratt, and Orson Pratt, Joseph Smith Papers website, josephsmithpapers.org.
28. See biographical entries for Orson Hyde, William Earl McLellan, John Farnham Boynton, and William B. Smith, Joseph Smith Papers website, josephsmithpapers.org.
29.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B-1, 574; Minutes and Blessings, Feb. 21, 1835, in *JSP*, D4:237-47.
30. 누가복음 10:1. **주제: 칠십인 정원회**
31. Minutes and Blessings, Feb. 28-Mar. 1, 1835, in *JSP*, D4:255-64;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B-1, 577-78; Minutes, Aug. 11, 1834, in *JSP*, D4:97-101; Minutes, Aug. 23, 1834, in *JSP*, D4:108-9; Minutes, Aug. 28-29, 1834, in *JSP*, D4:120-35; Sylvester Smith to Oliver Cowdery, Oct. 28, 1834, in *LDS Messenger and Advocate*, Oct. 1834, 1:10-11.
32. Young, *History of the Organization of the Seventies*, 14.

제20장: 나를 버리지 말아 줘

1. William W. Phelps to Sally Waterman Phelps, June 2, 1835, in *JSP*, D4:335-36; William W. Phelps to Sally Waterman Phelps, in Historian's Office, Journal *History of the Church*, July 20, 1835; 이 도입부는 윌리엄 터블유 펠프스의 손자가 소장한 원본 편지에서 발췌하였다. **주제: 오하이오주 커틀랜드**
2. Historical Introduction to Book of Abraham Manuscript, circa Early July-circa Nov. 1835-A [Abraham 1:4-2:6], in *JSP*, D5:71-77; "Egyptian Antiquities," *Times and Seasons*, May 2, 1842, 3:774.
3.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B-1, 595-96; "Egyptian Antiquities," *Times and Seasons*, May 2, 1842, 3:774; Oliver Cowdery to William Frye, Dec. 22, 1835, in Oliver Cowdery, Letterbook, 68-74; "Egyptian Mummies," *LDS Messenger and Advocate*, Dec. 1835, 2:234-35; Certificate from Michael Chandler, July 6, 1835, in *JSP*, D4:361-65.
4. "Egyptian Mummies," *LDS Messenger and Advocate*, Dec. 1835, 2:234-35; 또한 "Egyptian Papyri," at josephsmithpapers.org 참조.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B-1, 595-96; "Egyptian Antiquities," *Times and Seasons*, May 2, 1842, 3:774; Oliver Cowdery to William Frye, Dec. 22, 1835, in Oliver Cowdery, Letterbook, 68-74; "Egyptian Mummies," *LDS Messenger and Advocate*, Dec. 1835, 2:234-35; Certificate from Michael Chandler, July 6, 1835, in *JSP*, D4:361-65.
5. Historical Introduction to Certificate from Michael Chandler, July 6, 1835, in *JSP*, D4:362; Tullidge, "History of Provo City," 283; William W. Phelps to Sally Waterman Phelps, in Historian's Office, Journal *History of the Church*, July 20, 1835; 물문서 9:32.
6.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B-1, 596; Oliver Cowdery to William Frye, Dec. 22, 1835, in Oliver Cowdery, Letterbook, 68-74; Historical Introduction to Certificate from Michael Chandler, July 6, 1835, in *JSP*, D4:362; Tullidge, "History of Provo City," 283.
7. *JSP*, D4:363, note9; Joseph Coe to Joseph Smith, Jan. 1, 1844, Joseph Smith Collection, Church History Library; Orson Pratt, in *Journal of Discourses*, Aug. 25, 1878, 20:65.
8. Joseph Coe to Joseph Smith, Jan. 1, 1844, Joseph Smith Collection, Church History Library; Peterson, *Story of the Book of Abraham*, 6-8.

9. William W. Phelps to Sally Waterman Phelps, in Historian's Office, Journal *History of the Church*, July 20, 1835. **주제: 아브라함서 번역**
10. Lyman and others, *No Place to Call Home*, 44.
11. William W. Phelps to Sally Waterman Phelps, in Historian's Office, Journal *History of the Church*, July 20, 1835; "The House of God," *LDS Messenger and Advocate*, July 1835, 1:147; 또한 Robison, *First Mormon Temple*, 153 참조.
12. "Short Sketch of the Life of Levi Jackman," 17. **주제: 성찬식**
13. Staker, *Hearken, O Ye People*, map 8, 413; Anderson, *Joseph Smith's Kirtland*, 155; Lysander Gee to Joseph Millet, July 18, 1885, copy, in Millet, Record Book, 34; Probert and Manscill, "Artemus Millet," 60.
14. Millet, "J. Millet on Cape Breton Island," 93-94; Probert and Manscill, "Artemus Millet," 64.
15. Minutes, Sept. 14, 1835, in *JSP*, D4:414-15; 교리와 성약 25편(Revelation, July 1830-C, at josephsmithpapers.org); Minutes, Apr. 30, 1832, in *JSP*, D2:240; 또한 Hicks, *Mormonism and Music* 참조. **주제: 찬송가**
16. *Collection of Sacred Hymns*, 120-21; Backman, *Heavens Resound*, 281-82; Robinson, "Items of Personal History," *Return*, Apr. 1889, 58; William W. Phelps to Sally Waterman Phelps, Sept. 16, 1835, Church History Library; Historical Introduction to Revelation, Aug. 2, 1833-B [DC 94], in *JSP*, D3:203-4; William W. Phelps to Sally Waterman Phelps, May 26, 1835, William W. Phelps, Papers, Brigham Young University; Preface to Doctrine and Covenants, Feb. 17, 1835, in *JSP*, D4:234-37.
17. Minutes, Aug. 17, 1835, in *JSP*, D4:382-96. **주제: 교리와 성약; 신학 강의("신학 강좌")**
18. Minutes, June 23, 1834, in *JSP*, D4:80-84; Joseph Smith, Journal, Oct. 29, 1835, in *JSP*, J1:76-77.
19. Joseph Smith, Journal, Oct. 29, 1835, in *JSP*, J1:77; Minutes, Oct. 29, 1835, in *JSP*, D5:26-29; 또한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11, [4]-[5] 참조. **주제: 교회의 선도 조직**
20. Joseph Smith, Journal, Oct. 29 and 30, 1835, in *JSP*, J1:77-79.
21. Knight, Autobiography and Journal, [63]; Gates, *Lydia Knight's History*, 16-23; Hartley, "Newel and Lydia Bailey Knight's Kirtland Love Story," 10-14.
22. Knight, Autobiography and Journal, [56]. **주제: 1세대 후기 성도의 일상**
23. Gates, *Lydia Knight's History*, 26-27.
24. Knight, Autobiography and Journal, [60]-[63]; Gates, *Lydia Knight's History*, 10-12; Hartley, "Newel and Lydia Bailey Knight's Kirtland Love Story," 9-10.
25. Knight, Autobiography and Journal, [56]. 원본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그녀의 상황을 생각해 볼 때, 그녀도 나처럼 외로운 삶을 사는 것 같다고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26. Knight, Autobiography and Journal, [56]; Gates, *Lydia Knight's History*, 27.
27. Joseph Smith, Journal, Oct. 30, 1835, in *JSP*, J1:79.
28. Joseph Smith, Journal, Oct. 30-31, 1835, in *JSP*, J1:79-80.
29. Joseph Smith, Journal, Oct. 31, 1835, in *JSP*, J1:80.
30. Joseph Smith, Journal, Oct. 31 Nov. 3, 1835, in *JSP*, J1:80, 83; Revelation, Nov. 3, 1835, in *JSP*, D5:32-36.
31. Tyler, "Recollection of the Prophet Joseph Smith," 127-28 참조. **주제: 교회 내 불화**
32. Historical Introduction to Marriage License for John F. Boynton and Susan Lowell, Nov. 17, 1835, in *JSP*, D5:65-66; 또한 Bradshaw, "Joseph Smith's Performance of Marriages in Ohio," 23-69 참조.
33. Knight, Autobiography and Journal, [56]-[59]; Gates, *Lydia Knight's History*, 28-31; Joseph Smith, Journal, Nov. 24, 1835, in *JSP*, J1:109-10; Hartley, "Newel and Lydia Bailey Knight's Kirtland Love Story," 6-22.
34. See Bushman, *Rough Stone Rolling*, 298-300; and Joseph Smith, Journal, Nov. 8 and Dec. 12, 1835; Jan. 16, 1836, in *JSP*, J1:86, 120, 158.
35. Joseph Smith, Journal, Nov. 18, Dec. 12 16, 1835, in *JSP*, J1:106, 120-21, 124.
36. Historical Introduction to Letter from William Smith, Dec. 18, 1835, in *JSP*, D5:112; Joseph Smith, Journal, Dec. 16, 1835, in *JSP*, J1:124; Joseph Smith History, 1834-36, 149-50, in *JSP*, H1:147-48; Joseph Smith to William Smith, circa Dec. 18, 1835, in *JSP*, D5:115-21.

37. William Smith to Joseph Smith, Dec. 18, 1835, in *JSP*, D5:109-15; Joseph Smith, Journal, Dec. 18, 1835, in *JSP*, J1:129-30.
38. William Smith to Joseph Smith, Dec. 18, 1835, in *JSP*, D5:114; Joseph Smith, Journal, Dec. 18, 1835, in *JSP*, J1:130.
39. Joseph Smith to William Smith, circa Dec. 18, 1835, in *JSP*, D5:115-21; Joseph Smith, Journal, Dec. 18, 1835, in *JSP*, J1:131-34.
40. Joseph Smith, Journal, Jan. 1, 1836, in *JSP*, J1:141.

제21장: 하나님의 영

1. Robison, *First Mormon Temple*, 78-79; Staker, *Hearken, O Ye People*, 437. **주제: 커틀랜드 성전**
2. Whitmer, History, 83, in *JSP*, H2:92; Joseph Smith, Journal, Nov. 12, 1835, in *JSP*, J1:97-98; 레위기 8장; 출애굽기 29:4~7.
3. 누가복음 24:49; 사도행전 1~2장; 또한 교리와 성약 38편(Revelation, Jan. 2, 1831, at josephsmithpapers.org); William W. Phelps to Sally Waterman Phelps, Apr. 1836, William W. Phelps, Papers, Brigham Young University 참조. 원문에서는 누가복음 24장 49절의 철자를 “endued”에서 “endowed”로 현대화함. **주제: 권능의 엔다우먼트; 땅언의 은사**
4. Joseph Smith, Journal, Jan. 21, 1836, in *JSP*, J1:166-71; Cowdery, Diary, Jan. 21, 1836; Partridge, Journal, Jan. 21, 1836.
5. Joseph Smith, Journal, Jan. 21, 1836, in *JSP*, J1:167-68; 교리와 성약 137편(Visions, Jan. 21, 1836, at josephsmithpapers.org).
6. Joseph Smith, Journal, Jan. 21, 1836, in *JSP*, J1:168-71.
7. Joseph Smith, Journal, Mar. 27, 1836, in *JSP*, J1:200; Post, Journal, Mar. 27, 1836; William W. Phelps to Sally Waterman Phelps, Apr. 1-3, 1836, in Harper, “Pentecost and Endowment Indeed,” 346.
8. Gates, *Lydia Knight’s History*, 32.
9. Joseph Smith, Journal, Mar. 27, 1836, in *JSP*, J1:200-201; Gates, *Lydia Knight’s History*, 32-33.
10. Joseph Smith, Journal, Mar. 27, 1836, in *JSP*, J1:200.
11. Minutes and Prayer of Dedication, Mar. 27, 1836, in *JSP*, D5:194-99; Joseph Smith, Journal, Mar. 27, 1836, in *JSP*, J1:203; Cowdery, Diary, Mar. 26, 1836. **주제: 성전 헌납과 헌납 기도**
12. 교리와 성약 109편 (Minutes and Prayer of Dedication, Mar. 27, 1836, at josephsmithpapers.org); Joseph Smith, Journal, Mar. 27, 1836, in *JSP*, J1:203-10.
13. 교리와 성약 109:35-38 (Minutes and Prayer of Dedication, Mar. 27, 1836, at josephsmithpapers.org); Joseph Smith, Journal, Mar. 27, 1836, in *JSP*, J1:207.
14. 교리와 성약 109:78 (Minutes and Prayer of Dedication, Mar. 27, 1836, at josephsmithpapers.org); Joseph Smith, Journal, Mar. 27, 1836, in *JSP*, J1:210.
15. *Collection of Sacred Hymns*, 120-21; Joseph Smith, Journal, Mar. 27, 1836, in *JSP*, J1:210. **주제: 찬송가**
16. Joseph Smith, Journal, Mar. 27, 1836, in *JSP*, J1:211; Minutes and Prayer of Dedication, Mar. 27, 1836, in *JSP*, D5:209; Gates, *Lydia Knight’s History*, 33.
17. Benjamin Brown to Sarah M. Brown, Mar. 1836, Benjamin Brown Family Collection; *JSP*, J1:211, note 443; 또한 Harper, “Pentecost and Endowment Indeed,” 336 참조.
18. **주제: 밭 씻음**
19. Joseph Smith, Journal, Mar. 27 그리고 30, 1836, in *JSP*, J1:211, 213-16; Post, Journal, Mar. 27-28 그리고 30, 1836; Cowdery, Diary, Mar. 27, 1836; William W. Phelps to Sally Waterman Phelps, Apr. 1836, William W. Phelps, Papers, Brigham Young University; Partridge, Journal, Mar. 27, 1836;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B-1, addenda, 3-4; 또한 Waite, “A School and an Endowment,” 174-82 참조. **주제: 권능의 엔다우먼트; 성회**
20. Joseph Smith, Journal, Apr. 3, 1836, in *JSP*, J1:219; 또한 *JSP*, J1:218 참조.

21. Joseph Smith, Journal, Apr. 3, 1836, in *JSP*, J1:219; 교리와 성약 110:1~3 (Visions, Apr. 3, 1836, at josephsmithpapers.org).
22. Joseph Smith, Journal, Apr. 3, 1836, in *JSP*, J1:219; 교리와 성약 110:3, 6~7 (Visions, Apr. 3, 1836, at josephsmithpapers.org).
23. 교리와 성약 110:8~10 (Visions, Apr. 3, 1836, at josephsmithpapers.org); Joseph Smith, Journal, Apr. 3, 1836, in *JSP*, J1:222.
24. 교리와 성약 110:11~16 (Visions, Apr. 3, 1836, at josephsmithpapers.org); 말라기 4:6; Joseph Smith, Journal, Apr. 3, 1836, in *JSP*, J1:222; 또한 Robert B. Thompson, Sermon Notes, Oct. 5, 1840, Joseph Smith Collection, Church History Library; Coray, Notebook, Aug. 13, 1843; Joseph Smith, Journal, Aug. 27, 1843, in *JSP*, J3:86; 그리고 Woodruff, Journal, Mar. 10, 1844 참조.
25. Joseph Smith, Journal, Apr. 3, 1836, in *JSP*, J1:222.
26. Woodruff, Journal, Jan. 21, 1844; 또한 Burgess, Journal, [303]–[6]; 교리와 성약 128:17~18 (Letter to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 Day Saints,” Sept. 6, 1842, at josephsmithpapers.org) 참조. **주제: 인봉**
27.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B–1, 728–29; Whitmer, History, 84, in *JSP*, H2:93.
28. Gates, *Lydia Knight’s History*, 34–37; Knight, Autobiography and Journal, [67]–[68]. **주제: 축복사의 축복**
29.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B–1, 733; 또한 *Collection of Sacred Hymns*, 120 참조.

제22장: 주님을 시험하라

1. See, for example, JS, Journal, Mar. 30, 1836, in *JSP*, J1:216.
2. Backman, *Heavens Resound*, 304–5; Tyler, “Incidents of Experience,” 32.
3. Minutes, Mar. 30, 1836, in *JSP*, D5:219.
4. 교리와 성약 105:28(Revelation, June 22, 1834, at josephsmithpapers.org); Minutes, Apr. 2, 1836, in *JSP*, D5:223–24.
5. Minutes, Nov. 2, 1836, in *JSP*, D5:222–24.
6. “Anniversary of the Church of Latter Day Saints,” *LDS Messenger and Advocate*, Apr. 1837, 2:488; Kimball, “Journal and Record,” 33; Minute Book 1, June 16, 1836; see also Historical Introduction to Revelation, Aug. 6, 1836, in *JSP*, D5:272–74. **주제: 캐나다**
7. Pratt, *Autobiography*, 141, 145; see also Givens and Grow, *Parley P. Pratt*, 82.
8. Pratt, *Autobiography*, 141–42.
9. See Givens and Grow, *Parley P. Pratt*, 71, 82, 91.
10. Pratt, *Autobiography*, 142, 145–46. 원문은 다음과 같다. “그분이 하시지 못한 일이 있는지 보라.”
11. Emily Dow Partridge Young, “Autobiography,” *Woman’s Exponent*, Feb. 15, 1885, 13:138.
12. Joseph Smith to Lyman Wight and Others, Aug. 16, 1834, in *JSP*, D4:102–8; Emily Dow Partridge Young, “Autobiography,” *Woman’s Exponent*, Mar. 1, 1885, 13:145; Partridge, History, Manuscript, circa 1839, [18].
13. Emily Dow Partridge Young, “Autobiography,” *Woman’s Exponent*, Feb. 15, 1885, 13:138. **주제: 1세대 후기 성도의 일상**
14. Partridge, Journal, June 29, 1836; Emily Dow Partridge Young, “Autobiography,” *Woman’s Exponent*, Feb. 15, 1885, 13:138; “Public Meeting,” *LDS Messenger and Advocate*, Aug. 1836, 2:363–64; Partridge, History, Manuscript, circa 1839, [17]–[18].
15. Emily Dow Partridge Young, “Autobiography,” *Woman’s Exponent*, Feb. 15, 1885, 13:138.
16. Pratt, *Autobiography*, 146.
17. John Taylor, Sermon, Oct. 6, 1866, George D. Watt Papers, Church History Library, as transcribed by LaJean Purcell Carruth.
18. Pratt, *Autobiography*, 147.
19. John Taylor, Sermon, Oct. 6, 1866, George D. Watt Papers, Church History Library, as transcribed by LaJean Purcell Carruth.

20. Pratt, *Autobiography*, 164-65; "Diary of Joseph Fielding," book 1, 5. 원문은 다음과 같다. "함께 집회에 가시죠."
21. "Diary of Joseph Fielding," book 1, 5; Pratt, *Autobiography*, 165-66.
22. Pratt, *Autobiography*, 166.
23. John Taylor, "History of John Taylor by Himself," 10-11, in Histories of the Twelve, Church History Library.
24. Jonathan Crosby, *Autobiography*, 14; Caroline Barnes Crosby, *Reminiscences*, [19].
25. Jonathan Crosby, *Autobiography*, 14-15; Caroline Barnes Crosby, *Reminiscences*, [15], [19]-[20].
26. Caroline Barnes Crosby, *Reminiscences*, [21]-[22].
27. Historical Introduction to Letter to William W. Phelps and Others, July 25, 1836, in *JSP*, D5:269; Partridge, *Journal*, June 29, 1836; "Public Meeting," *LDS Messenger and Advocate*, Aug. 1836, 2:359-61; Partridge, *History, Manuscript*, circa 1839, [17]-[18].
28. Sidney Rigdon and Others to William W. Phelps and Others, July 25, 1836, in *JSP*, D5:268-71.
29. Minutes, Apr. 2, 1836, in *JSP*, D5:222-24; Historical Introduction to Revelation, Apr. 23, 1834, in *JSP*, D4:19-22.
30. Minutes, June 16, 1836, in *JSP*, D5:247-53; Staker, "Raising Money in Righteousness," 144-53; Staker, *Hearken, O Ye People*, 445-46; Brigham Young, in *Journal of Discourses*, Oct. 9, 1852, 1:215; Oct. 8, 1855, 3:121.
31. Historical Introduction to Revelation, Aug. 6, 1836, in *JSP*, D5:271-75; see also Kuehn, "More Treasures Than One," 229-34.
32. 교리와 성약 111:1, 5-6(Revelation, Aug. 6, 1836, at josephsmithpapers.org). 영문에 "on"이 추가되었다. 원본에는 "이 여행을 온 것[coming this journey]"으로 되어 있다.

제23장: 어떠한 댓이 놓일지라도

1. Jonathan Crosby, *Autobiography*, 15; Caroline Barnes Crosby, *Reminiscences*, [53]-[54]; see also Lyman and others, *No Place to Call Home*, 46.
2. Historical Introduction to Constitution of the Kirtland Safety Society Bank, Nov. 2, 1836, in *JSP*, D5:300; "Part 5: 5 October 1836-10 April 1837," in *JSP*, D5:285-90; Staker, *Hearken, O Ye People*, 463. **주제: 카틀랜드 세이프티 소사이어티**
3. Kirtland Safety Society Notes, Jan. 4-Mar. 9, 1837, in *JSP*, D5:331-40; Staker, *Hearken, O Ye People*, 463-64; Historical Introduction to Constitution of the Kirtland Safety Society Bank, Nov. 2, 1836, in *JSP*, D5:302.
4. Mortgage to Peter French, Oct. 5, 1836, in *JSP*, D5:293-99; Kirtland Safety Society, *Stock Ledger*, 1836-37; "Part 5: 5 October 1836-10 April 1837," in *JSP*, D5:285-86; Staker, *Hearken, O Ye People*, 464.
5. Historical Introduction to Constitution of the Kirtland Safety Society Bank, Nov. 2, 1836, in *JSP*, D5:303; *JSP*, D5:304, note 91; "Minutes of a Meeting," *LDS Messenger and Advocate*, Mar. 1837, 3:476-77; Staker, *Hearken, O Ye People*, 465.
6. Historical Introduction to Kirtland Safety Society Notes, Jan. 4-Mar. 9, 1837, in *JSP*, D5:331;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B-1, 750; Articles of Agreement for the Kirtland Safety Society Anti-Banking Company, Jan. 2, 1837, in *JSP*, D5:324, 329-31; see also Isaiah 60:9, 17; 62:1.
7. Woodruff, *Journal*, Jan. 6, 1837.
8. Jonathan Crosby, *Autobiography*, 14-15.
9. Caroline Barnes Crosby, *Reminiscences*, [39].
10. "Part 5: 5 October 1836-10 April 1837," in *JSP*, D5:286; Kirtland Safety Society Notes, Jan. 4-Mar. 9, 1837, in *JSP*, D5:331-35.
11. Woodruff, *Journal*, Jan. 6, 1837; Kirtland Safety Society Notes, Jan. 4-Mar. 9, 1837, in *JSP*, D5:331-40.

12. Editorial, *LDS Messenger and Advocate*, July 1837, 3:536; Willard Richards to Hepzibah Richards, Jan. 20, 1837, Levi Richards Family Correspondence, Church History Library; Historical Introduction to Mortgage to Peter French, Oct. 5, 1836, in *JSP*, D5:295; "Part 5: 5 October 1836-10 April 1837," in *JSP*, D5:286; Staker, *Hearken, O Ye People*, 481.
13. Ulrich, "Leaving Home," 451; see also Kirtland Safety Society, Stock Ledger, 1836-37.
14. Tullidge, *Women of Mormondom*, 412.
15. Woodruff, Journal, Apr. 1837. 주제: 축복사의 축복
16. Phebe Carter to Family, circa 1836, in Wilford Woodruff Collection, Church History Library.
17. Woodruff, Journal, Apr. 1837.
18. Woodruff, Journal, Apr. 10, 1837.
19. Staker, *Hearken, O Ye People*, 481-84.
20. Hall, *Thomas Newell*, 132-34; Adams, "Grandison Newell's Obsession," 160-63.
21. "The Court of Common Pleas," *Chardon Spectator and Geauga Gazette*, Oct. 30, 1835, 2; Eber D. Howe, Statement, Apr. 8, 1885; Maria S. Hurlbut, Statement, Apr. 15, 1885, in Collection of Manuscripts about Mormons, 1832-54, Chicago History Museum; Adams, "Grandison Newell's Obsession," 168-73.
22. Young, Account Book, Jan. 1837; "Our Village," *LDS Messenger and Advocate*, Jan. 1837, 3:444; Staker, *Hearken, O Ye People*, 482; see also Agreement with David Cartter, Jan. 14, 1837, in *JSP*, D5:341-43; and Agreement with Ovid Pinney and Stephen Phillips, Mar. 14, 1837, in *JSP*, D5:344-48. 주제: 초기 교회의 반대 세력
23. An Act to Prohibit the Issuing and Circulating of Unauthorized Bank Paper [Jan. 27, 1816], *Statutes of the State of Ohio*, 136-39; "Part 5: 5 October 1836-10 April 1837," in *JSP*, D5:288-89.
24. Staker, *Hearken, O Ye People*, 468-77.
25. Staker, *Hearken, O Ye People*, 484; *JSP*, D5:287, note 19; 329, note 187.
26. Kirtland Safety Society, Stock Ledger, 219; Staker, *Hearken, O Ye People*, 391.
27. Woodruff, Journal, June 28, 1835; *JSP*, D4:72, note 334; "Parrish, Warren Farr," Biographical Entry, Joseph Smith Papers website, josephsmithpapers.org; see also Staker, *Hearken, O Ye People*, 465, 480.
28. Kimball, "History," 47-48; Staker, *Hearken, O Ye People*, 482-84; "A New Revelation—Mormon Money," *Cleveland Weekly Gazette*, Jan. 18, 1837, [3]; "Mormon Currency," *Cleveland Daily Gazette*, Jan. 20, 1837, 2; "Rags! Mere Rags!!," *Ohio Star*, Jan. 19, 1837; Jonathan Crosby, Autobiography, 16; Woodruff, Journal, Jan. 24 and Apr. 9, 1837; "Part 5: 5 October 1836-10 April 1837," in *JSP*, D5:287-90.
29. "Bank of Monroe," *Painesville Republican*, Feb. 9, 1837, [2]; "Monroe Bank," *Painesville Telegraph*, Feb. 24, 1837, [3]; "Kirtland,—Mormonism," *LDS Messenger and Advocate*, Apr. 1837, 3:490-91; "Part 5: 5 October 1836-10 April 1837," in *JSP*, D5:291; Staker, *Hearken, O Ye People*, 492-501.
30. Woodruff, Journal, Jan. 10 and 17, 1837; Feb. 19, 1837; Charges against Joseph Smith Preferred to Bishop's Council, May 29, 1837, in *JSP*, D5:393-97.
31. Woodruff, Journal, Apr. 19, 1837.
32. Woodruff, Journal, Apr. 6, 1837.
33. Joseph Smith, Discourse, Apr. 6, 1837, in *JSP*, D5:352-57.
34. Woodruff, Journal, Apr. 6, 1837.
35. "For the Republican," *Painesville Republican*, Feb. 16, 1837, [2]-[3]; Staker, *Hearken, O Ye People*, 498; "Joseph Smith Documents from October 1835 through January 1838," in *JSP*, D5:xxx.
36. Transcript of Proceedings, June 5, 1837, State of Ohio on Complaint of Newell v. Smith, Geauga County, Ohio, Court of Common Pleas Record Book T, 52-53, Geauga County Archives and Records Center, Chardon, Ohio; Woodruff, Journal, May 30, 1837; Hall, *Thomas Newell*, 135; Historical Introduction to Letter from Newel K. Whitney, Apr. 20, 1837, in *JSP*, D5:367-69.

37. Woodruff, Journal, Apr. 13, 1837; see also “The Humbug Ended,” *Painesville Republican*, June 15, 1837, [2].
38. Historical Introduction to Letter from Emma Smith, Apr. 25, 1837, in *JSP*, D5:371.
39. Newel K. Whitney to Joseph Smith and Sidney Rigdon, Apr. 20, 1837, in *JSP*, D5:370.
40. Emma Smith to Joseph Smith, Apr. 25, 1837, in *JSP*, D5:372; Emma Smith to Joseph Smith, May 3, 1837, in *JSP*, D5:376. **주제: 조셉과 에머 헤일 스미스 가족**
41. Emma Smith to Joseph Smith, Apr. 25, 1837, in *JSP*, D5:372.
42. Emma Smith to Joseph Smith, May 3, 1837, in *JSP*, D5:375-76. **주제: 에머 헤일 스미스**
43. Woodruff, Journal, Mar. 26, 1837; Pratt, *Autobiography*, 181-83; Givens and Grow, *Parley P. Pratt*, 92.
44. Pratt, *Autobiography*, 181-83, 188; Geauga County, Ohio, Probate Court, Marriage Records, 1806-1920, volume C, 220, May 14, 1837, microfilm 873, 464, U.S. and Canada Record Collection, Family History Library; Givens and Grow, *Parley P. Pratt*, 93-95; Thomas B. Marsh and David W. Patten to Parley P. Pratt, May 10, 1837, in Joseph Smith Letterbook 2, 62-63.
45. Pratt, *Autobiography*, 183; Historical Introduction to Notes Receivable from Chester Store, May 22, 1837, in *JSP*, D5:383-84; Historical Introduction to Letter from Parley P. Pratt, May 23, 1837, in *JSP*, D5:386-87.
46. Historical Introduction to Letter from Parley P. Pratt, May 23, 1837, in *JSP*, D5:386-87.
47. See Givens and Grow, *Parley P. Pratt*, 97-98.
48. Parley P. Pratt to Joseph Smith, May 23, 1837, in *JSP*, D5:389-91. 팔리의 편지는 이듬해에 적대적인 신문에 처음으로 실렸다. For further analysis, see Historical Introduction to Letter from Parley P. Pratt, May 23, 1837, in *JSP*, D5:386-89; and Pratt, *Autobiography*, 183-84.
49. Woodruff, Journal, May 28, 1831. **주제: 교회 내 불화**
50. Woodruff, Journal, May 31 and July 16, 1837; Woodruff, *Leaves from My Journal*, 26; see also Ulrich, *House Full of Females*, 17-18. **주제: 초기 선교사들**
51. “Joseph Smith Documents from October 1835 through January 1838,” in *JSP*, D5:xxxii.
52. Woodruff, Journal, May 28, 1837; West, Few Interesting Facts, 14.
53. Woodruff, Journal, May 28, 1837.

제24장: 진리는 이기리

1. Plewe, *Mapping Mormonism*, 48-49; “Joseph Smith Documents from October 1835 through January 1838,” in *JSP*, D5:xxvi-xxvii; “Far West, Missouri,” Geographical Entry, Joseph Smith Papers website, josephsmithpapers.org. **주제: 시온/새 예루살렘**
2. Thomas B. Marsh and David W. Patten to Parley P. Pratt, May 10, 1837, in Joseph Smith Letterbook 2, 62-63.
3. Allen and others, *Men with a Mission*, 22. **주제: 커틀랜드 세이프티 소사이어티**
4. Kimball, “History,” 54; Whitney, *Life of Heber C. Kimball*, 116. **주제: 영국: 초기 선교사들**
5. Kimball, “History,” 54.
6. Kimball, “History,” 55.
7. Kimball, “History,” 55.
8. Tullidge, *Women of Mormondom*, 113-15; Whitney, *Life of Heber C. Kimball*, 120-22.
9. Jonathan Crosby, *Autobiography*, 16; Joseph Smith and Others, Mortgage to Mead, Stafford & Co., July 11, 1837, in *JSP*, D5:404-10.
10. Jonathan Crosby, *Autobiography*, 16; Caroline Barnes Crosby, *Reminiscences*, [39]-[41].
11. Jonathan Crosby, *Autobiography*, 16-17. 원본에는 “음식들이 아니라 “음식”으로, “형제님께 선물을 드리고 싶었어요.”가 아니라 “선물을 드리고 싶었어요.”로 되어 있다.
12. Jonathan Crosby, *Autobiography*, 17; Caroline Barnes Crosby, *Reminiscences*, [41].
13. Mary Fielding to Mercy Fielding, circa June 1837, Mary Fielding Smith Collection, Church History Library; see also Whitney, *Life of Heber C. Kimball*, 112-14. **주제: 교회 내 불화**

14. Mary Fielding to Mercy Fielding, circa June 1837, Mary Fielding Smith Collection, Church History Library.
15. John Taylor, "History of John Taylor by Himself," 15, in Historian's Office, Histories of the Twelve, Church History Library; see also Roberts, *Life of John Taylor*, 40; and Parley P. Pratt to Joseph Smith, May 23, 1837, in *JSP*, D5:386-91.
16.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B-1, 762; Mary Fielding to Mercy Fielding, circa June 1837, Mary Fielding Smith Collection, Church History Library.
17.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B-1, 763; Warren Parrish, Letter to the Editor, *Painesville Republican*, Feb. 15, 1838, [3].
18. Mary Fielding to Mercy Fielding, circa June 1837, Mary Fielding Smith Collection, Church History Library.
19. Fielding, Journal, 17; Kimball, "History," 60, 62; Watt, *Mormon Passage of George D. Watt*, 17; see also Ostler, "Photo Essay of Church History Sites in Liverpool and the Ribble Valley," 61-78. **주제: 영국**
20. Whitney, *Life of Heber C. Kimball*, 133; Allen and others, *Men with a Mission*, 25-29.
21. Fielding, Journal, 17; "Mission to England," *LDS Millennial Star*, Apr. 1841, 12:290; Kimball, "History," 60; Whitney, *Life of Heber C. Kimball*, 134.
22. Joseph Fielding to Mary Fielding and Mercy Fielding Thompson, Oct. 2, 1837, Mary Fielding Smith Collection, Church History Library; "Mission to England," *LDS Millennial Star*, Apr. 1841, 12:290; Fielding, Journal, 17-18.
23. Givens and Grow, *Parley P. Pratt*, 101; Kirtland Safety Society, Stock Ledger, 47.
24. "History of Thomas Baldwin Marsh," 5, in Historian's Office, Histories of the Twelve, Church History Library.
25. *Parley P. Pratt*, "To the Public," *Elders' Journal*, Aug. 1838, 50-51.
26. Pratt, *Autobiography*, 183-84; John Taylor, "History of John Taylor by Himself," 15, in Historian's Office, Histories of the Twelve, Church History Library; see also Givens and Grow, *Parley P. Pratt*, 102.
27. "History of Thomas Baldwin Marsh," 5, in Historian's Office, Histories of the Twelve, Church History Library; Woodruff, Journal, June 25, 1857; see also Historical Introduction to Revelation, July 23, 1837 [교리와 성약 112편], in *JSP*, D5:410-12.
28. See Cook, "I Have Sinned against Heaven," 392-93; and Historical Introduction to Revelation, July 23, 1837 [교리와 성약 112편], in *JSP*, D5:410-11.
29. 교리와 성약 112:1~2 (Revelation, July 23, 1837, at josephsmithpapers.org) 참조.
30. Historical Introduction to Revelation, July 23, 1837 [교리와 성약 112편], in *JSP*, D5:410-14.
31. **주제: 제일회장단: 십이사도 정원회**
32. 교리와 성약 112편 (Revelation, July 23, 1837, at josephsmithpapers.org); see also Darowski, "The Faith and Fall of Thomas Marsh," 54-60.

제25장: 서쪽으로

1. Kimball, "History," 62-63; see also *Illustrated Itinerary of the County of Lancaster*, 159. **주제: 병 고침**
2. Kimball, "History," 63-64.
3.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14, [8]; Snow, *Biography and Family Record of Lorenzo Snow*, 20-21; "Cowdery, Oliver," Biographical Entry, Joseph Smith Papers website, josephsmithpapers.org; see also Huntington, Diary and Reminiscences, 28-29. **주제: 교회 내 불화**
4. Historical Introduction to Minutes, Sept. 3, 1837, in *JSP*, D5:420-22; Mary Fielding to Mercy Fielding Thompson, circa Aug. 30, 1837, Mary Fielding Smith Collection, Church History Library; Huntington, Diary and Reminiscences, 28-29; Esplin, "Emergence of Brigham Young," 295-96.

5. Minutes, Aug. 3, 1837, in *JSP*, D5:422-23. **주제: 만장일치**
6. Mary Fielding to Mercy Fielding Thompson, Oct. 7, 1837, Mary Fielding Smith Collection, Church History Library; Minutes, Nov. 7, 1837, in *JSP*, D5:468-72; Minutes, Nov. 10, 1837, in *JSP*, D5:472-76; see also Minutes, Sept. 17, 1837-B, in *JSP*, D5:444-46. **주제: 파웨스트**
7. Historical Introduction to Revelation, Sept. 4, 1837, in *JSP*, D5:431-33; Thomas B. Marsh to Wilford Woodruff, *Elders' Journal*, July 1838, 36-38; Minute Book 2, Apr. 7, 1837.
8. Williams, "Frederick Granger Williams of the First Presidency of the Church," 256.
9. Oliver Cowdery to Lyman Cowdery, Jan. 13, 1834, in Cowdery, Letterbook, 19; Romig, *Eighth Witness*, 314-15.
10. Minutes, Sept. 17, 1837-A, in *JSP*, D5:442-43; Joseph Smith to John Corrill and the Church in Missouri, Sept. 4, 1837, in *JSP*, D5:426-31.
11. Hyrum Smith Family Bible. **주제: 하이럼 스미스**
12. Historical Introduction to Letter from Thomas B. Marsh, Feb. 15, 1838, in *JSP*, D6:12; Jenson, "Plural Marriage," *Historical Record*, May 1887, 6:232-33; "Report of Elders Orson Pratt and Joseph F. Smith," *LDS Millennial Star*, Dec. 16, 1878, 40:788. **주제: 조셉 스미스와 복수결혼**
13. Lorenzo Snow, Affidavit, Aug. 28, 1869, Joseph F. Smith, Affidavits about Celestial Marriage, Church History Library; Tullidge, *Women of Mormondom*, 368.
14. Benjamin F. Johnson to George F. Gibbs, circa Apr.-circa Oct. 1903, Benjamin Franklin Johnson, Papers, Church History Library; Mosiah Hancock, Narrative, in Levi Hancock, *Autobiography*, circa 1896, 63; Historical Introduction to Minutes and Blessings, Feb. 28-Mar. 1, 1835, in *JSP*, D4:255; Minutes and Blessings, Feb. 28-Mar. 1, 1835, in *JSP*, D4:259; Young, *History of the Organization of the Seventies*, 4. **주제: 페니 앨저**
15. Mosiah Hancock, Narrative, in Levi Hancock, *Autobiography*, circa 1896, 63; Historical Introduction to Letter from Thomas B. Marsh, Feb. 15, 1838, in *JSP*, D6:12; see also Andrew Jenson, Research Notes, Andrew Jenson Collection, Church History Library; Benjamin F. Johnson to George F. Gibbs, circa Apr.-circa Oct. 1903, Benjamin Franklin Johnson, Papers, Church History Library; Eliza Jane Churchill Webb to Mary Bond, Apr. 24, 1876; Eliza Jane Churchill Webb to Mary H. Bond, May 4, 1876, Biographical Folder Collection (labeled Myron H. Bond), Community of Christ Library-Archives; and Bradley, "Relationship of Joseph Smith and Fanny Alger," 14-58.
16. Mosiah Hancock, Narrative, in Levi Hancock, *Autobiography*, circa 1896, 63.
17. Mosiah Hancock, Narrative, in Levi Hancock, *Autobiography*, circa 1896, 63; Eliza Churchill Webb to Myron H. Bond, May, 4, 1876, Biographical Folder Collection (labeled Myron H. Bond), Community of Christ Library-Archives; Historical Introduction to Letter from Thomas B. Marsh, Feb. 15, 1838, in *JSP*, D6:13; Tullidge, *Women of Mormondom*, 368.
18. Benjamin F. Johnson to George F. Gibbs, circa Apr.-circa Oct. 1903, Benjamin Franklin Johnson, Papers, Church History Library.
19. Hales, *Joseph Smith's Polygamy*, 1:123.
20. Historical Introduction to Letter from Thomas B. Marsh, Feb. 15, 1838, in *JSP*, D6:13; see also Minutes, Apr. 12, 1838, in *JSP*, D6:91; and Oliver Cowdery to Warren Cowdery, Jan. 21, 1838, in Cowdery, Letterbook, 80-83.
21. Benjamin F. Johnson to George F. Gibbs, circa Apr.-circa Oct. 1903, Benjamin Franklin Johnson, Papers, Church History Library. 이 편지는 페니 앨저가 조셉 스미스와 자신의 관계에 관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한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22. Historical Introduction to Travel Account and Questions, Nov. 1837, in *JSP*, D5:478-80.
23. Woodruff, Journal, Aug. 18, 1837; Historical Introduction to Letter from Wilford Woodruff and Jonathan H. Hale, Sept. 18, 1837, in *JSP*, D5:447-48; 이사야 11:11.
24. Woodruff, *Leaves from My Journal*, 34.
25. Woodruff, Journal, July 12 and Aug. 20, 1837; Woodruff, *Leaves from My Journal*, 30-31; Historical Introduction to Letter from Wilford Woodruff and Jonathan H. Hale, Sept. 18, 1837, in *JSP*, D5:447-48.
26. Woodruff, Journal, Aug. 8-18, 1837.

27. Woodruff, Journal, Aug. 20, 1837.
28. Woodruff, *Leaves from My Journal*, 33; Woodruff, Journal, Aug. 20-25, 1837.
29. Woodruff, Journal, Aug. 27, 1837; Hale, Journal, Aug. 27, 1837.
30. Woodruff, Journal, Aug. 27 and Sept. 3, 1837; Hale, Journal, Aug. 27 and Sept. 3, 1837.
31. Woodruff, *Leaves from My Journal*, 33-34; Woodruff, Journal, Sept. 3-4, 1837.
32. See Romig, *Eighth Witness*, 305-8.
33. Hyrum Smith Family Bible; Travel Account and Questions, Nov. 1837, in *JSP*, D5:480-81;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B-1, 775.
34. Minutes, Nov. 6, 1837, in *JSP*, D5:464-68; Minutes, Nov. 7, 1837, in *JSP*, D5:468-72.
35. Samuel Smith to Hyrum Smith, Oct. 13, 1837, Hyrum Smith, Papers, Church History Library; Obituary for Jerusha T. Smith, *Elders' Journal*, Oct. 1837, 16; Lucy Mack Smith, History, 1845, 34;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miscellany, [11].
36.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B-1, 775.
37. Oliver Cowdery to Warren Cowdery, Jan. 21, 1838, in Cowdery, Letterbook, 81.
38. Oliver Cowdery to Warren Cowdery, Jan. 21, 1838, in Cowdery, Letterbook, 81.
39.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B-1, 779; Samuel Smith to Hyrum Smith, Oct. 13, 1837, Hyrum Smith, Papers, Church History Library; Obituary for Jerusha T. Smith, *Elders' Journal*, Oct. 1837, 16; Lucy Mack Smith, History, 1845, 34;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miscellany, [11].
40. Smith, *Life of Joseph F. Smith*, 41-42, 120.
41. Mary Fielding to Mercy Fielding, circa June 1837; Mary Fielding to Mercy Fielding Thompson, July 8, 1837; Mary Fielding to Mercy Fielding Thompson and Robert Thompson, Oct. 7, 1837, Mary Fielding Smith Collection, Church History Library.
42. Hyrum Smith Family Bible; Geauga County, Ohio, Probate Court, Marriage Records, 1806-1920, volume C, 262, microfilm 873, 461, U.S. and Canada Record Collection, Family History Library; Smith, *Life of Joseph F. Smith*, 120.
43. Vilate Murray Kimball to Heber C. Kimball, Jan. 19-24, 1838, Heber C. Kimball, Collection, Church History Library;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B-1, 779; Thomas B. Marsh to Wilford Woodruff, in *Elders' Journal*, July 1838, 36-37; John Smith and Clarissa Smith to George A. Smith, Jan. 1, 1838, George Albert Smith, Papers, Church History Library; Hepzibah Richards to Willard Richards, Jan. 18, 1838, Willard Richards, Journals and Papers, Church History Library.
44. Vilate Murray Kimball to Heber C. Kimball, Jan. 19-24, 1838, Heber C. Kimball, Collection, Church History Library; Historical Introduction to Revelation, Jan. 12, 1838-A, in *JSP*, D5:495-96.
45. Vilate Murray Kimball to Heber C. Kimball, Jan. 19-24, 1838, Heber C. Kimball, Collection, Church History Library. 원본 편지에는 “물론경과 성약을 믿지만”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여기서 “성약”은 교리와 성약을 가리키는 말이다.
46. Vilate Murray Kimball to Heber C. Kimball, Jan. 19-24, 1838; Marinda Johnson Hyde to Orson Hyde, Jan. 29, 1838, Heber C. Kimball, Collection, Church History Library;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B-1, 779; Thomas B. Marsh to Wilford Woodruff, in *Elders' Journal*, July 1838, 36-37; John Smith and Clarissa Smith to George A. Smith, Jan. 1, 1838, George Albert Smith, Papers, Church History Library; Hepzibah Richards to Willard Richards, Jan. 18, 1838, Willard Richards, Journals and Papers, Church History Library; Historical Introduction to Revelation, Jan. 12, 1838-A, in *JSP*, D5:495-96.
47. Warren Parrish to “The Editor of the Painesville Republican,” *Painesville Republican*, Feb. 15, 1838, [3]; Warren Parrish to Asahel Woodruff, Sept. 9, 1838, Wilford Woodruff, Collection, Church History Library.
48. Vilate Murray Kimball to Heber C. Kimball, Jan. 19-24, 1838, Heber C. Kimball, Collection, Church History Library. 원본 편지에는 “그중에는 제가 사랑하고, 좋은 감정을 갖고 있으며, 안타깝게 여기는 이도 있어요.”라는 문구가 쓰였다.
49. Vilate Murray Kimball to Heber C. Kimball, Jan. 19-24, 1838, Heber C. Kimball, Collection, Church History Library; 또한 교리와 성약 101:5(Revelation, Dec. 16-17, 1833, at josephsmithpapers.org) 참조.

50.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B-1, 780; "History of Luke Johnson," *LDS Millennial Star*, Jan. 7, 1865, 27-5.
51. Revelation, Jan. 12, 1838-C, in *JSP*, D5:501-2.
52.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B-1, 780.
53.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B-1, 780; Historical Introduction to Revelation, Jan. 12, 1838-C, in *JSP*, D5:500-501.

제26장: 기록하고 성별된 땅

1. Oliver Cowdery to Joseph Smith, Jan. 21, 1838, in *JSP*, D5:502-5; Oliver Cowdery to Warren Cowdery and Lyman Cowdery, Feb. 4, 1838, in Cowdery, Letterbook, 83;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B-1, 780.
2. Oliver Cowdery to Joseph Smith, Jan. 21, 1838, in *JSP*, D5:502-5; Minute Book 2, Jan. 20, 1838.
3. Minute Book 2, Jan. 20 and 26, 1838; Oliver Cowdery to Warren Cowdery and Lyman Cowdery, Feb. 4, 1838, in Cowdery, Letterbook, 83-86; Phineas H. Young to Brigham Young and Willard Richards, Dec. 14, 1842, Brigham Young Office Files, Church History Library; see also Doctrine and Covenants 42:30-36 (Revelation, Feb. 9, 1831, at josephsmithpapers.org); Doctrine and Covenants 58:34-36 (Revelation, Aug. 1, 1831, at josephsmithpapers.org); and Doctrine and Covenants 105:28-29 (Revelation, June 22, 1834, at josephsmithpapers.org).
4. Minute Book 2, Jan. 26 and Feb. 5-9, 10, 1838; Oliver Cowdery to Warren Cowdery and Lyman Cowdery, Feb. 4, 1838; Oliver Cowdery to Warren Cowdery and Lyman Cowdery, Feb. 24, 1838, in Cowdery, Letterbook, 85, 87-90. **주제: 고등평의회; 교회의 선도 조치**
5. Oliver Cowdery to Warren Cowdery and Lyman Cowdery, Feb. 4, 1838, in Cowdery, Letterbook, 85-87.
6. Oliver Cowdery to Warren Cowdery and Lyman Cowdery, Feb. 24, 1838, in Cowdery, Letterbook, 88.
7. Oliver Cowdery to Warren Cowdery, Jan. 21, 1838; Oliver Cowdery to Warren Cowdery and Lyman Cowdery, Feb. 4, 1838; Oliver Cowdery to Warren Cowdery and Lyman Cowdery, Feb. 24, 1838, in Cowdery, Letterbook, 80-96; see also Bushman, "Oliver's Joseph," 1-13. **주제: 올리버 카우드리**
8. Thompson, *Journal of Heber C. Kimball*, 65; Whitney, *Life of Heber C. Kimball*, 154.
9. See Pickup, *Pick and Flower of England*, 61-63.
10. Whitney, *Life of Heber C. Kimball*, 154-57.
11. Joseph Smith, Journal, Mar.-Sept. 1838, 16, in *JSP*, J1:237; Joseph Smith to the Presidency in Kirtland, Ohio, Mar. 29, 1838, in *JSP*, D6:57-59.
12. Joseph Smith to the Presidency in Kirtland, Ohio, Mar. 29, 1838, in *JSP*, D6:57-59.
13. Minutes, Apr. 12, 1838, in *JSP*, D6:83-94; Synopsis of Oliver Cowdery Trial, Apr. 12, 1838, in *JSP*, J1:251-55.
14. Minutes, Apr. 12, 1838, in *JSP*, D6:87-89; Synopsis of Oliver Cowdery Trial, Apr. 12, 1838, in *JSP*, J1:254.
15. Minutes, Apr. 12, 1838, in *JSP*, D6:91.
16. Minutes, Apr. 12, 1838, in *JSP*, D6:89-94; Synopsis of Oliver Cowdery Trial, Apr. 12, 1838, in *JSP*, J1:254-55. **주제: 교회의 선도 조치; 올리버 카우드리**
17. Thompson, *Journal of Heber C. Kimball*, 76; Kimball, On the Potter's Wheel, 23.
18. Whitney, *Life of Heber C. Kimball*, 157; Richards, Journal, Mar. 22, 1838.
19. Allen and others, *Men with a Mission*, 17-19, 46-47. **주제: 초기 선교사들; 영국**
20. Allen and others, *Men with a Mission*, 9, 17, 19, 46-47; Whitney, *Life of Heber C. Kimball*, 174, 191.
21. Richards, Journal, Mar. 22, 1838; Thompson, *Journal of Heber C. Kimball*, 21; Kimball, "Journal and Record," 64; Allen and others, *Men with a Mission*, 61-62; Whitney, *Life of Heber C. Kimball*, 157.

22. Kimball, *Journal of Heber C. Kimball*, 32.
23. Fielding, *Journal*, 59–63; Allen and others, *Men with a Mission*, 52–53.
24. 고리와 성약 115편(Revelation, Apr. 26, 1838, at josephsmithpapers.org). **주제: 교회 이름; 파웨스트**
25. Joseph Smith, *Journal*, May 18–June 1, 1838, in *JSP*, J1:270–71.
26. Walker, “Mormon Land Rights in Caldwell and Daviess Counties,” 28–30.
27. LeSueur, “Missouri’s Failed Compromise,” 134–35.
28. Joseph Smith, *Journal*, May 18–June 1, 1838, in *JSP*, J1:270–71; “Part 1: 15 February–28 June 1838,” in *JSP*, D6:163.
29. Joseph Smith, *Journal*, May 18–June 1, 1838, in *JSP*, J1:271; Doctrine and Covenants 107:53 (Revelation, circa Apr. 1835, at josephsmithpapers.org); Olmstead, “Far West and Adam–ondi–Ahman,” 237–38; Doctrine and Covenants 27:11 (Revelation, circa Aug. 1835, at josephsmithpapers.org); Historical Introduction to Revelation, circa Aug. 1835, in *JSP*, D4:408–9.
30. Joseph Smith, *Journal*, May 18–June 1, 1838, in *JSP*, J1:271;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B–1, 798. **주제: 아담–온다이–아만**
31. Minutes, June 28, 1838, in *JSP*, D6:162–67.

제27장: 우리에게 자유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1. Woodruff, *Journal*, Apr. 26–June 12, 1838.
2. Woodruff, *Journal*, June 12 and July 1, 1838.
3. Woodruff, *Journal*, June 30, 1838.
4. Woodruff, *Journal*, July 1, 1838.
5. Woodruff, *Journal*, July 1, 1838.
6. Woodruff, *Journal*, July 3, 1838.
7. “History of John E. Page,” *LDS Millennial Star*, Feb. 18, 1865, 27:103.
8. Kirtland Camp, *Journal*, Mar. 6, 10, and 13, 1838; Baugh, “Kirtland Camp, 1838,” 58–61.
주제: 이스라엘의 집합; 칠십인 정의회
9. “Celebration of the 4th of July,” *Elders’ Journal*, Aug. 1838, 60.
10. Synopsis of David Whitmer and Lyman Johnson Trials, Apr. 13, 1838, in *JSP*, J1:256–57.
11. Joseph Smith, *Journal*, May 11, 1838, in *JSP*, J1:268; “History of William E. Mc. Lellin,” 2–3, in Historian’s Office, *Histories of the Twelve*, Church History Library.
12. Corrill, *Brief History*, 30, in *JSP*, H2:165–66; Reed Peck to “Dear Friends,” Sept. 18, 1839, 20–25, Henry E. Huntington Library, San Marino, CA; *JSP*, H2:97, note 295; see also Matthew 5:13. **주제: 교회 내 불화**
13. Corrill, *Brief History*, 30, in *JSP*, H2:165–66; Reed Peck to “Dear Friends,” Sept. 18, 1839, 22–23, Henry E. Huntington Library, San Marino, CA; *JSP*, H2:97, note 295.
14. *JSP*, D6:170, note 6; “Peace and Violence among 19th–Century Latter–day Saints,” Gospel Topics, topics.lds.org. **주제: 단 단원**
15. Corrill, *Brief History*, 30–31, in *JSP*, H2:166–67; Sampson Avard and Others to Oliver Cowdery and Others, circa June 17, 1838; Constitution of the Society of the Daughter of Zion, circa Early July 1838, Mormon War Papers, Missouri State Archives, Jefferson City; Joseph Smith, *Journal*, July 27, 1838; Editorial Note, in *JSP*, J1:274–75, 293; “Part 2: 8 July–29 October 1838,” in *JSP*, D6:169–70.
16. “Celebration of the 4th of July,” *Elders’ Journal*, Aug. 1838, 60; Joseph Smith, *Journal*, July 4, 1838, in *JSP*, J1:275–76.
17. *Oration Delivered by Mr. S. Rigdon on the 4th of July*, 1838, 3–12. **주제: 시드니 리그돈**
18. “Celebration of the 4th of July,” *Elders’ Journal*, Aug. 1838, 60; Pratt, *Autobiography*, 190; Ebenezer Robinson, “Items of Personal History of the Editor,” *Return*, Oct. 1889, 149.
19. Eunice Ross Kinney to Wingfield Watson, Sept. 1891, 2–3, typescript, Wingfield Watson, Correspondence, Church History Library.

20. 1840 U.S. Census, Van Buren, Wayne Co., MI, 255[B]; 1850 U.S. Census, Burlington, Racine Co., WI, 152[B]; 1870 U.S. Census, Suamico, Brown Co., WI, 422[A]. Full biographical research for Eunice Ross Franklin (Kinney) and Charles O. Franklin in possession of editors. **주제: 일라이자 에이블**
21. Elder's Certificate for Elijah Able, Mar. 31, 1836, in Kirtland Elders' Certificates, 61; Nuttall, Diary, May 31, 1879, 29; Reeve, *Religion of a Different Color*, 196-97.
22. Eunice Ross Kinney to Wingfield Watson, Sept. 1891, 1-2, typescript, Wingfield Watson, Correspondence, Church History Library.
23. Eunice Ross Kinney to Wingfield Watson, Sept. 1891, 2-3, typescript, Wingfield Watson, Correspondence, Church History Library; 베드로전서 4:12.
24. Eunice Ross Kinney to Wingfield Watson, Sept. 1891, 3, typescript, Wingfield Watson, Correspondence, Church History Library.
25. See Kerber, "Abolitionists and Amalgamators," 28-30. **주제: 노예 제도와 노예 제도의 폐지**
26. Eunice Ross Kinney to Wingfield Watson, Sept. 1891, 3-4, typescript, Wingfield Watson, Correspondence, Church History Library.
27. Selections from *Elders' Journal*, Aug. 1838, in *JSP*, D6:216-17; Joseph Smith, Journal, Aug. 1-3, 1838, in *JSP*, J1:296; *Oration Delivered by Mr. S. Rigdon on the 4th of July*, 1838 (Far West, MO: Journal Office, 1838).
28. 교리와 성약 115:13(Revelation, Aug. 26, 1838, at josephsmithpapers.org).
29. Historical Introduction to Revelation, July 8, 1838-C, in *JSP*, D6:184-87.
30. Minute Book 2, Dec. 6-7, 1837; Harper, "Tithing of My People."
31. Joseph Smith, Journal, July 6, 1838, in *JSP*, J1:278-80; Kimball, "History," 84.
32. See "Organizational Charts," in *JSP*, D6:672-74.
33. 교리와 성약 117:5-6, 12-15(Revelation, Feb. 8, 1838-E, at josephsmithpapers.org). **주제: 조셉 스미스의 계서**
34. 교리와 성약 119편(Revelation, July 8, 1838-C, at josephsmithpapers.org); Joseph Smith, Journal, July 8, 1838, in *JSP*, J1:288. **주제: 감독; 헌납과 청지기 직분**
35. 교리와 성약 118(Revelation, July 8, 1838-A, at josephsmithpapers.org); see also Tait and Orton, "Take Special Care of Your Family," 242-49.
36. 교리와 성약 118:6(Revelation, July 8, 1838-A, at josephsmithpapers.org); Minutes, *Elders' Journal*, Aug. 1838, 61;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B-1, 803. **주제: 십이사도 정원회**
37. Woodruff, Journal, July 14, 1838.
38. Woodruff, Journal, July 16, 1838.
39. Woodruff, Journal, July 20, 1838.
40. Woodruff, Journal, July 30, 1838.
41. Woodruff, Journal, Aug. 9, 1838; Woodruff, *Leaves from My Journal*, 51.

제28장: 할 만큼 했기에

1. Butler, "Short History," 17-18; Hartley, *My Best for the Kingdom*, 39; Durham, "Election Day Battle at Gallatin," 39-40.
2. Butler, "Short History," 17; Hartley, *My Best for the Kingdom*, 48-50.
3. Butler, "Short History," 15-16; Hartley, *My Best for the Kingdom*, 39; Durham, "Election Day Battle at Gallatin," 39-40.
4. Butler, "Short Account of an Affray," [I]; Rigdon, *Appeal to the American People*, 17-18.
5. Britton, Early Days on Grand River, 6-7; Butler, "Short History," 18; Corrill, *Brief History*, 28, in *JSP*, H2:162-63.
6. Historian's Office, Journal *History of the Church*, Aug. 6, 1838; Butler, "Short History," 18; Butler, "Short Account of an Affray," [I].

7. John D. Lee and Levi Steward, Statement, circa 1845, in Joseph Smith History Documents, 1839-60, Church History Library; Butler, "Short Account of an Affray," [I]; see also Greene, *Facts Relative to the Expulsion*, 18.
8. Butler, "Short History," 18; Butler, "Short Account of an Affray," [I]; Hartley, *My Best for the Kingdom*, 11.
9. Butler, "Short History," 18; Butler, "Short Account of an Affray," [I].
10. Butler, "Short Account of an Affray," [I]-[4].
11. Butler, "Short History," 19.
12. Butler, "Short Account of an Affray," [4]; Butler, "Short History," 18. 원본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자 그들은 나를 포로로 잡아가야겠다고 말했다. 나는 내가 법을 준수하는 사람이므로 폭도들에게 재판받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주제: 1838년 몰몬 미주리 전쟁**
13. Butler, "Short History," 20.
14. Affidavit, Sept. 5, 1838, in *JSP*, D6:223-25; Joseph Smith, Journal, Aug. 7-9 and 10, 1838, in *JSP*, J1:298-301; see also *JSP*, J1:300, note 225. **주제: 단 단원**
15. Joseph Smith, Journal, Aug. 11, 13, and 16-18, 1838, in *JSP*, J1:302-4; *JSP*, J1:303, note 234; 304, notes 237-38; see also "Public Meeting," Missouri Republican, Sept. 8, 1838, [I], "for the country" edition.
16. Historical Introduction to Discourse, Aug. 12, 1838, in *JSP*, D6:213; "The Mormons in Carroll County," Missouri Republican, Aug. 18, 1838, [2]; "Public Meeting," Missouri Republican, Sept. 3, 1838, [2]; Corroll, *Brief History*, 35, in *JSP*, H2:173-74; *JSP*, D6:534, note 326. **주제: 자경주의**
17. Recognizance, Sept. 7, 1838, in *JSP*, D6:226-28; "The Mormon Difficulties," *Niles' National Register*, Oct. 13, 1838, 103; Joseph Smith, Journal, Sept. 2, 4, and 7, 1838, in *JSP*, J1:312-13, 314, 316-17.
18. Joseph Smith to Stephen Post, Sept. 17, 1838, in *JSP*, D6:244.
19. Woodruff, Journal, Aug. 31, 1838.
20. Woodruff, Journal, Aug. 11, 1838.
21. "On Leaving Home," in Phebe Carter Woodruff, Autograph Book, Church History Library.
22. Woodruff, Journal, Sept. 11 and 25, 1838. "나"라는 단어가 문장의 명료성을 위해 추가됨.
23. Woodruff, Journal, Sept. 11 and 15; Sept. 25-Oct. 1, 1838.
24. Woodruff, Journal, Sept. 24-25, 1838.
25. Woodruff, Journal, Sept. 11, 22-25, 1838; Oct. 3-4, 1838; see also Ruth 1:15-16.
26.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B-1, 830; Rockwood, Journal, Oct. 1838-Jan. 1839, Oct. 29, 1838; "De Witt, Missouri," Geographical Entry, Joseph Smith Papers website, josephsmithpapers.org.
27. *History of Carroll County, Missouri*, 249-50; Murdock, Journal, 95; "Part 3: 4 November 1838-16 April 1839," in *JSP*, D6:365.
28. *History of Carroll County, Missouri*, 250-52; Joseph Dickson to Lilburn W. Boggs, Sept. 6, 1838; David Atchison to Lilburn W. Boggs, Sept. 17, 1838, Mormon War Papers, Missouri State Archives, Jefferson City;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B-1, 827-28; Citizens of De Witt, MO, to Lilburn W. Boggs, Sept. 22, 1838, copy, Mormon War Papers, Missouri State Archives.
29. "Biographies of the Seventies of the Second Quorum," 208-9, in Seventies Quorum Records, Church History Library; Horace G. Whitney, "Nauvoo Brass Band," *Contributor*, Mar. 1880, 134; Baugh, *Call to Arms*, 67.
30. "Biographies of the Seventies of the Second Quorum," 208-10, in Seventies Quorum Records, Church History Library;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B-1, 828, 831; Baugh, *Call to Arms*, 67; *History of Carroll County, Missouri*, 251-52; Murdock, Journal, 100-102.
31.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B-1, 833-35; *History of Carroll County, Missouri*, 253; Sidney Rigdon, Testimony, July 1, 1843, [3], Nauvoo, IL, Records, Church History Library.
32. Switzler, *Switzler's Illustrated History of Missouri*, [246].
33. Joseph Smith, Bill of Damages, June 4, 1839, in *JSP*, D6:496-97;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B-1, 834-35; see also Switzler, *Switzler's Illustrated History of Missouri*, [246]; *History of Carroll County, Missouri*, 255.

34.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B-1, 833-36; Joseph Smith, Bill of Damages, June 4, 1839, in *JSP*, D6:497-98.
35. "Biographies of the Seventies of the Second Quorum," 209, in Seventies Quorum Records, Church History Library.
36.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B-1, 836-37; Rockwood, Journal, Oct. 1838-Jan. 1839, Oct. 14, 15, and Nov. 11, 1838.
37. Reed Peck to "Dear Friends," Sept. 18, 1839, 78-80, Henry E. Huntington Library, San Marino, CA. **주제: 미국의 법적 계도와 정치 계도**
38. Corrill, *Brief History*, 36, in *JSP*, H2:176. **주제: 1838년 몰몬 미주리 전쟁**

제29장: 하나님과 자유

1. Memorial to the U.S.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circa Oct. 30, 1839-Jan. 27, 1840, in *JSP*, 7:159-60.
2. Rigdon, *Appeal to the American People*, 41-42; *Document Containing the Correspondence*, 99, 124-26; Baugh, *Call to Arms*, 84-85.
3. Memorial to the U.S.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circa Oct. 30, 1839-Jan. 27, 1840, 22, in *JSP*, D7:162; Rigdon, *Appeal to the American People*, 43; Hyrum Smith, Testimony, July 1, 1843, Nauvoo, IL, Records, Church History Library; Rigdon, *Appeal to the American People*, 43; see also Baugh, *Call to Arms*, 85, 95, note 30.
4. Rigdon, *Appeal to the American People*, 43.
5. Rigdon, *Appeal to the American People*, 41-42; *Document Containing the Correspondence*, 99, 124-26; Baugh, *Call to Arms*, 84-86.
6. Historical Introduction to Agreement with Jacob Stollings, Apr. 12, 1839, in *JSP*, D6:417; Sampson Avard, Testimony, Nov. 12, 1838, 7, Mormon War Papers, Missouri State Archives, Jefferson City; Corrill, *Brief History*, 37, in *JSP*, H2:177; Huntington, Diary and Reminiscences, 22-23.
7. Corrill, *Brief History*, 37, in *JSP*, H2:177; Reed Peck to "Dear Friends," Sept. 18, 1839, 85, Henry E. Huntington Library, San Marino, CA; Philip Covington, Statement, Sept. 2, 1838, Mormon War Papers, Missouri State Archives, Jefferson City; Huntington, Diary and Reminiscences, 22; J. H. McGee, Porter Yale, and Patrick Lynch, Testimonies, in *Document Containing the Correspondence*, 141-43, 145. **주제: 1838년 몰몬 미주리 전쟁**
8. Baugh, *Call to Arms*, 87; see also Huntington, Diary and Reminiscences, 22.
9. George A. Smith, in *Journal of Discourses*, Apr. 6, 1856, 3:283-84.
10. "History of Brigham Young," *LDS Millennial Star*, June 25, 1864, 26:406.
11. See Thomas B. Marsh and Orson Hyde to Lewis Marsh and Ann Marsh Abbott, Oct. 25-30, 1838, in Joseph Smith Letterbook 2, 18-19; "Part 3: 4 November 1838-16 April 1839," in *JSP*, D6:268; Thomas B. Marsh, in *Journal of Discourses*, Sept. 6, 1857, 5:206-7.
12. Corrill, *Brief History*, 38, in *JSP*, H2:178; Baugh, *Call to Arms*, 99-102.
13. Thomas B. Marsh and Orson Hyde to Lewis Marsh and Ann Marsh Abbott, Oct. 25-30, 1838, in Joseph Smith Letterbook 2, 18-19.
14. See Thomas B. Marsh and Orson Hyde, Affidavit, Oct. 24, 1838, copy, Mormon War Papers, Missouri State Archives, Jefferson City; and Darowski, "The Faith and Fall of Thomas Marsh," 54-60. **주제: 토머스 비 마쉬**
15. Hales, *Windows*, 34-35.
16. Lilburn W. Boggs to John B. Clark, Oct. 27, 1838, copy, Mormon War Papers, Missouri State Archives, Jefferson City.
17. Hendricks, Reminiscences, 19.
18. Hendricks, Reminiscences, 19.
19. Hales, *Windows*, 35, 38; Pratt, *History of the Late Persecution*, 33; Thomas B. Marsh and Orson Hyde, Affidavits, Oct. 24, 1838, copy, Mormon War Papers, Missouri State Archives, Jefferson City; "History of Brigham Young," *LDS Millennial Star*, July 9, 1864, 26:440.

20. Pratt, *Autobiography*, 194-95; "History of Brigham Young," *LDS Millennial Star*, July 9, 1864, 26:440.
21. "History of Brigham Young," *LDS Millennial Star*, July 9, 1864, 26:440; Corrill, *Brief History*, 39, in *JSP*, H2:180; Holbrook, *Reminiscences*, 48.
22. Reed Peck to "Dear Friends," Sept. 18, 1839, 96-97, Henry E. Huntington Library, San Marino, CA; John Lockhart, *Testimony*, in Senate Document 189, 35-36.
23. Reed Peck to "Dear Friends," Sept. 18, 1839, 96-97, Henry E. Huntington Library, San Marino, CA; Baugh, *Call to Arms*, 47-48.
24. "The Mormons," *Missouri Argus*, Nov. 8, 1838, [2]; "History of Brigham Young," *LDS Millennial Star*, July 9, 1838, 26:441.
25. Holbrook, *Reminiscences*, 48; "History of Brigham Young," *LDS Millennial Star*, July 9, 1864, 26:441.
26. "History of Brigham Young," *LDS Millennial Star*, July 9, 1864, 26:440-41; Reed Peck to "Dear Friends," Sept. 18, 1839, 98, Henry E. Huntington Library, San Marino, CA; Corrill, *Brief History*, 39, in *JSP*, H2:180; Pratt, *History of the Late Persecution*, 35.
27. Pratt, *History of the Late Persecution*, 35-36; "History of Brigham Young," *LDS Millennial Star*, July 9, 1864, 26:441; see also *JSP*, H2:246, notes 163-64.
28. Hendricks, *Reminiscences*, 20.
29. "History of Brigham Young," *LDS Millennial Star*, July 9, 1884, 26:441; see also Samuel Bogart to David R. Atchison, Oct. 23, 1838, Mormon War Papers, Missouri State Archives, Jefferson City. **주제: 1838년 몰몬 미주리 전쟁**
30. Samuel Bogart to David R. Atchison, Oct. 23, 1838, Mormon War Papers, Missouri State Archives, Jefferson City; Pratt, *History of the Late Persecution*, 37. **주제: 자경주의**
31. Sashel Woods and Joseph Dickson to "Sir," Oct. 24, 1838, Mormon War Papers, Missouri State Archives, Jefferson City.
32. Thomas B. Marsh, Affidavit, Oct. 24, 1838, Mormon War Papers, Missouri State Archives, Jefferson City.
33. Orson Hyde, Affidavit, Oct. 24, 1838, Mormon War Papers, Missouri State Archives, Jefferson City.
34. Lilburn W. Boggs to John B. Clark, Oct. 27, 1838, copy, Mormon War Papers, Missouri State Archives, Jefferson City. **주제: 근절령**

제30장: 천사처럼 싸우라

1. See Baugh, "Joseph Young's Affidavit of the Massacre at Haun's Mill," 192; Greene, *Facts Relative to the Expulsion*, 22.
2. Tullidge, *Women of Mormondom*, 121; Smith, Notebook, 9-10; Baugh, "Rare Account of the Haun's Mill Massacre," 166; Baugh, *Call to Arms*, 118. 툴리지[Tullidge]의 *Women of Mormondom*에는 이 얘기가 아만다 반스 스미스[Amanda Barnes Smith]의 일인칭 시점으로 기록되어 있다.
3. Smith, Notebook, 9-10; "Amanda Smith," *Woman's Exponent*, Apr. 1, 1881, 9:165; "History, of the Persecution," *Times and Seasons*, Aug. 1840, 1:145, in *JSP*, H2:260; Kirtland Camp, Journal, Oct. 24, 1838.
4. Smith, Notebook, 10; Tullidge, *Women of Mormondom*, 121; Amanda Smith, Affidavit, May 7, 1839, in Johnson, *Mormon Redress Petitions*, 538; Isaac Leany, Statement, Apr. 20, 1839, photocopy, United States Congress, Material Relating to Mormon Expulsion from Missouri, 1839-43, Church History Library; Baugh, "Rare Account of the Haun's Mill Massacre," 166. **주제: 혼즈밀 대학살**
5. Smith, Notebook, 9; "History, of the Persecution," *Times and Seasons*, Aug. 1840, 1:145, in *JSP*, H2:260; Baugh, *Call to Arms*, 116-17.

6. "History, of the Persecution," *Times and Seasons*, Aug. 1840, 1:145, in *JSP*, H2:261; Tullidge, *Women of Mormondom*, 121-22; Smith, Notebook, 10; "Amanda Smith," *Woman's Exponent*, Apr. 1 and 15, 1881, 9:165, 173; Amanda Smith, Affidavit, May 7, 1839, in Johnson, *Mormon Redress Petitions*, 538.
7. Lewis, *Autobiography*, 12; Smith, Notebook, 10-11; "History, of the Persecution," *Times and Seasons*, Aug. 1840, 1:146, in *JSP*, H2:261.
8. Smith, Notebook, 11; Tullidge, *Women of Mormondom*, 121-22, 126; "Amanda Smith," *Woman's Exponent*, Apr. 15 and May 1, 1881, 9:173, 181; Ellis Eamut, Statement, circa 1839, Joseph Smith History Documents, 1839-60, Church History Library; Baugh, *Call to Arms*, 120; Dunn, Amanda's Journal, 3.
9. Lewis, *Autobiography*, 12-14; Ellis Eamut, Statement, circa 1839, Joseph Smith History Documents, 1839-60, Church History Library; Baugh, "Rare Account of the Haun's Mill Massacre," 166; Smith, Notebook, 12.
10. "History, of the Persecution," *Times and Seasons*, Aug. 1840, 1:146, in *JSP*, H2:262; *History of Caldwell and Livingston Counties*, 147; Greene, *Facts Relative to the Expulsion*, 22; Baugh, *Call to Arms*, 120-23.
11. *Document Containing the Correspondence*, 82; Smith, Notebook, 13; Tullidge, *Women of Mormondom*, 123.
12. Smith, Notebook, 12; "History, of the Persecution," *Times and Seasons*, Aug. 1840, 1:147, in *JSP*, H2:263; Tullidge, *Women of Mormondom*, 127.
13. Tullidge, *Women of Mormondom*, 127.
14. Hyrum Smith, Testimony, July 1, 1843, 8, Nauvoo, IL, Records, Church History Library; Samuel D. Lucas to Lilburn W. Boggs, Nov. 2, 1838, Mormon War Papers, Missouri State Archives, Jefferson City. **주제: 1838년 몰몬 미주리 전쟁**
15. Thorp, *Early Days in the West*, 88; Hyrum Smith, Testimony, July 1, 1843, 8-9, Nauvoo, IL, Records, Church History Library; Baugh, *Call to Arms*, 137-38; Corrill, *Brief History*, 40, in *JSP*, H2:183.
16. Durham, *Gospel Kingdom*, 354; Joseph Smith, Journal, Dec. 30, 1842, in *JSP*, J2:199-200.
17. "Mary Elizabeth Rollins Lightner," *Utah Genealogical and Historical Magazine*, July 1926, 199. 메리 라이트너의 일인칭 시점으로 기록된 원본에는 "당신네 두 가족"이 아니라 "우리 두 가족"으로 쓰여 있다.
18. "Mary Elizabeth Rollins Lightner," *Utah Genealogical and Historical Magazine*, July 1926, 199. 원본의 문구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나는 남편이 원한다면 아이를 데리고 가도 좋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성도들과 고통을 함께하고 싶었다."
19. Joseph Smith, Journal, Dec. 30, 1842, in *JSP*, J2:200.
20. Samuel D. Lucas to Lilburn W. Boggs, Nov. 2, 1838, Mormon War Papers, Missouri State Archives, Jefferson City.
21. "Lucas, Samuel D.," Biographical Entry, Joseph Smith Papers website, josephsmithpapers.org.
22. Ebenezer Robinson, "Items of Personal History of the Editor," *Return*, Jan. 1890, 2:206; Samuel D. Lucas to Lilburn W. Boggs, Nov. 2, 1838, Mormon War Papers, Missouri State Archives, Jefferson City.
23. James C. Owens, Testimony, Nov. 1838, [47], in State of Missouri, "Evidence"; Ebenezer Robinson, "Items of Personal History of the Editor," *Return*, Jan. 1890, 2:206; Burr Rigs, Testimony, in *Document Containing the Correspondence*, 135.
24. Corrill, *Brief History*, 40, in *JSP*, H2:183; George Hinkle, Testimony, in *Document Containing the Correspondence*, 127; Pratt, *History of the Late Persecution*, 39.
25. Baugh, "Rare Account of the Haun's Mill Massacre," 166-67; Baugh, *Call to Arms*, 123.
26. Baugh, "Rare Account of the Haun's Mill Massacre," 167; Tullidge, *Women of Mormondom*, 123.
27. Smith, Notebook, 13; Tullidge, *Women of Mormondom*, 123-24; Dunn, Amanda's Journal, 3-5.
28. Baugh, "Rare Account of the Haun's Mill Massacre," 167; Tullidge, *Women of Mormondom*, 123.
29. Tullidge, *Women of Mormondom*, 124; Baugh, "Rare Account of the Haun's Mill Massacre," 167; Dunn, Amanda's Journal, 4. **주제: 병 고침**

30. Tullidge, *Women of Mormondom*, 124-25. **주제: 아만다 반스 스미스**
31. Corrill, *Brief History*, 40-42, in *JSP*, H2:183-85; Baugh, *Call to Arms*, 139-40.
32. Foote, *Autobiography and Journal*, Oct. 30, 1838; Albert Perry Rockwood, *Journal*, Nov. 2, 1838; Hyrum Smith, Testimony, July 1, 1843, 11, Nauvoo, IL, Records, Church History Library.
33. Hyrum Smith, Testimony, July 1, 1843, 9-10, Nauvoo, IL, Records, Church History Library; Pratt, *Autobiography*, 219-24.
34. Corrill, *Brief History*, 41, in *JSP*, H2:183.
35. Corrill, *Brief History*, 41-42, in *JSP*, H2:183-86; Samuel D. Lucas to Lilburn W. Boggs, Nov. 2, 1838, Mormon War Papers, Missouri State Archives, Jefferson City; Baugh, *Call to Arms*, 140-41. **주제: 근절령**
36. "Extract, from the Private Journal of Joseph Smith Jr.," *Times and Seasons*, Nov. 1, 1839, 1:5, in *JSP*, H1:477-79; Reed Peck to "Dear Friends," Sept. 18, 1839, Henry E. Huntington Library, San Marino, CA; Baugh, *Call to Arms*, 141.
37. Hyrum Smith, Testimony, July 1, 1843, 12-13, Nauvoo, IL, Records, Church History Library.
38. Hyrum Smith, Testimony, July 1, 1843, 12-13, Nauvoo, IL, Records, Church History Library; Pratt, *History of the Late Persecution*, 40; *JSP*, H2:251, note 181; Corrill, *Brief History*, 42, in *JSP*, H2:186; "Extract, from the Private Journal of Joseph Smith Jr.," *Times and Seasons*, Nov. 1, 1840, 1:5, in *JSP*, H1:477-79.

제31장: 어찌해야 이 상황이 끝이 날까요?

1. Gates, *Lydia Knight's History*, 43-46.
2. Gates, *Lydia Knight's History*, 47.
3. Samuel D. Lucas to Lilburn W. Boggs, Nov. 2, 1838, Mormon War Papers, Missouri State Archives, Jefferson City; Ebenezer Robinson, "Items of Personal History of the Editor," *Return*, Feb. 1890, 210.
4. Gentry and Compton, *Fire and Sword*, 358-60.
5. Gates, *Lydia Knight's History*, 47.
6. Samuel D. Lucas to Lilburn W. Boggs, Nov. 2, 1838, Mormon War Papers, Missouri State Archives, Jefferson City.
7. Samuel D. Lucas to Lilburn W. Boggs, Nov. 2, 1838, Mormon War Papers, Missouri State Archives, Jefferson City; Hyrum Smith, Testimony, July 1, 1843, 11, Nauvoo, IL, Records, Church History Library; Brigham Young, Testimony, July 1, 1843, [2], Nauvoo, IL, Records, Church History Library; Kimball, "History," 94.
8. Gates, *Lydia Knight's History*, 48-49.
9. Ebenezer Page, "For Zion's Reveille," *Zion's Reveille*, Apr. 15, 1847, 55.
10. Kimball, "History," [88].
11. See Whitney, *Life of Heber C. Kimball*, 83.
12. Kimball, "History," [88].
13. Gates, *Lydia Knight's History*, 48; Hyrum Smith, Testimony, July 1, 1843, 13, Nauvoo, IL, Records, Church History Library.
14. Joseph Smith and Others to the Church and Edward Partridge, Mar. 20, 1839, 3, in *JSP*, D6:362; Hyrum Smith, Testimony, July 1, 1843, 13, 24; Brigham Young, Testimony, July 1, 1843, [2], Nauvoo, IL, Records, Church History Library; "Part 3: 4 November 1838-16 April 1839," in *JSP*, D6:271-72. **주제: 1838년 몰몬 미주리 전쟁**
15. See "Mormonism," *United States' Telegraph*, Aug. 21, 1833, [2]; Hyrum Smith, Testimony, July 1, 1843, 13, Nauvoo, IL, Records, Church History Library; and Samuel D. Lucas to Lilburn W. Boggs, Nov. 2, 1838, Mormon War Papers, Missouri State Archives, Jefferson City.
16. Lyman Wight, Testimony, July 1, 1843, 20-21, 23, Nauvoo, IL, Records, Church History Library; Hyrum Smith, Testimony, July 1, 1843, 13, Nauvoo, IL, Records, Church History Library.
17. Lyman Wight, Testimony, July 1, 1843, 24, Nauvoo, IL, Records, Church History Library; "History of Lyman Wight," *LDS Millennial Star*, July 22, 1865, 29:47.

18. Lyman Wight, Journal, in *History of the Reorganized Church*, 2:260; "Part 3: 4 November 1838-16 April 1839," in *JSP*, D6:271; Hyrum Smith, Testimony, July 1, 1843, 13-14, Nauvoo, IL, Records, Church History Library; Eliza R. Snow to Isaac Streator, Feb. 22, 1839, photocopy, Church History Library; Alanson Ripley, Letter to the Editor, *Times and Seasons*, Jan. 1840, 1:37; see also Baugh, *Call to Arms*, 150-51.
19. Lyman Wight, Testimony, July 1, 1843, 24, Nauvoo, IL, Records, Church History Library.
20. *History of Caldwell and Livingston Counties*, 137; Lyman Wight, Testimony, July 1, 1843, 24, Nauvoo, IL, Records, Church History Library; "History, of the Persecution," *Times and Seasons*, July 1840, 1:130-31, in *JSP*, H2:258.
21. Hyrum Smith, Testimony, July 1, 1843, 14, Nauvoo, IL, Records, Church History Library; *History of Caldwell and Livingston Counties*, 137; Rigdon, *Appeal to the American People*, 51.
22. *History of Caldwell and Livingston Counties*, 137; see also Joseph Smith, Journal, Dec. 30, 1842, in *JSP*, J2:198; and Rigdon, "Lecture," 59-60.
23. Joseph Smith, Journal, Dec. 30, 1842, in *JSP*, J2:198.
24. Hyrum Smith, Testimony, July 1, 1843, 14-15, Nauvoo, IL, Records, Church History Library; Joseph Smith and Others to Edward Partridge and the Church, circa Mar. 22, 1839, in *JSP*, D6:395; 교리와 성약 122:6; Joseph Smith, Bill of Damages, June 4, 1839, [6], in *JSP*, D6:502.
25. Joseph Smith, Journal, Dec. 30, 1842, in *JSP*, J2:198; Joseph Smith, Bill of Damages, June 4, 1839, [6], in *JSP*, D6:502; see also Lyman Wight, Testimony, July 1, 1843, 26, Nauvoo, IL, Records, Church History Library.
26. Hyrum Smith, Testimony, July 1, 1843, 15, Nauvoo, IL, Records, Church History Library;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16, [3].
27.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16, [3]-[4]; Lucy Mack Smith, History, 1845, 280-81. **주제: 루시 맥 스미스**
28. Hyrum Smith, Testimony, July 1, 1843, 15-16, 18, Nauvoo, IL, Records, Church History Library; Parley P. Pratt to Willard Richards, Nov. 7, 1853, *Deseret News*, Nov. 12, 1853, [3].
29. Parley P. Pratt to Willard Richards, Nov. 7, 1853, *Deseret News*, Nov. 12, 1853, [3]; Pratt, *Autobiography*, 228-30.
30. Hyrum Smith, Testimony, July 1, 1843, 18, Nauvoo, IL, Records, Church History Library; see also "King, Austin Augustus," Biographical Entry, Joseph Smith Papers website, josephsmithpapers.org. **주제: 미국의 법적 제도와 정치 제도**
31. Transcript of Proceedings, Richmond, MO, Nov. 1838, State of Missouri v. Joseph Smith and Others for Treason and Other Crimes, in State of Missouri, "Evidence"; "Part 3: 4 November 1838-16 April 1839," in *JSP*, D6:272-73; Madsen, "Joseph Smith and the Missouri Court of Inquiry," 93-136; *JSP*, H2:167, note 140.
32. *Document Containing the Correspondence*, 90; Gentry and Compton, *Fire and Sword*, 240, 408-9; Rigdon, *Appeal to the American People*, 66.
33. Sampson Avard, Testimony, Nov. 1838, [2]-[23], State of Missouri v. Joseph Smith and Others for Treason and Other Crimes, in State of Missouri, "Evidence"; *Document Containing the Correspondence*, 97, 99.
34. Pratt, *Autobiography*, 230; Parley P. Pratt, Testimony, July 1, 1843, 8, Nauvoo, IL, Records, Church History Library.
35. Hyrum Smith, Testimony, July 1, 1843, 18-19, Nauvoo, IL, Records, Church History Library; LeSueur, "High Treason and Murder," 7-13; Court Documents for State of Missouri v. Joseph Smith and Others for Treason and Other Crimes, in State of Missouri, "Evidence"; *Document Containing the Correspondence*, 97-151.
36. Pratt, *History of the Late Persecution*, 55; see also *Document Containing the Correspondence*, 150; and State of Missouri, "Evidence," [124]-[25].
37. Hyrum Smith, Testimony, July 1, 1843, 21, Nauvoo, IL, Records, Church History Library; Joseph Smith to Emma Smith, Dec. 1, 1838, in *JSP*, D6:293-94; Littlefield, *Reminiscences of Latter-day Saints*, 79-80; "Jail, Liberty, Missouri." Geographical Entry, Joseph Smith Papers website, josephsmithpapers.org.
38. Littlefield, *Reminiscences of Latter-day Saints*, 80. **주제: 리버티 감옥**

제32장: 온 지옥 떨어 떨어뜨리려 하나

1.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C-1, 856-57; Greene, *Facts Relative to the Expulsion*, 13-14; "History, of the Persecution," *Times and Seasons*, Sept. 1840, 1:161-62, in *JSP*, H2:272-73.
2. John B. Clark to Lilburn W. Boggs, Nov. 10, 1838, Mormon War Papers, Missouri State Archives, Jefferson City; see also Esplin, "Emergence of Brigham Young," 348.
3. "Speech of General Clarke," Nov. 6, 1838, in Joseph Smith Letterbook 2, [1]-1; Greene, *Facts Relative to the Expulsion*, 26-27; see also John B. Clark, Report to Lilburn W. Boggs, Jefferson City, MO, Nov. 29, 1838, Mormon War Papers, Missouri State Archives, Jefferson City. 초판본에는 존 비 클라크의 말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다시는 당신들 가운데 감둑과 회장 따위를 두지 마시오."
4. Smith, Notebook, 14-15; "Amanda Smith," *Woman's Exponent*, May 15, 1881, 9:189.
5. Tullidge, *Women of Mormondom*, 129; "Amanda Smith," *Woman's Exponent*, May 15, 1881, 9:189.
6. See Hartley, "Saints' Forced Exodus from Missouri," 347-90.
7. Woodruff, Journal, Oct. 1, 27, and 31, 1838; Historical Department, Journal *History of the Church*, Oct. 9, 1838.
8. Woodruff, Journal, Nov. 3, 7, 9, and 16, 1838.
9. Woodruff, Journal, Nov. 23-30, 1838; Historical Department, Journal *History of the Church*, Oct. 9, 1838.
10. Woodruff, Journal, Dec. 1-2, 1838; Historical Department, Journal *History of the Church*, Oct. 9, 1838.
11. Historical Department, Journal *History of the Church*, Oct. 9, 1838. **주제: 병 고침**
12. "Clay County, Missouri," *Historical Record*, Dec. 1888, 7:670; "Liberty Jail," history.lds.org; Joseph Smith to Isaac Galland, Mar. 22, 1839, in *JSP*, D6:380; Joseph Smith to Emma Smith, Apr. 4, 1839, in *JSP*, D6:403; Hyrum Smith, Testimony, July 1, 1843, 21-22; Lyman Wight, Testimony, July 1, 1843, 30-31, Nauvoo, IL, Records, Church History Library; Bray, "Within the Walls of Liberty Jail," 258-59. **주제: 리버티 감옥**
13. *History of the Reorganized Church*, 2:309.
14. Joseph Smith to the Church in Caldwell County, MO, Dec. 16, 1838, in *JSP*, D6:294-310.
15. Hyrum Smith Family Bible; *History of the Reorganized Church*, 2:315; Thompson, Autobiographical Sketch, 3-4.
16. *History of the Reorganized Church*, 2:315; Thompson, Autobiographical Sketch, 2, 4.
17. "Recollections of the Prophet Joseph Smith," *Juvenile Instructor*, July 1, 1892, 27:398.
18. Thompson, Autobiographical Sketch, 4; "Recollections of the Prophet Joseph Smith," *Juvenile Instructor*, July 1, 1892, 27:398.
19. Joseph Smith and Others to Heber C. Kimball and Brigham Young, Jan. 16, 1839, in *JSP*, D6:310-16. **주제: 십이사도 정원회**
20. Minute Book 2, Dec. 13, 1838.
21. Albert P. Rockwood to "Dear Beloved Father," Jan. 1839, in Jesse and Whittaker, "Albert Perry Rockwood Journal," 34; Joseph Smith and Others to Heber C. Kimball and Brigham Young, Jan. 16, 1839, in *JSP*, D6:310-16.
22. Far West Committee, Minutes, Jan. 29 and Feb. 2, 1839;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C-1, 881-83.
23. Huntington, Diary and Reminiscences, 45;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C-1, 884; Hartley, "Saints' Forced Exodus from Missouri," 347-90.
24. 조셉 스미스는 아이작 갤런드에게 보낸 1839년 3월 22일자 편지에서 "다섯 명의 아이들"을 언급했다. 다섯째 아이는 고아였던 조해너 카터로, 1839년 당시 15세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몇 가지 증거에 따르면 조해너는 파웨스트에서 스미스 가족과 함께 지냈으며 퀸시에서도 에머 스미스가 데리고 있었던 것 같다. 조셉은 에머에게 보낸 1839년 4월 4일자 편지에서 조해너를 다시 한번 자신의 자녀로 언급했다. (Joseph Smith to Isaac Galland,

- Mar. 22, 1839, in *JSP*, D6:382; Joseph Smith to Emma Smith, Apr. 4, 1839, in *JSP*, D6:404; see also *JSP*, D6:382, note 674; 404, note 817.)
25.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C-1, 884; Mary Audentia Smith Anderson, "Memoirs of President Joseph Smith," *Saints' Herald*, Nov. 6, 1934, 1416; Cooper, "Spiritual Reminiscences.—No. 2," 18. **주제: 에머 헤일 스미스**
26.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C-1, 885; Mary Audentia Smith Anderson, "Memoirs of President Joseph Smith," *Saints' Herald*, Nov. 6, 1934, 1416; see also Cooper, "Spiritual Reminiscences.—No. 2," 18.
27. Leonard, *Nauvoo*, 33; Hartley, "Winter Exodus from Missouri," 18; Bennett, "Study of the Mormons in Quincy," 103-18.
28. Emma Smith to Joseph Smith, Mar. 7, 1839, in *JSP*, D6:339-40.
29. Tullidge, *Women of Mormondom*, 128-29.
30. *Collection of Sacred Hymns*, 112; 또한 "굳도다 그 기초", 찬송가, 35장 참조 Amanda Barnes Smith's account in Tullidge's *Women of Mormondom* has a few wording changes to the hymn text: "That soul who on Jesus hath leaned for repose, I cannot, I will not desert to its foes."
31. Tullidge, *Women of Mormondom*, 129-30.
32. Smith, Notebook, 25; Tullidge, *Women of Mormondom*, 128, 131-32; "Amanda Smith," *Woman's Exponent*, May 15, 1881, 9:189; Baugh, "Rare Account of the Hauri's Mill Massacre," 168; Baugh, "I'll Never Forsake," 338. **주제: 아만다 반스 스미스**
33. Hendricks, *Reminiscences*, 20-22.
34. Woodruff, Journal, Mar. 13-16, 1839; see also Woodruff, Journal, Sept. 12 and 25, 1838; Oct. 1, 1838. **주제: 일리노이주 퀸시 정착촌**
35. Hartley, "Saints' Forced Exodus from Missouri," 347-90; Edward Partridge to Joseph Smith and Others, Mar. 5, 1839, in *JSP*, D6:326-31.
36. Edward Partridge to Joseph Smith and Others, Mar. 5, 1839, in *JSP*, D6:329; Woodruff, Journal, Mar. 16, 1839.
37. Woodruff, Journal, Mar. 17-18, 1839;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C-1, 898-99.
38. Woodruff, Journal, Mar. 18, 1839.
39.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C-1, 884, 888, 891-92, 894. **주제: 이스라엘의 집합**

제33장: 오 하나님이지어, 당신은 어디 계시나이까?

1. See Jesse, "Walls, Grates and Screeking Iron Doors," 26; and Baugh, "Joseph Smith in Northern Missouri," 329.
2. Hyrum Smith, Diary, Oct. 29, 1838-Feb. 5, 1839; Report, *Saints' Herald*, Aug. 2, 1884, 490; "Part 3: 4 November 1838-16 April 1839," in *JSP*, D6:276; Joseph Smith to Isaac Galland, Mar. 22, 1839, in *JSP*, D6:379; Sidney Rigdon, Testimony, July 1, 1843, [22]-[23], Nauvoo, IL, Records, Church History Library.
3. Hyrum Smith, Diary, Mar. 18 and 31, 1839; Apr. 3, 1839; Hyrum Smith, Testimony, July 1, 1843, 22, Nauvoo, IL, Records, Church History Library; Joseph Smith to Isaac Galland, Mar. 22, 1839, in *JSP*, D6:380; see also Jesse, "Walls, Grates and Screeking Iron Doors," 28.
4. Hyrum Smith to Mary Fielding Smith, Mar. 16, 1839, Mary Fielding Smith Collection, Church History Library; Jesse, "Walls, Grates, and Screeking Iron Doors," 30-31.
5. Joseph Smith and Others to Heber C. Kimball and Brigham Young, Jan. 20, 1839, in *JSP*, D6:361-62.
6. Joseph Smith and Others to the Church and Edward Partridge, Mar. 20, 1839, in *JSP*, D6:362; 교리와 성약 121:1~2; see also Psalms 44:23-24; 77:6-9.
7. Woodruff, Journal, Apr. 17, 1839; 교리와 성약 118:5 (Revelation, July 8, 1838-A, at josephsmithpapers.org); Historian's Office, Brigham Young History Drafts, 21.
8. See Historical Introduction to Letter to Heber C. Kimball and Brigham Young, Jan. 16, 1839, in *JSP*, D6:311-12.

9. Historian's Office, Brigham Young History Drafts, 21. 원본의 문장은 대과커 형태로 되어 있다. "주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순종하고 나머지는 그분의 손에 맡기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 Edward Partridge to Joseph Smith and Others, Mar. 5, 1839, in *JSP*, D6:326-31; Don Carlos Smith and William Smith to Joseph Smith, Mar. 6, 1839, in *JSP*, D6:331-34; Emma Smith to Joseph Smith, Mar. 7, 1839, in *JSP*, D6:338-40; Historical Introduction to Letter from Edward Partridge, Mar. 5, 1839, in *JSP*, D6:328.
11. Joseph Smith and Others to the Church and Edward Partridge, Mar. 20, 1839, in *JSP*, D6:356-72; Jesse and Welch, "Joseph Smith's Letter from Liberty Jail," 125-45; Bray, "Within the Walls of Liberty Jail," 256-63.
12. Joseph Smith and Others to the Church and Edward Partridge, Mar. 20, 1839, in *JSP*, D6:363; 교리와 성약 121:5.
13. Joseph Smith and Others to Edward Partridge and the Church, circa Mar. 22, 1839, in *JSP*, D6:393-94; 교리와 성약 121:34~39.
14. Joseph Smith and Others to Edward Partridge and the Church, circa Mar. 22, 1839, in *JSP*, D6:394; 교리와 성약 121:41~46.
15. Joseph Smith and Others to the Church and Edward Partridge, Mar. 20, 1839, in *JSP*, D6:362; 교리와 성약 121:1~3; see also Psalms 44:23-24; 77:6-9.
16. Joseph Smith and Others to the Church and Edward Partridge, Mar. 20, 1839, in *JSP*, D6:366; 교리와 성약 121:7-8.
17. Joseph Smith and Others to the Church and Edward Partridge, Mar. 22, 1839, in *JSP*, D6:395; 교리와 성약 122:7~9; see also Psalms 44:23-24; 77:6-9. **주제: 리버티 감옥**
18. Far West Committee, Minutes, Mar. 17-18, 1839; Kimball, "History," 99; Theodore Turley, Memoranda, circa Feb. 1845, Joseph Smith History Documents, 1839-60, Church History Library.
19. Kimball, "History," 99; Theodore Turley, Memoranda, circa Feb. 1845, Joseph Smith History Documents, 1839-60, Church History Library.
20. Kimball, "History," [99].
21. Joseph Smith and Others to the Church and Edward Partridge, Mar. 20, 1839, in *JSP*, D6:371.
22. Joseph Smith and Others to Edward Partridge and the Church, circa Mar. 22, 1839, in *JSP*, D6:398; 교리와 성약 123:1~6.
23. Joseph Smith to Emma Smith, Apr. 4, 1839, in *JSP*, D6:404-5.
24. Hyrum Smith, Diary, Apr. 7-8, 1839; Hyrum Smith, Testimony, July 1, 1843, 23-25, Nauvoo, IL, Records, Church History Library.
25. Bill of Damages, June 4, 1839, in *JSP*, D6:504;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C-1, 921; Hyrum Smith, Testimony, July 1, 1843, 25-26, Nauvoo, IL, Records, Church History Library.
26. Hyrum Smith, Diary, Apr. 14, 1839.
27. Burnett, *Old California Pioneer*, 40-41; see also Baugh, "Gallatin Hearing and the Escape of Joseph Smith," 62-63.
28. Bushman, *Rough Stone Rolling*, 382; Leonard, *Nauvoo*, 38-39.
29. Hyrum Smith, Testimony, July 1, 1843, 26, Nauvoo, IL, Records, Church History Library; Hyrum Smith, Diary, Apr. [16], 1839;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C-1, 921-22; see also Historical Introduction to Promissory Note to John Brassfield, Apr. 16, 1839, in *JSP*, D6:422-26.
30. Historian's Office, Brigham Young History Drafts, 21-22; Woodruff, Journal, Apr. 18, 1839.
31. John Taylor to "Dear Sir," in *LDS Millennial Star*, May 1841, 2:13; Woodruff, Journal, Apr. 26, 1839; Kimball, "History," 102.
32. Woodruff, Journal, Apr. 26, 1839; Historian's Office, General Church Minutes, Apr. 26, 1839; *Collection of Sacred Hymns*, 29-30; see also "Adam-ondi-Ahman," Hymns, no. 49. **주제: 시온/새 예루살렘**
33. Woodruff, Journal, Apr. 27, 1839.
34. Dimick B. Huntington, Statement, circa 1854-56, Joseph Smith History Documents, 1839-60, Church History Library; Joseph Smith, Journal, Apr. 22-23, 1839, in *JSP*, J1:336.

35. Dimick B. Huntington, Statement, circa 1854-56, Joseph Smith History Documents, 1839-60, Church History Library.
36.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C-1, 922.
37. Dimick B. Huntington, Statement, circa 1854-56, Joseph Smith History Documents, 1839-60, Church History Library; Joseph Smith, Journal, Apr. 22-23, 1839, in *JSP*, J1:336;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C-1, 924.

제34장: 도시를 세우라

1.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C-1, 930; *JSP*, J1:336, note 14; Joseph Smith to Isaac Galland, Mar. 22, 1839, in *JSP*, D6:388.
2. Far West Committee, Minutes, Feb. 1839; Leonard, *Nauvoo*, 55.
3. David W. Rogers, Statement, Feb. 1, 1839, Church History Library; Joseph Smith, Journal, Apr. 13, 1843, in *JSP*, J2:354; see also Plewe, *Mapping Mormonism*, 53-54. **주제: 일리노이주 나무(커머스)**
4. Woodruff, Journal, May 20, 1839; Woodruff, *Leaves from My Journal*, 61.
5. See Rollins and others, "Transforming Swampland into Nauvoo," 125-57; Flanders, *Nauvoo*, 38-44, 116.
6. Woodruff, Journal, June 27, 1839; Bushman, *Rough Stone Rolling*, 386-89; Esplin, "Emergence of Brigham Young," 398-402.
7. Richards, "Pocket Companion," 17.
8. Woodruff, Journal, July 2, 1839.
9. Joseph Smith, Journal, June 27, 1839, in *JSP*, J1:343; Woodruff, Journal, June 25-27, 1839.
10. Woodruff, Journal, July 12, 1839; Givens and Grow, *Parley P. Pratt*, 158-65.
11. Woodruff, Journal, July 12 and 19, 1839; Historian's Office, Brigham Young History Drafts, 25; Historian's Office, "History of Brigham Young," 35; Woodruff, *Leaves from My Journal*, 62.
12. Woodruff, *Leaves from My Journal*, 62-63; Joseph Smith, Journal, July 22-23, 1839, in *JSP*, J1:349; Historian's Office, Brigham Young History Drafts, 25; Woodruff, Journal, July 22, 1839; Pratt, *Autobiography*, 324.
13. Woodruff, Journal, July 22, 1839; Pratt, *Autobiography*, 324-25.
14. Kimball, "History," 110; Woodruff, *Leaves from My Journal*, 63; Historian's Office, Brigham Young History Drafts, 25-26; Pratt, *Autobiography*, 325.
15. Woodruff, Autobiographical Sketch, 3. **주제: 병 고침**
16. Tullidge, *Women of Mormondom*, 213-14.
17. Gates, *History of the Young Ladies' Mutual Improvement Association*, 16; 또한 "하늘 어머니", Gospel Topics, topics.lds.org 참조. **주제: 하늘 어머니**
18. Woodruff, Journal, Aug. 8, 1839; see also Woodruff, Journal, May 30, 1840; and Alexander, Heaven and Earth, 85.
19. Pratt, *Autobiography*, 325; George A. Smith to Bathsheba Wilson Bigler, Jan. 14, 1841, George A. Smith, Collection, Church History Library; "History of George Albert Smith," 15, in Historian's Office, Histories of the Twelve, Church History Library; Allen and others, *Men with a Mission*, 8, 277, 288-89.
20. Historian's Office, Brigham Young History Drafts, 26; "Biography of Mary Ann Angell Young," *Juvenile Instructor*, Jan. 15, 1891, 26:56-57; Kimball, "History," 111.
21. Historian's Office, Brigham Young History Drafts, 26-27; Historian's Office, "History of Brigham Young," 35; Kimball, "History," 111.
22. Brigham Young, in *Journal of Discourses*, July 17, 1870, 13:211; Kimball, "History," 111.
23. Johnson, *Mormon Redress Petitions*, xix, xxiii-xxv; McBride, "When Joseph Smith Met Martin Van Buren," 150; Joseph Smith, Discourse, Apr. 7, 1840, in *JSP*, D7:258-60. **주제: 미국의 법적 제도과 정치 제도**

24. Sidney Rigdon to Martin Van Buren, Nov. 9, 1839; Memorial to the United States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circa Oct. 30, 1839-Jan. 27, 1840; Joseph Smith, Discourse, Apr. 7, 1840, in *JSP*, D7:57-59, 138-74, 258-60.
25. Reynolds, *My Own Times*, 574-75; Joseph Smith and Elias Higbee to Hyrum Smith and Nauvoo high council, Dec. 5, 1839, in *JSP*, D7:69; Monkman, *White House*, 93-94; Seale, President's House, 212-15.
26.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C-1, 972; Joseph Smith to Emma Smith, Nov. 9, 1839; Sidney Rigdon to Martin Van Buren, Nov. 9, 1839, in *JSP*, D7:55-59; Reynolds, *My Own Times*, 575; see also Sidney Rigdon to Joseph Smith and others, Apr. 10, 1839, in *JSP*, D6:408-9; and Bushman, *Rough Stone Rolling*, 391-93.
27. Freidel, *President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22-23; Joseph Smith and Elias Higbee to Hyrum Smith and Nauvoo high council, Dec. 5, 1839, in *JSP*, D7:69-70; Reynolds, *My Own Times*, 575.
28. Joseph Smith, Discourse, Mar. 1, 1840, in *JSP*, D7:202; compare *History of the Church*, 4:80.
29. McBride, "When Joseph Smith Met Martin Van Buren," 150-58; Joseph Smith and Elias Higbee to Hyrum Smith and Nauvoo high council, Dec. 5, 1839; Joseph Smith, Discourse, Apr. 7, 1840, in *JSP*, D7:69-70, 260.
30. Joseph Smith, Discourse, Apr. 7, 1840, in *JSP*, D7:260; compare *History of the Church*, 4:80; Joseph Smith and Elias Higbee to Hyrum Smith and Nauvoo high council, Dec. 5, 1839, in *JSP*, D7:69.
31. Joseph Smith and Elias Higbee to Hyrum Smith and Nauvoo high council, Dec. 5, 1839; Joseph Smith and Elias Higbee to Seymour Brunson and Nauvoo high council, Dec. 7, 1839, in *JSP*, D7:70, 78-81; *Journal of the Senat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38; Bushman, *Rough Stone Rolling*, 397.
32. See Minutes and Discourse, Jan. 13, 1840, in *JSP*, D7:111-15; and Joseph Smith to Robert D. Foster, Dec. 30, 1839, in *JSP*, D7:89-93.
33. Woodruff, Journal, Jan. 11-13, 1840; Woodruff, *Leaves from My Journal*, 75; Bitton, *George Q. Cannon*, 33-38; John Taylor to Leonora Taylor, Jan. 30, 1840, John Taylor, Collection, Church History Library.
34. Woodruff, Journal, Jan. 13-18, 1840.
35. Woodruff, Journal, Mar. 2-4, 1840; Woodruff, *Leaves from My Journal*, 77-78.
36. Woodruff, Journal, Mar. 4, 1840; Woodruff, *Leaves from My Journal*, 78-81.
37. Woodruff, Journal, Mar. 5-7, 1840; Woodruff, *Leaves from My Journal*, 79-81; Allen and others, *Men with a Mission*, 126.
38. Wilford Woodruff to Willard Richards, Mar. 31, 1840, Willard Richards, Journals and Papers, Church History Library; see also Allen and others, *Men with a Mission*, 126-28.
주제: 영국; 초기 선교사들
39. Matthew L. Davis to Mrs. Matthew [Mary] L. Davis, Feb. 6, 1840, Church History Library; Bushman, *Rough Stone Rolling*, 394-95.
40. Joseph Smith to Emma Smith, Jan. 20-25, 1840, in *JSP*, D7:136.
41. Joseph Smith to Emma Smith, Oct. 13, 1832, in *JSP*, D2:313.
42. Hales, *Joseph Smith's Polygamy*, 1:201-2.
43. Pratt, *Autobiography*, 329-30; see also Givens and Grow, *Parley P. Pratt*, 173-74.
44. Joseph Smith and Elias Higbee to Hyrum Smith and Nauvoo high council, Dec. 5, 1839, in *JSP*, D7:72.
45. John C. Calhoun to Joseph Smith, Dec. 2, 1843, Joseph Smith Collection, Church History Library;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C-1, 1016.
46. Historian's Office, Joseph Smith History Draft Notes, Mar. 4, 1840; Report of the Senate Committee on the Judiciary, Mar. 4, 1840, in *JSP*, D7:539-43; McBride, "When Joseph Smith Met Martin Van Buren," 154-58; Bushman, *Rough Stone Rolling*, 396-98.
47. Elias Higbee to Joseph Smith, Mar. 24, 1840, in *JSP*, D7:232-34.

제35장: 아름다운 곳

1. "Autobiography of Emily D. P. Young," *Woman's Exponent*, July 15, 1885, 14:26; Lyman, *Journal*, 12; Obituary for Harriet Partridge, *Times and Seasons*, June 1, 1840, 1:128.
2. Obituary for Edward Partridge, *Times and Seasons*, June 1, 1840, 1:127-28; Lyman, *Journal*, 12.
3. "Autobiography of Emily D. P. Young," *Woman's Exponent*, Aug. 1, 1885, 14:37.
4. Obituary for Edward Partridge, *Times and Seasons*, June 1, 1840, 1:127-28. **주제: 교회의 정기 간행물**
5. "Autobiography of Emily D. P. Young," *Woman's Exponent*, July 15, 1885, 14:26; Lyman, *Journal*, 13.
6. "Nauvoo" and "Immigration," *Times and Seasons*, June 1840, 1:122-24;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C-1, 1060; Bushman, *Rough Stone Rolling*, 405; Leonard, *Nauvoo*, 60-61.
7. "Proclamation, to the Saints Scattered Abroad," *Times and Seasons*, Jan. 15, 1841, 2:273-74; see also Leonard, *Nauvoo*, 59. **주제: 일리노이주 나부(커머스)**
8. See Leonard, *Nauvoo*, 91.
9. William W. Phelps to Joseph Smith, June 29, 1840, in *JSP*, D7:303-5.
10. Joseph Smith to William W. Phelps, July 22, 1840, in *JSP*, D7:345-48.
11. Woodruff, *Journal*, July 28, 1844; see also Joseph Smith to Presendia Huntington Buell, Mar. 15, 1839, in *JSP*, D6:354-56; and Esplin, "Joseph Smith's Mission and Timetable," 280-319.
12. **주제: 감독**
13. John C. Bennett to Joseph Smith, July 25, 1840, in *JSP*, D7:348-50; Bushman, *Rough Stone Rolling*, 411; "Bennett, John Cook," Biographical Entry, Joseph Smith Papers website, josephsmithpapers.org.
14. John C. Bennett to Joseph Smith and Sidney Rigdon, July 27, 1840, in *JSP*, D7:350-53; see also John C. Bennett to Joseph Smith, July 30, 1840, in *JSP*, D7:368-70.
15. John C. Bennett to Joseph Smith, July 30, 1840, in *JSP*, D7:370. 이 편지의 최초 사본에는 "함께하고 싶은 소망이 나날이 커집니다."라고 나와 있다.
16. Joseph Smith to John C. Bennett, Aug. 8, 1840, in *JSP*, D7:370-74.
17. Joseph Smith, Discourse, circa July 19, 1840, in *JSP*, D7:340-45. **주제: 이스라엘의 집합; 사온/새 예루살렘; 나부 성전**
18.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17, [7]; book 18, [1]-[10]; Funeral Address, *Times and Seasons*, Sept. 1840, 1:170-73; Vilate Murray Kimball to Heber C. Kimball, Sept. 6, 1840, Heber C. Kimball, Letters, Church History Library; Obituary for Seymour Brunson, *Times and Seasons*, Sept. 1840, 1:176.
19. Jane Neyman, Statement, Nov. 29, 1854, Historian's Office, Joseph Smith History Documents, Church History Library; Historical Department, *Journal History of the Church*, Aug. 15, 1840; Brunson, "Short Sketch of Seymour Brunson, Sr.," 3-4; 교리와 성약 137편 (Visions, Jan. 21, 1836, at josephsmithpapers.org); see also Tobler, "Saviors on Mount Zion," 186, note 12.
20. 고린도전서 15:29.
21. Simon Baker, "15 Aug. 1840 Minutes of Recollection of Joseph Smith's Sermon," Joseph Smith Collection, Church History Library.
22. Jane Neyman, Statement, Nov. 29, 1854, Historian's Office, Joseph Smith History Documents, Church History Library. **주제: 죽은 자를 위한 침례**
23. Joseph Smith to John C. Bennett, Aug. 8, 1840, in *JSP*, D7:372-73; "Mormonism—Gen. Bennett, &c.," *Times and Seasons*, Oct. 15, 1842, 3:955; "Bennett, John Cook," Biographical Entry, Joseph Smith Papers website, josephsmithpapers.org; News Item, *Times and Seasons*, Dec. 1, 1840, 2:234.
24.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17, [7]; book 18, [3]-[4].
25.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18, [3]-[9]; Lucy Mack Smith, History, 1845, 296, 301; Smith, *Biographical Sketches*, 267. **주제: 조셉 스미스 일세**

26. Vilate Kimball to Heber C. Kimball, Oct. 11, 1840, Vilate M. Kimball, Letters, Church History Library.
27. Conference Minutes, *Times and Seasons*, Oct. 1840, 1:185-87; Vilate Kimball to Heber C. Kimball, Oct. 11, 1840, Vilate M. Kimball, Letters, Church History Library; Nauvoo Temple, Baptisms for the Dead, book A, 149, microfilm 183, 376, U.S. and Canada Record Collection, Family History Library; Black and Black, *Annotated Record of Baptisms for the Dead*, 6:3361; see also Nauvoo Temple, Baptisms for the Dead, 1840-45, Church History Library.
28. Vilate Kimball to Heber C. Kimball, Oct. 11, 1840, Vilate M. Kimball, Letters, Church History Library.
29. Isaac Hale, Affidavit, Mar. 20, 1834, in "Mormonism," *Susquehanna Register and Northern Pennsylvanian*, May 1, 1834, [1].
30. Nauvoo Temple, Baptisms for the Dead, book A, 45.
31. Act to Incorporate the City of Nauvoo, Dec. 16, 1840, in *JSP*, D7:472-88; Conference Minutes, *Times and Seasons*, Oct. 1840, 1:186.
32. News Item, *Times and Seasons*, Jan. 15, 1841, 2:287. **주제: 초기 선교사들**
33. "Report from the Presidency," *Times and Seasons*, Oct. 1840, 1:188.
34. Act to Incorporate the City of Nauvoo, Dec. 16, 1840, in *JSP*, D7:472-88; Joseph Smith and others, Proclamation, Jan. 15, 1841, in *JSP*, D7:503-4; see also Bushman, *Rough Stone Rolling*, 410-12.
35. 교리와 성약 124:19, 91~96, 127 (Revelation, Jan. 19, 1841, at josephsmithpapers.org). **주제: 하이럼 스미스**
36. 교리와 성약 124:16~17(Revelation, Jan. 19, 1841, at josephsmithpapers.org).
37. 교리와 성약 124:22-24, 49~54, 60~61 (Revelation, Jan. 19, 1841, at josephsmithpapers.org).
38. 교리와 성약 124:40(Revelation, Jan. 19, 1841, at josephsmithpapers.org); see also Smith, "Organizing the Church in Nauvoo," 264-71. **주제: 나부 성전**
39. 교리와 성약 124:29~38 (Revelation, Jan. 19, 1841, at josephsmithpapers.org). **주제: 죽은 자를 위한 침례**
40. 교리와 성약 124:41~42 (Revelation, Jan. 19, 1841, at josephsmithpapers.org); see also Smith, "Organizing the Church in Nauvoo," 264-71.
41. 교리와 성약 124:55 (Revelation, Jan. 19, 1841, at josephsmithpapers.org).
42. "Municipal Election," *Times and Seasons*, Feb. 1, 1841, 2:309; "Inaugural Address," *Times and Seasons*, Feb. 15, 1841, 2:316-18; "Trial of Elder Rigdon," *Times and Seasons*, Sept. 15, 1844, 5:655; An Act to Incorporate the City of Nauvoo [Dec. 16, 1840], *Laws of the State of Illinois*, p. 55, section 16; "Bennett, John Cook," Biographical Entry, Joseph Smith Papers website, josephsmithpapers.org.
43. "Memoirs of President Joseph Smith," *Saints' Herald*, Jan. 8, 1935, 49.

제36장: 그들이 집합하게 하소서

1. Maughan, *Autobiography*, [29]-[34].
2. Maughan, *Autobiography*, [29]-[34]; Allen and others, *Men with a Mission*, 302, note 37; Winters, *Reminiscences*, 10; see also Minutes, Apr. 6, 1841, in *LDS Millennial Star*, Apr. 1841, 1:302.
3. Allen and others, *Men with a Mission*, 225-26.
4. Allen and Thorp, "Mission of the Twelve to England," 503, 510-14; Givens and Grow, *Parley P. Pratt*, 182-83.
5. See, for example, Richard Livesey, *Exposure of Mormonism* (Preston: J. Livesey, 1838); see also "Mission to England," *LDS Millennial Star*, Apr. 1841, 1:295; Givens and Grow, *Parley P. Pratt*, 183, 186; and Foster, *Penny Tracts and Polemics*.
6. "From England," *Times and Seasons*, June 1840, 1:119-22. **주제: 교회의 정기 간행물**

7. Maughan, *Autobiography*, [30]–[31], [35]–[38]; see also “Proclamation to the Saints Scattered Abroad,” *LDS Millennial Star*, Mar. 1841, 1:270–71; and “Epistle of the Twelve,” *LDS Millennial Star*, Apr. 1841, 1:310–11.
8. “Celebration of the Anniversary” and “Communication,” *Times and Seasons*, Apr. 15, 1841, 2:375–77, 380–83; Report, *Warsaw Signal*, June 9, 1841, [2].
9. *Biographical Review of Hancock County, Illinois*, 109; see also Hamilton, “Thomas Sharp’s Turning Point,” 19.
10. See Report, *Western World*, Jan. 20, 1841, [2].
11. “Celebration of the Anniversary” and “Communication,” *Times and Seasons*, Apr. 15, 1841, 2:375–77, 380–83; “The Mormons,” *Western World*, Apr. 7, 1841, [3]; Report, *Warsaw Signal*, June 9, 1841, [2]; “Life of Norton Jacob,” 6; see also Leonard, *Nauvoo*, 233–34.
12. “Celebration of the Anniversary” and “Communication,” *Times and Seasons*, Apr. 15, 1841, 2:375–77, 380–83. **주제: 나무 성전**
13. Report, *Warsaw Signal*, June 9, 1841, [2]; Joseph Smith, Journal, Jan. 29, 1843, in *JSP*, J2:253.
14. “The Mormons,” *Western World*, Apr. 7, 1841, [3]; Joseph Smith, Letter to the Editors, *Times and Seasons*, May 15, 1841, 2:414.
15. See Whitney, *Why We Practice Plural Marriage*, 23–24; Esplin, “Joseph Smith’s Mission and Timetable,” 298–99, 303–4; and “커틀랜드와 나부에서의 복수 결혼, 복음 주제, topics.lds.org.
16. Pratt, *Autobiography*, 329; 교리와 성약 132:19(Revelation, July 12, 1843, at josephsmithpapers.org). **주제: 인봉**
17. 야곱서 2:27, 30.
18. 교리와 성약 132:29–37, 63 (Revelation, July 12, 1843, at josephsmithpapers.org); 창세기 16:3–12; 17. **주제: 조셉 스미스와 복수결혼**
19. Nauvoo City Council Minute Book, Mar. 1, 1841, 13. 조례에는 구체적으로 “Mahommedans”라고 명시되었는데, 이는 19세기에 이슬람교도를 일컬어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말이었다.
20. 예를 들어 교리와 성약 98:3–6(Revelation, Aug. 6, 1833, at josephsmithpapers.org); 교리와 성약 134편 (Declaration on Government and Law, circa Aug. 1835, at josephsmithpapers.org) 참조.
21. “커틀랜드와 나부에서의 복수 결혼, 복음 주제, topics.lds.org.
22. Temple Lot Transcript, part 3, 395, questions 40–41; Joseph Bates Noble, Affidavit, June 6, 1869, in Affidavits about Celestial Marriage, 1:38; “Plural Marriage,” *Historical Record*, May 1887, 221.
23. Temple Lot Transcript, part 3, 395, questions 40–41.
24. Joseph Bates Noble, Affidavit, June 6, 1869, in Affidavits about Celestial Marriage, 1:38.
25. Joseph Bates Noble, Affidavit, June 6, 1869, in Affidavits about Celestial Marriage, 1:38; Temple Lot Transcript, part 3, 395–96, questions 43–49; Franklin D. Richards, Journal, Jan. 22, 1869; Charles Lowell Walker, Diary, June 17, 1883, in Larson and Larson, *Diary of Charles Lowell Walker*, 2:610; see also Woodruff, Journal, Jan. 22, 1869.
26. See “The Mormon Plot and League,” *Sangamo Journal*, July 8, 1842, [2]; and “Trouble among Judge Ford’s Constituents,” *Alton Telegraph and Democratic Review*, July 2, 1842, [2].
27. “Appointment,” *Warsaw Signal*, May 19, 1841, [2].
28. “The Mormons,” *Warsaw Signal*, May 19, 1841, [2].
29. “Highly Important,” *Warsaw Signal*, June 2, 1841, [2]; see also “The Warsaw Signal,” *Times and Seasons*, June 1, 1841, 2:431–33.
30. “Highly Important,” *Warsaw Signal*, June 2, 1841, [2]; “The Mormons,” *Warsaw Signal*, May 19, 1841, [2].
31. “Read and Ponder,” *Warsaw Signal*, June 9, 1841, [2].
32. “The Warsaw Signal,” *Times and Seasons*, June 1, 1841, 2:431–33.
33. Britton, *Bath and Bristol*, 6. **주제: 영국; 이스라엘의 집합**

34. Maughan, *Autobiography*, [38]-[44], [48]-[49]; "Bristol to Quebec, 10 May 1841-12 July 1841," Mormon Migration website, mormonmigration.lib.byu.edu; "Phelps, William Wines," Biographical Entry, Joseph Smith Papers website, josephsmithpapers.org. **주제: 오하이오주 커틀랜드**
35. Maughan, *Autobiography*, [38]-[44], [48]-[49].
36. *Tullidge's Histories*, volume 2, supplement, 34-35.
37. Maughan, *Autobiography*, [52]-[53]; see also Ward, "John Needham's Nauvoo Letter: 1843," 41; and Pratt, *Autobiography*, 47.
38. Hyde, *Voice from Jerusalem*, 7, 16; see also Bartlett, *Walks about the City and Environs of Jerusalem*, 14.
39. Hyde, *Voice from Jerusalem*, 7-19, 27-28.
40. Hyde, *Voice from Jerusalem*, 28-29; 또한 조셉 스미스—마태 1:3; 누가복음 19:44; 21:6; 마가복음 13:2; 마태복음 24:2 참조.
41. Hyde, *Voice from Jerusalem*, 28-32; 3 Nephi 20:29-37.
42. Hyde, *Voice from Jerusalem*, 30, 32-33. **주제: 성지 헌납**

제37장: 우리는 그들을 시험하여

1. Joseph Smith to Edward Hunter, Jan. 5, 1842, Joseph Smith Collection, Church History Library; Joseph Smith, Journal, Jan. 5, 1842, in *JSP*, J2:21.
2. 교리와 성약 109:69(Prayer of Dedication, Mar. 27, 1836, at josephsmithpapers.org); 교리와 성약 124:9(Revelation, Jan. 19, 1841, at josephsmithpapers.org) 참조.
3. See Woodruff, Journal, Feb. 19, 1842; and "A Translation," *Times and Seasons*, Mar. 1, 1842, 3:704-6. **주제: 아브라함서 번역**
4. Abraham 3:25-26; "The Book of Abraham," *Times and Seasons*, Mar. 15, 1842, 3:720.
5. Joseph Smith, Journal, Jan. 6, 1842, in *JSP*, J2:26; 또한 요한계시록 5:10; 교리와 성약 124:39~41(Revelation, Jan. 19, 1841, at josephsmithpapers.org); *JSP*, J2:54, note 198; and Bushman, *Rough Stone Rolling*, 448-49 참조. **주제: 성전 엔다우먼트**
6. Heber C. Kimball, Discourse, Sept. 2, 1866, George D. Watt Papers, Church History Library, as transcribed by LaJean Purcell Carruth.
7. Brigham Young, in *Journal of Discourses*, July 14, 1855, 3:266; John Taylor, "Sermon in Honor of the Martyrdom," June 27, 1854, George D. Watt Papers, Church History Library, as transcribed by LaJean Purcell Carruth; "Scenes and Incidents in Nauvoo," *Woman's Exponent*, Oct. 15, 1881, 10:74; Whitney, *Life of Heber C. Kimball*, 336.
8. See Crocheron, *Representative Women of Deseret*, 26; "Plural Marriage in Kirtland and Nauvoo(커틀랜드와 나부에서의 복수 결혼)", 복음 주제, topics.lds.org. **주제: 조셉 스미스와 복수결혼**
9. 조셉 스미스는 복수 결혼을 통해 자녀들을 낳았을 수도 있으나, 지금까지는 후손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실시한 유전자 검사에서 모두 그와 불일치하는 것으로 나왔다.(“커틀랜드와 나부에서의 복수 결혼”, 복음 주제, topics.lds.org 참조)
10. “커틀랜드와 나부에서의 복수 결혼”, 복음 주제, topics.lds.org 참조
11. Mary Elizabeth Rollins Lightner, Remarks, Apr. 14, 1905, 3-5, Church History Library; Mary Elizabeth Rollins Lightner, Affidavit, Mar. 23, 1877, Collected Material Concerning Joseph Smith and Plural Marriage, Church History Library; Mary Elizabeth Rollins Lightner to Wilford Woodruff, Salt Lake City, Oct. 7, 1887; "Mary Elizabeth Rollins Lightner," *Utah Genealogical and Historical Magazine*, July 1926, 26:197, 203.
12. Mary Elizabeth Rollins Lightner, Remarks, Apr. 14, 1905, 3-5, Church History Library.
13. Mary Elizabeth Rollins Lightner, "Mary Elizabeth Rollins," copy, Susa Young Gates Papers, Utah State Historical Society, Salt Lake City.
14. See Mary Elizabeth Rollins Lightner, Remarks, Apr. 14, 1905, 2, Church History Library.
15. Mary Elizabeth Rollins Lightner, Remarks, Apr. 14, 1905, 7, Church History Library.

16. Mary Elizabeth Rollins Lightner, "Mary Elizabeth Rollins," copy, Susa Young Gates Papers, Utah State Historical Society, Salt Lake City; Mary Elizabeth Rollins Lightner, Remarks, Apr. 14, 1905, 4, Church History Library; Mary Elizabeth Rollins Lightner to Emmeline B. Wells, summer 1905, Mary Elizabeth Rollins Lightner, Collection, Church History Library.
17. Mary Elizabeth Rollins Lightner, Remarks, Apr. 14, 1905, 4-7, Church History Library.
18. Mary Elizabeth Rollins Lightner, Remarks, Apr. 14, 1905, 4-7, Church History Library; Mary Elizabeth Rollins Lightner, "Mary Elizabeth Rollins," copy, Susa Young Gates Papers, Utah State Historical Society, Salt Lake City.
19. Mary Elizabeth Rollins Lightner, Affidavit, Mar. 23, 1877, Church History Library; Mary Elizabeth Rollins Lightner, "Mary Elizabeth Rollins," copy, Susa Young Gates Papers, Utah State Historical Society, Salt Lake City; see also Mary Elizabeth Rollins Lightner to John Henry Smith, Jan. 25, 1892, George A. Smith Family Papers, Marriott Library, University of Utah, Salt Lake City, quoted in Hales, *Joseph Smith's Polygamy*, 1:436, note 90; and Mary Elizabeth Rollins Lightner, Statement, Feb. 8, 1902, Mary Elizabeth Rollins Lightner, Collection, Church History Library.
20. 아브라함서 3:1, 23~24; 4:1~28; see also "A Translation," *Times and Seasons*, Mar. 1, 1842, 3:703-18; and "The Book of Abraham," *Times and Seasons*, Mar. 15, 1842, 3:719-34. **주제: 아브라함서 번역**
21. Gregg, *History of Hancock County*, Illinois, 296-98.
22. Leonard, *Nauvoo*, 249. **주제: 와드와 스테이크**
23. Clayton, History of the Nauvoo Temple, 3-4, 6, 13-14, 20-21; Sarah M. Kimball, Reminiscence, Mar. 17, 1882, in Derr and others, *First Fifty Years of Relief Society*, 495; Joseph Smith History, volume C-1, addenda, 44; Maughan, *Autobiography*, [54]; see also McGavin, Nauvoo Temple, 50-51. **주제: 나무 성전; 죽은 자를 위한 침례**
24. Crocheron, *Representative Women of Deseret*, 26-27.
25. Sarah M. Granger Kimball, "Auto-biography," *Woman's Exponent*, Sept. 1, 1883, 12:51; compare Sarah M. Kimball, Reminiscence, Mar. 17, 1882, in Derr and others, *First Fifty Years of Relief Society*, 495; see also 6-7.
26. Sarah M. Kimball, Reminiscence, Mar. 17, 1882, in Derr and others, *First Fifty Years of Relief Society*, 495.
27. Nauvoo Relief Society Minute Book, Mar. 17, 1842, in Derr and others, *First Fifty Years of Relief Society*, 28-30.
28. See Derr and others, Women of Covenant, 29-30. 이 여성들 및 나무의 상호부조회에 속했던 다른 여성들의 약력을 보려면, churchhistorianspress.org를 참조한다.
29. Joseph Smith, Journal, Mar. 16, 1842, in *JSP*, J2:45; Woodruff, Journal, Mar. 15, 1843; Nauvoo Masonic Lodge Minutes, Mar. 15-16, 1842.
30. Nauvoo Relief Society Minute Book, Mar. 17, 1842, in Derr and others, *First Fifty Years of Relief Society*, 28-31; 또한 "Joseph Smith's Teachings about Priesthood, Temple, Women(신권, 성전 및 여성에 관한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복음 주제, topics.lds.org 참조.
31. Joseph Smith, Journal, Mar. 17, 1842, in *JSP*, J2:45; Nauvoo Relief Society Minute Book, Mar. 17, 1842, in Derr and others, *First Fifty Years of Relief Society*, 32-34; 교리와 성약 25:3 (Revelation, July 1830-C, at josephsmithpapers.org); "Joseph Smith's Teachings about Priesthood, Temple, Women(신권, 성전 및 여성에 관한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복음 주제, topics.lds.org.
32. Nauvoo Relief Society Minute Book, Mar. 17, 1842, in Derr and others, *First Fifty Years of Relief Society*, 34-36; 내 왕국의 딸들, 11~14쪽; Derr and others, Women of Covenant, 26-31; 또한 고린도전서 13:3 참조. **주제: 나무의 여성 상호부조회; 에머 헤일 스미스**
33. Nauvoo Relief Society Minute Book, Mar. 31, 1842, in Derr and others, *First Fifty Years of Relief Society*, 42. 원본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 "그는 바울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이 조직을 에녹 시대에 있었던 제사들의 왕국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주제: 성전 엔다우먼트**
34. Nauvoo Relief Society Minute Book, Mar. 31, 1842; Copied Documents, Mar. 31, 1842, in Derr and others, *First Fifty Years of Relief Society*, 42, 97-99; Joseph Smith, Journal, Mar. 31, 1842, in *JSP*, J2:48.

35. Woodruff, Journal, Apr. 10, 1842.
36. Nauvoo Relief Society Minute Book, Apr. 28, 1842, in Derr and others, *First Fifty Years of Relief Society*, 59.
37. Lucius N. Scovil, Letter to the Editor, Jan. 2, 1884, *Deseret Evening News*, Feb. 11, 1884, [2]; Launius and McKiernan, Joseph Smith, Jr.'s Red Brick Store, 28; see also McBride, *House for the Most High*, 100, note 10.
38. Joseph Smith, Journal, May 4, 1842, in *JSP*, J2:53-54;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C-1, 1328.
39. 창세기 3:21; 출애굽기 40:12~13; Historian's Office, Joseph Smith History, draft notes, May 4, 1842 참조. **주제: 성전 엔다우먼트**
40. 아브라함서 3~5장; Facsimile no. 2, fig. 3.
41. See Joseph Smith, Journal, May 1, 1842, in *JSP*, J2:53; Historian's Office, Joseph Smith History draft notes, May 4, 1842;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C-1, 1328; see also Brigham Young, in *Journal of Discourses*, Apr. 6, 1853, 2:31.
42. Heber C. Kimball to Parley P. Pratt, June 17, 1842, Parley P. Pratt Correspondence, Church History Library; Historian's Office, Joseph Smith History, draft notes, May 4, 1842;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C-1, 1328. **주제: 기름 부음 받은 정원회("기록한 반차")**
43. Nuttall, Diary, Feb. 7, 1877.
44. Godfrey, "Joseph Smith and the Masons," 83; Harper, "Freemasonry and the Latter-day Saint Temple Endowment Ceremony," 143-57; Joseph Smith, Journal, Mar. 15, 1842, in *JSP*, J2:45; Heber C. Kimball to Parley P. Pratt, June 17, 1842, Parley P. Pratt Correspondence, Church History Library. **주제: 프리메이슨**
45. Heber C. Kimball to Parley P. Pratt, June 17, 1842, Parley P. Pratt Correspondence, Church History Library.

제38장: 반역자인지 참된 성도인지

1. Boggs, "Short Biographical Sketch of Lilburn W. Boggs," 107-8; "A Foul Deed," *Daily Missouri Republican*, May 12, 1842, [2]; "Governor Boggs," *Jeffersonian Republican*, May 14, 1842.
2. Boggs, "Short Biographical Sketch of Lilburn W. Boggs," 107-8; Joseph Smith, Letter to the Editor, *Quincy Herald*, June 2, 1842, [2]; Launius, "Boggs, Lilburn W.," in Christensen and others, *Dictionary of Missouri Biography*, 92; Hill, "Honey War," 81-88; Gordon, "Public Career of Lilburn W. Boggs," 110-12, 138; Walker, "Lilburn W. Boggs and the Case of Jacksonian Democracy," 81-82; Baugh, "Missouri Governor Lilburn W. Boggs and the Mormons," 116.
3. "A Foul Deed," *Daily Missouri Republican*, May 12, 1842; "Governor Boggs," *Jeffersonian Republican*, May 14, 1842, [2]; Boggs, "Short Biographical Sketch of Lilburn W. Boggs," 107-8; see also Thurston, "The Boggs Shooting," 7-11.
4. "Affidavit of Hyrum Smith," *Times and Seasons*, Aug. 1, 1842, 3:870-71; see also *JSP*, J2:xxviii, note 64; and Hales, *Joseph Smith's Polygamy*, 1:560-62.
5. "Affidavit of Hyrum Smith," *Times and Seasons*, Aug. 1, 1842, 3:870-71; Nauvoo Stake High Council Minutes, May 25, 1842; George Miller, "To the Church of Jesus Christ," *Times and Seasons*, July 1, 1842, 3:839-42; Smith, *Saintly Scoundrel*, 78-79.
6. George Miller, "To the Church of Jesus Christ," *Times and Seasons*, July 1, 1842, 3:840; "Affidavit of Hyrum Smith," *Times and Seasons*, Aug. 1, 1842, 3:870; Smith, *Saintly Scoundrel*, 79-80; see also "Letter from L. D. Wasson," *Times and Seasons*, Aug. 15, 1842, 3:892.
7. "Affidavit of Hyrum Smith," *Times and Seasons*, Aug. 1, 1842, 3:870, 872; Notice, May 11, 1842, Joseph Smith Collection, Church History Library; "Notice," *Times and Seasons*, June 15, 1842, 3:830; see also *JSP*, J2:55, note 207.

8. "Affidavit of Hyrum Smith," *Times and Seasons*, Aug. 1, 1842, 3:870-71. 하이럼 스미스의 기록에 따르면, 조셉은 또한 존 베넷에게 다음과 같이 묻기도 했다. "제가 한 번이라도 간통과 간음이 옳다고 하거나 일부다처제 혹은 그와 유사한 행위를 가르친 적이 있습니까?" 이에 베넷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제40장에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복수 결혼을 일부다처제와는 다른 것으로 보았다는 내용이 나온다.
9. "New Election of Mayor, and Vice Mayor, of the City of Nauvoo," *Wasp*, May 21, 1842, [3]; *JSP*, J2:58, note 222.
10. Joseph Smith, Journal, May 19, 1842, in *JSP*, J2:58-60; "New Election of Mayor, and Vice Mayor, of the City of Nauvoo," *Wasp*, May 21, 1843, [3]; see also "Affidavit of Hyrum Smith," *Times and Seasons*, Aug. 1, 1842, 3:872.
11. "Assassination of Ex-Governor Boggs of Missouri," *Quincy Whig*, May 21, 1842, [3]; see also "A Foul Deed," *Daily Missouri Republican*, May 12, 1842, [2]; and "Governor Boggs," *Jeffersonian Republican*, May 14, 1842. **주제: 미주리 송환 시도**
12. Joseph Smith, Letter to the Editor, *Quincy Whig*, June 4, 1842, [2]; see also Joseph Smith, Journal, May 22, 1842, in *JSP*, J2:62; and Joseph Smith, Letter to the Editor, May 22, 1842, *Quincy Herald*, June 2, 1842, [2].
13. Joseph Smith, Journal, May 21, 1842, in *JSP*, J2:62; Nauvoo Stake High Council Minutes, May 20-28, 1842.
14. Catherine Warren, Testimony, May 25, 1842, Testimonies in Nauvoo High Council Cases, Church History Library; Nauvoo Stake High Council Minutes, May 20-28, 1842; see also "Chauncy L. Higbee," *Nauvoo Neighbor*, May 29, 1844, [3]. **주제: 교회의 선도 조치**
15. Historian's Office, Joseph Smith History, draft notes, May 25, 1842; see also Joseph Smith, Journal, May 26, 1842, in *JSP*, J2:63; and "Affidavit of Wm. Law," *Times and Seasons*, Aug. 1, 1842, 3:873.
16. Historian's Office, Joseph Smith History, draft notes, May 26, 1842; "Affidavit of Hyrum Smith," *Times and Seasons*, Aug. 1, 1842, 3:872; Joseph Smith, Journal, May 11 and 26, 1842, in *JSP*, J2:55, 63; see also 55, note 207.
17. Nauvoo Relief Society Minute Book, May 26, 1842, in Derr and others, *First Fifty Years of Relief Society*, 69-71.
18. See Smith, *Saintly Scoundrel*, 91.
19. Nauvoo Relief Society Minute Book, Apr. 28 and May 27, 1842, in Derr and others, *First Fifty Years of Relief Society*, 52-54, 72-77. **주제: 나부의 여성 상호부조회**
20. Nauvoo Relief Society Minute Book, May 27, 1842, in Derr and others, *First Fifty Years of Relief Society*, 75-76; see also 75, note 188.
21. Alexander, *Things in Heaven and Earth*, 103-4.
22. Woodruff, Journal, Apr. 29, 1842.
23. See Nauvoo Relief Society Minute Book, May 19-June 9, 1842, in Derr and others, *First Fifty Years of Relief Society*, 65-79.
24. "Affidavit of Hyrum Smith," *Times and Seasons*, Aug. 1, 1842, 3:872; "Notice," *Times and Seasons*, June 15, 1842, 3:830; Joseph Smith, Journal, May 26, 1842, in *JSP*, J2:63; see also 63, note 249; and "Affidavit of Wm. Law," *Times and Seasons*, Aug. 1, 1842, 3:872-73.
25. Discourse, June 18, 1842, as reported by Wilford Woodruff, at josephsmithpapers.org.
26. "Affidavit of Hyrum Smith," *Times and Seasons*, Aug. 1, 1842, 3:872; Nauvoo Relief Society Minute Book, June 23, 1842, in Derr and others, *First Fifty Years of Relief Society*, 84-85; see also 84, note 206.
27. Joseph Smith, Letter to the Church, June 23, 1842, *Times and Seasons*, July 1, 1842, 3:839-42.
28. "Astounding Mormon Disclosures! Letter from Gen. Bennett," *Sangamo Journal*, July 8, 1842, [2]; "Further Mormon Developments!! 2d Letter from Gen. Bennett" and "Gen. Bennett's Third Letter," *Sangamo Journal*, July 15, 1842, [2]; "Gen. Bennett's 4th Letter," *Sangamo Journal*, July 22, 1842, [2]; Smith, *Saintly Scoundrel*, 98.
29. Lilburn W. Boggs Affidavit, July 20, 1842, in *JSP*, J2:379-80; see also Introduction to Appendix 1, in *JSP*, J2:377.
30. Thomas Reynolds, Requisition, July 22, 1842, in *JSP*, J2:380-81.

31. Joseph Smith, Journal, May 6, 1842, in *JSP*, J2:54; Nauvoo Female Relief Society, Petition to Thomas Carlin, circa July 22, 1842, in Derr and others, *First Fifty Years of Relief Society*, 136-41; Nauvoo City Council Minute Book, July 22, 1842, 95-97; Nauvoo City Council Draft Minutes, July 22, 1842, 36;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C-1, 1359.
32. Eliza R. Snow, Journal, July 29, 1842; Introduction to Nauvoo Female Relief Society, Petition to Thomas Carlin, circa July 22, 1842, in Derr and others, *First Fifty Years of Relief Society*, 137; Thomas Carlin, Proclamation, Sept. 20, 1842, in *JSP*, J2:381-82.
33. Orrin Porter Rockwell, by S. Armstrong, to Joseph Smith, Dec. 1, 1842, Joseph Smith Collection, Church History Library; Writ of Habeas Corpus for Joseph Smith, Aug. 8, 1842, copy, Nauvoo, IL, Records, Church History Library; Joseph Smith, Journal, Aug. 8-10, 1842, in *JSP*, J2:81-83; see also 81, note 319; and "Persecution," *Times and Seasons*, Aug. 15, 1842, 3:886-89.

제39장: 일곱 번째 난관

1. Joseph Smith, Journal, Aug. 8-11, 1842, in *JSP*, J2:83.
2. Joseph Smith, Journal, Aug. 8-11 and 16, 1842, in *JSP*, J2:81-84, 93-94; Orrin Porter Rockwell, by S. Armstrong, to Joseph Smith, Dec. 1, 1842, Joseph Smith Collection, Church History Library.
3. Joseph Smith, Journal, Aug. 11, 1842, in *JSP*, J2:83-84;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D-1, 1364; see also Thomas Carlin, Writ, Aug. 2, 1842, Ex Parte Joseph Smith for Accessory to Boggs Assault, copy, Nauvoo, IL, Records, Church History Library.
4. Joseph Smith, Journal, Aug. 11 and 16, 1842, in *JSP*, J2:83-85, 93-95; on the "seventh trouble," see Job 5:19. **주제: 에머 헤일 스미스**
5. Joseph Smith, Journal, Aug. 13-14 and Sept. 9, 1842, in *JSP*, J2:85-89, 143. **주제: 미주리 송환 시도**
6. Joseph Smith, Journal, Aug. 15, 1842, in *JSP*, J2:90-92; Rowley, "Mormon Experience in the Wisconsin Pineries," 121.
7. Joseph Smith to Emma Smith, Aug. 16, 1842, in *JSP*, J2:107-10; see also Joseph Smith, Journal, Aug. 16, 1842, in *JSP*, J2:93.
8. Emma Smith to Joseph Smith, Aug. 16, 1842, in *JSP*, J2:110-11.
9. Emma Smith to Thomas Carlin, Aug. 16, 1842, in *JSP*, J2:111-14.
10. Thomas Carlin to Emma Smith, Aug. 24, 1842, in *JSP*, J2:126-28.
11. Emma Smith to Thomas Carlin, Aug. 27, 1842, in *JSP*, J2:128-30.
12. Joseph Smith, Journal, Aug. 29, 1842, in *JSP*, J2:122; see also Eliza R. Snow, Journal, Aug. 14-Sept. 4, 1842.
13. Maughan, *Autobiography*, [51], [54].
14. See Leonard, *Nauvoo*, 154-61.
15. Maughan, *Autobiography*, [55]; Joseph Smith, Journal, Jan. 12-16, 1842, in *JSP*, J2:24.
16. Maughan, *Autobiography*, [54].
17. See Givens, *In Old Nauvoo*, 154-55, 158, 187-88, 221-22. **주제: 1세대 후기 성도의 일상**
18. Joseph Smith, Journal, Aug. 23-29, 1842, in *JSP*, J2:119-24.
19. Joseph Smith, Journal, Aug. 31, 1842, in *JSP*, J2:124; Nauvoo Relief Society Minute Book, Aug. 31, 1842, in Derr and others, *First Fifty Years of Relief Society*, 93.
20. Joseph Smith, Journal, Aug. 3, 1842, *JSP*, J1:124-26.
21. Joseph Smith to "all the Saints in Nauvoo," Sept. 1, 1842, in *JSP*, J2:131-33; Doctrine and Covenants 127; "Tidings," *Times and Seasons*, Sept. 15, 1842, 3:919-20. **주제: 죽은 자를 위한 참례**
22. Joseph Smith to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Sept. [7], 1842, in *JSP*, J2:149-50; Doctrine and Covenants 128:18-24; "Letter from Joseph Smith," *Times and Seasons*, Oct. 1, 1842, 3:934-36; see also McBride, "Letters on Baptism for the Dead," 272-76; and *JSP*, J2:143, note 491.

23. Thomas Carlin to Emma Smith, Sept. 7, 1842, in *JSP*, J2:151-53.
24. Bennett, History of the Saints: "On Marriage," *Times and Seasons*, Oct. 1, 1842, 3:939-40; Smith, *Saintly Scoundrel*, 114-22; see also "The Discussion by General Bennett about Joe Smith and the Mormons," *New York Herald*, Aug. 31, 1842, [2].
25. See Joseph Smith to James Arlington Bennet, Sept. 8, 1842, in *JSP*, J2:137-43; and Joseph Smith, Journal, Oct. 5, 1842, in *JSP*, J2:161.
26. Thomas Ford to Joseph Smith, Dec. 17, 1842, in *JSP*, J2:179-81.
27. Joseph Smith, Journal, Dec. 26, 1842, in *JSP*, J2:193-94; see also Editorial Note, *JSP*, J2:194.
28. "From the Editor," *Alton Telegraph and Democratic Review*, Jan. 7, 1843, [2]; "Important from Illinois—Arrest of Joe Smith," *New York Herald*, Jan. 18, 1843, [2].
29. Arnold, *Reminiscences of the Illinois Bar*, 3; "Important from Illinois—Arrest of Joe Smith," *New York Herald*, Jan. 18, 1843, [2]; Joseph Smith, Journal, Jan. 4, 1843, in *JSP*, J2:216.
30. Arnold, *Reminiscences of the Illinois Bar*, 3; Joseph Smith, Journal, Jan. 4, 1843, in *JSP*, J2:216-27; Court Ruling, Jan. 5, 1843, in *JSP*, J2:401. **주제: 미주리 송환 시도**
31. Joseph Smith, Journal, Jan. 4, 1843, in *JSP*, J2:222-24.
32. Joseph Smith, Journal, Jan. 5, 1843, in *JSP*, J2:227-34; Court Ruling, Jan. 5, 1843, in *JSP*, J2:391-402. **주제: 미국의 법적 제도와 정치 제도**

제40장: 영원한 성약 안에 하나 되어

1. Joseph Smith, Journal, Jan. 10 and 18, 1843, in *JSP*, J2:243, 245-46.
2. Joseph Smith, Journal, Apr. 16, 1843, in *JSP*, J2:360.
3. Woodruff, Journal, Jan. 22, 1843; Doctrine and Covenants 130:20-21 (Instruction, Apr. 2, 1843, as reported by Willard Richards and William Clayton, at josephsmithpapers.org).
4. See Haven, "A Girl's Letters from Nauvoo," 616-38; and Joseph Smith, Journal, Jan. 11, 1843, in *JSP*, J2:243.
5. Woodruff, Journal, Mar. 1, 1843; Nauvoo Relief Society Minute Book, Sept. 28, 1842-June 16, 1843, in Derr and others, *First Fifty Years of Relief Society*, 96-100; Emily Dow Partridge Young, "Autobiography," *Woman's Exponent*, Aug. 1, 1885, 14:37-38; Young, "Incidents in the Life of a Mormon Girl," 51; Lyman, Journal, 13; see also Jeffress, "Mapping Historic Nauvoo," 274-75; and Trustees Land Book A, White Purchase, block 146, lot 2.
6. "Young, Emily Dow Partridge," Biographical Entry, *First Fifty Years of Relief Society* website, churchhistorianspress.org; Nauvoo Relief Society Minute Book, Apr. 28, 1842, in Derr and others, *First Fifty Years of Relief Society*, 53; "Huntington, William, Sr.," Biographical Entry, Joseph Smith Papers website, josephsmithpapers.org; "Married," *Times and Seasons*, Oct. 1840, 1:191; "Plural Marriage in Kirtland and Nauvoo," Gospel Topics, topics.lds.org; Temple Lot Transcript, part 3, 373, 385, questions 532-34, 770; "Nauvoo Journals, December 1841-April 1843," in *JSP*, J2:xxix-xxx.
7. Young, Diary and Reminiscences, 1-2; Young, "Incidents in the Life of a Mormon Girl," 54.
8. Young, Diary and Reminiscences, 1-2; Young, "Incidents in the Life of a Mormon Girl," 54.
9. Young, Diary and Reminiscences, 1-2; Young, "Incidents in the Life of a Mormon Girl," 54.
10. Lyman, Journal, 13; Eliza Partridge Kimball, Affidavit, July 1, 1869, in Affidavits about Celestial Marriage, 2:32. **주제: 조셉 스미스와 복수결혼**
11. See Brigham Young, Discourse, Oct. 1866, George D. Watt, Discourse Shorthand Notes, Oct. 8, 1866, George D. Watt, Papers, as transcribed by LaJean Purcell Carruth, copy at Church History Library.
12. Brigham Young, Discourse, Oct. 1866, George D. Watt, Discourse Shorthand Notes, Oct. 8, 1866, George D. Watt, Papers, as transcribed by LaJean Purcell Carruth, copy at Church History Library.

13. "Biography of Mary Ann Angell Young," *Juvenile Instructor*, Jan. 15, 1891, 26:57-58; Arrington, *Brigham Young*, 102; Lucy Ann D. Young, Affidavit, July 10, 1869, in Affidavits about Celestial Marriage, 1:48.
14. Brigham Young, Discourse, Oct. 1866, George D. Watt, Discourse Shorthand Notes, Oct. 8, 1866, George D. Watt, Papers, as transcribed by LaJean Purcell Carruth, copy at Church History Library; see also Richards, *Scriptural Items*, 1843; and Woodruff, *Journal*, Jan. 22, 1843.
15. Brigham Young, Discourse, Oct. 1866, George D. Watt, Discourse Shorthand Notes, Oct. 8, 1866, George D. Watt, Papers, as transcribed by LaJean Purcell Carruth, copy at Church History Library.
16. "Clayton, William," Biographical Entry, Joseph Smith Papers website, josephsmithpapers.org.
주제: 와드와 스테이크
17. Joseph Smith, *Journal*, Apr. 1, 1843, in *JSP*, J2:321.
18. Joseph Smith, *Journal*, Oct. 1-2, 1843, in *JSP*, J1:321-23.
19. Joseph Smith, *Journal*, Apr. 2, 1843, in *JSP*, J2:323-25; Doctrine and Covenants 130:1, 3.
20. Joseph Smith, *Journal*, Apr. 2, 1843, in *JSP*, J2:326; Doctrine and Covenants 130:22;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D-1, 1511. The word "and" was added to the original.
21. Joseph Smith, *Journal*, Apr. 2, 1843, in *JSP*, J2:325; Doctrine and Covenants 130:18-19.
22. Clayton, *Journal*, Apr. 2 and May 16, 1843; Instruction, May 16, 1843, as reported by William Clayton, at josephsmithpapers.org; Doctrine and Covenants 131:1-4; see also McBride, "Our Hearts Rejoiced to Hear Him Speak," 277-80. **주제: 인봉**
23. Maughan, *Autobiography*, [52]-[54].
24. Joseph Smith, *Journal*, Apr. 6, 1843; Haven, "A Girl's Letters from Nauvoo," 624.
25. See Doctrine and Covenants 76:70-81 (Vision, Feb. 16, 1832, at josephsmithpapers.org); Mace, *Autobiography*, 120; Revelation 12:1. **주제: 나부 성전**
26. McBride, *House for the Most High*, 21-27, 91-95.
27. Maughan, *Autobiography*, [56].
28. "Mary Elizabeth Rollins Lightner," *Utah Genealogical and Historical Magazine*, July 1926, 17:202.
29. Mary Audentia Smith Anderson, "The Memoirs of Joseph Smith III," *Saints' Herald*, Feb. 19, 1935, 240; Mar. 17, 1936, 338.
30. See Temple Lot Transcript, part 3, 350-52, questions 22-24; see also George A. Smith to Joseph Smith III, Oct. 9, 1869, copy, George A. Smith, Papers, Church History Library; "More Testimony," *Ogden Herald*, May 21, 1886, 1; "Celestial Marriage," *Woman's Exponent*, June 1, 1886, 15:1-2.
31. See Eliza R. Snow to Joseph F. Smith, no date, Joseph F. Smith, Papers, Church History Library.
32. Amasa Lyman, in *Journal of Discourses*, Apr. 5, 1866, 11:198-208; "커틀랜드와 나부에서의 복수 결혼," 복음 주제, topics.lds.org.
33. "커틀랜드와 나부에서의 복수 결혼," 복음 주제, topics.lds.org. **주제: 에머 헤일 스미스; 조셉 스미스와 복수결혼**
34. Young, *Diary and Reminiscences*, 2.
35. Temple Lot Transcript, part 3, 351, questions 31-32; Emily Dow Partridge Young, Statement, *Historical Record*, May 1887, 240; Young, "Incidents in the Life of a Mormon Girl," 51; Lyman, *Journal*, 13.
36. Young, "Incidents in the Life of a Mormon Girl," 54; Emily Dow Partridge Smith Young, "Testimony That Cannot Be Refuted," *Woman's Exponent*, Apr. 1, 1884, 12:165; Temple Lot Transcript, part 3, 351, 353-62, 371-72, questions 31-32, 47-272, 488-93.
37. Young, "Incidents in the Life of a Mormon Girl," 54; Emily Dow Partridge Smith Young, "Testimony That Cannot Be Refuted," *Woman's Exponent*, Apr. 1, 1884, 12:165; Temple Lot Transcript, part 3, 353-62, 371-72, questions 47-272, 488-93. **주제: 조셉 스미스와 복수결혼**

38. Hyrum Smith, Discourse, in Levi Richards, Journal, May 14, 1843; Jacob 2:23-30.
39. Hyrum Smith, Discourse, in Levi Richards, Journal, May 14, 1843; Temple Lot Transcript, part 3, 373, 385, questions 532-34, 770.
40. Watson, *Brigham Young Addresses*, volume 5, Oct. 8, 1866; compare Brigham Young, Discourse, Oct. 8, 1866, George D. Watt, Discourse Shorthand Notes, Oct. 8, 1866, George D. Watt, Papers, as transcribed by LaJean Purcell Carruth, copy at Church History Library; see also Clayton, Journal, May 26, 1843. **주제: 하이럼 스미스**
41. Joseph Smith, Journal, May 28, 1843, in *JSP*, J3:25; see also Joseph Smith to Emma Smith, Nov. 12, 1838, in *JSP*, D6:290-93; and Emma Smith Blessing, 1844, Church History Library.
42. Joseph Smith, Journal, May 29, 1843, in *JSP*, J3:25-26; see also 25, note 89.
43.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E-1, 1987.
44. Joseph Smith, Journal, May 29, 1843, in *JSP*, J3:25-26; Historian's Office, Brigham Young History Drafts, 69: "Reminiscence of Mercy Rachel Fielding Thompson," quoted in Madsen, *In Their Own Words*, 195; see also Woodworth, "Mercy Thompson and the Revelation on Marriage," 281-93.
45. Joseph Smith, Journal, May 29, 1843, in *JSP*, J3:25-26; "Reminiscence of Mercy Rachel Fielding Thompson," quoted in Madsen, *In Their Own Words*, 195; see also Woodworth, "Mercy Thompson and the Revelation on Marriage," 281-93.
46. Joseph Smith, Journal, May 29, 1843, in *JSP*, J3:25-26. **주제: 인봉**

제4장: 하나님께서 심판자 되시니

1. Pratt, Journal and Autobiography, 107-8.
2. Cannon, "Tahiti and the Society Island Mission," 334; Pratt, Journal and Autobiography, 107-8.
3. Pratt, Journal and Autobiography, 107-8;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D-1, 1568.
4. Quorum of the Twelve Apostles, Minutes, May 23, 1843.
5. Joseph Smith, Journal, June 13, 1843, in *JSP*, J3:36; "Missouri vs Joseph Smith," *Times and Seasons*, July 1, 1843, 4:242; Nauvoo Relief Society Minute Book, June 16, 1843, in Derr and others, *First Fifty Years of Relief Society*, 100.
6. Joseph Smith, Journal, June 11, 1843, in *JSP*, J3:31-35; Woodruff, Journal, June 11, 1843; Nauvoo Relief Society Minute Book, June 16, 1843, in Derr and others, *First Fifty Years of Relief Society*, 100.
7. Nauvoo Relief Society Minute Book, June 16, 1843, in Derr and others, *First Fifty Years of Relief Society*, 100-102. 체이스 자매의 이름은 피비 옥든 로스 체이스 혹은 티르자 웰스 체이스였을 수 있다. Churchhistorianspress.org에서 이 두 여성에 관한 내용을 참고한다.
8. Joseph Smith, Journal, June 16 and 18, 1843, in *JSP*, J3:37, 38; Clayton, Journal, June 18, 1843; Warrant for Joseph Smith, June 17, 1843, copy, Joseph Smith Collection, Church History Library;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D-1, 1581.
9. "Missouri vs Joseph Smith," *Nauvoo Neighbor*, July 5, 1843, [2];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D-1, 1582. **주제: 미주리 송환 시도**
10. Clayton, Journal, June 23, 1843;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D-1, 1583-88; *JSP*, J3:39, note 153; "Missouri vs Joseph Smith," *Times and Seasons*, July 1, 1843, 4:243.
11. Burbank, *Autobiography*, 43-44; Peter Conover, Statement, Sept. 26, 1854, Historian's Office, Joseph Smith History Documents, Church History Library; Joseph Smith, Journal, July 1-4, 1843, in *JSP*, J3:48-52; "Missouri vs Joseph Smith," *Times and Seasons*, July 1, 1843, 4:243;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D-1, 1591.
12. Clayton, Journal, June 30, 1843;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D-1, 1593; Joseph Smith, Journal, June 30, 1843, in *JSP*, J3:42; Peter Conover, Statement, Sept. 26, 1854, Historian's Office, Joseph Smith History Documents, Church History Library.
13. Joseph Smith, Journal, July 1, 1843, in *JSP*, J3:48; Nauvoo Municipal Court Docket Book, 55-87.

14. James, *Autobiography*, [1]; Wolfinger, *Test of Faith*, 1-3; Platt, "Early Branches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41. **주제: 노예 제도와 노예 제도의 폐지**
15. James, *Autobiography*, [1]. **주제: 방언의 은사**
16. James, *Autobiography*, [1]; Nauvoo Stake High Council Minutes, Dec. 9, 1843. **주제: 제인 엘리자베스 매닝 제임스**
17. Young, "Incidents in the Life of a Mormon Girl," 54; Lovina Smith Walker, Certificate, June 16, 1869, in Affidavits about Celestial Marriage, 1:30.
18. Clayton, Journal, July 12, 1843; William Clayton, Affidavit, Feb. 16, 1874, in Affidavits about Celestial Marriage, Church History Library; "Another Testimony—Statement of William Clayton," *Deseret Evening News*, May 20, 1886, [2].
19. 교리와 성약 132:7~19(Revelation, Dec. 12, 1843, at josephsmithpapers.org)
20. 교리와 성약 132:20(Revelation, Aug. 12, 1843, at josephsmithpapers.org).
21. 교리와 성약 132:1~20, 29~37(Revelation, July 12, 1843, at josephsmithpapers.org)
22. 야곱서 2:27~30; 또한 교리와 성약 132:63 참조(Revelation, July 12, 1843, at josephsmithpapers.org).
23. 교리와 성약 132:52~56(Revelation, July 12, 1843, at josephsmithpapers.org)
24. Clayton, Journal, July 12, 1843; William Clayton, Statement, Feb. 16, 1874, in Affidavits about Celestial Marriage, Church History Library; William Clayton to Madison M. Scott, Nov. 11, 1871, copy, Church History Library.
25. William Clayton, Affidavit, Feb. 16, 1874, in Affidavits about Celestial Marriage, Church History Library; "Another Testimony—Statement of William Clayton," *Deseret Evening News*, May 20, 1886, [2]; Clayton, Journal, July 12, 1843. **주제: 에머 헤일 스미스; 조셉 스미스와 복수결혼**
26. Joseph Smith, Journal, July 13, 1843, in *JSP*, J3:57-59; Clayton, Journal, July 13, 1843; see also *JSP*, J3:57, note 262.
27. Joseph Smith, Journal, July 13, 1843, in *JSP*, J3:57-59; Clayton, Journal, July 12-15, 1843; William Clayton, Affidavit, Feb. 16, 1874, in Affidavits about Celestial Marriage, Church History Library; "Another Testimony—Statement of William Clayton," *Deseret Evening News*, May 20, 1886, [2]; Trustees Land Book B, White Purchase, 241-44, 246, 249, 251, 259-61, 265; Galland Purchase, 267-71, 273; see also *JSP*, J3:57, note 262.
28. See "Nauvoo Journals, May 1843-June 1844," in *JSP*, J3:xix-xx; see also 57-59, notes 259 and 262.
29. Joseph Smith, Journal, Aug. 31, Sept. 15, and Oct. 3, 1843, in *JSP*, J3:91, 99, 105; "Nauvoo Mansion," Geographical Entry, Joseph Smith Papers website, josephsmithpapers.org; Smith, *Biographical Sketches*, 274; see also *JSP*, J3:91, note 421.
30. **주제: 노예 제도와 노예 제도의 폐지**
31. James, *Autobiography*, [1]-[4]; "Joseph Smith, the Prophet," *Young Woman's Journal*, Dec. 1905, 551-52. **주제: 제인 엘리자베스 매닝 제임스**
32. See Clayton, Journal, June 23, 1843; July 12, 1843; Aug. 3, 16, and 23, 1843.
33. 교리와 성약 25:13~15 (Revelation, July 1830-A, josephsmithpapers.org).
34. Emily Dow Partridge Smith Young, "Testimony That Cannot Be Refuted," *Woman's Exponent*, Apr. 1, 1884, 12:165.
35. Emily Dow Partridge Young, "Autobiography," *Woman's Exponent*, Aug. 1, 1885, 14:38; Young, "Incidents in the Life of a Mormon Girl," 186; Young, *Diary and Reminiscences*, 2.
36. Young, *Diary and Reminiscences*, 2-3; Emily Dow Partridge Young, "Autobiography," *Woman's Exponent*, Aug. 1, 1885, 14:38; see also Lyman, Journal, 13.
37. Young, *Diary and Reminiscences*, 5.
38. Emily Dow Partridge Smith Young, "Testimony That Cannot Be Refuted," *Woman's Exponent*, Apr. 1, 1884, 12:165. **주제: 에머 헤일 스미스**
39. Young, "Incidents in the Life of a Mormon Girl," 177; see also Young, *Diary and Reminiscences*, 5.

제42장: 어깨를 맞대고

1. Woodruff, Journal, Nov. 4, 1843; see also Woodruff, Journal, Jan. 16, 17, 18, and 19, 1844.
2. Wilford Woodruff to Phebe Carter Woodruff, Oct. 1843, Emma S. Woodruff, Collection, Church History Library; see also Woodruff, Journal, Oct. 8, 1843.
3. Woodruff, Journal, Nov. 11, 1843.
4. Joseph Smith, Journal, Sept. 28, 1843, in *JSP*, J3:104-5; Clayton, Journal, Oct. 19, 1843; see also "Nauvoo Journals, May 1843-June 1844," in *JSP*, J3:xx-xxi; Nauvoo Relief Society Minute Book, Mar. 30, Apr. 28, and Aug. 31, 1842, in Derr and others, *First Fifty Years of Relief Society*, 43, 59, 94; and Doctrine and Covenants 132:7-20 (Revelation, July 12, 1843, at josephsmithpapers.org).
5. Joseph Smith, Journal, Sept. 28 and Oct. 1, 1843, in *JSP*, J3:104, 105; "Part 1: 1830, 1842-1854," in Derr and others, *First Fifty Years of Relief Society*, 10. **주제: 에머 헤일 스미스**
6. Joseph Smith, Journal, Oct. 8 and Nov. 1, 1843, in *JSP*, J3:109, 123; Young, Journal, Nov. 1, 1843, 21; Helen Mar Whitney, "Scenes in Nauvoo," *Woman's Exponent*, July 1, 1883, 12:[18]; Bathsheba W. Smith, Affidavit, Nov. 19, 1903, Church History Library; Whitney, *Plural Marriage*, 14.
7. Joseph Smith, Journal, Dec. 2, 1843, in *JSP*, J3:138; Woodruff, Journal, Dec. 2 and 23, 1843.
8. "Nauvoo Journals, May 1843-June 1844," in *JSP*, J3:xx-xxi; Joseph Smith, Journal, Sept. 28 1843; Oct. 1, 8, 12, and 29, 1843; Nov. 1, 1843; and Dec. 2, 9, 17, and 23, 1843; in *JSP*, J3:104-5, 108-9, 112, 122, 123, 138, 142-43, 146, 150; Clayton, Journal, Dec. 2, 1843; Ehat, "Joseph Smith's Introduction of Temple Ordinances," 98-100, 102-3; "Quorum, The," Glossary entry, Joseph Smith Papers website, josephsmithpapers.org. **주제: 기름 부음 받은 정원회("거룩한 반차")**
9. Neibaur, Journal, May 24, 1844; Council of Fifty, "Record," [290], in *JSP*, CFM:192; see also 192, note 596; and Cook, *William Law*, 25-27, note 84.
10. "Dr. Wyl and Dr. Wm. Law," *Salt Lake Daily Tribune*, July 31, 1887, [6]; Neibaur, Journal, May 24, 1844; see also Cook, *William Law*, 24-25.
11. McMurrin, "An Interesting Testimony," 507-9.
12. Neibaur, Journal, May 24, 1844; Council of Fifty, "Record," [290], in *JSP*, CFM:192; see also 192, note 596; and Cook, *William Law*, 25-27, note 84.
13. Clayton, Journal, June 12, 1844; see also Cook, *William Law*, 25.
14. Joseph Smith, Journal, Dec. 30, 1843, in *JSP*, J3:154; see also 154, note 692.
15. "Dr. Wyl and Dr. Wm. Law," *Salt Lake Daily Tribune*, July 31, 1887, [6].
16. Law, Record of Doings, Jan. 8, 1844, in Cook, *William Law*, 46-47; Joseph Smith, Journal, Jan. 8, 1844, in *JSP*, J3:159; see also 159, note 707. 로가 기록한 "Record of Doings"의 필사본은 발견되지 않았다. For more analysis, see "Essay on Sources," in *JSP*, J3:491-92.
17. Woodruff, Journal, Jan. 21, 1844.
18. "Great Meeting of Anti Mormons!," *Warsaw Message*, Sept. 13, 1843, [1]-[2];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E-1, 1687; Ford, *History of Illinois*, 319. **주제: 미국의 법적 제도와 정치 제도**
19. Joseph Smith, Journal, Nov. 4 and Dec. 27, 1843; May 5, 1844, in *JSP*, J3:124, 152, 243; 152, note 683; 166, note 738; 243, note 1102; Henry Clay to Joseph Smith, Nov. 15, 1843; Lewis Cass to Joseph Smith, Dec. 9, 1843; John C. Calhoun to Joseph Smith, Dec. 2, 1843, Joseph Smith Collection, Church History Library.
20. Joseph Smith, Journal, Jan. 29, 1844, in *JSP*, J3:169-71; "Who Shall Be Our Next President?," *Times and Seasons*, Feb. 15, 1844, 5:439-41; Robertson, "Campaign and the Kingdom," 164-65. **주제: 1844년 조셉 스미스의 미국 대선 선거 운동**
21. Addison Pratt, Journal, Jan. 13, 1844; Ellsworth, *Journals of Addison Pratt*, 114-15. **주제: 축복사의 축복**
22. Addison Pratt, Journal, Oct. 6, 1843; Dec. 3 and 7, 1843; Jan. 12 and 19, 1844; Perrin, "Seasons of Faith," 202-3.

23. Addison Pratt, Journal, Jan. 26, 1844.
24. Addison Pratt, Journal, Jan. 19, 1844.
25. Thompson, Autobiographical Sketch, 7-9; see also Doctrine and Covenants 85:1-3 (Joseph Smith to William W. Phelps, Nov. 27, 1832, at josephsmithpapers.org). 1843년 5월에 머시 펄딩 톰슨이 고인이 된 남편 로버트에게 인봉되고 난 후, 로버트가 조셉 스미스에게 시현으로 나타나 머시가 현세에서 하이럼 스미스와 결혼하게 해 달라고 부탁했다. 조셉은 1843년 8월 11일에 하이럼과 머시를 인봉했다.(Woodworth, "Mercy Thompson and the Revelation on Plural Marriage," 281-93.)
26. "To the Sisters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in England," *LDS Millennial Star*, June 1844, 5:15; see also Introduction to Boston Female Penny and Sewing Society, Minutes, Jan. 28, 1845, in Derr and others, *First Fifty Years*, 163.
27. Joseph Smith, Journal, Jan. 29, 1844; Feb. 8, 19, and 25, 1844; Mar. 7, 1844, in *JSP*, J3:171, 175, 179, 183, 194.
28. Joseph Smith, *General Smith's Views of the Powers and Policy of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Nauvoo, IL: John Taylor, 1844); see also *JSP*, J3:168, note 748; 173, note 775. **주제: 1844년 조셉 스미스의 미국 대선 선거 운동**
29. Joseph Smith, Journal, Feb. 20, 1844, in *JSP*, J3:180; "The Council of Fifty in Nauvoo, Illinois," in *JSP*, CFM:xxvi-xxxix; "Early Discussions of Relocating," Joseph Smith Papers website, josephsmithpapers.org.
30. "The Council of Fifty in Nauvoo, Illinois," in *JSP*, CFM:xxiii; Council of Fifty, "Record," Mar. 10-11, 1844, in *JSP*, CFM:17-45. **주제: 오십인 평의회**
31. Council of Fifty, "Record," Mar. 11, 1844, in *JSP*, CFM:39-45; "The Council of Fifty in Nauvoo, Illinois," in *JSP*, CFM:xxxvii.
32. Orson Hyde, Statement about Quorum of the Twelve, circa late March 1845, Brigham Young Office Files, Church History Library; Baugh and Holzapel, "I Roll the Burthen and Responsibility," 15, 18; Brigham Young, Sermon, Oct. 6, 1866, George D. Watt, Discourse Shorthand Notes, Oct. 6, 1866, George D. Watt, Papers, as transcribed by LaJean Purcell Carruth, copy at Church History Library; *Parley P. Pratt* to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Jan. 1, 1845, in *Prophet*, Jan. 4, 1845, 33.
33. Orson Hyde, Statement about Quorum of the Twelve, circa late March 1845, Brigham Young Office Files, Church History Library; Baugh and Holzapel, "I Roll the Burthen and Responsibility," 18; Holzapel and Harper, "This Is My Testimony," 112-16. **주제: 교회 지도자 승계**
34. Brigham Young, Sermon, Oct. 6, 1866, George D. Watt, Discourse Shorthand Notes, Oct. 6, 1866, George D. Watt, Papers, as transcribed by LaJean Purcell Carruth, copy at Church History Library; *Parley P. Pratt* to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Jan. 1, 1845, in *Prophet*, Jan. 4, 1845, 33. **주제: 십이사도 정원회**
35. Orson Hyde, Statement about Quorum of the Twelve, circa late March 1845, Brigham Young Office Files, Church History Library; Woodruff, Journal, Aug. 25, 1844; Wilford Woodruff, Testimony, Mar. 19, 1897, Church History Library; Historian's Office, General Church Minutes, McEwan copy, Sept. 8, 1844; Clayton copy, Sept. 8, 1844; Nauvoo Stake High Council Minutes, Nov. 30, 1844; "Trial of Elder Rigdon," *Times and Seasons*, Sept. 15, 1844, 5:650-51; *Parley P. Pratt*, "Proclamation," *LDS Millennial Star*, Mar. 1845, 5:151; Wilford Woodruff, "To the Officers and Members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in the British Islands," *LDS Millennial Star*, Feb. 1845, 5:136; Council of Fifty, "Record," Mar. 18 and 25, 1845, in *JSP*, CFM:337-38, 379; George A. Smith, Sermon, Dec. 25, 1874, 2-4, Saint George Utah Stake, General Minutes, Church History Library; Johnson, "A Life Review," 96; Benjamin F. Johnson to George F. Gibbs, Apr.-Oct. 1903, 1911, Benjamin Franklin Johnson, Papers, Church History Library; see also Historian's Office, General Church Minutes, Sept. 30, 1855.

제43장: 사회적 골칫거리

1. Law, Record of Doings, Mar. 29 and Apr. 15, 1844, in Cook, *William Law*, 47–49.
2. Woodruff, Journal, Mar. 24, 1844; Affidavits of A. B. Williams and M. G. Eaton, *Nauvoo Neighbor*, Apr. 17, 1844, [2].
3. Woodruff, Journal, Mar. 24, 1844.
4. Orson Hyde, Statement about Quorum of the Twelve, circa Late Mar. 1845, Brigham Young Office Files, Church History Library; Bushman, *Rough Stone Rolling*, 532–34.
5. Cummings, “Conspiracy of Nauvoo,” *Contributor*, Apr. 1884, 252.
6. “Conference Minutes,” *Times and Seasons*, Aug. 15, 1844, 5:612–13; Historian’s Office, General Church Minutes, Clayton copy, Apr. 7, 1844, 11; Bullock copy, Apr. 7, 1844, 14; Joseph Smith, Journal, Apr. 7, 1844, in *JSP*, J3:217.
7. “Conference Minutes,” *Times and Seasons*, Aug. 15, 1844, 5:613–14; Historian’s Office, General Church Minutes, Clayton copy, Apr. 7, 1844, [12]–14; Bullock copy, Apr. 7, 1844, 15–17.
8. Historian’s Office, General Church Minutes, Bullock copy, Apr. 7, 1844, 17; Woodruff, Journal, Apr. 7, 1844; “Conference Minutes,” *Times and Seasons*, Aug. 15, 1844, 5:617.
9. “Conference Minutes,” *Times and Seasons*, Aug. 15, 1844, 5:616–17; Historian’s Office, General Church Minutes, Bullock copy, Apr. 7, 1844, 19–22; see also Joseph Smith, Journal, May 21 and June 11, 1843, in *JSP*, J3:20, 31;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D–1, 1556.
10. Joseph Smith, Journal, Apr. 7, 1844, in *JSP*, J3:217–22; Historian’s Office, General Church Minutes, Bullock copy, Apr. 7, 1844, 22; “Conference Minutes,” *Times and Seasons*, Aug. 15, 1844, 5:617; see also “Accounts of the ‘King Follett Sermon,’” Joseph Smith Papers website, josephsmithpapers.org. **주제: 킹 폴레트 설교**
11. Ellen Briggs Douglas to Family Members, Apr. 14, 1844, in Derr and others, *First Fifty Years of Relief Society*, 157–62; George Douglas and Ellen Briggs Douglas to “Father and Mother,” June 2, 1842, Ellen B. Parker, Letters, Church History Library. **주제: 나부의 여성 상호부조회**
12. Cummings, “Conspiracy of Nauvoo,” *Contributor*, Apr. 1884, 252–53.
13. “Resolutions,” *Nauvoo Expositor*, June 7, 1844, [2]. **주제: 교회 내 불화**
14. “The New Church,” *Warsaw Signal*, May 15, 1844, [2]; Joseph Smith, Journal, Feb. 21, 1843, in *JSP*, J2:271–73; see also 239, note 1074.
15. Nauvoo City Council Draft Minutes, June 8, 1844, 13–15; Nauvoo Stake High Council Minutes, May 20 and 24, 1842; *JSP*, J3:245, note 1108; 246, note 1116; see also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E–1, 1949.
16. Cummings, “Conspiracy of Nauvoo,” *Contributor*, Apr. 1884, 253–57.
17. Cummings, “Conspiracy of Nauvoo,” *Contributor*, Apr. 1884, 257–59.
18. Council of Fifty, “Record,” Apr. 11, 1844, in *JSP*, CFM:95–96; 또한 요한계시록 1:6 참조.
19. Council of Fifty, “Record,” Sept. 11, 1844, in *JSP*, CFM:97–101. **주제: 오십인 평의회**
20. Law, Record of Doings, Apr. 19–22, 1844, in Cook, *William Law*, 50–52; Joseph Smith, Journal, Apr. 18, 1844, in *JSP*, J3:231–32; see also 232, note 1037.
21. Joseph Smith, Journal, Apr. 28, 1844, in *JSP*, J3:238.
22. Law, Record of Doings, June 1, 1844, in Cook, *William Law*, 54; Joseph Smith, Journal, Apr. 28, 1844, in *JSP*, J3:239; see also 239, note 1074; and “The New Church,” *Warsaw Signal*, May 15, 1844, [2].
23. “Why Oppose the Mormons?,” *Warsaw Signal*, Apr. 25, 1844, [2]; see also *JSP*, J3:238, note 1068.
24. *Prospectus of the Nauvoo Expositor* [Nauvoo, IL: May 10, 1844], copy at Church History Library.

25. Joseph Smith, Journal, May 6, 1844, in *JSP*, J3:245; Subpoena for Wilson and *William Law*, May 27, 1844, State of Illinois v. Joseph Smith for Adultery [Hancock County Circuit Court 1844], Illinois State Historical Library, Circuit Court Case Files, 1830-1900, microfilm, Church History Library; see also *JSP*, J3:245, note 1108; 261, note 1189. **주제: 나부 익스포지터**
26. Joseph Smith, Discourse, May 12, 1844, Joseph Smith Collection, Church History Library; Joseph Smith, Journal, May 12, 1844, in *JSP*, J3:248-49.
27. Joseph Smith, Journal, May 17, 1844, in *JSP*, J3:253; see also 253, note 1147.
28. Clayton, Journal, May 21, 1844; Joseph Smith, Journal, May 21, 25, and 27, 1844, in *JSP*, J3:256, 260-61, 263.
29. Joseph Smith, Journal, May 27, 1844, in *JSP*, J3:263-65.
30. Thomas Sharp, Editorial, *Warsaw Signal*, May 29, 1844, [2].
31. Pratt, Journal and Autobiography, 108-13.
32. "Preamble" and "Resolutions," *Nauvoo Expositor*; June 7, 1844, [1]-[2].
33. Francis M. Higbee to "Citizens of Hancock County," June 5, 1844, in *Nauvoo Expositor*, June 7, 1844, [3].
34. Joseph Smith, Journal, June 8, 1844, in *JSP*, J3:274-76; Nauvoo City Council Draft Minutes, June 8, 1844, 18.
35. Nauvoo City Council Draft Minutes, June 8, 1844, 19.
36. Nauvoo City Council Draft Minutes, June 10, 1844, 19-31; Joseph Smith, Journal, June 10, 1844, in *JSP*, J3:276-77.
37. Nauvoo City Council Draft Minutes, June 10, 1844, 27; see also Oaks, "Suppression of the Nauvoo Expositor," 862-903; William Blackstone, *Commentaries on the Laws of England* (New York: W. E. Dean, 1840).
38. Nauvoo City Council Draft Minutes, June 10, 1844, 30-31; Nauvoo City Council Minute Book, June 10, 1844, 210-11; Joseph Smith, Journal, June 10, 1844, in *JSP*, J3:276. 시의원 중 한 명인 벤자민 워링턴은 이 결정에 반대하며, 의회에서 먼저 *Expositor*(익스포지터)를 출판하는 이들에게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SP*, J3:276-77, note 1258.)
39. Joseph Smith, Journal, June 10, 1844, in *JSP*, J3:276-77; Joseph Smith, Order to Nauvoo City Marshal, June 10, 1844, Joseph Smith Collection, Church History Library; "Unparalleled Outrage at Nauvoo," *Warsaw Signal*, June 12, 1844, [2]. **주제: 나부 익스포지터**
40. "Unparalleled Outrage at Nauvoo," *Warsaw Signal*, June 12, 1844, [2].

제44장: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1. "Preamble and Resolutions," *Warsaw Signal*, Extra, June 14, 1844; Sarah D. Gregg to Thomas Gregg, June 14, 1844, copy, Illinois State Historical Society Papers, Church History Library; James Robbins to Leanna Robbins, June 16, 1844, James Robbins Letters, Church History Library; Joseph Smith, Proclamation to John P. Greene, June 17, 1844; Joseph Smith to Jonathan Dunham, June 17, 1844, Joseph Smith Collection, Church History Library.
2. Joseph Smith, Journal, June 13, 1844, in *JSP*, J3:280-81; see also 281, note 1284.
3. Maughan, *Autobiography*, [57]-[58]; "History of Joseph Smith," *LDS Millennial Star*, Nov. 9, 1861, 23:720; see also *JSP*, J3:8, note 14; 16, note 39.
4. Maughan, *Autobiography*, [57]-[58]; *Peter Maughan Family History*, 17-18.
5. Clayton, Journal, June 11, 1844; *JSP*, J3:279, note 1272; see also Joseph Smith, Journal, June 11, 1844, in *JSP*, J3:277-79.
6. Joseph Smith, Journal, June 11-12, 1844, in *JSP*, J3:279; Warrant for Joseph Smith and Others, June 11, 1844, State of Illinois v. Joseph Smith and Others for Riot, copy, Joseph Smith Collection, Church History Library.

7. Joseph Smith, Journal, June 12-13, 1844, in *JSP*, J3:279-82; Warrant for Joseph Smith and Others, June 11, 1844, State of Illinois v. Joseph Smith and Others for Riot, copy, Joseph Smith Collection, Church History Library; Nauvoo Municipal Court Docket Book, 108-12.
8. Joseph Smith, Journal, June 14, 1844, in *JSP*, J3:282; Clayton, Daily Account of Joseph Smith's Activities, June 14, 1844, in *JSP*, J3:333-34; Joseph Smith to Thomas Ford, June 14, 1844, Joseph Smith Collection, Church History Library; Sidney Rigdon to Thomas Ford, June 14, 1844, Sidney Rigdon Collection, Church History Library; see also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F-1, 97-98.
9. Joseph Smith, Journal, June 16-18, 1844, in *JSP*, J3:286-92; Joseph Smith, Proclamation, June 17, 1844, Joseph Smith Collection, Church History Library; *JSP*, J3:294-95, note 1357; Hyrum Smith and Joseph Smith to Brigham Young, June 17, 1844, Joseph Smith Collection, Church History Library.
10. Joseph Smith, Journal, June 18, 1844, in *JSP*, J3:290-91;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F-1, 118-19.
11. Oaks, "Suppression of the Nauvoo Expositor," 891-903.
12. Thomas Ford to Joseph Smith, June 22, 1844, Joseph Smith Collection, Church History Library. **주제: 미국의 법적 제도와 정치 제도**
13. Joseph Smith to Thomas Ford, June 22, 1844, Joseph Smith Collection, Church History Library; Editorial Note, in *JSP*, J3:301-2.
14.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F-1, 147; Richards, Journal, June 23, 1844, in *JSP*, J3:305.
15. Joseph Smith to Emma Smith, June 23, 1844, copy, Joseph Smith Collection, Church History Library.
16.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F-1, 148; Richards, Journal, June 23, 1844, in *JSP*, J3:305.
17. Briggs, "A Visit to Nauvoo in 1856," 453-54;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F-1, 148.
18. Briggs, "A Visit to Nauvoo in 1856," 453-54.
19.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F-1, 149; "Pleasant Chat," *True Latter Day Saints' Herald*, Oct. 1, 1868, 105; Christensen, "Edwin Rushton," 3. **주제: 조셉과 에머 헤일 스미스 가족**
20. Christensen, "Edwin Rushton," 3; John Bernhisel to George A. Smith, Sept. 11, 1854, in Historian's Office, Joseph Smith History Documents, Church History Library; 교리와 성약 135:4 (Account of the Martyrdom, circa July 1844, at josephsmithpapers.org);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F-1, 149-51; Richards, Journal, June 24, 1844, in *JSP*, J3:305; Clayton, Journal, June 24, 1844.
21.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F-1, 151; Richards, Journal, June 24, 1844, in *JSP*, J3:305.
22. Richards, Journal, June 24, 1844, in *JSP*, J3:306;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F-1, 151-52; see also "Awful Assassination of Joseph and Hyrum Smith," *Times and Seasons*, July 1, 1844, 5:560; "Statement of Facts," *Times and Seasons*, July 1, 1844, 5:563; and *JSP*, J3:306, note 6.
23. Leonora C. Taylor, Statement, circa 1856, Church History Library; Clayton, Journal, June 24, 1844.
24. Emma Smith Blessing, 1844, typescript, Church History Library. 에머가 작성한 축복의 원본 문서는 분실되었다. 역사학자인 주아니타 브룩스는 1946년경에 자신이 직접 그 원본을 살펴보고 에머의 필적과 비교하여 그 사본을 조지 앨버트 스미스와 조셉 케이 니콜스에게 보냈다고 전했다.(See Juanita Brooks to Joseph K. Nicholes, Apr. 29, 1946, Joseph K. Nicholes Collection, Church History Library; Juanita Brooks to George Albert Smith, Apr. 29, 1946, Joseph Fielding Smith, Papers, Church History Library; and Emma Smith to Joseph Heywood, Oct. 18, 1844, Church History Library.) **주제: 에머 헤일 스미스**
25.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F-1, 154; Richards, Journal, June 24, 1844, in *JSP*, J3:306.
26.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F-1, 155-56; Richards, Journal, June 25, 1844, in *JSP*, J3:307-8.

27. Richards, Journal, June 25, 1844, in *JSP*, J3:307, 311-14;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F-1, 158-61; "Statement of Facts," *Times and Seasons*, July 1, 1844, 5:561-62; Dan Jones, "Martyrdom of Joseph Smith and His Brother Hyrum!," in Dennis, "Martyrdom of Joseph Smith and His Brother Hyrum," 87-88; Joseph Smith to Emma Smith, June 25, 1844, copy, Joseph Smith Collection, Church History Library.
28. Dennis, "Dan Jones, Welshman," 50-52.
29. Dan Jones, "Martyrdom of Joseph Smith and His Brother Hyrum!"; Dan Jones to Thomas Bullock, Jan. 20, 1855, in Dennis, "Martyrdom of Joseph and Hyrum Smith," 89, 101.
30. Dan Jones, "Martyrdom of Joseph Smith and His Brother Hyrum!"; Dan Jones to Thomas Bullock, Jan. 20, 1855, in Dennis, "Martyrdom of Joseph and Hyrum Smith," 89, 101. **주제: 조셉 스미스의 예언**
31. Joseph Smith to Emma Smith, June 27, 1844, copy, Joseph Smith Collection, Church History Library; Richards, Journal, June 27, 1844, in *JSP*, J3:323; Dan Jones, "Martyrdom of Joseph Smith and His Brother Hyrum!," in Dennis, "Martyrdom of Joseph Smith and His Brother Hyrum," 90;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F-1, 174-76.
32. Clayton, Journal, June 26, 1844; Joseph Smith to Emma Smith, June 27, 1844, copy, Joseph Smith Collection, Church History Library; Richards, Journal, June 27, 1844, in *JSP*, J3:323; see also Richards, Journal, June 26, 1844, in *JSP*, J3:314-23.
33. Joseph Smith to Emma Smith, June 27, 1844, copy, Joseph Smith Collection, Church History Library.
34. Ford, *History of Illinois*, 346;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F-1, 186.
35.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F-1, 186; Mace, *Autobiography*, 107; Clayton, Journal, June 27, 1844.
36. Clayton, Journal, June 27, 1844; Mace, *Autobiography*, 107-8; Ford, *History of Illinois*, 346-47;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F-1, 192.
37. Richards, Journal, June 27, 1844, in *JSP*, J3:327;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F-1, 182; "Statement of Facts," *Times and Seasons*, July 1, 1844, 5:563.
38. Richards, Journal, June 27, 1844, in *JSP*, J3:327; John Fullmer to George A. Smith, Nov. 27, 1854; Cyrus Wheelock to George A. Smith, Dec. 29, 1854, Historian's Office, Joseph Smith History Documents, Church History Library; *JSP*, J3:327, note 128; "History of Joseph Smith," *LDS Millennial Star*, June 14, 1862, 24:375; Stephen Markham to Wilford Woodruff, June 20, 1856, Historian's Office, Joseph Smith History Documents, Church History Library.
39. Richards, Journal, June 27, 1844, in *JSP*, J3:326; Carruth and Staker, "John Taylor's June 27, 1854, Account of the Martyrdom," 59;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F-1, 180-81; *A Collection of Sacred Hymns* [1840], 254-57; 또한 "슬픔에 잠긴 나그네", 찬송가, 30장 참조. **주제: 찬송가**
40. Richards, Journal, June 27, 1844, in *JSP*, J3:326-27;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F-1, 181-82.
41. Richards, Journal, June 27, 1844, in *JSP*, J3:327;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F-1, 182; Ford, *History of Illinois*, 353.
42. Richards, Journal, June 27, 1844, in *JSP*, J3:327;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F-1, 182.
43. Richards, Journal, June 27, 1844, in *JSP*, J3:327;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F-1, 182-83.
44. Richards, Journal, June 27, 1844, in *JSP*, J3:329; Willard Richards, "Two Minutes in Jail," *Nauvoo Neighbor*, July 24, 1844, [3]; John Taylor, "The Martyrdom of Joseph Smith," in Burton, *City of the Saints*, 537; see also "Two Minutes in Jail," *Times and Seasons*, Aug. 1, 1844, 5:598-99; and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F-1, 182-83.
45.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F-1, 183; Willard Richards, "Two Minutes in Jail," *Nauvoo Neighbor*, July 24, 1844, [3]; see also "Two Minutes in Jail," *Times and Seasons*, Aug. 1, 1844, 5:598-99. **주제: 조셉과 하이럼 스미스의 죽음**

제45장: 전능한 기초

1. Mary Audentia Smith Anderson, "The Memoirs of President Joseph Smith," *Saints' Herald*, Jan. 29, 1935, 143.
2. Call, *Autobiography and Journal*, 12.
3. Mary Audentia Smith Anderson, "The Memoirs of President Joseph Smith," *Saints' Herald*, Jan. 29, 1835, 143; "The Prophet's Death!," *Deseret Evening News*, Nov. 27, 1875, [2]-[3].
4. "The Prophet's Death!," *Deseret Evening News*, Nov. 27, 1875, [2]-[3].
5.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F-1, 188; "The Prophet's Death!," *Deseret Evening News*, Nov. 27, 1875, [3].
6. Lucy Mack Smith, *History*, 1845, 312.
7.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F-1, 183; Willard Richards, "Two Minutes in Jail," *Nauwoo Neighbor*, July 24, 1844, [3]. **주제: 조셉 스미스의 예언**
8. *Portrait and Biographical Record of Hancock, McDonough and Henderson Counties, Illinois*, 135-36; see also Carruth and Staker, "John Taylor's June 27, 1854, Account of the Martyrdom," 31.
9. Willard Richards and John Taylor to Thomas Ford and Others, June 27, 1844, Willard Richards, *Journals and Papers*, Church History Library;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F-1, 185; see also Roberts, *Life of John Taylor*, 144-45.
10.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F-1, 188; Vilate Murray Kimball to Heber C. Kimball, June 30, 1844, Church History Library; "The Prophet's Death!," *Deseret Evening News*, Nov. 27, 1875, [3].
11.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F-1, 188; Clayton, *Journal*, June 28, 1844; Zina D. H. Young, *Diary*, June 28, 1844.
12. Mace, *Autobiography*, 110; "Who Are the Rebels?," *LDS Millennial Star*, Mar. 20, 1858, 20:179.
13. Lucy Mack Smith, *History*, 1845, 312-13; "The Prophet's Death!," *Deseret Evening News*, Nov. 27, 1875, [3];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F-1, 188-89; Mary Audentia Smith Anderson, "The Memoirs of President Joseph Smith," *Saints' Herald*, Jan. 29, 1935, 143.
14. Lucy Mack Smith, *History*, 1845, 312-13.
15. "The Prophet's Death!," *Deseret Evening News*, Nov. 27, 1875, [3];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F-1, 189.
16. Phelps, *Funeral Sermon of Joseph and Hyrum Smith*, 1855, Church History Library.
17. Mary Ann Angell Young to Brigham Young, June 30, 1844, Brigham Young Office Files, Church History Library; see also Vilate Murray Kimball to Heber C. Kimball, June 30, 1844, Church History Library. 영어 원본에는 "사랑하는 조셉 스미스와 하이럼 스미스 형제님들이 흉악한 폭도들에게 희생되었어요."라고 나와 있다.
18. Vilate Murray Kimball to Heber C. Kimball, June 30, 1844, Church History Library.
19. Phebe Carter Woodruff to "Dear Parents," July 30, 1844, Church History Library; see also Mahas, "Remembering the Martyrdom," 299-306.
20. Historian's Office, Brigham Young History Drafts, 98-100; "History of Brigham Young," *Deseret News*, Mar. 24, 1858, 1; Historian's Office, *Manuscript History of Brigham Young*, book G, 103.
21. "History of Brigham Young," *Deseret News*, Mar. 24, 1858, 1; Historian's Office, Brigham Young History Drafts, 99; Woodruff, *Journal*, July 18, 1844.
22. Woodruff, *Journal*, July 18, 1844.
23. Clayton, *Journal*, July 2-4, 7, and 12, 1844; Oaks and Bentley, "Joseph Smith and Legal Process," 735-82; 조셉의 개인적인 재산과 교회 재산을 분리하기 위해 준비된 증서의 예를 보려면 다음을 참고한다. Bond from Joseph Smith, Sidney Rigdon, and Hyrum Smith, Jan. 4, 1842, at josephsmithpapers.org. **주제: 에머 헤일 스미스**
24. Clayton, *Journal*, July 12, 1844; Obituary for Samuel H. Smith, *Times and Seasons*, Aug. 1, 1844, 5:606-7; Lucy Mack Smith, *History*, 1845, 313-14.

25. Clayton, Journal, July 4-8, 1844.
26. Clayton, Journal, July 12, 1844; *JSP*, J3:163, note 726.
27. Pratt, *Autobiography*, 371-73; Clayton, Journal, July 14, 1844.
28. Pratt, *Autobiography*, 372;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F-1, 293; 교리와 성약 100:9(Revelation, Oct. 12, 1833, at josephsmithpapers.org); Council of Fifty, "Record," May 6, 1844, in *JSP*, CFM:157-59.
29. "Nauvoo Journals, May 1843-June 1844," in *JSP*, J3:xxiii; *JSP*, J3:79-80, notes 364-66; "Continuation of Elder Rigdon's Trial," *Times and Seasons*, Oct. 1, 1844, 5:660-66; Wilford Woodruff to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Oct. 11, 1844, *Times and Seasons*, Nov. 1, 1844, 5:698-700; "Special Meeting," *Times and Seasons*, Sept. 1, 1844, 5:637-38.
30.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F-1, 293; addenda, 10; *Speech of Elder Orson Hyde*, 13. **주제: 시드니 리그돈**
31. Willard Richards, Journal, Aug. 4, 1844;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F-1, 293.
32. Woodruff, Journal, July 24 and Aug. 5-6, 1844.
33. Woodruff, Journal, Aug. 7, 1844.
34.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F-1, 294.
35.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F-1, 295-96; 교리와 성약 100:9~11 (Revelation, Oct. 12, 1833, at josephsmithpapers.org); see also 교리와 성약 76편(Vision, Feb. 16, 1832, at josephsmithpapers.org).
36. Woodruff, Journal, Aug. 7, 1844.
37.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F-1, 296.
38. Historian's Office, General Church Minutes, Dec. 5, 1847; see also Walker, "Six Days in August," 181;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F-1, 296.
39. Sidney Rigdon, Discourse, Aug. 8, 1844, Historian's Office, General Church Minutes, Church History Library; Jensen and Carruth, "Sidney Rigdon's Plea to the Saints," 138-37;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F-1, 296. 원본에는 "우리 중에는 가장 위대하게 될 영혼이 있습니다."라는 구절이 있다.
40. Brigham Young, Discourse, Aug. 8, 1844, Historian's Office, General Church Minutes, Church History Library; Jensen and Carruth, "Sidney Rigdon's Plea to the Saints," 138-39;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F-1, 297-98; "Special Meeting," *Times and Seasons*, Sept. 1, 1844, 5:637-38; see also Brigham Young, Journal, Aug. 8, 1844.
41. Hoyt, Reminiscences and Diary, volume 1, 7, 9-10, 16-17, 19-21; Jorgensen, "Mantle of the Prophet Joseph," 139-42; Whitney, *History of Utah*, 4:303.
42.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F-1, 296; "Special Meeting," *Times and Seasons*, Sept. 1, 1844, 5:637; Brigham Young, Journal, Aug. 8, 1844.
43.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F-1, 298; Woodruff, Journal, Aug. 8, 1844; Afternoon Meeting, Aug. 8, 1844, Historian's Office, General Church Minutes, as transcribed by Sylvia Ghosh, copy at Church History Library.
44. Hoyt, Reminiscences and Diary, volume 1, 20-21; see also Jorgensen, "Mantle of the Prophet Joseph," 130, 142.
45.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F-1, 298-99. **주제: 교회 지도자 승계**
46.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F-1, 302; Hoyt, Reminiscences and Diary, volume 1, 20-21; Woodruff, Journal, Aug. 8, 1844; Afternoon Meeting, Aug. 8, 1844, Historian's Office, General Church Minutes, as transcribed by Sylvia Ghosh, copy at Church History Library. **주제: 만장일치**
47.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F-1, 303.
48. Hoyt, Reminiscences and Diary, volume 1, 20-21; see also Jorgensen, "Mantle of the Prophet Joseph," 125-204.
49. Hoyt, Reminiscences and Diary, volume 1, 21.
50. Woodruff, Journal, Aug. 9, 1844; Brigham Young, Journal, Aug. 9, 1844.
51. Woodruff, Journal, Aug. 12, 1844.

52. Woodruff, Journal, Aug. 18, 1844; "Letter from Joseph Smith to James J. Strang," *Voree Herald*, Jan. 18, 1846, [1]; "Strang, James Jesse," Biographical Entry, Joseph Smith Papers website, josephsmithpapers.org. **주제: 후기 성도 사이에서 비롯된 종교적 반대 움직임**
53. Woodruff, Journal, Aug. 18, 1844.
54. Woodruff, Journal, Aug. 27, 1844.
55. Woodruff, Journal, Aug. 28, 1844; see also "Jones, Dan," Biographical Entry, Joseph Smith Papers website, josephsmithpapers.org.

제46장: 권능을 부여받아

1. "An Epistle of the Twelve," *Times and Seasons*, Oct. 1, 1844, 5:668. **주제: 내부 성전**
2. Peter Maughan to Willard Richards, Sept. 21, 1844, Willard Richards, Journals and Papers, Church History Library; Maughan, *Autobiography*, [59]-[60].
3. Clayton, Journal, Dec. 7, 1845; Historian's Office, *History of the Church*, 1838-circa 1882, volume 13, Sept. 24 and 29, 1844; Brigham Young, Journal, Aug. 25, 1844; see also Taylor, Journal, Dec. 25, 1844.
4. Gregory, "Sidney Rigdon," 51; Brigham Young, Journal, Sept. 8-9, 1844; Orson Hyde to "Dear Brethren," Sept. 12, 1844, Brigham Young Office Files, Church History Library; William Clayton to Wilford Woodruff, Oct. 7, 1844, Wilford Woodruff, Journals and Papers, Church History Library; William Player, Statement, Dec. 12, 1868, Church History Library; Letter to the Editor, *Nauwoo Neighbor*, May 21, 1845, [3].
5. Clayton, Journal, Aug. 15, 1844; Historian's Office, *History of the Church*, 1838-circa 1882, History of Brigham Young, volume 13, Aug. 19, 1844; Lucy Meserve Smith, Statement, undated, Church History Library.
6. Leonard, *Nauwoo*, 503; "Part 2: February-May 1845," in *JSP*, CFM:209. 조셉 스미스가 살아 있었을 동안 그에게 인봉된 여성에 대한 증거가 부분적으로만 남아 있어서 그 수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조심스럽게 추산할 수는 30~40명 정도이다. "커틀랜드와 내부에서의 복수 결혼", 복음 주제, topics.lds.org 참조.
7. "The Mormon Troubles" and "The Carthage Assassins," *Nauwoo Neighbor*, June 4, 1845, 1, [2]; Brigham Young to Parley P. Pratt, May 26, 1845, Church History Library; *Journal of the Senate ... of Illinois*, Dec. 19, 1844, 80-81; Oaks and Hill, *Carthage Conspiracy*, 79, 184-86; Leonard, *Nauwoo*, 464-74.
8. Young, Journal, Jan. 24, 1845.
9. "The Council of Fifty in Nauvoo, Illinois," in *JSP*, CFM:x1-xliii; Council of Fifty, "Record," Mar. 1, 1845, in *JSP*, CFM:251-52, 255, 256-57; see also "Dana (Denna), Lewis," Biographical Entry, Joseph Smith Papers website, josephsmithpapers.org. **주제: 아메리칸 인디언**
10. Council of Fifty, "Record," Mar. 1, 1845, in *JSP*, CFM:257-58.
11. Council of Fifty, "Record," Mar. 1, 1845, in *JSP*, CFM:262.
12. Council of Fifty, "Record," Mar. 1, 4, 18, and 22, 1845; Apr. 11, 1845, in *JSP*, CFM:257, 273-76, 290-91, 328, 350, 394-96, 399.
13. Council of Fifty, "Record," Apr. 22, 1845, in *JSP*, CFM:436; "Tindall, Solomon," Biographical Entry, Joseph Smith Papers website, josephsmithpapers.org; *JSP*, CFM:436, note 757.
14. Phineas Young, Journal, Apr. 23-May 12, 1845.
15. Pratt, Journal, June 1, July 22, and Sept. 5, 1844; Jan. 5, Mar. 23, and Apr. 6, 1845; "Extract of a Letter," *LDS Millennial Star*, Aug. 1, 1845, 6:59; see also Garr, "Latter-day Saints in Tubuai," 4-9.
16. Pratt, Journal, Apr. 6, 1845.
17. Pratt, Journal, July 1, 1845.

18. Pratt, Journal, July 9, 1845; Ellsworth, *Journals of Addison Pratt*, 238-39; "From the Islands of the Sea," *Times and Seasons*, Dec. 15, 1844, 5:739-40.
19. Pratt, Journal, July 1, 1845.
20. Pratt, Journal, July 9-13, 1845. **주제: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21. Pratt, Journal and Autobiography, 124; Ellsworth, *History of Louisa Barnes Pratt*, 75; "Mobbing Again in Hancock!," *Nauwoo Neighbor*, Sept. 10, 1845, [2]; see also Historian's Office, *History of the Church*, 1838-circa 1882, History of Brigham Young, volume 14, Sept. 16, 1845.
22. Pratt, Journal and Autobiography, 124; Ellsworth, *History of Louisa Barnes Pratt*, 75-76; "Mobbing Again in Hancock!," *Nauwoo Neighbor*, Sept. 10, 1845, [2]; "Historic Sites and Markers: Morley's Settlement," 153-55.
23. Brigham Young, Journal, Sept. 16, 1845; Historian's Office, *History of the Church*, volume 14, Sept. 11, 1845.
24. Pratt, Journal and Autobiography, 125; see also Ellsworth, *History of Louisa Barnes Pratt*, 76.
25. Foote, Autobiography and Journal, Oct. 6, 1845; McBride, *House for the Most High*, 231-33.
26. "Conference Minutes," *Times and Seasons*, Nov. 1, 1845, 6:1008.
27. Oaks and Hill, *Carthage Conspiracy*, 184-86.
28. Council of Fifty, "Record," Sept. 9, 1845, in *JSP*, CFM:467-75. **주제: 오십인 평의회**
29. "Conference Minutes," *Times and Seasons*, Nov. 1, 1845, 6:1010-11; see also "First Meeting in the Temple," *Times and Seasons*, Nov. 1, 1845, 6:1017. **주제: 나무를 떠나다**
30. Tullidge, *Women of Mormondom*, 321; Norton, Reminiscence and Journal, Nov. 3, 17, and 26, 1845; Kimball, Diary, Nov. 24, 26, and 29, 1845; Leonard, *Nauwoo*, 252-55; McBride, *House for the Most High*, 253-61. **주제: 성전 엔다우먼트**
31. **주제: 죽은 자를 위한 침례**
32. Brigham Young, "Speech," *Times and Seasons*, July 1, 1845, 6:954-55.
33. Kimball, Diary, Nov. 29 and Dec. 9, 1845; Brigham Young, Journal, Dec. 10, 1845; McBride, *House for the Most High*, 264-65.
34. Historian's Office, *History of the Church*, volume 14, Dec. 27, 1845; Lee, Journal, Dec. 10, 1845; see also McBride, *House for the Most High*, 286.
35. "Pen Sketch of an Illustrious Woman," *Woman's Exponent*, Oct. 15, 1880, 9:74; Kimball, Diary, Dec. 10 and 20, 1845; Thompson, Autobiographical Sketch, 10. **주제: 기쁨 부음 받은 정원회("거룩한 반차")**
36. Cowan, *Temple Building: Ancient and Modern*, 29. **주제: 인봉**
37. Young, Journal, Jan. 12 and 31, 1846; Doctrine and Covenants 128:18 (Letter to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 Day Saints," Sept. 6, 1842, at josephsmithpapers.org).
38. Reports of the U.S. District Attorneys, 1845-50, Report of Suits Pending, Circuit Court of the District of Illinois, Dec. 1845 term, Dec. 17-18, 1845, microfilm, Records of the Solicitor of the Treasury, copy at Church History Library; Brigham Young, in *Journal of Discourses*, July 23, 1871, 14:218-19; Stout, Reminiscences and Journals, Dec. 23-24, 1845.
39. Ford, *History of Illinois*, 404, 410-13; Historian's Office, *History of the Church*, volume 15, Jan. 27, 1846.
40. Council of Fifty, "Record," Jan. 11, 1846, in *JSP*, CFM:510-21; George A. Smith, in *Journal of Discourses*, June 20, 1869, 13:85.
41. Council of Fifty, "Record," Jan. 13, 1846, in *JSP*, CFM:521-22; Lee, Journal, Jan. 13, 1846; see also Isaiah 11:12.
42. Historian's Office, *History of the Church*, volume 15, Jan. 31-Feb. 2, 1846.
43. Young, Journal, Feb. 3, 1846; Historian's Office, *History of the Church*, volume 15, Feb. 3-7, 1846.
44. Lee, Journal, Feb. 4, 1846; Historian's Office, *History of the Church*, volume 15, Feb. 8, 1845. **주제: 나무 성전; 나무를 떠나다**

45. See McBride, *House for the Most High*, 320-22.
46. Pratt, *Journal and Autobiography*, 126.
47. Young, *Diary and Reminiscences*, 3.
48. Young, *Diary and Reminiscences*, 3; "Last Testimony of Sister Emma," *Saints' Herald*, Oct. 1, 1879, 289-90. 주제: 에머 헤일 스미스
49. Young, *Diary and Reminiscences*, 3-4; Lyman, *Journal*, 14.
50. Rich, *Autobiography and Journal*, 72.

출 처 관 련 유 의 사 항

5백여 개의 역사 자료를 근거로 하여 실제 이야기를 소설체로 서술한 이 책은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초기의 후기 성도들은 많은 편지와 일지, 신문 기사, 자서전을 남겼다. 그 결과, 1815년부터 1846년까지의 교회 역사는 대체로 기록이 상당히 잘 되어 있다. 그렇다고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더할 나위 없이 완전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과거의 기록은 물론이고, 현재의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는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역사적 지식이 담긴 모든 자료에는 서로 불일치하는 점들이 있으며, 모호하거나 편향된 면도 있다. 그러한 자료들은 보통 그것을 작성한 사람의 관점만을 전달한다. 같은 사건을 목격해도 사람마다 경험, 기억, 기록은 다르기 마련이며, 이들의 다양한 관점에 따라 역사를 해석하는 방법도 다양할 수 있다. 역사가가 풀어야 할 과제는 신중한 분석과 해석을 통해 익히 알려진 관점과 파편들을 한데 모아 과거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성도들은 기존의 역사 기록 중 현재 우리가 알고 이해하는 것을 토대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쓴 책이다. 이 책이 교회의 신성한 역사를 전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지만, 이 책의 연구와 집필, 편집을 맡은 학자들은 역사 자료들을 잘 알고 있으며, 그것들을 신중하게 사용하여 주석과 인용된 출처 목록을 작성했다. 이러한 많은 자료는 디지털화되어 주석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독자들은 이러한 자료를 스스로 평가해 보아야 할 것이다. 더 많은 자료를 발견하거나 기존의 자료를 새로 읽다 보면, 나중에는 다른 의미와 해석, 관점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성도들 이야기의 근거가 된 자료로는 1차 자료와 2차 자료가 있다. 1차 자료에는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전하는 정보가 실려 있다. 1차 자료 일부는 편지와 일지처럼 사건이 일어난 당시에 작성된 자료이다. 이렇게 사건이 발생한 시기에 기록된 자료들은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반영하며, 지금의 시점에서는 과거의 일이 당시에는 현재 상황으로서 어떻게 해석되었는지를 드러낸다. 이 외에 자서전과 같은 1차 자료는 사건이 일어난 후에 작성된 것들이다. 이러한 회고성 자료는 시간이 흐르면서 과거가 그 작성자에게 띠는 의미를 드러냄으로써 과거 사건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에서 동시대에 쓰인 자료들보다 더 나은 경우도 있다. 그러나 회고성 자료는 기억에 의존하여 작성되므로 정확성이 떨어지고, 작성자가 추후에 이해하고 믿게 된 것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2차 자료인 역사 자료에는 사건을 직접 목격하지 않은 사람이 작성한 정보가 실려 있다. 후대의 가족 역사나 학문적 연구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한 많은 자료들은 이 책에서 큰 역할을 했다. 그런 자료들은 더욱 폭넓은 맥락을 형성하고 해석 작업의 자원이 되어 줌으로써 그 가치를 입증했다.

성도들의 모든 자료는 신뢰성을 평가하여 사용했으며, 그러한 자료와 어긋나지 않도록 각 문장 또한 거듭 확인을 거쳤다. 대화문과 다른 인용문은 역사 자료에서 그대로 가져왔다. 직접 인용한 문장의 철자와 대문자 사용, 구두점은 명확성을 위해 현대식으로 바꾸되, 따로 명시하지는 않았다. 드물게 인용문이 비교적 많이 수정된 경우도 있다. 예컨대 과거 시제를 현재 시제로 바꾼다든지 문법을 표준화한 것이 그런 경우로, 이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 이런 경우에는 주석에 변경 사항을 설명해 두었다. 어떤 자료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역사가와 작가 및 편집자로 이루어진 팀에서 역사적 진실성과 문학적 작품성을 바탕으로 결정하였다.

예를 들어, 루시 맥 스미스의 회고록은 이 책의 처음 몇 장에서 사용된 중요한 자료이다. 루시는 예순아홉 살이던 1844년과 1845년 사이에 마사 제인 놀턴 코레이와 마사의 남편인 하워드 드의 도움으로 회고록을 썼다. 회고성 자료인 루시의 역사는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믿을 만한 자료로 인정받는다. 루시의 회고록은 신중한 검토를 거쳐 이 책에 사용되었으며, 대부분 루시가 목격한 사건을 서술하는 데 인용되었다. 루시의 회고록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saints.lds.org의 “Lucy Mack Smith”를 참조한다.

이 책을 집필하는 데 쓰인 일부 적대적인 자료 또한 주석에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자료는 주로 초기에 있었던, 교회에 대한 반대를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러한 문서에는 조셉 스미스와 교회에 대한 적대적인 내용이 주로 나오지만, 다른 자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는 경우가 가끔 있다. 그런 자세한 내용 중 다른 기록들을 통해 정확성이 대체로 확인된 것들을 일부 사용하였다. 그러나 그런 적대적인 기록들에 나오는 사실을 사용할 때는 그 저자의 적대적인 해석은 배제했다.

이 책은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하여 소설체로 쓴 역사서로서, 일관성 있고 이해하기 쉬운 형식으로 교회의 근간이 되는 역사를 소개한다. 이 책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대중적인 방식을 사용하고는 있으나, 역사 자료에 담긴 정보 이상을 다루지는 않는다. 본문에 얼굴 표정이나 날씨와 같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면, 이는 그런 내용이 역사 기록에 나오거나 기록을 통해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야기의 가독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 책의 본문에서는 역사 기록 내용과 관련된 쟁점이나 또는 그 기록 자체에 대한 쟁점을 거의 다루지 않았다. 그 대신, 그러한 자료에 근거한 논의는 saints.lds.org의 주제별 글에서 다룬다. 독자들은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이런 글들을 참조해야 할 것이다.

인용 출처

본 목록에는 성도들: 후기의 예수 그리스도 교회 이야기 제1권에 인용된 모든 자료의 출처가 포괄적으로 소개되어 있다. 원고 자료 출처 항목에 제시된 날짜는 원고가 작성된 시점을 가리키며, 반드시 원고에서 다루진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The Joseph Smith Papers*[조셉 스미스 기록들]은 "JSP" 항목에 열거되어 있다. 많은 자료가 디지털로 열람 가능하며, saints.lds.org와 복음 자료실의 전자책에는 해당 자료의 링크가 나와 있다.

인용된 자료의 출처 목록에서는 다음과 같은 약어를 사용하였다.

- BYU: L. Tom Perry Special Collections, Harold B. Lee Library, Brigham Young University, Provo, Utah[유타주 프로보 브리검 영 대학교의 해롤드 비 리 도서관 내 엘 톰 페리 특별 서가]
- CHL: Church History Librar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Salt Lake City[솔트레이크시티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교회 역사 도서관]
- FHL: Family History Librar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Salt Lake City[솔트레이크시티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가족 역사 도서관]

Abbott Family Collection, 1831-2000. CHL.

Adams, Dale W. "Grandison Newell's Obsession." *Journal of Mormon History* 30, no. 1 (2004): 159-88.

Albany Evening Journal. Albany, NY. 1830-63.

Alexander, Thomas G. *Things in Heaven and Earth: The Life and Times of Wilford Woodruff, a Mormon Prophet*. Salt Lake City: Signature Books, 1991.

Allen, James B., Ronald K. Esplin, and David J. Whittaker. *Men with a Mission, 1837-1841: The Quorum of the Twelve Apostles in the British Isles*. Salt Lake City: Deseret Book, 1992.

Allen, James B., and Malcom R. Thorp. "The Mission of the Twelve to England, 1840-41: Mormon Apostles and the Working Class." *BYU Studies* 14, no. 4 (Summer 1975): 499-526.

Allen, Lucy M. Autobiographical Sketch, no date. CHL.

Alton Telegraph and Democratic Review. Alton, IL. 1836-55.

Amboy Journal. Amboy, IL. 1870-1913.

Ames, Ira. Autobiography and Journal, 1858. CHL.

Anderson, Karl Ricks. *Joseph Smith's Kirtland: Eyewitness Accounts*. Salt Lake City: Deseret Book, 1989.

Anderson, Richard Lloyd. "Jackson County in Early Mormon Descriptions." *Missouri Historical Review* 65, no. 3 (Apr. 1971): 270-93.

———. *Joseph Smith's New England Heritage: Influences of Grandfathers Solomon Mack and Asael Smith*. Rev. ed. Salt Lake City: Deseret Book; Provo, UT: Brigham Young University Press, 2003.

Arnold, Isaac N. *Reminiscences of the Illinois Bar Forty Years Ago: Lincoln and Douglas as Orators and Lawyers*. Chicago: Fergus Printing, 1881.

Arrington, Leonard J. "James Gordon Bennett's 1831 Report on 'The Mormonites.'" *BYU Studies* 10 (Spring 1970): 353-64.

Ashurst-McGee, Mark. "The Josiah Stowell Jr.-John S. Fullmer Correspondence." *BYU Studies* 38, no. 3 (1999): 108-17.

Backman, Milton V., Jr. *The Heavens Resound: A History of the Latter-day Saints in Ohio, 1830-1838*. Salt Lake City: Deseret Book, 1983.

Baldwin, Nathan Bennett. Account of *Zion's Camp*, 1882. Typescript. CHL.

Ball, Isaac Birkenhead. "The Prophet's Sister Testifies She Lifted the B. of M. Plates," Aug. 31, 1954. CHL.

Bartlett, W. H. *Walks about the City and Environs of Jerusalem*. London: Hall, Virtue, 1840.

- Baugh, Alexander L. *A Call to Arms: The 1838 Mormon Defense of Northern Missouri*. Dissertations in Latter-day Saint History. Provo, UT: Joseph Fielding Smith Institute for Latter-day Saint History; BYU Studies, 2000.
- . ed. *Days Never to Be Forgotten: Oliver Cowdery*. Provo, UT: Religious Studies Center, Brigham Young University, 2009.
- . "'I'll Never Forsake': Amanda Barnes Smith (1809–1886)." In *Women of Faith in the Latter Days*. Vol. 1, 1775–1820, edited by Richard E. Turley Jr. and Brittany A. Chapman, 450–60. Salt Lake City: Deseret Book, 2011.
- . "Joseph Smith in Northern Missouri." In *Joseph Smith, the Prophet and Seer*, edited by Richard Neitzel Holzzapfel and Kent P. Jackson, 291–346. Provo, UT: Religious Studies Center, Brigham Young University; Salt Lake City: Deseret Book, 2010.
- . "Joseph Smith's Athletic Nature." In *Joseph Smith: The Prophet, The Man*, edited by Susan Easton Black and Charles D. Tate Jr., 137–50. Provo, UT: Religious Studies Center, Brigham Young University, 1993.
- . "Joseph Young's Affidavit of the Massacre at Haun's Mill." *BYU Studies* 38, no. 1 (1999): 188–202.
- . "Kirtland Camp, 1838: Bringing the Poor to Missouri." *Journal of Book of Mormon Studies* 22, no. 1 (2013): 58–61.
- . "Missouri Governor Lilburn W. Boggs and the Mormons." *John Whitmer Historical Association Journal* 18 (1998): 111–32.
- . "A Rare Account of the Haun's Mill Massacre: The Reminiscence of Willard Gilbert Smith." *Mormon Historical Studies* 8, nos. 1 and 2 (2007): 165–71.
- . "'We Took Our Change of Venue to the State of Illinois': The Gallatin Hearing and the Escape of Joseph Smith and the Mormon Prisoners from Missouri, April 1839." *Mormon Historical Studies* 2, no. 1 (2001): 59–82.
- Baugh, Alexander L., and Richard Neitzel Holzzapfel. "'I Roll the Burthen and Responsibility of Leading This Church off from My Shoulders on to Yours': The 1844/1845 Declaration of the Quorum of the Twelve regarding Apostolic Succession." *BYU Studies* 49, no. 3 (2010): 5–19. Benjamin Brown Family Collection, 1835–1983. CHL.
- Bennett, Richard E. "'Quincy—the Home of Our Adoption': A Study of the Mormons in Quincy, Illinois, 1838–40." *Mormon Historical Studies* 2, no. 1 (2001): 103–18.
- . "'Read This I Pray Thee': Martin Harris and the Three Wise Men of the East." *Journal of Mormon History* 36 (Winter 2010): 178–216.
- 성경, 성경 참조.
- Biographical Review of Hancock County, Illinois, Containing Biographical and Genealogical Sketches of Many of the Prominent Citizens of To-Day and Also of the Past*. Chicago: Hobart, 1907.
- "Biography of Mary Ann Angell Young." *Juvenile Instructor* 26, no. 2 (Jan. 15, 1891): 56–58.
- Bitton, Davis. *George Q. Cannon: A Biography*. Salt Lake City: Deseret Book, 1999.
- Black, Susan Easton, and Harvey Bischoff Black. *Annotated Record of Baptisms for the Dead, 1840–1845, Nauwoo, Hancock County, Illinois*. 7 vols. Provo, UT: Center for Family History and Genealogy, Brigham Young University, 2002.
- Blackstone, William. *Commentaries on the Laws of England: In Four Books; with an Analysis of the Work. By Sir William Blackstone, Knt. One of the Justices of the Court of Common Pleas. In Two Volumes, from the Eighteenth London Edition* 2 vols. New York: W. E. Dean, 1840.
- Boggs, William M. "A Short Biographical Sketch of Lilburn W. Boggs, by His Son." *Missouri Historical Review* 4, no. 2 (Jan. 1910): 106–10.
- A Book of Commandments, for the Government of the Church of Christ, Organized according to Law, on the 6th of April, 1830*. Zion [Independence], MO: W. W. Phelps, 1833.
- The Book of Mormon: An Account Written by the Hand of Mormon, upon Plates Taken from the Plates of Nephi*. Palmyra, NY: E. B. Grandin, 1830.

- The Book of Mormon: Another Testament of Jesus Christ*, Salt Lake Cit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2013.
- Bowen, Walter D. "The Versatile W. W. Phelps—Mormon Writer, Educator and Pioneer." Master's thesis, Brigham Young University, 1958.
- Bradley, Don. "Mormon Polygamy before Nauvoo? The Relationship of Joseph Smith and Fanny Alger." In *Persistence of Polygamy: Joseph Smith and the Origins of Mormon Polygamy*, edited by Newell G. Bringhurst and Craig L. Foster, 14–58. Independence, MO: John Whitmer Books, 2010.
- Bradley, James L. *Zion's Camp 1834: Prelude to the Civil War*. Logan, UT: By the author, 1990.
- Bradshaw, M. Scott. "Joseph Smith's Performance of Marriages in Ohio." *BYU Studies* 39, no. 4 (2000): 23–69.
- Bray, Justin R. "Within the Walls of Liberty Jail: DC 121, 122, 123." In *Revelations in Context: The Stories behind the Sections of the Doctrine and Covenants*, edited by Matthew McBride and James Goldberg, 256–63. Salt Lake Cit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2016.
- Breen, Patrick H. *The Land Shall Be Deluged in Blood: A New History of the Nat Turner Revol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 Brekus, Catherine A. *Strangers and Pilgrims: Female Preaching in America, 1740–1845*.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98.
- Briggs, Edmund C. "A Visit to Nauvoo in 1856." *Journal of History* 9, no. 4 (Oct. 1916): 446–62. Brigham Young Office Files, 1832–78. CHL.
- Britton, John. *Bath and Bristol, with the Counties of Somerset and Gloucester, Displayed in a Series of Views; including the Modern Improvements, Picturesque Scenery, Antiques, &c.* London: Jones and Company, 1829.
- Britton, Rollin J. *Early Days on Grand River and the Mormon War*. Columbia: State Historical Society of Missouri, 1920.
- Brunson, Lewis. "Short Sketch of Seymour Brunson, Sr." *Nauvoo Journal* 4 (1992): 3–4.
- Burbank, Daniel M. *Autobiography*, 1863. CHL.
- Burgess, James. *Journal*, 1841–48. CHL.
- Burnett, Peter H. *An Old California Pioneer*. Oakland, CA: Biobooks, 1946.
- . *Recollections and Opinions of an Old Pioneer*. New York: D. Appleton, 1880.
- Burton, Richard F. *The City of the Saints, and Across the Rocky Mountains to California*. New York: Harper and Brothers, 1862.
- Bushman, Richard Lyman. "Joseph Smith as Translator." In *Believing History: Latter-day Saint Essays*, edited by Reid L. Neilson and Jed Woodworth, 233–47.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4.
- . *Joseph Smith: Rough Stone Rolling*. With the assistance of Jed Woodworth. New York: Knopf, 2005.
- . "Oliver's Joseph." In *Days Never to Be Forgotten: Oliver Cowdery*, edited by Alexander L. Baugh, 1–13. Provo, UT: Religious Studies Center, Brigham Young University, 2009.
- . *The Refinement of America: Persons, Houses, Cities*. New York: Knopf, 1992.
- . "The Visionary World of Joseph Smith." *BYU Studies* 37, no. 1 (1997–98): 183–204.
- Butler, John L. "A Short Account of an Affray That Took Place between the Latter Day Saints and a Portion of the People of Davis County Mo," 1859. CHL.
- . "A Short History," *Autobiography*, circa 1859. CHL.
- Cahoon, Reynolds. *Diaries*, 1831–32. CHL.
- Call, Anson. *Autobiography and Journal*, circa 1856–89. CHL.
- Cannon, Brian Q., and BYU Studies Staff. "Priesthood Restoration Documents." *BYU Studies* 35, no. 4 (1995–96): 163–207.
- Cannon, Eugene M. "Tahiti and the Society Island Mission." *Juvenile Instructor* 32, no. 11 (June 1, 1897): 334–36.

- Carruth, LaJean Purcell, and Mark Lyman Staker. "John Taylor's June 27, 1854, Account of the Martyrdom," *BYU Studies* 50, no. 3 (2011): 25–62.
- Chamberlin, Solomon. *Autobiography*, circa 1858. CHL.
- Chardon Spectator and Geauga Gazette*. Chardon, OH. 1833–35.
- Chenango Union*. Norwich, NY. 1847–1975.
- Chicago Tribune*. Chicago. 1847–.
- Christensen, Edith Rushton. "Edwin Rushton: Bridge Builder and Faithful Pioneer." Salt Lake City: N.p., 1941.
- The Church Historian's Press. Church History Department,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http://churchhistorianspress.org>.
- Church History Department Pitman Shorthand Transcriptions, 2013–17. CHL.
- Clayton, William. *History of the Nauvoo Temple*, circa 1845. CHL.
- . *Journals, 1842–45*. CHL.
- . Letter to Madison M. Scott, Nov. 11, 1871. Copy. CHL.
- Cleveland Daily Gazette*. Cleveland. 1836–37.
- Cleveland Weekly Gazette*, Cleveland. 1837.
- Collected Material concerning Joseph Smith and Plural Marriage, circa 1870–1912. CHL.
- Collection of Manuscripts about Mormons, 1832–1954. Chicago History Museum.
- A Collection of Sacred Hymns, for the Church of the Latter Day Saints*. Edited by Emma Smith. Kirtland, OH: F. G. Williams, 1835.
- A Collection of Sacred Hymns, for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in Europe*. Selected by Brigham Young, Parley P. Pratt, and John Taylor. Manchester, England: W. R. Thomas, 1840.
- Coltrin, Zebedee. *Diaries and Notebook, 1832–34*. CHL.
- Cook, Lyndon W., ed. *David Whitmer Interviews: A Restoration Witness*. Orem, UT: Grandin Book, 1991.
- . "I Have Sinned against Heaven, and Am Unworthy of Your Confidence, but I Cannot Live without a Reconciliation": Thomas B. Marsh Returns to the Church." *BYU Studies* 20, no. 4 (Summer 1980): 389–400.
- . *William Law: Biographical Essay, Nauvoo Diary, Correspondence, Interview*. Orem, UT: Grandin Book, 1994.
- Cook, Thomas L. *Palmyra and Vicinity*. Palmyra, NY: Palmyra Courier–Journal, 1930.
- Cooper, F. M. "Spiritual Reminiscences.—No. 2." *Autumn Leaves* 4, no. 1 (Jan. 1891): 17–20.
- Coray, Martha Jane Knowlton. *Notebook*, circa 1850. CHL.
- Corrill, John. *A Brief History of the Church of Christ of Latter Day Saints, (Commonly Called Mormons;) Including an Account of Their Doctrine and Discipline; with the Reasons of the Author for Leaving the Church*. St. Louis: By the author, 1839.
- Cowan, Richard O. *Temple Building: Ancient and Modern*. Provo, UT: Brigham Young University Press, 1971.
- Cowdery, Oliver. *Diary*, Jan.–Mar. 1836. CHL. Also available as Leonard J. Arrington, "Oliver Cowdery's Kirtland, Ohio, 'Sketch Book,'" *BYU Studies* 12, no. 4 (Summer 1972): 410–26.
- . *Letterbook, 1833–38*. Henry E. Huntington Library, San Marino, CA.
- . Letter to Phineas Young, Mar. 23, 1846. CHL.
- Crawley, Peter, and Richard L. Anderson. "The Political and Social Realities of *Zion's Camp*." *BYU Studies* 14 (Summer 1974): 406–20.
- Crocheron, Augusta Joyce. *Representative Women of Deseret, a Book of Biographical Sketches, to Accompany the Picture Bearing the Same Title*. Salt Lake City: J. C. Graham, 1884.
- Crosby, Caroline Barnes. *Reminiscences*, no date. In Jonathan and Caroline B. Crosby Papers, circa 1871–75. Copy at CHL.
- Crosby, Jonathan. *Autobiography, 1850–52*. In Jonathan and Caroline B. Crosby Papers, circa 1871–75. Copy at CHL.
- Cummings, Horace. "Conspiracy of Nauvoo." *Contributor*, Apr. 1884, 251–60.

- Daily Missouri Republican*. St. Louis. 1822-1919.
- Daniels, William M. *Correct Account of the Murder of Generals Joseph and Hyrum Smith, at Carthage. On the 27th Day of June, 1844*. Nauvoo, IL: John Taylor, 1845.
- Darowski, Joseph F. "The Journey of the Colesville Branch: DC 26, 51, 54, 56, 59." In *Revelations in Context: The Stories behind the Sections of the Doctrine and Covenants*, edited by Matthew McBride and James Goldberg, 40-44. Salt Lake Cit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2016.
- Darowski, Kay. "Joseph Smith's Support at Home: DC 4, 11, 23." In *Revelations in Context: The Stories behind the Sections of the Doctrine and Covenants*, edited by Matthew McBride and James Goldberg, 10-14. Salt Lake Cit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2016.
- 내 왕국에 속한 딸들: 상호부조회의 역사와 업적. 솔트레이크시티: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2011.
- Davis, Matthew L. Letter to Mrs. Matthew [Mary] L. Davis, Feb. 6, 1840. CHL.
- 로널드 디 매니스 "웨일즈인 덴 존즈: 고향에 복음을 전함." 성도의 빛, 1987년 12월호, 25~30쪽.
- . "The Martyrdom of Joseph Smith and His Brother Hyrum." *BYU Studies* 24, no. 1 (Winter 1984): 78-109.
- Derr, Jill Mulvay, Janath Russell Cannon, and Maureen Ursenbach Beecher. *Women of Covenant: The Story of Relief Society*. Salt Lake City: Deseret Book; Provo, UT: Brigham Young University Press, 1992.
- Derr, Jill Mulvay, Carol Cornwall Madsen, Kate Holbrook, and Matthew J. Grow, eds. *The First Fifty Years of Relief Society: Key Documents in Latter-day Saint Women's History*. Salt Lake City: Church Historian's Press, 2016.
- Deseret News*. Salt Lake City. 1850-.
- "Diary of Joseph Fielding." 1963. Typescript. CHL.
- Dibble, Philo. "Philo Dibble's Narrative." In *Early Scenes in Church History*, Faith-Promoting Series 8, 74-96. Salt Lake City: Juvenile Instructor Office, 1882.
- . "Recollections of the Prophet Joseph Smith." *Juvenile Instructor* 27, no. 10 (May 15, 1892): 302-4.
- . Reminiscences, no date. Typescript. CHL.
- Dickinson, Ellen E. *New Light On Mormonism*. New York: Funk and Wagnalls, 1885.
- Dictionary of Missouri Biography*. Edited by Lawrence O. Christensen, William E. Foley, Gary R. Kremer, and Kenneth H. Winn. Columbia: University of Missouri Press, 1999.
- The Doctrine and Covenants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Containing Revelations Given to Joseph Smith, the Prophet, with Some Additions by His Successors in the Presidency of the Church*. Salt Lake Cit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2013.
- Document Containing the Correspondence, Orders, &c., in Relation to the Disturbances with the Mormons; and the Evidence Given before the Hon. Austin A. King, Judge of the Fifth Judicial Circuit of the State of Missouri, at the Court-House in Richmond, in a Criminal Court of Inquiry, Begun November 12, 1838, on the Trial of Joseph Smith, Jr., and Others, for High Treason and Other Crimes against the State*. Fayette, MO: Boon's Lick Democrat, 1841.
- Dunn, Lura S., comp. *Amanda's Journal*. Provo, UT: Lura S. Dunn, [197?].
- Durham, G. Homer, ed. *The Gospel Kingdom: Selections from the Writings and Discourses of John Taylor*. Salt Lake City: Bookcraft, 1943.
- Durham, Reed C., Jr. "The Election Day Battle at Gallatin." *BYU Studies* 13, no. 1 (1973): 36-61.
- Ehat, Andrew F. "Joseph Smith's Introduction of Temple Ordinances and the 1833 Mormon Succession Question." Master's thesis, Brigham Young University, 1981.
- Ellsworth, S. George, ed. *The History of Louisa Barnes Pratt, Being the Autobiography of a Mormon Missionary Widow and Pioneer ...*. Life Writings of Frontier Women 3. Logan: Utah State University Press, 1998.

- . ed. *The Journals of Addison Pratt, Being a Narrative of Yankee Whaling in the Eighteen Twenties, a Mormon Mission to the Society Islands* Salt Lake City: University of Utah Press, 1990.
- "Elder John Brush." *Autumn Leaves* 4, no. 1 (Jan. 1891): 21–24.
- Elders' Journal of the Church of Latter Day Saints*. Kirtland, OH, Oct.–Nov. 1837; Far West, MO, July–Aug. 1838.
- Emma Smith Blessing, 1844. CHL.
- Erie Gazette*. Erie, PA. 1820–59.
- Esplin, Ronald K. "The Emergence of Brigham Young and the Twelve to Mormon Leadership, 1830–1841." PhD diss., Brigham Young University, 1981. *The Emergence of Brigham Young and the Twelve to Mormon Leadership, 1830–1841*, Dissertations in Latter-day Saint History (Provo, UT: Joseph Fielding Smith Institute for Latter-day Saint History; *BYU Studies*, 2006).
- . "Joseph Smith's Mission and Timetable: 'God Will Protect Me until My Work Is Done.'" In *The Prophet Joseph: Essays on the Life and Mission of Joseph Smith*, edited by Larry C. Porter and Susan Easton Black, 280–319. Salt Lake City: Deseret Book, 1988.
- Evening and Morning Star*. Edited reprint of *The Evening and the Morning Star*. Kirtland, OH. Jan. 1835–Oct. 1836.
- The Evening and the Morning Star*. Independence, MO, July 1832–July 1833; Kirtland, OH, Dec. 1833–Sept. 1834.
- Far West Committee. Minutes, Jan.–Apr. 1839. CHL.
- Faulring, Scott H., Kent P. Jackson, and Robert J. Matthews, eds. *Joseph Smith's New Translation of the Bible: Original Manuscripts*. Provo, UT: Religious Studies Center, Brigham Young University, 2004.
- Fielding, Joseph. Journals, 1837–59. CHL.
- Flanders, Robert Bruce. *Nauwoo: Kingdom on the Mississippi*.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56.
- Foote, Warren. Autobiography and Journal, 1837–79. Warren Foote Papers, 1837–1941. CHL.
- Ford, Thomas. *A History of Illinois, from Its Commencement as a State in 1818 to 1847. Containing a Full Account of the Black Hawk War, the Rise, Progress, and Fall of Mormonism, the Alton and Lovejoy Riots, and Other Important and Interesting Events*. Chicago: S. C. Griggs; New York: Ivison and Phinney, 1854.
- Foster, Craig L. *Penny Tracts and Polemics: A Critical Analysis of Anti-Mormon Pamphleteering in Great Britain (1837–1860)*. Salt Lake City: Greg Kofford Books, 2002.
- Freidel, Frank, with Hugh S. Sidney. *The President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5th ed. Washington, DC: White House Historical Association, 1999.
- Gates, Susa Young. *History of the Young Ladies' Mutual Improvement Association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from November 1869 to June 1910*. Salt Lake City: Deseret News, 1911.
- . [Homespun, pseud.]. *Lydia Knight's History*. Noble Women's Lives Series 1. Salt Lake City: Juvenile Instructor Office, 1883.
- . Papers, 1852–1932. Utah State Historical Society, Salt Lake City.
- Geauga County Archives and Records Center, Chardon, OH.
- Genry, Leland Homer, and Todd M. Compton. *Fire and Sword: A History of the Latter-day Saints in Northern Missouri, 1836–39*. Salt Lake City: Greg Kofford Books, 2010.
- Gilbert, John H. Memorandum, Sept. 8, 1892. Photocopy. CHL.
- . Statement, Oct. 23, 1887. CHL.
- Givens, George W. *In Old Nauwoo: Everyday Life in the City of Joseph*. Salt Lake City: Deseret Book, 1990.
- Givens, Terryl L., and Matthew J. Grow. *Parley P. Pratt: The Apostle Paul of Mormonis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 Godfrey, Kenneth W. "Joseph Smith and the Masons." *Journal of the Illinois State Historical Society* 64, no. 1 (Spring 1971): 79–90.

- Godfrey, Matthew C. "Newel K. Whitney and the United Firm: DC 70, 78, 82, 92, 96, 104." In *Revelations in Context: The Stories behind the Sections of the Doctrine and Covenants*, edited by Matthew McBride and James Goldberg, 142-47. Salt Lake Cit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2016.
- . "William McLellin's Five Questions: DC 1, 65, 66, 67, 68, 133." In *Revelations in Context: The Stories behind the Sections of the Doctrine and Covenants*, edited by Matthew McBride and James Goldberg, 137-41. Salt Lake Cit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2016.
- Gordon, Joseph. "The Public Career of Lilburn W. Boggs."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Missouri, 1949.
- "복음 주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http://lds.org/topics>.
- Greene, John P. *Facts Relative to the Expulsion of the Mormons or Latter Day Saints, from the State of Missouri, under the "Exterminating Order."* Cincinnati: R. P. Brooks, 1839.
- Gregg, Sarah D. Letter to Thomas Gregg, June 14, 1844. Copy. Illinois State Historical Society Papers, 1840-45. CHL.
- Gregg, Thomas. *History of Hancock County, Illinois, together with an Outline History of the State, and a Digest of State Laws.* Chicago: Charles C. Chapman, 1880.
- Gregory, Thomas J. "Sidney Rigdon: Post Nauvoo." *BYU Studies* 21, no. 1 (Winter 1981): 51-67.
- Grua, David W. "Joseph Smith and the 1834 D. P. Hurlbut Case." *BYU Studies* 44, no. 1 (2005): 33-54.
- . "Waiting for the Word of the Lord: DC 97, 98, 101." In *Revelations in Context: The Stories behind the Sections of the Doctrine and Covenants*, edited by Matthew McBride and James Goldberg, 196-201. Salt Lake Cit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2016.
- Grow, Matthew J. "'Thou Art an Elect Lady': DC 24, 25, 26, 27." In *Revelations in Context: The Stories behind the Sections of the Doctrine and Covenants*, edited by Matthew McBride and James Goldberg, 33-39. Salt Lake Cit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2016.
- Hales, Brian C. *Joseph Smith's Polygamy*. 3 vols. Salt Lake City: Greg Kofford Books, 2013.
- Hales, Kenneth Glyn, ed. *Windows: A Mormon Family*. Tucson, AZ: Skyline Printing, 1985.
- Hall, Mary A. Newell. *Thomas Newell, Who Settled in Farmington, Conn., A.D. 1632*. And His Descendants. Southington, CT: Cochrane Brothers, 1878.
- Hamilton, C. Mark. *Nineteenth-Century Mormon Architecture and City Planning*.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 Hamilton, Marshall. "Thomas Sharp's Turning Point: Birth of an Anti-Mormon." *Sunstone* 13, no. 5 (Oct. 1989): 16-22.
- Hancock, Levi. Autobiography, circa 1854. CHL.
- Harper, Steven C. "Freemasonry and the Latter-day Saint Temple Endowment Ceremony." In *A Reason for Faith*, edited by Laura Harris Hales, 143-57. Provo, UT: Religious Studies Center, Brigham Young University; Salt Lake City: Deseret Book, 2016.
- . "The Law: DC 42." In *Revelations in Context: The Stories behind the Sections of the Doctrine and Covenants*, edited by Matthew McBride and James Goldberg, 93-98. Salt Lake Cit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2016.
- . "A Pentecost and Endowment Indeed: Six Eyewitness Accounts of the Kirtland Temple Experience." In *Opening the Heavens: Accounts of Divine Manifestations, 1820-1844*, edited by John W. Welch, 327-71. Salt Lake City: Deseret Book; Provo, UT: Brigham Young University Press, 2005.
- . *Setting the Record Straight: The Word of Wisdom*. Orem, UT: Millennial Press, 2007.
- . "The Tithing of My People: DC 119, 120." In *Revelations in Context: The Stories behind the Sections of the Doctrine and Covenants*, edited by Matthew McBride and James Goldberg, 250-55. Salt Lake Cit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2016.
- Hartley, William G. "Almost Too Intolerable a Burthen: The Winter Exodus from Missouri, 1838-39." *Journal of Mormon History* 18, no. 2 (1992): 6-40.

- . *My Best for the Kingdom: History and Autobiography of John Lowe Butler, a Mormon Frontiersman*. Salt Lake City: Aspen Books, 1993.
- . "Newel and Lydia Bailey Knight's Kirtland Love Story and Historic Wedding." *BYU Studies* 39, no. 4 (2000): 7–22.
- . "The Saints' Forced Exodus from Missouri." In *Joseph Smith, the Prophet and Seer*, edited by Richard Neitzel Holzapfel and Kent P. Jackson, 347–90. Provo, UT: Religious Studies Center, Brigham Young University; Salt Lake City: Deseret Book, 2010.
- Haven, Charlotte. "A Girl's Letters from Nauvoo." *Overland Monthly* 16, no. 96 (Dec. 1890): 616–38.
- Hayden, Amos Sutton. *Early History of the Disciples in the Western Reserve, Ohio; with Biographical Sketches of the Principal Agents in Their Religious Movement*. Cincinnati: Chase and Hall, 1875.
- Hendricks, Drusilla D. *Reminiscences*, circa 1877. CHL.
- Hicks, Michael. *Mormonism and Music: A History*.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89.
- Hill, Craig. "The Honey War." *Pioneer America* 14, no. 2 (July 1982): 81–88.
- Hinsdale, B. A. "Life and Character of Symonds Ryder." In Amos S. Hayden, *Early History of the Disciples in the Western Reserve, Ohio; with Biographical Sketches of the Principal Agents in Their Religious Movement*, 245–57. Cincinnati: Chase and Hall, 1875.
- Historian's Office. *Brigham Young History Drafts*, 1856–58. CHL.
- . *General Church Minutes, 1839–77*. CHL.
- . *Histories of the Twelve, 1856–58, 1861*. CHL.
- . "History of Brigham Young." In *Manuscript History of Brigham Young*, circa 1856–60, vol. 1, 1–104. CHL.
- . *History of the Church, 1838–circa 1882*. 69 vols. CHL.
- . *Joseph Smith History Documents, 1839–60*. CHL.
- . *Joseph Smith History Draft Notes, circa 1840–80*. CHL.
- . *Manuscript History of Brigham Young, 1856–62*. CHL.
- . *Reports of Speeches, 1845–85*. CHL.
- Historical Department. *Journal History of the Church, 1896–2008*. CHL.
- The Historical Record, a Monthly Periodical, Devoted Exclusively to Historical, Biographical, Chronological and Statistical Matters*. Salt Lake City. 1882–90.
- "Historic Sites and Markers: Morley's Settlement." *Nauvoo Journal* 11, no. 1 (Spring 1999): 153–55.
- History of Caldwell and Livingston Counties, Missouri, Written and Compiled from the Most Authentic Official and Private Sources . . .*. St. Louis: National Historical Co., 1886.
- History of Carroll County, Missouri, Carefully Written and Compiled from the Most Authentic Official and Private Sources . . .*. St. Louis: Missouri Historical Company, 1881.
- History of the Church / Smith, Joseph and others. History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Edited by B. H. Roberts. Salt Lake City: *Deseret News*, 1902–12 (vols. 1–6), 1932 (vol. 7).
- The History of the Reorganized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 Day Saints*. 8 vols. Independence, MO: Herald Publishing House, 1896–1976.
- Holbrook, Joseph. "History of Joseph Holbrook." In Joseph Holbrook, *Autobiography and Journal*, circa 1860–71. Typescript. CHL.
- . *Reminiscences*, not before 1871. In Joseph Holbrook, *Autobiography and Journal*, circa 1860–71. Private possession. Copy at CHL.
- The Holy Bible, Containing the Old and New Testaments Translated Out of the Original Tongues: And with the Former Translations Diligently Compared and Revised, by His Majesty's Special Command. Authorized King James Version with Explanatory Notes and Cross References to the Standard Works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Salt Lake Cit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2013.
- Holzapfel, Richard Neitzel, and Steven C. Harper. "'This Is My Testimony, Spoken by Myself into a Talking Machine': Wilford Woodruff's 1897 Statement in Stereo." *BYU Studies* 45, no. 2 (2006): 112–16.

- Hoyt, Emily S. *Reminiscences and Diary, 1851-93*. 7 vols. CHL.
- Huntington, Oliver B. *Diary and Reminiscences, 1843-1900*. Typescript. CHL.
- Hyde, Myrtle Stevens. *Orson Hyde: The Olive Branch of Israel*. Salt Lake City: Agreka Books, 2000.
- Hyde, Orson. *Ein Ruf aus der Wüste, eine Stimme aus dem Schoose der Erde: Kurzer Ueberblick des Ursprungs und der Lehre der Kirche "Jesus Christ of Latter Day Saints" in Amerika, gekannt von Manchen unter der Benennung: "Die Mormonen."* Frankfurt: Im Selbstverlage des Verfassers, 1842. Joseph Smith Papers[조셉 스미스 기록들(josephsmithpapers.org)] 웹사이트에서 독일어와 영어로 번역된 발췌문을 볼 수 있다.
- . *A Voice from Jerusalem, or a Sketch of the Travels and Ministry of Elder Orson Hyde, Missionary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 Day Saints, to Germany, Constantinople, and Jerusalem* Liverpool: P. P. Pratt, 1842.
- Hyrum Smith Family Bible, 1834. In Hyrum Smith, Papers, circa 1832-44. BYU.
- Illinois State Historical Library. Circuit Court Case Files, 1830-1900. Microfilm. CHL.
- An Illustrated Itinerary of the County of Lancaster*. London: How and Parsons, 1842.
- It Becomes Our Duty to Address You on the Subject of Immediately Preparing*. [Kirtland, OH: May 10, 1834]. Copy at CHL.
- Jackman, Levi. "A Short Sketch of the Life of Levi Jackman." Typescript. CHL.
- Jackson, Stephen T. "Chief Anderson and His Legacy." Madison County Historical Society. Accessed Mar. 21, 2018. <http://andersonmchs.com>.
- James, Jane Manning. *Autobiography*, circa 1902. CHL.
- Jaques, Vienna. Statement, Feb. 22, 1859. CHL.
- Jeffress, Melinda Evans. "Mapping Historic Nauvoo." *BYU Studies* 32, nos. 1 and 2 (1992): 269-75.
- Jennings, Erin B. "Charles Anthon: The Man behind the Letters." *John Whitmer Historical Association Journal* 32, no. 2 (Fall/Winter 2012): 171-87.
- Jennings, Warren A. "Isaac McCoy and the Mormons," *Missouri Historical Review* 61, no. 1 (Oct. 1966): 62-82.
- Jensen, Robin S., and LaJean P. Carruth. "Sidney Rigdon's Plea to the Saints: Transcription of Thomas Bullock's Shorthand Notes from the August 8, 1844, Morning Meeting." *BYU Studies Quarterly* 53, no. 2 (2014): 121-39.
- Jenson, Andrew. Collection, circa 1841-1942. CHL.
- Jessee, Dean. "Joseph Knight's Recollection of Early Mormon History." *BYU Studies* 17, no. 1 (Autumn 1976): 29-39.
- . "'Walls, Grates and Screeking Iron Doors': The Prison Experience of Mormon Leaders in Missouri, 1838-1839." In *New Views of Mormon History: Essays in Honor of Leonard J. Arrington*, edited by Davis Bitton and Maureen Ursenbach Beecher, 19-42. Salt Lake City: University of Utah Press, 1987.
- Jessee, Dean C. and John W. Welch. "Revelations in Context: Joseph Smith's Letter from Liberty Jail, March 20, 1839." *BYU Studies* 39, no. 3 (2000): 125-45.
- Jessee, Dean C., and David J. Whittaker. "The Last Months of Mormonism in Missouri: The Albert Perry Rockwood Journal." *BYU Studies* 28, no. 1 (1988): 5-41.
- Johnson, Benjamin Franklin. "A Life Review," circa 1885-94, 1923. Benjamin Franklin Johnson, Papers, 1852-1923. CHL.
- . Papers, 1852-1911. CHL.
- Johnson, Clark V., ed. *Mormon Redress Petitions: Documents of the 1833-1838 Missouri Conflict*. Religious Studies Center Monograph Series 16. Provo, UT: Religious Studies Center, Brigham Young University, 1992.
- Johnson, Janiece. "'Give Up All and Follow Your Lord': Testimony and Exhortation in Early Mormon Women's Letters, 1831-1839." *BYU Studies* 41, no. 1 (2002): 77-107.
- Johnson, Joel H. Notebook, not before 1879. Joel Hills Johnson, Papers, circa 1877-79. CHL.
- . *Reminiscences and Journals, 1835-82*. Joel Hills Johnson, Papers, circa 1835-82. CHL.

- Jorgensen, Lynne Watkins. "The Mantle of the Prophet Joseph Passes to Brother Brigham: A Collective Spiritual Witness." *BYU Studies Quarterly* 36, no. 4 (1996): 125-204.
- Joseph Smith Letterbook 2 / Smith, Joseph. "Copies of Letters, &c. &c.," 1839-43. Joseph Smith Collection. CHL.
- The Joseph Smith Papers. Church History Department,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http://josephsmithpapers.org>.
- Journal of Discourses*. 26 vols. Liverpool: F. D. Richards, 1855-86.
- Journal of the Senate of the Fourteenth General Assembly of the State of Illinois, at Their Regular Session, Begun and Held at Springfield, December 2, 1844*. Springfield, IL: Walters and Weber, 1844.
- Journal of the Senat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Being the First Session of the Twenty-Sixth Congress, Begun and Held at the City of Washington, December 2, 1839*. Washington, DC: Blair and Rives, 1839.
- JSP, CFM / Grow, Matthew J., Ronald K. Esplin, Mark Ashurst-McGee, Gerrit J. Dirkmaat, and Jeffrey D. Mahas, eds. *Council of Fifty, Minutes, March 1844–January 1846*. Administrative Records series of *The Joseph Smith Papers*, edited by Ronald K. Esplin, Matthew J. Grow, and Matthew C. Godfrey. Salt Lake City: Church Historian's Press, 2016.
- JSP, D1 / MacKay, Michael Hubbard, Gerrit J. Dirkmaat, Grant Underwood, Robert J. Woodford, and William G. Hartley, eds. *Documents, Volume 1: July 1828–June 1831*. Vol. 1 of the Documents series of *The Joseph Smith Papers*, edited by Dean C. Jessee, Ronald K. Esplin, Richard Lyman Bushman, and Matthew J. Grow. Salt Lake City: Church Historian's Press, 2013.
- JSP, D2 / Godfrey, Matthew C., Mark Ashurst-McGee, Grant Underwood, Robert J. Woodford, and William G. Hartley, eds. *Documents, Volume 2: July 1831–January 1833*. Vol. 2 of the Documents series of *The Joseph Smith Papers*, edited by Dean C. Jessee, Ronald K. Esplin, Richard Lyman Bushman, and Matthew J. Grow. Salt Lake City: Church Historian's Press, 2013.
- JSP, D3 / Dirkmaat, Gerrit J., Brent M. Rogers, Grant Underwood, Robert J. Woodford, and William G. Hartley, eds. *Documents, Volume 3: February 1833–March 1834*. Vol. 3 of the Documents series of *The Joseph Smith Papers*, edited by Ronald K. Esplin and Matthew J. Grow. Salt Lake City: Church Historian's Press, 2014.
- JSP, D4 / Godfrey, Matthew C., Brenden W. Rensink, Alex D. Smith, Max H Parkin, and Alexander L. Baugh, eds. *Documents, Volume 4: April 1834–September 1835*. Vol. 4 of the Documents series of *The Joseph Smith Papers*, edited by Ronald K. Esplin, Matthew J. Grow, and Matthew C. Godfrey. Salt Lake City: Church Historian's Press, 2016.
- JSP, D5 / Rogers, Brent M., Elizabeth A. Kuehn, Christian K. Heimbürger, Max H Parkin, Alexander L. Baugh, and Steven C. Harper, eds. *Documents, Volume 5: October 1835–January 1838*. Vol. 5 of the Documents series of *The Joseph Smith Papers*, edited by Ronald K. Esplin, Matthew J. Grow, and Matthew C. Godfrey. Salt Lake City: Church Historian's Press, 2017.
- JSP, D6 / Ashurst-McGee, Mark, David W. Grua, Elizabeth A. Kuehn, Brenden W. Rensink, and Alexander L. Baugh, eds. *Documents, Volume 6: February 1838–August 1839*. Vol. 6 of the Documents series of *The Joseph Smith Papers*, edited by Ronald K. Esplin, Matthew J. Grow, and Matthew C. Godfrey. Salt Lake City: Church Historian's Press, 2017.
- JSP, D7 / Godfrey, Matthew C., Spencer W. McBride, Alex D. Smith, and Christopher James Blythe, eds. *Documents, Volume 7: September 1839–January 1841*. Vol. 7 of the Documents series of *The Joseph Smith Papers*, edited by Ronald K. Esplin, Matthew J. Grow, and Matthew C. Godfrey. Salt Lake City: Church Historian's Press, 2018.
- JSP, H1 / Davidson, Karen Lynn, David J. Whittaker, Richard L. Jensen, and Mark Ashurst-McGee, eds. *Histories, Volume 1: Joseph Smith Histories, 1832–1844*. Vol. 1 of the Histories series of *The Joseph Smith Papers*, edited by Dean C. Jessee, Ronald K. Esplin, and Richard Lyman Bushman. Salt Lake City: Church Historian's Press, 2012.
- JSP, H2 / Davidson, Karen Lynn, Richard L. Jensen, and David J. Whittaker, eds. *Histories, Volume 2: Assigned Historical Writings, 1831–1847*. Vol. 2 of the Histories series of *The*

- Joseph Smith Papers*, edited by Dean C. Jessee, Ronald K. Esplin, and Richard Lyman Bushman. Salt Lake City: Church Historian's Press, 2012.
- JSP, J1 / Jessee, Dean C., Mark Ashurst-McGee, and Richard L. Jensen, eds. *Journals, Volume 1: 1832–1839*. Vol. 1 of the Journals series of *The Joseph Smith Papers*, edited by Dean C. Jessee, Ronald K. Esplin, and Richard Lyman Bushman. Salt Lake City: Church Historian's Press, 2008.
- JSP, J2 / Hedges, Andrew H., Alex D. Smith, and Richard Lloyd Anderson, eds. *Journals, Volume 2: December 1841–April 1843*. Vol. 2 of the Journals series of *The Joseph Smith Papers*, edited by Dean C. Jessee, Ronald K. Esplin, and Richard Lyman Bushman. Salt Lake City: Church Historian's Press, 2011.
- JSP, J3 / Hedges, Andrew H., Alex D. Smith, and Brent M. Rogers, eds. *Journals, Volume 3: May 1843–June 1844*. Vol. 3 of the Journals series of *The Joseph Smith Papers*, edited by Ronald K. Esplin and Matthew J. Grow. Salt Lake City: Church Historian's Press, 2015.
- JSP, MRB / Jensen, Robin Scott, Robert J. Woodford, and Steven C. Harper, eds. *Manuscript Revelation Books*. Facsimile edition. First volume of the Revelations and Translations series of *The Joseph Smith Papers*, edited by Dean C. Jessee, Ronald K. Esplin, and Richard Lyman Bushman. Salt Lake City: Church Historian's Press, 2009.
- JSP, R2 / Jensen, Robin Scott, Richard E. Turley Jr., and Riley M. Lorimer, eds. *Revelations and Translations, Volume 2: Published Revelations*. Vol. 2 of the Revelations and Translations series of *The Joseph Smith Papers*, edited by Dean C. Jessee, Ronald K. Esplin, and Richard Lyman Bushman. Salt Lake City: Church Historian's Press, 2011.
- JSP, R3, Part 1 / Skousen, Royal, and Robin Scott Jensen, eds. *Revelations and Translations, Volume 3, Part 1: Printer's Manuscript of the Book of Mormon, 1 Nephi 1–Alma 35*. Facsimile edition. Part 1 of vol. 3 of the Revelations and Translations series of *The Joseph Smith Papers*, edited by Ronald K. Esplin and Matthew J. Grow. Salt Lake City: Church Historian's Press, 2015.
- Kansas City Daily Journal*. Kansas City, MO. 1878–96.
- Keller, Karl. "I Never Knew a Time When I Did Not Know Joseph Smith": A Son's Record of the Life and Testimony of Sidney Rigdon." *Dialogue: A Journal of Mormon Thought* 1, no. 4 (1966): 15–42.
- Kerber, Linda K. "Abolitionists and Amalgamators: The New York City Race Riots of 1834." *New York History* 48, no. 1 (Jan. 1967): 28–39.
- Kimball, Heber C. Collection, 1837–98. CHL.
- . Diary, 1845. BYU.
- . "History of Heber Chase Kimball by His Own Dictation," circa 1842–56. Heber C. Kimball, Papers, 1837–66. CHL.
- . "The Journal and Record of Heber Chase Kimball an Apostle of Jesus Christ of Latter Day Saints," circa 1842–58. Heber C. Kimball, Papers, 1837–66. CHL.
- Kimball, Stanley B., ed. *On the Potter's Wheel: The Diaries of Heber C. Kimball*. Salt Lake City: Signature Books, 1987.
- Kimball, Vilate Murray. Letters, 1840. CHL.
- . Letter to Heber C. Kimball, June 30, 1844. CHL.
- Kirtland Camp, Journal, Mar.–Oct. 1838. CHL.
- Kirtland Elders' Certificates / Kirtland Elders Quorum. "Record of Certificates of Membership and Ordinations of the First Members and Elders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 Day Saints Dating from March 21st 1836 to June 18th 1838 Kirtland Geauga Co. Ohio." 1836–38. CHL.
- Kirtland Safety Society. Stock Ledger, 1836–37. Collection of Manuscripts about Mormons, 1832–1954. Chicago History Museum.
- Klingaman, William K., and Nicholas P. Klingaman. *The Year without Summer: 1816 and the Volcano That Darkened the World and Changed History*. New York: St. Martin's Griffin, 2014.
- Knight, Joseph, Sr. Reminiscences, no date. CHL.
- Knight, Newel. Autobiography, circa 1871. CHL.

- . Autobiography and Journal, circa 1846. CHL.
- Knutson, Phyllis. "Sheffield Daniels and Abigail Warren." FamilySearch. Compiled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Accessed Mar. 21, 2018. <https://familysearch.org>.
- Kowallis, Bart J. "In the Thirty and Fourth Year: A Geologist's View of the Great Destruction in 3 Nephi." *BYU Studies* 37, no. 3 (1997-98): 136-90.
- Kuehn, Elizabeth. "More Treasures Than One: DC 111." In *Revelations in Context: The Stories behind the Sections of the Doctrine and Covenants*, edited by Matthew McBride and James Goldberg, 229-34. Salt Lake Cit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2016.
- Larson, A. Karl, and Katharine Miles Larson, eds. *Diary of Charles Lowell Walker*, 2 vols. Logan: Utah State University Press, 1980.
- Latter Day Saints' Messenger and Advocate*. Kirtland, OH. 1834-37.
- Latter-day Saints' Millennial Star*. Liverpool. 1840-1970.
- Launius, Roger D., and F. Mark McKiernan. *Joseph Smith, Jr.'s Red Brick Store*. Macomb: Western Illinois University, 1985.
- Laws of the State of Illinois, Passed by the Eleventh General Assembly, at Their Special Session, Began and Held at Springfield, on the Ninth of December, One Thousand Eight Hundred and Thirty-Nine*. Springfield, IL: William Walters, 1840.
- Laws of the State of New-York, Revised and Passed at the Thirty-Sixth Session of the Legislature, with Marginal Notes and References ...*. 2 vols. Albany, NY: H. C. Southwick, 1813.
- Lee, John D. Journal, Feb.-Aug. 1846. John D. Lee, Journals, 1844-53. CHL.
- Leonard, Glen M. *Nauvoo: A Place of Peace, a People of Promise*. Salt Lake City: Deseret Book; Provo, UT: Brigham Young University Press, 2002.
- LeSueur, Stephen C. "High Treason and Murder": The Examination of Mormon Prisoners at Richmond, Missouri, in November 1838." *BYU Studies* 26, no. 2 (1986): 3-30.
- . "Missouri's Failed Compromise: The Creation of Caldwell County for the Mormons." *Journal of Mormon History* 31, no. 3 (Fall 2005): 113-44.
- Levi Richards Family Correspondence, 1827-48. CHL.
- Lewis, David. Autobiography, 1854. CHL.
- "Liberty Jail." Historic Sites, Church History Department,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Accessed Mar. 21, 2018. <http://history.lds.org>.
- "The Life of Norton Jacob." No date. Typescript. CHL.
- Lightner, Mary Elizabeth Rollins. Collection, 1865-1914. BYU.
- . Remarks, Apr. 14, 1905. Typescript. CHL.
- Littlefield, Lyman Omer. *Reminiscences of Latter-day Saints. Giving an Account of Much Individual Suffering Endured for Religious Conscience*. Logan, UT: Utah Journal, 1888.
- Livesey, Richard. *An Exposure of Mormonism, Being a Statement of Facts Relating to the Self-Styled "Latter Day Saints," and the Origin of the Book of Mormon*. Preston, England: J. Livesey, 1838.
- Lyman, Edward Leo, Susan Ward Payne, and S. George Ellsworth, eds. *No Place to Call Home: The 1807-1857 Life Writings of Caroline Barnes Crosby, Chronicler of Outlying Mormon Communities*. Life Writings of Frontier Women, edited by Maureen Ursenbach Beecher. Logan: Utah State University Press, 2005.
- Lyman, Eliza Partridge. Journal, 1846-85, 1927. CHL.
- Mace, Wandle. Autobiography, circa 1890. CHL.
- MacKay, Michael Hubbard. "'Git Them Translated': Translating the Characters on the Gold Plates." In *Approaching Antiquity: Joseph Smith and the Ancient World*, edited by Lincoln H. Blumell, Matthew J. Grey, and Andrew H. Hedges, 83-116. Provo, UT: Religious Studies Center, Brigham Young University, 2015.
- Madsen, Carol Cornwall. *In Their Own Words: Women and the Story of Nauvoo*. Salt Lake City: Deseret Book, 1994.
- Madsen, Gordon A. "Joseph Smith and the Missouri Court of Inquiry: Austin A. King's Quest for Hostages." *BYU Studies* 43, no. 4 (2004): 92-136.

- Mahas, Jeffrey. "Remembering the Martyrdom: DC 135." In *Revelations in Context: The Stories behind the Sections of the Doctrine and Covenants*, edited by Matthew McBride and James Goldberg, 299–306. Salt Lake Cit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2016.
- Maki, Elizabeth. "Go to the Ohio: DC 35, 36, 37, 38." In *Revelations in Context: The Stories behind the Sections of the Doctrine and Covenants*, edited by Matthew McBride and James Goldberg, 70–73. Salt Lake Cit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2016.
- . "Joseph Smith's Bible Translation: DC 45, 76, 77, 86, 91." In *Revelations in Context: The Stories behind the Sections of the Doctrine and Covenants*, edited by Matthew McBride and James Goldberg, 99–103. Salt Lake Cit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2016.
- "Mary Elizabeth Rollins Lightner." *Utah Genealogical and Historical Magazine* 17 (1926): 193–205, 250–60.
- Mary Elizabeth Rollins Lightner Family Collection. 1833–1973. CHL.
- Mather, Frederic G. "The Early Days of Mormonism." *Lippincott's Magazine of Popular Literature and Science* 26 (Aug. 1880): 198–211.
- Maughan, Mary Ann Weston. Autobiography. Vol. 1, 1894. CHL.
- McBride, Matthew. "Contributions of Martin Harris: DC 3, 5, 10, 17, 19." In *Revelations in Context: The Stories behind the Sections of the Doctrine and Covenants*, edited by Matthew McBride and James Goldberg, 1–9. Salt Lake Cit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2016.
- . "Ezra Booth and Isaac Morley: DC 57, 58, 60, 61, 62, 63, 64, 71, 73." In *Revelations in Context: The Stories behind the Sections of the Doctrine and Covenants*, edited by Matthew McBride and James Goldberg, 130–36. Salt Lake Cit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2016.
- . *A House for the Most High: The Story of the Original Nauvoo Temple*. Salt Lake City: Greg Kofford Books, 2007.
- . "Letters on Baptism for the Dead: DC 127, 128." In *Revelations in Context: The Stories behind the Sections of the Doctrine and Covenants*, edited by Matthew McBride and James Goldberg, 272–76. Salt Lake Cit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2016.
- . "Our Hearts Rejoiced to Hear Him Speak: DC 129, 130, 131." In *Revelations in Context: The Stories behind the Sections of the Doctrine and Covenants*, edited by Matthew McBride and James Goldberg, 277–80. Salt Lake Cit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2016.
- . "Religious Enthusiasm among Early Ohio Converts: DC 46, 50." In *Revelations in Context: The Stories behind the Sections of the Doctrine and Covenants*, edited by Matthew McBride and James Goldberg, 105–11. Salt Lake Cit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2016.
- . "The Vision: DC 76." In *Revelations in Context: The Stories behind the Sections of the Doctrine and Covenants*, edited by Matthew McBride and James Goldberg, 148–54. Salt Lake Cit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2016.
- McBride, Reuben, Sr. Reminiscences, no date. CHL.
- McBride, Spencer W. "When Joseph Smith Met Martin Van Buren: Mormonism and the Politics of Religious Liberty in Nineteenth-Century America." *Church History: Studies in Christianity and Culture* 85, no. 1 (Mar. 2016): 150–58.
- McGavin, Elmer C. *The Nauvoo Temple*. Salt Lake City: Deseret Book, 1962.
- McLellin, William E. Journal, Nov. 16, 1831–Feb. 25, 1832. William E. McLellin, Papers, 1831–36, 1877–78. CHL. Also available in Jan Shippo and John W. Welch, eds., *The Journals of William E. McLellin, 1831–1836* (Provo, UT: BYU Studies;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94).
- . Letter, Independence, MO, to "Beloved Relatives," Carthage, TN, Aug. 4, 1832. Photocopy. CHL.
- McMurrin, Joseph W. "An Interesting Testimony." *Improvement Era* 6, no. 7 (May 1903): 507–10. *Millennial Harbinger*. Bethany, VA. 1830–70.

- Millet, Joseph. "J. Millet on Cape Breton Island," 1927. CHL.
- . Record Book, circa 1850–1947. CHL.
- Minute Book 1 / "Conference A," 1832–37. CHL.
- Minute Book 2 / "The Conference Minutes and Record Book of Christ's Church of Latter Day Saints," 1838, 1842, 1844. CHL.
- Missouri, State of. "Evidence." Hearing Record, Richmond, MO, Nov. 12–29, 1838, State of Missouri v. Joseph Smith et al. for Treason and Other Crimes. Eugene Morrow Violette Collection, 1806–1921, Western Historical Manuscript Collection. University of Missouri and State Historical Society of Missouri, Ellis Library, University of Missouri, Columbia.
- Missouri Argus*. St. Louis. 1835–41.
- Missouri Intelligencer and Boon's Lick Advertiser*. Franklin, MO, 1819–27; Fayette, MO, 1827–30; Columbia, MO, 1830–35.
- Missouri Republican*. St. Louis. 1822–1919.
- Monkman, Susan C. *The White House: Its Historic Furnishings and First Families*. 2nd ed. Washington, DC: White House Historical Association, 2014.
- Mormon Migration. Brigham Young University. Accessed Mar. 21, 2018. <https://mormonmigration.lib.byu.edu>.
- Mormon Redress Petitions*, 1839–45. CHL.
- Mormon War Papers, 1838–41. Missouri State Archives, Jefferson City.
- Morning Courier and New-York Enquirer*. New York City. 1829–61.
- Morris, Larry E. "The Conversion of Oliver Cowdery." *Journal of Book of Mormon Studies* 16, no. 1 (2007): 4–17.
- . "Oliver Cowdery's Vermont Years and the Origins of Mormonism." *BYU Studies* 39, no. 1 (2000): 106–29.
- Murdock, John. Autobiography, circa 1859–67. CHL.
- . Journal, circa 1830–59. CHL.
- Nauvoo, IL. Records, 1841–45. CHL.
- Nauvoo City Council Draft Minutes, 1841–44. Nauvoo, IL, Records, 1841–45. "CHL."
- "Nauvoo City Council Minute Book / Nauvoo City Council." "A Record of the Proceedings of the City Council of the City of Nauvoo Hancock County, State of Illinois, Commencing A.D. 1841," circa 1841–45. CHL.
- Nauvoo Expositor*. Nauvoo, IL. 1844.
- Nauvoo Masonic Lodge Minute Book / "Record of Na[u]voo Lodge under Dispensation," 1842–46. CHL.
- Nauvoo Municipal Court Docket Book / Nauvoo, IL, Municipal Court. "Docket of the Municipal Court of the City of Nauvoo," circa 1843–45. In Historian's Office, Historical Record Book, 1843–74, 51–150 and 1–19 (second numbering). CHL.
- Nauvoo Neighbor*. Nauvoo, IL. 1843–45.
- Nauvoo Stake High Council Minutes, 1839–45. CHL.
- Nauvoo Temple. Baptisms for the Dead, 1840–45. CHL.
- Neibaur, Alexander. Journal, 1841–62. CHL.
- Newell, Linda King, and Valeen Tippetts Avery. *Mormon Enigma: Emma Hale Smith*, 2nd ed.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94.
- New York Herald*. New York City. 1835–1924.
- Nicholes, Joseph K. Collection, circa 1930–50. CHL.
- Niles' National Register*. Washington, DC. 1837–49.
- Norton, Jacob. Reminiscence and Journal, 1844–52. CHL.
- Nuttall, L. John. Diary, 1876–84. Typescript. In L. John Nuttall, Papers, 1854–1903. CHL.
- Oaks, Dallin H. "The Suppression of the Nauvoo Expositor." *Utah Law Review* 9 (Winter 1965): 862–903.
- Oaks, Dallin H., and Joseph I. Bentley. "Joseph Smith and Legal Process: In the Wake of the Steamboat Nauvoo." *Brigham Young University Law Review*, no. 3 (1976): 735–82.

- Oaks, Dallin H., and Marvin S. Hill. *Carthage Conspiracy: The Trial of the Accused Assassins of Joseph Smith*.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75.
- Oates, Stephen B. *The Fires of Jubilee: Nat Turner's Fierce Rebellion*. New York: Harper and Row, 1975.
- Ogden Herald*. Ogden, UT. 1881-87.
- Ohio Star*. Ravenna, OH. 1830-54.
- Olmstead, Jacob W. "Far West and Adam-ondi-Ahman: DC 115, 116, 117." In *Revelations in Context: The Stories behind the Sections of the Doctrine and Covenants*, edited by Matthew McBride and James Goldberg, 235-41. Salt Lake Cit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2016.
- Ontario Phoenix*. Canandaigua, NY. 1828-32.
- Oration Delivered by Mr. S. Rigdon, on the 4th of July, 1838*. Far West, MO: Journal Office, 1838. Also available in Peter Crawley, "Two Rare Missouri Documents," *BYU Studies* 14 (Summer 1974): 502-27.
- "The Original Prophet. By a Visitor to Salt Lake City." *Fraser's Magazine* 7, no. 28 (Feb. 1873): 225-35.
- Ostler, Craig James. "Photo Essay of Church History Sites in Liverpool and the Ribble Valley." In *Regional Studies in Latter-day Saint Church History: The British Isles*, edited by Cynthia Doxey, Robert C. Freeman, Richard Neitzel Holzapfel, and Dennis A. Wright, 61-78. Provo, UT: Religious Studies Center, Brigham Young University, 2007.
- Packer, Cameron J. "A Study of the Hill Cumorah: A Significant Latter-day Saint Landmark in Western New York." Master's thesis, Brigham Young University, 2002.
- Painesville Republican*. Painesville, OH. 1836-41.
- Painesville Telegraph*. Painesville, OH. 1831-38.
- Palmyra Freeman*. Palmyra, NY. 1828-29.
- Parker, Ellen B. Letters, 1842-51. In Martha G. Boyle, Family Papers, 1842-1972. "CHL."
- Partridge, Edward. History, Manuscript, circa 1839. "CHL."
- . Journal, Jan. 1835-July 1836. "CHL."
- . Letters, 1831-35. "CHL."
- . Miscellaneous Papers, circa 1839-May 1840. "CHL."
- . Papers, 1818-39. "CHL."
- Partridge, Edward, Jr. Genealogical Record, 1878. "CHL."
- Pasko, W. W. *Old New York: A Journal Relating to the History and Antiquities of New York City*. New York: By the author, Feb. 1890.
- Patten, David Wyman. Journal, 1832-34. "CHL."
- Paul, Hiland, and Robert Parks. *History of Wells, Vermont, for This First Century after Its Settlement*. Rutland, VT: Tuttle, 1869.
- The Pearl of Great Price: A Selection from the Revelations, Translations, and Narrations of Joseph Smith, First Prophet, Seer, and Revelator to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Salt Lake Cit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2013.
- Peck, Phebe Crosby. Letter to Anna Jones Pratt, Aug. 10, 1832. "CHL."
- Peck, Reed. Letter, Quincy, IL, to "Dear Friends," Sept. 18, 1839. Henry E. Huntington Library, San Marino, CA.
- Perrin, Kathleen C. "Seasons of Faith: An Overview of the *History of the Church* in French Polynesia." In *Pioneers in the Pacific*, edited by Grant Underwood, 201-18. Provo, UT: Religious Studies Center, Brigham Young University, 2005.
- Peter Maughan Family History*. Logan, UT: Peter Maughan Family Organization, 1971.
- Peterson, H. Donl. *The Story of the Book of Abraham: Mummies, Manuscripts, and Mormonism*. Springville, UT: Cedar Fort International, 2008.
- Phelps, William W. Collection of Missouri Documents, 1833-37. "CHL."
- . Funeral Sermon of Joseph and Hyrum Smith, 1855. "CHL."
- . Letter to Sally Waterman Phelps, May 26, 1835. William W. Phelps, Papers, 1835-65. BYU.

- . Letter to Sally Waterman Phelps. In Historian's Office, Journal *History of the Church*, July 20, 1835. "CHL."
- . Letter to Sally Waterman Phelps, Sept. 16, 1835. "CHL."
- . Letter to Sally Waterman Phelps, Apr. 1836. William W. Phelps, Papers, 1835-65. BYU.
- . "A Short History of W. W. Phelps' Stay in Missouri," 1864. "CHL."
- Pickup, David M. W. *The Pick and Flower of England: The Illustrated Story of the Mormons in Victorian England*. Lancashire, England: Living Legend, 2001.
- Pilkington, William. Autobiography and Statements, 1934-39. "CHL."
- Pitman Shorthand Transcriptions, 1998-2013. "CHL."
- Pittsburgh Weekly Gazette*. Pittsburgh. 1841-59.
- Platt, Lyman D. "Early Branches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1830-1850." *Nauvoo Journal* 3 (1991): 3-50.
- Player, William. Statement, Dec. 12, 1868. "CHL."
- Plewe, Brandon S., ed. *Mapping Mormonism: An Atlas of Latter-day Saint History*. Provo, UT: Brigham Young University Press, 2012.
- Porter, Larry C. "The Book of Mormon: Historical Setting for Its Translation and Publication." In *Joseph Smith: The Prophet, the Man*, edited by Susan Easton Black and Charles D. Tate Jr., 49-64. Provo, UT: Religious Studies Center, Brigham Young University, 1993.
- Portrait and Biographical Record of Hancock, McDonough and Henderson Counties, Illinois; Containing Biographical Sketches of Prominent and Representative Citizens of the County; together with Biographies and Portraits of All the Presidents of the United States*. Chicago: Lake City, 1894.
- Post, Stephen. Journal, 1835-39. Stephen Post, Papers, 1835-1921. "CHL."
- Pratt, Addison. Journal, Sept. 1843-Oct. 1844. Addison Pratt, Autobiography and Journals, 1843-52. "CHL."
- Pratt, Louisa Barnes. Journal and Autobiography, 1850-80. "CHL."
- Pratt, Orson. *A[n] Interesting Account of Several Remarkable Visions, and of the Late Discovery of Ancient American Records*. Edinburgh: Ballantyne and Hughes, 1840.
- Pratt, Parley P. *The Autobiography of Parley Parker Pratt, One of the Twelve Apostles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Embracing His Life, Ministry and Travels, with Extracts, in Prose and Verse, from His Miscellaneous Writings*. Edited by Parley P. Pratt Jr. New York: Russell Brothers, 1874.
- . Correspondence, 1842-55. "CHL."
- . *History of the Late Persecution Inflicted by the State of Missouri upon the Mormons, in Which Ten Thousand American Citizens Were Robbed, Plundered, and Driven from the State, and Many Others Imprisoned, Martyred, &c. for Their Religion, and All This by Military Force, by Order of the Executive*. By P. P. Pratt, Minister of the Gospel. Written during Eight Months Imprisonment in That State. Detroit: Dawson and Bates, 1839.
- Probert, Josh E., and Craig K. Manscill. "Artemus Millet: Builder of the Kingdom," *Mormon Historical Studies* 5, no. 1 (Spring 2004): 53-86.
- The Prophet*. New York City, NY. May 1844-Dec. 1845.
- Prospectus of the Nauvoo Expositor*. Nauvoo, IL. 10 May 1844. Copy at CHL.
- Quincy Herald*. Quincy, IL. 1841-before 1851.
- Quincy Whig*. Quincy, IL. 1838-57.
- Quinn, D. Michael, ed. "The First Months of Mormonism: A Contemporary View by Rev. Diedrich Willers." *New York History* 54 (July 1973): 317-33.
- Quorum of the Twelve Apostles. Minutes, 1840-44. "CHL."
- Radke, Andrea G. "We Also Marched: The Women and Children of Zion's Camp, 1834." *BYU Studies* 39, no. 1 (2000): 147-65.
- Raffles, Thomas Stamford. "Narrative of the Effects of the Eruption from the Tomboro Mountain in the Island of Sumbawa on the 11th and 12th of April 1815,—Communicated by the President."

- In A. H. Hubbard, *Verhandelingen van het Bataviaasch Genootschap, der Kunsten en Wetenschappen*, 1-25 (eleventh numbering). Batavia, Dutch East Indies: By the author, 1816.
- Recollections of the Pioneers of Lee County*. Dixon, IL: Inez A. Kennedy, 1893.
- "Recollections of the Prophet Joseph Smith." *Juvenile Instructor* 27, no. 13 (July 1, 1892): 398-400.
- "Records of the Sess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Palmyra," 1828-48. Microfilm 900, no. 59. BYU.
- Records of the Solicitor of the Treasury / National Archives Reference Service Report, Sept. 23, 1964. "Record Group 206, Records of the Solicitor of the Treasury, and Record Group 46, Records of the United States Senate: Records relating to the Mormons in Illinois, 1839-1848 (Records Dated 1840-1852), including Memorials of Mormons to Congress, 1840-1844, Some of Which Relate to Outrages Committed against the Mormons in Missouri, 1831-1839." Microfilm. Washington, DC: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Service,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1964. Copy at CHL.
- Reeve, W. Paul. *Religion of a Different Color: Race and the Mormon Struggle for Whitenes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 Reflector*. Palmyra, NY. 1829-31.
- Reorganized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 Day Saints v. Church of Christ of Independence, Missouri, et al. (Circuit Court of the Western District of Missouri 1894). Testimonies and Depositions, 1892. Typescript. "CHL."
- Return*. Davis City, IA, 1889-91; Richmond, MO, 1892-93; Davis City, 1895-96; Denver, 1898; Independence, MO, 1899-1900.
- Reynolds, John. *My Own Times: Embracing Also, the History of My Life*. N.p., 1855.
- Rich, Charles Coulson. Diary, May-July 1834. Typescript. CHL. Original in Western Americana Collection, Beinecke Rare Book and Manuscript Library, Yale University, New Haven, CT.
- Rich, Sarah P. Autobiography and Journal, 1885-90. "CHL."
- Richards, Franklin D. Journals, 1844-99. Vol. 16, Jan. 1, 1868-Jan. 29, 1869. Richards Family Collection, 1837-1961. "CHL."
- . Scriptural Items, circa 1841-44. "CHL."
- Richards, Levi. Journals, 1840-53. Levi Richards, Papers, 1837-67. "CHL."
- Richards, Willard. Journals and Papers, 1821-54. "CHL."
- . "Willard Richards Pocket Companion Written in England," circa 1838. Willard Richards, Papers, 1821-54. "CHL."
- Rigdon, John Wickliff. "Lecture on the Early History of the Mormon Church," 1906. "CHL."
- . "Life Story of Sidney Rigdon," no date. "CHL."
- [Rigdon, Sidney]. *An Appeal to the American People: Being an Account of the Persecutions of the Church of Latter Day Saints; and of the Barbarities Inflicted on Them by the Inhabitants of the State of Missouri*. Cincinnati: Glezen and Shepard, 1840.
- Robbins, James. Letters, 1836 and 1844. "CHL."
- Roberts, B. H. *The Life of John Taylor, Third President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Salt Lake City: George Q. Cannon and Sons, 1892.
- Robertson, Margaret C. "The Campaign and the Kingdom: The Activities of the Electioneers in Joseph Smith's Presidential Campaign." *BYU Studies* 39, no. 3 (2000): 147-80.
- Robison, Elwin C. *The First Mormon Temple: Design, Construction, and Historic Context of the Kirtland Temple*. Provo, UT: Brigham Young University Press, 1997.
- Rockwood, Albert Perry. Journal Entries, Oct. 1838-Jan. 1839. Photocopy. "CHL."
- Rogers, David W. Statement, Feb. 1, 1839. "CHL."
- Rollins, Kyle M., Richard D. Smith, M. Brett Borup, and E. James Nelson. "Transforming Swampland into Nauvoo, the City Beautiful." *BYU Studies* 45, no. 3 (2006): 125-57.
- Romig, Ronald E. *Eighth Witness: The Biography of John Whitmer*. Independence, MO: John Whitmer Books, 2014.
- Rowley, Dennis. "The Mormon Experience in the Wisconsin Pineries, 1841-1845." *BYU Studies* 32, nos. 1 and 2 (1992): 119-48.

- Rupp, Israel Daniel, ed. *He Pasa Ekklesia [The whole church]. An Original History of the Religious Denominations at Present Existing in the United States, Containing Authentic Accounts of Their Rise, Progress, Statistics and Doctrines. Written Expressly for the Work by Eminent Theological Professors, Ministers, and Lay-Members, of the Respective Denominations*. Philadelphia: James Y. Humphreys; Harrisburg, PA: Clyde and Williams, 1844.
- Rust, Richard Dilworth. "A Mission to the Lamanites: DC 28, 30, 32." In *Revelations in Context: The Stories behind the Sections of the Doctrine and Covenants*, edited by Matthew McBride and James Goldberg, 45-49. Salt Lake Cit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2016.
- Ryder, Hartwell. "A Short History of the Foundation of the Mormon Church." 1902. Typescript. Hiram College Collection, 1909-73. "CHL."
- Saint George Utah Stake. General Minutes, 1864-1977. "CHL."
- Saints' Herald*, Independence, MO. 1860-.
- Salisbury, Herbert Spencer. "Things the Prophet's Sister Told Me," 1945. "CHL."
- Salt Lake Daily Tribune*, Salt Lake City. 1871-.
- Sangamo Journal*, Springfield, IL. 1831-47.
- Schaefer, Mitchell K., ed. *William E. McLellin's Lost Manuscript*. Salt Lake City: Eborn Books, 2012.
- School of the Prophets Salt Lake City Minutes, Apr.-Dec. 1883. "CHL."
- Seale, William. *The President's House: A History*. Vol. 1.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08.
- Senate Document 189. Testimony Given before the Judge of the Fifth Judicial Circuit of the State of Missouri, on the Trial of Joseph Smith, Jr., and Others, for High Treason, and Other Crimes against That State*. Photomechanical reprint. Salt Lake City: Modern Microfilm, 1965. Copy at CHL.
- Seventies Quorum Records, 1844-1975. "CHL."
- Shippy, Jan, and John W. Welch, eds. *The Journals of William E. McLellin, 1831-1836*. Provo, UT: BYU Studies;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94.
- Skousen, Royal. "Another Account of Mary Whitmer's Viewing of the Golden Plates." *Interpreter: A Journal of Mormon Scripture* 10 (2014): 35-44.
- Smith, Alex D. "Organizing the Church in Nauvoo: DC 124, 125." In *Revelations in Context: The Stories behind the Sections of the Doctrine and Covenants*, edited by Matthew McBride and James Goldberg, 264-71. Salt Lake Cit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2016.
- Smith, Amanda Barnes. Notebook, 1854-66. "CHL."
- Smith, Andrew F. *The Sainly Scoundrel: The Life and Times of Dr. John Cook Bennett*. Urbana and Chicago: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97.
- Smith, Asael. Letter and Genealogy Record, 1799, circa 1817-46. "CHL."
- Smith, Emma. Letter to Joseph Heywood. Oct. 18, 1844. "CHL."
- Smith, George Albert. Autobiography, circa 1860-82. In George Albert Smith, Papers, 1834-82. "CHL."
- . "My Journal." *Instructor*, May 1946, 212-18.
- . Papers, 1834-82. "CHL."
- Smith, Hyrum. Diary, Mar.-Apr. 1839, Oct. 1840. "CHL."
- . Papers, 1834-43. "CHL."
- Smith, Joseph. Collection, 1827-46. "CHL."
- . *General Smith's Views of the Powers and Policy of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Nauvoo, IL: John Taylor, 1844.
- . History, circa Summer 1832 / Smith, Joseph. "A History of the Life of Joseph Smith Jr," circa Summer 1832. In Joseph Smith, "Letterbook A," 1832-35, 1-[6] (earliest numbering). Joseph Smith Collection. "CHL."
- . History, [circa June-Oct. 1839]. Draft. "CHL."
- . History, circa 1841. Draft. "CHL."

- Smith, Joseph, and others. History, 1834-36. In Joseph Smith and others, History, 1838-56, vol. A-1, back of book (earliest numbering), 9-20, 46-187. "CHL."
- Smith, Joseph, and others. History, 1838-56. Vols. A-1-F-1 (original), A-2-E-2 (fair copy). In Historian's Office, History of the Church, 1839-circa 1882. CHL. 1838년 8월 5일 이후의 역사는 조셉 스미스가 사망한 후에 기록되었다. Joseph Smith Papers[조셉 스미스 기록들(josephsmithpapers.org)] 웹사이트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 Smith, Joseph F. Papers, 1854-1918. "CHL."
- Smith, Joseph Fielding, comp. *Life of Joseph F. Smith, Sixth President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Salt Lake City: *Deseret News*, 1938.
- . Papers, 1893-1973. "CHL."
- Smith, Leslie, and B. Larry Allen. "Family History of Lucy Diantha (Morley) Allen." FamilySearch. Compiled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Accessed Mar. 21, 2018. <https://familysearch.org>.
- Smith, Lucy Mack. *Biographical Sketches of Joseph Smith the Prophet, and His Progenitors for Many Generations*. Liverpool: S. W. Richards, 1853.
- . "Copy of an Old Note Book." Typescript, 1945. BYU.
- . History, 1844-45. 18 books. CHL. 조셉 스미스 기록들 웹사이트(josephsmithpapers.org)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 . History, 1845. CHL. 조셉 스미스 기록들 웹사이트(josephsmithpapers.org)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 . Letter to Solomon Mack, Jan. 6, 1831. "CHL."
- Smith, Lucy Meserve. Statement, undated. "CHL."
- Smith, Mary Fielding. Collection, circa 1832-48. "CHL."
- Smith, William. *William Smith On Mormonism* Lamoni, IA: Herald Steam Book and Job Office, 1883.
- Snow, Eliza R. *Biography and Family Record of Lorenzo Snow, One of the Twelve Apostles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Salt Lake City: *Deseret News*, 1884.
- . Journal, 1842-44. "CHL."
- . Letter to Isaac Streater, Feb. 22, 1839. Photocopy. "CHL."
- Speech of Elder Orson Hyde, Delivered before the High Priests' Quorum, in Nauvoo, April 27th 1845, upon the Course and Conduct of Sidney Rigdon, and upon the Merits of His Claims to the Presidency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Liverpool: James and Woodburn, 1845.
- Staker, Mark Lyman. *Hearken, O Ye People: The Historical Setting of Joseph Smith's Ohio Revelations*. Salt Lake City: Greg Kofford Books, 2009.
- . "Isaac and Elizabeth Hale in Their Endless Mountain Home." *Mormon Historical Studies* 15, no. 2 (Fall 2014): 1-105.
- . "Raising Money in Righteousness: Oliver Cowdery as Banker." In *Days Never to Be Forgotten: Oliver Cowdery*, edited by Alexander L. Baugh, 143-253. Provo, UT: Religious Studies Center, Brigham Young University, 2009.
- . "Where Was the Aaronic Priesthood Restored?: Identifying the Location of John the Baptist's Appearance, May 15, 1829." *Mormon Historical Studies* 12, no. 2 (Fall 2011): 142-59.
- Staker, Mark Lyman, and Curtis Ashton. "Emma's Susquehanna: Growing Up in the Isaac and Elizabeth Hale Home." Priesthood Restoration Site, Church History Department,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Published Aug. 25, 2015. <http://history.lds.org>.
- Statham, J. *Indian Recollections*. London: Samuel Bagster, 1832.
- State of Missouri. See Missouri, State of.
- Statutes of the State of Ohio, of a General Nature, in Force, December 7, 1840; Also, the Statutes of a General Nature, Passed by the General Assembly at Their Thirty-Ninth Session, Commencing December 7, 1840*. Columbus, OH: Samuel Medary, 1841.
- Stevenson, Edward. Collection, 1849-1922. "CHL."

- . Journal, 1852–92. “CHL.”
- Stilwell, Lewis D. *Migration from Vermont*. Montpelier: Vermont Historical Society, 1948.
- Stout, Hosea. Reminiscences and Journals, 1845–69. “CHL.”
- Susquehanna Register, and Northern Pennsylvanian*, Montrose, PA. 1831–36.
- Switzler, William F. *Switzler's Illustrated History of Missouri, from 1541 to 1877*. St. Louis: C. R. Barns, 1879.
- Taylor, John. Collection, 1829–94. “CHL.”
- . Journal, Dec. 1844–Sept. 1845. “CHL.”
- Taylor, Leonora Cannon. Statement, circa 1856. “CHL.”
- Temple Lot Transcript / United States Circuit Court (8th Circuit). Reorganized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 Day Saints v. Church of Christ of Independence, Missouri, et al., Testimonies and Depositions, 1892. Typescript. “CHL.”
- Thompson, Mercy Rachel Fielding. Autobiographical Sketch, 1880. “CHL.”
- Thompson, Robert B. *Journal of Heber C. Kimball, an Elder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 Day Saints. Giving an Account of His Mission to Great Britain* . . . Nauvoo, IL: Robinson and Smith, 1840.
- Thorp, Joseph. *Early Days in the West, Along the Missouri One Hundred Years Ago*. Liberty, MO: Irving Gilmer, 1924.
- Thurston, Morris A. “The Boggs Shooting and Failed Extradition: Joseph Smith’s Most Famous Case.” *BYU Studies Quarterly* 48, no. 1 (2009): 4–56.
- Tiffany's Monthly*. New York City. 1856–59.
- Times and Seasons*. Commerce/Nauvoo, IL. Nov. 1839–Feb. 1846.
- Tippets, John H. Autobiography, circa 1882. “CHL.”
- Tobler, Ryan G. “Saviors on Mount Zion: Mormon Sacramentalism, Mortality, and the Baptism for the Dead.” *Journal of Mormon History* 39, no. 4 (2013): 182–238.
- Towle, Nancy. *Vicissitudes Illustrated, in the Experience of Nancy Towle, in Europe and America*. Charleston, SC: James L. Burgess, 1832.
- True Latter Day Saints' Herald*. See *Saints' Herald*.
- Trustees Land Books / Trustee-in-Trust,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Land Books, 1839–45. 2 vols. “CHL.”
- Tucker, Pomeroy. *Origin, Rise, and Progress of Mormonism: Biography of Its Founders and History of Its Church*. New York: D. Appleton, 1867.
- Tullidge, Edward W. “History of Provo City.” *Tullidge's Quarterly Magazine* 3, no. 3 (July 1884): 233–85.
- . *Tullidge's Histories*, Vol. 2. *Containing the History of all the Northern, Eastern and Western Counties of Utah; also the Counties of Southern Idaho*. Salt Lake City: Juvenile Instructor Office, 1889.
- . *The Women of Mormondom*. New York: Tullidge and Crandall, 1877.
- 리처드 이 탈리 이세, 로빈 에스 켄슨 및 마크 애서스트-맥기. “선견자 조셉.” *리아호나*, 2015년 10월 호 10~15쪽.
- Tyler, Daniel. “Incidents of Experience.” In *Scraps of Biography, Faith-Promoting Series* 10, 20–46. Salt Lake City: Juvenile Instructor Office, 1883.
- . “Recollections of the Prophet Joseph Smith.” *Juvenile Instructor* 27, no. 4 (Feb. 15, 1892): 127–28.
- Ulrich, Laurel Thatcher. *A House Full of Females: Plural Marriage and Women's Rights in Early Mormonism, 1835–1870*. New York: Knopf, 2017.
- . “Leaving Home: Phebe Whittemore Carter Woodruff (1807–1885).” In *Women of Faith in the Latter Days*, Vol. 1, 1775–1820, ed. Richard E. Turley Jr. and Brittany A. Chapman, 450–60. Salt Lake City: Deseret Book, 2011.
- United States' Telegraph*, Washington, DC. 1826–37.
- U.S. and Canada Record Collection. FHL.
- U.S. Bureau of the Census. Population Schedules. Microfilm. FHL.

- U.S. Congress. Material Relating to Mormon Expulsion from Missouri, 1839-43. "CHL."
- U.S. Office of Indian Affairs, Central Superintendency. Records, 1807-55. Kansas State Historical Society, Topeka. kansasmemory.org에서도 찾아볼 수 있음.
- Utah Genealogical and Historical Magazine*. Salt Lake City. 1910-40.
- Voree Herald*. Voree, Wisconsin Territory. Jan.-Oct. 1846.
- Waite, Nathan. "A School and an Endowment: DC 88, 90, 95, 109, 110." In *Revelations in Context: The Stories behind the Sections of the Doctrine and Covenants*, edited by Matthew McBride and James Goldberg, 174-82. Salt Lake Cit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2016.
- Walker, Jeffrey N. "Mormon Land Rights in Caldwell and Daviess Counties and the Mormon Conflict of 1838: New Findings and New Understandings." *BYU Studies* 47, no. 1 (2008): 4-55.
- Walker, Robert John. "Lilburn W. Boggs and the Case for Jacksonian Democracy." Master's thesis, Brigham Young University, 2011.
- Walker, Ronald W. "Six Days in August: Brigham Young and the Succession Crisis of 1844." In *A Firm Foundation: Church Organization and Administration*, edited by David J. Whittaker and Arnold K. Garr, 161-96. Provo, UT: Religious Studies Center, Brigham Young University, 2011.
- Ward, Maurine Carr. "John Needham's Nauvoo Letter: 1843." *Nauvoo Journal* 8, no. 1 (Spring 1996): 38-42.
- Warsaw Message*. Warsaw, IL. 1843-44.
- Warsaw Signal*. Warsaw, IL. 1841-43.
- The Wasp*. Nauvoo, IL. Apr. 1842-Apr. 1843.
- Watson, Eldon J. *Brigham Young Addresses*. 6 vols. N.p., 1979-84.
- Watson, Wingfield. Correspondence, 1891, 1908. "CHL."
- Watt, George D. Papers, circa 1846-65. CHL. Transcriptions by LaJean Purcell Carruth found in Church History Department Pitman Shorthand Transcriptions, 2013-17. "CHL."
- Watt, Ronald G. *The Mormon Passage of George D. Watt: First British Convert, Scribe for Zion*. Logan: Utah State University Press, 2009.
- Wayne Sentinel*. Palmyra, NY. 1823-52, 1860-61.
- Webb, Eliza Churchill. Letter to Mary Bond, May 4, 1876. Biographical Folder Collection (labeled Myron H. Bond). Community of Christ Library-Archives, Independence, MO.
- . Letter to Myron H. Bond, Apr. 24, 1876. Biographical Folder Collection (labeled Myron H. Bond). Community of Christ Library-Archives, Independence, MO.
- West, William S. *A Few Interesting Facts, Respecting the Rise Progress and Pretensions of the Mormons*. N.p., 1837.
- Western World*. Warsaw, IL. 1840-41.
- Whitmer, David. *An Address to All Believers in Christ*. Richmond, MO: By the author, 1887.
- Whitmer, History / Whitmer, John. "The Book of John Whitmer Kept by Commandment," circa 1835-46. Community of Christ Library-Archives, Independence, MO.
- Whitney, Helen Mar. *Plural Marriage, as Taught by the Prophet Joseph. A Reply to Joseph Smith, Editor of the Lamoni (Iowa) "Herald."* Salt Lake City: Juvenile Instructor Office, 1882.
- . *Why We Practice Plural Marriage*. Salt Lake City: Juvenile Instructor Office, 1884.
- Whitney, Horace G. "Nauvoo Brass Band." *Contributor*, Mar. 1880, 134.
- Whitney, Orson F. *History of Utah*. 4 vols. Salt Lake City: George Q. Cannon and Sons, 1904.
- . *Life of Heber C. Kimball, an Apostle: the Father and Founder of the British Mission*. Salt Lake City: Kimball Family, 1888.
- . "Newel K. Whitney." *Contributor*, Jan. 1885, 123-32.
- Wight, Orange L. Reminiscences, 1903. "CHL."
- Williams, Frederick G. "Frederick Granger Williams of the First Presidency of the Church." *BYU Studies* 12, no. 3 (Spring 1972): 243-61.
- Winters, Mary Ann Stearns. Reminiscences, no date. Typescript. Church History Library.

- Wolfinger, Henry J. *A Test of Faith: Jane Elizabeth James and the Origins of the Utah Black Community*. Washington, DC: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Service, 1975. Copy at CHL.
- Woman's Exponent*. Salt Lake City. 1872-1914.
- Wood, Gillen D'Arcy. *Tambora: The Eruption That Changed the World*.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4.
- Woodruff, Emma S. Collection, 1832-1919. "CHL."
- Woodruff, Phebe Carter. Autobiographical Sketch, 1880. I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Bancroft Library and Hubert H. Bancroft, Utah and the Mormons Collection, before 1889. Microfilm. "CHL."
- . Autograph Book, 1838-44, 1899. "CHL."
- . Letter to "Dear Parents," July 30, 1844. "CHL."
- Woodruff, Wilford. Collection, 1831-1905. "CHL."
- . "The History and Travels of *Zion's Camp*, Led by the Prophet Joseph Smith from Kirtland Ohio to Clay County Missouri in the Spring of 1838," 1882. "CHL."
- . Journals, 1833-98, in Wilford Woodruff, Journals and Papers, 1828-98. "CHL."
- . Journals and Papers, 1828-98. "CHL."
- . *Leaves from My Journal*. Faith-Promoting Series 3. Salt Lake City: Juvenile Instructor Office, 1881.
- . Testimony, Mar. 19, 1897. "CHL."
- Woodworth, Jed. "The Center Place: DC 52, 57, 58." In *Revelations in Context: The Stories behind the Sections of the Doctrine and Covenants*, edited by Matthew McBride and James Goldberg, 122-29. Salt Lake Cit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2016.
- . "Mercy Thompson and the Revelation on Marriage: DC 132." In *Revelations in Context: The Stories behind the Sections of the Doctrine and Covenants*, edited by Matthew McBride and James Goldberg, 281-93. Salt Lake Cit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2016.
- . "Peace and War: DC 87." In *Revelations in Context: The Stories behind the Sections of the Doctrine and Covenants*, edited by Matthew McBride and James Goldberg, 158-64. Salt Lake Cit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2016.
- . "The Word of Wisdom: DC 89." In *Revelations in Context: The Stories behind the Sections of the Doctrine and Covenants*, edited by Matthew McBride and James Goldberg, 183-91. Salt Lake Cit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2016.
- Young, Brigham. Account Book, 1836-46. "CHL."
- . Journals, 1832-77. Brigham Young Office Files, 1832-78. "CHL."
- . Letter to Parley P. Pratt, May 26, 1845. "CHL."
- Young, Emily Dow Partridge. Diary and Reminiscences, Feb. 1874-Nov. 1883. "CHL."
- . "Incidents in the Life of a Mormon Girl," circa 1884. "CHL."
- . "What I Remember," 1884. Typescript. "CHL."
- Young, Joseph, Sr. *History of the Organization of the Seventies. Names of the First and Second Quorums. Items in Relation to the First Presidency of the Seventies. Also, a Brief Glance at Enoch and His City. Embellished with a Likeness of Joseph Smith, the Prophet, and a View of the Kirtland Temple*. Salt Lake City: *Deseret News*, 1878.
- . Letter to Lewis Harvey, Nov. 16, 1880. "CHL."
- Young, Phineas H. Journal, Apr.-May 1845. "CHL."
- Young, Zina Diantha Huntington. Diaries, 1844-45, 1886, 1889. "CHL."
- Youngreen, Buddy. *Reflections of Emma: Joseph Smith's Wife*. Orem, UT: Grandin Book, 1982.
- Young Woman's Journal*. Salt Lake City. 1889-1929.
- Zion's Ensign*. Independence, MO, 1891-97.
- Zion's Reveille*. Voree, Wisconsin Territory. 1846-47.

감사의 글

교회의 이 새로운 역사가 쓰이기까지 수백 명의 사람들이 헌신적으로 도와주었다. 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 책의 기초가 된 여러 기록을 꼼꼼하게 수집하고 보존해 온 여러 세대의 교회 역사가자들에게 우리는 큰 빛을 졌다. 또한, 교회 역사부의 모든 직원과 선교사, 자원봉사자들이 직간접적으로 이 일에 기여했다. 온라인 보충 자료를 만들어 준 제임스 골드버그, 데이비드 골드, 엘리자베스 모트, 제니퍼 리더, 라이언 살츠기버에게 특별한 감사의 뜻을 전한다. 교회 역사 카탈로그의 자료를 디지털화하는 작업은 오드리 스페인하워 던시와 게이 버튼이 맡아 주었다.

이 책에 담긴 역사적인 분석은 특히 Joseph Smith Papers[조셉 스미스 기록 모음집]에 의거한 것이다. 그 프로젝트를 검토하는 일에 역사가인 매튜 고트프리, 마크 애서트-맥기, 엘리자베스 큰, 데이비드 그루아, 스펜서 맥브라이드, 알렉스 스미스 등이 참여했다. 사적지과의 제니 린드와 마크 스테이커 또한 세심한 검토와 수정 작업에 동참해 주었다. 출판과의 편집 관리자인 알 에릭 스미스도 알리슨 파머 스테파니와 함께 큰 도움을 주었다. 교회 역사가 출판 편집 위원회의 위원들도 꾸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 책을 문학적으로 구성하기 위해 아디스 파셀, 크리스 크로, 앤절라 홀스트롬, 고조너선 랭포드, 고 에릭 시 올슨, 브랜드 샌더슨, 로럴 발로, 캐슬린과 딘 휴스, 에이치 비무어, 김벌리 휴스턴 소렌슨, 게일 시어스의 자문을 받았다. 역사가인 알렉스 보, 멜리사 웨이-칭 이노우에 또한 프랭크 롤랩과 함께 중요한 도움을 주었다. 그레그 뉴볼드는 멋진 삽화와 지도를 그려 주었다.

홍보에는 존 히스, 데브라 애버크롬비, 미리엘 레섹이 수고해 주었고, 행정 지원 면에서는 크리스틴 올슨, 조 린 커티스, 앤드리아 맥스필드, 데비 로빈스가 애써 주었다. 프로젝트 관리 업무는 리지 솔츠먼이 수고해 주었다.

교회의 다른 여러 부서 직원들도 도움을 주었다. 그중 이리나 대니얼슨, 앨런 폴슨, 칼리 가이먼, 로버트 유어, 젠 와드, 드루 콘래드, 데이비드 닉슨, 폴 머피는 부서 간에 하나의 팀을 결성하여 협업했다. 그 밖에 일라이자 네빈, 패트릭 거버, 닉 올베라, 폴 맨더호번, 랜들 픽슨, 브룩 프랜드선, 데이비드 맨, 앨런 블레이크, 제프 허칭스, 게리 월턴, 멧 에번스, 스콧 웰티, 제프 해치도 큰 도움을 주었다. 켈리 호스, 마크 이스트먼드, 케이시 올슨, 톰 발레타는 오랜 시간을 들여 원고를 검토해 주었다. 13개 언어의 번역자들은 전문을 세심하게 번역해 주었으며, 첫 여덟 장(제1장~8장)은 수십 개의 언어로 번역되었다.

전 세계 수백 명의 자원봉사 독자들이 이 이야기를 읽은 뒤 보내 준 의견은 이 책의 개선에 일조하였으며, 이로써 전 세계 독자들의 머리와 가슴을 올리는 책이 탄생하게 되었다.

색인

1837년의 공황, 267-68, 277-78
 가먼트, 성전, 453
 가습판, 금판과 함께 문헌, 22, 25-26, 73, 22, 25-26, 73, 22, 25-26, 73
 감독, 118-19, 126, 130, 154, 233, 289, 319-20, 419, 447, 126, 130, 154, 233, 289, 319-20, 419, 447
 감독의 창고, 294
 감독의 평의회, 305-6, 313, 305-6, 313
 감람산, 440
 "감람일" 계시(교리와 성약 88편), 164-65, 168
 갤러턴, 미주리, 323-27, 337-38, 392-93, 326-27, 337-38, 392-93
 갤러턴, 아이잭, 382-83
 갯필드 엘름, 영국, 410
 거저 영, 119
 갯세마네, 440
 결혼
 뉴얼 나이트와 리디아 베일리, 225, 227-29
 영원한 결혼, 412-13, 444-45, 481-82, 487, 492, 502, 544
 윌라드 리차즈와 제네타 리차즈, 409
 윌포드 우드립과 피비 카터, 266, 268
 조셉 스미스와 에머 헤일, 32, 34-36
 팔리 프렛과 메리 앤 프루스트, 270
 하나님 계획의 중심, 433
 하이럼 스미스와 메리 필딩, 296
 또한 복수 결혼; 인봉 참조
 겸손, 46, 56-57, 136, 269, 281, 285, 298, 339, 56-57, 136, 269, 281, 285, 298, 339
 경륜의 시대, 240, 565, 240, 565
 경전, 10-11, 68, 96, 222, 450, 485-86, 10-11, 68, 96, 222, 450, 485-86, 10-11, 68, 222, 450, 485-86
 계명, 97-98, 154-55, 168, 211-12, 261, 97-98, 154-55, 168, 211-12, 261, 97-98, 154-55, 168, 211-12, 261
 계명의 책, 141-43, 148, 177-81, 222, 141-43, 148, 177-81, 222
 고등평의회, 나부, 461-62, 570
 고등평의회, 미주리, 209, 215, 234, 300-301, 304, 313, 339, 376, 304, 313, 339, 376
 고등평의회, 커틀랜드, 209, 213-14, 217, 223, 234, 297, 209, 213-14, 217, 223, 234, 297
 교리와 성약, 222, 271, 297, 485, 526, 222, 271, 297, 485, 526
 교육, 20, 145, 165-66, 169, 205, 216, 229, 251, 145, 165-66, 169, 205, 216, 229, 251, 145, 165, 169, 205, 216, 229, 251
 교회의 관재인, 559-62, 566, 570, 559-62, 566, 570
 구약전서, 108, 199, 232-33, 240, 314, 108, 199, 232-33, 240, 314, 또한 성경 참조
 그랜드강, 309
 그랜턴, 에그버트, 77-78, 77-78
 그레이트 솔트레이크밸리, 577, 581, 577, 581
 그레이너저, 세이브레, 257, 260
 그레이너저, 올리버, 320

그린, 로다, 99-100
 그린, 존, 99-100, 554
 근절령, 345-46, 356, 372, 456, 345-46, 356, 372, 456
 금판
 금전적 가치, 25-26, 25-26
 마틴 해리스가 증거를 원함, 56-58
 메리 휘트머가 보다, 70-71
 모로나이 천사가 조셉 스미스에게 -에 대해 가르침, 22-27, 29
 번역, 44-46, 49-50, 56, 60-66, 70-72, 78, 49-50, 56, 60-66, 70-72, 78
 선교사들이 아메리칸 인디언들에게 -에 대해 말함, 116
 세 증인, 57, 73-74
 -에 관한 묘사, 25-26, 41, 25-26, 41
 여덟 증인, 75
 올리버 카우드리가 -의 시현을 봄, 59-60
 조셉 스미스가 되찾음, 34, 36-38, 40-41, 34, 36-38, 40-41
 조셉 스미스가 열지 못함, 26, 29-30, 34, 29-30, 34
 조셉 스미스가 -을 보호하기 위해 숨김, 38, 40, 43, 45, 50, 56, 40, 43, 45, 50, 56
 천사가 가져감, 54, 75, 54, 75
 흠치려는 음모, 39-42, 45
 또한 물론경 참조
 기도
 가족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한 -, 282-83, 312
 간증을 얻기 위한 -, 44-45, 59-60, 62, 84, 99-101, 254
 감동에 관한 -, 71, 97, 230, 272
 감사 -, 123, 193, 533-34
 결혼에 관한 -, 227
 경제적인 도움을 구하는 -, 211, 265
 계시와 시현으로 이어짐, 14-15, 21-22, 26, 29, 66-67, 84, 118, 141-42, 164, 168-69, 195-96, 239, 581
 리버티 감옥에서 드린 -, 388
 방언으로 하는 -, 163, 501
 보호받기 위한 -, 359-60
 선교 사업, 253, 275-76
 엔다우먼트를 받은 성도들의 기도 모임, 510, 531
 예루살렘에서 올슨 하이드의 -, 440-41
 -와 세 증인, 73-74
 용서를 구하는 -, 54, 316
 인도와 가르침을 구하는 -, 69, 111-13, 130, 164-65, 185, 195, 354, 400, 445-46, 483, 516, 571
 치유받기 위한 -, 280-81, 372, 505
 커틀랜드 성전 헌납 기도문, 236-37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 248
 힘과 위로를 얻기 위한 -, 378-79, 555-56
 기도 모임, 510, 531, 562-64, 531, 562-64
 기록 작성, 85, 487, 85, 487

- 기쁨, 12, 15, 66-67, 74-75, 86, 119, 140, 227-28, 231, 306, 476, 524, 12, 15, 66-67, 74-75, 86, 119, 140, 227-28, 231, 306, 476, 524, 12, 15, 476, 524
- 길버트, 시드니, 134-35, 178, 189-91, 208, 134-35, 178, 189-91, 208, 134-35, 178, 189-91, 208
- 꿈, 10-11, 315, 515-16, 10-11, 315, 515-16, 10-11, 315, 515-16
- 나바호 인디언, 124
- 나보타, 573-74
- 나부, 일리노이
갈등, 538
건설, 417, 426, 437, 447
계엄령, 545
명칭, 417-18
생활, 473-74
성도들이 떠남, 571, 583-84
시장, 427, 460
조셉과 하이럼 스미스의 시신이 운반됨, 554-55
주지사가 군대를 보냄, 541-42, 545-48
집합, 567, 576
또한 성전, 나부; 커머스, 일리노이 참조
- 나부 관악대, 474, 499
- 나부 군단, 432, 538-39, 571
- 나부 맨션 하우스, 504-5, 555-56, 585, 504-5, 555-56, 585
- 나부시 의회, 433-34, 460, 467-68, 534-36, 539-40
- 나부시 현장, 425, 467-68, 535, 540, 571
- 나부의 계엄령, 538-39, 545, 548
- 나부의 여성 상호부조회, 447-52, 462-64, 475, 496-97, 525
- 나부 익스포지터, 531, 534-36, 548
- 나부 하우스, 426
- 나이아가라 폭포, 250
- 나이트, 뉴얼, 91-92, 111, 128, 192, 224-25, 227-29, 241-43, 359-61, 580
- 나이트, 리더야 베일리, 224-25, 227-29, 235-37, 241, 359-62, 463, 580
- 나이트, 샬리, 91
- 나이트, 조셉, 일세, 33, 36, 38-39, 90-91, 94-95, 132-33, 580
- 나이트, 폴리 팩, 33, 90-91, 94-95, 127-28, 132-33, 580
- 남아프리카 공화국, 514
- 남태평양, 532, 573, 532, 573
- 네이먼, 사이러스, 421-22
- 네이먼, 제인, 421-22
- 노블, 메리 비먼, 435
- 노블, 베이츠, 435
- 노예 제도, 172, 174-75, 505
- 뉴얼, 그랜디슨, 264-66, 268-69, 296
- 뉴욕시, 46-48, 159-61
- 뉴욕주, 5-6, 79-80, 121-22, 316
- 뉴턴, 기디언, 292-93
- 니파이, 71-72
- 니파이인, 61-62, 65, 71-72, 108, 65, 71-72, 108
- 다니엘, 309-10, 369
- 단 단원, 314, 323, 325, 327, 331, 368-69
- 단합, 108-9, 231, 275, 304-5, 387, 304-5, 387
- 담배, 167-68
- 대나, 루이스, 572-73, 577
- 대니얼스, 아비가일, 102-5
- 대제사, 209, 566-67
- 대학교, 425, 427, 425, 427
- 대회, 98, 110, 126, 215, 266-67, 289, 294-95, 307, 424, 430-31, 486-87, 522, 576
- 더글라스, 엘런, 524-26
- 더글라스, 조지, 525
- 더비, 루하마, 575-76
- 더비, 에라스투스, 469-70, 575-76
- 더피, 엘리자베스, 510
- 던클린, 대니얼, 186, 199, 202-3
- 데이비스, 매튜, 411-12
- 데이비스, 메리 앤 웨스턴. 모건, 메리 앤 웨스턴
데이비스 참조
- 데이비스, 존, 428-30
- 데이비스군, 미주리, 308-9, 323-24, 326-28, 335, 341-42, 392-93
- 데커, 루시 앤, 484-85
- 델라웨어 인디언, 115-17, 573
- 도니판, 알렉산더, 335, 350-51, 355, 365-66
- 돈, 재정 참조
- 드윗, 미주리, 330-34, 337
- 디블, 세실리아, 189
- 디블, 필로, 188-89, 192
- 딕슨, 일리노이, 496
- 라무스, 일리노이, 486-87
- 라반의 검, 73
- 라이먼, 아마사, 566-67
- 라이트너, 메리 롤린스, 178-81, 351-52, 444-46, 180-81, 351-52, 444-46
- 라이트너, 애덤, 351, 445-46
- 런던, 영국, 429
- 레이놀즈, 존, 407-8
- 레이놀즈, 토머스, 467
- 레이맨인, 61-62, 65, 71-72, 108
- 레파, 573-74
- 로, 윌리엄, 453-54, 484, 511-12, 521, 526, 530-31, 534, 558
- 로, 윌슨, 478, 481, 499, 531
- 로, 제인, 510-12, 526, 530
- 로렌스, 새뮤얼, 37
- 로빈슨, 에이탈리아, 449
- 로빈슨, 조지, 357-58
- 로저스, 노아, 574-75
- 로키산맥, 572, 577, 586, 572, 577, 586

- 룩웰, 포터, 466-70, 541-42, 553
 롤린스, 리디아. 클레민슨, 리디아 롤린스 참조
 롤린스, 메리. 라이트너, 메리 롤린스 참조
 롤린스, 캐롤린, 178-81
 루카스, 새뮤얼, 173-74, 176, 352, 355-58, 361, 364-67, 371
 룯, 330
 리그돈, 낸시, 449
 리그돈, 시드니
 개종, 98, 100-101
 계명의 책 서문, 141-42
 미주리에서, 154-55, 294-95
 미주리의 감옥에서, 357-58, 369-70, 384
 부채와 커틀랜드 성전 건립, 209-11
 시온의 헌납, 132
 시현을 봄, 147-48, 168-70
 제일회장단에서, 208
 조셉 스미스를 만남, 106-7
 조셉 스미스의 서기, 107-9, 121
 지도자 승계, 561-65
 커틀랜드 성전 헌납식에서 전한 말씀, 236
 커틀랜드 세이프티 소사이어티, 261
 커틀랜드에서 도주함, 268, 299
 커틀랜드에서의 부채, 268, 270-71
 파문, 570
 파웨스트에서 격렬한 연설을 함, 313-15, 337
 폭도의 공격, 151-53
 리그돈, 피비, 101
 리니, 아이잭, 379, 381
 리버티 감옥, 369-70, 375, 384-85, 387-88, 390, 384-85, 387-88, 390
 리버풀, 영국, 282, 409
 리블, 강, 281-82, 287, 306
 리차즈, 엘린, 302
 리차즈, 윌라드
 나부에서 엔다우먼트를 받음, 453-54
 십이사도 정원회로 부름받음, 321, 387
 영국에서의 선교 사업, 276-77, 306-8, 410
 제네타 리차즈와 결혼함, 307, 409, 492-93
 조셉과 하이럼 스미스의 시신을 운반함, 554-55
 조셉 스미스의 서기, 448, 478, 547
 지도자 승계, 560-62
 카테지 감옥에서, 549-52
 리차즈, 제네타 리차즈, 286-88, 302-3, 307, 409, 492-93, 510
 리차즈, 존, 302-3
 리치, 찰스, 342, 344
 리치몬드, 미주리, 367-69

 마쉬, 엘리자베스, 79-80, 119-20, 137-38, 143-44, 339
 마쉬, 토머스
 -를 위한 계시, 284-85, 321
 물문경을 읽음, 79-80
 미주리에서 복음을 전함, 138
 불만, 338-40, 346, 387
 십이사도 정원회로 부름받음, 215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283-84, 300-301, 304, 322, 376, 283-84, 300-301, 304, 322, 376
 영국으로의 선교 사업, 270, 274-76, 274-76
 오하이오에서의 집합, 119-20
 파웨스트 방문, 294
 마지막 날, 4-5, 72, 109-10, 149, 159-60, 517-18, 561, 72, 109-10, 149, 159-60, 517-18, 561
 마크스, 로잔나, 510
 마크스, 소피아, 449
 마크스, 윌리엄, 453-54, 560-62
 마크햄, 스티븐, 497-98, 546, 549
 막대기, 접치는, 62-63
 말라기, 240, 476
 말라리아, 402
 매닝, 제인, 500-501, 505-6
 매클렐른, 신시아 앤, 138-39
 매클렐른, 윌리엄, 138-43, 155-57, 182-83, 189-90, 216, 275, 284, 313, 363, 182-83, 189-90, 216, 275, 284, 313, 363
 매클리ერი, 소프로나 스미스, 스미스, 소프로나아 참조
 맥레이, 알렉산더, 369-70, 384
 맨체스터, 뉴욕, 35-36, 52, 75, 106-7, 194
 머독, 존, 124
 머독, 줄리아, 124. 또한 스미스, 줄리아 머독 참조
 메릭, 필린다, 449
 메신저 앤드 애드보케이트, 221-22
 메이드 오브 아이오와, 537
 메인, 292, 312, 328-29
 멜기세덱 신권, 84, 228, 235, 316
 모건, 루스, 439
 모건, 메리 앤 웨스턴 데이비스, 428-30, 437-39, 472-74, 487-88, 538, 569
 모건, 피터, 438-39, 472-74, 487-88, 537-38, 569-70
 모로나이
 메리 휘트머에게 나타남, 70-71
 조셉 스미스를 꾸짖음, 36
 조셉 스미스에게 금판에 관해 지시함, 22-27, 34, 37-38, 54, 56, 34, 37-38, 54, 56
 해석기를 되가져 감, 51, 54-55
 모세, 108, 117-18, 232-33, 240
 모하간 인디언, 573
 몬트로스, 아이오와 준주, 400-403
 몰리, 루시, 102-4
 몰리, 루시 건, 104-5, 112, 580
 몰리, 아이잭, 104-5, 112, 189-91, 580
 물문, 220
 물문경
 -과 성경, 72, 255, 485, 255, 485
 그리스도를 증거함, 71-72, 83, 71-72, 83
 마틴 해리스가 원고를 읽어버림, 51-53
 반대 세력의 믿음, 297, 302, 526
 선교사들이 아메리칸 인디언에게 가르침, 116

- 에 대한 간증을 얻음, 92-93, 99-101, 139-40, 253-54, 271, 253-54, 271
- 에 대한 간증을 의심함, 182-83
- 에머 스미스의 믿음, 585
- 에브너 코올이 조롱함, 80-81
- 에 언급된 복수 결혼, 121, 433, 490
- 영국판, 429
- 조셉 스미스의 간증, 412, 546, 412, 546
- 출판, 76-80, 83, 76-80, 83
- 또한 금판 참조
- 미국 원주민, 아메리칸 인디언 참조
- 미대륙, 22, 93, 98, 108, 또한 미합중국 참조
- 미라, 219-21
- 미시시피강, 200, 376-77, 382, 400, 417, 424, 469, 528, 581, 424, 469, 528, 581
- 미주리
 - 갈등, 173-75, 250-52, 258, 173-75, 250-52, 258
 - 노예 제도, 172-73
 - 선교 사업, 123-24
 - 성도들의 추방, 356, 371-72, 376-77, 381-82, 420, 376-77, 381-82, 420
 - 성도들이 -에서의 처사에 대해 보상받을 방법을 모색함, 406, 413-14, 406, 413-14
 - 스미스 가족과 리그돈 가족의 이주, 298-99
 - 시온이 될 장소, 126-30
 - 에머 스미스와 자녀들이 떠남, 377-78
 - 의회가 성도들을 위해 콜드웰군을 조직함, 274
 - 이스라엘 진영, 200, 202
 - 집합, 127-30, 156-57, 313
- 미주리강, 133-34, 192-93, 247-48
- 미주리에서의 손실에 대한 보상, 391-92, 406-8, 413-14, 513-14, 555, 391-92, 406-8, 413-14, 513-14, 555
- 미주리주 민병대, 328, 341-42, 345-46, 350-53, 355-62, 364, 366-67, 341-42, 345-46, 350-53, 355-62, 364, 366-67
- 미칠, 새뮤얼, 48
- 미합중국, 115, 163, 167, 267-68, 517-18, 566-67, , 163, 167, 267-68, 517-18, 566-67, 또한 미대륙 참조
- 미합중국 의회, 406, 408, 413-14
- 미합중국 헌법, 433-34, 535
- 밀러, 애벌린, 156
- 밀러, 조지, 453-54, 458, 566
- 밀레니얼 스타, 516-17
- 밀레트, 알테머스 , 210, 221

- 바울, 148, 421, 451
- 바이글러, 뱃시바, 스미스, 뱃시바 바이글러 참조
- 박스홀 예배당, 283
- 반역죄, 365, 368-70, 545, 548
- 발 씻음, 166, 237-38
- 방언, 은사, 163, 178, 233, 237-38, 501
- 방언의 은사, 163, 178, 233, 237-38, 501
- 벤 뷰런, 마틴, 406-8
- 버터필드, 저스틴, 478-79
- 버틀러, 존, 323-27
- 버틀러, 캐롤라인, 323
- 번역, 금판; 성경, 조셉 스미스가 영감으로 번역함; 아브라함서 참조
- 법률 문제
 - 교회가 법률에 따라 조직됨, 84-85
 -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군법 재판, 364-65
 - 나부 익스포지터가 파괴됨, 535, 539-40
 - 노예 제도, 172-73
 - 물문경의 저작권, 80-81
 - 미주리 북부에서의 갈등, 327-28, 335
 - 성도들의 법 존중, 333-34, 346, 371, 548, 555, 333-34, 346, 371, 548, 555
 - 성도들이 합법적으로 보상받을 길을 찾음, 392
 - 잭슨군과의 갈등, 185-86, 188-91, 196, 186, 188-91, 196
 - 조셉과 하이럼 스미스가 일리노이에서 반역죄로 기소됨, 545
 - 조셉과 하이럼 스미스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던 자가 무죄를 선고받음, 576-77
 - 조셉 스미스가 선견자라는 이유로 기소됨, 33-34, 56-57
 - 조셉 스미스가 소란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받음, 95
 - 조셉 스미스에 대한 법인 송환 시도, 467-68, 470, 472, 478-80, 498-500, 470, 472, 478-80, 498-500
 - 조셉 스미스와 교회 지도자들이 기소되어 미주리에 수감됨, 368-70, 384-85
 - 종교의 자유, 433-34, 529-30
 - 커틀랜드에서의 부채, 268, 298
- 베냐민, 왕, 90
- 베넷, 존
 - 계시를 통한 가르침, 426
 - 교회 가입, 419-20
 - 반물론 활동, 466-67, 474, 477, 484
 - 비행과 파문, 457-62, 465-66
 - 지도자 위치, 422, 425-27, 431-32, 435-36, 425-27, 431-32, 435-36
- 베드로, 84
- 베수비오산, 391
- 베어 크릭, 일리노이, 575
- 베일리, 리디아, 나이트, 리디아 베일리 참조
- 베일리, 캘빈, 224-25
- 벤보우, 윌리엄, 410
- 벤보우, 제인, 410, 464-65
- 벤보우, 존, 410, 464-65
- 보그스, 릴번, 331, 345-46, 350, 456-57, 460-61, 466-68, 478-79
- 보물 수색, 21, 31-34, 37, 43
- 보스틴, 매사추세츠, 79, 311, 559
- 보인턴, 존, 216, 257, 275-76, 284, 288-89, 296-97, 475, 276, 284, 288-89, 296-97, 475
- 보즈, 자매, 198
- 복수 결혼
 - 나부 익스포지터, 531, 534

브리검 영, 484-85, 584, 484-85, 584
 사도들이 시행함, 570-71
 -에 관한 계시, 121, 502-4, 511, 502-4, 511
 에머 스미스, 489-90, 506-8, 585, 489-90, 506-8, 585
 에머와 조셉 스미스의 논의, 504
 윌리엄 로의 반대, 484, 521, 526
 -을 시행하라는 계명, 121, 432-34
 “일부다처제”, 489
 조셉 스미스가 다른 이들에게 소개함, 443-44
 조셉 스미스의 이행, 290-92, 295, 434-35, 444-46, 482-83, 490, 444-46, 482-83, 490
 하이럼 스미스, 484, 490-92
 복천년, 172, 247, 518
 불, 조셉, 321-22
 볼드윈, 케일럽, 369-70, 384
 부스, 에즈라, 129, 133-34, 136-37, 141, 150
 부채, 재정 참조
 부활, 147-48, 403, 487
 분별, 은사, 544
 브런스, 세이머, 421
 브런스, 해리엇, 421
 브리스틀, 영국, 430, 437
 블랙, 애덤, 327-28
 비먼, 루이자, 435, 444, 496
 비먼, 메리, 노블, 메리 비먼 참조
 빅블루강, 182, 189-90
 빈곤
 궁핍한 자를 돕기로 성약을 맺음, 154, 376-77
 성도들과 -, 277-78, 316, 525, 316, 525
 스미스 가족의 -, 25, 32
 예복 백성과 -, 108
 이주, 111, 156-57, 382
 현남의 법과 -, 118
 나라, 433
 사랑, 16-17, 66-67, 139, 304, 388-89, 392, 557, 389, 392, 557
 사망, 4-5, 132-33, 403-4, 412-13, 523
 사스케하나강, 49, 66-67
 사우스캐롤라이나, 163-64
 사탄, 15, 23, 26, 61, 565. 또한 악마 참조
 샬LEM, 메사추세츠, 258-59
 상점
 뉴얼 휘트니의 커틀랜드 -, 113, 162, 164-66
 조셉 스미스의 나부 -, 442, 453-54, 506, 510, 531, 506, 510, 531
 조셉 스미스의 커틀랜드 -, 258-59
 상호부조회, 나부의 여성 상호부조회 참조
 새롭고도 영원한 결혼 성약, 487, 502, 510, 580
 새 예루살렘, 98
 샤프, 토머스, 430-32, 435-37, 530-32, 536-37, 571
 선거일의 싸움, 323-26
 선견자의 싸움, 21, 33, 50, 55, 61-62, 72, 157

선견자의 돌, 21, 25-26, 31, 33-34, 50, 61. 또한 우림과 돌뭍 참조
 선교 사업
 기금 모금, 248
 남부의 주들, 263-64
 남태평양, 494-95, 515, 532, 573-75
 동부의 주들, 161, 311-12, 408, 509
 미주리에서의 -, 128-29, 138, 129, 138
 사용된 계시, 141
 십이사도 정원회, 214-17, 285, 320-21, 217, 285, 320-21
 아메리칸 인디언, 98, 105-6, 115-17, 123-24, 129, 572, 98, 105-6, 115-17, 123-24, 129, 572
 앤다우먼트, 241, 249, 241, 249
 영국, 274-77, 286-88, 302-4, 306-8, 321, 386, 401-2, 404-5, 275-77, 286-88, 302-4, 306-8, 321, 386, 401-2, 404-5
 오하이오, 100-105, 155-56
 -의 시급성, 159-60
 칠십인 정원회, 217
 캐나다, 224-25, 249-50, 254-56, 270
 폭스 아일랜드, 272, 292-94
 홍보, 474
 선지자
 물문경의 -, 61-62, 66
 브리검이 말하는 -의 중요성, 484-86
 성도들이 조셉 스미스의 -로서의 역할에 관해 의문을 품음, 266, 297, 530
 엘리아, 240
 조셉 스미스, 55, 142, 157, 280, 528-29
 하이럼 스미스, 425-26
 선지자 학교, 165-68, 216, 168, 216
 성경
 교회의 가르침은 -을 따름, 252-55
 물문경과 -, 72, 255, 485
 - 외의 경전, 83-84, 100-101
 -의 진리를 추구함, 79, 303
 조셉 스미스가 읽음, 12-13
 성경, 조셉 스미스가 영감으로 번역함, 108-9, 121, 146-47, 502
 성별된 기름, 374
 성신
 간증의 근원, 99, 280, 292-93
 -과 거짓 영, 119
 데이비드 휘트머가 발음 같도록 인도받음, 69
 머시 톨슨이 동전 모금을 시작하도록 인도받음, 516
 방언을 함, 163, 178
 본질, 486-87
 선교 사업, 275, 282, 312, 317, 409-10, 312, 317, 409-10
 에머 스미스의 축복, 544
 예언, 234-35
 오순절, 233
 -으로 가르침, 229
 -을 따름, 90

- 을 통한 계시, 63, 143, 148, 272-73, 148, 272-73
- 의 은사를 부여할 권세, 67, 84
- 조셉 스미스가 -의 영향력을 느낌, 15, 26, 86, 147, 229, 391, 26, 86, 147, 229, 391
- 지도자 승계, 565-66, 565-66
- 침례와 -의 은사, 84
- 커틀랜드 성전에서의 현시, 237
- 팔리 프랫이 인도를 받음, 92-93, 250, 92-93, 250
- 필로 디블의 치유, 192
- 화해, 230
- 확인과 -의 은사, 85, 96-97, 144-45
- 휘트니스가 기도로 -의 은사를 구함, 111-12
- 성약
 - 가난한 이들을 돕는 -, 154, 376, 578
 - 결혼, 229, 444, 481-82, 487, 492, 502, 544, 444, 481-82, 487, 492, 502, 544
 - 과 교회 사업의 관리, 154-55
 - 선지자 학교에서의 -, 166
 - 성도들은 신성한 가먼트를 통해 -을 되새김, 453
 - 성도들을 구원할 -, 183-85
 - 아브라함의 -, 503
 - 약속의 성령으로 인봉됨, 502-3
 - 에 대한 간증, 236
 - 엔다우먼트 의식, 579
 - 월리엄과 조셉 스미스가 맺은 -, 230-31
 - 을 지키는 자들을 위한 해의 영광, 148
 - 의식과 -, 481-82
 - 의 회복, 72, 83
- 성임, 67, 84-85, 316, 394
- 성전, 나부
 - 건축, 447-50
 - 상호부조회가 건축을 지원함, 496-97, 516-17, 496-97, 516-17
 - 에 관한 묘사, 487-88
 - 에서 열린 연차 대회, 576-77
 - 완공의 중요성, 481-82, 567, 569-71, 578
 - 정초식, 430-32
 - 조셉 스미스의 공표, 421
 - 집행된 의식들, 426-27, 443, 453-54, 481-82, 579-80, 582-83
 - 합당한 성도들은 -에서 예배할 것임, 425
 - 헌납식, 581
- 성전, 인디펜던스(계회), 130, 132, 165, 168-70, 267, 168-70, 267
- 성전, 커틀랜드
 - 건축, 210-11, 221
 - 계시를 통해 성도들에게 건축하라는 계명이 주어짐, 165
 - 그리스도와 구약전서 선지자들의 시현, 239-40
 - 반대 세력, 279-80, 288, 297
 - 신성한 권능의 엔다우먼트, 205, 237-39
 - 안에서 기도, 276, 280-81
 - 에 관한 묘사, 232, 235-36, 438
 - 을 위한 계획, 168-70
 - 을 위한 지출과 부채, 209-11, 213-14, 248
 - 지당 잡령, 277-78, 385
 - 지방 위의 천사들, 247
 - 헌납식, 224, 235-37
 - 성전, 파웨스트(계회), 294, 308, 314, 386-87, 393-94, 308, 314, 386-87, 393-94
 - 성전 위원회, 487-88
 - 성찬, 85, 237-38
 - 세 증인, 57, 73-74, 83
 - 세이커교, 112
 - 솔트레이크밸리, 577, 581
 - 솔 크리크, 274, 335, 347
 - 순종, 20, 26, 41, 53, 433, 442-43
 - 술, 85, 167-68, 224, 237-38, 324-25, 393
 - 숲, 나부 성전 근처, 474, 563-64
 - 스노우, 로렌조, 429
 - 스노우, 엘리자, 222, 448-51, 467, 481, 579-80
 - 스미스, 데이비드 하이럼, 585
 - 스미스, 돈 카를로스, 5, 41, 336, 387-88
 - 스미스, 루시 맥
 - 금판, 38
 - 남편의 임종, 422-23
 - 뉴욕주로 이주함, 5-8
 - 물문경에 대한 간증, 83-84
 - 믿음, 10
 - 성도들을 오하이오로 이끌, 121-23
 - 올리버 카우드리의 개종, 59
 - 의식을 받음, 510
 - 조셉과 하이럼 스미스가 체포됨, 366-67
 - 조셉과 하이럼 스미스의 죽음, 553, 555-56
 - 조셉 스미스가 시현을 말해 줌, 36
 - 조셉 스미스를 위로함, 53
 - 침례, 86
 - 스미스, 메리 필딩
 - 개종, 254-56
 - 동전 모금, 516
 - 리버티 감옥을 방문함, 375
 - 미주리 민병대, 364
 - 의식을 받음, 510
 - 커틀랜드의 반대 세력, 280-81
 - 하이럼 스미스와의 결혼, 296, 492-93
 - 하이럼 스미스의 임종, 555-56
 - 스미스, 벤티바 바이글러, 404, 449
 - 스미스, 사디우스, 347, 349-50, 353
 - 스미스, 새뮤얼, 5, 59-60, 75, 99, 295, 554, 560
 - 스미스, 소프로니아, 5, 486, 5, 486
 - 스미스, 실베스터, 201, 217
 - 스미스, 아그네스, 336-37
 - 스미스, 아만다 반스, 347-49, 353-55, 372, 378-79, 463, 467, 463, 467
 - 스미스, 알렉산더, 377, 392, 489, 377, 392, 489
 - 스미스, 엘마, 347, 349-50, 353-55, 378-79, 349-50, 353-55, 378-79
 - 스미스, 엘비라, 347
 - 스미스, 앨빈, 23-24, 27-29, 233-34, 423-24
 - 스미스, 에머 헤일

- 나부에 남기로 결정함, 585
 -를 위한 제시, 96, 502-4
 번역을 위한 서기, 46, 49-50, 56, 70, 108
 복수 결혼, 291-92, 434, 489-90, 504, 506-8, 585
 부모의 집으로 거처를 옮김, 45-46
 상호부조회, 448-51, 464
 성전, 496
 성전 의식을 행함, 510
 성품과 관심사, 32
 아버지를 위해 침례받음, 424
 얼어붙은 미시시피강을 건넌, 377-78
 옷을 지음, 98, 211
 -와 금판, 34, 36-38, 40
 은신 중인 조셉 스미스에게 조언함, 470-72
 일리노이 주지사를 만남, 467, 475, 477
 임신과 출산, 51-52, 111, 124, 161, 531
 제인 매닝을 맞이함, 505-6
 조셉 스미스 사후의 재정 문제, 560-61, 570
 조셉 스미스에게 작별을 고함, 542-43
 조셉 스미스와의 교제 및 결혼, 31-36
 조셉 스미스와 인봉됨, 492
 조셉 스미스의 수감, 95, 366, 374-75, 395-96, 541-42, 547-48
 조셉 스미스의 죽음, 553-56
 죄, 463
 주님을 신뢰함, 268-69
 지혜의 말씀, 166-68
 찬송가집, 221-22
 축복을 적음, 543-44
 침례 및 확인, 94-97
 크로스비 가족에게 음식을 줌, 279
 폭도의 공격, 150-51, 153
 스미스, 오펜샤, 347
 스미스, 워렌, 347-48, 353
 스미스, 윌라드, 347, 353-55
 스미스, 윌리엄, 5, 41, 216, 223, 225-27, 229-31, 288
 스미스, 제루샤, 224, 290, 294-96, 492-93
 스미스, 제시, 208
 스미스, 조셉, 삼세, 162-63, 269, 366, 377, 392, 489
 스미스, 조셉, 이세
 갈등과 화해, 81, 133-34, 223, 225-27, 229-31, 272-73, 284-85
 교육, 49, 145
 교회役員 조직, 209, 215, 289-90, 294-95
 금판을 번역함, 43-44, 46, 49-50, 58, 60-63, 65-66, 71-72, 78
 금판을 얻고 지킴, 29-30, 34, 36-38, 40-41, 43, 45, 50, 56
 나부에서의 엔다우먼트, 453-54, 510
 나부 익스포지터의 인쇄기 파괴, 534-36
 납치와 구출, 497-500
 단 단원, 314
 리버티 감옥에서, 368-70, 374-75, 384-90
 멜기세덱 신권에 성임됨, 84-85
 모로나이가 나타남, 22-24, 34, 36, 54
 미국 대통령 선거 운동, 513-14, 517
 미국 대통령을 만남, 406-8, 411-12
 미주리 북부에서 벌어진 갈등, 326-28, 332-34, 351-52
 미주리에서 수감되어 있다가 탈출함, 392-93, 395-96
 미주리에서 체포되어 수감됨, 355-58, 364-68
 "배운 것도 없이 쟁기질이나 하는", 144-45
 법적 혐의, 33-34, 56-57, 95, 268, 327-28, 368-70, 538, 545
 병자를 치유함, 402-3
 보물 수색, 31, 34
 복수 결혼, 121, 291-92, 432-35, 443-46, 483-86, 489-91, 502-4, 507
 상호부조회 조직, 448-50
 선견자, 21, 33, 50
 성경 번역, 108-9, 146-47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현을 보고 열쇠들을 받음, 239-41
 성품, 162
 시현으로 해의 왕국과 형 앨빈을 봄, 233-34
 신권 열쇠, 십이사도에게 부여함, 519-20
 아버지에게 받은 축복, 233, 422-23
 악마를 쫓아냄, 91-92
 어린 시절의 수술, 5-7
 에머 헤일과 결혼, 32-36, 492-93
 영적인 성역에 집중함, 96, 418
 오십인 평의회에서의 역할, 528-29
 윌리엄 펠프스를 용서함, 418
 은신, 268-69, 469-72, 474-78, 480
 이스라엘 진영, 196-97, 199-205
 이집트 유폐, 219-21
 잃어버린 물문경 원고, 51-53
 재정, 45, 248, 258-59, 269-71
 잭슨군 폭력 사건, 183-85, 195
 존 베넷, 419-20, 422, 427, 459, 462-63, 465-66
 죄를 용서받음, 11-12, 16, 20-22, 54-55, 137
 죽은 자를 위한 침례, 421-22
 죽음, 550-52
 첫번째 시현, 14-18
 침례와 아론 신권 성임, 66-67
 카테지로 가는 결정, 540-43
 커틀랜드 성전 헌납식, 236-37
 커틀랜드 세이프티 소사이어티, 261-62, 265-67, 272
 커틀랜드에서의 엔다우먼트, 237-38
 타르질을 당하고 깃털이 쏘임, 150-53
 하나님의 본질, 487, 522-24
 스미스, 조셉, 일세
 가족 분쟁을 중재함, 223, 229-30
 금판, 29-30, 37, 39, 41
 뉴욕주로 이주함, 5-6
 목사에 대한 분노, 28
 여덟 증인 중 한 명, 75
 올리버 카우드리의 개종, 59
 의식을 받음, 233
 재정, 35-36

조셉 스미스의 시현, 23-25, 36
 종교적 믿음, 10-11
 죽음을 앞두고 가족을 축복함, 422-23
 축복사, 242, 263
 침례, 86
 커틀랜드의 반대 세력과의 갈등, 288
 스미스, 조셉 머독, 153-54
 스미스, 조셉 에프, 375
 스미스, 조지 에이, 387, 393-94, 404, 578
 스미스, 존, 469
 스미스, 줄리아 머독, 153-54, 161, 269, 377, 489
 스미스, 캐더린, 5, 41
 스미스, 프레드릭, 269, 377-78, 392, 489, 499
 스미스, 하이럼
 갈등을 중재함, 230, 521
 나부 익스포지터, 535
 메리 필딩과 결혼함, 296
 물문경 인쇄, 78
 미주리도 감, 290, 294-95
 미주리에 수감됨, 364, 366-67, 369-70, 375, 384
 미주리의 갈등 속에서, 332, 335
 복수 결혼, 484, 490-92, 502-4, 511
 복음을 나눔, 82-83, 93, 139-40
 설교를 전함, 281, 474, 484-86
 아내 제루샤의 죽음, 295-96
 앨빈 스미스를 위해 침례받음, 424
 에브너 코울을 만남, 80-81
 엔다우먼트, 453-54
 여덟 증인 중 한 명, 75
 영원을 위해 인봉됨, 492-93
 이스라엘 진영, 202
 인봉을 집행함, 510
 제일회장단에 부름받음, 294-95
 존 베넷, 457-59
 죽음, 550-51, 554
 축복사, 425-26, 514-15
 카테지 감옥에서, 546, 549-50
 카테지로 가는 결정, 541-42
 프레메이슨, 449
 스코틀랜드, 429
 스콧, 로버트, 522, 526-28
 스테포드셔, 영국, 409-10
 스탠리, 필린다, 496
 스테드웰, 메리, 349
 스테이크, 208-9, 289, 304, 308, 310, 421, 500
 스토터드, 소프로나이 스미스, 스미스, 소프로나이 참조
 스토웰, 조사이아, 31-35, 38
 스트랭, 제임스, 567
 스트링햄, 폴리, 496
 스프링필드, 일리노이, 478
 스프링힐, 미주리, 308-9
 승영, 442-44, 452, 487, 502-3, 523, 579
 시온
 건설, 119-20, 132, 135, 160, 164, 241

관련 계시, 85, 96, 109, 137, 195-96, 259, 195-96, 259
 관련 소망, 222, 251, 375
 성도들의 이주, 156-57
 스테이크, 208, 400
 -에 관한 묘사, 137-38
 -에서의 재산, 185
 위치, 98, 420
 -오로시의 미주리, 126-30
 -을 뒷받침하는 헌납의 율법, 118-19
 -의 구속, 196-99, 205-6, 247-48
 -의 도시를 위한 계획, 169-70, 274
 조셉 스미스가 응답을 구함, 194-95, 194-95
 주님께서 건설하려는 노력을 받아들임, 426
 시온 진영, 이스라엘 진영 참조
 시카고, 일리노이, 438
 시현
 교회가 미국 서부에 정착하는 것에 대한 -, 581
 교회 조직, 82, 209, 289
 기름 부음이 이뤄질 당시에 조셉 스미스와 다른 이들이 본 -, 234
 모세, 108
 목사가 부정함, 17
 새 증인, 73-74
 시드니 리그돈이 본, 561-63
 아만다 스미스가 아들의 치료 방법을 보다, 378
 올리버 카우드리가 금판을 보다, 59-60
 천국에 관한 -, 147-50, 159, 233-34, 242-43
 첫번째 시현, 14-18
 침례 요한, 66-67
 커틀랜드 성전에 대한 -, 168-69
 커틀랜드 성전에서, 238-41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233-34
 휘트니 가족이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보다, 112
 또한 모로나이; 조셉 스미스에게 주어진 계시 참조
 시현, (교리와 성약 76편), 147-50, 159
 신권
 결혼, 228, 412-13, 502-3
 권능, 389
 - 반차에 따른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 487
 열쇠, 240-41, 559
 -의 방식을 좇아 상호부조회를 조직함, 448, 451
 - 의식으로서의 엔다우먼트, 454-55
 의식 집행, 160
 -의 회복, 86
 조셉 스미스가 소유함, 528-29, 563
 또한 멜기세덱 신권; 아론 신권 참조
 신앙
 간증, 70-71
 - 강좌, 222
 계시, 117
 금판을 번역하기 위해 필요함, 46, 63
 복수 결혼, 432, 434-35
 에머 스미스, 269
 -을 잃음, 146, 182-83, 266-67, 297-98

-의 시험, 205, 217-18, 442, 205, 217-18, 442
 -의 집, 165
 지식, 12-13, 57, 63, 165
 치유, 286, 374, 402, 505, 374, 402, 505
 신앙 강좌, 222
 신앙전서, 90, 104-5, 111, 114-15, 163, 193, 214-15, 217, 292-93, 317, 443, . 292-93, 317, 443. 또한 성경 참조
 신정 민주주의, 517, 528-29
 십이사도 정원회
 공석이 채워짐, 320-21
 반대와 화해, 275, 283-85
 부여된 열쇠들, 519-20, 559, 563, 565, 563, 565
 사도직 회복, 230, 401-2
 선교 사업, 249
 영국으로의 선교 사업, 274-75, 394-95, 404-5, 394-95, 404-5
 -와 교회의 정착지, 518
 조셉 스미스가 -에 지시함, 217-18, 401, 491, 401, 491
 조셉 스미스를 미국의 대통령으로 지지하며 선거 운동을 벌임, 514
 조직, 214-17
 지도자 승계, 560-62, 565, 567
 커틀랜드 성전에서 권능을 부여받음, 238-39
 커틀랜드에서 행해진 발 씻음, 237-38
 파웨스트 성전 부지조 감, 321, 386-87, 393-94
 삽일조, 319-20, 516
 씻음과 기름 부음, 232-33, 453, 510, 579-80
 아담, 233-34, 309-10, 411
 아담-온다이-아만, 미주리, 309-10, 323-24, 335-37
 아론, 63, 232-33
 아론 신권, 67, 97, 197, 235
 아메리칸 인디언, 98, 105-6, 115-17, 123-24, 572, 577
 아바드, 샘프슨, 327, 368-69
 아브라함, 121, 233-34, 433, 503. 또한 아브라함서 참조
 아브라함서, 220, 447, 453
 아이오와 준주, 400, 469, 541-42, 581
 아프리카계 미국인. 흑인 참조
 악마, 17, 91-92, 528, 531. 또한 사탄 참조
 안톤, 찰스, 46-48, 72
 알렌, 찰스, 179-80
 에덤스, 제임스, 453-54
 앨저, 패니, 291-92, 295, 305
 야고보서, 84, 216
 야곱(물문경), 121, 433, 490
 약속의 성령, 502-3
 어린 시절, 캐더린 스미스, 스미스, 캐더린 참조
 어린이(자녀)
 나부의 -, 474
 마음을 부모에게 돌이킴, 240-41, 476, 241, 476
 복수 결혼과 자녀, 444
 -와 성전 건축, 210, 221

-의 회원, 234, 411
 축복, 277, 307, 542-43
 침례, 158
 클레이군의 -, 251
 파웨스트의 -, 294
 폭도의 공격을 경험함, 187, 189, 337
 혼즈밀의 -, 347
 에녹, 108-9, 111, 118
 에덴 동산, 163, 228, 453
 에번스, 데이비드, 348
 에이블, 일라이자, 315-19
 에인젤, 메리 앤. 영, 메리 앤 에인젤 참조
 엔다우먼트, 나부
 더 큰 영적 엔다우먼트, 443
 -를 위한 열쇠, 559
 반대 세력의 저항, 534
 브리검 영, 566-67, 571
 상호부조회 회원들의 준비, 451, 464
 성도들이 -를 받음, 496, 510, 573, 578-79, 582-83, 573, 578-79, 582-83
 성약, 481, 579
 소개, 453-55
 엔다우먼트, 커틀랜드
 계시로 약속됨, 110, 205
 선교 사업, 241, 249
 성도들의 준비, 205-6, 219, 222, 227, 229, 232-33, 229, 232-33
 성전에서 주어짐, 238-39, 251, 316, 251, 316
 -와 시온의 구속, 247-48
 조셉 스미스의 기도, 236
 엘리야, 240-41, 433
 여덟 증인, 75, 83
 여성
 기도 모임, 372
 성전 건축, 210-11, 516-17
 성전 의식을 집행함, 510
 -에 대한 폭력, 189, 351-52, 364, 367, 364, 367
 이스라엘 진영, 198, 202, 208
 또한 나부의 여성 상호부조회 참조
 연설, 자유에 관한, 535, 540
 연차 대회. 대회 참조
 열쇠
 상호부조회 조직, 448, 452
 조셉 스미스가 십이사도에게 부여함, 519-20, 559, 563
 천사의 성역, 67
 커틀랜드 성전에서 회복됨, 240-41, 433
 하나님 왕국의 -, 238, 565
 영, 메리 앤 에인젤, 198, 382, 404-6, 484-85, 492-93, 510, 557
 영, 미리엄, 198
 영, 브리검
 개종, 99-100
 나부 탈출, 571, 576, 582
 방언으로 기도함, 163

- 복수 결혼, 443, 446, 491-92, 584
 살아 있는 선지자의 중요성, 484-85
 선교 사업, 병중에 떠남, 404-6
 선지자로서의 권세가 임함, 564-66
 신권 열쇠, 559
 십이사도 정원회로 부름받음, 215-16, 215-16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376
 아내와 인봉됨, 492-93
 엔다우먼트, 453-54, 582-83
 이스라엘 진영, 198, 208
 이주한 가난한 성도들을 도움, 376-77, 382, 576-78, 382, 576-78
 조셉 스미스를 만남, 161-63
 조셉 스미스에 대한 충성, 275
 조셉 스미스의 시현과 서부로의 여정, 581-82
 지도자 승계, 563-64, 570, 563-64, 570
 파웨스트 성전 부지에서, 387, 393
 폭압, 530
- 영, 에드워드 파트리지, 584
 영, 조셉, 161-63, 215, 217, 221
 영, 패니, 405-6
 영, 피니아스, 573
 영광의 등급, 147-48
 영광의 왕국, 147-48
 영국, 286-88, 306-8, 321, 409, 420, 429, 516-17, 429, 516-17, 또한 특정 장소 참조
 영국 선교부. 선교 사업; 영국 참조
 영원한 결혼, 444-45, 481-82, 487, 492, 502, 544, 502, 544
 영의 은사, 111-15, 247, 114-15, 247
 “영적 아내”, 457, 489
 영적인 은사. 영의 은사 참조
 예루살렘, 425, 439-41, 487-88
 예수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 523
 말씀으로서의 계시, 58
 물문경에서, 55, 62, 66, 71-72, 83
 본질, 486-87
 성도들의 시현에서, 234
 엔다우먼트, 233
 -의 사랑, 195
 -의 희생, 78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 237-38
 조셉 스미스의 시현에서, 15-16, 147, 233-34
 커틀랜드 성전에 나타나심, 107, 239-40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재림 참조
-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67, 72, 84-85, 89-90, 208-9, 238, 308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79, 90, 440
- 예언
 먼 나라들을 향해 세울 기에 관한 -, 572, 581-82
 미주리의 교회에 관한 -, 128-29, 141
 브리검 영의 -, 578
 성경의 다니엘이 한 -, 369
 인봉된 책에 관한 -, 72
- 조셉 스미스가 죽음을 맞이하여 한 -, 543, 554, 568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의 침례식에서의 -, 67
 집합에 관한 -, 109-10, 292, 518
 커틀랜드에서 엔다우먼트가 주어질 때의 -, 234-35, 238, 238
 오네이다 인디언, 572
 오리건, 518
 오순절, 233, 237
 오십인 평의회, 518, 528-30, 572-73, 577, 581
 오하이오, 105, 109-11, 119-20, 123, 137, 160
 오하이오강, 242
 와드, 447
 화이트, 라이먼, 191, 199-200, 309, 326-27, 332, 357-58, 364-65, 369-70
 완델, 찰스, 500-501
 왓슨, 로렌조, 541-42, 553
 요한, 84, 216, 443, 488, 529
 요한, 복음, 147
 용서
 관련된 계시, 136-37
 미주리 성도들이 조셉 스미스에게 -를 구함, 168
 에드워드 파트리지가 -를 구함, 131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능케 하심, 78
 조셉 스미스가 -를 구함, 9, 11-12, 16, 18, 21-22, 54, 71, 230-31, 16, 18, 21-22, 54, 71, 230-31
 조셉 스미스가 윌리엄 펠프스를 용서함, 418
 조셉 스미스가 팔리 프랫을 용서함, 284
 찰스 프랭클린이 -받고자 기도함, 316
 토머스 마쉬가 -받음, 284-85
 하이럼 스미스가 -를 구함, 485-86
- 우드렘, 세라 에머, 321, 330, 373-74, 464
 우드렘, 아팩, 311
 우드렘, 에즈먼, 197-98
 우드렘, 윌포드
 가족에게 복음을 전함, 311-12
 갈등, 271-73
 병자를 치우함, 373-74, 402
 복수 결혼, 443
 복음을 전하려는 소망, 206, 292-94
 시온으로 가기 위한 신앙, 328-30
 십이사도 정원회로 부름받음, 321-22, 387, 394
 아내와 인봉되고 엔다우먼트를 받음, 509-10
 영국에서의 선교 사업, 404, 408-10, 428, 566-68, 408-10, 428, 566-68
 이스라엘 진영, 197-99, 204, 207-8
 조셉 스미스의 말씀에 깃든 권능, 267
 커틀랜드 세이프티 소사이티, 265-66
 타임즈 앤드 시즌스 사무실, 464-65, 509
 파웨스트 성전 부지에서, 387, 393-94
 폭스 아일랜드에서의 선교 사업, 321-22
 피비 카터와 결혼함, 263-64, 268
- 우드렘, 유니스, 311
 우드렘, 피비 카터
 가족을 위한 침례, 464-65

나부의 여성 상호부조회, 463-64
 남편과 인봉되고 엔다우먼트를 받음, 509-10
 남편과 함께 선교 사업을 함, 292, 566-68
 시온으로 가기 위한 신앙, 328-30
 윌포드 우드럽과 결혼함, 266, 268
 임신과 출산, 311, 321-22, 404
 조셉과 하이럼 스미스의 죽음, 558
 자유를 목격함, 402-3
 커틀랜드로의 집합, 262-64
 우림과 돕금, 22, 25-26, 38-40, 43-44, 51, 54-55, 62, 73. 또한 선견자의 돌 참조
 워렌, 캐더린, 461-62
 위소, 일리노이, 431, 537
 워싱턴, 디시, 406-8, 411, 413, 540-41
 워커폴드, 영국, 287, 302-4
 월턴, 이사벨라, 253-55
 워슬리, 앤, 286-87
 워슬리, 토머스, 286-87
 웨일스, 547, 568
 위스콘신 준주, 567
 위틀록, 하비, 139
 윌리엄스, 프레드릭, 105, 164-65, 168-70, 208, 268, 290, 294-95
 윌슨, 모지스, 364-65
 유럽, 439-40
 유성우, 192-94, 343
 율법(교리와 성약 42편), 117-19, 127
 음악 찬송가 참조
 의식, 160, 443, 481-82, 512-13, 578
 이브닝 앤드 모닝 스타, 149, 159, 173-74, 176
 이사야, 72, 157, 518, 572
 이삭, 233
 이스라엘, 572
 이스라엘 진영(시온 진영), 196-208, 210, 215-17
 이슬람교, 433-34
 이슬람교(도), 433-34
 이집트 유물, 219-21, 227, 229, 442
 이혼, 225
 인내, 185, 523
 인디언, 아메리칸 인디언 참조
 인디펜던스, 미주리, 135, 148, 157, 183. 또한 잭슨군, 미주리 참조
 인봉
 부부 -, 492-93, 511, 578, 580, 511, 578, 580
 엘리야와 - 권능, 241, 433
 -의 열쇠, 519-20, 559
 입양, 580
 조셉 스미스가 성도들에게 권고함, 512-13
 현재와 영원을 위한/영원만을 위한, 444
 또한 결혼 참조
 인쇄소
 나부, 538
 인디펜던스, 148, 155, 177-78, 148, 155, 177-78
 커틀랜드, 221-22, 233, 236, 221-22, 233, 236
 인신보호영장, 498

일라이어스, 240
 일리노이, 382-83, 576-77
 일리노이주 민병대, 419, 544-45, 547-49
 일리노이주 의회, 425, 571
 임스, 뱃시, 293, 328-29
 임스, 저스틴스, 293-94, 328-29
 입양 인봉, 580. 또한 인봉 참조
 자비, 14, 55, 86, 193, 259, 389-90, 476-77
 자애, 451, 462
 장례식, 28, 133, 421, 428, 556-57
 장로, 84-85, 424, 474, 530
 재판, 22-23, 98, 163-64, 193, 440, 517, 529
 재산. 토지 및 재산 참조
 재정
 관재인, 566
 교회의 부채, 221, 248, 258-59, 266-68, 275, 277-78, 298, 319-20, 298, 319-20
 금판의 금전적 가치, 25-26
 물문경 기금, 45, 58, 76-78
 미주리에서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 406
 부채에 관한 권고, 173, 197
 사도들의 모금, 215
 성도들의 기부, 180, 198, 211-14, 382
 성전을 위한 동전 모금, 516-17
 시온의 구속, 248
 오하이오로의 집합, 110, 119
 조셉과 에머 스미스, 90, 96, 504, 559-60, 90, 96, 504, 559-60
 조셉 일세와 루시 스미스 가족, 5-6, 8-9, 11, 35-36, 5-6, 8-9, 11, 35-36
 커틀랜드 성전이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함, 209-11, 213-14
 팔리 프렛의 부채, 249-50, 256, 270-71, 256, 270-71
 또한 십일조: 커틀랜드 세이프티 소사이어티 참조
 잭스, 비에나, 180
 잭스, 조셉, 526
 잭슨군, 미주리
 -으로 돌아가려는 계획, 199, 258
 교회 지도자들이 ~으로 감, 139, 154, 366-67, 366-67
 선교사들의 도착, 115, 124
 성도들의 재산, 185, 247-48, 301, 305
 성도들의 집합, 128-32, 138, 156-57
 성도들이 떠남, 173-76, 179, 184, 190
 이스라엘 진영, 202-3
 주님께서 -에 시온을 세우고자 한 노력을 받아들이심, 426
 폭도의 공격, 171-75, 182, 186-88, 186-88
 또한 인디펜던스, 미주리 참조
 집치는 막대기, 62-63
 정치, 407, 413, 513, 534, 571
 제사, 528-29

- 제일회장단, 208, 285, 289-90, 294-95, 298-99, 301, 319, 427, 453-54, 521, 319, 427, 453-54, 521
- 제임스, 제인 매닝. 매닝. 제인 참조
- 조셉과 하이럼 스미스의 순교, 550-52
- 조셉 스미스가 미합중국 대통령 선거에 나감, 513-14, 517, 530, 534, 557, 561
- 조셉 스미스에게 주어진 계시
- 교회를 위해, 97-98
 - 기록, 56, 516
 - 때문에 미주리 주민들이 위협을 느낌, 174
 - 불완전하더라도 진리임, 142-43
 - 성경과 조화를 이룸, 255
 -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57-58
 - 우림과 돌림을 통해 받음, 54-55
 - 의 성스러운 근원, 528
 - 의 수정, 143
 - 출판, 141, 149, 222
- 조셉 스미스에 대한 법인 송환 시도, 467-68, 471, 478-80, 497
- 조셉 스미스 역. 성경. 조셉 스미스가 영감으로 번역함 참조
- 존스, 댄, 546-47, 549, 568
- 존스, 제인, 568
- 존슨, 라이먼, 216, 275-76, 284, 289, 313
- 존슨, 룩, 216, 275, 284, 289, 296-97
- 존슨, 머린다. 하이드, 머린다 존슨 참조
- 존슨, 멜리사, 487
- 존슨, 벤자민, 487
- 존슨, 엘사, 146, 153
- 존슨, 존, 146
- 종교의 자유, 433-34, 529-30
- 종교의 자유, 433-34, 529-30
- 죄, 78, 462-63
- 주님의 율법의 책, 516
- 죽은 자를 위한 침례, 421-22, 424, 447, 465, 475-77, 578-79
- 죽은 자의 구속, 423, 476
- 지식, 63, 72, 119, 167, 452-54, 487, 523
- 지옥, 28, 147
- 지지를 포함, 563-65, 578
- 지혜, 14, 61, 109, 165, 544
- 지혜의 말씀, 166-68
- 진, 에스터, 496
- 집합, 83
- 미국 서부의 새로운 집합 장소, 572-73
 - 미주리, 129-30, 211-12, 299, 313
 - 미주리의 새로운 - 장소, 304, 308-10
 -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됨, 264
 - 스테이크, 289
 - 시온이 헌납됨, 132
 - 십이사도, 214-15, 217
 - 오하이오, 109-11, 119-20, 126, 208, 289, 126, 208, 289
 - 의 열쇠, 240
- 일리노이, 382-83, 394-95, 399-401, 420, 425, 500-501, 382-83, 394-95, 399-401, 420, 425, 500-501
- 파웨스트, 294, 308
- 또한 선교 사업 참조
- 차, 167-68
- 찬송가
- 모임에서 부름, 256, 303, 307, 312, 493, 524
 - 아만다 스미스가 위로받음, 378-79
 - 에머 스미스가 찬송가집을 만들, 96, 221-22
 - 영국 찬송가집, 429
 - 이스라엘 진영, 204
 - 일라이자 에이블, 319
 - 제인 매닝 일행이 부름, 505
 - 카테지 감육의 존 테일러, 549
 - "타는 듯한 하나님의 영", 237, 449-50
 - 파웨스트 성전 부지의 사도들, 394
- 창조, 108, 453
- 캔들러, 마이클, 219-20
- 천국, 147-50, 522-23
- 천사
- 메리 라이트너가 -를 봄, 445-46
 - 베드로, 야고보, 요한, 84
 - 세 증인이 -를 봄, 73-75
 - 조셉 스미스가 금판을 줌, 75
 - 조셉 스미스를 가르침, 86
 - 조셉 스미스에게 복수 결혼을 시행하라고 함, 290-91
 - 첫번째 시현 당시 나타난 천사들, 16
 - 침례 요한, 66-67
 - 커틀랜드에서, 234, 237-38, 247
 - 피비 우드렙이 -를 봄, 373-74
 - 또한 모로나이 참조
- 첫번째 시현, 14-19
- 체이스, 자매, 497
- 체임벌린, 솔로몬, 81-83
- 축복
- 병 고침의, 402-3, 505
 - 에머 스미스가 기록한, 543-44
 - 자녀의, 277, 307, 542-43
 - 제임스 헨드릭스가 받은, 380
 - 조셉 스미스가 받은, 233
 - 조셉 스미스 일세가 죽음을 앞두고 준, 423
 - 축복사의, 242-43, 263, 514-15
 - 팔리 프렛이 받은, 249-50, 284
 - 피비 우드렙이 받은, 373-74, 568
 - 축복사, 242, 423, 425-26
 - 축복사의 축복, 242-43, 263, 514-15
- 치유
- 그리스도께서 -를 베푸심, 66
 - 를 위한 기도, 280-81
 - 말라리아에 걸린 성도들, 402-3
 - 생크플 프렛, 250

- 앤 윌슬리, 286
 앨마 스미스의 총상, 353-55, 379
 엘사 존슨의 팔, 129, 146
 제인 매닝의 일행, 505
 제임스 헨드릭스의 마비, 380-81
 콜레라 희생자들, 207-8
 필로 디블의 총상, 192
 칠십인, 칠십인 정원회 참조
 칠십인 정원회, 217-18, 237-39, 249, 313, 570
 침례, 66-67, 86, 94-95, 105, 234, 286-87, 410, 481, 573-74
 침례 요한, 66-67, 84
- 카우드리, 올리버
 계명의 책 서문, 141-42
 교리와 성약 편찬, 222
 교회 장로들과의 의견 충돌, 133-34
 -를 위한 계시, 62-64, 97-98
 맹기세렉 신권 성립, 84
 물문경 번역을 위한 서기, 59-64, 70
 물문경 인쇄, 78-81
 미주리 땅을 잘못 관리했다는 혐의, 300-302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현을 보고 열쇠들을 받음, 239-41
 세 증인 중 한 명, 73-74
 십이사도의 부름, 214-17
 오하이오와 미주리로의 선교 사업, 100-101, 103-5, 115-17, 128
 -와 하이럼 페이지의 계시, 97
 장로, 85
 조셉 스미스와 금판에 대해 알게 됨, 58-59
 조셉 스미스와의 의견 충돌, 290-92, 295, 290-92, 295
 침례와 아론 신권 성립, 66-67
 커틀랜드 성전 헌납 기도문, 236
 파문, 304-6, 313-14
- 카울스, 엘비라, 449
 카터, 피비, 우드럼, 피비 카터 참조
 카테지, 일리노이, 531-32, 537-38, 540-42
 카테지 감옥, 545-47, 549-50
 카테지 그레이(부대), 544-45, 547, 549
 카훈, 레이놀즈, 541-42
 칼린, 토머스, 467, 471-72, 477-78
 캐나다, 224-25, 249-50, 252-56, 270, 288, 321, 566-67
 캐넌, 앤, 408-9
 캐넌, 조지, 409
 캘리포니아, 518
 캘훈, 존 시, 413
 커머스, 일리노이, 279, 399-400, 402, 415, 417-18. 또한 나부, 일리노이 참조
 커틀랜드, 오하이오
 경계 문제, 258-59, 262, 267-68, 277-78, 289, 319, 267-68, 277-78, 289, 319
 교회에 대한 반대, 184-85, 194
 교회의 성장, 105, 111, 219
 반대 세력, 271-73, 279, 288-89, 292, 294, 296-98, 385, 294, 296-98, 385
 선교사들의 도착, 100
 성신이 풍성하게 임함, 237
 시온의 스테이크, 208, 247-48
 -에 관한 묘사, 114, 438
 조셉과 에머 스미스가 거주함, 113, 155
 주거난, 257
 집합, 109, 137, 161-62, 213-14, 224, 213-14, 224
 또한 성전, 커틀랜드 참조
 커틀랜드 세이프티 소사이티, 260-62, 264-65, 275, 277-78, 283, 288, 290, 297-98, 290, 297-98
 커틀러, 알페우스, 393-94
 커피, 167-68
 코릴, 마거릿, 250-51
 코릴, 존, 189-91, 250-51, 369
 코울, 에브너, 80-81
 코플리, 레민, 112, 126-28
 콘스탄티노플, 439-40
 콜드웰군, 미주리, 274, 308-9, 314, 327, 335
 콜레라, 207-8
 콜스빌, 뉴욕, 90-91, 94-97
 콜스빌 지부, 111, 126-28, 132, 155, 189
 쿠모라산, 22, 24-25, 29, 34
 쿡, 마거릿, 447-48
 쿤시, 일리노이, 377, 381-82, 467
 크로스비, 조너선, 256-57, 260-62, 277-79, 580
 크로스비, 캐롤라인, 256-57, 260-62, 278-79, 580
 크룩트강, 전투, 343-45, 359-60, 369, 380
 클라크, 존, 371-72, 376
 클레민스, 리디아 롤린스, 351
 클레민스, 존, 351
 클레이군, 미주리, 192, 202-4, 209, 248, 250-52, 258
 클레이튼, 루스, 486
 클레이튼, 윌리엄, 308, 486-87, 497, 502-4
 클리블랜드, 세라, 449-50
 키니, 유니스 로스 프랭클린, 프랭클린, 유니스 참조
 키타워너드, 115-17, 123
 김볼, 빌리트
 나부 성전에서 의식을 집행함, 579-80
 남편과의 재회, 320
 성전 봉사자들이 입을 옷을 마련함, 211
 아론 조셉 스미스를 방문함, 281
 어머니를 위해 침례받음, 424
 오하이오에 도착함, 198
 조셉과 하이럼 스미스의 죽음, 557-58
 질병, 405
 커틀랜드의 반대 세력, 296-98
 김볼, 세라, 447-49
 김볼, 하이럼, 541-42
 김볼, 히버
 물문경에 관해 알게 됨, 99-100
 미주리 탈출을 이끌, 382
 병중에 선교 사업을 떠남, 405-6

- 복수 결혼, 443, 483
 십이사도 정원회로 부름받음, 216
 엔다우먼트 의식, 453-55
 영국으로의 선교 사업, 275-77, 284, 286-88, 302-4,
 306-8, 320, 409, 302-4, 306-8, 320, 409
 윌리엄 매클렐른에게 진한 간증, 363
 이스라엘 진영, 198, 205-6, 208
 조셉 스미스를 감옥에서 석방시키려 함, 390-91
 조셉 스미스를 만남, 161-63
 조셉 스미스 사후 지도자로서의 역할, 566-67, 573,
 578, 573, 578
 조셉 스미스에 대한 충성, 275
 팔리 프렛의 축복, 249, 270-71
 킹, 오스틴, 368-69
 킹 플레트 설교, 522-24
- 타올, 낸시, 143-45
 타임즈 앤드 시즌스, 417, 464-65, 509, 535
 타히티, 515, 574-75
 탐보라, 3-5
 텔리, 영국, 428-30
 테일러, 레오노라, 252-53, 256, 404, 449, 510
 테일러, 존
 간증, 280
 개종, 252-56
 나부 익스포지터의 인쇄기 파괴, 535
 복수 결혼, 443
 상처 회복, 560-61
 상호부조회 조직 모임에 참석함, 448-51
 십이사도 정원회로 부름받음, 321
 영국에서의 선교 사업, 404, 408-9
 카테지 감옥에서, 549-51, 554
- 텍사스, 518
 텔리, 573-74
 토론토, 캐나다, 249-50, 252, 288, 313, 330-31
 토론회, 229
 토지 및 재산
 관리, 300-301, 581
 뉴욕주에서 매각한 -, 137
 대출, 260-61, 270-71
 마틴 해리스가 농장을 매각함, 77-78
 미주리에서 매각한 -, 305, 356
 미주리에서 매입한 -, 196, 211-13, 248, 251-52,
 258, 289
 미주리에서 유지한 -, 185-86
 미주리에서 이용할 수 있었던 -, 156
 미주리에서 잃은 -, 176, 190, 209, 406
 일리노이와 아이오와 준주에서 매입한 -, 399-400
 잘못된 관리, 300-301
 조셉과 에머 스미스, 504, 541, 570
 커틀랜드에서 매각한 -, 320
 커틀랜드에서 이용할 수 있었던 -, 257
 투기, 266
- 헌납의 법, 118-19, 127, 156-57, 267, 319-20, 127,
 156-57, 267, 319-20
 톰슨, 로버트, 492-93
 톰슨, 머시 필딩, 254-56, 375, 492-93, 510, 516, 579-80
 투부아이, 573-75
 티팩츠, 존, 212-14
 티팩츠, 캐롤라인, 211-14
 티팩츠, 해리스, 211-14
 턴달, 솔로몬, 573
- 파웨스트, 미주리
 교회 지도자들의 방문, 294-95
 민병대의 장악, 360-62
 반대 세력, 304
 설립, 274
 성도들의 고통, 371-72, 374
 성도들의 방어, 350-53, 355-57
 성도들이 떠남, 376-77, 379
 성전 초석이 놓임, 313-15
 스미스 가족과 리그돈 가족의 이주, 298-99, 304
 십이사도 정원회가 성전 부지를 방문함, 393-94
 집합 장소, 308
 토지 매각, 301
 폭도의 위협, 335, 340
- 파트리지, 리디아, 489
 파트리지, 리디아 클리스비, 125, 127, 134-35, 415
 파트리지, 에드워드
 감독으로 부름받음, 118
 감독으로서의 의무, 126, 130-31, 154-57, 168,
 382-83, 156-57, 168, 382-83
 개종, 106-7
 미주리로 이주함, 128
 병과 죽음, 416-17, 425-26
 선도 평의회를 열, 305-6
 십일조 제안, 319-20
 잭슨군과의 갈등, 176, 184, 186, 190, 186, 190
 잭슨군 탈출, 191-92
 조셉 스미스가 보낸 편지, 195, 391
 집합, 399-400
 커틀랜드 성전 헌납식, 222
 타르칠을 당하고 깃털이 꽃힘, 179-80
- 파트리지, 에드워드, 이세, 489
 파트리지, 에밀리
 나부를 떠날 준비를 함, 584-85
 나부의 여성 상호부조회, 463
 복수 결혼으로 조셉 스미스의 아내가 됨, 482-83,
 489-90, 507
 어린 시절, 125-27, 250-52
 에머 스미스와 복수 결혼, 507-8
 유성우 목격, 192-93
 잭슨군과의 갈등, 171-72, 179
 질병, 415-17
- 파트리지, 엘리자, 126-27, 416-17, 482-83, 489-90, 507
 파트리지, 해리엇, 179, 415-16

파피루스, 219-21, 229
 팔레스타인, 425
 팔마이라, 뉴욕, 6, 9, 11, 194
 팔마이라 지역에서 일어난 부흥 운동, 4-5, 9, 11-12, 55
 패리쉬, 벤티, 208, 265
 패리쉬, 워렌, 265-66, 271-73, 279, 281, 288, 296-97, 512
 패커드, 소피아, 449
 패튼, 데이비드, 215, 274, 283, 300, 338, 342-45, 376
 퍼트, 제이콥, 537-38
 페니스턴, 윌리엄, 323-25
 페이에트, 뉴욕, 70, 84-85, 89, 97-98, 106-7
 페이지, 존, 313, 321, 387, 393, 425, 439-40
 페이지, 하이럼, 97-98
 팩, 벤저민, 158
 팩, 폴리, 나이트, 폴리 팩 참조
 팩, 피비, 158-59
 펜실베이니아, 31
 펠쇼, 메리, 496
 펠프스, 샬리, 158, 177, 180-81, 580
 펠프스, 윌리엄
 교회 관재인 임명, 560
 나부 익스포지터, 535
 물문경에 대한 간증, 144
 미주리의 인쇄업자, 148-49
 미주리 회장단 보좌, 209
 아내와 인봉됨, 580
 잭슨군 추방, 192
 조셉 스미스에게 불리한 증언, 369
 조셉 스미스와의 화해, 418
 조셉 스미스의 대통령 선거 공약, 517
 조셉 스미스의 장례식에서 전한 설교, 556-57
 찬송가, 221-22, 237
 커틀랜드의 지부 지도자, 438
 토지를 잘못 관리함, 289, 300-301
 파문, 304
 혹인, 173-76
 평화, 15, 21-22, 159, 165, 391, 394
 페럼, 126
 포경, 514-15
 포담, 애나, 402-3
 포담, 일라이자, 402-3
 포도원의 비유, 196
 포트, 토머스, 477-78, 497, 500, 539-41, 543, 545-48, 571, 576
 포스터, 로버트, 526, 530
 포스터, 찰스, 526
 포프, 나다니엘, 478-79
 폭스 아일랜드, 272, 292-94, 311, 321-22, 328-30, 373
 플레트, 킹, 그의 장례식에서 조셉 스미스가 전한 설교, 522-24
 풀머, 테스티모나, 449
 풀머, 존, 546
 프랫, 로이스, 494
 프랫, 루이자, 494-95, 515-16, 532-34, 575-76, 583-84

프랫, 리디아, 404
 프랫, 메리 앤 프로스트, 270, 404, 454-55
 프랫, 생크롤, 92, 98, 249-50, 256, 270
 프랫, 제라, 401, 404
 프랫, 애디슨, 494-95, 573-76, 583
 프랫, 앤, 494
 프랫, 엘런, 494
 프랫, 올슨, 216, 275, 284, 387, 393, 404, 558-59, 562, 284, 387, 393, 404, 558-59, 562
 프랫, 팔리
 개중, 92-94
 미국 서부로의 이주, 577
 미주리의 감옥에서, 357-58, 367, 369, 387, 401-2, 387, 401-2
 십이사도 정원회로 부름받음, 216
 아내의 죽음과 재혼, 270
 영국으로의 선교 사업, 404, 409, 429
 오하이오 및 미주리에서의 선교 사업, 98, 100-101, 103-5, 112, 115-16, 124, 115-16, 124
 이스라엘 진영, 197
 -이 쓴 찬송가, 222
 조셉 스미스에 대한 반대, 275, 278, 280, 284-85
 조셉 스미스와의 화해, 283-84
 캐나다에서의 선교 사업, 252-56
 크룩트강 전투, 343
 히버 킵블의 축복, 249-50
 프랫, 프랜시스, 494, 533
 프랭클린, 유니스, 315-19
 프랭클린, 찰스, 316-17, 319
 프레스턴, 영국, 281-82
 프로스트, 메리 앤. 프랫, 메리 앤 프로스트 참조
 프리메이슨, 449, 454
 피싱강, 203
 피터스, 지바, 98, 103-5
 피트(해방 노래), 105
 필딩, 머시. 톰슨, 머시 필딩 참조
 필딩, 메리. 스미스, 메리 필딩 참조
 필딩, 제임스, 282-83, 286
 필딩, 조셉, 254-56, 276-77, 281-83, 409

 하갈, 433
 하나님
 간약함과 고통을 보고 우심, 109
 본질, 486-87, 522-23, 534
 성도들은 -처럼 되어야 함, 452
 속성, 411-12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보다, 216
 -의 시현, 233-34
 조셉 스미스가 시현으로 보다, 15, 233-34
 “하나님의 영”(찬송가), 237, 449-50
 하늘 어머니, 404
 하늘 어머니, 404
 하모니, 펜실베이니아, 31, 45-46, 48, 56, 59-60, 68, 45-46, 48, 56, 59-60, 68

- 하와이, 494-95
- 하워드, 6-8
- 하이드, 머린다 존슨, 297
- 하이드, 율스
 - 대회에서 가르침, 486
 - 미주리 성도들에게 불리하게 진술함, 346
 - 사도직이 회복됨, 401-2
 - 선지자 학교의 교사, 166
 - 신앙을 잃음, 275, 339, 387
 - 십이사도 정월회로 부름받음, 216
 - 영국 선교부, 276-77, 284, 287, 306-8, 409, 276-77, 284, 287, 306-8, 409
 - 커틀랜드 세이프터 소사이어티, 261, 264-65
 - 팔레스타인으로서의 선교 사업, 425, 439-41, 425, 439-41
- 하이럼, 오하이오, 146
- 학대, 신체적, 223-24
- 학자들, 46, 72
- 해리스, 테니슨, 522, 526-28
- 해리스, 루시, 49-51, 56
- 해리스, 마틴
 - 를 위한 계시, 57-58, 78
 - 물문경, 자금 지원, 45, 76-78
 - 물문경 번역을 위한 서기, 49-50
 - 물문경 원고, 분실, 51-53
 - 법정에서-, 58
 - 세 증인 중 한 명, 57, 73-75
 - 십이사도로 선택됨, 215
 - 커틀랜드의 반대 세력, 296
 - 학자들을 방문함, 46-48, 72
- 해리스, 에머, 522
- 해밀턴, 캐나다, 249-50
- 해석기. 우림과 둠뮌 참조
- 해의 왕국, 233-34, 579
- 헨록, 리바이, 291
- 행복, 기쁨 참조
- 헌납, 118-19, 127, 130, 156-57, 180, 267, 301, 319-20
- 헌터, 앤, 475-76
- 헌터, 에드워드, 475-76
- 헌팅턴, 디믹, 395-96
- 헌팅턴, 지나, 403-4
- 헨버트, 닥터 필라스터, 184-85, 194, 264
- 헤일, 아이잭, 31-32, 35, 45-46, 57-58, 60, 424
- 헤일, 에머, 스미스, 에머 헤일 참조
- 헤일, 조너선, 292-94
- 헤일즈, 찰스, 330-33, 340-41, 343-45
- 헨드릭스, 드루실라, 341-43, 379-81, 580
- 헨드릭스, 제임스, 342-45, 379-81, 580
- 협동 회사, 154-55, 159-61
- 형제 연합회, 410, 428
- 호이트, 에밀리 스미스, 564-66
- 혼즈밀, 미주리, 347-50, 353, 355, 378-79, 449
- 홀브룩, 낸시, 198, 202, 207-8
- 홀브룩, 유니스, 198, 202, 207-8
- 홀브룩, 조셉, 198
- 홀브룩, 캔들러, 198
- 홍역, 126, 150, 269, 533
- 화산, 3-5
- 화이팅, 리디아, 186-88
- 화이팅, 윌리엄, 186-88
- 확인, 85, 95-97, 307. 또한 성신 참조
- 회개, 20, 55, 66, 78, 168, 230, 276-77, 283, 298, 462-63
- 회복, 18-19, 72, 83, 114-15, 241, 433, 464, 476-77
- 휘트니, 뉴얼, 111-13, 154-55, 159-61, 319-20, 419, 453-54, 464, 560, 566
- 휘트니, 엘리자베스 앤, 111-14, 449-50, 496-97, 510, 579-80
- 휘트머, 데이비드, 68-69, 73-74, 141, 183, 192, 209, 214-15, 290, 300-301, 313-14
- 휘트머, 메리, 70-71, 74, 98, 187
- 휘트머, 제이콥, 75
- 휘트머, 존, 75, 108, 209, 289, 300-301, 304, 369
- 휘트머, 크리스찬, 75
- 휘트머, 피터, 이세, 75, 98
- 휘트머, 피터, 일세, 69-71, 187
- 휘트머 정착지, 미주리, 186-87
- 혹인, 172-75, 316-18, 500. 또한 노예 제도 참조
- 히그비, 일라이어스, 407-8, 413-14
- 히그비, 존시, 526, 530
- 히그비, 프랜시스, 526-27, 538
- 히브리어, 417-18, 453
- 하이포드셔, 영국, 428
- 히스, 러셀, 179-80
- 힝클, 조지, 331, 351, 355-57, 360-61, 364-65



위스콘신주

아이오와주

슈피리어호

휴런호

미시건호

미시건

일리노이

오하이오



• 파웨스트
인디펜던스

• 나부



인디애나



미주리강

세인트루이스

미주리

캔터키

미시시피강

아칸소

테네시

미국



미시시피

앨라배마

조지아

캐나다



메인

버몬트

•샤론

뉴햄프셔

매사추세츠

코네티컷 로드아일랜드

토론토

온타리오호

•팔마이러

•맨체스터

뉴욕

•하모니

펜실베이니아

•뉴욕시

이리호

•커틀랜드

오하이오강

뉴저지

워싱턴 D.C.

메릴랜드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 1816년 스미스 가족이 뉴욕으로 이주하다
- 1820년 맨체스터, 조셉 스미스 첫번째 시현
- 1830년 페이에트, 교회가 조직되다
- 1831년 오하이오와 미주리로의 집합이 시작되다
- 1838년 미주리에서 추방되다
- 1846년 나부를 떠나기 시작하다

사우스캐롤라이나



1820년, 진리를 찾던 한 어린 농장 소년이 시현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 3년이 흘러, 한 천사가 소년이 살던 집 근처의 산에 묻힌 고대의 기록으로 그를 인도한다. 소년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기록을 번역하고 후기에 구주의 교회를 조직한다. 곧 다른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성도가 되라는 권유를 받아들여 그와 함께한다.

그러나 회복된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해 오랜 전통을 거부한 이들은 반대와 폭력 사태를 겪게 된다. 교회의 회원이 된 여성과 남성은 성약에 충실하고, 시온을 건설하며, 험한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문제를 두고 선택을 해야 했다.

*진리의 표준*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역사를 네 권의 이야기로 풀어 쓴 신간, 성도들의 첫 번째 책이다. 제일회장단의 지시로 신속한 진행과 세심한 조사를 거쳐 쓰인 성도들은 전 세계 후기 성도들의 실제 이야기를 담고 있다. 또한, 이 책은 “교회의 유익[과] 일어나는 세대들”(교리와 성약 69:8)을 위해 역사를 기록하라는 주님의 명을 이행하는 일환이기도 하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

KOREAN



ISBN 9781629725000

